牛島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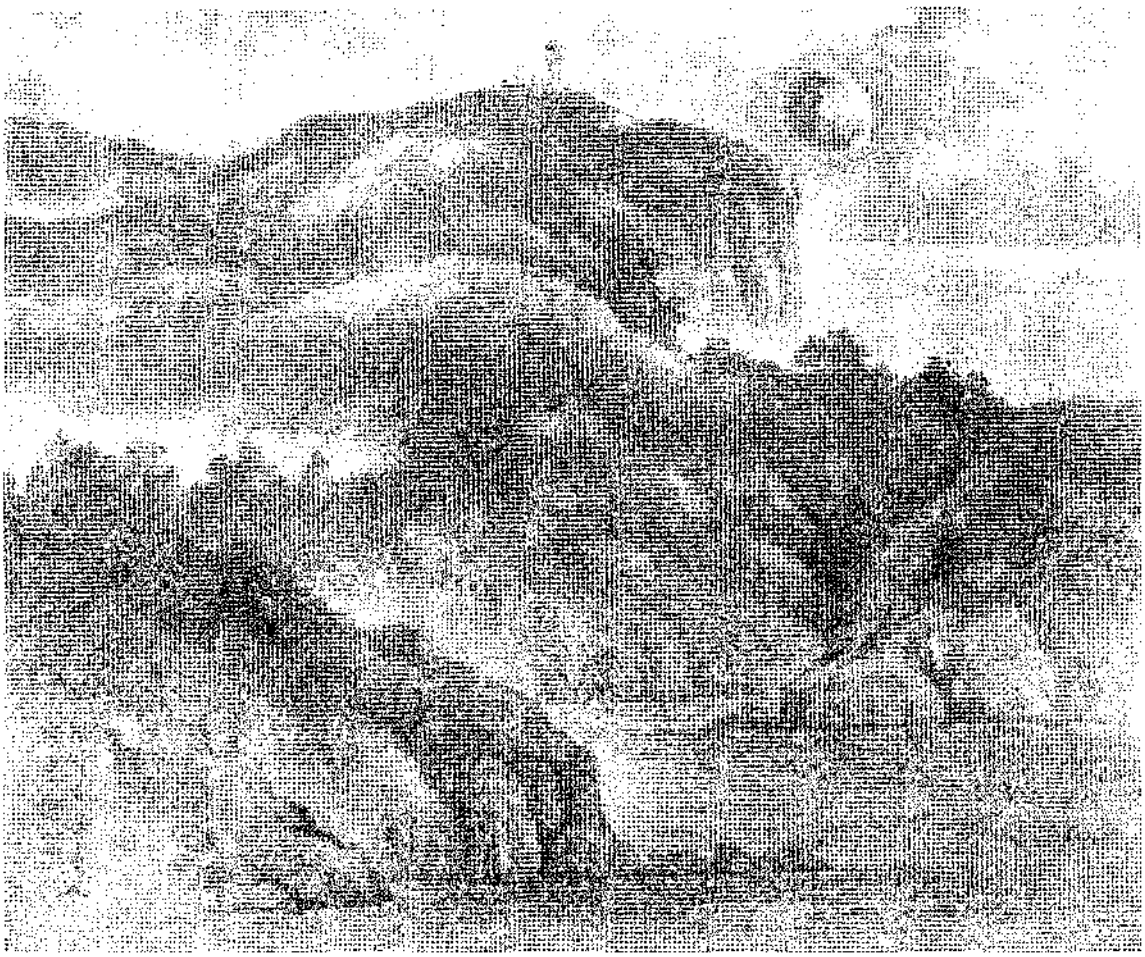
牛島誌編纂委員會

牛 島

문 충 성

내 소년의 가없는 꿈
내 친구가 태어난 곳
날마다 눈부시게 떠오르는 해를
한라산 우러러
뜻을 세워 뜻 키우며
제주시로 서울로 미국으로 떠돌았으리
70년대 자연호가 건조되어
우도 ↔ 성산포 취항때
기자였던 나는 가서 보았네
내 혼 깊은 곳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던 해돋이여 목마름이여
샘물이 없어 항시 목 마르던 섬 사람들
가난과 한숨 속을 하얗게 내달리며
저마다 가슴 속 깊숙이 우물을 파고
이젠 저마다 풍요로운 삶 일궈사느니
햇빛과 바람과 순박한 섬 사람들 파돗소리
열 닷새 달 그림자로 열리는
우도 팔경이여 머흘머흘 혼을 흔들어
때로 불면의 밤 깊어가느니
사회와 가정과 생활
꿈 속을 떠도는 이들이여
어디에 살아도 고향 그리움 속을 떠돌다
마침내
한번씩 죽을 때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느니


年豐人樂
九九五年春於海南書展志情



牛 島 全 景



□ 위 치 : 大韓民國 濟州道 北濟州郡 東經 126° 58′ 北緯 33° 29′

□ 면 적 : 6.05㎢(농경지 4.30㎢(71%), 대지 0.34㎢(6%), 암야 0.91㎢(15%))

□ 행정구역 : 4개리(12개 자연마을, 24개반)

□ 가 구 : 605가구(농어가 582, 비농어가 23)

□ 인 구 : 1,995명(남 941, 여 1,054)

□ 도 로 : 총연장 63.4㎞(포장 35.5(56%), 비포장 27.9(44%))

□ 교 통 : 도항선 3척, 자동차 146대

牛　島　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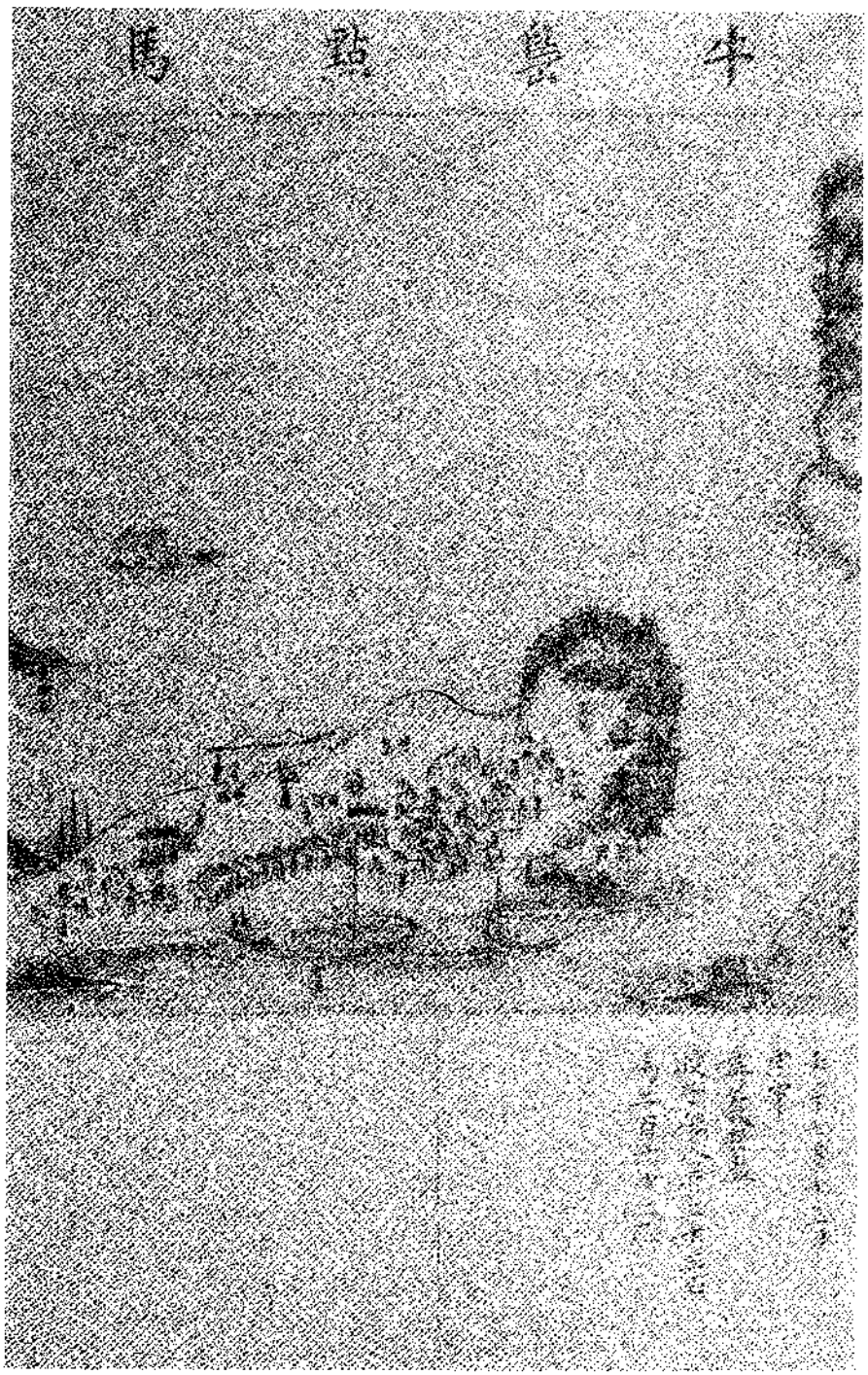
沖庵 金淨 (1486~1521)

瀛洲東頭鰲抃傾　千年悶影涵重溟
群仙上訴攝五精　鼿鼎一夜轟雷霆
雲開霧廓忽湧出　瑞山新畫飛王庭
溟濤崩洶嚙山腹　谿徑洞天深雲扃
稜層鏤壁錦纈殷　扶桑日照光晶熒
繁珠凝露濺輕濕　帝中瑤碧躔列星
瓊宮淵底不可見　有時隱隱窺窓欞
軒轅秦樂馮夷舞　玉簫弭篌來靑冥
完虹飮海垂長尾　麤鵬戲鶴翹翅翎
曉珠明定塵區黑　燭龍爛煒雙眼靑
驂蚪踏鱉多娉婷　天吳九首行泠姘
幽沈水府囚百靈　太陰之窟玄機停
仇池禹穴傳神跡　惜許絕境訛圖經
蘭橈拏入懽神形　鐵笛吹裂老蛟聽
水湧雲溟悄愁人　歸來悅兮夢未醒
嗟我只道隔門限　安得列叟乘風泠

(濟州風土錄 중에서)

〈해설 본문 40쪽 참고〉

〈牛島點馬〉



耽羅巡歷圖에서 발췌 —

海女의 노래



故 康 寬 順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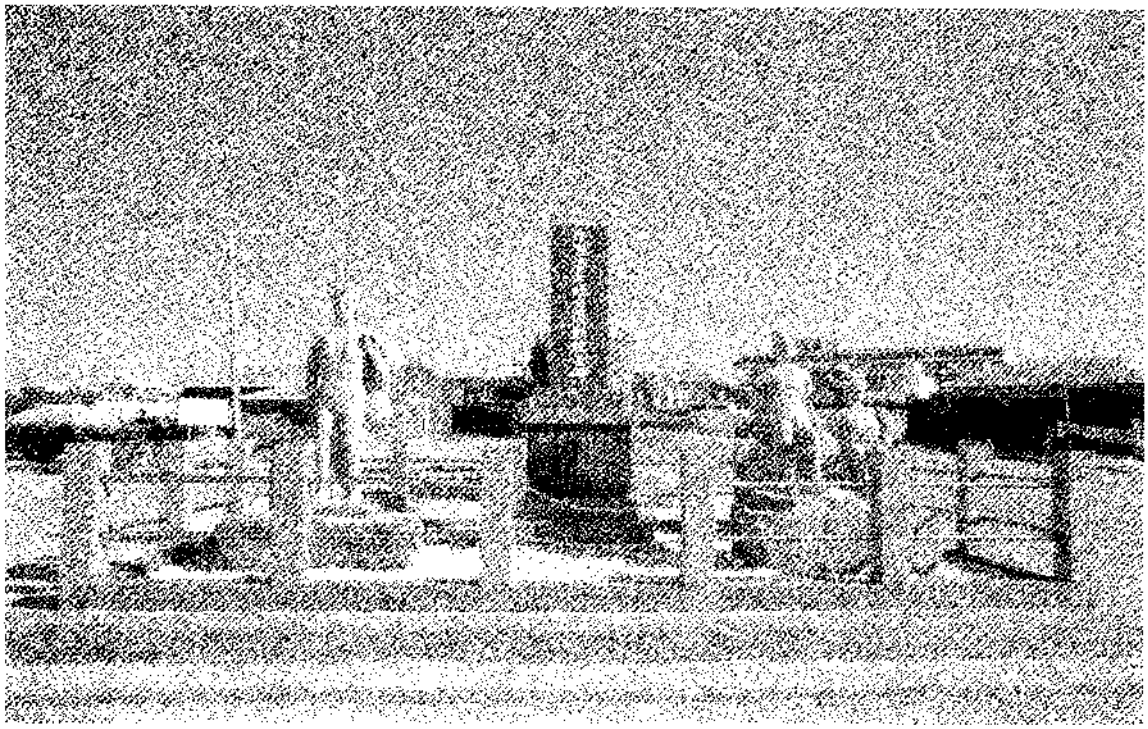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은날 무더운날 비가오는 날에도
저바다 물결위에 시달리는 몸

아침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어린아이 젖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종일 해봤으나 버는 것은 기막혀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못이룬다

이른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하고
온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어
파도세고 무서운 저바다를 건너서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배움없는 우리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도다
가엾은 우리해녀 어디로 갈가

牛島海女抗日運動紀念碑



취 지 문

한일합방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36년간 우리들의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어 혹사함은 물론 민생을 도탄속에 빠지게 하므로써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한을 남겼다.

일제는 제주도사를 경찰서장 및 어업조합장직을 겸직케 하고 일본인 또는 그들의 앞잡이에게 해산물 상매에 따른 상권을 갖게하여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해녀들의 해산물판매권을 독점하고 수탈을 다반사로 자행하였던 바 불공정행위를 근절케 하고 해녀 스스로의 권익을 회복코자 혼연히 궐기하여 전개한 운동이 해녀투쟁운동인 것이다.

이 투쟁운동은 구좌읍 세화리에서 전개는 하였으나 그 실은 이 운동의 주체적인 핵심인물이 우리 고장분들이요 참가해녀 또한 우리 고장해녀들이 대종을 이루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동인물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구속된 인사중 전흘동 출신 강관순씨는 옥중에서 해녀들의 한맺힌 사연을 노래로 만들어 그 시절 해녀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항일투쟁의식을 고취하여 민족정기를 굳게 하였다.

이에 본추진위원회는 위와같은 사항을 듦어 그 시대 우리 고장해녀들의 굳센 생활의지력과 항일투쟁의 투혼을 기리고 더불어 해녀의 노래비와 해녀상을 세워 후세에 전승함은 물론 영원히 기념하고자 노래비 및 해녀상 건립을 추진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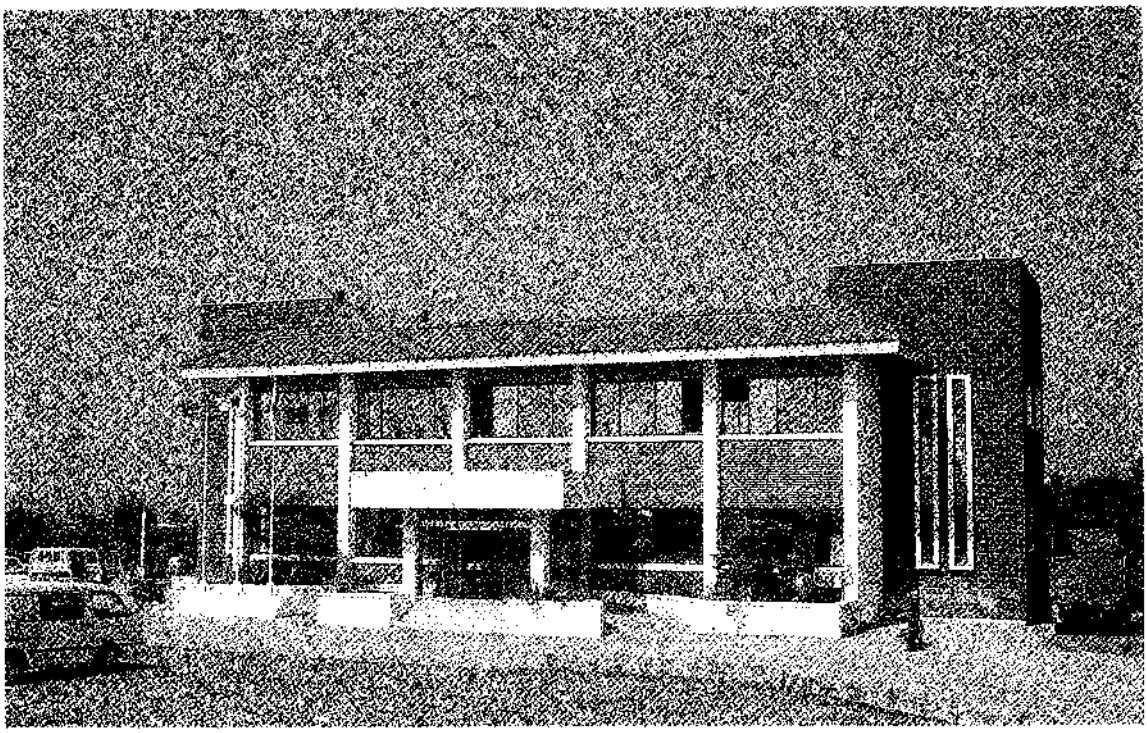
1995년 월 일

해녀비 및 해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신 인 홍

管 內 主 要 機 關 一 覽

□ 牛島面事務所



연 혁

○ 1702(숙종 28년) : 국유목장
○ 1842(헌종 8년) : 입경허가
○ 1844(헌종 10년) : 김석린 진사 일행 입도
○ 1900(경자년) : 향교훈장 오유학선생이 연평으로 명명
○ 1927(정묘년) : 행정구역 연평리 2개구(1구, 2구)로 분구
○ 1931(신미년) : 2개구를 연평리로 통합 이장제 부활
○ 1951. 7. 1 : 구좌면 연평출장소 설치
○ 1980. 12. 1 : 구좌읍 연평출장소
○ 1986. 4. 1 : 북제주군 우도면 승격(4개계, 정원 15명)
○ 1986. 4. 1 : 초대면장 김항윤
○ 1995. 7. 25 : 2대면장 원복연
○ 1996. 5. 10 : 3대면장 고창도(현)

□ 天 津 里



▲ 동천진동

서천진동 ▼





◀ 이사무소

□ 천진리사무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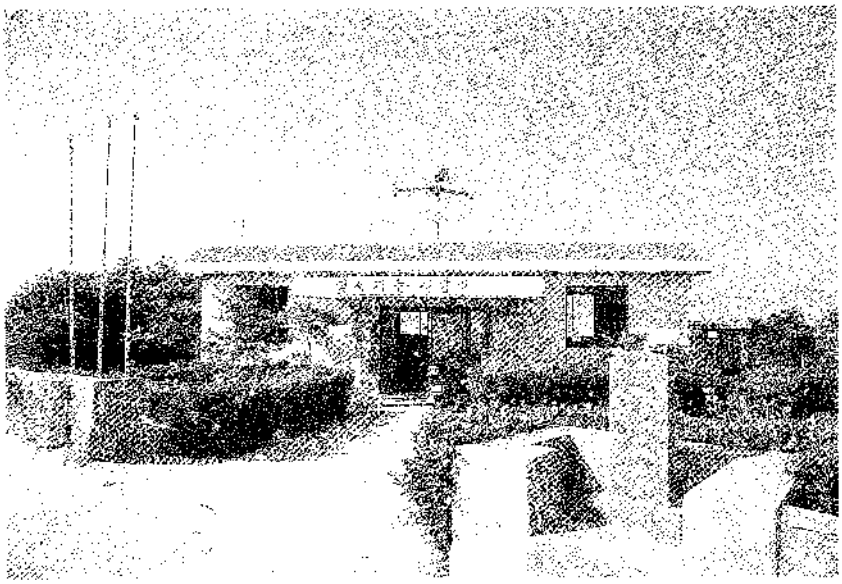
- 위치 : 우도면 천진리 1784-1
- ○ 1986. 4. 1 이사무소 개소
- ○ 초대이장 呂達鉉
- ○ 2대이장 高舜煥
- ○ 3대이장 尹敬植(현)

□ 西 光 里



▲ 서광리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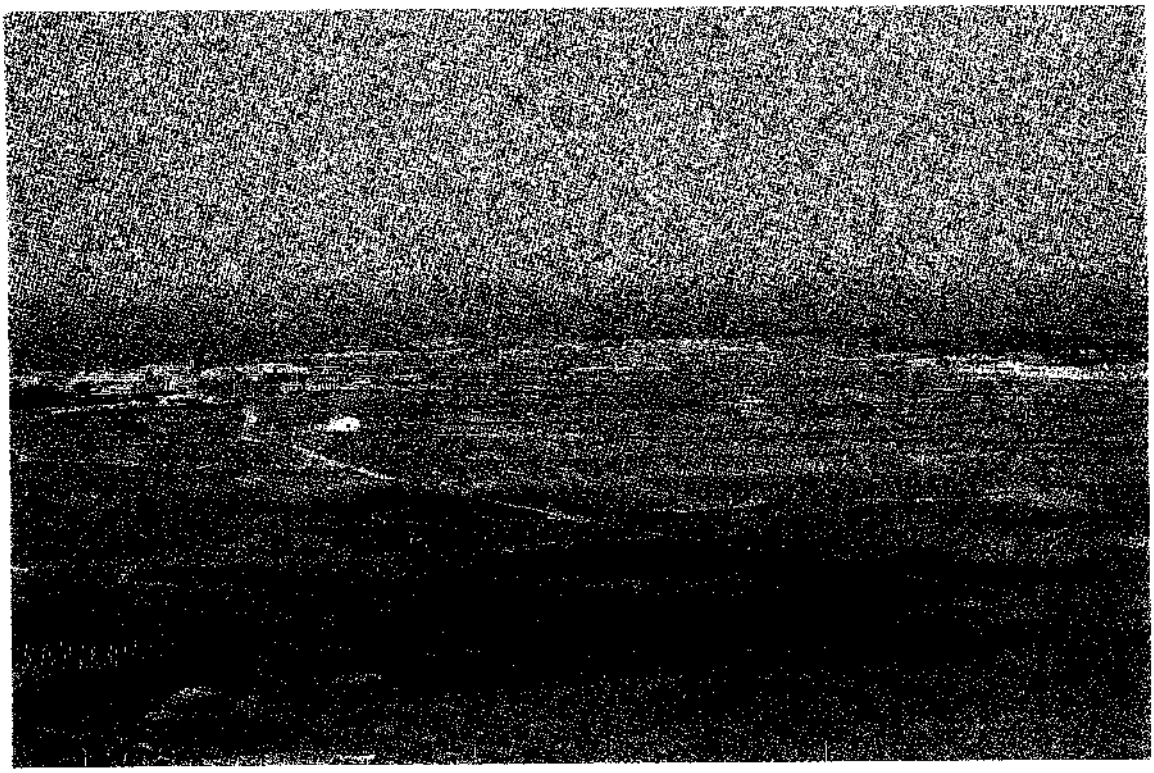
▼ 이사무소



□ 서광리사무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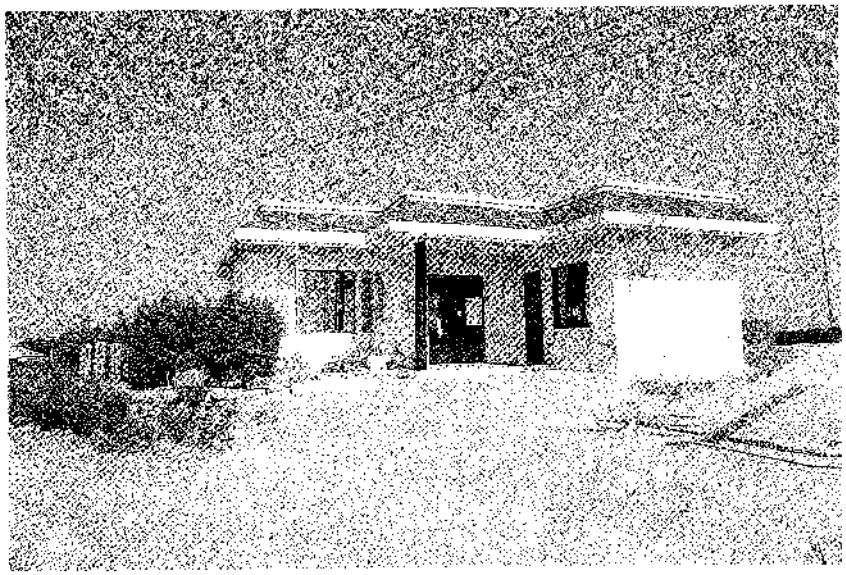
- 위치 : 우도면 서광리 2173-1
- ○ 1986. 4. 1 이사무소 개소
- ○ 초대이장 康淳一
- ○ 2대이장 吳宗英
- ○ 3대이장 鄭滿植
- ○ 4대이장 金勝泰 (현)

□ 五 逢 里



▲ 오봉리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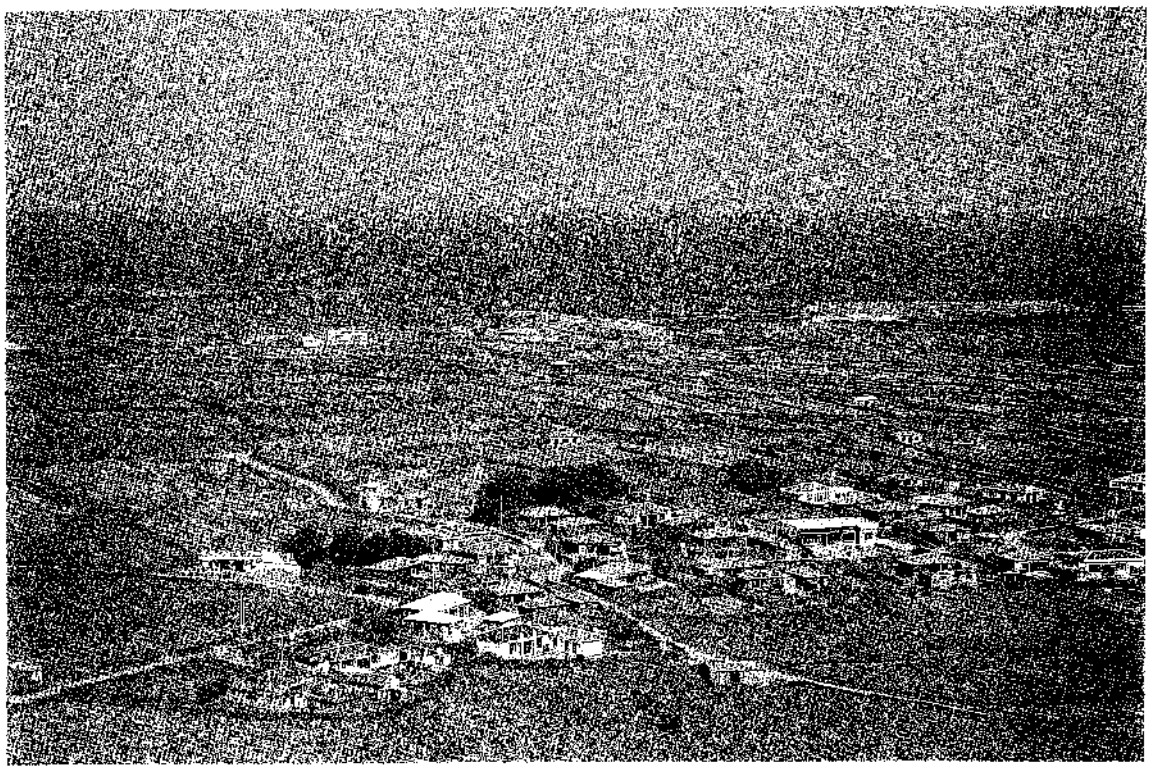
▼ 이사무소



□ 오봉리사무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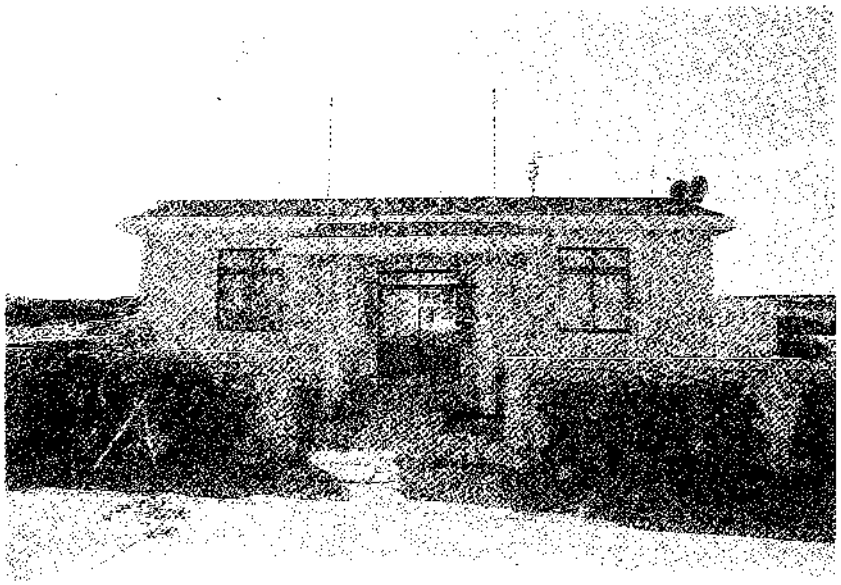
- 위치 : 우도면 오봉리 1011-1
- ○ 1986. 4. 1 이사무소 개소
- ○ 초대이장 姜哲石
- ○ 2대이장 高豪秀
- ○ 3대이장 韓斗英
- ○ 4대이장 高財秀(현)

□ 朝 日 里



▲ 조일리전경

▼ 이사무소



□ 조일리사무소 □

- 위치 : 우도면 조일리 118-4
- ○ 1986. 4. 1 이사무소 개소
- ○ 초대이장 韓斗京
- ○ 2대이장 金景贊
- ○ 3대이장 高昌植
- ○ 4대이장 呂完炯
- ○ 5대이장 金榮澤 (현)

□ 演坪中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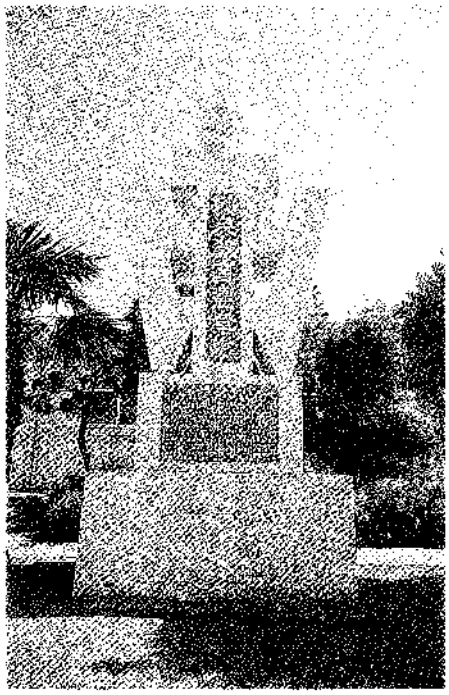


▲ 전　　경

▼ 학교입구



▼ 국민교육헌장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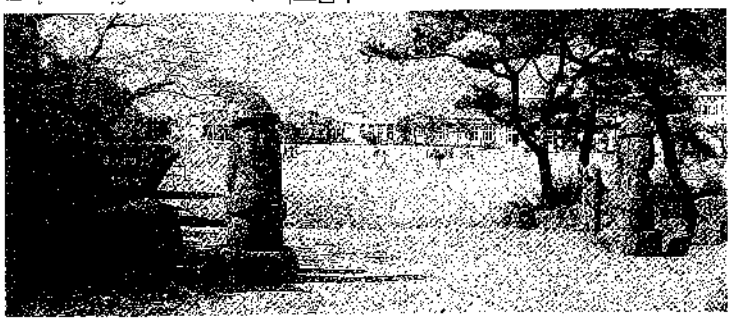
□ 연　혁 □

- ▶1954년 5월 22일 연평중학교 설립인가(3년제 3학급)
- ▶1954년 6월 16일 연평국민학교장겸 연평중학교 교감 고태주 선생 부임
- ▶1954년 6월 20일 개　　교
- ▶1957년 1월 21일 초대교장 김두봉 선생 부임
- ▶1979년 12월 26일 학칙변경으로 6학급 증설인가
- ▶1984년 12월 20일 본관건물 6실 신축(현위치)
- ▶1993년 3월 1일 3학급 편제
- ▶1996년 2월 9일 제40회 졸업식(졸업생총수 2,327명)
- ▶1996년 3월 1일 제26대교장 현상윤 선생 부임

□ 演坪初等學校



▼ 학교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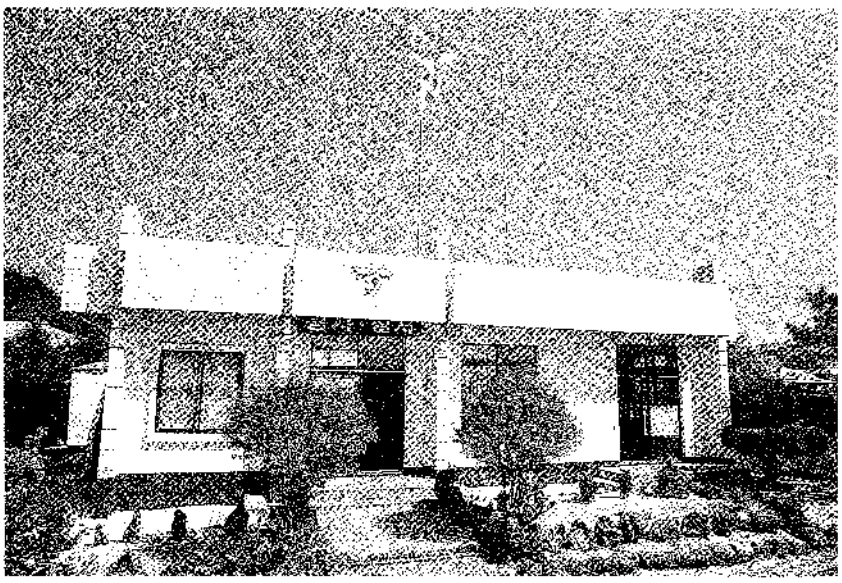
▼ 사립연평심상소학교 제1회 졸업기념사진



□연 혁□

20. . 영명의숙 개설(김삼용, 고태주)
29. 5. 10 영명서당 인가
29. 5. 15 개교(설립자 김윤옥)
36. 1. 16 연평사립보통학교 인가
동년 4월 1일 개교(4년제)
38. 4. 16 연평심상소학교로 개칭
(4학급, 설립자 전인홍)
39. 3. 25 제1회 졸업생 51명 배출
41. 4. 1 사립 연평국민학교로 개칭
(6년제, 6학급 인가)
45. 10. 1 연평 공립 국민학교로 개칭
50. 6. 1 연평국민학교로 개칭
81. 3. 10 병설 유치원 개원
85. 3. 2 특수학급 1학급 신설
95. 3. 1 7학급 인가(특수학급 포함)
96. 3. 1 연평초등학교로 개칭
제58회 졸업(1996. 2. 15) : 졸업생 4,090명

□ 濟州警察署 牛島派出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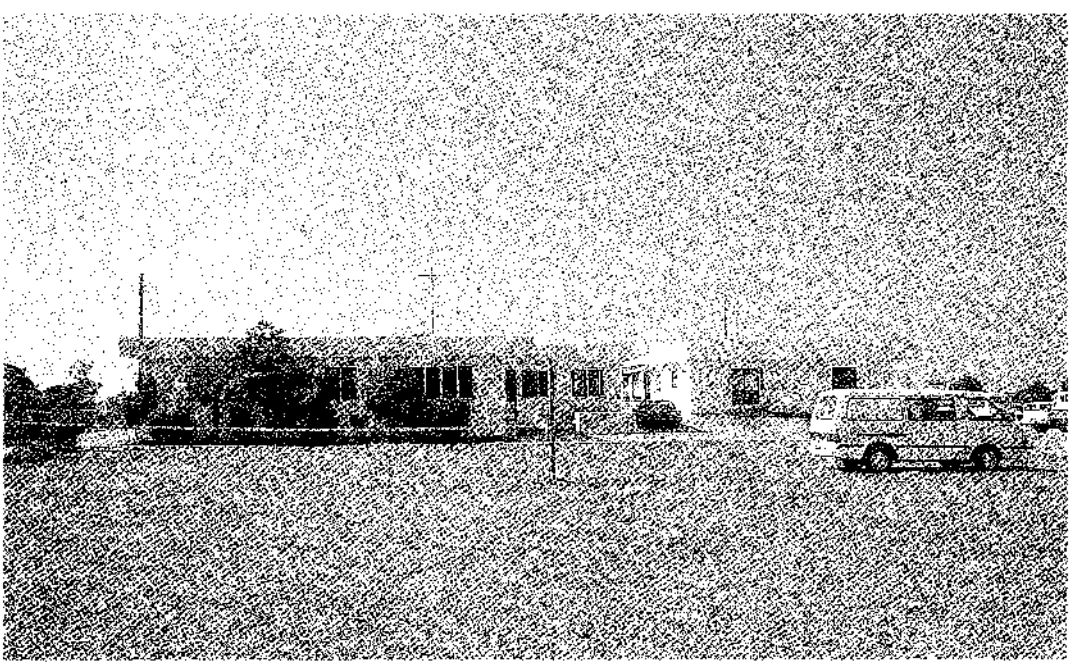


우도면 천진리 1675-8

□연 혁□

45. 10.	제주경찰서 우도경찰관 파견소 신설
48. 3.	제주경찰서 우도지서로 개칭
49. 4.	성산포경찰서 신설과 동시 성산포경찰서 우도지서로 개칭
54. 10.	우도출장소로 개칭
56. 12.	우도출장소 폐지, 구좌지서 관할에 편입
56. 12.	우도출장소로 재복귀
57. 7.	성산포경찰서 폐지와 더불어 제주경찰서 관할
75. 10. 30	제주경찰서 우도출장소를 우도지서로 개칭
86. 4. 1	우도면 승격
95. 1. 1	우도지서를 우도파출소로 변경

□ 北濟州郡保健所 牛島保健支所



우도면 서광리 1451-3(1990년 1월 개소)

□ 濟州 牛島郵遞局



□연 혁□

79. 12. 29 세화우체국 우도 분국 개국
82. 4. 12 우편집배업무 개시
〃 우도--성산포간 인부운송선로 개설
83. 8. 16 집배구 신설
87. 12. 17 제주 우도우체국으로 승격

□ 韓國電力公社 濟州支社 牛島駐在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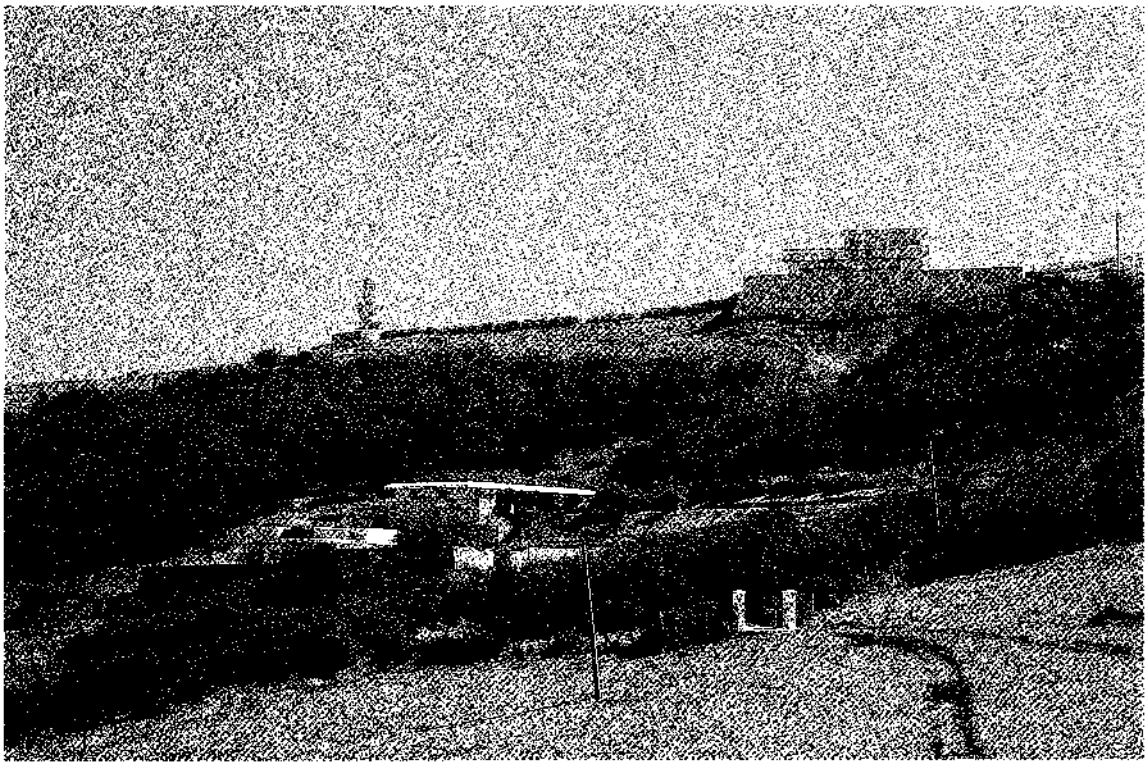


우도면 서광리 145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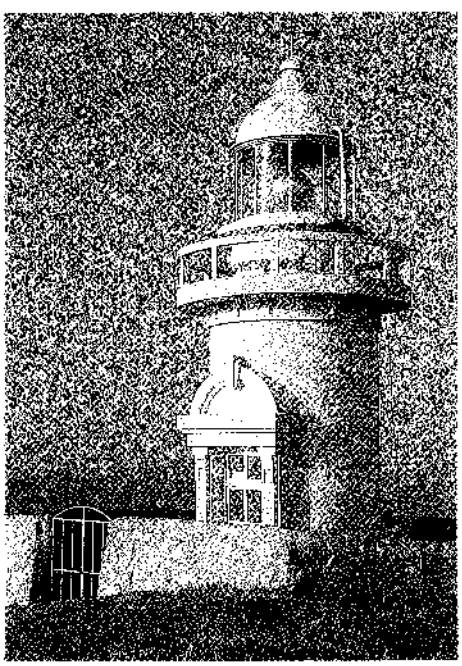
□연 혁□

1984. 1. 20 신설
초대소장 김명호
2대소장 김봉건
3대소장 김관우
4대소장 오남석
5대소장 이병찬
6대소장 고시경(현)

□ 濟州地方海運港灣廳 牛島港路標識管理所



우도면 조일리 산 18



┐연 혁 ┌

◈ 기구(등대 소속기관)

- ○ 1906. 12 : 대한제국 세관공사부 등대국
- ○ 1946. 11 : 운수부 해상운수국
- ○ 1948. 11 : 교통부 해운국
- ○ 1955. 2 : 해무청 시설국
- ○ 1961. 10 : 교통부 제주지방 해운국
- ○ 1976. 12 : 제주지방해운항만청 우도항로표지관리소

◈ 시 설

- ○ 1906. 3 : 등대 초점등(무인등대, 아세찌링가스등)
- ○ 1959. 9 : 유인등대로 개량
- ○ 1960. 3 : 광파표지 개량(DCB24형 설치)
- ○ 1960. 3 : 음파표지 설치(에어싸이렌)
- ○ 1981. 12 : 등대시전(AC전원)인입

□ 舊左農協 牛島支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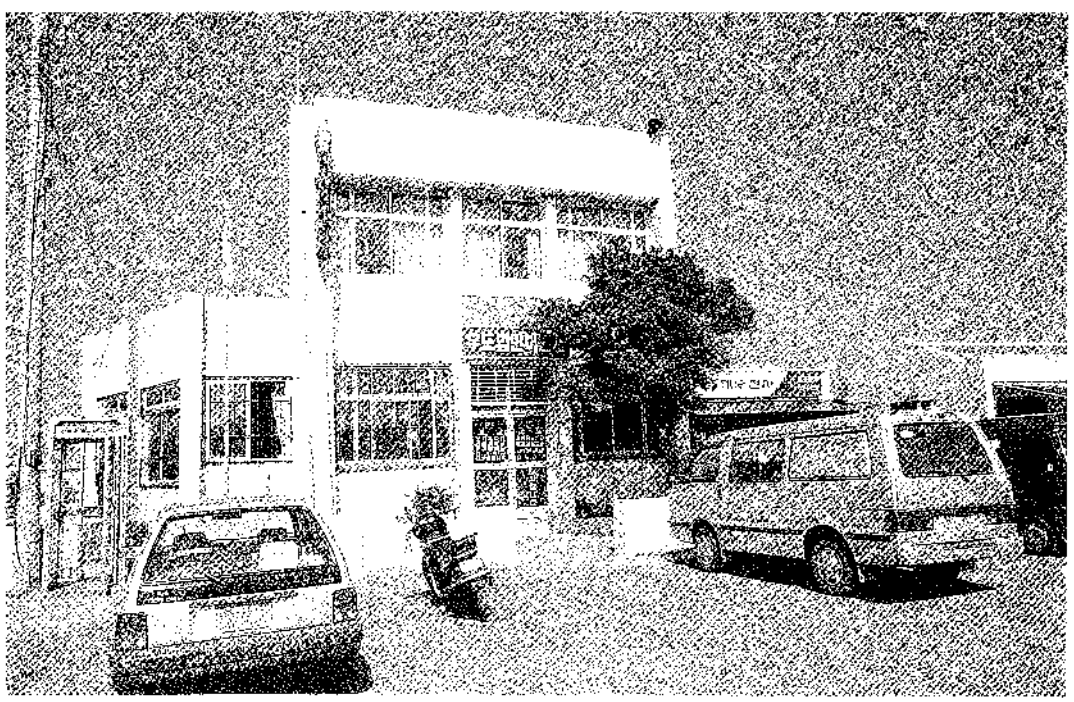


우도면 서광리 1404-8

□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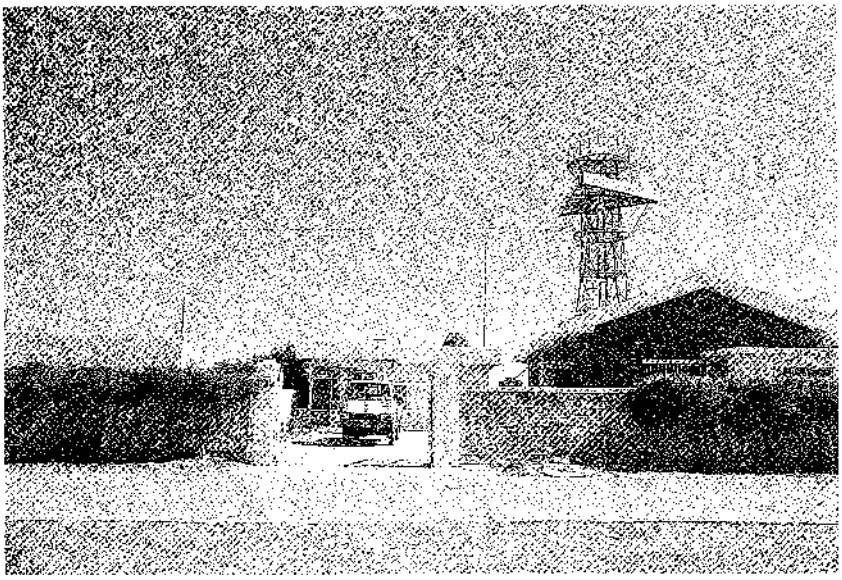
62. 2. 23 연평리(동)농업협동조합 설립
〃 초대 고성화 조합장 취임
65. 8. 24 2대 강용전 조합장 취임
72. 7. 4 3대 김항길 조합장 취임
73. 8. 29 연평 단위 농업협동조합으로 개칭
77. 3. 1 구좌단위농업협동조합과 합병. 연평분소 개점
82. 5. 1 자기앞수표 취급
87. 2. 9 연평분소를 우도분소로 개칭
87. 2. 16 환업무 취급
89. 4. 1 구좌농업협동조합 우도지소로 개칭
90. 6. 25 온라인 업무 취급
95. 3. 9 윤철호지소장 부임

□ 濟州市水協 牛島出張所



우도면 서광리 1404-7

□ 韓國通信 城山浦電話局 牛島分局



□ 연 혁 □

75. 1. 1 제주전신전화국 우도분국 신설
79. 5.30 이동단위 전화 1회선 운용
79.12.29 세화우체국 우도분국으로 개편
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 발족, 성산포분실로 흡수
84. 1. 1 한국통신 성산포전화국 우도분국으로 개편
93.10.30 자동식 100회선 증설 (총 740회선)
96. 현재 668가입자, 공중전화 18대, 전용회선 41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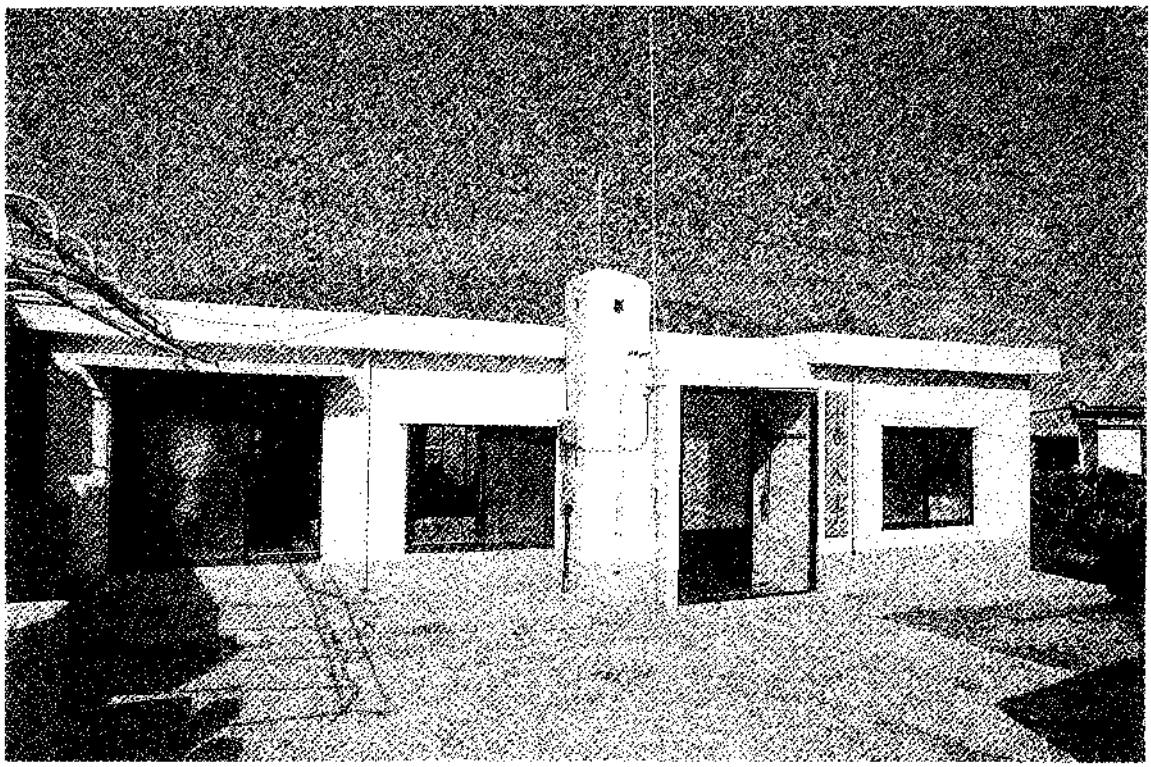
— 1992년 1월 개관 —
현재 청소년수련실, 면개발자문위원회, 면바르게살기위원회, 면새마을협의회(부녀회포함) 우도면청년연합회, 새마을문고및예식장으로이용

□ 牛島面 福祉會館



우도면 서광리 1393-1

□ 大韓老人會 北濟州郡支會 牛島面 老人亭



우드면 서광리 1404

우도노인회

- 고 문 우봉수, 정찬경, 우봉호
- 회 장 신 인 홍
- 부회장 윤수남, 고태건
- 감 사 김군선, 정한준
- 총 무 오 영 돈

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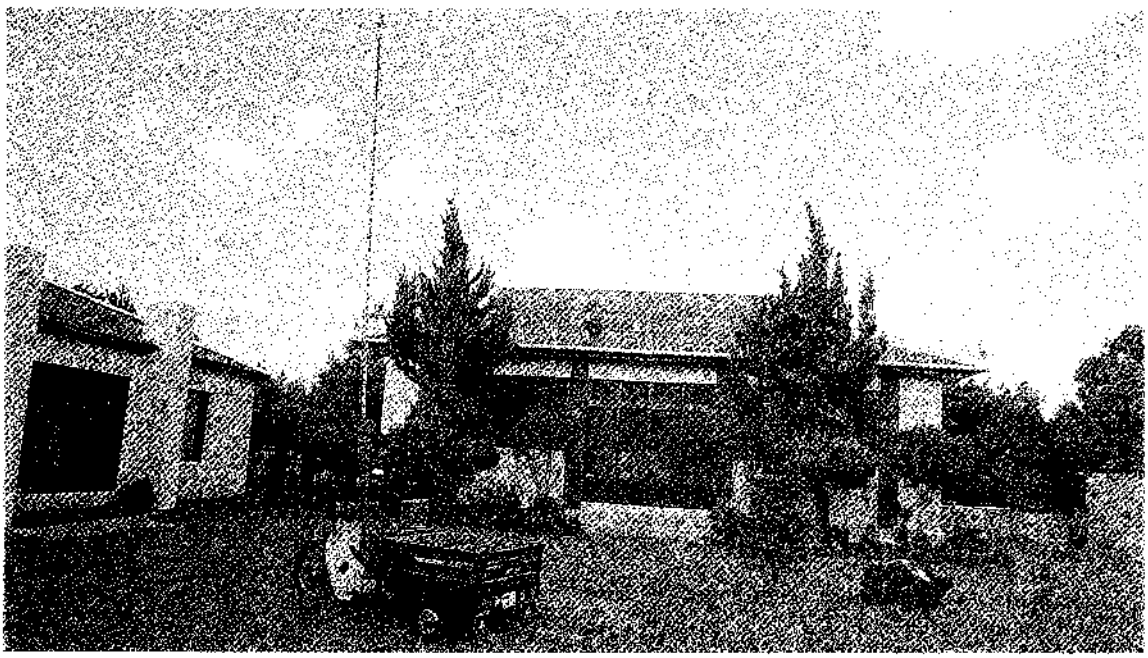
강상칠, 이기환, 김항육, 우두석, 김창백
김계환, 김태수, 공내수, 김용교, 고봉필

* 연혁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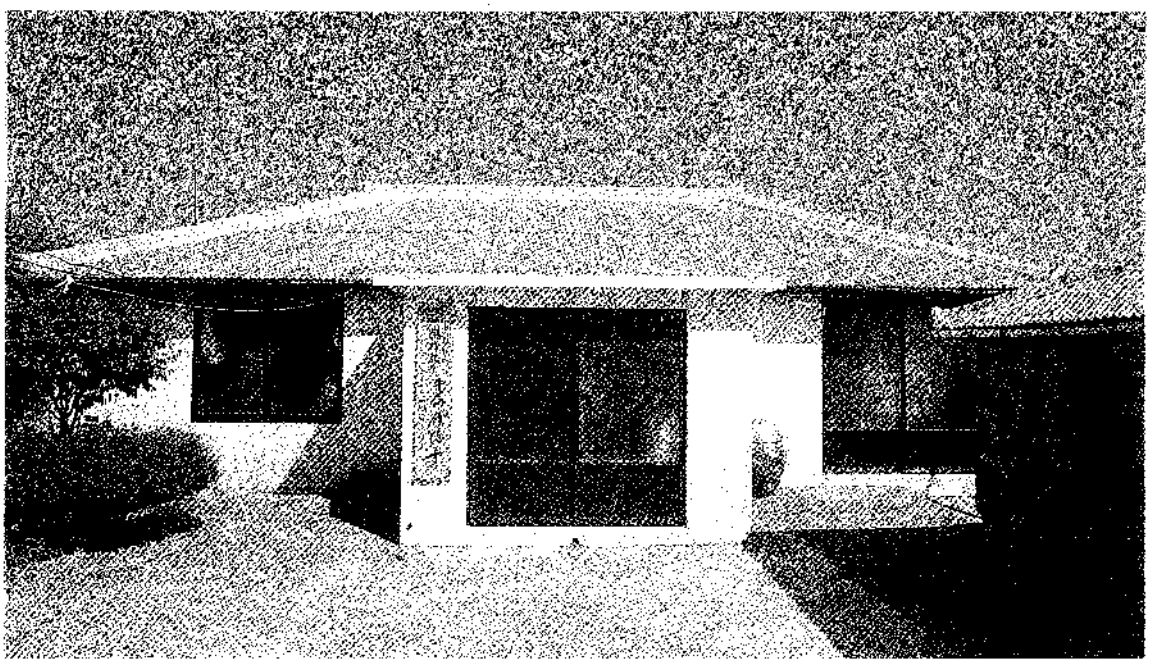
92. 1월. 우도면 노인정 인가
8월. 어린이충효교실 4개 이사무소 실시
93. 2월. 학생선행상 시상 중 1, 초등 1명
7월. 우도면 전 가정에 국기보급 700매
8월. 어린이충효교실. 우도면 복지회관
8월. 효자상추천 북제주지회장상 시상
93. 10월. 장수노인위문 남 6, 여 1
12월. 겨울충효교실, 우도면복지회관
94. 2월. 학생선행상시상 중 1, 초등 1
○ 수국묘목파종, 도로변
○ 약초시험재배
○ 가훈제작 6편출품 지회 입상
8월. 충효교실, 복지회관

宗 教 團 體 一 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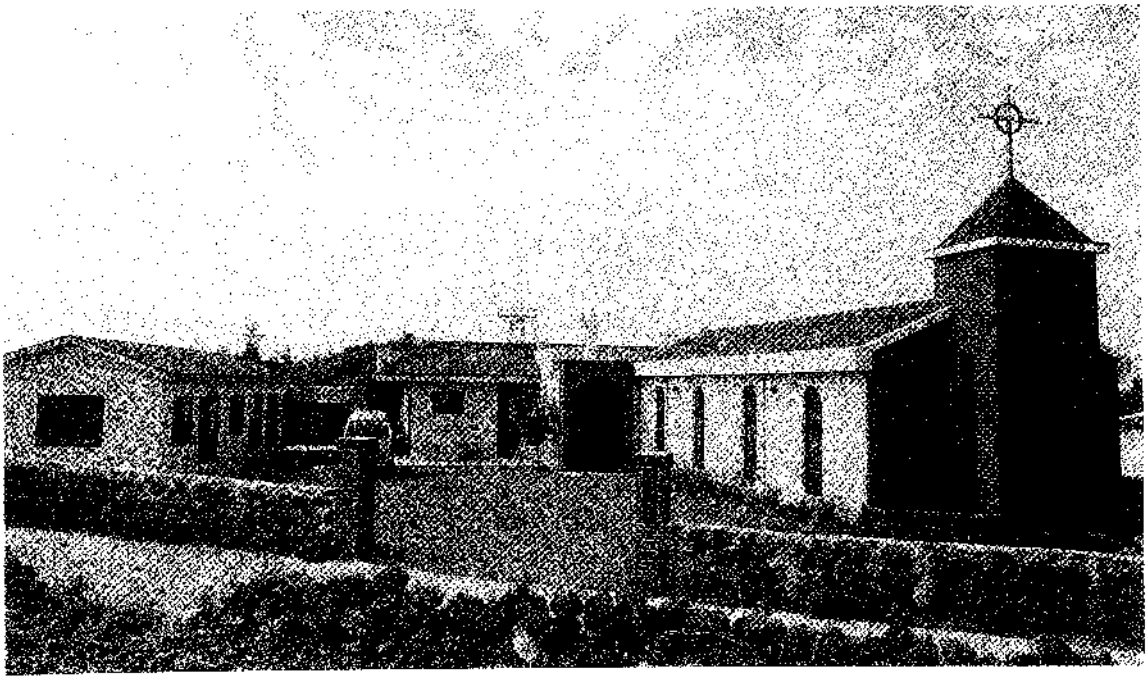
□ 대한불교 태고종 금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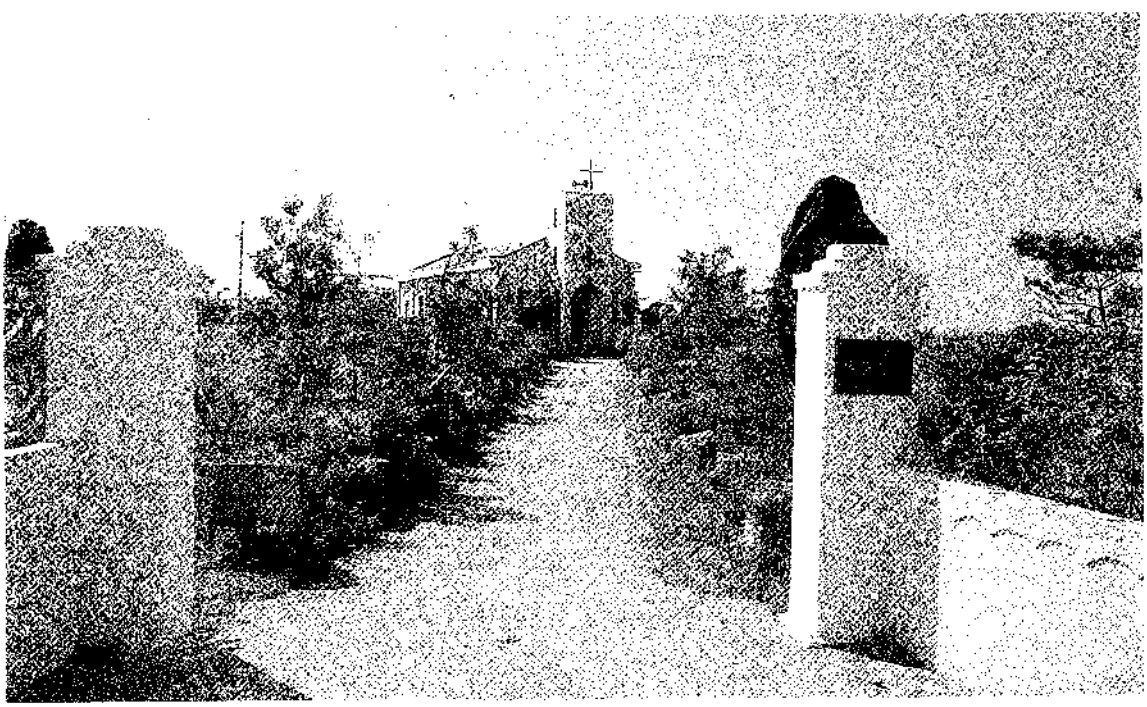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우도 수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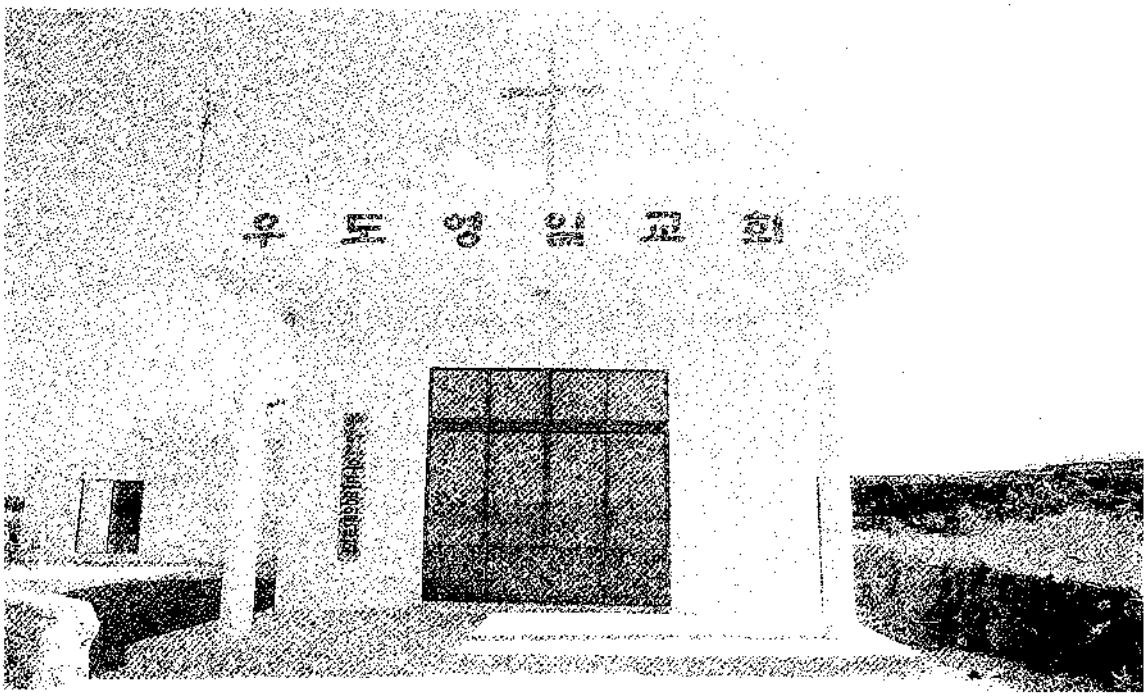
□ 천주교 우도교회



□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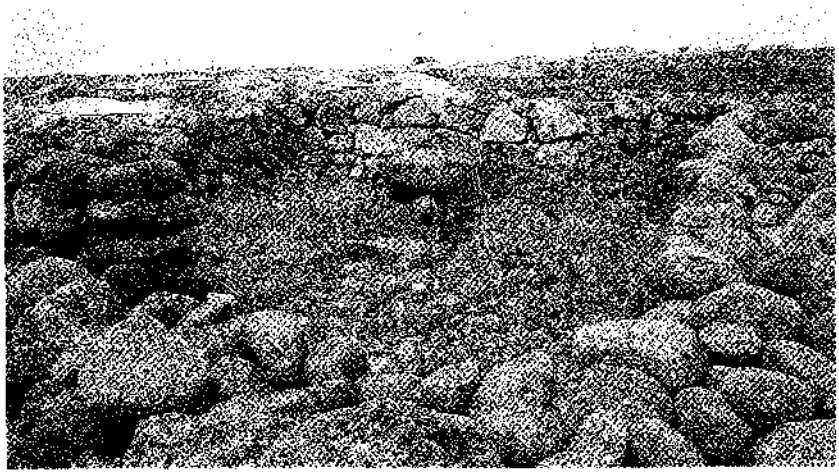
□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우도영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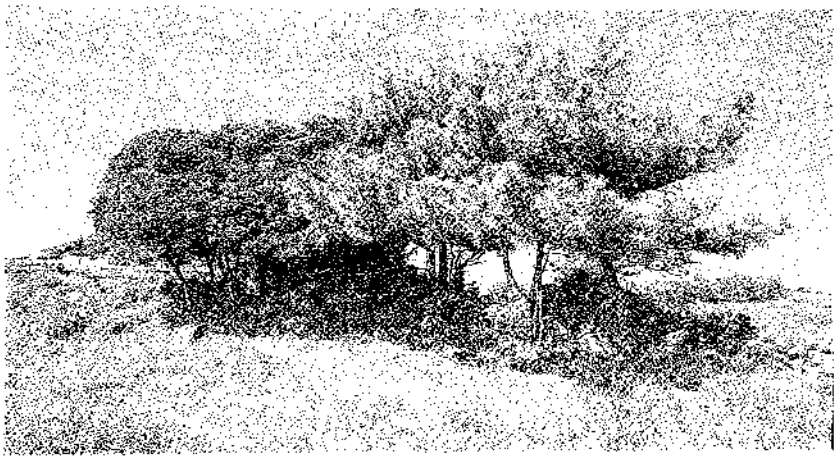
□ 천지대안교 우도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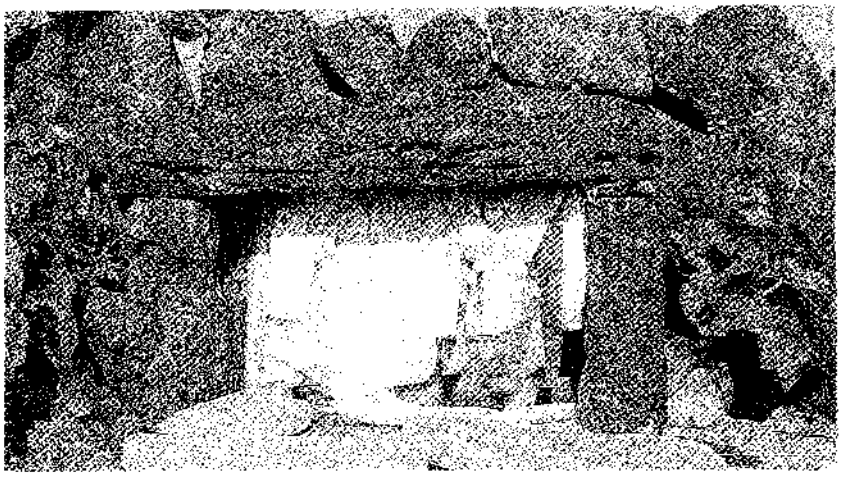
□ 堂



▲ 하늘이당



▲ 서낭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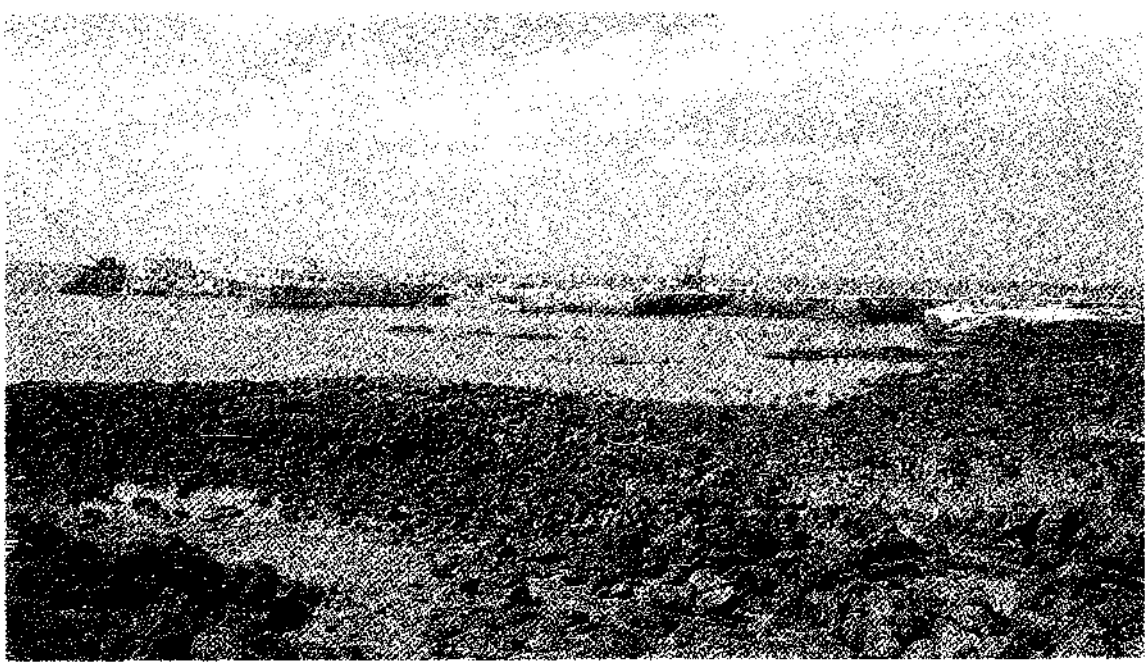
◀ 비양리 돈지당

浦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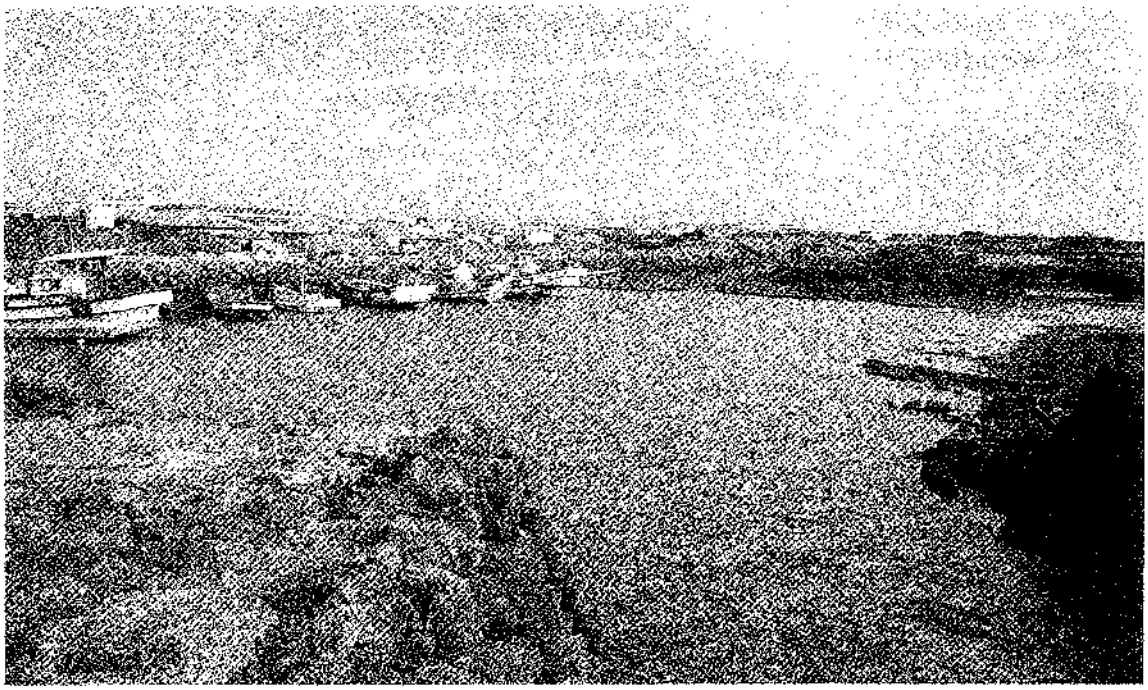
□ 牛島港(東天津洞 浦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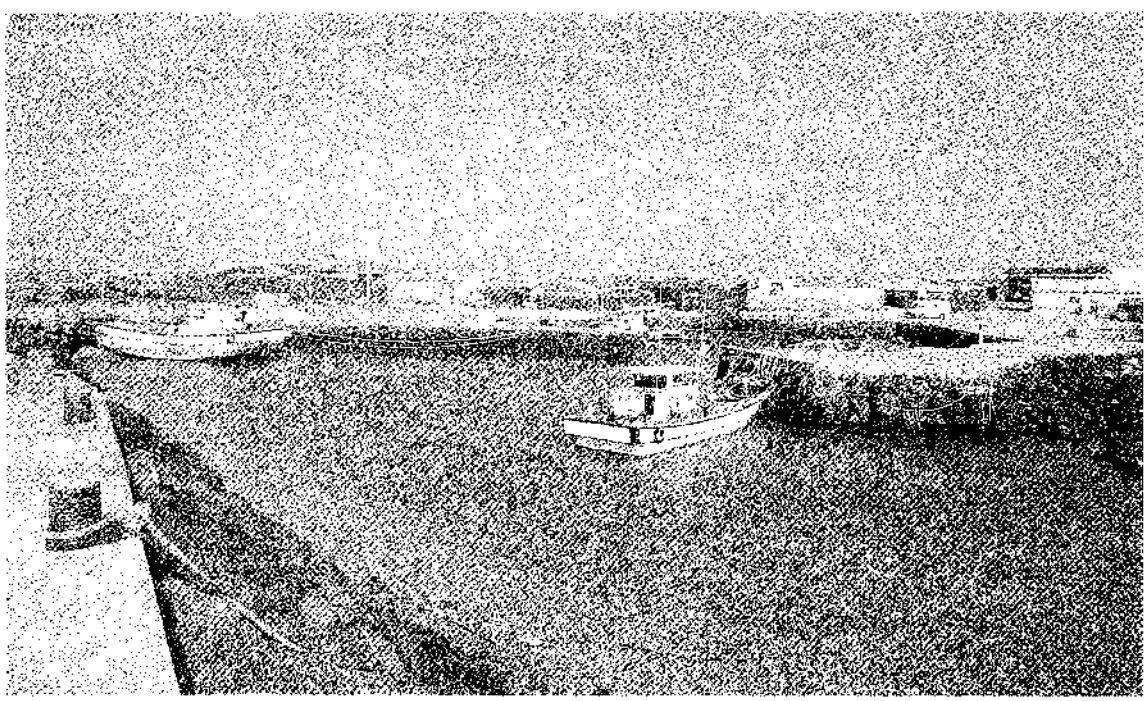
□ 下牛目洞 浦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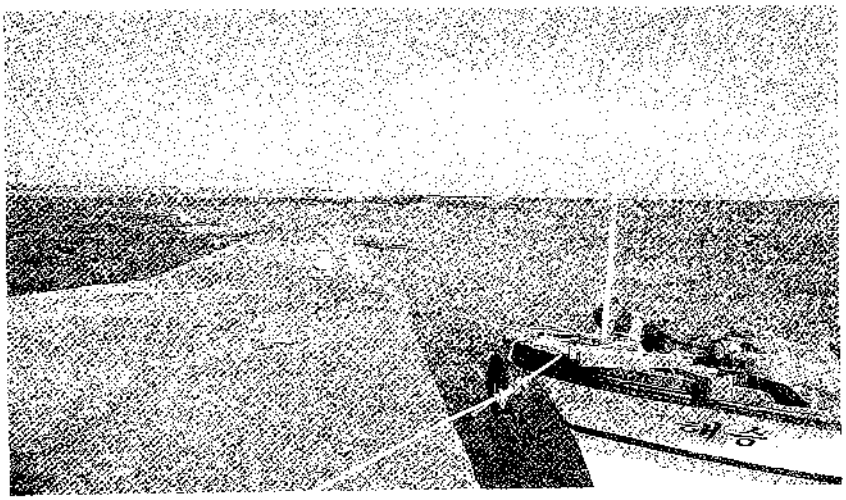
□ 周興洞 浦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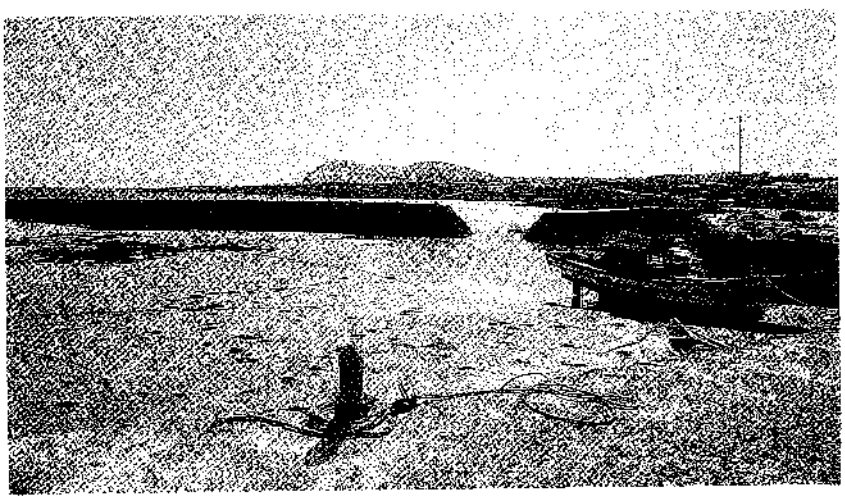
□ 錢屹洞 浦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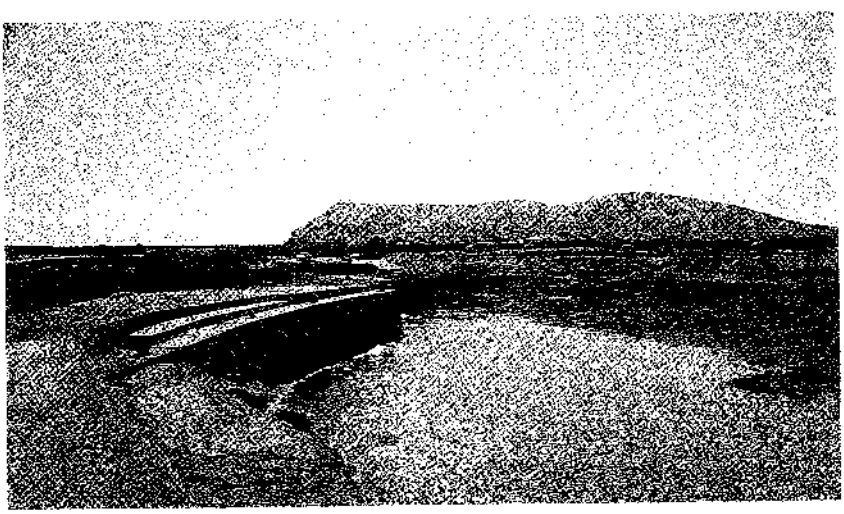
□ 下古水洞 浦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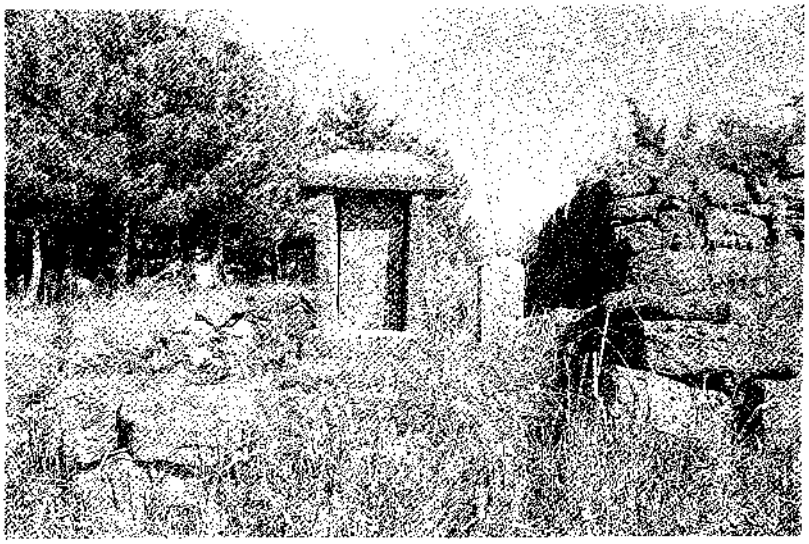
□ 迎日洞 浦口



□ 飛陽洞 浦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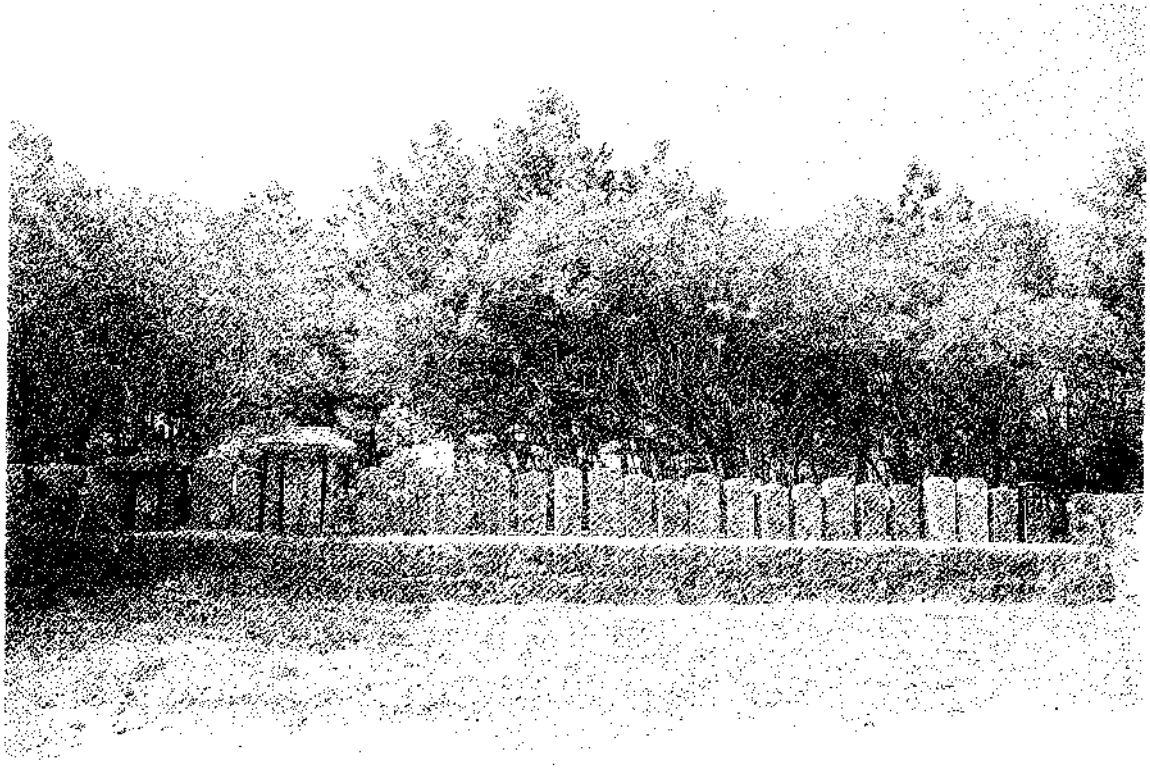


□ 金進士 遺愛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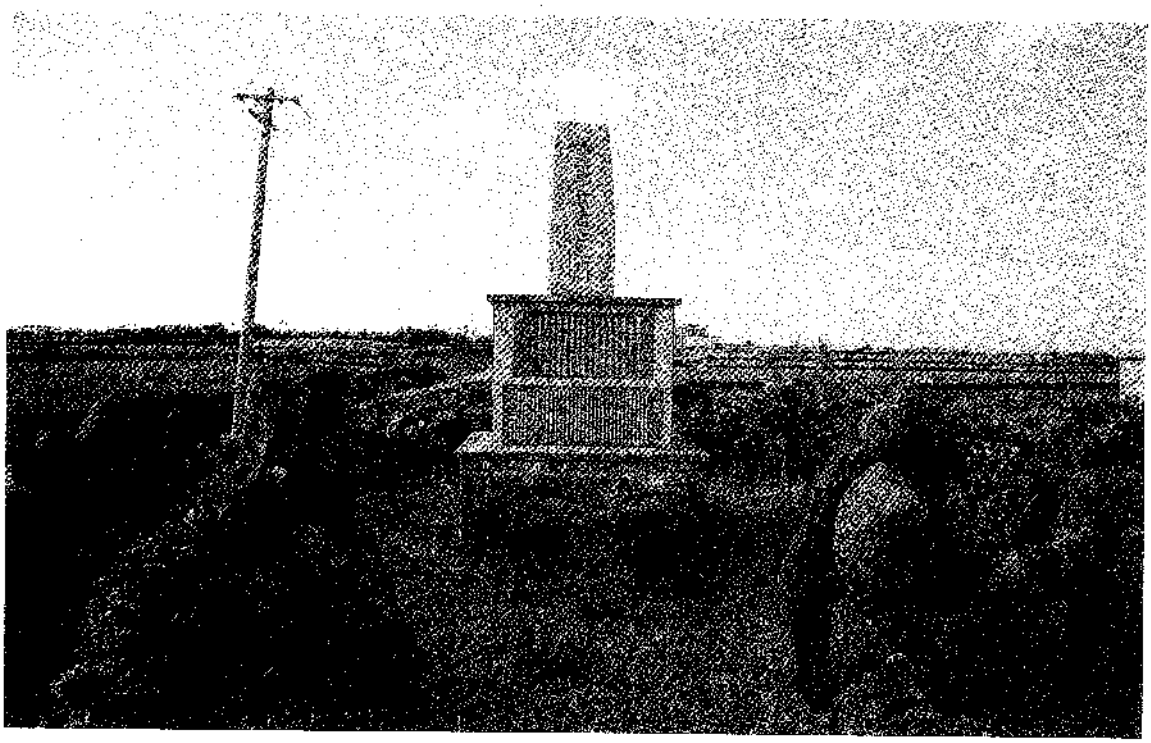




□ 功 德 碑



□ 高達仁 孝子碑



完文(譯文)

이 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일찌기 들으니 어린이가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나면서부터 타고난 양능(良能)이라 하였다.

이제 高宗庇의 아들이 9세인데 島中에도, 외딴 섬에 태어나서도 하늘이 주신 타고난 良能이 있어 놀이를 익힐 나이에 능히 孝誠을 나타내여 그의 아버지 죽음앞에 실오라기 같은 목숨을 잇게하고자 指血을 거듭 한모금씩 마시게 하였으니 칼날에 끊긴 손가락이 흔적이 너무나 애처롭다.

이를 본 고을 첩보와 마을 보고서를 같이하니 눈으로 보는듯 하다.

슥 이 말을 믿는 것은 소위 어린애가 아버지를 사랑함이 본연의 양능인 까닭이다. 하물며 도민들은 訴訟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人倫을 저버리는 일을 예사로 하며 눈을 부릅뜨고 사소한 利益을 탐내어 돌아 다니는 판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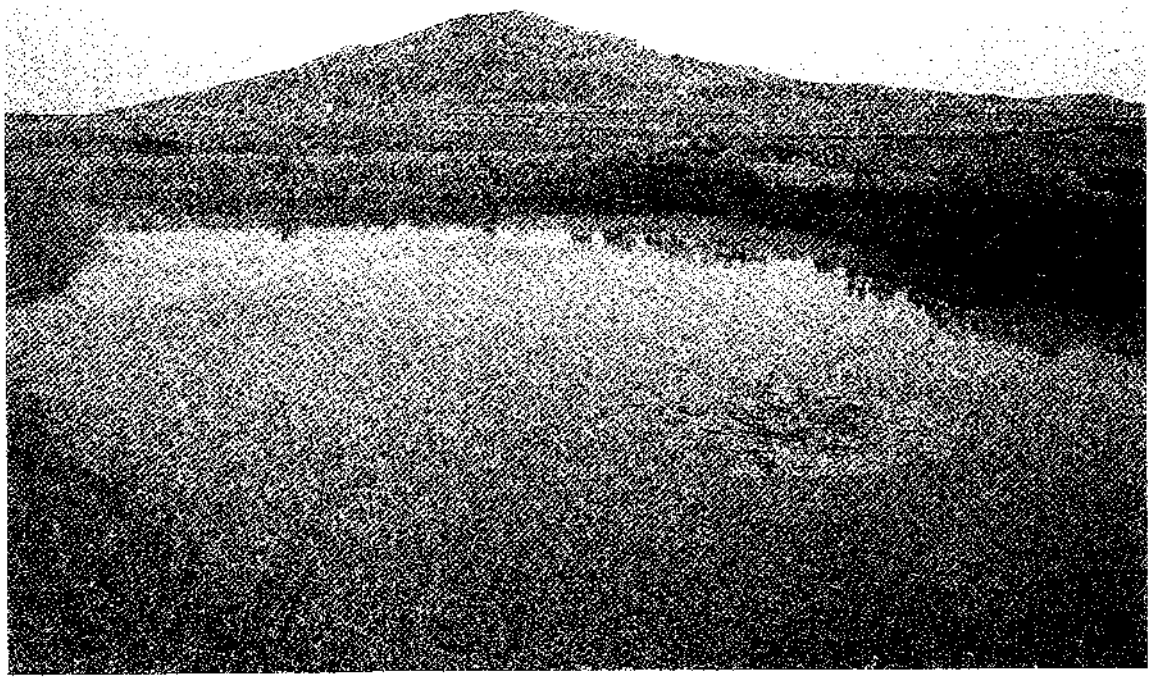
한 孝子 첩이 나오게 되니 참으로 多幸한 일이다. 赴務후에 처음이라 政事를 듣에 仁義忠孝의 道를 가르침에 있어서 옳고 떳떳한 일이로다.

이에 특별히 表彰하는 바이니 牛島동네에서 보고한 아이의 이름은 達仁이라 하였으니 일후에 身戶의 役을 전례에 따라 탕감하는 뜻을 여기에 完文을 만들어 밝혀주노라.

高宗 5年(1869) 6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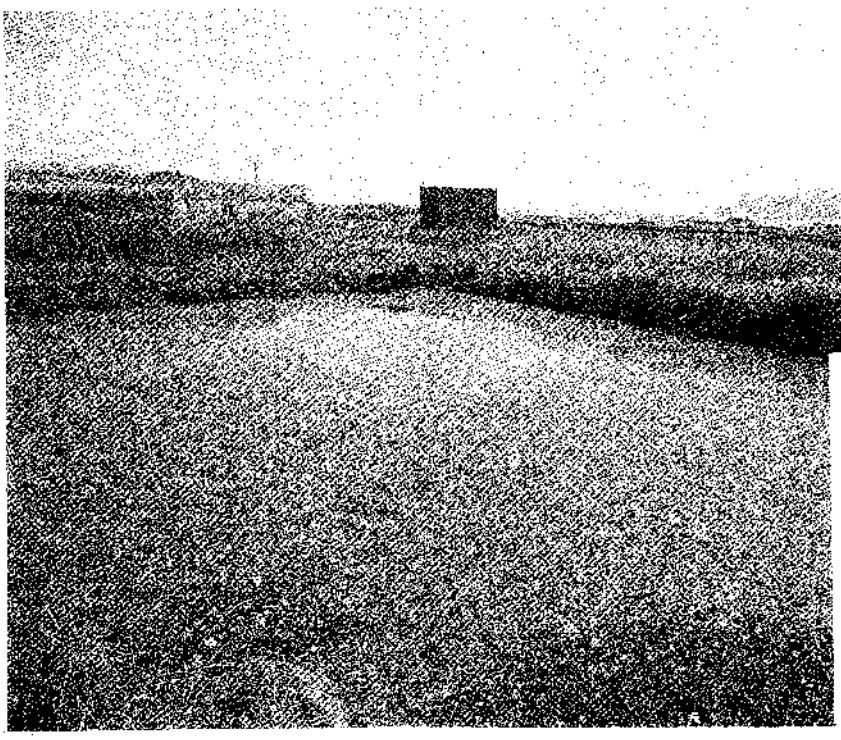
當時濟州牧使 趙 羲 純(手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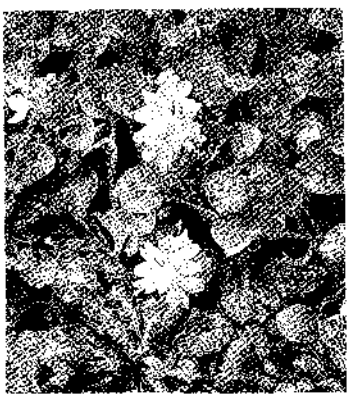
□ 섬의 젖줄 飮料水



▲ 金進士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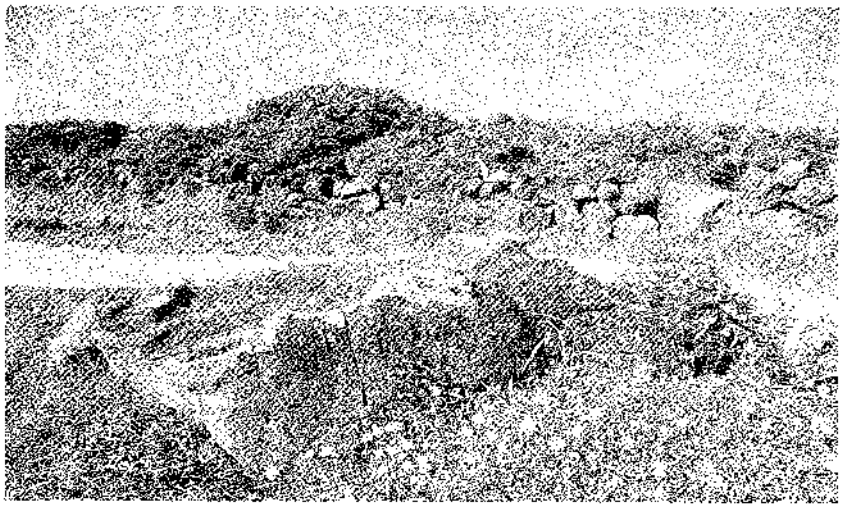
▼ 양벵방통





□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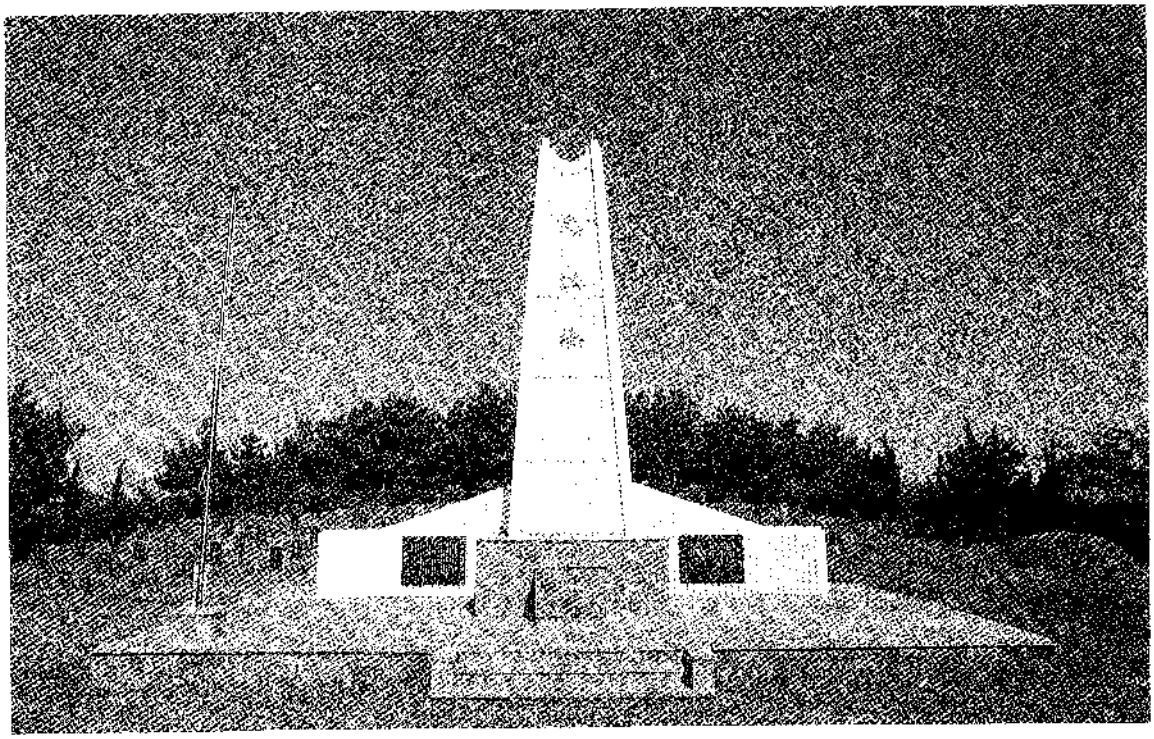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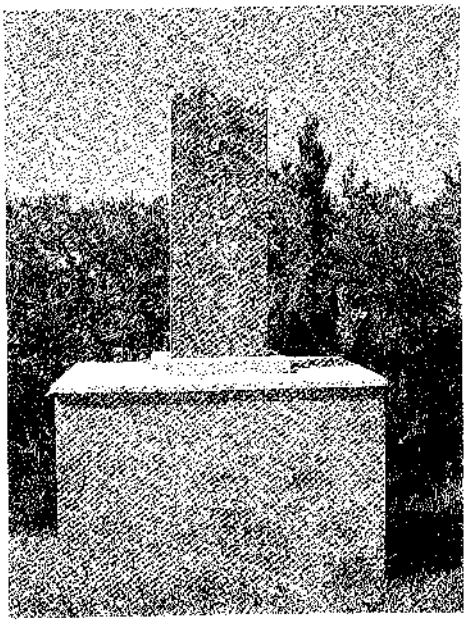




其 他 施 設 物

□ 忠魂墓地





□현 황□

· 소 재 지 : 우도면 연평리 1519번지
· 면 적 : 992㎡(300평)
· 매장기수 : 57기(군인 56, 경찰 1)

□연 혁□

· 1989년 군비 200만원으로 부지매입
· 1989 故 表斗山씨 子 강영길이 300만원을 투자 합동충혼비 및 울타리 조성공사
· 1989년 군비 900만원으로 개인비 건립
· 1990년 군비 500만원을 투자 묘지 확장
· 1996년 충혼탑 건립

□ 貯 水 池



□ 현 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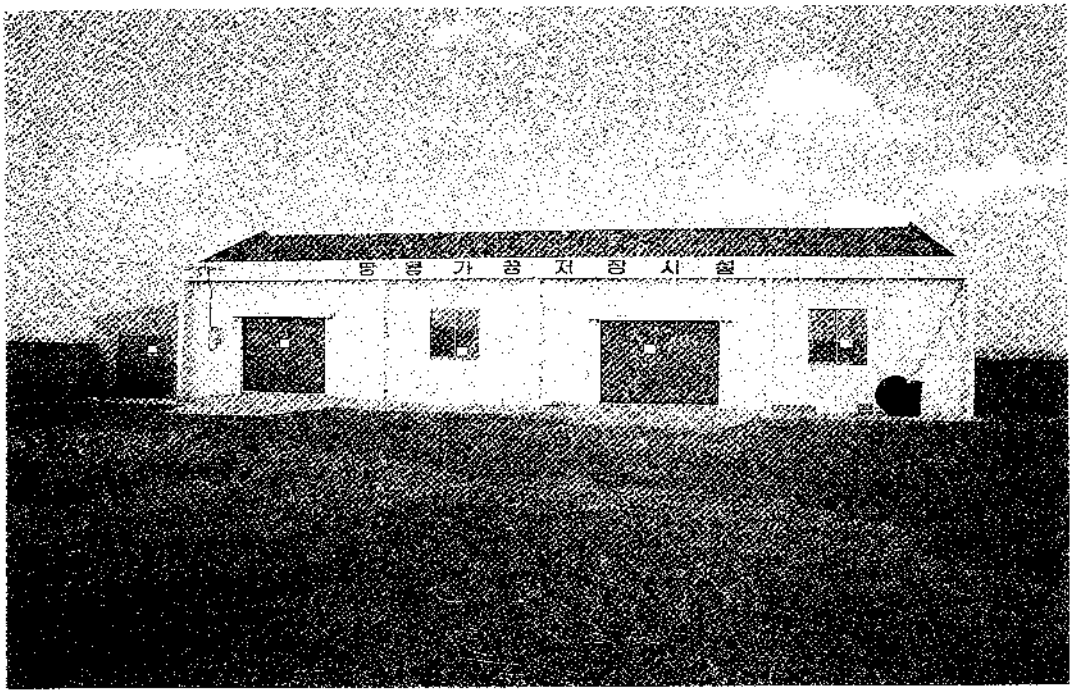
- 위 치 : 연평
- 준공년월일 : 1991. 9. 30
- 투 자 액 : 1,170백만원
- 저 수 용 량 : 50,400㎥
- 여 과 지 : 250㎡ (2지)
- 배 수 지 : 250㎡ (2지)
- 착 수 정 : 30㎡ (1지)
- 송 배 수 관 : 391m

□ 담수화시설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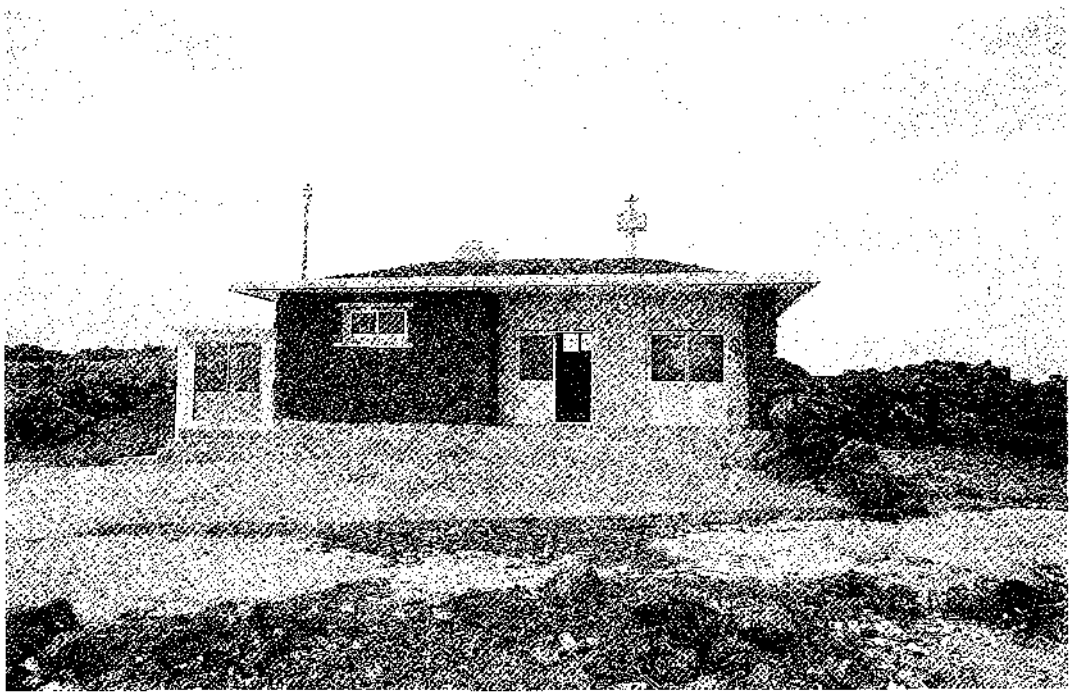
- 총사업계획 : 1,000㎥/일
- 투자예상액 : 3,049백만원
- 97년 (1단계) 계획
  - · 사업량 : 500㎥/일
  - · 사업비 : 2,143백만원
- 2001년 (2단계) 계획
  - · 사업량 : 500㎥/일
  - · 사업비 : 776백만원

□ 땅콩加工工場

(1994년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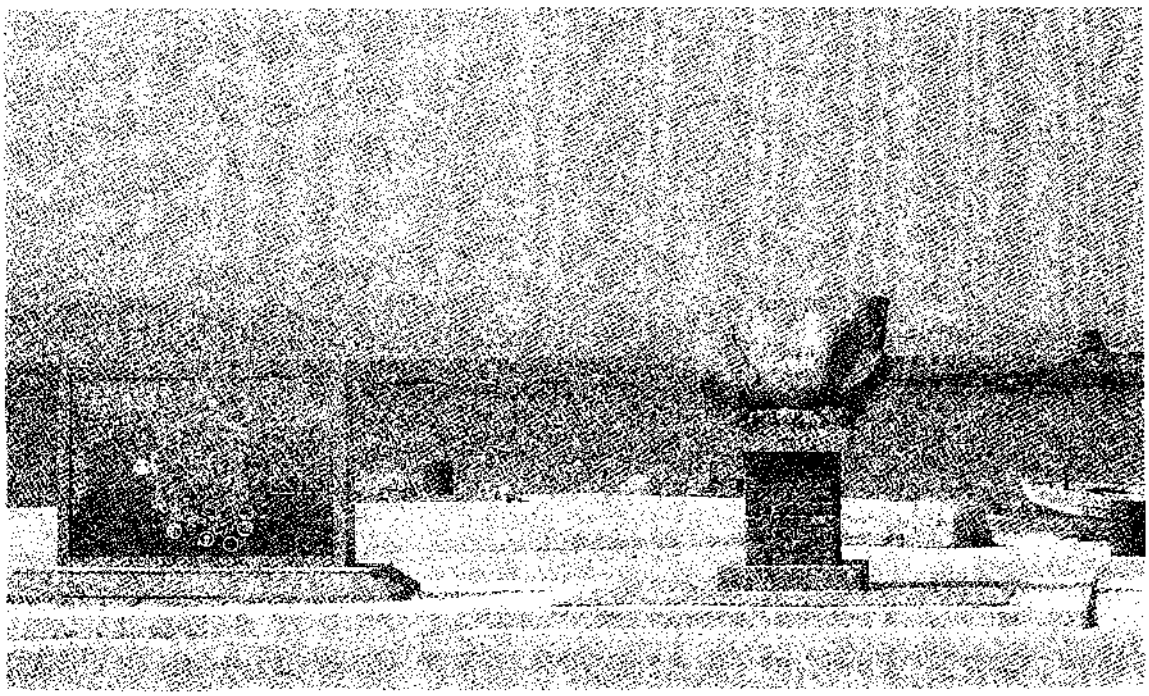


□ 海女脫衣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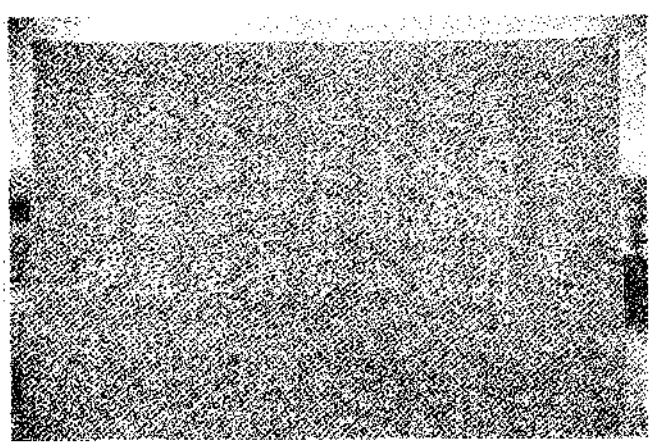


主 要 觀 光 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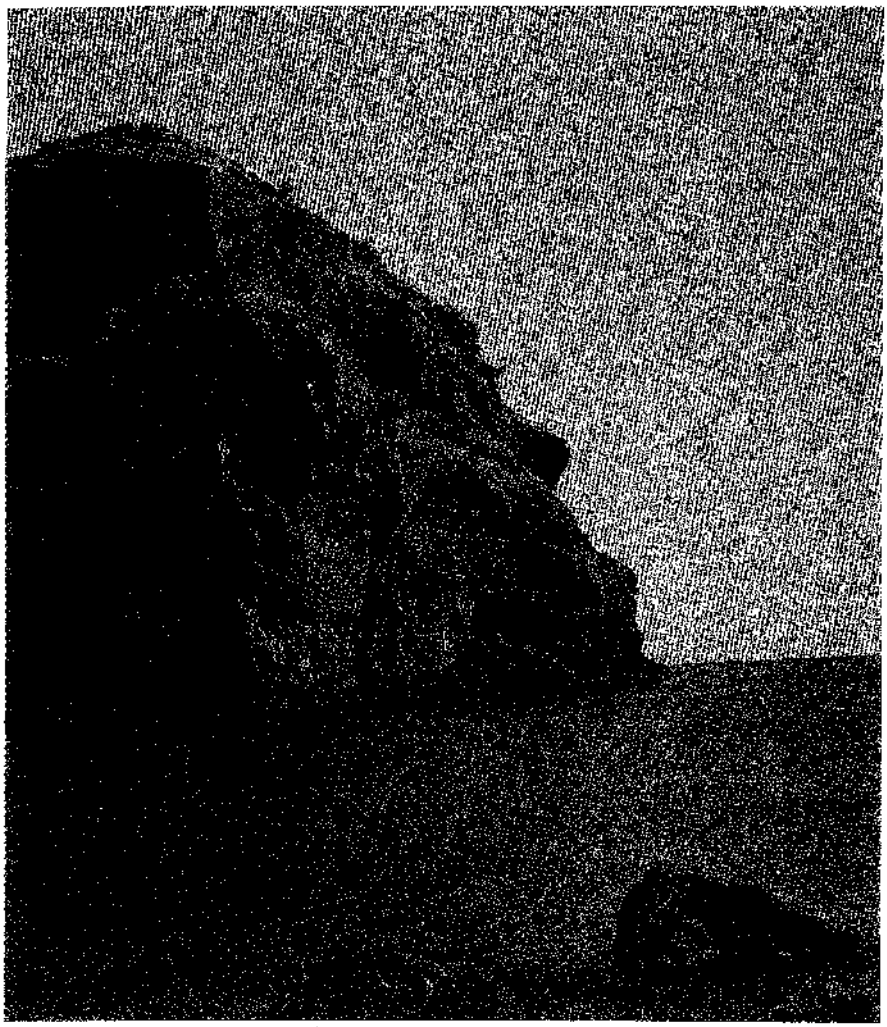
글 / 金順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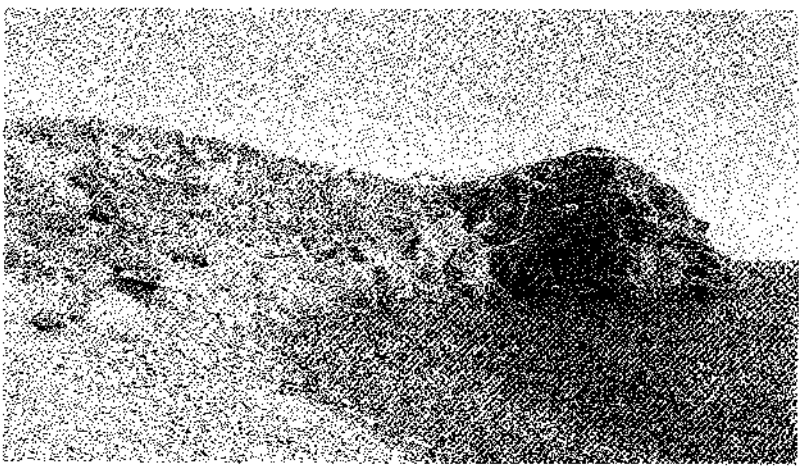


우도항에 시설된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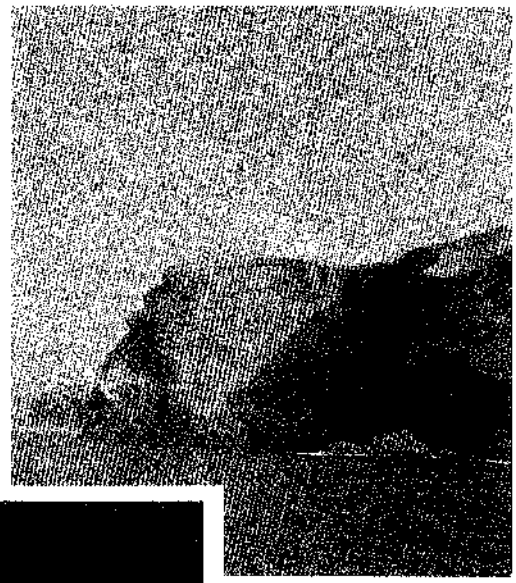
□ 큰 바위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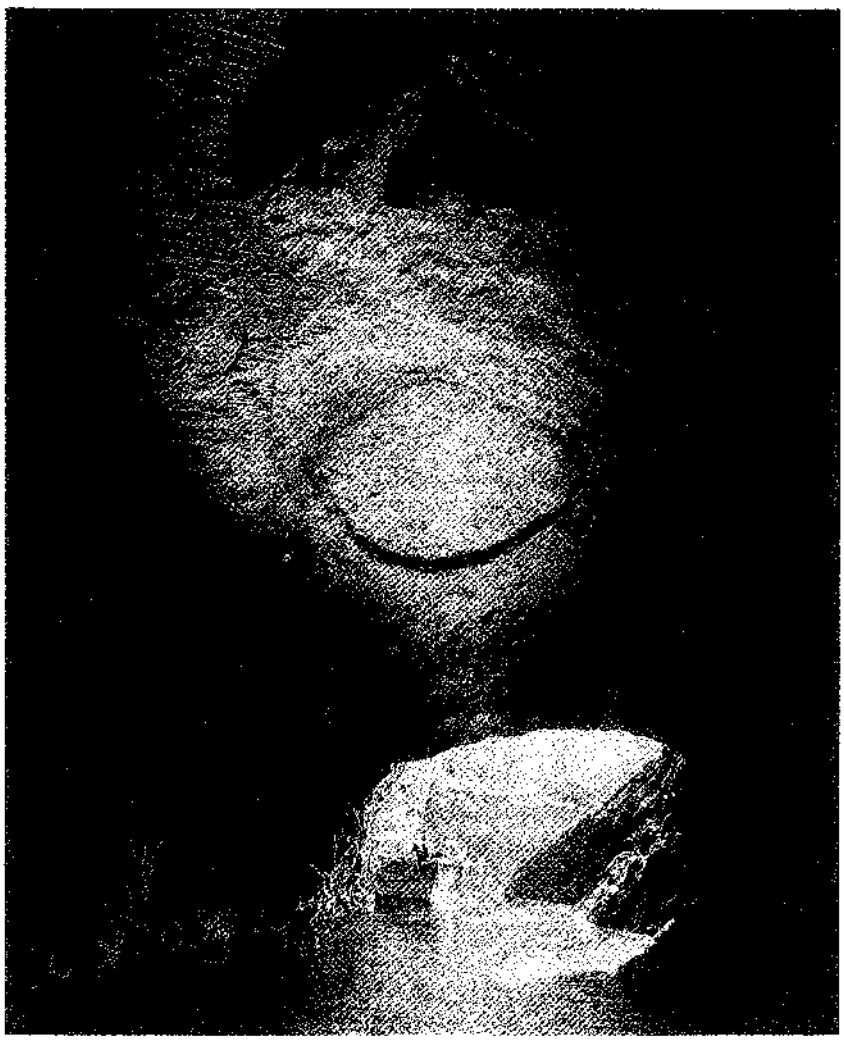




시원스런 이마 눈을 들어
시선을 긴 데로 향하고,
콧날 아래로 이어지는
선이 참으로 당당하다.
부처를 닮은 귀는 바닷물에
닿을 듯 넉넉하고,
언젠가 이 땅 우도에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전설을 안고 있는 큰 바위 얼굴,
오늘도 묵묵히 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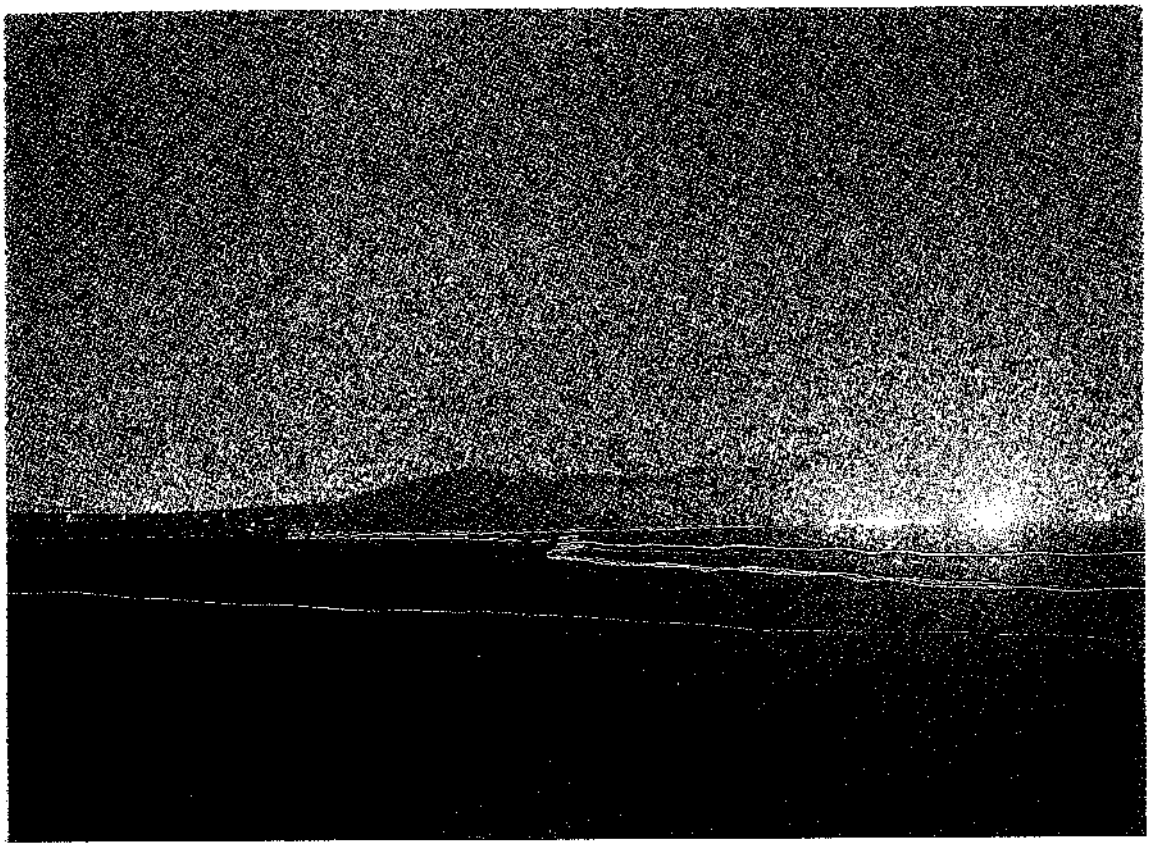
□ 晝間明月 (달 그린 안)





한 구비 돌아 들어 동굴은
깊고
빈 바다에 띄우는
빛줄기 하나.
빛은 어둠을 뚫고
어둠만큼
다시 일어서는 바다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고자
우도에는
낮에도 달이 뜨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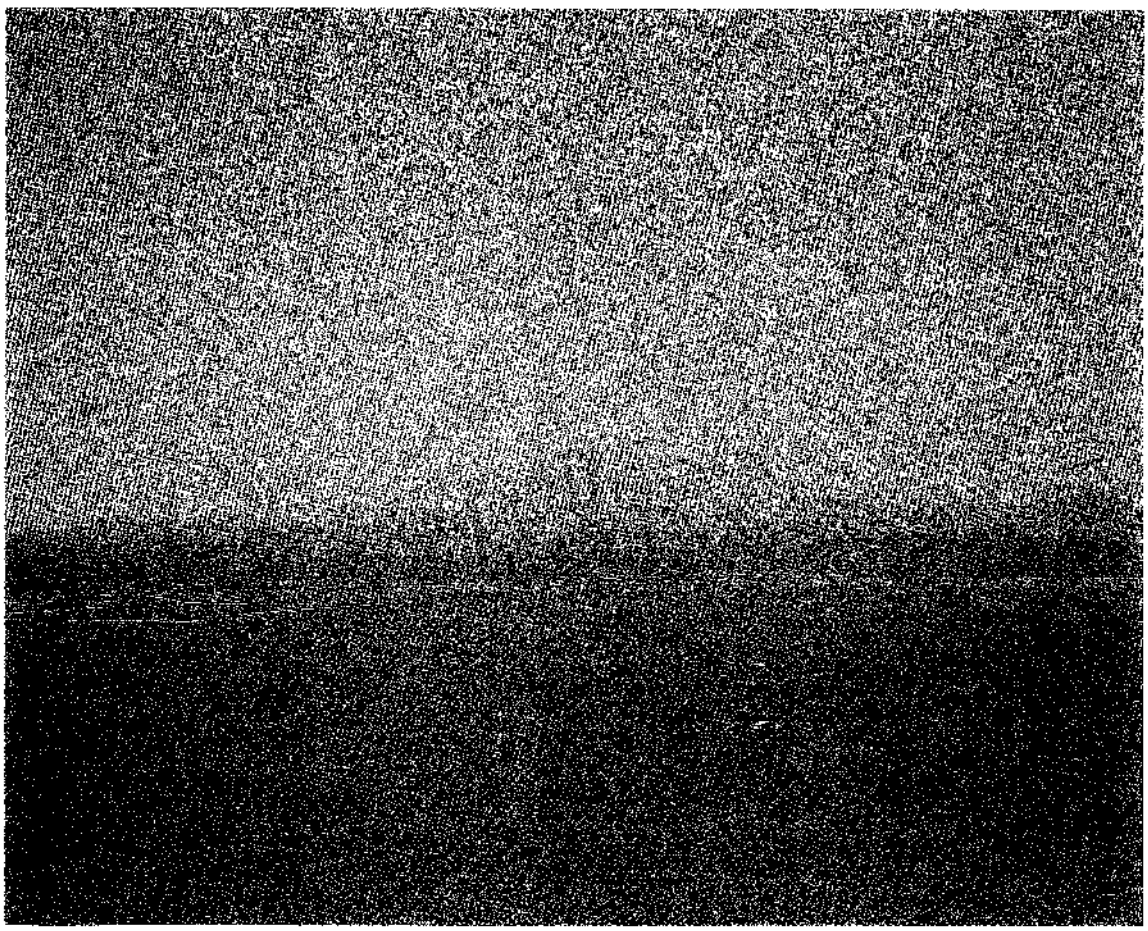
□ 夜航漁帆





밤바다는 빛으로 해서
어둠을 인식시킨다.
그만 그만한 배들이
오징어도 불이고, 갈치도
낚는 정경.
섬에서 바다건너 다시 섬.
우도에 사는 사람들은
"구시 간다"고 한다.
구시갈때 건너야 하는 바다.
그 바다에 불배들이 정겹다.
내일 아침
호박놓은 갈치국이
연상된다.

□ 天津觀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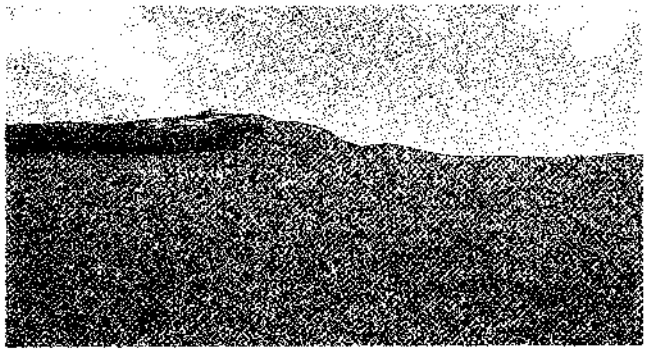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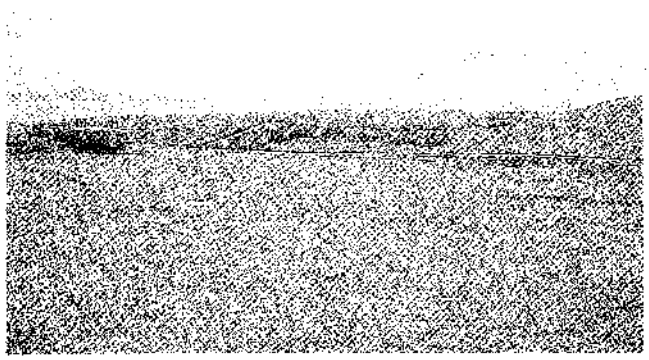


산을 보았는가
바다건너
한라산을 보았는가.
360봉우리를 거느리고,
오늘도 이 나라의
안녕을 비는
영주산을 보았는가.
천진리에 와서
한라산을 볼 일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쓸 것이다.
"우도에 가서 오늘 비로소
한라산을 보았다."

□ 地頭靑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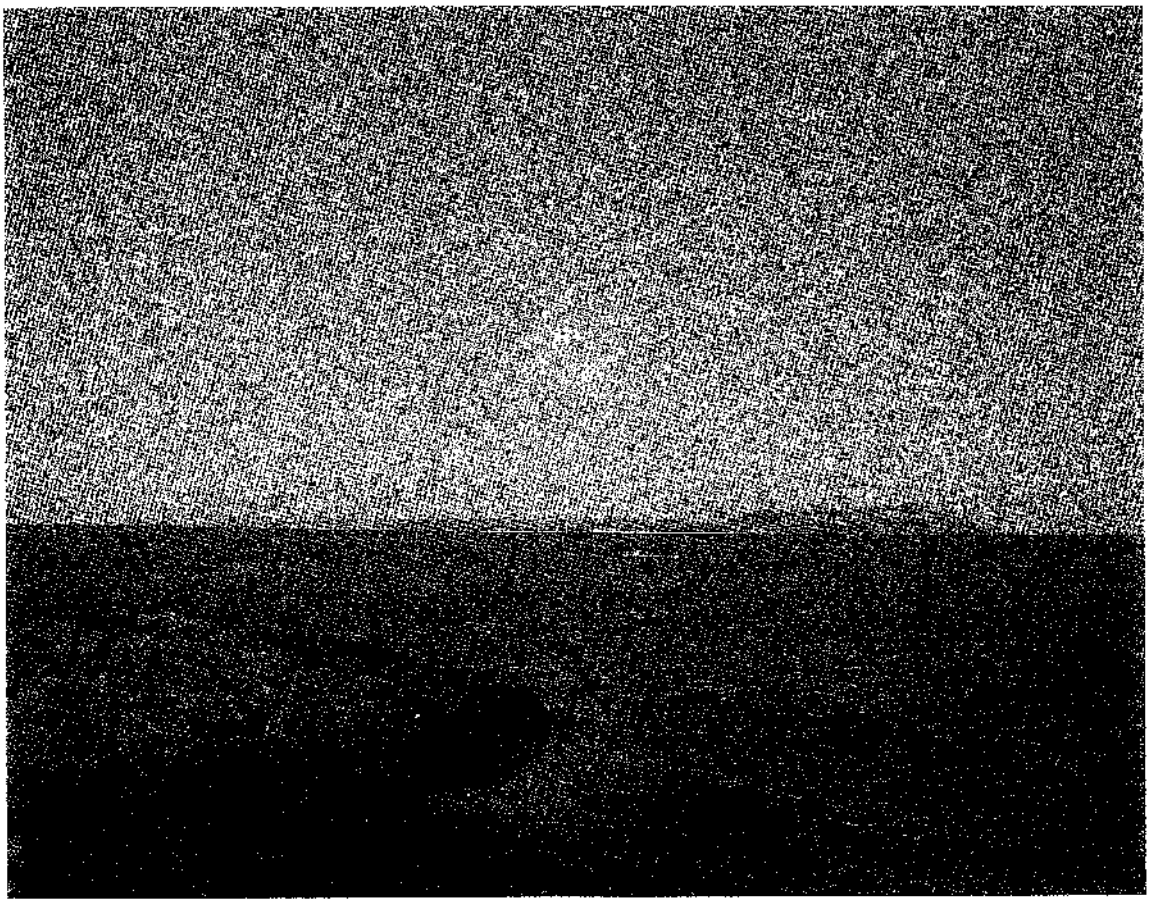






바람이 분다.
바람보다 먼저 풀이 눕는다.
민초들이 눕는다.
망동산에 오르면,
발아래 펼쳐지는 보리밭.
그 이랑 이랑 사이로 구비치는
비단의 물결.
쇠똥줍던 소녀들.
쇠먹이던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 바람아 불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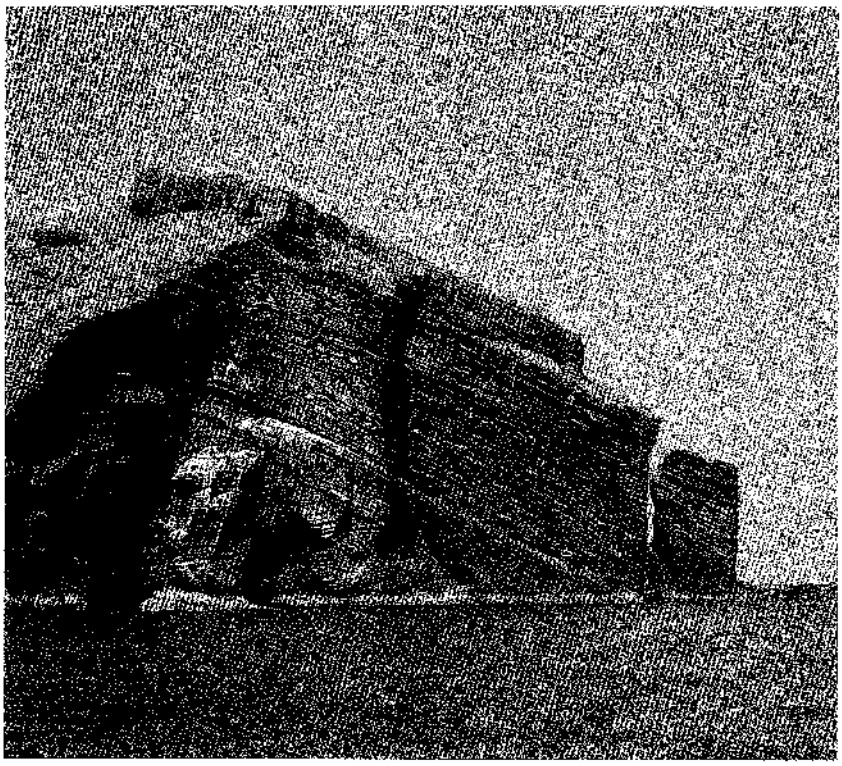
□ 前浦望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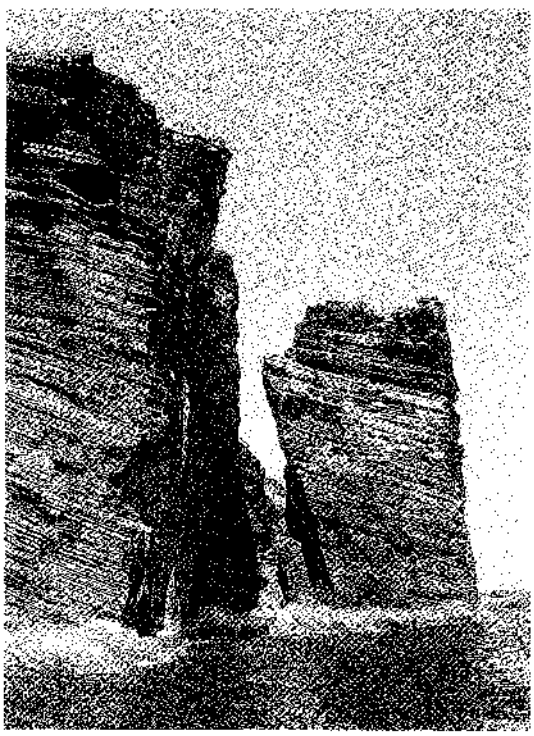
우도를 일컬어
누운 소 같다고 하고,
물에 뜬 평지라고도 하느니.
종달리 지미봉 아래
두문포구에 서면,
이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충암(沖庵)은 그래서 우도를 일컬어
"천년동안 그림자가
바다속에 잠겼었네."
라고 「牛島歌」에서 읊었을까.

□ 後海石壁과 선돌



• 후해석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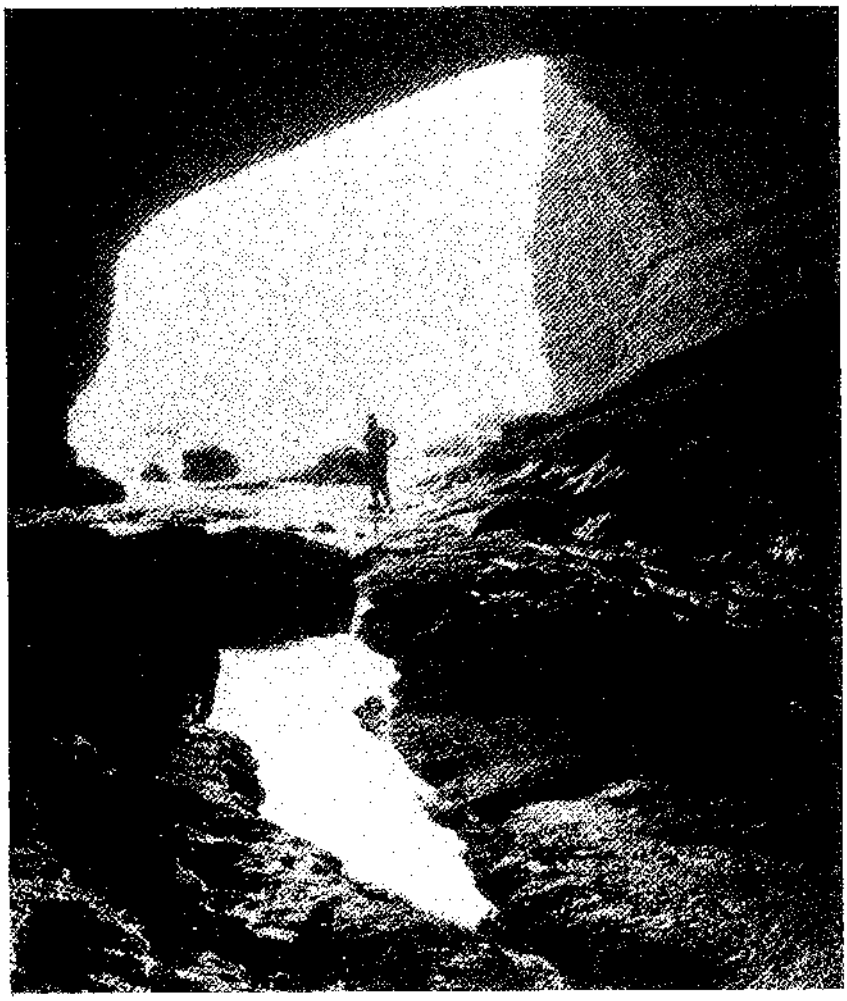
벽을 향해 서다.
벽은 천길.
뒷바당에 가서
석벽을 향해 설 일이다.
"용서하십시오.
늦게 고향을 찾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도
고향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삶이
고달팠을 뿐입니다."



• 선 돌 •

돌이 서다.
태평양을 향하여 돌이 서다.
때로는 물결이 와 감싸고.
길 잃은 바다새들이
쉬어 가는 곳.
돌이 서다.
떠오르는 태양을 맞으려
돌이 서다.
파도가 비록 거셀지라도
혼자 서는 돌.
폭풍이 끝나면 내일은
어선들이 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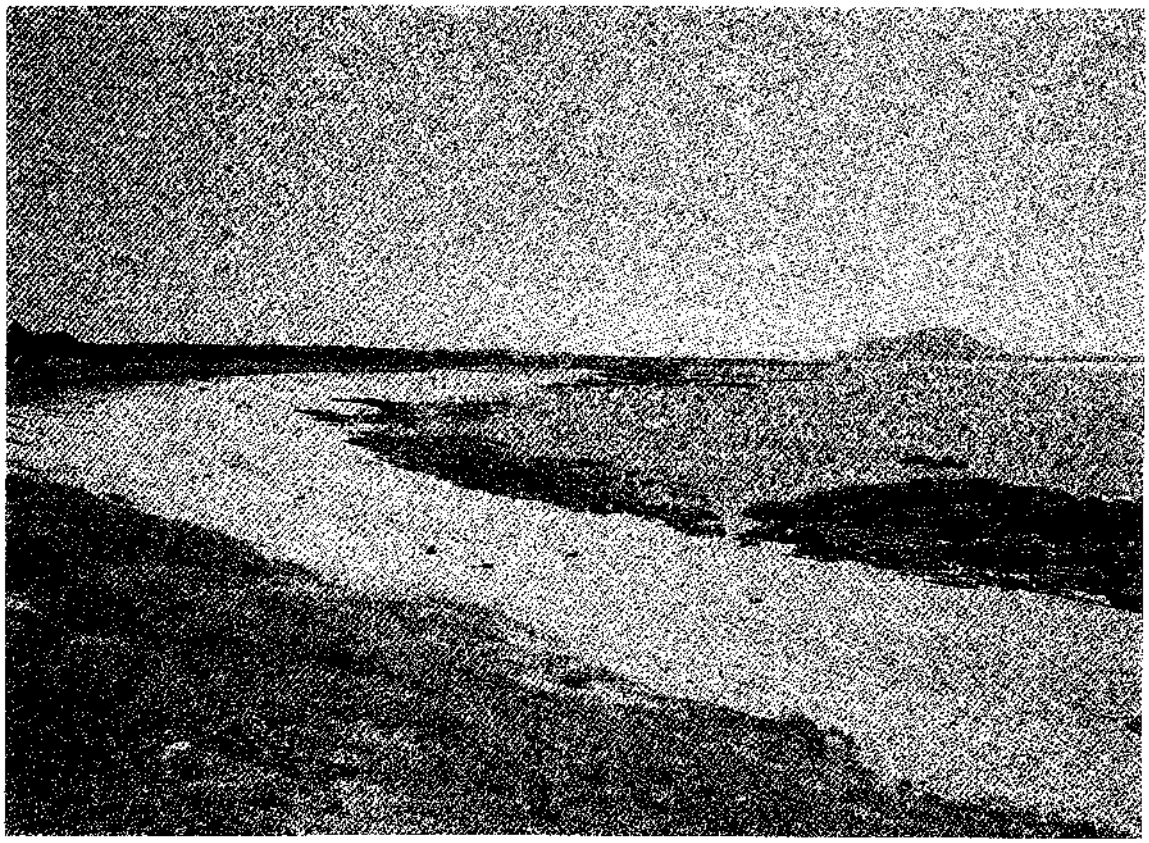
□ 東岸鯨窟



水石인들이 말하는 동굴형이다.
아니, 동굴이다. 아홉 용(龍)이 살았다는
동굴속에는 좁자만 모래사장이 있고,
그 아래로 펼쳐지는 누룩벌레.
맨 발을 물에 담그면,
무좀 걸린 발이 미안할 지경이다.
낚시대라도 드리우면,
신선이 따로 있다더냐.
옆에는 소주잔이 있을 일이다.



□ 西濱白沙





모살냇까에 가서
고냉이 이빨을 줍던
유년 시절.
칠응이, 봉팔이, 순덕이, 어진이—
모래알 마다 동심은 영글고,
올 여름 수천 수만 피서객이
뒹굴다 간 겨울바다엔,
무수한 사연만
하늬바람에 쓸린다.
모래바당엔 넓미역이 자라고
문어가 집단으로 시식하고,
이 만큼한 저릅이 뛰노는 곳.
샛바람이 분다.
감태가 오를 모양이다.

목 차

권두언 자랑스런 牛島人으로 …… 편집위원장 이 순 형 … 30

발간사 牛島誌는 貴重한 家寶 …… 편찬위원장 김 항 구 … 32

축사
- 우도면의 내일을 밝히는 지침서 …… 북제주군수 신 철 주 … 34
- 우도면의 밝은 내일을 여는 길잡이 …… 북제주군의회의장 강 인 선 … 36
- 牛島誌 發刊은 보람있는 일 …… 면 장 고 창 도 … 38

제1편 자 연 환 경 …… 41

제1장 지형과 지질 …… 43

제1절 개 관 …… 43

제2절 해빈의 특징 …… 46

제2장 동 식 물 …… 54

제1절 육상의 동식물 …… 55

제2절 해안의 동식물 …… 64

제2편 역사와 유적 …… 73

제1장 역사와 설촌 …… 75

제1절 목장의 설치 …… 75

제2절 개간에 대한 진정 …… 81

제3절 집세와 마필의 처리문제 …… 89

제4절 개간과 설촌 …… 95

제5절 이양선의 내박 …… 105

제2장 유적과 유물 …… 110

제1절 서 …… 110

제2절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 …… 111

제3절 조선시대 및 근대 …… 117

1. 망대와 방사탑 …… 117
2. 집터와 유물 산포지 …… 122
3. 포 구 …… 138

4. 기 타 ····· 149
제 4 절 결 ····· 150

제 3 편 사 회 환 경 ····· 153
제 1 장 사회구조와 성씨구성 ····· 155
제 1 절 사 회 구 조 ····· 155
1. 토착성과 전통성 ····· 155
2. 생활공간의 범위 ····· 157
3. 사 회 조 직 ····· 159
4. 직업구조와 계층구조 ····· 163
5. 계층의식과 공속감정 ····· 168
제 2 절 성 씨 구 성 ····· 169
제 2 장 가 족 ····· 176
제 1 절 가족과 가구 ····· 176
제 2 절 자료의 성격 ····· 178
제 3 절 가족의 크기 ····· 179
제 4 절 가 족 구 조 ····· 182
제 5 절 가족의식과 행정세대 ····· 189

제 4 편 민속과 신앙 ····· 193
제 1 장 세시풍속과 민간신앙 ····· 195
제 1 절 섬공동체의 특징 ····· 195
1. 어 촌 성 ····· 195
2. 잠수촌성 ····· 196
3. 공동체성 ····· 196
4. 여다남소 ····· 197
제 2 절 세 시 풍 속 ····· 198
1. 세시풍속 ····· 198
2. 생업세시 ····· 204
제 3 절 마 을 제 ····· 209
1. 유교식 마을제 ····· 209
2. 당 신 앙 ····· 215
제 2 장 어 로 민 속 ····· 228
제 1 절 머 리 말 ····· 228

제 2 절 어 로 환 경 ····· 229
1. 어 장 ····· 230
2. 조 류 ····· 248
3. 바 람 ····· 250
제 3 절 어 로 기 술 ····· 252
1. 낚 시 ····· 252
2. 그 물 ····· 260
3. 채 조 ····· 272
제 3 장 종 교 ····· 279
제 1 절 불 교 ····· 280
제 2 절 천 주 교 ····· 285
제 3 절 기 독 교 ····· 288
제 4 절 신흥종교 ····· 292
제 5 절 끝맺는 말 ····· 312
제 5 편 산업과 해녀 ····· 315
제 1 장 어 업 ····· 317
제 1 절 개 설 ····· 317
제 2 절 해양환경 ····· 318
제 3 절 어업연혁 ····· 319
제 4 절 주요어업 ····· 322
제 5 절 어업현황 ····· 329
제 2 장 우도해에 뜬 도항선 ····· 333
제 3 장 해 녀 ····· 345
제 1 절 우도해녀와 해녀사회 ····· 345
제 2 절 우도해녀의 해외출가 ····· 352
제 3 절 문덕진 일행의 청도 진출 ····· 360
제 4 절 용궁을 다녀온 만행이 할머니 ····· 363
제 5 절 우국청년 강관순이 작사한 해녀가 ····· 367
제 6 절 해녀집단의 항일투쟁 ····· 369
제 6 편 교육과 행정 ····· 379
제 1 장 해방이전의 교육 ····· 381
제 1 절 교학의 태동 ····· 381

제 2 절 영명의숙의 교학활동 ……384
제 3 절 사립연평심상소학교 ……389
제 4 절 연평국민학교 ……391
제 5 절 우도 3대 천재의 활동 ……394
제 6 절 문화활동과 계몽운동 ……398
제 2 장 해방이후의 교육 ……402
제 1 절 연평중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의 활동 ……402
제 2 절 60~80년대의 연평국민학교와 "기성회바당" ……406
제 3 절 연평중학교의 변천 ……418
제 4 절 맺 음 말 ……423
제 3 장 행 정 ……427
제 1 절 개 관 ……427
1. 우도면의 위치 및 자연 ……427
2. 우도 주민의 생활과 경제 ……429
제 2 절 행정의 변천 ……432
1. 조선시대 ……432
2. 일제치하 ……433
3. 해방이후 ……434
제 3 절 면 행 정 ……436
1. 기관 및 단체 ……436
2. 사 회 단 체 ……438
제 4 절 개 발 사 업 ……440
1. 도로포장 사업 ……440
2. 통신 및 전화사업 ……441
3. 비양동 도리선창 축조 ……442
4. 1990~1992년 지역개발사업 ……443
5. 1993년 이후 지역개발사업 ……445
6. 사회복지사업 ……448
제 7 편 지 역 개 발 ……449
제 1 장 개 발 방 향 ……451
제 1 절 도서지역으로서의 우도 ……451
제 2 절 우도가 보유하는 자원의 실태와 평가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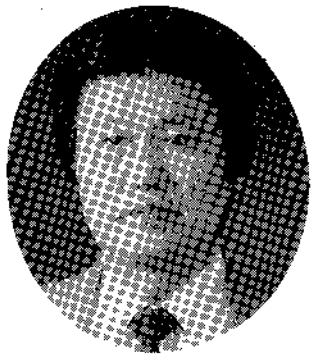
1. 자 연 환 경 ····454
2. 인문사회 환경 ····457
3. 관광자원 환경 ····466
4. 우도의 자원에 대한 평가 ····469
제 3 절 개발의 방향 ····473
1. 우도에 적합한 개발철학의 정립 ····473
2. 성산지역과 연계된 지역개발 ····474
3.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개발 잠재력 확충 ····475
4.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 ····479
5. 체계적인 개발계획 정립 ····481
제 2 장 주 민 참 여 ····482
제 1 절 계획의 목적과 설립과정 ····482
제 2 절 계획수립의 원칙 ····488
제 3 절 지역환경 현황 ····489
제 4 절 주요문제점과 발전의 기회 ····497
제 5 절 계 획 안 ····498
제 8 편 구 비 전 승 ····549
제 1 장 구 비 전 승 ····551
제 1 절 전 설 ····552
제 2 절 민 요 ····555
제 3 절 속 담 ····563
제 4 절 속 신 담 ····567
제 2 장 지 명 유 래 ····573
제 1 절 서 광 리 ····573
제 2 절 오 봉 리 ····582
제 3 절 조 일 리 ····601
제 4 절 천 진 리 ····618
제 9 편 島外面民史 ····631
제 1 장 재경우도면민회 ····633
제 2 장 재부우도면민의 정착사 ····638
제 3 장 서부경남 ····644
□ 도움을 주신 분들 ····649

자랑스런 牛島人으로

수려한 한라산이 그 정기를 펼치고 있는 제주섬의 동쪽, 섬 머리(瀛洲東頭)로 옛문인이 일컬어 온 고장, 우리 우도는 옛부터 한반도 남단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산자원과 제주해녀의 끈질긴 삶의 정신을 이어온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거대한 해식동굴, 한국 유일의 산호모래사장, 넙미역, 저립 등의 희귀한 해산물, 특이한 민속, 해녀들의 대일 항쟁의 역사 등은 우리 고장만이 지니고 있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면민들이 이같이 우도팔경과 같은 아름다운 관광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조상들이 펼쳐온 굳건한 삶의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해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시대의 크나큰 책무가 아닐 수 없다.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면면히 전승되온 소중한 삶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 지나온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고 애향심을 돈독히 하는 일은 우리들 모두의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우도는 세계화를 향해 제주도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성산권 관광단지의 핵심지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역사의 오랜 음지에서 벗어나 햇빛 쏟아지는 벌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자랑스런 고장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자신을 보다 정확히 알고 이를 온 국민에게, 세계에 까지 알리지 않으면 안될 역사의 싯점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도지」를 통해 지형, 지질, 지명, 동식물 등의 자연환경에서부터 역사, 가족, 사회구조, 산업, 행정, 교육, 종교, 나아가 해녀, 세시풍속, 민요, 속담, 방언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우도의 모든 것을 심층적,



편집위원장
제주대교수 **李 淳 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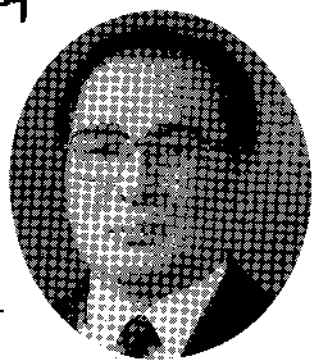
전문적으로 밝혀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쓰기보다 관계된 전문 학자들에게 집필을 의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우도지 발간을 위해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원로들과의 공청회를 비롯해 원고내용을 검토하는 주민 간담회, 그 결과를 토대로 재집필을 거치는 등 4년여에 걸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편집해왔으나 혹여 착오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보정의 기회를 가다릴 수 밖에 없다.

오늘날 7천 여 우리 면민들은 제주, 서울, 부산, 일본 등 해내외에 걸쳐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 제주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매스컴의 집중적 관심이 조명되고 있음을 볼 때 그 잠재력을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삶으로 바꿔 놓을 수 있어야 하겠다. 구경거리가 될만한 아름다운 명소로 잘 가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사는 마을, 자랑스런 고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야 하겠기 때문이다. 부디 우도지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지향에 정신적 좌표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도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면지를 엮은 보람일 것이다.

책을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해내외 면민 여러분과 집필위원 및 편집위원 제위, 그리고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신 박서동사장님의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신해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이다.

牛島誌는 貴重한 家寶이며 故鄕의 참맛입니다



우도지편찬위원회
위 원 장 김 항 구

우리 모두의 숙원이던 牛島誌가 오랜 산고 끝에 드디어 세상에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만물의 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람으로 태어나 그 근본을 모르고서야 어찌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의 동머리이며 또한 관문인 환해(環海)의 고장 우리의 향토 우도는 오랜 풍상과 격랑에 할퀴면서도 수백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선조들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회적인 변동의 여파로 미풍양속과 가치관은 점점 달라져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무엇으로 향토에 대한 애착과 긍지와 자부심을 길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속에 남아 있는 것은 향토의 선구자이시며 교육자였던 고태주 선생님이 지으신 약사가 전해져왔습니다만은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향토의 정신을 담은 뚜렷한 기록이 없음을 아쉽게 여기면서 더 늦기전에 우리의 뿌리를 확고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우도지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지는 내외 향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향토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산업, 인문과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수록하는데 힘기울여 집대성한 향민필독(鄕民必讀)의 향토사이며 후세들에게 전해줄 귀중한 가보가 되는데 손색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본 우도지는 이러한 우리 고장의 역사를 영원토록 보존하고 정다운 고향의 참맛을 알게하며 후세들에게는 떳떳한 긍지와 희망을 심어줌은 물론, 도내외 우리 향민들이 하나가 되어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우도면의 거도적 발전에 구심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牛島의 탄생은 고려 목종 10년(서기 1005년) 서산용출해중(瑞山湧出海

中)이라고 탐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 시기는 한라산과 비양도 등 제주 본도가 마지막 화산활동이 전개되던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牛島가 오늘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불과 천년이 채 못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만은 지정학상 그 위치나 역사적 배경으로나 그 이름이 쇠섬(소섬)이라고 말해주듯 매우 소중하고 보배로운 신비의 고장인 것입니다.

瑞山湧出이라는 瑞字는 물론 상서롭다는 뜻과 새롭다는 뜻, 또한 동쪽을 가리키는 글자이며 샛녘 샛바람 등 옛 한자옥편에는 瑞는 쇠라고 발음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쇠섬(소섬)이라는 지명의 첫째 유래를 이에서 찾는 것이며, 누워 있는 소의 형국이라는 와우형(臥牛形)을 둘째 유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瑞山湧出이 얼마나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표현입니까. 제주 본도를 사방에서 옹위하는 크고 작은 섬중에서 맞형격인 제1도로서 태풍의 길목 동어귀에 당당하게 서서 수호신으로서 동트는 새아침 환한 햇발 태양의 에너지가 또한 동머리 우도에서 시작되고 있다함은 瑞氣가 充滿한다는 말에서 비유됩니다.

우리는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좌는 동쪽이고 우는 서쪽을 의미합니다. 동은 청룡이, 서는 백호가 머문다고 하였습니다. 청룡은 매우 상서롭고 조화무궁한 동물로서 구름을 일게하고 비를 내려 만물을 소생케 하는 구세주로서의 용신인 것입니다.

400여년전 충암 김정(金淨)선생은 나이 35세에 제주에 귀양오셨다가(그 이듬해에 36세때 사사함) 우도가라는 시가를 지으시고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 (탐라록에 기록되었음)

영주동두오변경(瀛州東頭鰲拄傾) 천년민영함중명(千年悶影涵重溟)

(해석) 영주의 동머리는 삼신산이 뻗어 천년의 고운 자태 바다속에 잠겼어라.

이 시는 7언시로서 37구로 되어 있습니다. 충암 김정 선생은 그후 제주 오현(五賢)의 한 분으로 제주시 오현단에 비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의 牛島가 面으로 승격된지는 불과 10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약과 발전의 상승 기류를 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에는 북제주군의 군정시책이 집중되고, 내외면민의 자조정신의 발로에 연유되고 있습니다. 한편 근래 도외 거주 향민들의 사회진출이 더욱 현저하여 교육계, 언론·방송계 관계 실업계 등에 확고한 기반을 다져 혜성처럼 빛나고 있음을 볼 때 지정학적 의미에서 우도탄생 설화에 얼킨 정령(精靈)의 造化性과도 전연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옥고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면지 편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철주 북제주군수님을 비롯한 재경, 재부, 재서부 경남면민회와 도내외 협찬 향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 발간에 애쓰신 편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관련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도면의 내일을 밝히는 지침서로서 미래발전에 큰 등불이 되어지기를…

우도면승격 10주년을 맞이하여 면민의 오랜 숙원이던 牛島誌가 발간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지 편찬을 위해 많은 수고와 정성을 기울여 오신 우도지편찬추진위원회 김항구 위원장님과 이순형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집필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도면은 우리 북제주군의 동측 끝에 위치하여 제주도 8개 유인도서중 가장 큰 섬으로 1699년 肅宗 25년에 나라에 진상할 소를 기르기 위해 國營牧場이 설치된 이후 땅이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1800년초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3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도는 그 형상이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하여 소섬, 물 위에 뜬 두둑이라 하여 演坪이라 불리우기도 했었습니다.

1986년 4월 1일 舊左邑演坪出張所가 面으로 승격되면서 우도는 북제주군의 1개면으로 탄생하므로서 우도면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도의 산업구조는 반농반어형태로 어업중심형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일반어업보다는 潛嫂業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해녀의 본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생존권 투쟁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우도해녀들의 항일정신은 근면하고 생활력 강한 제주여성의 표상이 되고 있으며, 우도면 역사에 금자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우도면민의 강인한 개척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오늘의 우도를 있게 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도의 자랑인 牛島8景은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晝間明月은



북제주군수 申 喆 宙

제주도의 대표적 명승지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도면의 진중한 자연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도면은 이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고, 면민들은 소중한 자연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가꾸며 부지런히 일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서지역진흥을 위한 개발사업과 함께 우도면 지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수대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므로서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혜적인 자연경관, 부지런한 근면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도면의 발전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면승격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도면이 더 높은 비상의 나래를 펴기 위해 2천여 면민의 뜻을 모아 우도의 역사, 문화, 산업, 교육, 행정 등 모든 분야를 총집대성한 우도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도지는 우도면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으로 엮어냄으로써 면민화합은 물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고 우도면의 내일을 밝히는 지침서로서 미래발전에 큰 등불이 되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의미깊은 면지편찬사업을 계획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도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도면의 밝은 내일을 여는 정신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이번에 우도면민의 오랜 숙원이던 「牛島誌」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우도는 도내 유인도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기원전인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도면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인 지석묘와 돌도끼, 몽돌 등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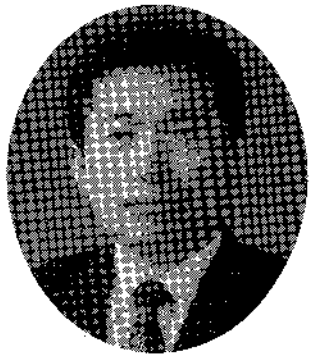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 따르면 1697년 숙종 23년에 진상에 대비, 말을 기르던 목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주거형태를 갖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역사를 간직한 우도는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라 하여 소섬이라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1986년 4월 1일 면으로 승격된 우도면은 우도봉을 기점으로 완만한 평지를 이루고 반농반어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개척정신, 근면성, 강인성과 항일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땅에서도 고소득 작물을 가꾸고 잠수업 등 수산자원을 잘 관리하여 어민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녀들이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했던 항일투쟁의 억척스런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의회의장 **강 인 선**

이렇듯 우도면민은 위대한 저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우리 우도면은 사회, 문화, 경제, 산업 등 모든 부분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며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도8경은 보는 이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면승격 10주년을 맞는 우리 우도는 21세기의 여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장을 열어야 할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싯점에서 우도면민이 간직해온 얼과 슬기, 전통문화의 뿌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참으로 의의깊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牛島誌』의 발간은 우리 고장에 대한 최상의 보배요, 문화유산의 발원으로서 후손들에게 역사적 자료를 남기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지가 우도면의 밝은 내일을 여는 소중한 길잡이로서 향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우도면민의 삶의 철학을 담는 역사적 자료로 활용됐으면 더 바램이 없겠습니다.

끝으로 『牛島誌』 발간을 위해 애쓰신 김항구 편찬위원장님, 이순형 편집위원장님, 김순두 편집주간님을 비롯한 집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도면의 영원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牛島誌 發刊은 바람직하고 보람있는 일

우도면 승격 10주년과 더불어 우도의 설촌유래 등 우도면민이 걸어온 발자취를 책으로 집대성한 우도면지를 펴내게 된 것을 면민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우도면지 발간과 같이 훌륭한 일을 주관하여 향토역사를 정리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주신 우도면지 편찬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도는 지금으로부터 150여년전 김진사 일행이 최초로 입도하여 온갖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변천하였으며 우리 면민들은 숱한 영욕과 풍상을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에 와서 우도면지가 탄생하게 된 것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웠던 순간들을 오직 인내와 슬기로 극복한 결실의 값진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내고장의 역사적 전통과 변화, 발전해가는 모습을 올바르게 정리하여 이를



면 장 **고 창 도**

후세에 전승시키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스럽고 가치있는 일이며 이는 곧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급격한 산업화, 경제화에 따른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이즈음, 지난날 고향의 모습과 걸어온 역사를 정리하고 재조명 해 보는 일은 오늘만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우도의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뜻깊은 일이며 나아가 우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훌륭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면민여러분 !

앞으로도 면정에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최고와 1등 우도면 건설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도멸지 발간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우도면의 발전과 면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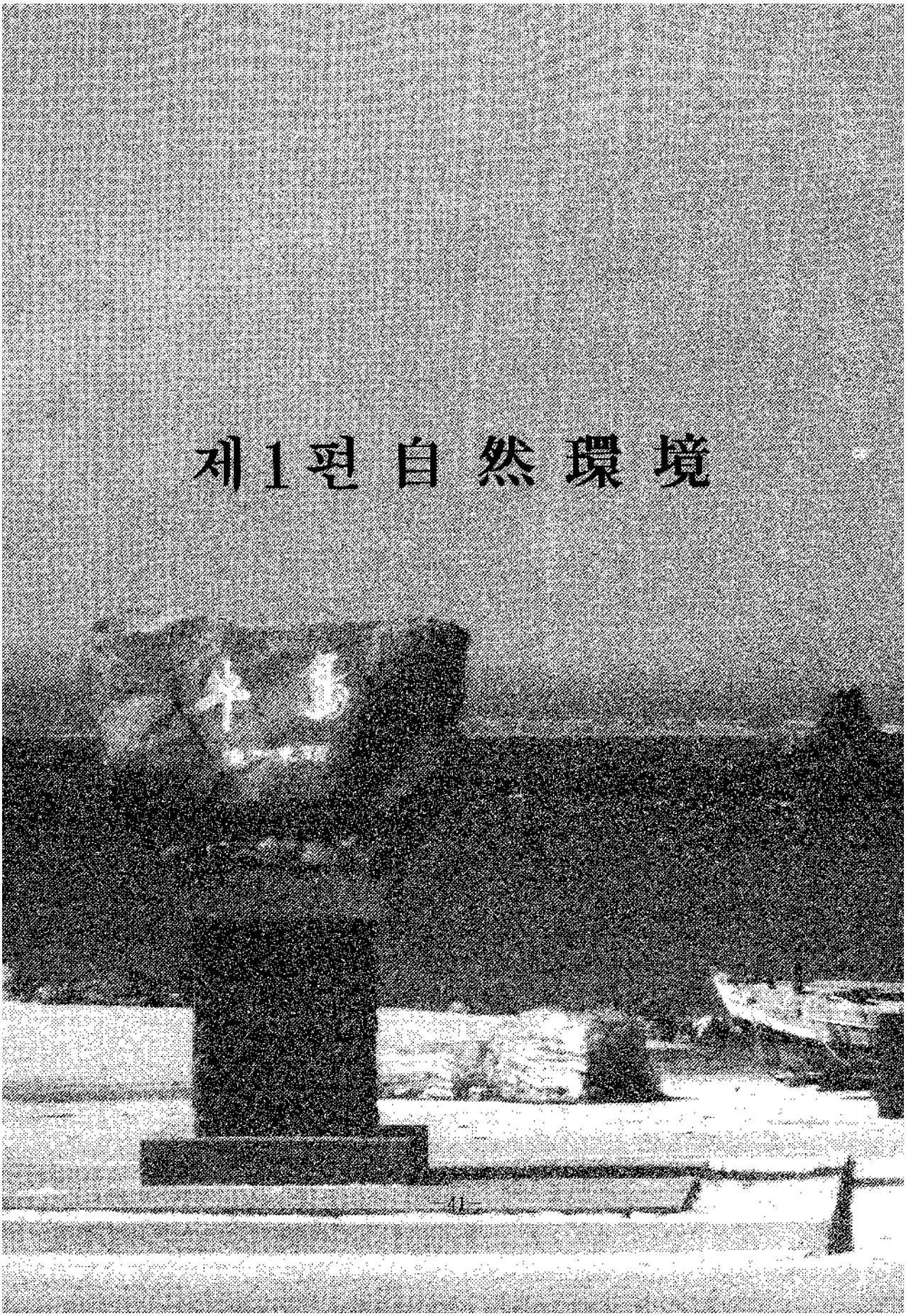
우 도 가

충암 김정 (1486~1521)

영주 동쪽머리 자라가져서 기울어,
천년동안 그림자가 바다속에 잠겼었네.
群仙이 上訴하여 五精을 포섭하여
하룻밤 일을 하니 雷霆소리 요란했네.
구름개고, 안개걷혀, 갑자기 솟아나니,
瑞山은 그림같이 王庭에 날아갈듯.
바다불결 출렁이며 山허리를 씻는데,
洞天은 널찍하고, 구름빗장 深幽하네.
높이 솟은 鏤壁은 비단처럼 훌륭한데
扶桑의 햇빛받아 번쩍번쩍 빛나네.
구슬처럼 이슬맺어 불방울 떨어지니
仙界의 구슬이 列聖처럼 박혔구나.
瓊宮淵 밑바닥은 깊어서 볼수 없고,
때로 창살틈으로 隱隱함이 엿보이네.
黃帝의 풍악소리에 해신이 춤을 추고,
玉簫은 아득히 먼 하늘에서 내려오네.
무지개는 바닷물 마셔 긴 꼬리 드리우고,
大鵬은 학과 놀며 나래를 펼치네.
曉珠는 인간세상 어두움을 밝히고,
燭龍은 환하게 두 눈을 뜨고 있네.
驂蚪가 踏鰐하니 모습이 아름답고,
天吳의 아홉 머리 비틀비틀 가는구나.
水府에는 百靈이 잡혀서 잠겨있고,
太陰의 굴속에는 玄機가 멈춰있네.
仇池와 禹穴은 神의 자취 전하는데
아깝다 이 絶境이 訛圖를 겪었구나.
배들이 처들어오니 심신이 두려웠고,
鐵笛불어 蛟龍을 찢는 소리를 들었구나.
물솟고 구름 아득해 근심하는 사람이
돌아와 멍하니 꿈이 깨지 않는구나.
아, 나는 문지방이 막혀있다 말만하니,
어찌 신선들처럼 바람탈 수 있으랴.

— 제주풍토록 중에서 —

제1편 自然環境



제1장 地形과 地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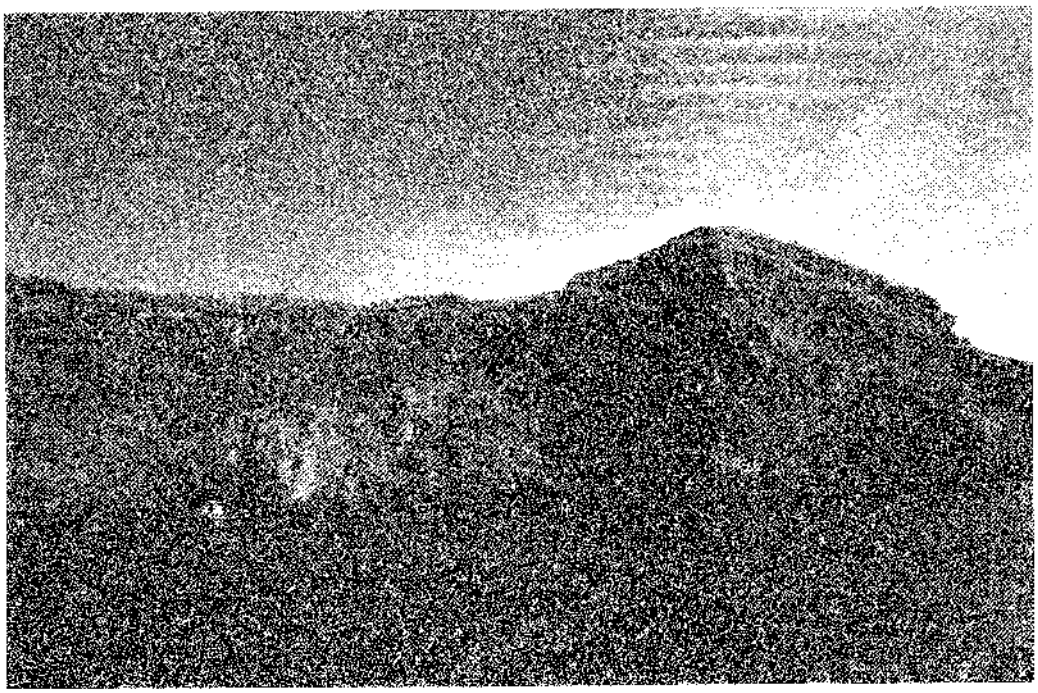
제1절 概 觀

牛島는 北緯 33°29′~33°31′, 東經 126°56′~126°58′에 위치하는 南北의 길이 약 3.53㎞, 東西의 길이가 2.5㎞인 新生代 第4紀 pleistocene世 동안에 火山活動의 결과로 이루어진 火山島이다.

우도는 제주도 沿岸에 散在하는 부속島嶼 가운데서 최대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섬으로서 城山浦港에서 北東쪽으로 약 3.8㎞ 떨어져 있다.

地形形態는 東南쪽 해발 132m인 소머리오름 지역의 側火山形 및 正陸形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高度 30m이내의 평탄한 台地形 海岸低地를 이루고 있다. 소머리 오름은 水中에서 噴出한 水中火山(Hydro-Volcano)이며 斜面傾斜가 25° 내외를 보이고 海蝕에 의하여 상당한 浸蝕이 진전되어 東南쪽의 海水와 접한 지역에서는 急傾斜의 斷崖를 이루기도 한다.

本 凝灰丘의 岩層은 대체로 황갈색 細粒質의 이암층, 細·中·粗粒質 火山礫을 포함하는 礫岩層, 中粒質 火山礫을 포함한 砂岩層, 粗粒質 火山礫, 火山岩塊를 포함하는 礫岩層, 水平層理 구조가 발달한 황갈색 火山灰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水中噴火에 의한 海水面 위로 隆起하는 과정에서 海蝕을 받아 原地形이 많이 파괴되었고, 殘留山地의 단계로 남아 있어 東南側 絶壁으로 둘러싸인 岩壁에는 深層風化의 결과로 나타나는 타포니(Tafoni)와 토르(Tor) 및 어룡굴, 달그린안, 동안경굴사 같은 海蝕洞窟이 발달되어 奇岩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 수중폭발에 의해 화산회가 굳어져서 생긴 기암의 응회구층

해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해식동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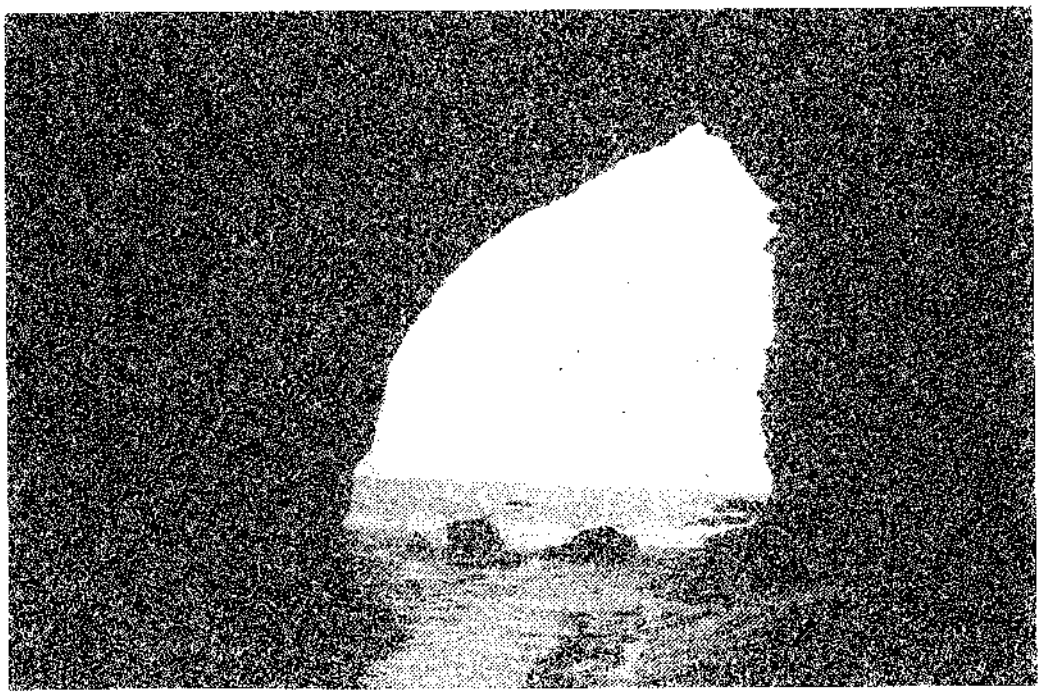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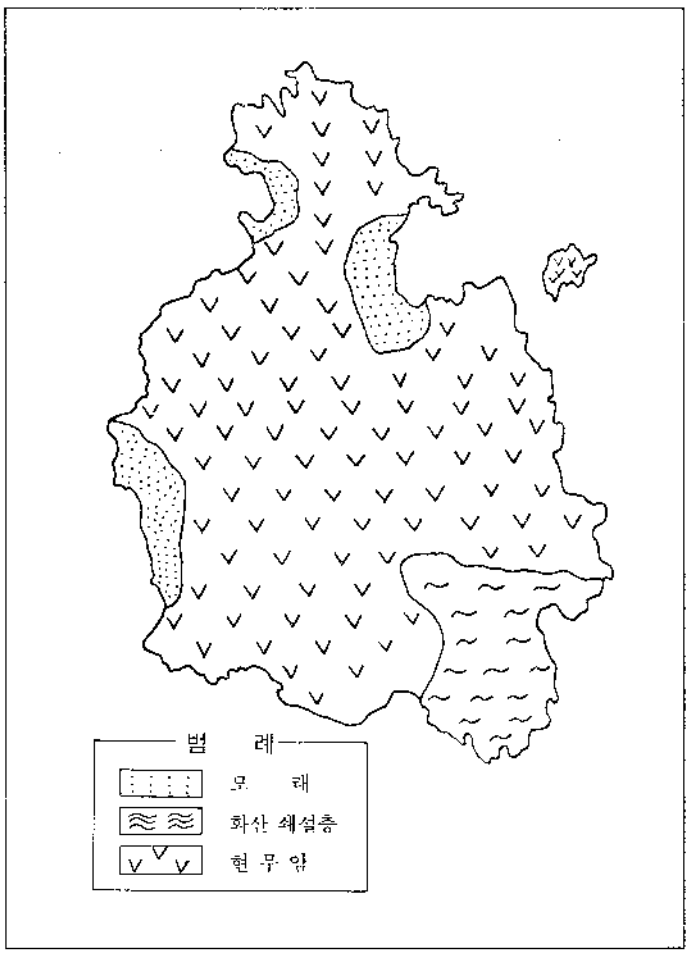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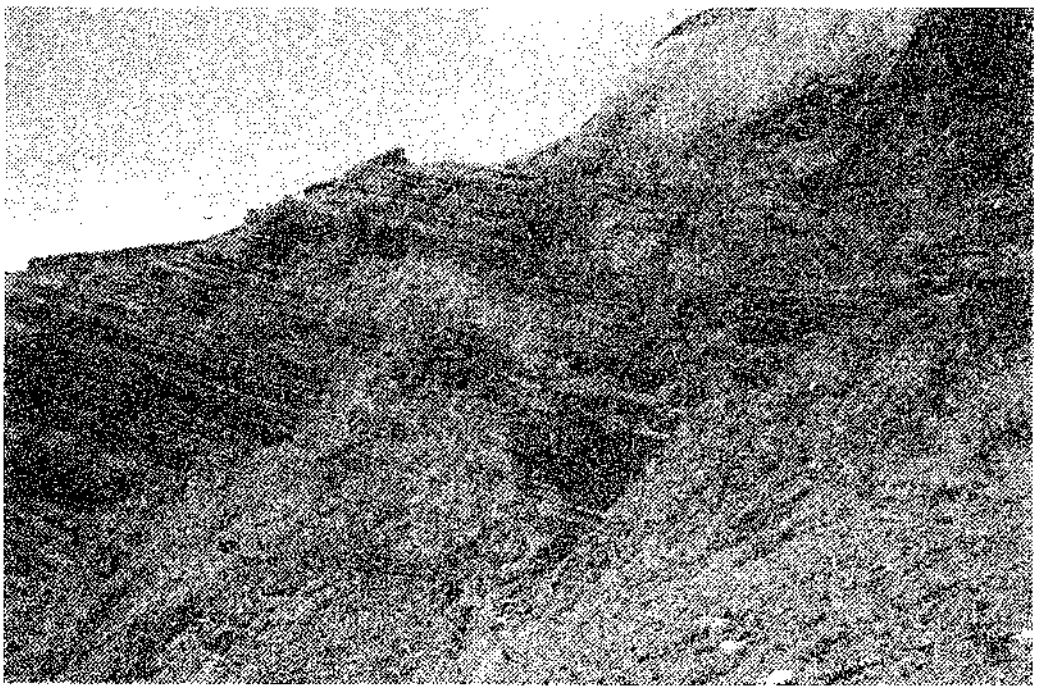


그림 1. 우도지역의 지질도



本島의 地質은 針狀長石一橄欖石玄武岩, 凝灰丘 火山碎屑物, 噴石丘堆積層 및 砂丘層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針狀長石一橄欖石 玄武岩이 牛島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本岩은 본도의 東西方向으로 달리는 構造線을 따라 廣域噴出로부터 점차 소머리오름頂을 中心으로 하는 中心噴出에 의해 傾斜 3° 이하 완경사의 평탄한 熔岩平原(Lava Plain)을 이루고 있다. 海岸 곳곳에는 枕狀熔岩構造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벼개모양의 熔岩 덩어리는 파호에호에 熔岩이 海水와 접하면 탄력성이 있는 얇은 유리막으로 둘러싸이며 枕狀構造가 형성된다. 凝灰丘 火山碎屑層은 소머리오름 火山體를 형성하고 있으며, 水中環境(Hydro-Volcano)에서 噴出物을 익출하였으므로 層理의 발달이 양호하고 分級이 좋지 못하며 원마도가 좋지 못한 火山彈, 火山岩塊 등의 破片들을 다량 포함하는 固結度가 낮은 두꺼운 火山碎屑層을 형성하고 있다. 本層의 岩色은 갈색, 흑갈색, 녹회색 등을 띠는 中粒質 내지 粗粒質 凝灰岩으로서 고결도는 비교적 낮다. 層理는 대체로 平行平坦狀이며 傾狀인 부분에서도 미약하나마 層理의 形態를 보인다. 本層의 협재하고 있는 礫들은 대부분 玄武岩片들이나 이들 외에도 古期의 流紋岩質 凝灰岩片들도

다량으로 관찰되는 바 牛島의 火山岩類 下部의 基低는 凝灰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응회구층에 발달된 층리구조

噴石丘堆積物은 주로 소머리오름 頂部의 말굽형 噴火口에 발달하며 Scoria 性이다. 이는 牛島가 水中環境에서 陸上環境으로 전이된 후 스트롬볼리안 火山活動에 의해 생성된 분석구 퇴적층으로서 화산쇄설물의 입자 크기는 수cm 정도의 조립질이고 다공질 Scoria가 주를 이루며 層理의 발달이 빈약한 層構造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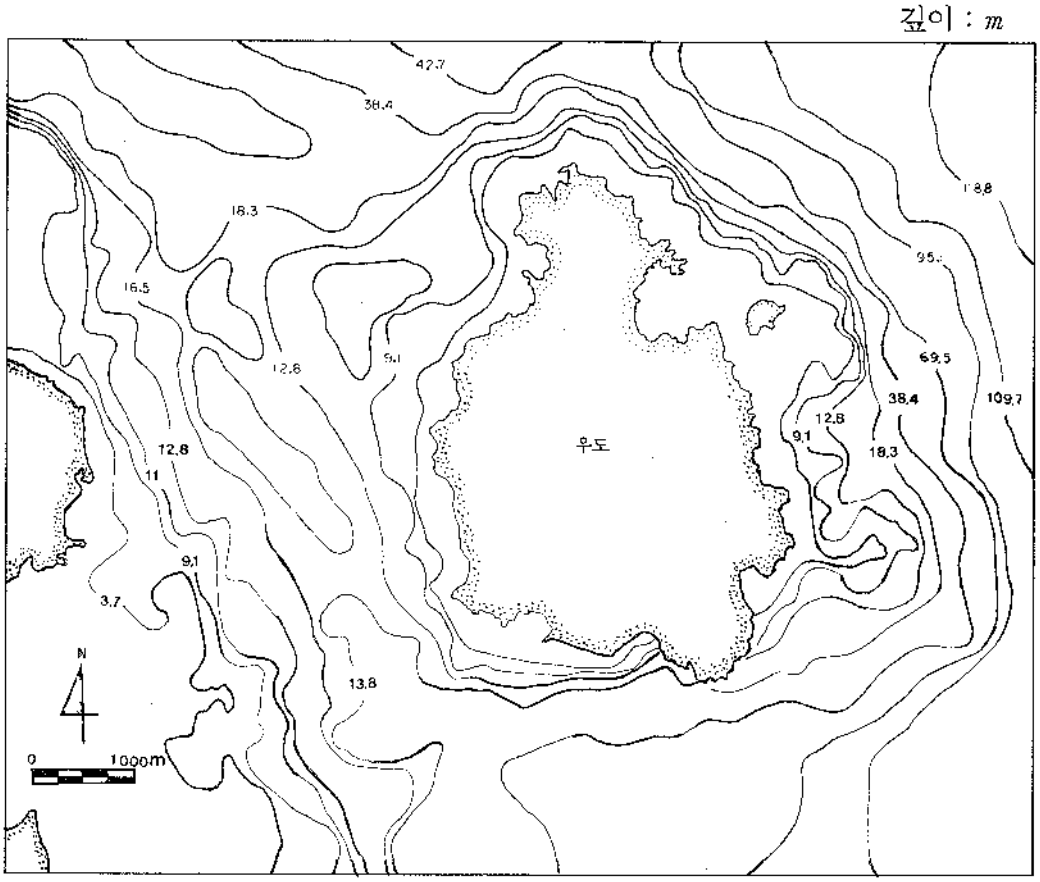
제 2 절 海濱의 特徵

濟州 東部 牛島는 예로부터 西濱白砂라 불리우고 있는 無節珊瑚藻 破片으로 이루어진 珊瑚砂海濱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貝殼砂로 구성된 砂濱도 분포하는 등 협소한 지역임에도 特異한 地質環境을 보이고 있다.

牛島의 海岸地域은 熔岩臺地를 형성하고 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礫層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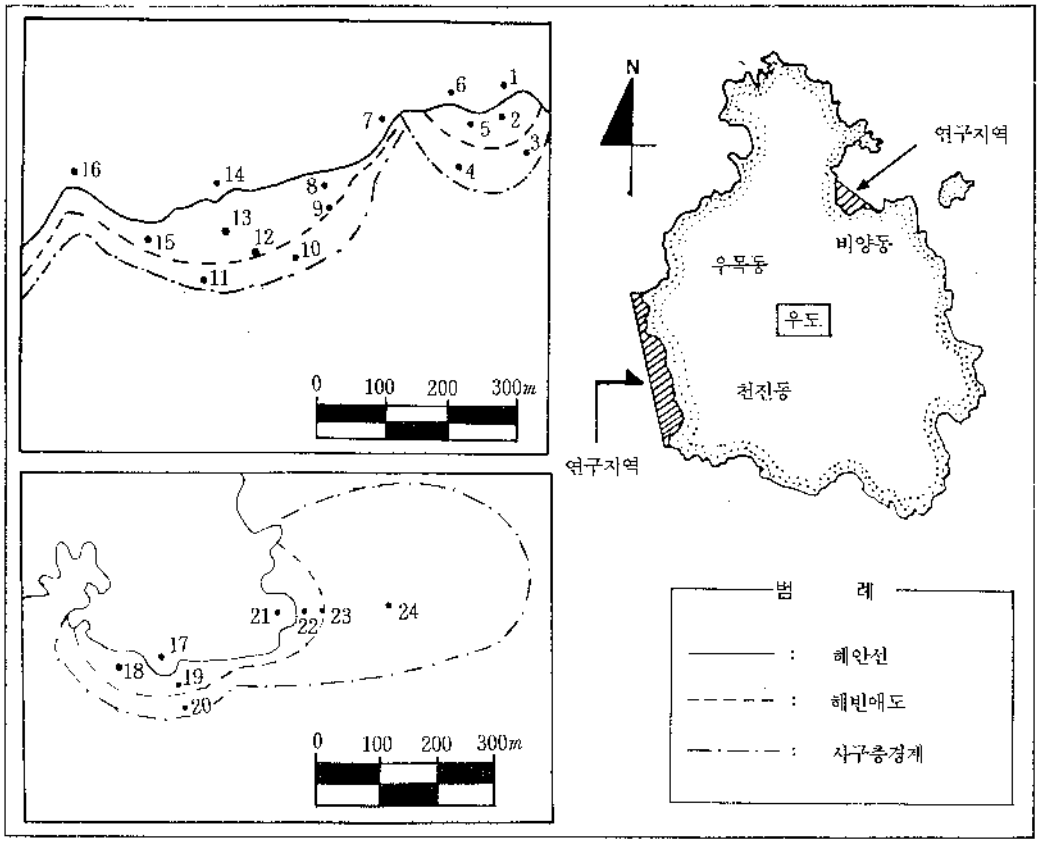
로 礫質海濱을 이룬다. 이처럼 砂質海濱이 넓게 形成치 못하는 것은 牛島가 거의 外海에 노출되어 있어 波浪에너지가 強하고 陸成起源 모래의 供給源이 결여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접지역 해저 수심도에서 재사된 바와 같이 우도 주변지역의 海低地形은 牛島東岸과 西岸間에 차이가 있다. 즉 珊瑚砂海濱을 포함하는 牛島水路地域(西岸)은 최대수심이 20m이내로 沿岸으로부터 완만한 傾斜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基盤은 주로 견고한 岩盤型이고 좁은 水路 또는 갯골이 여러 곳에 발달해 있다. 반면, 東岸地域은 20m以淺지역의 발달이 西岸에 비해 협소하고 바다쪽을 向해 急傾斜의 地形을 이루며 대부분 貝殼砂가 海低基盤 위를 덮고 있다.

그림 2. 인접지역 해저 수심도



천진동~우목동 사이의 珊瑚砂海濱과 비양동 海濱을 대상으로 수차에 걸쳐 海濱斷面(Beach Profiles)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용 시료로 珊瑚砂海濱에서 14개, 비양동海濱에서 6개, 그리고 이들 해안에 인접한 砂丘層에서도 4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해양지질학적 실험을 하였다.

그림 3. 연구지역 시료채취 위치도



일반적으로 海濱의 形態는 해빈구성물질의 粒度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고, 다음으로 岩石의 供給量과 그 지역의 氣候狀態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海濱斷面 또한 해빈구성물질의 粒度 크기뿐만 아니라, 波浪에너지, 陸地와 海面의 相對的 水準變化등에 의해서도 현저한 差異를 나타낸다. 특히 牛島海岸 일대는 거의 外海에 노출되어 있어 海波와 海流의 流通이 활발하며, 단조로운 海岸線을 이루고

있어 海岸絶壁, 岩石突出部 및 暗礁등이 발달하여 海濱間에 연속성이 절단된 단계로 海濱發達은 불량한 편이다.

1. 천진동~우목동 海濱(珊瑚砂海濱)

본 해빈은 牛島西岸의 천진동~우목동 沿岸에만 한정되어 분포하며, 無節珊瑚藻 破片의 海濱과 砂丘形態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목동 해안의 산호사 해빈 전경

분포의 규모가 연장 780m, 폭 37.4m로 비교적 작지만 구성물질이 無節珊瑚藻 破片으로 형성된 國內唯一의 海濱地域이다. 본 해빈의 內陸쪽까지의 높이는 평균 105cm이고, 傾斜度는 평균 10°로서 비교적 경사가 急한 편이다. 이는 粗粒質일수록 透水性이 좋아 해빈의 경사가 急하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해빈의 구성물질 粒度가 주로 2~4mm(-1~-2φ) 범위의 왕모래(Granules)로 되어 있어 투수성이 높은 데 緣由한다. 천진동~우목동 沿岸의 珊瑚砂海濱의 평균 粒度는 0.93φ

~-2.72φ로 매우 조립질 모래(Very Coarse Sand)에서 잔자갈(Fine Pebble)의 범주에 해당하였는데 몇 가지 相異한 경향을 나타낸다. 즉 岩石突出部, 干潮線, 海中央部, 애도(Beach Berm), 그리고 植生이 피복되어 있는 砂丘層에서 각각 粒度의 변화를 나타냈다. 간조선(St. 1, 6, 14) 부근은 -1.36φ~-1.86φ이고, 해빈 중앙부(St. 2, 5, 8, 13, 15)는 -1.70φ~-1.86φ이며, 애도(St. 9, 12)에서는 0.81φ~0.91φ이고, 암석돌출부(St. 7, 16)는 -2.20φ~-2.72φ로서 가장 粗粒質 모래였다. 岩石突出部地域 모래가 가장 粗粒質인 것은 이곳으로 집중되는 波浪에너지 때문에 細粒質 모래들이 이동되어 粗粒質들만이 남게 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간조선과 애도 및 해빈중앙부의 粒度의 변화는 강약의 波浪作用이 교대로 일어나고 있는 데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砂丘層에도 粗粒質 白色珊瑚砂層(-1.38φ~-1.9φ)과 中·粗粒質 황갈색 珊瑚砂層, 玄武岩礫을 함유한 황갈색 古期土壤層, 그리고 中·細粒質 담황색 貝殼片 및 珊瑚砂層의 地層構造가 뚜렷한 層理를 이루어 나타나고 있어, 이는 第4紀末 이후 海退와 海浸에 관련된 海水面의 昇降에 따라 堆積物이 再動에 의해 形成된 것으로 사료된다.

2. 비양동 海濱

본 해빈은 牛島 北東쪽의 비양동 沿岸에 분포하는 전형적인 貝殼片砂質海濱이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지역의 內陸 쪽으로 灣入되어 있고 海底 傾斜도 비교적 완만한 편이어서 총길이가 400m, 後岸의 넓이 33.6m인 소규모의 海濱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內陸쪽까지의 높이는 69㎝이고, 경사도가 4°로 낮은 勾配를 보인다. 東쪽에서 약 100m 되는 지점과 200~300m 되는 지점에서는 玄武岩礫가 노출되어 있고 背後에는 砂丘層도 발달되어 있다. 砂丘層의 높이는 약 3~4m이고, 총 길이는 약 800m에 이르는데 人工的인 파괴로 인해 侵蝕이 상당히 進前되어 있다. 비양동 海濱은 0.83φ~1.92φ로 조립질 모래(Coarse Sand)에서 중립질 모래 (Medium Sand)의 범주에 해당되며, 滿潮線에서 砂丘層으로 向함에 따라 점차 細粒化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干潮線 부근의 0.83φ~1.22φ, 海濱中央部

1.38ϕ~1.53ϕ, 砂丘層前面 1.45ϕ~1.46ϕ이고, 砂丘上部層은 1.80ϕ~1.92ϕ였다. 이는 遠岸으로부터 潮流나 沿岸流에 의해 이동된 모래들이 반복되는 Swash와 Backwash 作用으로 分級이 이루어지고, 이중 乾燥한 細粒質 모래들은 地面위에 낮게 떠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抛物線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도약과정에 의해 內陸쪽으로 이동되어 海岸砂丘를 형성하는 일련의 海波 및 風性分級作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砂丘層에는 뚜렷한 層理가 존재하지 않으나 上部下 약 30~40㎝되는 지점에서 1~2㎝ 정도 두께의 깨끗한 古期土壤層이 협재되어 있어 珊瑚砂砂丘層의 玄武岩을 함유한 古期土壤層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海濱의 形成史

海濱이란 海岸線을 따라서 波浪과 沿岸流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地形으로서 크게 岩石突出部 사이의 灣入部에 초승달 모양으로 발달하는 灣入海濱(Bayhead Beach)과 岩石突出部에서 波蝕台와 海蝕崖가 서로 접하는 부분에 발달하는 岩石突出海濱(Headland Beach)으로 나눌 수 있는데, 牛島에 발달하는 珊瑚砂海濱이나 비양동海濱은 前者에 속한다. 또한 海濱堆積物의 主 供給源은 河川이기 때문에 河川을 끼고 있는 海濱인 경우는 그 규모가 크나 제주도에는 이런 海濱을 기대할 수 없다. 沿岸에 堆積物이 이동되어 하나의 海濱을 형성케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沿岸流이며, 이 沿岸流는 碎波가 들어올린 물질을 浮遊 및 운반시키는 沿岸漂流(Longshore Drifting)를 진행시킨다.

일반적으로 沿岸流에 의한 海水輸送量은 進入한 波浪의 特性과 入射角에 관계가 있다. 즉, 波高가 높고 入射角이 클수록 沿岸流는 강해져, 큰 波浪은 많은 沿岸漂流와 큰 粒度의 漂砂를 수반하는 것이 보편적인 現象인데, 불규칙한 海岸에서 海水의 실제적인 輸送은 岩石突出部로부터 灣入部로 向하게 된다. 따라서, 岩石突出部는 波浪의 에너지가 集中되는 관계로 侵蝕을 많이 받게 되나 灣入部쪽에는 物質의 移動·集積이 이루어져 海濱을 形成하게 된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볼 때 천진동~우목동 沿岸의 珊瑚砂海濱과 비양동海濱은 그 地形이 兩側의 岩石突出部를 경계로 하여 灣入된 形態를 이루고 있어 沿岸流에 의해 運搬되는 물질들이

集積되어 형성된 海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珊瑚砂海濱과 비양동海濱의 背後에는 砂丘層이 발달하고 있는데 珊瑚砂海濱 背後의 砂丘層內에는 뚜렷한 層理構造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비양동의 砂丘層內에도 上部下 20~30㎝ 지점에는 약 1~2㎝ 두께의 古期土壤層 및 직경 20~30㎝정도의 玄武岩礫이 협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砂丘層의 발달은 風力圈(Wind Regime), 모래입자의 크기, 분급도, 그리고 植生의 피복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砂丘斷面은 風速에 따라 相異한 모양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低風速일 때 砂丘斷面은 짧고 急하며, 高風速일 때는 넓고 둥근 形態로 발전한다. 이뿐만 아니라 細粒砂는 傾斜가 급한 砂丘를 形成하고, 粗粒하고 分級이 불량한 모래는 넓고 완만한 모양의 砂丘를 만든다. 바람에 의해 가장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모래粒子의 크기는 0.10㎜(3.2φ)이고, 도약砂는 대개 2~3φ의 크기 범위이다. 즉, 이 크기의 모래는 根源域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운반되어 砂丘를 形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비양동海濱에서는 海濱에서 砂丘層으로 向함에 따라 平均粒度가 점진적으로 細粒化하여 砂丘層의 上部에서 1.80φ~1.92φ였으나, 珊瑚砂 砂丘層의 上部의 構成粒度는 평균 -1.38~-1.90로 매우 粗粒하였다. 특히 珊瑚砂 砂丘層인 경우, 높이가 평균 2~3m이고, 內陸쪽으로 최대 약 100m까지 확장되어 있으며, 植生이 매우 良好한 편이다. 비양동 砂丘層도 그 높이가 평균 2~4m이고, 內陸쪽으로 약 800m나 뻗어 있으며 이 또한 植生이 발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綜合하여 볼 때, 本 牛島地域의 砂丘層의 形成史는 第4紀末의 海水面의 變化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플라이스토世 末期에 마지막 최대 氷河期가 쇠퇴하면서 海水面은 上昇하기 시작했는데, 海水面 上昇의 樣相은 보통 2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海水面이 계속 上昇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는 Shepard의 설과, 둘째는 上昇하면서 지금으로부터 500~600年 前부터는 現在의 海面보다 2~3m정도 높았던 적이 있다는 Fairbridge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海水面이 現在의 海水面보다 높았음을 暗示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즉, 韓半島 後氷期의 海面變化를 地形學的으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西·南海岸의 평균 2~3m높이의 海岸地形들은 海水面이 現

在보다 적어도 2~3m 높았던 B.P. 6000~3000年까지의 소위 後氷期溫暖期 또는 後氷期高海面期에 발달한 것으로 推定하였다. 또한 韓半島 東海岸 南端의 3~4m海岸段丘가 後氷期溫暖期에 발달된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中國에서도 홀로世 동안에 발해灣과 동지나해에서는 몇 차례 海水面이 2~4m정도 높았던 것으로 報告하고 있으며, 日本에서도 同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牛島地域의 砂丘層은 현재의 海面에서 形成된 것이라기보다는 現在의 海面보다 높은 海水面에서 堆積·發達된 第4紀 間氷期 또는 後氷期의 殘留地形인 것으로 推定된다. 이같은 推定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서는 첫째, 珊瑚砂 砂丘層의 層理構造內에는 暖流圈의 大型 貝殼片과 高期土壤層 및 玄武岩礫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양동砂丘層에서도 古期土壤層과 玄武岩礫이 發見되고 있다는 점이다. 牛島에 近接해 있는 新陽里 海岸가의 新陽里層 最上部에도 최소 약 20cm, 최대 약 50cm두께로 高期土壤層이 發見되며, 新陽里層內의 貝殼片의 絶代年齡이 3,500年으로 測定되었는데 이는 新陽里 沿岸에 발달하는 砂丘層이 3,500年前 이후에 形成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서, 本 牛島地域에도 해당될 것으로 思料된다. 둘째, 砂丘層의 높이가 平均海面보다 2~3m 높고, 바다쪽 前面의 侵蝕이 계속 進行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本 硏究에서 風向 및 風速에 따른 砂丘層의 成長과 消滅관계 실험은 移行치 못했으나 추후 長期間에 걸쳐 觀測을 실시하면 흥미있는 結果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장 動 植 物

우도는 북위 33° 29′ 15″-33° 31′ 30″, 동경 126° 56′ 30″-126° 58′ 30″에 위치하며, 성산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3㎞ 떨어져 있다. 섬은 단축의 길이가 약 2.7㎞, 장축의 길이는 4.9㎞이고, 섬의 북부는 다소 좁게 돌출되고 남부로 갈수록 넓어져서 달걀모양인 타원형이며 면적은 6.03㎢이다. 섬의 남단에 위치한 해발고도 132.5m의 소머리오름(牛頭峰)이 남측으로 절벽을 이루고 북측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섬 전체가 해발고도 30m정도의 평지로 이어진다. 섬의 전 면적이 경작지나 목야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삼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우도연안은 연중 대마난류(對馬暖流)의 영향을 받는 해역으로 불규칙한 수온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겨울 및 여름의 표면 수온 변동 상태가 가장 완만하여 대마난류의 세력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노홍길, 정공흔 1976). 또한 이 섬의 남쪽 소머리오름이 있는 지역의 해안은 수직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조간대의 폭이 좁은 반면 조하대 생물상의 수직분포를 잘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섬의 동쪽, 서쪽 그리고 북쪽 연안은 조간대의 폭이 넓어서 조간대의 풍부한 생물상을 갖고 있다. 더구나 종달리와의 사이에 있는 우도해협은 대조시에 강한 조류가 흐르며 무절 석회조류가 번무한 지역으로 독특한 생물환경을 나타낸다.



우도봉 북향사면의 곰솔

제 1 절 육상의 동식물

1. 동 물

우도의 야생 동물은 전혀 연구된 바 없으며, 더구나 우도에는 숲이 없고 인가나 경작지 및 복야지로만 되어 있어서 숲속에서 생활하는 동물은 우도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가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있고 곳곳에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섬 어느 곳이나 해안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새들이 서식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이다. 1973년 5월 이승택 도지사가 관광객을 유치를 통한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꿩 30마리(수 : 5, 암 : 25)를 방사하여 지금도 꿩이 서식하고 있다. 박행신과 오홍식(1991)은 1991년 2월 7일, 3월 30일, 4월 13일, 6월 1일 그리고 7월 14일 낮(10시 - 14시)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텃새가 16종, 여름 철새 5종, 겨울 철새 5종 그리고 나그네새 2종을 보고하였다. 그 가운데서 참새 *(Passer montanus)*, 각마우지 *(Phlacrocorax filamentasus)*, 제비 *(Hirus rustica)* 및 칼새

(Apus pacificus) 등이 개체수가 많아 우점을 이루었고, 또한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황조롱이*(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 Horsfield)가 이 섬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후에 황조롱이의 생활상을 밝히고 둥지를 확인하여 보존 및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황조롱이*(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 Horsfield)는 매목(目) 매과(科)의 한 종(種)으로 몸 길이는 33-35*cm*로 먹이를 찾으면서 공중을 선회하며 일시 정비(停飛)하는 습성이 눈에 띈다. 수컷은 밤색 등면에 갈색 반점이 있으며, 황갈색의 아랫면에는 큰 흑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머리는 회색, 꽁지·깃은 회색에 넓은 흑색 띠가 있고 끝은 백색이다. 암컷의 등면은 진한 회갈색에 암갈색의 세로반문이 있다. 꽁지·깃에는 갈색에 암갈색 띠가 있다. 도시의 건물에서도 번식하는 텃새이다. 산지에서 번식한 무리가 겨울에는 평지로 내려오므로 흔히 눈에 띄지만 여름에는 평지에서 보기 어렵다. 날개를 돌시 퍼덕이며 작선 비상한다. 때로는 꽁지깃을 부채처럼 펴고 지상에서 6-15*m* 상공의 한 곳에 떠서 연 모양으로 정비 범상(帆翔)을 하며 지상의 먹이를 노린다.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한다.



황조롱이(제주대학교 표본실 소장)

전선, 전주, 나무 위, 건물 위 등에 앉기도 한다. 날카로운 소리를 지른다. 4월 하순에서 7월 초순에 걸쳐 4-6(때로는 8-9)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은 지 27-29일만에 부화되어 27-30일간 육추(育雛)후 둥지를 떠난다. 들쥐, 두더지, 작은 새, 곤충류, 파충류 등을 먹는다(원병오,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 1975).

한편 김원택과 오홍식(1991)은 우도의 곤충 10목 53과 109속 116종을 보고하면서, 우도는 면적에 비하여 곤충상이 다소 빈약한 편이나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면 좀더 다양한 종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뿔소똥구리 (*Copris ochus* Motchulsky), 나나니 (*Ammophila infesta* Smith), 진모기각다귀붙이 (*Rhipidia pulchra septentrionis* Alexander), 알락수염노린재 (*Dolycoris baccarum* Linnaeus) 등이 이 섬에 많이 나타나고 딱정벌레류의 종수가 많았다. 참밑드리메뚜기 (*Podisma morii* Bey-Bienko), 노랑허리잠자리 (*Pseudothemis zonata* Burmeister), 검은띠꼬마잎벌레 (*Cyaniris japonica* Baly), 섬각다귀 (*Rhipidia pulchra septentris* Alexander), 노랑띠땅벌(Vespula rufa Linnaeus), 참구멍벌 (*Tachytes sinensis* Smith)은 제주도와 미기록 종으로 이 섬에서 처음 발견된 종들이며, 톡토기目 *Morulina gigantea* Thunberg, 메뚜기科 *Trilophidia annulata japonica* Saussure, 귀뚜라미科 *Duolandrevus coulonianus* Saussure, 잠자리科 *Sympetrum flaveolum* Linnaeus, 노린재科 *Agonoscelis nubila* Fabricius, 딱정벌레科 *Nebria chalceola* Bates, 바구미科 *Hyposipalus gigas* Fabricius, 풍뎅이科 *Panelus parvulus* Waterhouse, 파리目 *Eupyrgota fusca* Hendel, *Cryptochaetum grandicorne* Rondani, 말벌科 *Eumenes micado* Cameron, 털보애꽃벌科 Macropistibialis Yasumatsu et Hirashima 등은 더욱 연구하면 한국 미기록 종으로 판명될 수 있는 종들이다. 더구나 이 중에서 종 분포의 한계를 규명하거나 생물지리학적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갖는 종으로 판명될 경우 우도는 그 종의 서식지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2. 식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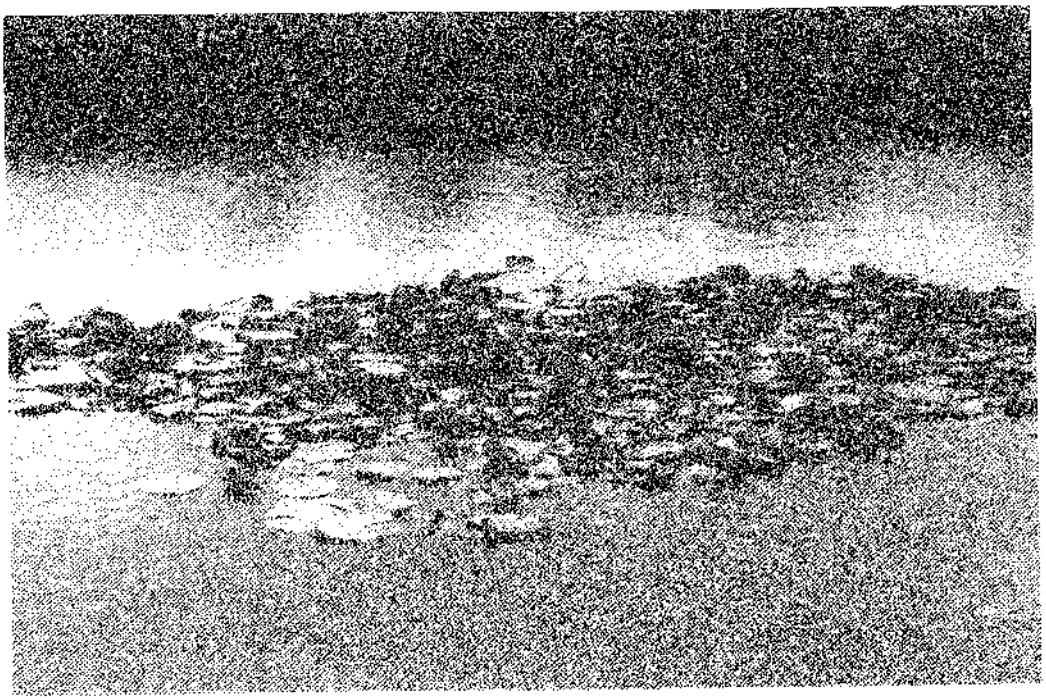
우도 소머리오름의 북향사면에 곰솔 군락이 형성된 것 이외에는 숲이 없고 섬



천진리 연못의 부들

전체가 목야지 또는 경작지로 되어 있다. 천진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도로의 양가에는 가로수로 까마귀쪽나무와 몇 그루의 광나무와 왕벚나무가 섞여있고, 면사무소에서 초등학교 올타리 주변에는 돈나무, 협죽도 및 곰솔이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으나 그외의 다른 도로에는 가로수가 없다. 초등학교 교정에는 무궁화, 광나무, 장미, 동선화, 문주란, 보리수나무 등 44종이 정원식물로 식재 되어있다. 중학교 교정에도 개나리, 수국, 종려나무, 단풍나무 등 42종의 식물이 있다. 그외 보건소의 정원에는 용설란, 동백나무 등 19종, 농업협동조합의 정원에는 사철나무, 실유카 등 10종, 면사무소의 정원에는 참식나무, 칸나, 후박나무 등 17종, 그리고 우도지서의 정원에는 삼나무, 편백나무, 러즘나무 등 21종이 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르지만 심향나무, 백합, 초과나무, 송악 등 57종이 일반 가정의 정원에 있다. 이 가운데 돈나무, 동백나무, 무궁화 아왜나무, 광나무 무화과, 사철나무, 실유카, 종려나무 및 철쭉 등이 정원수로 흔히게 가꾸어지고 있다. 김문홍(1991)은 우도의 관속식물 310종을 보고하였다. 이 중에

238종은 초본인데 양치류가 14종, 단자엽 식물이 47종 그리고 쌍자엽 식물이 177종이다. 나머지 74종은 목본인데 이 중에서 나자식물이 6종이고 피자식물은 68종이다. 또한 우도에서 재배식물 25종이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소일리 연못의 수련

정 원 식 물

식 물 이 름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우도지서	일반가정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owicz(가래나무과)					*
가새뽕 *Morus bombycis Koidzumi* for. *kase* Uyeki(뽕나무과)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erg) Linnaeus fil. (감나무과)					
개나리 *Forsythia koreana* Nakai (물푸레나무과)	*	*	*		

식 물 이 름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우도지서	일반가정
곰솔 *Pinus thunbergii* Parlatore (소나무과)	*	*	*	*	
과꽃 *Callistephus chinensis* (Linnaeus) Nees (국화과)	*				
광나무 *Ligustrum japonicum* Thunberg (물푸레나무과)	*	*	*	*	*
구골나무 *Osmanthus heterophyllus* (G. Don) P.S. Green (물푸레나무과)					*
구실잣밤나무 *Castanopsis cuspidata* (Thunberg) Schottky var. sieboldii Nakai(참나무과)					*
국수나무 *Stephanandra incisa* Zabel (장미과)					*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uelle (국화과)	*		*		
금사철 *Euonymus japonica* Thunberg (노박덩굴과)		*			*
금잔화 *Calendula arvensis* Linnaeus (국화과)		*			
까마귀쪽나무 *Litsea japonica* Jussieu (녹나무과)	*	*			*
깨꽃 *Salvia splendens* F. Sello (꿀풀과)	*	*			
꽃치자 *Gardenia jasminoides* Ellis var. *radicans* Makino (꼭두서니과)	*				
남오미자 *Kadsura japonica* Dunal (목련과)		*			
누리장나무 *Clerodendron trichotomum* Thunberg (마편초과)	*				*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innaeus var. *sargentii* Henry (측백나무과)					*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erg) Makino (느릅나무과)		*			
다정큼나무 *Raphiolepis umbellata* (Thunberg) Makino var. *mertensii* Makino (장미과)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erg (단풍나무과)		*			
댕강나무 *Abelia mosanensis* T. Chung (인동과)					*
돈나무 *Pittosporum tobira* Aiton (돈나무과)	*	*	*	*	*

식 물 이 름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우도지서	일반가정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innaeus (차나무과)	*	*	*		*
두릅나무 *Aralia elata* Seemann (두릅나무과)					*
등 *Wistaria floribunda* A. P. de Candolle (콩과)	*				*
마삭줄 *Trspermum asiaticum* (Siebold et Zuccarini, Nakai var. *intermedium* Nakai(협죽도과)					*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백합과)		*			*
머위 *Pertasites japonicus* (Siebold et Zuccarini) Maximowicz (국화과)	*	*		*	
멀구슬나무 *Melia azedarach* Linnaeus var. *japonica* Makino (멀구슬나무과)	*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미나리아재비과)					*
무궁화 *Hibiscus cyriacus* Linnaeus (아욱과)	*	*		*	*
무화과 *Ficus carica* Linnaeus (뽕나무과)	*	*		*	*
문주란 *Crinum asiaticum* Linnaeus var. *japonicum* Baker (수선화과)	*	*		*	*
물참나무 *Quercus grosseserrata* Blume (참나무과)					*
박태기나무 *Cercis chinensis* Bunge (콩과)	*				
배롱나무 *Lagerstoremia indica* Jacquemont (부처꽃과)				*	
백합 *Lilium longiflorum* Thunberg (백합과)			*		*
버드나무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과)				*	
버즘나무 *Platanus orientalis* Linnaeus (버즘나무과)	*			*	
보리수나무 *Elaeagnus umbellata* thunberg (보리수나무과)	*	*			*
보리장나무 *Elaeagnus glabra* Thunberg (보리수나무과)					*
봉선화 *Impatiens balsamina* Linnaeus (봉선화과)	*				
분꽃 *Mirabilis jalapa* Linnaeus (분꽃과)		*			

식 물 이 름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우도지서	일반가정
비자나무 *Torreya nucifera* Siebold et Zuccarini (주목과)					*
비파나무 *Eriobotrya japonica* Lindley (장미과)	*				
뽕나무 *Morus alba* Linnaeus (뽕나무과)					*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a* Thunberg (노박덩굴과)		*		*	*
삼나무 *Cryptomeria japonica* (Linnaeus fil.) D. Don (낙우송과)				*	*
새덕이 *Neolitsea aciculata* (Blume) Koidzumi (녹나무과)			*		
석류 *Punica granatum* Linnaeus (석류과)					*
섬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innaeus var. *procumbens* (Siebold) Endlicher (측백나무과)					*
소귀나무 *Myrica rubra* Siebold et Zuccarini (소귀나무과)					*
소철 *Cycas revoluta* Thunberg (소철과)	*	*	*		
솔비나무 *Maakia fauriei* (Leveille) Takeda (콩과)					*
송악 *Hedera rhombea* Bean (두릅나무과)					*
수국 *Hydrangea macrophylla* (Thunberg) Seringe f. *otaksa* (Siebold et Zuccarini) Wilson (범의귀과)	*	*		*	*
수련 *Nymphaea tetragona* Georgi var. *angusta* Caspary (수련과)	*				
수선화 *Narcissus tazetta* var. Chinensis Roemer (수선화과)	*	*			
식나무 *Aucuba japonica* Thunberg (층층나무과)		*	*		*
실유카 *Yucca filamentosa* Linnaeus (용설란과)	*	*		*	*
아마릴리스 *Hippeastrum hybridum* Hortorum (수선화과)		*			
아스파라가스 *Asparagus officinalis* Linnaeus (백합과)					*
아왜나무 *Viburnum awabuki* K. Koch (인동과)	*	*	*	*	*
예덕나무 *Mallotus japonicus* Mueller (Argoviensis) (대극과)	*	*			*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ura (장미과)		*			

식 물 이 름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우도지서	일반가정
용버들 *Salix matsudana* G. Koidz var. *tortusa* Rehder (버들과)		*			*
용설란 *Agave americana* Linnaeus (용설란과)			*	*	
우묵사스레피 *Eurya emargiana* (Thunberg) Makino(차나무과)			*		*
원추리 *Hemerocallis fulva* Linnaeus (백합과)		*			
으름 *Akebia quinata* Decaisne (으름덩굴과)					*
은행나무 *Ginkgo biolba* Linnaeus (은행나무과)	*		*		*
이대 *Pseudosasa Japonica* Nakai (벼과)	*		*		
자귀나무 *Albizzia julibrissin* Durazzini (콩과)	*				
장미 *Rosa hybrida* Hortorum (장미과)	*				*
적작약 *Paeonia lacitifolia* Pallas (미나리아재비과)					*
좁은잎천선과나무 *Ficus erecta* Thunberg var. *sieboldii* (Miquel) King (뽕나무과)	*				*
좀가시나무 *Quercus glauca* Thunberg (참나무과)	*				
주걱댕강나무 *Abelia spatulata* Siebold et Zuccarini(인동과)					*
쥐똥나무 *Ligstrum oblusifolium* Siebold et Zuccarini (물푸레나무과)		*		*	*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aninov (진달래과)	*	*			
참식나무 *Neolitsea sericea* (Blume) Koidzumi (녹나무과)			*		
천선과나무 *Ficus erecta* Thunberg (뽕나무과)	*	*			*
철쭉나무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owicz (진달래과)		*	*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A.P. de Candolle (운향과)					*
측백나무 *Thuja orientalis* Linnaeus (측백나무과)	*	*		*	
큰천남성 *Arisaema ringens* Schott (천남성과)					*
통탈목 *Tetrapanax papyriferus* K. Koch (두릅나무과)	*			*	

식 물 이 름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우도저서	일반가정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oon (느릅나무과)					*
페튜니아 *Petunia hybrida* Hortorum Vilmorin (가지과)	*	*			
피라칸사 *Pyracantha angustifolia* Schneider (장미과)		*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innaeus (측백나무과)	*	*	*		
협죽도 *Nerium indicum* Miller (협죽도과)	*	*			*
홍초 *Canna generalis* Bailey (홍초과)	*	*	*	*	*
회나무 *Eunonymus sachalinensis* (Fr. Schmidt) Maximowicz (노박덩굴과)					*
회양목 *Buxus microphylla* Siebold et Zuccarini var. *koreana* Nakai (회양목과)	*	*			
후박나무 *Machilus thunbergii* Siebold et Zuccarini (녹나무과)			*		*

제 2 절 해안의 동식물

1. 동 물

백문하 교수의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1980년 3월말부터 12월까지 우도연안 해역에서 확인된 어류는 16목 70과 136종으로 이 가운데서 구갈돔 (*Lethrinus haematopterus* Temmink et Schlegel), 옥두놀래기(*Iniistius dea* Temmink et Schlegel), 쥐돔(*Prionurus microlepidotus* Lacepede) 등 희귀종이 포함되어 있다 (참조 백문하 1980). 이정재, 현재민(1991)은 우도 조간대에 서식하는 해면동물(海綿動物) 6종, 자포동물(刺胞動物) 3종, 연체동물(軟體動物) 78종, 환형동물(環刑動物) 5종, 절지동물(節肢動物) 18종, 극피동물(棘皮動物) 9종, 척색동물(脊索動物) 1종 등 저서(底棲)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7문(門) 63(科)

120종(種)을 보고하였고, 조간대 상부에는 좁쌀무늬총알고둥(*Nodilitorina exigua* Dunker), 조간대 중부에는 각시고둥(*Monodonta neritoides* Philippi) 그리고 조간대 하부에는 검은따개비(*Tetraclita squamosa japonica* Pilsbry)가 우점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정재, 좌용우(1988) 및 이정재 등(1990) 제주도연안 조간대의 패류 또는 저서무척추동물의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우도 연안의 조간대 상부에는 갈고둥(*Heminerita japonica* Dunker)과 좁쌀무늬총알고둥이, 조간대 중부에는 각시고둥과 눈알고둥(*Lunella coronata coreensis* Recluz) 또는 군부(*Liolophura japonica* Lischke), 그리고 조간대 하부에는 밤고둥(*Chlorostoma argyrostoma lischkei* Tapparone-Canefri), 각시고둥, 군부, 명주고둥 (*Chlorostigma xanthostigma* A. Adams)등이 우점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동물의 분포론적 연구에서 서식지 및 동물명에 우도가 언급된 것이 있다. 현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고래상어(*Rhinocodon typus* Smith)가 1982년 10월 우도 남방 20마일에서 잡혔으며(백문하 1984), 보라바퀴해면(*Iotrochoda baculifera* Ridley)은 우도에서 채집된 것이 도표로 제시되었고 아프리카깃히드라(*Antennella africana* Broch)도 우도에서 채집되었다(노분조 1977). 참집게(*Pagurus samuelis* Stimpson), 네톱니부채게(*Heteropanope pilumnopeus* indica De Man), 사각게(*Sesarma*<Parasesarma> Pictum De Haan) 및 비단게(*Cyclograpus intermedius* Ortmann) 등이 우도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훈수 1973). 이정재, 백문하(1982)는 제주도 연안에 분포하는 어류 100종과 패류(貝類) 66종에 대한 지방명을 밝히면서 우도에서 사용되는 어류와 패류의 이름을 보고하였다.

2. 식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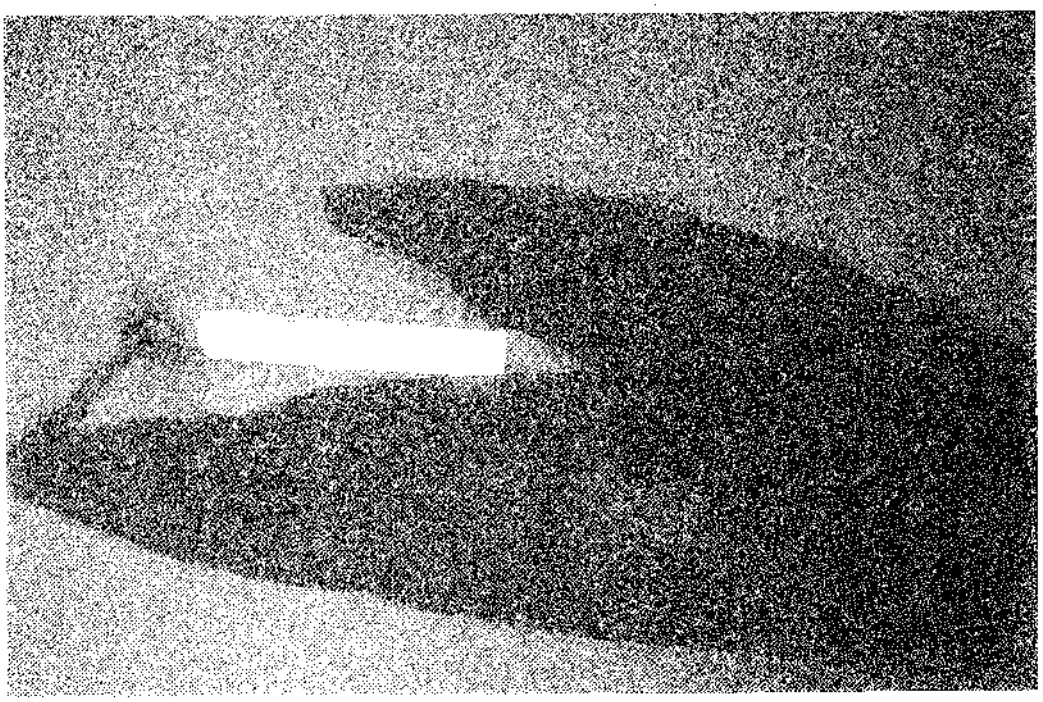
우도연안의 해조류에 대해서는 1960년 강제원 교수의 논문 "The summer algal flora of Cheju Island(Quelpart Island)"에서 우도해협 수심 15*m*지역에 Lithothamnion-bank(무절 석회조류 군락)가 있고 여기에 넓미역(*Undaria peterseniana* <Kjellman> Okamura)이 넓은 군락을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강

제원 교수(1966)는 한국연안 해조류의 지리적 분포를 논하면서 29종의 우도산 해조류를 보고하였으며 이 가운데 큰그물바탕말(*Dictyota maxima* Zanardini)과 미끌부채(*Sebdenia agardhii* <De Toni> Codomier=*Halymenia agardhii* De Toni)는 지금까지도 우도에서만 생육이 확인된 희귀종이다. 박정홍(1977, 1980)은 우도 해협에 형성되어 있는 *Lithothamnion*-bank(무절 석회조류 군락)에는 돌나무쩍(*Lithothamnion erubescens* Foslie=*Mesophyllum erubescens* <Foslie> Foslie)이 우점을 이루고 여기에 *Spongite reinboldii*(Weber van Bosse et Foslie) Penrose et Woelkerling(1988, =*Hydrolithon reinboldii* Weber van Bosse et Foslie; 아직 국명이 없음)가 혼생하고 있는데 이들 식물체의 위에 넓미역이 착생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기완, 고신자(1991)는 산호조괴(珊瑚藻塊=무절석회조류군락)는 주로 혹돌잎(*Lithophyllum okamurae* Foslie f. japonicum Foslie)으로 구성되었으며 넓미역 군락에 다시마(*Laminaria japonica* Areschoug)가 생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기완, 고신자(1991)는 우도에서 남조류 6종, 녹조류 30종, 갈조류 53종 및 홍조류 157종이 생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조간대 중하부의 전 지역에 구멍갈파래(*Ulva pertusa* Kjellman)가 넓게 군락을 형성하고 갈래잎(*Schizymenia dubyi* <Chauvin> J. Agardh)이 돋보이게 자라며, 조하대에는 감태(*Ecklonia cava* Kjellman)와 톱니모자반(*Sargassum serratifolium* <C. Agardh> C. Agardh=*Sargassum macrocarpum* C. Agardh)이 수중림을 이루고 있고 그 저층에는 갈색대마디말(*Cladophora wrightiana* Harvey), 우뭇가사리류(*Gelidium-Pterocladia* complex), 참곰솔이(*Plocamium telfairiae* <Harvey> Harvey), 부채분홍잎(*Acrosorium flabellatum* Yamada), 갈래곰보(*Meristotheca papulosa* <Montagne> Kylin), 벗붉은잎(*Callophyllis japonica* Okamura), 참갈파래(*Ulva lactuca* Linnaeus) 등이 많이 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기완(1980)은 우도연안의 1년생 감태(*Ecklonia cava* Kjellman) 군락의 생태적인 변화를 연구하여 감태의 채취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정수(1987)와 고기원 등(1988)은 우도의 우목동 연안에 분포하는 산호사 해빈(珊瑚砂 海濱)은 산호질 해조(무절석회조류)의 파편으로 구성된 역질사해빈(礫質砂 海濱)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우도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자연경관 지역이며 학술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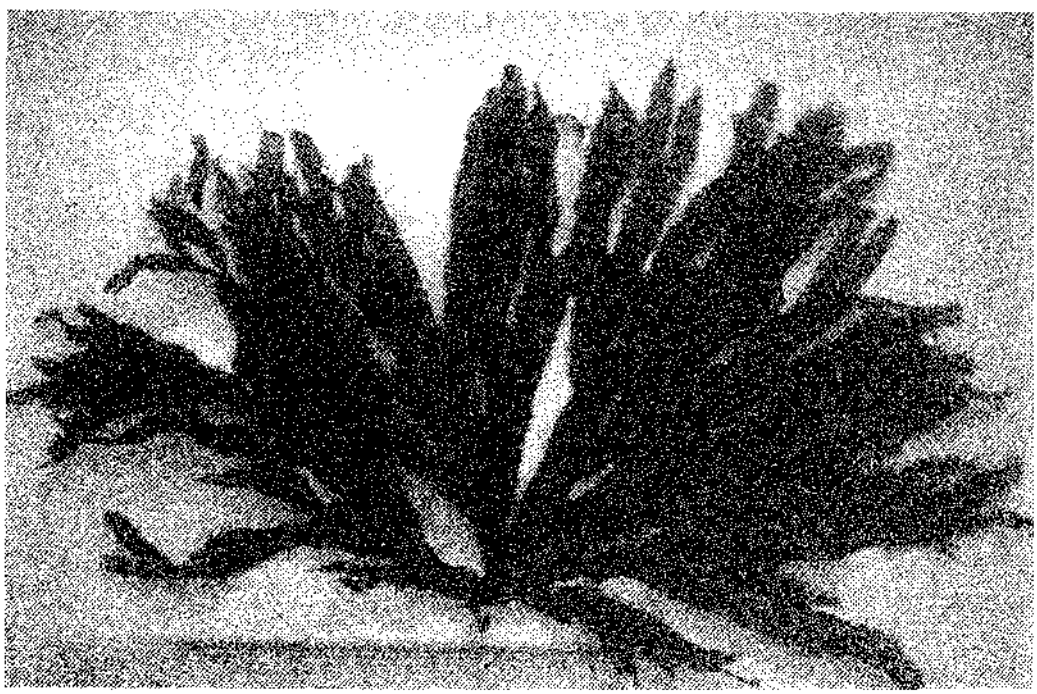
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방문화재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넓미역(*Undaria peterseniana* <Kjellamn> Okamura)은 다시마목(Laminariales) 미역과(Alariaceae)에 속하는 갈조식물로 뿌리는 섬유상이며 줄기는 5~10㎝ 또는 30㎝에 달하고 폭은 10~15㎜로 편압되고 양측에서 좁은 날개가 생긴다. 잎은 줄기의 상부에서 발달하여 폭이 25~30㎝로 넓고 길이가 1~3.5m로 긴 띠 모양을 하거나 긴 타원형인 것도 있다. 잎의 가운데는 폭이 10㎝ 정도로 넓고 조금 두꺼운 부분이 생겨서 잎맥처럼 된다. 유주자낭(游走子囊)은 잎맥처럼 된 부분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형성되고 잎의 양면을 덮게 된다. 줄기의 양측에 주름이 생기고 그곳에도 유주자낭이 형성된다. 유주자를 방출하는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까지로 수온이 18.0~23.5℃일 때이다. 수심이 깊은 곳에 생육한다. 겨울에 어린 식물체가 나타나고 다음해 초여름까지 성숙하면 중륵부의 양면에 유주자낭이 형성되고, 유주자를 방출하고 나면 잎의 끝 부분에서부터 차차 녹아 없어지기 시작하여 8월에는 완전히 유실(流失)된다(강제원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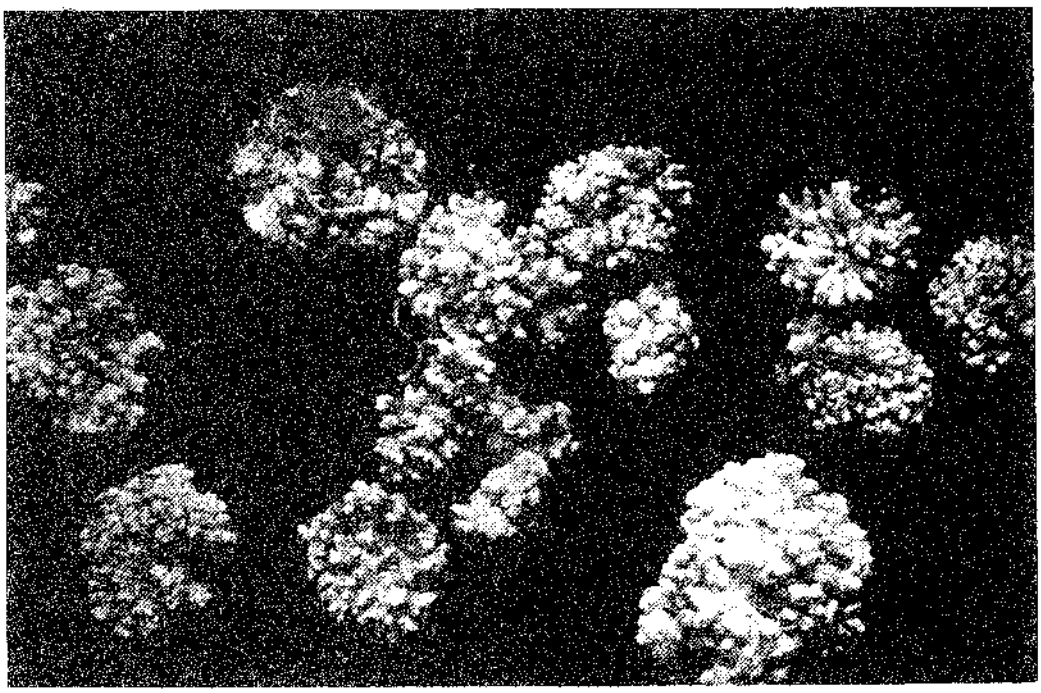
넓 미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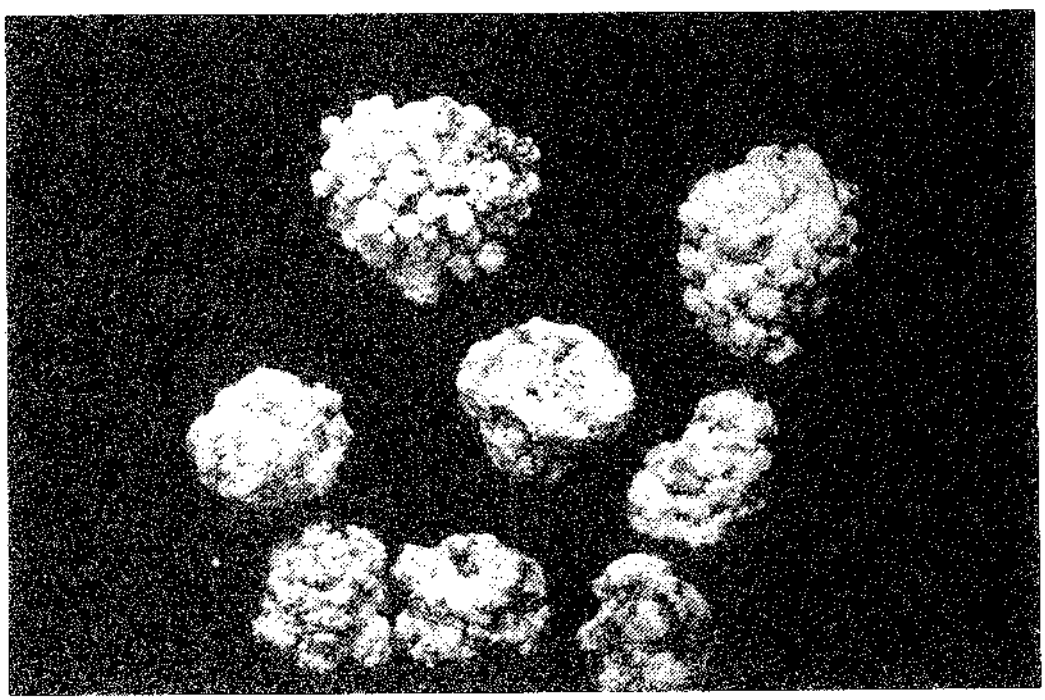
큰그물바탕말(*Dictyota maxima* Zanardini)은 그물바탕말목(Dictyotales) 그물바탕말과(Dictyotaceae)에 속하는 갈조식물로, 식물체는 담갈색을 띠며 부채모양으로 펼쳐지고 높이는 30~40㎝에 달하고 가지의 폭은 2~2.5㎝ 정도이다. 질은 조금 단단하고 엷으며 파손되기 쉽다. 식물체의 기부에 갈색의 털이 다발을 이루며 이것으로 바위에 붙는다. 가지는 차상으로 분지하며 전연(全緣)이고 가지의 끝은 둔원이다. 생식세포군은 둥글고 몸의 전면에 산재한다 (강제원 1968). 우도 해협의 무절석회조류 군락(*Lithothamnion* bank)에 넓미역과 함께 자란다.



큰그물바탕말

돌나무쩍(*Lithothamnion erubescens* Foslie), *Spongite reinboldii* (Weber van Bosse et Foslie) Penrose et Woelkerling 및 흑돌잎(*Lithophyllum okamurae* Foslie f. *japonicum* Foslie)은 모두 지누아리목(Cryptonemiales) 산호말과(Corallinaceae)에 속하는 홍조식물로 식물체의 조직에 석회질이 많이 침적되어 단단하고 납모양 또는 짧은 원주상의 가지를 내며 자라서 전체의 모양은 여러가지 형태의 돌기를 낸 콘크리트 덩어리와 같다. 분홍색 또는 연한 홍색을 띠고, 돌기와 같은 가지의 모양 및 분지의 형태, 생식기소의 구조 등을 특징으로 분류한다.





무절석회조류

인 용 문 헌

강제원(1960). The summer algal flora of Cheju Island (Quelpart Island). 부산수산대학 연구보고 3 : 17-23.

강제원(1966). O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arine algae in Korea. 부산수산대학 연구보고 (자연과학) 7 : 1-125.

강제원(1968). 한국동식물도감 제8권 식물편 (해조류). 문교부.

고기원, 윤정수, 김성복(1988). 濟州 東部 牛島의 海濱堆積物에 關한 硏究.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 연구보고 12 : 43-53.

김문홍(1991). 濟州島 附屬 主要 有人島의 管束植物相. 제주유인도학술조사 : 51-103. MBC 제주문화방송

김원택, 오홍식(1991). 濟州島 인근 有人島의 昆蟲相 연구. 제주유인도학술조사 : 132-175. MBC 제주문화방송

김훈수(1973). 한국동식물도감. 제14권 동물편 (집게 · 게류). 문교부.

노분조(1977). 한국동식물도감. 제20권 동물편 (해면 · 히드라). 문교부.

노홍길, 정공흔(1976). 濟州島 沿岸의 水溫 鹽分 變動에 關한 硏究 - Ⅰ. 제주대학 논문집 (자연과학편) 8 : 115-122.

박정홍(1977). 한국산 무절산호조에 관한 연구(Ⅱ). 부산수산대학 연구보고 (자연과학) 17 : 59-70.

박정홍(1980). 韓國産 無節珊瑚藻에 關한 硏究. 부산수산대학 연구보고 (자연과학) 20 : 1-30.

박행신, 오홍식(1991). 濟州道 4개 有人島의 鳥類調査. 제주유인도학술조사 : 105-131. MBC 제주문화방송

백문하(1980). 西歸浦 沿近海의 漁類相. 제주대학 해양자원연구소 연구보고 4 : 39-46.

백문하(1984). 濟州道 沿近海 漁類相의 追加種. 제주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편). 18 : 107-113.

윤정수(1987). 牛島 珊瑚砂 海濱에 關한 學術硏究報告書. 북제주군. 1-18.

이기완, 고신자(1991). 濟州島 周邊 有人島의 海藻類相. 제주유인도학술조사

: 235-269. MBC 제주문화방송

이기완(1980). Changes of some harvested populations of Gamtae, Ecklonia cava Kjellman. 제주대학 해양자원연구소 연구보고 4 : 23-29.

이정재, 백문하(1982). 濟州沿岸에 分布와 海洋動物의 地方名에 關하여. 2. 漁貝類. 제주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연구보고 6 : 53-64.

이정재, 장창익, 조운삼(1990). 濟州島 潮間帶의 및 章地帶 生態系의 群集構造에 관한 硏究. -底棲大型無脊椎動物의 分布와 群集構造-. 한국패류학회지 5 : 10-28

이정재, 좌용우(1988). 濟州島 潮間帶 生態學的 基礎硏究. 1. 플랑크톤에 의한 生産量推定 및 貝類의 群集構造 — 貝類의 群集構造. 한국패류학회지 4 : 17-29.

이정재, 현재민(1991). 濟州島 周邊 有人島의 底棲無脊椎 動物相. 제주유인도 학술조사 : 176-233. MBC 제주문화방송.



제2편 歷史와 遺跡

제1장 歷史와 設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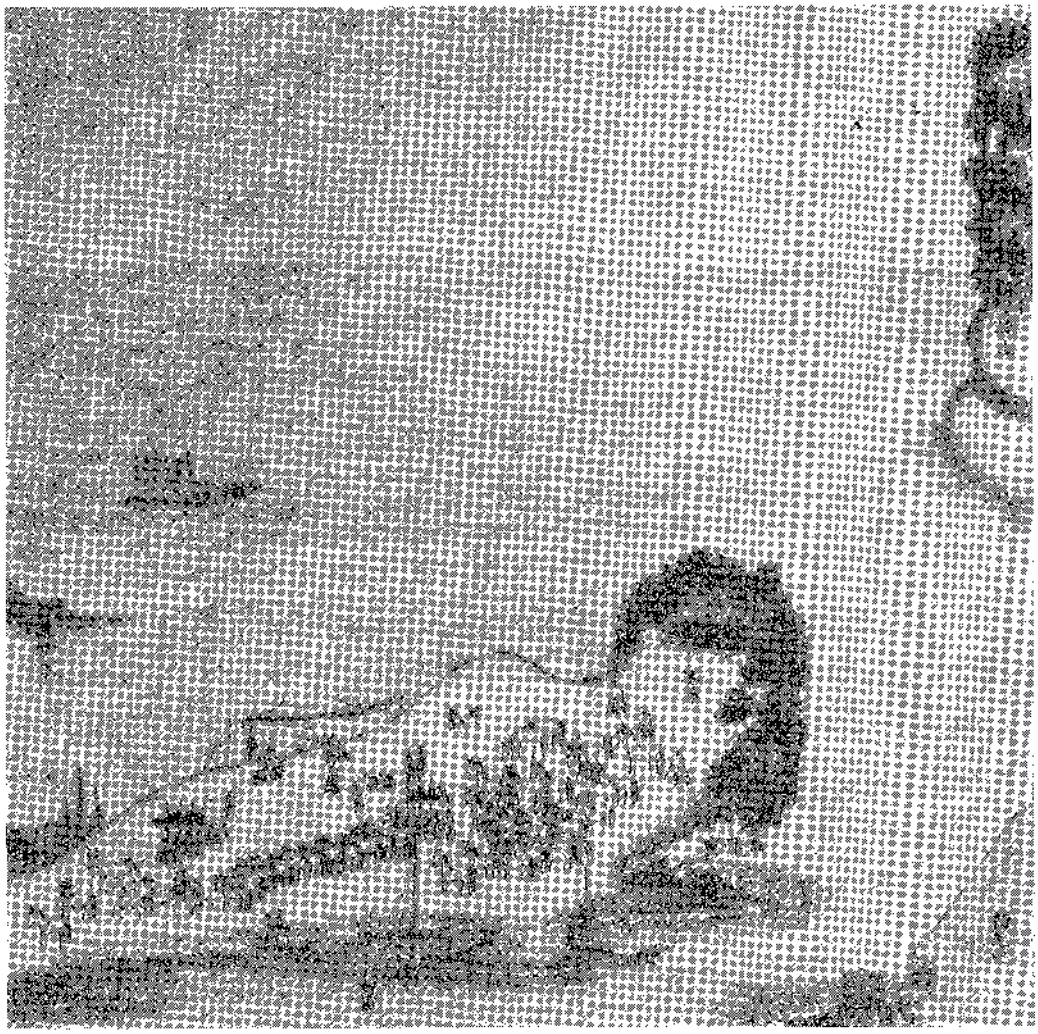
牛島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은 朝鮮朝 憲宗 9년(1843) 경부터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왕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牛島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그리고 肅宗 23년(1679) 牧場이 설치되면서부터는 國馬를 管理, 飼育하기 위해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다. 그러나 純祖 23년(1823)부터는 濟州 백성들이 계속하여 牛島의 開墾을 朝廷에 요청하게 되었고, 또 憲宗 8년(1842)에는 조정으로부터 승인을 받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들어가 開墾하기 시작한 것은 牛島에서 放牧하던 馬匹을 다른 목장에로의 搬出이 마무리된 憲宗 9년 봄부터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牧場의 設置로부터 開墾許可의 要請, 馬匹의 搬出過程 및 開墾과 入住에 이르는 과정을 理解의 편의상 몇 개의 段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牧場의 設置

牛島에 목장[1]이 설치된 것은 朝鮮朝 肅宗 23년 (1697. 丁丑)의 일이다. 그것은 李衡祥의 《南宦博物》 <誌島>條에,

1) 孝宗 4년(1653)에 李元鎭이 간행한 《耽羅誌》 〈濟州牧 牧場〉條에는 "羔囿"(註, 牛島飛揚島俱有之)라 하여, 牛島와 飛揚島에서 "羔囿"(염소?)를 사육했었음을 엿볼 수 있다.



牛島點馬(壬午七月十三日中軍 旌義縣監 牧子 保人幷二十三名 馬二百六十二匹)

卯有牛島形如臥牛。 在旌義境別防水山兩鎭之間。 無樹木只產楮。 今丁丑年新設牧場, 周五十里水路十里。 波極險難渡。 ‥以故人無往者, 守令數授幕僚吏民交諷更諫, 余以新設牧場, 不可不見過歷入。‥

이라 한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즉 "卯方(동쪽)에는 牛島가 있는데, 모양은 '누운 소'(臥牛)와 같고 旌義 경계의 別防·水山 兩鎭 사이에 있다. 樹木은 없고 오직 닥나무가 나는데, 今上(肅宗) 丁丑年에 목장을 신설하였다. 둘레가 50

리이고 수로는 10리이며, 파도가 매우 험하여 건너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으므로, 守令·敎授·幕僚·吏民들이 교대로 아뢰며 못들어 가게 諫하였으나 그는 몸소 들어가 新設牧場 등을 둘러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만류를 뿌리쳤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내용 중의 '丁丑年'이 곧 肅宗 23년에 해당하는 해이다.[2] 그리고 洪鍾宇의 《觀風案》 <柳漢明>條에는,

丙子十月 以全羅右水使移拜, 放馬於牛島新設牧場, 己卯五月遞去.

이라 하여, 牛島에 목장이 설치될 당시의 제주 목사는 柳漢明이었으며, 그는 肅宗 22년(1696) 10월에 부임하여 同王 25년 5월에 교체되어 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목장의 설치 연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당시 목장이 설치되면서 말(馬)이 방목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욱이 李衡祥의 《甁窩全書》 <耽羅狀啓草>에는 당시 목장의 설치 경위와 事後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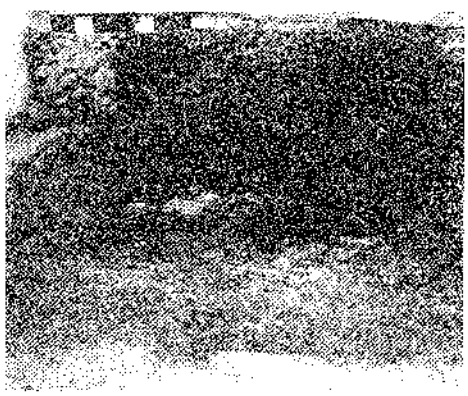
牛島에 목장을 별도로 설치할 때에 是非의 事端이 많았고, 방목한 후 지금까지도 民怨이 오히려 많습니다. 대개 順風을 기다려 왕래할 때에 물에 빠지기 쉽고 民役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별도로 (목장을) 설치하는 것은 더욱 민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너가는 뱃길이 매우 험난하여 點馬할 때에는 軍官을 대신 보내는 것으로 이미 事目에는 되어 있습니다. 목장의 利得과 損失, 馬畜의 쇠잔함과 성함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臣이 지난 달에 몸소 가서 세밀히 조사하였더니, 公私의 屯馬는 모두 극히 여위었으나 이 섬의 말은 매우 살찌었고, 각 목장의 번식은 줄어든 것은 있어도 불어난 것은 없었는데, 이 섬의 말은 역시 많이 번식했었습니다.

당초에 방목한 것은 단지 150여 필이었으나 3년이 못되어 야위어 죽은 수가 많아서 105필에 이르렀으니, 다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 안에 지금 260여 필에 이르렀고, 또 좋은 말(駿骨)이 많아서 柳漢明 전 목사가 비방을 부릅쓰고 屯(목장)을 설치한 것이 이미 實效가 나타났으니, 진실로 다행입니다. 다른 목장의 말이 牧卒에게 주둑들어 날로 더욱 감축된 것은 이를 미루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말은 生草를 먹으며 번식하여 지금과 같음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2) 그런데 金錫翼의 《耽羅紀年》에는 "(肅宗)二十四年夏, 貿馬二百餘匹, 放于牛島"라 하여, 목장의 설치 연대를 肅宗 24년(1698)으로 보았으며, 이 때에 말 2백여 필을 사다가 牛島에 방목하였다고 하였다.

土品이 날떠 메마르고 습기가 全無하여 방목한 후에 損傷됨이 이미 지극하였으니, 앞으로 10년이 못되어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 심히 염려됩니다. 섬 안을 두루 살펴보니, 生水는 하나도 없고 지금 의지하는 것은 단지 두 곳에 못을 파서 빗물을 받아 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날떠 메마른 땅의 불이 다 스며들어 만일 조금이라도 기뭄이 들면 맑은 다 퍼서 할 것이며, 또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救할 계책이 없습니다. 당장 官廳을 동원하여 혹은 옛 못을 파고, 혹은 새로 모(湫)를 쌓아서 秋冬에 물을 저장할 계획을 세워야 하며, 목이 스며드는 것도 이와 같이 하면 끝내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의 成事與否는 人力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 이 뒤에 사실의 전말을 마땅히 啓聞하겠습니다.[3]

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牛島에 목장을 설치할 당초에는 事端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뱃길이 험할 뿐 아니라 또 목장을 설치하여 무거운 民役을 더욱 과중시킨다는 것. 둘째, 당시 柳漢明 목사는 모든 비방을 무릅쓰고 일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3년 사이에 처음 방목한 150여필 중 105필이 斃死하여 애로가 많았으나 7년이 지난 지금은 260여 필로 불어나 일단 성공했다는 것. 셋째, 물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위 狀啓 내용 중에는,



(예물)



(산물)

예로부터 우도에는 땅에서 솟는다는 '산물'(좌)과 웅덩이에 고인 물인 봉천수 즉, '예물'(우)이 있었다. 이 물로서 150여 필의 말과 목장관리인이 식수로 이용했다.

黃蔘場…又使統營越冬前, 入送綿布十同, 則一依牛島設場時貿易之例, 限五十匹貿放良種,

3) 原文 省略.

이라 한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牛島에 목장을 설치할 당시 방목한 말 150여 필 중 50필은 良種을 사다가 방목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耽羅巡歷圖》 <牛島點馬>의 下段에도,

壬午七月十三日
中軍
旌義縣監
牧子保人竝二十三名
馬二百六十二匹

이라 하여, 그가 牛島 목장을 점검한 것이 壬午年(肅宗 28, 1702) 7월 13일이었으며, 이 때 中軍과 旌義縣監이 입회하였는데, 牛島에 방목되고 있는 말이 262필, 이를 관리하는 牧子와 保人은 합계 23명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의 《南宦博物》 <誌蹟>條에는,

今癸未以牛島馬無監牧, 余啓請別防鎭助防將, 兼監牧看養, 朝廷許之.

라 하여, 今上 癸未年 (肅宗 29, 1703)에 牛島 목장에는 監牧이 없으므로 내가 '別防鎭 助防將으로 監牧을 겸하여 돌보도록' 啓請하자 朝廷에서 이를 허락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즉 監牧은 원래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목장을 관리하는 관원이었다. 《朝鮮王朝實錄》 <世宗 7년 (1425) 11월 庚申>條에 의하면,

兵曹啓, 馬政軍國所重, 國家於各道分置監牧孳息馬匹, 然至今馬不繁息者, 良由考察之法未盡也. …諳事六品以上稱監牧官, 分遣監牧.

이라 하여, 兵曹에서 '馬政은 軍國에 중한 바 국가에서는 各道에 監牧을 나누어 배치하여 말을 번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말이 번식하지 않는 것은 考査하고 검찰하는 법이 극진하지 않는 데 까닭이 있으니, 일에 능숙한 6품 이상으로 監牧官이라 일컫는 監牧을 나누어 보내도록' 아뢰고 있다. 즉 종6품 이상으로 監牧의 職을 겸하게 하는 것이 통례인데, 濟州島의 경우는 判官이나 旌義·大靜 두 縣監이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牛島 목장의 관리 책임자를

監牧이라 하고 이를 別防鎭 助防將으로 하여금 겸직하여 돌보게 한 것은 牛島 목장이 10所場에 비해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거나 관리 책무가 判官에서 助防將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 또한 肅宗 29년에 이르러 비로소 牛島에 監牧이 두어진 것을 보면 그때까지 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따라서 監牧이 두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그 밑에는 牧子·保人 등이 있어서 직접 말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과거 邑誌들에는 牛島 목장을 '牛島場'이라 하는 명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인용하여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幅員五十里有水六處, 屯馬一百四十三匹, 群頭牧子三十九名.
(《濟州邑誌》<濟州牧 牧場>條)

② 在州東八十里, 屯馬三百十匹.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牧 牧場>條)

③ 在州東百里, 馬監二人, 別防水山兩鎭將例兼, 群牧二名牧子十四名, 屯馬二百七十五匹.
(《耽羅誌草本》<濟州牧 牧養>條)

위의 세 기록 중 正祖 初年(1780~1789)에 이루어진 官撰의 《濟州邑誌》에는 牛島場의 규모를 '幅員 50里에 물은 6곳에 있고, 屯馬의 수는 243필인데 이를 관리하는 群頭와 牧子는 39명이라' 하여, 물은 李衡祥이 조정에 올린 <耽羅狀啓草>에는 두 곳이라 했으나 여기에 6곳이라 한 것을 보면 4곳이 불어났으며, 또 그의 건의에 의해 두어진 監牧이란 말이 없는 대신에 群頭란 직책이 보인다. 그러나 監牧은 別防鎭 助防將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볼 것이며, 群頭의 출현도 목장의 관리체계가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 이르러서는 馬監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다. 즉 '馬監이 2명인데, 이를 別防鎭과 水山鎭 助防將이 으레 겸한다고 하였고, 群牧이 2명, 牧子가 14명, 屯馬가 275필이라' 하여, 《濟州邑誌》의 내용과 용어·숫자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馬監의 경우, 別防鎭과 水山鎭 助防將이 으레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馬監이 2인이기 때문에 水山鎭 助防將이 추가된 것으로 본다면, 李衡祥이 朝廷에 啓請하여 別防鎭 助防將으로 겸하게 했다

는 《南宮博物》의 監牧과 동일한 職種으로 보이며, 역시 숫자상의 차이는 있으나 群頭와 群牧도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시대가 흐르면서 용어·숫자상에 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도 《經國大典》<兵典 廐牧>條의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윗 책에는,

> 諸道牧場, 二雌馬一百匹, 雄馬十五匹, 爲一群 (牛同), 每一群定群頭一人 (牧子內良人擇定, 群副同) 群副二人牧子四人 看養, …

이라 하여, '諸道의 목장에서는 암말 1백필과 숫말 15필로써 1群을 삼고(소도 이와 같다) 1群마다 群頭 1인(牧子 중에서 良人을 골라 정하되 群副도 이와 같다). 群副 2인·牧子 4인을 정하여 돌보게 한다'고 하였는데, 《經國大典》의 이와 같은 규정은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즉 群은 목장의 소나 말의 사육을 위한 편성 단위이며, 이를 관리·사양하는 책임자로 群頭·群副·牧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牛島場의 경우, 群副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은 監牧(馬監)을 제외한 — 別防·水山 兩鎭將의 겸직이므로 — 群頭(群牧)·牧子가 牛島 목장의 관리인으로서 현지에 주둔했는지의 여부다. 만일 주둔했다면 그것이 목마 관리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牛島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초가 아닐까 한다. (후대의 기록들에는 1년에 한두 번 사람을 보내어 點閱하였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제 2 절 開墾에 대한 陳情

그런데 그 후 憲宗 7년(1841)에 이르면 牛島와 加波島[4]의 개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서술의 편의상 우선 金錫翼의 《耽羅紀年》에 나타난 憲宗 8년의 기록을 보면,

> (憲宗) 八年, 許民入耕于牛島及加波島, 先是放馬于牛島, 放牛于加波島以備進貢, 至是啓請, 竝驅出之放于附近牧場, 令民耕納稅于司僕寺.

4) 여기서 加波島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인용문의 성격상 부득이했음을 밝혀 둔다.

라 하여, 兩島의 開墾 문제에 관한 단편적인 기사를 싣고 있다. 즉 憲宗 8년에 이르러 백성들이 牛島와 加波島에 들어가 경작하는 것을 官에서 허락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牛島에는 말을 방목하였고 加波島에는 소를 방목하여 進貢에 대비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 해, 즉 憲宗 8년에 이르러 朝廷에 아뢰어 부근에 있는 목장으로 牛馬를 몰아내어 방목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개간케 하는 대신 司僕寺에 세금을 납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憲宗 8년부터 개간이 이루어지고 또 司僕寺에의 납세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의문부터 먼저 제기하고 내용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즉 어떠한 연유로 해서 兩島의 개간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으며, 실제 개간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의 기사가 참고된다.

濟州慰諭御史趙庭和復命. 進別單言牛島牧場許民耕墾

즉 위 기사는 《朝鮮王朝實錄》 純祖 23년 (1823) 2월 甲子(24일)條에 보이는 내용으로, 이는 純祖 22년 제주도에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 이를 慰撫하기 위하여 내려왔던 趙庭和 御史가 歸京하여 다음 해 2월 復命할 때 進言한 別單 내용의 일부이다. 즉 이에 의하면, 그는 牛島 목장을 백성들이 개간하여 농사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進言하고 있다. 그러면 別單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備邊司謄錄》 純祖 23년 (壬子) 3월 20일자에 의하면, 備邊司에서 다음과 같이 王에게 보고한 내용이 보인다.

방금 濟州牧 慰諭御史 趙庭和의 別單을 보았더니, 그 첫째 조항에 "大靜의 加波島와 旌義의 牛島는 곧 牛馬를 牧養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牛馬는 貢獻의 밑천으로 적합하지 못하지만, 토지가 비옥하여 수천 頃의 농지는 일굴 수 있으니, 지금 牛馬를 부근의 목장으로 분산 배치하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갈아먹도록 허가하되, 3년 뒤에 세금을 거두어 公用에 보태고 民役을 방지해야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耽羅의 토질이 본래 척박한 데다가 폭원 4백리 내의 14개의 목장이 그 반을 점하여, 풍년이 들어도 늘 곡식이 모자랄 것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흉년이 들면 陸運[5]에 의지해야 하니, 지

5) 陸運이란 곧 羅里鋪倉에서 곡식을 운반해 오는 것을 말한다. 羅里鋪倉이란 肅宗 46년 (1720)에 公州와 燕岐의 경계에 창고를 설치하고 배를 마련하여 곡식을 사들였는데, 景宗 2년(1722)에는 羅州로 옮겨 설치하였고, 英祖 원년(1725)에는 또 臨陂로 옮겨 설치하였다. 濟州 3邑을 구휼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濟州로부터 나오는 宕巾·網巾·涼太·다시마(海帶)·표고·전복 등도 이 羅里鋪에서 발매하였다. 《譯註牧民心書》Ⅲ (創作과 批評社, 1984), p. 46 參照.

금 쓸모없는 목장을 혁파하여 牛馬를 부근 목장에 분산하여 배치하고, 백성들에게 들어가 살면서 개간하게 허가하시면, 몇 천 경의 농지를 일굴 수 있고 수만 섬의 實穀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이로움이 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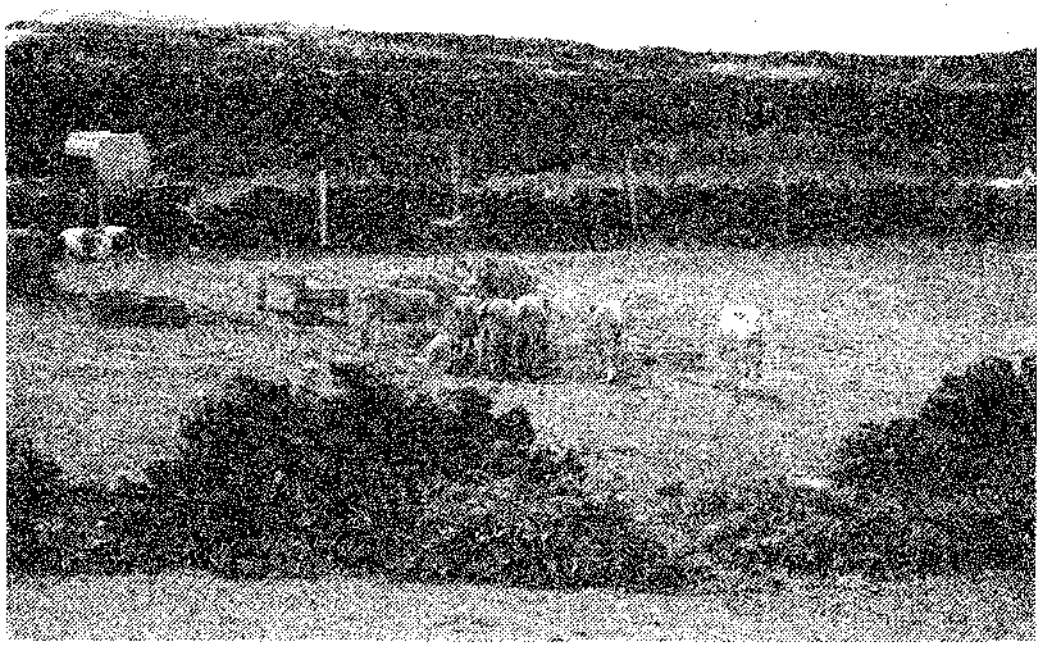
本島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는 조정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이나, 御史의 말이 또한 이와 같으니, 반드시 목격하여 상세히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 개간을 허가하는 일을 물리치느냐 수용하느냐 하는 논의는 늘 司僕寺에서 과단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訓鍊·吉祥 등의 목장과 같음은 國初부터 설치하여 지금까지 貢獻의 實效가 있으니, 편리하지 못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은 濟州와는 다릅니다. 이미 신설하였는데도 실효가 없으니, 이에 백성들의 큰 소원으로 御史가 아뢰는 것입니다. 가령 말이 몇 필, 소가 몇 필하는 사소한 이해득실이 있으나 어찌 웃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아랫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本務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牧政에 관계되므로 司僕寺로 하여금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되,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6]

우도에 목장이 설치된 것은 1697년이다. 그 후 1842년(헌종 8년) 목장이 폐지되고 개간허가가 났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간이 시작된 것은 1년 후이다.

이에 의하면, 牛島 목장을 개간하자는 논의는 이미 純祖 22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趙庭和 御史는 당시 제주도 실정을 거의 모르고 단지 慰諭御史라는 신분만으로 제주에 왔었던 것이며, 따라서 牛島 목장의 개간 관계를 건의한 그의 別單 내용도 실은 그가 제주에 왔을 때, 島民들로부터 그 필요성을 청취한 데에 연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 중 "이미 신설하였는데도 실효가 없으니, 이에 백성들의 큰 소원으로 御史가 아뢰게 된 것"이라는 것이 곧 그것이다. 더욱이 備邊司의 보고에서는 담당관청인 司僕寺에서 개간 문제를 과단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시일만 천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왕에게 개간을 허가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문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憲宗代로 넘어오게 된다.

즉 李源祚의 《耽羅錄》 辛丑(憲宗 7, 1841) 4월 28일자 <以本島民事報備局文> (本島의 民事를 備局에 보고하는 글)에 의하면, "자신이 목사로 부임한 뒤

6) 原文 省略.



1697년 우도에 목장이 설치될 때에는 말 150여 필이 있었다. 1842년 목장이 폐지되고 개간되면서, 말은 본도(本島)로 옮겼고 개간을 위해 소가 입식되었다.

에 東軒 뜰에 가득히 쌓인 訴狀의 내용을 보니, 대부분이 밭을 다투고, 재물을 훔치며, 인륜을 해치고, 의리에 어그러진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일정한 生業이 없어서 本心을 잃은 데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시 吏民들을 불러 모아 疾苦를 물었더니, 여러 사람이 일제히 요청하는 것이 '朝廷에서 특별히 베푸는 은전을 입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陸地에서의 涼臺의 繅造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하여,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 문제가 줄곧 요구되어 온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개간의 요구는 무엇 때문에 대두되었을까?

위 보고 사항에는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牛畜은 이미 軍用에 관계되고 馬場도 또한 軍備에 관계되니, 守臣이 된 자 어찌 성급하게 개간을 허락하는 일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두 섬은 名은 이 방목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쓸모가 없습니다. 牛島場은 장부에 올라 있는 말이 2백여 필이고, 加波島는 장부에 올라 있는 소가 1백여 필인데, 모두 해로가 험악한 곳에 위치해 있고, 포구도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있어, 왕래가 불편하고 牛馬를 돌보는 사람도 없이 한 번 방목하고는 그 자폐에 맡겨버렸습니다. 비록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점검한다고 하지만 牛馬의 눈에 사람이 익숙지 못하여 재갈을 채울 수 없고, 貢獻에 충당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여 한낱 도적을 유혹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형편으로 논하면 원래 긴요한 것이 아니므로 癸未年(純祖 23년) 봄에 慰諭御史의 別單 중에 '두 섬의 우마를 각 목장에 분산 배치하고, 즉시 백성들에게 갈아먹도록 허가하였다가 3년 뒤에 세금을 거두면, 公用에 도움이 되고 民役도 방지할 수 있다'고 청하였습니다. 廟堂에서도 아뢰기를 "耽羅의 토질이 본래 척박한 데다 幅員 4백리 내의 14개 목장이 거의 탐라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풍년에도 곡식이 貴할 것을 염려하고 흉년이 되면 오로지 陸運에 의지해야 하니, 지금 쓸모 없는 목장을 혁파하여 牛馬를 부근의 목장에 분산 배치하고, 백성들에게 들어가 살면서 개간하도록 하가하면, 몇 千頃의 경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수만 섬의 實穀을 거둘 수 있으니, 어찌 그 利로움을 걱정하겠습니까. 本島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는 조정에서 항상 걱정하는 바이나, 御史의 말이 또한 이와 같으니, 반드시 복격하여 상세히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당해 司僕寺로 하여금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되, 시행하도록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允許를 받기에 이르면, 이는 곧 이미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事理의 편리 여부는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겠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시행하지 아니 하니, 民情은 괴이쩍지 아니하나 억울한 사정을 다시 논의하여 보고하오니,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면 國畜에 있어 줄어드는 폐해가 없고 백성의 재산에 있어서도 豊裕해지는 이로움이 있어 公私가 실로 다 편할 것입니다. 云云"[7]

이로써 보면,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문제는 李源祚 목사가 부임한 직후, 島民들로부터 陳情을 받고 그 사실을 備邊司에 보고했던 것이며,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윗 책 동년 10월 초 4일자로 左議政 金弘根에게 올린 別紙 내용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즉 윗 책 <上左揆書>(左議政에게 올리는 글)條에, "이는 島民의 오랜 資活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잘 헤아려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數件事別紙錄上, 此係島民久遠資活, 亦望下諒而裁處焉)라고 하였고, <別紙>의 序頭에도,

7) 原文 省略.

牛島加波島許耕事, 已措辭報司不必煩陳, 而在國斋既無所損, 在民産大有所利, 前已判下尚今寢置, 民情無怪抑鬱卜諒辛甚.

이라 하여, 이미 임금의 결재가 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어 억울하니,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망하고 있다. 즉 李源祚 목사는 개간 허가를 받기 위해 備邊司 當局 뿐만 아니라 要路에도 동시에 진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耽營關報錄》 辛丑(憲宗 7, 1841) 10월 29일자 <謄報備局> (備邊司에 보고함)條에는 그간의 사정을 잘 정리하여 다시 備邊司에 보고한 내용이 있으므로 중복이 되지만 拙譯하여 여기에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본 濟州島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한라산이 그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周圍 4백리 사이에는 또 사람이 사는 취락과 숲·시내·골짜기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개간한 토지[8]는 10분의 1·2에 불과하고, 10개 소의 목장도 또한 그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경작하고자 하여도 땅은 金과 같이 귀하고 해마다 곡식이 여물지만 식량은 玉과 같이 귀하여, 自古以來로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地勢가 그렇게 되어있는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근래에는 또 人口가 점차 불어나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쪼들리고, 涼竹이 利를 빼앗아 陸船이 이르는 일이 드물어졌는가 하면 漁釐이 業을 잃고 海戶가 많이 줄어, 땅이 없는 백성은 입에 풀칠할 계책이 없습니다. 牧場田은 主人의 승락도 없이 불법으로 경작되고 잡초를 깡그리 태워 밭을 일구는가 하면 남의 땅을 몰래 개간하고 빼앗아 서로 다투어 소송합니다. 풍속의 야박함이 이와 같아 이를 멈추지 아니하면 몇 년 못되어 全島의 生靈이 장차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에 갇혀있는 붕어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니, 어찌 민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牧使(李源祚 自身)는 부임한 이후에 疾苦를 물어보고 民情을 살펴 보았더니, 일제히 몰려와 하소연하는 것은 牛島와 加波島 두 지역의 목장을 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牛畜은 이미 享用에 관계되고 馬畜도 또한 軍備에 관계되니, 守臣이 된 자 어찌 성급하게 이를 陳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백성의 하소연이 이와 같으므로 그 설치의 本末을 소급하여 자세히 참고하고, 그 개간할 수 있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조사했더니, 두 섬에 목장을 설치한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文蹟은 없으나 대략 백년 전후에

8)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 나타난 3邑 田結狀況은,
濟州, 田總 4297結83負9束·旱田3991結92負9束·水田305結82負9束
大靜, 田總 2427結94負5束·旱田2228結99負3束·水田199結 5負2束
旌義, 田總 3399結70負3束·旱田3383結13負3束·水田 16結57負.

불과하였고, 그것도 10所場 소속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대체로 두 지역이 海路가 험한 곳에 있고 浦口가 수십리 밖에 떨어져 있으니, 왕래가 불편하여 牛馬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牛島의 말은 대장에 올라있는 것이 2백여 필이고 加波島의 소는 대장에 올라있는 것이 70여 마리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방목하고는 그 蕃殖에 맡겨 버렸으니, 비록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점검한다고 하지마는 처음에는 牛馬가 사람에 익숙하지 못하여 놀라 날뛰고 광분하여 재갈을 물릴 수 없고 貢獻에 충당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여 한갓 포기하는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年前에 다른 나라 배에서 잡아간 것도 거울삼을 만합니다.[9]

형편으로 논하면, 본래 緊要하지 아니하나, 지형으로 말하면, 牛島는 東西가 5·6리, 南北이 10여리이고, 加波島는 동서가 5·6리, 남북이 4·5리입니다. 당초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허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갈대가 썩어 쌓이는 곳이고 우마가 오줌누어 질퍽한 곳이니, 土性이 견실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수백 戶가 넉넉히 차지하여 살면서 몇 千 頃의 경지를 일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癸未年(純祖 23, 1823) 봄에 慰諭御史의 別單 중에 '두 섬의 牛馬를 10소장에 분산하여 배치하면, 방목의 여지가 또한 있을 뿐 아니라 길들이기 어려운 가축도 사람의 견제를 받으면, 포기할 물건이 도리어 유용하게 되어 牧政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땅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갈아먹게 하고 3년 뒤에 세금을 부과해서 公用에 보태면, 民役을 방지하게 되어 실로 地利나 人和의 효과가 될 것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廟堂(備邊司)에서도 보고하기를, '耽羅의 토질은 본래 척박하여 풍년에도 곡식이 貴少할 것을 염려하고 흉년이 되면 오로지 陸運에 의지하게 되므로, 이제 쓸모없는 목장을 혁파하여 牛馬를 부근의 목장에 분산시켜 두고, 백성들에게 들어가 살면서 개간하도록 허가하면, 어찌 利로움을 근심하겠습니까? 本島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는 조정에서 항상 걱정하는 바이며, 御史의 말도 또한 이와 같으니, 반드시 목격하여 상세히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당해 司僕寺로 하여금 王에게 아뢰어 처리하게 하되 한결같이 시행함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允許를 내리게 되면, 이는 아미 윤전을 베푸시는 것이 됩니다.

일의 편리 여부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겠으나 지금에 이르러 民政의 억울함을 잠시 놀려두고 다시 論啓하오니,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시면 國畜에 있어서도 줄어들 걱정이 없고, 民食에 있어서도 풍족하고 넉넉할 이로움이 있어서 公과 私에 실로 다 편할 것입니다. 備邊司에서 참작하여 처분하도록 (분부하옵실 일).[10]

9) 憲宗 6년(1840)에 英國船이 加波島에 침입했던 사실을 말함.
10) 原文 省略.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경작지 부족은 물론 인구의 증가로 백성들의 생계가 쪼들리고 거기에다 涼太業과 漁釐을 채취하는 일마저 쇠미해져, 島民의 생활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牛島와 加波島 목장에 대한 島民의 개간 요청을 들어주도록 朝廷에 狀啓하는 내용이다. 즉 牛島와 加波島 두 지역의 목장을 개간하는 일은 島民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나 牛畜은 享用에 관계되고 馬畜은 軍備에 관계되므로 이를 선불리 朝廷에 陳達할 수 없어, 우선 兩島 목장의 유래와 입지적 조건, 현황,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해 보니, 兩島는 목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兩島에 목장이 설치된 것이 고작 백년 정도인데, 그것도 10所場 소속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두 지역의 海路가 모두 험난하고 浦口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왕래가 불편하여 牛馬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다만 1년에 몇 번 사람을 보내어 점검하지만 그 외에는 그 孳畜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牛馬가 사람과 익숙하지 못하여 사람을 보면 놀라 날뛰고 광분하여 제갈을 채울 수 없고, 進貢에도 충당하지 못하여 지의 필요없는 물건과 같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허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갈대가 썩어 쌓이는 곳이고 牛馬가 오줌을 누어서 질퍽한 땅이기 때문에 토성이 견실하고 비옥해서 수백 호가 넉넉히 차지하여 몇 千 頃의 경지를 일굴 수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이점 때문에 純祖 22년에 慰諭御史로 왔던 趙庭和도 두 지역의 牛馬를 10所場으로 분산하여 배치하고, 백성들에게 그 지역의 개간을 허락하여 3년 뒤에 세금을 거두어 公用에 보태면, 民役도 자연 방지가 되어 地利나 人和에 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에 廟堂에서도 "耽羅는 토질이 본래 척박하여 풍년에도 곡식이 貴할 염려가 있지만 흉년에는 오로지 육지로부터 곡식을 운반해 와야 하는 실정이므로 此際에 쓸모없는 목장을 혁파하고 대신 백성들로 하여금 갈아먹게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보고하자 왕이 윤허했다는 것이다. 즉 이는 趙庭和 慰諭御史의 別單과 備邊司의 覆啓 내용을 부연하여, 왕이 윤허했으니 미루지 말고 조속히 처분해 주도록 비변사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다음 해 2월에 이르면 당히 司僕寺에서 왕에게 보고하여 널리 알리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李源祚의 《耽羅錄》

壬寅(憲宗 8, 1842) 2월 초 1일자에,

二月初一日上京押領便, 見備局關文二度及完營答書, …牛島加波島許耕事亦廟覆依施, 自該寺草記行會, 而三年後執稅, 依節目納于本寺爲定, 牛島驅出及境界分授, 俱係大政, 甘結兩邑使之收議以來.

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제 3 절 執稅와 馬匹의 處理問題

이리하여 牛島와 加波島의 開墾 문제는 헌종 8년 2월 1일자로 승인 통첩을 받았다. 그러나 개간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개간 후 3년 뒤에 세금을 지두겠다는 것과 마축의 處理問題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위 引用文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3년 뒤에 매기는 세금은 節目에 의하여 司僕寺에 납부하도록 하되, 마필을 주변 복장으로 몰아내는 일과 개간할 땅의 경계를 정하여 나누어 주는 일은 모두 큰 정사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兩邑에 公文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상의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節目이 어떤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아마 앞으로 만들 가상적인 내용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兩邑에 甘結한 내용에 대해서는 《耽營關報錄》 壬寅 2월 초 3일자 <發甘兩邑>(공문을 兩邑에 발송함)條에,

본도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오로지 토지를 개간하지 아니한 데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을 허가하는 일을 廟堂에 요청하였더니, 다행히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허락받았다. 지금 봄기운이 점차 개간하는 데에 알맞아 가고 있으니, 이 때에 馬畜을 처리하는 문제와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의논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뒤에야 (농민들이 개간의) 때를 놓칠 염려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마을의 鄕將吏와 백성들에게 알려서 상의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하면, 그 재량한 바를 다시 營(濟州牧)에서 절충하여 규식을 정할 것이니, 이 달 보름 안으로 기한을 정하여 事理를 보고해야 할 것임.[11]

11) 原文 省略.

이라 하여, 개간 허가가 이미 내려졌고 지금은 또 봄 기운이 화창한 2월로 개간에 알맞은 절기이니, 때를 놓치지 말고 馬畜을 처리하는 일과 농민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鄕將吏와 백성들에게 알려서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하면, 營에서 다시 절충하여 규식을 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만은 아니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간이 島民들이 한마음으로 원한 것이긴 하나 문제는 備邊司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뒤에, 司僕寺의 공문을 받아보니, '개간지에 대해 3년 뒤에 司僕寺에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즉 3년 뒤의 司僕寺의 납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납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개간은 어떻게 진행되었던 것일까? 《耽羅錄》 壬寅 4월 27일자<上領閣書>(領議政에게 올리는 글)에 의하면,

…목장이 司僕寺에 속하므로 事理는 물론 합당하나 島俗이 陸地와는 다르므로 당초 논의하여 보고할 때에 收稅 규모의 대략을 결정하는 데 미치지 못하고, 다만 牧場田의 예에 따라 말하였을 뿐인데, 백성들이 모두 애매하지만 그대로 따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간을 허락하는 공문을 보고서는 망령되이 의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 모두가 개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뭇 사람들이 말하기를, '本州의 토지는 당초 세금이 없고 오직 목장의 犯境處에만 收稅하여 경비로 지급하는 예가 있었으나 그것도 개간함에 따라 稅가 따른 데 불과하여 石斗에 升合을 거두었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兩島의 稅를 司僕寺에서 관장하여 한 번 法式을 정하게 되면 묵은 밭과 개간한 밭을 구별할 것 없이 해가 오래되면 폐가 생겨 서울에서 감독관이 반드시 내려 오게 될 것이며, 만일 이러한 길이 한 번 열리고 나면 장차 목장전과 아울러 重稅하여 目前의 利를 탐할 것이므로, 앞으로 닥칠 일을 아뢰기를, 처음부터 개간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民願에 따라 논의하여 보고하였으나 끝에 가서는 民情을 어기기 어려워 강력히 권하였으나 일의 형세가 兩難이므로 아직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는 3년 뒤의 일을 현재 官職에 있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잘 裁量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또 즉시 받들어 행하지 못한 것이 애통하고 죄송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12]

라 하였다. 즉 牛島와 加波島의 목장은 司僕寺에 속하는 국립목장에 해당하므로 司僕寺에서 관장하여 3년 뒤에 세금을 받겠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나, 당초 논의

12) 原文 省略.

하여 보고할 때에 收稅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단지 牧場田의 例를 들었을 뿐이나 그래도 島民들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또 本島에는 당초부터 묵은 밭과 토지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개간한 밭에는 세금이 없었고, 목장의 犯境處에만 개간하는 대로 세금을 매겨 징수하였는데, 그것도 石斗에 升合을 취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兩島를 개간했을 경우, 司僕寺에서 관장하여 收稅 법식을 정하면 묵은 밭이나 개간한 밭 할 것 없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겨 차후에는 목장전과 함께 重稅가 부과될 것이니, 아예 개간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이 島民의 의견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李源祚 목사 자신도 3년 뒤의 일은 미리 알 수도 없고 또, 현재는 제주 목사의 직에 있으나 차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는 실정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당시 領議政에게 이상과 같이 아뢰면서 別紙를 첨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兩島의 일은 이미 왕에게 아뢰고 개간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은 뒤에 즉시 개간이 적합한 곳을 측량했더니, 牛島는 보리씨(牟種) 735섬지기(石落), 加波島는 보리씨 72섬지기가 되어서, 당초 繡衣御史의 보고내용 중에 '넉넉히 수천 頃은 일굴 수 있다'는 말과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대개 바닷가의 염분이 들어 있는 갯벌 땅과 산 기슭에 가까운 메마른 자갈 땅은 分數를 많이 차지하며, 또 눈여겨 보지않고 대충 본 것과 몸 소 살펴본 것은 원래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收稅 규정은 본래 貂道를 적용하였고, 한결같이 목장전의 例에 따라 세금을 거두면, 겉보리(皮牟) 6·7백 섬에 불과하지만 換賣하면 운반하는 비용이 그것에서 나오니, 司僕寺에서 有無를 논할 것이 못되며, 만에 하나 日後에 島民의 말과 같이 폐단이 생긴다면, 백성을 위해 이익되는 일을 일으키려다가 도리어 원성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만일 例를 끌어 대어 먼 곳의 백성을 어루만지는 뜻으로 특별히 놓아두기를 허가해 준다면, 따로 節目을 작성하여 잘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島中의 이른바 여섯 가지 苦役은 小民의 골수에 사무치는 원한이 되었습니다. 鮑作은 전에 이미 혁파하였고, 漢은 근래에 또 稅米를 감하였으며, 牧子도 또한 급료가 있으나, 단지 防軍·船格·牙兵만은 변경의 방위에 임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규휼함이 마땅한데, 곤궁하고 굶주려 전혀 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곡식으로 급료를 설정하면, 留防軍에 편입된 자나 番上으로 나가는 자 및 公務로 바다를 건널 때에 드는 粮米의 비용으로 삼는 데 충분하니, 이것이 島民을 위하는 첫번째의 施惠입니다. 그 다음은 당해 司僕寺에 세금을 바친다 하더라도 적은 수를 좇아 법식을 정하되 육지의 例를 적용하지 말며, 한결같이 제주목에 덧붙여 편리한 방법으로 상납케

하고 서울 사람으로 하여금 干預치 말게 하면, 원성을 어루만지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엎드려 아뢰옵건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敎書를 받기 전에 감자기 牒文을 올리지 않을 수 없어 이에 사사로운 보고로써 외람되이 짜맞추어 전전긍긍하옵니다.[13]

이에 의하면 兩島의 측량 결과 牛島는 보리씨 735섬지기, 加波島는 보리씨 72섬지기로 당초 趙庭和 어사의 別單 내용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 本島의 수세 규정은 貊道[14]를 적용하는데 한결같이 場田의 예에 따라 세금을 거두면 6·7백 섬에 불과하지만 이를 換貿하면 운반하는 비용이 나온다는 것, 司僕寺에서 收稅하겠다는 뜻을 철회하면 節目을 작성하여 잘 처리하겠다는 것, 즉 本島의 6苦役[15] 중 鮑作·畓漢·牧子를 제외한 防軍·船格·牙兵의 급료 등으로 지급케 해 달라는 것, 설사 司僕寺에 납세한다 하더라도 액수를 적게하여 세금을 매기되 그것도 濟州牧으로 하여금 관장케 해 달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耽營關報錄》 壬寅 7월 27일자 <日結兩邑及傳令左面風憲>條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원래 土稅(國稅)가 없었고 목장전도 濟州牧에 납부하는 것뿐이었는데, 이러한 길-司僕寺에의 납부-이 한 번 열리고 나면 뒷 날의 폐단이 염려되므로 司僕寺에 왕래하며 세금 걷는 일을 놓아두기를 간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여, 부득이 약간의 세금을 정하여 司僕寺에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때문에 앞서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兩邑에 공문을 띄워 鄕將吏와 백성들에게 의논하라고 했던 것이다. 또 이러한 일을 濟州牧에서 관장하게 되면, 농민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니 부근의 백성들을 모아 의논하되, 만일 개간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말을 부근의 복장으로 끌어내는 일과 보지를 개간하는 등의 절차를 결정하여 晩時之歎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장부를 담아 보고하라고 다시 부연하여 兩邑에 공문을 띄우고 또 左面 風憲에게도 傳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섬의 개간은 뭇 백성들이 원하던 것이었으나 여러 해 동안 겨를이 없었던 일이

13) 原文 省略.
14) 貊道는 稅를 薄하게 하여 10분의 1이 못되는 것(薄稅而不什一貊之道也)을 말한다. 鄭若鏞著(李翼成譯) 《茶山論叢》 (乙酉文化社, 1987), p. 24 參照.
15) 6苦役의 名色은 일정치 않다.

므로 備邊司에 보고하여 다행히 허락을 받았으나, 즉시 司僕寺의 공문을 보았더니, '3년 뒤에 司僕寺에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사역이었다. 本土는 원래 土稅가 없고 목장세 또한 제주에 납부하는 것뿐인데, 만일 이러한 길이 한 번 열리고 나면 뒷날의 폐단이 염려되므로 司僕寺에 왕래하며 동아두기를 애걸하였으나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일의 형세가 이와 같으므로 액수를 적게 세금을 정하여 司僕寺에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 稅穀을 거두는 규정과 상납하는 방법은 마땅히 本府(제주목)에서 단속하지 아니하면 농민에게 폐해를 끼치게 되니, 이러한 뜻을 부근의 백성들에게 상의하되 만일 경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말을 안군의 목장으로 몰아내고 토지를 개간하는 등의 절차를 때 맞추어 정륜하여 처리한 뒤에야 시기를 잃은 데 대한 단식이 없을 것이니, 다음 달 초순 전으로 일제히 장부를 닦아 보고해야 할 것임.[16]

그러나 《耽羅錄》 癸卯(憲宗 9, 1843) 3월 20일조에는, "馬監 및 校吏를 牛島에 내보내어, 良馬를 諸屯에 나누어 주고 貢馬 封進을 주관할 때에는, 私馬로 바꾸어서 바치고 雜劣한 말은 값을 더 지급하되, 대개 牛島의 말을 각 목장에 나누어 주는 즉시 치사하거나 출육하여 바꾸어 파는 것은 백성들도 또한 公私 양편의 말을 원하여 받기 때문이다. 加波島도 이와 같은 例로 나누어 주도록 大靜縣에 입결하고" 이어서 <兩島許耕田分處事傳令>(두 섬의 개간을 허가하고 밭을 나누어 처분하는 일로 전령함)條에서는,

牛島와 加波島의 개간을 허가하는 일은 작년에 이미 備邊司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京司(司僕寺)에 납세하는 법령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모두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간을 원하는 자가 없다. 島民의 秋收에 세금이 없음은 익히 보고 들어서 괴이함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이와 같이 收稅할 것으로 갑자기 부활되었다. 司僕寺에서는 한결같이 목장전의 例에 따라 藁에서 총계를 잡게 하면 반드시 백성을 학대함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금년 봄부터는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 개간하되, 개간을 허가할 적에 만약 백성들에게 맡겨서 스스로 점유하게 하면 쟁탈하여 다투는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유하여 재산이 많은 자는 발목을 連하여 거리낌이 없고, 가난하여 재력이 없는 자는 쟁기를 잃어지고 부질없이 들아가 더욱 공평하고 균일한 정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州와 縣을 막론하고 땅이 없는 가난한 백성 가운데 受田을 원하는 자는 各里로 하여금 장부를 닦아 보고하게 하라. (장부에 기록할 때에는) '某人名 몇 마지기'라 하여 마땅히 땅이 넓고 좁음을 헤아리고 사람이 많고 적음

16) 原文 省略

을 계산하여 나누어 처리하고 印帖을 작성 교부하여 증서를 대신 하되,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戶籍名으로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 자료로 삼고, 또한 이름을 바꾸어서 대신 받아 소송의 단서를 만들지 말 것이다. 受버한 各人의 印帖紙는 각각 한 장을 봉소 該所에 납부하여 印帖을 받아가게 해야 할 것임.[17]

이라 하였다. 즉 司僕寺에 납세하라는 법령 때문에 백성들이 의구하여 개간을 원하는 자가 없자 목장세의 예로 적게 액수를 책정하여 걷을 것이니, 염려말고 금년, 즉 헌종 9년 (1843) 봄부터 우도에 들어가 개간하되, 만일 自任에 맡겨 버리면 분쟁이 일어날 뿐 아니라 부유한 자는 밭둑을 連하고 가난한 자는 쟁기를 잡어지고 부질없이 돌아갈 것이니, 州·縣을 막론하고 땅이 없는 가난한 자 중에서 개간을 원하는 자는 각 동리에서 장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땅의 광협이나 사람의 다소를 계산하여 나누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호적명으로 기록하게 하고 장부를 작성할 때에 필요한 印帖紙는 각각 한 장씩을 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윗 책 癸卯 4월 초 1일자 <牛島馬換給民心. 啓>에서는 牛島 別屯馬의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啓文을 올리고 있다.

牛島의 別屯馬를 각 목장에 분산시켜 떼어주고 백성들에게 개간을 허락하는 일은, 이미 備邊司에 보고하고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또 1년 절목 點考하여 낙인할 차례이므로 전례에 따라 몰아다 점고한 뒤, 수효를 참고하여 원본과 대조하였습니다. 辛丑年(憲宗 7, 1841)의 馬籍에 올라 있는 말이 247필이고, 여기에 壬寅·癸卯 두 해에 생산된 말 21필을 추가하여 넣으면 합계가 268필입니다. 그 중에서 故失馬(죽은 말) 38필을 계산하여 제외하면 점검에 응할 말은 230필이 되는데, 이들을 몰아내어 바다를 건널 때에 말의 성품이 悍悲하여 굴레나 고삐를 받지 아니하고 뱃길이 위험하여 날짜가 많이 걸리니, 금년에 생산된 말과 늙은 말 중에서 저절로 致死하는 것이 많고 목장이나 船上·길에서 치사하는 수도 부려 34필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임의 형세가 그러한 소치로 까닭없이 縮한 것과는 다르니, 事目에 따라 변상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급히 건의하옵니다. 각 목장에 분산하여 처리하는 데 대한 便利 여부를 다시 馬監과 群頭에게 물었더니, '모두가 水草의 메마르고 풍성함이 이미 다르고 馬性의 生熟이 같지 않으며 서로 관리하여 길들이지 못하여, 저절로 흩어지고 疲死할 염려에 이르는 것이 10중 8·9에 이른다' 하니, 그

17) 原文 省略.

審愼하는 방도는 介有하는 방편의 계책에 있습니다. 留放馬(놓아 기를 말) 196필을 모두 民屯에 분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換納하도록 하되, 그 중에 자열한 것은 지급량을 추정하고 값을 더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도록 하십시오. 貢馬를 封進할 때에 각 목장에서 마땅히 할 말은 이러한 수효로 계산하여 제외하면 放牧하지 아니하여도 公私의 말을 방목한 것과 같으니 실로 兩便이 됩니다. 원래의 마필대장은 연말을 기다려 該寺에 올려 보내되, 이로부터 전례에 따라 혁파하고 장마는 다 채웠으니, 금년부터는 마필대장 한 조목이 흐지부지되는 연유를 삼가 갖추어 아뢰옵니다.[18]

이에 의하면, 牛島의 別屯馬를 각 목장에 분산하여 떼어주고 개간을 허락하는 일은 備邊司에 보고하고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금년이 1년 걸러 점고하여 낙인할 차례이므로 말을 몰아다 점고해 보니, 辛丑年의 馬籍에 올라있는 것이 247필이고 壬寅·癸卯 두 해에 생산된 것이 21필, 합하여 268필 가운데 放失馬가 38필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230필이며, 또 여기서 물을 건널 때 치사한 말 34필을 제하면 결국 留放馬(놓아 기를 말)는 196필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각 목장에 분산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차라리 이를 民屯에 분급하여 貢馬로 換納하도록 장부를 작성하여 司僕寺에 보고하고 전례로 삼고자 하였다.

제 4 절 開墾과 設村

그리고 윗 책 6월 초 2일자 <兩島納稅事報司僕寺>(양도의 納稅하는 일을 司僕寺에 보고함)에는 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兩島에 起耕을 허가한 일은 전에 이미 草記를 받아 널리 알렸으나 島民이 司僕寺에 세금을 바치라는 傳令을 듣고 크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처음에는 기경을 원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애초에는 이미 民願에 따라 仰請하였지만 끝내는 民情을 열치기 어려워 강력히 권장하였다고 하므로, 금년 봄에 이르러 비로소 牧馬를 몰아내고 그 땅을 비워서 명단을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경케 한 즉, 소(農牛)는 있으나 종자가 부족한 백성들은 오히려 회의하여 관망하며 한결같이 받기를 원하지 아니 하였고, 반

18) 原文 省略.

기를 원하는 자는 단지 땅이 없는 백성 약간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加波島는 한 사람도 들어가 개간하지 않았습니다. 牛島는 비록 간간이 들어가 개간하였다고 하지만 봄부터 여름까지 개간한 것은 백분의 1에 불과하온 바, 만약 원래의 事例에 따라 3년 뒤에 기경하는 대로 조세를 징수하면, 그 거둬들인 합계가 영성할 것이고, 만약 수島가 다 개간되기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총계를 잡으면, 세월을 끌며 미룰 것이니, 목장에 나가도 기약이 없고 남몰래 일의 형세를 헤아려 보니, 앞으로 세금을 징수할 일이 지극히 난처하고, 目下 정작을 권장하는 방도에도 다욱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대개 그 原田에 세금이 없는 것은 보고 들어서 이미 알고 있으며, 場稅는 起耕하는 대로 가납하여 前例를 삼겠다고 여러 가지로 효유하였으나 끝내 의혹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부유한 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가난한 자는 힘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牧使는 이에 遞歸하는 날을 당하여 머리 얽어나지 아니한 일을 억념할 필요는 없으나 내가 請往하면서부터 조처를 잘해 나가지 못한 소치로 만일 일후에 복사가 되는 지는 위로는 司僕寺의 督責을 당하고 아래로는 島民의 嘲謫을 끼치게 되니, 어찌 사사로운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朝家에서 별도로 신칙하여 柔遠하는 뜻을 입어 특별히 寧失하는 뜻에 붙여 司僕寺에 납세하라는 傳令을 도로 거두면, 島民의 含恩感德함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복사도 또한 백성을 이롭게 하려다가 반대로 백성을 학대하게 되는 죄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감히 번거롭고 의람됨을 꺼려하지 아니하고 연유를 갖추어 論報하고 삼가 지시를 기다립니다.[19]

위 내용에서도 序頭는 역시 朝廷으로부터 개간의 허가를 받았으나 司僕寺에의 납세문제로 의구심이 생겨 처음에는 島民들이 개간을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애초에는 백성들이 원하여 조정에 간청하여 허가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民情을 거슬려가며 억지로 권하기도 어려웠다 한다. 그러다가 憲宗 9년(184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牛島에 放牧하던 馬匹을 부근의 民戶으로 반출하고, 개간을 원하는 사람에게 명단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개간케 하였는데, 이때에도 農牛는 있으나 種子가 모자란 사람들이 몰려나 관망하며 受田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受田을 원하는 사람은 단지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뿐인데 그것도 소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牛島의 개간이 간간이 이루어졌지만 봄부터 여름까지 개간한 것이 고작해야 백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牛島의 개간과 牛島에의 移住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憲宗 9년 봄부터임을 알 수가 있으며, 따라서 牛島의

19) 原文 省略.

設村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진다. 다만 당초는 '가난한 사람 약간인'이라 하였으니, 그 家戶도 처음에는 얼마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1842년 목장이 폐지되고, 1843년 봄부터 개간이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개간된 경작지에서는 조, 보리, 고구마, 유채 등이 주로 생산되었다. 지금은 땅콩 생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司僕寺에의 납세 문제는 그후에도 계속 論議되었던 것 같다. 《濟州牧關牒》 咸豊 元年(哲宗 2, 1851) 10월 28일자에 의하면,

…本州 백성의 고통과 고용의 폐단 가운데,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니나 지금 가장 지탱하기 어렵고 큰 폐해가 되는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牛島와 加波島의 稅錢을 사복시에 上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秋還을 다 분급하여 耗穀을 받는 것입니다.

稅錢으로 말하면, 牛島와 加波島 두 섬은 海中에 따로 떨어져 있어 옛날부터 땅이 개간되지 아니했으나 壬寅年(憲宗 8, 1842)에 비로소 백성들에게 耕種을 허락한 것은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을 곳을 정하여 편안히 살도록 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때에 사실을 낱낱이 들어 보고하였으나 계속하여 사복시에 稅錢을 바치라는 법령이 있었으므로, 땅이 없는 가난한 백성은 비록 개간을 하고자 하여도 의심하는

바움이 생기고, 日後의 徵稅가 어떤 폐해를 낳을지 알지 못하여 여러 해 주저하며 先占하려 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로 효유하며 강제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결국 丙午年(憲宗 12, 1846)부터 사복시에서 800兩의 稅錢을 酌定하였다가 昨年(哲宗 원년, 1850) 加波島民의 訴狀에 의하여 百兩을 줄이니, 지금은 7百 18兩 1錢 8分이 되었습니다. 곡 上納해야 할 것을 감해서 비록 해택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폐해는 실로 옛날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개 本州가 설치된 이래로부터 私田은 땅이 있어도 公稅가 없고 公場은 稅가 있어도 京納이 없었습니다. 財貨는 돈으로 주고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운반하지 아니한 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복장에서 收稅하는 곡식도 前後 御史의 書啓에 따라 各種 公下에 排付하였으나 유독 이 두 섬만은 사복시에의 납부를 無稅地에 偏責하고 수십 리 海陸을 운반케 했으니, 그 형세가 곡식으로 미역을 바꾸고 미역으로 돈을 바꾸지 않을 수 없으며, 한 말을 바치는 데 드는 費用이 합하여 서너 말(斗)이 되므로, 당초 樂土의 소원은 苦海 속으로 빠져들어 稅錢의 징수가 隣族에 미치고 衙前과 將校는 해산하여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부임한 지 몇 달 안되었으나 두 섬에서 호소하는 백성들이 뜰에 가득하지 않는 날이 없고, 모두가 京納하는 稅錢을 혁파하기를 원합니다. 島稅로 매기는 곡식도 다른 복장의 예에 따라 偏苦의 患을 면할 수 있도록 陳情하는 바가 정말 절박합니다. …[20]

결국 兩島의 납세 문제는 哲宗 2년에 이르러서도 결말이 나지 않아 당시 목사가 다시 朝廷에 兩島民의 陳情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내용에서 보면 兩島의 稅額은 800냥으로 정하였다가 뒤에 100냥을 減하고 있다. 그러나 일의 處分如何는 未詳이다.

그런데 牛島에의 왕래는 오랜 옛날부터 주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빈번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곧 牛島의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土産>條에는 代毋·자개·앵무·소라 등이 牛島와 大靜의 加波島에서 나며, 無灰木은 牛島에서만 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미역·우무 등의 해조류가 생산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들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일찍부터 사람의 왕래가 잦았을 것이다. 肅宗 28년(1702)에 李衡祥 목사가 朝廷에 올린 <耽羅狀啓草>내용 중에,

20) 原文 省略.

…沿海私馬之昨年被殺者, 多至於三十餘匹, 況此牛島人跡不及, 而採鰒恒留之地也, …

라 하여, 牛島는 人跡이 미치지 못하나 전복을 캐기 위해 항상 머무르는 곳이라 하였으며, 때로는 이들 해산물을 채취하고 돌아오다가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어 많은 사람이 익사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文獻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 朝鮮朝 후기의 사실이기는 하나 한 두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耽羅啓錄》 道光 28년(憲宗 9, 1843) 5월 22일자의 啓文에 의하면,

今月(5월) 19일 도착한 別防鎭 助防將 曺錫祐의 牒報에 의하면, '本鎭 관할의 無泣里民 남녀 아울러 27명이 이달 17일에 작은 배 한 척에 함께 타고 牛島에 들어가 해조와 미역을 채집하여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는 길에 모진 바람과 성난 파도가 심히 급하여 손을 틀 도 없이 鼓島 앞 바다에서 침몰하였는데, 差員 金仁福·旗牌 高春得 및 그의 딸·羅將 金應甫·韓召史·姜召史·金召史·高召史·韓召史·金召史·李召史·韓召史·蔡召史·金召史·韓召史·金召史·李召史·高永進의 딸·金宗連의 딸·高化得의 딸 등 20명이 개미처럼 돛대와 노에 매달려 물길따라 흘어져 표류하는 중에 다행히 인근에 있던 선박의 구제를 받아 겨우 살아났고, 尹廷協의 妻 韓召史·金尙玉의 딸·金應甫의 딸·金鳳喆의 딸·金光祿의 子(9세)·李百連의 子(8세)·高繼元의 子(7세) 등 7명은 그대로 익사하였는데, 시체는 표류하다 연변에 걸려 거의 다 건져 올렸다고 하였는 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익사하여 듣기에 심히 놀랍고 참혹합니다. 전례에 따라 常平廳의 皮穀(겉보리) 각 한 섬으로 恩典을 베풀어 건져 올린 시체의 연고자들에게 題給하여 그들로 하여금 매장하게 하였으며, 건져 올린 시방자의 거주지와 성명 및 곡물을 成册하여 備邊司에 올리는 연유를 아울러 馳啓하옵는 일이기로 일이 순서있게 잘 啓導하옵실 일.

道光 23년 5월 23일.

後

拯屍人秩

本州左面無泣里 한소사 45세, 피곡 1석.
김응보의 여 16세, 피곡 1석.
김봉철의 여 15세, 피곡 1석.
김광록의 자 9세, 피곡 1석.
이백련의 자 8세, 피곡 1석.
고계원의 자 7세, 피곡 1석.
김상규의 여 15세, 피곡 1석.[21]

21) 原文 省略.

이라 하였다. 또 《濟州啓錄》 咸豊 元年(哲宗 2, 1851) 6월 21일자의 啓文에는,

> 올 3월 초 6일 도착한 濟州判官 任百淵의 牒呈에 의하면, 別防鎭 助防將 崔履周의 移牒을 방금 접하였더니, 관할지역인 邊幕里(갈막;東福里) 營假率 愼東訓·旗牌 夫才集·愼時福·旗手 孫京鶴 등이 뱃목 배 2척으로 해초를 채집하려고 牛島에 들어갔다가, 지난 달 27일 本浦로 돌아올 때에 갑자기 모진 바람을 만나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該里 營假率 文千日·牧訓導 高仁守·燭供 文千吉·弓人 文光孫·北浦(뒷개;北村里) 假率 金家仁이 즉시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구제하다가 愼時福과 夫才集이 탄 뱃목 배는 모두 風濤에 밀리어 간 곳을 알지 못하였는데, 愼東訓의 뱃목 배는 다음 날 아침에 下道里 연변에 漂泊하여 저우 살아났다고 하였으며,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널리 探問을 하였으나 끝내 정박한 곳을 찾지 못하였으니, 만일 大洋에서 익사한 것이 아니라면 필시 異域에 漂越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진실로 극히 慘憐한 연유를 아울러 馳啓하옵는 일이기로 일이 순서에 게 잘 啓導하옵실 일.
>
> 咸豊 원년 6월 21일.[22]

이라 하였다. 위의 두 사건은 모두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牛島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당한 변이었다. 그 원인은 급한 조류와 모진 바람, 성난 파도 등 자연적인 요소에 의했다고 하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배 자체의 不實함과 過積이 주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憲宗 10년(1844;甲辰) 金錫麟 進士가 이주하여 迎日洞(後海洞)에 터전을 잡으면서 마을 형성이 급진전되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作者·年代 未詳의 〈濟州陳述書件〉[23]에는 '제주의 金傷伶이라는 사람이 이 섬에 가난한 백성들을 이주시키려고 純祖 戊子年(28, 1828)부터 운동을 벌였고, 憲宗 辛丑年(7, 1841)에는 島官据가 牛島의 말을 반출하고 그 익년 일반인의 이주를 허락한 바, 어업에 적합한 곳이었으므로 가난한 사람이 운집하여 그 해에 天津·古水·後海 3洞이 이루어지고 牛目·珠玉(현 三陽洞) 錢蛇·飛揚 등 諸洞이 새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22) 原文 省略.
23) 泉靖一 :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71), p. 198.

앞서 보아왔던 李源祚의 여러 종류의 글을 종합해 보면, 純祖 23년(1823)부터 계속된 제주 백성들의 간청으로 朝廷에 개간 허가를 요청하여, 憲宗 8년(1842)에 승인을 받았으나 사람들이 들어가 개간하기 시작한 것은 다필의 반출이 끝난 憲宗 9년(1843;癸卯) 봄부터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초 사람들이 牛島에 이주해 간 것은 어업을 목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목장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혹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이주하려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목장을 혁파하고 개간을 허가하는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당시로서는 國法을 어기는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업 목적의 이주는 훨씬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大津·古水·後海 3동이 그 때, 즉 헌종 8년에 이루어지고 牛目·珠玉·錢屹·飛揚 등 여러 洞里가 새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話不成說이다.

당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 약간인'의 몇 家口에 불과했을 것이며, 金錫麟 進士가 입주하는 憲宗 10년(1844;甲辰)부터 마을 형성이 진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演坪陳述書件〉의 내용은 그 제목에 보이는 바와 같이 '演坪'이란 이름이 쓰여질 무렵의 사실을 올려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光武 8년(1904) 정월에 이루어진 《三郡戶口家間總冊》(內題는 三郡戶口家間卜納總, 筆寫本)에는 舊左面 演坪里의 煙戶가 140호, 인구는 남자가 295명, 여자가 384명, 합계 679명, 草家가 469간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위의 戶數나 人口 정도가 되어야 〈演坪陳述書件〉에서 말하는 이른바 7개동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光武 8년은 演坪으로 마을 이름을 정해진 4년 뒤의 일이며, 演坪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高泰柱 편의 《鄕土誌》[24]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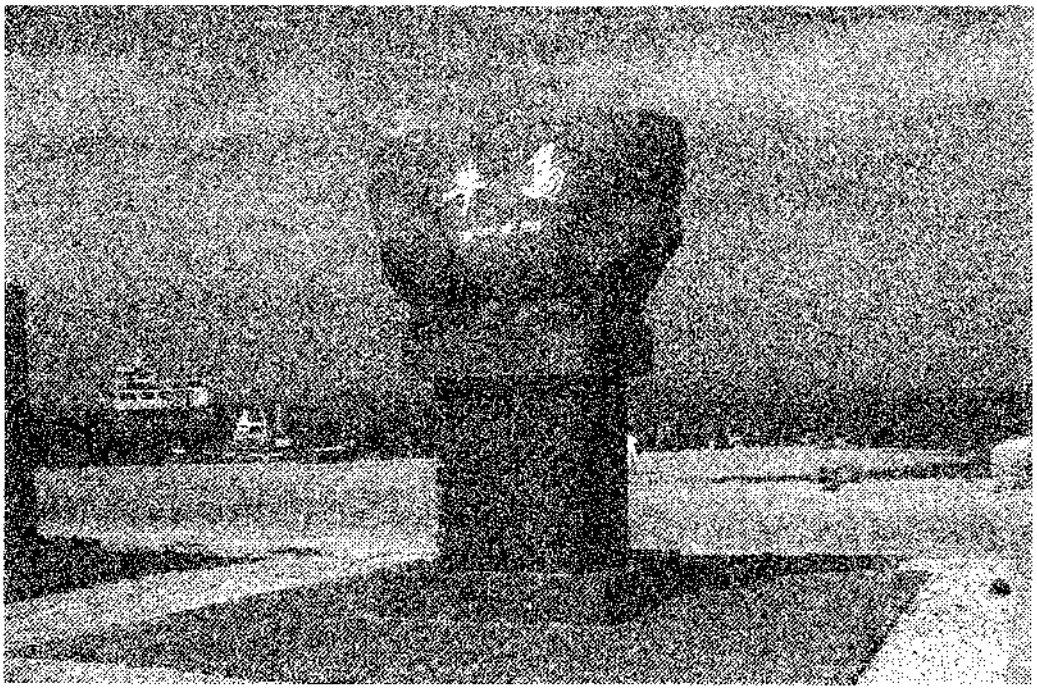
> 牛島에 入住하신 분들은 大半가 西쪽에서 오셨으니, 「모관」사람들이다. 水準도 높았고 氣質도 高尙하였다. 住居地가 소심이란 듣기조차 거북했다. 그리하여 1900(庚子)年에 當時 當地에서 訓學하시던 表善面 城邑出身 吳完哲(吳 幼學이라 하였다) 先生이 中心이 되어 「演坪」(물에 뜬 두둑)이라 命名 改稱하였다.

24) 《國文學報》 5 (濟州大學國語國文學會, 1973), p. 129.

고 하여, '牛島'란 명칭이 귀에 거슬려 '물에 뜬 두둑'이란 뜻으로 '演坪'이라 개칭한 것이 1900년이라 하였다.

어쨌든 牛島가 개간되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인근지역 출신이 많았을 것이며, 〈演坪陳述書件〉에 보이는 7개동 외에 周興洞도 이 무렵에 設洞된 것 같다. 이리하여 8개 자연부락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그후 계속된 인구의 증가로 1915년경에는 牛目洞이 上·下牛目洞으로, 天津洞이 東·西天津洞으로 나누어졌고, 1927년에는 演坪里를 두 개의 區로 나누어 區長制가 실시되었다. 즉 1구는 古水·二陽·錢屹·周興 등의 洞으로 이루어졌고, 2구는 後海·飛揚·牛目·天津 등의 洞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31년에는 연평리의 1·2구가 통합되어(演坪)里制로 환원되었다. 또 해방 후 1949년에는 古水洞이 上·下古水洞으로 分洞되었는가 하면, 1970년에는 後海洞이 迎日洞으로 개칭되었으며, 바로 이 해 2월에 中央洞이 設洞되었다.

1985년 4월 1일에는 舊左邑 演坪出張所가 牛島面으로 승격되면서 현재는 4개



우도항에 세워진 우도면 푯돌

行政里에 12개 자연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4개 행정리는 大津里(동·서천진)·西光里(중앙·상·하우목)·五逢里(주흥·삼양·상·하고수·전흘)·朝日里(비양·영일)이다. 이 4개 행정리 중 大津里만이 종전의 이름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고 나머지 西光里·五逢里·朝日里는 새로 命名된 명칭이다. 즉 서광리는 해가 지는 곳, 오봉리는 5개 봉이 합쳐진 곳, 조일리는 아침 해를 맞이하는 곳이란 의미의 한자표기이다.

牛島面의 牛島[25]라는 명칭은 濱坪이라 개칭하기 훨씬 이전부터 불리워진 섬의 이름이다. 文獻上에도 牛峰이라 표기된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없이 牛島로 표기되어 있는데, 牛峰의 峰과 牛島의 島는 원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峰은 山의 뜻이고 島의 本字는 嶋로 海中의 山이란 뜻의 글자이다. 그러나 牛島라는 명칭은 본래 우리말의 '소섬' '소 모양의 섬'을 漢字表記化(訓譯)한 것으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문헌들에 예외없이 그 지형을 표현하여 '形如臥牛'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양이 '누운 소'와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섬 혹은 牛島란 명칭은 이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 名稱도 朝末鮮初에는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史實을 기록한 문헌들에서 그 명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臥牛形'에서 파생된 것으로 '牛頭形', 즉 '소머리형'이라 하는 곳이 있다. 이렇듯 牛島의 지형을 臥牛形·牛頭形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한 傳來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섬은 섬이면서도 산 형체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대부분이 농토인 평야로 되어 있으며, 단지 섬의 동쪽만이 조금 높은 오름(山)으로 되어 있다. 이 오름이 있는 곳을 속칭 섬머리라고 하는데, 이 섬 전체를 누운 소로 볼 때에 이 산이 있는 곳이 소의 머리 형이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섬머리라 할 때의 섬(島)과 소(쇠)머리라 할 때의 소(牛)의 의미는 전연 다르다. 그리고 臥牛形·牛頭形과 관련하여 '광대코지(소의 엉치)'·'제우(繫牛)모루(쇠맨몰렝이)'·'촐(乾草)까니(구시)'라 불리우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모두가 보는 이의 視覺에 따라 붙여진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이와는 달리 牛島, 특히 牛目洞이라는 동네 이름은 옛날에 소를 지는 牧

25)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牛島라는 지명은 密陽都護府·長興都護府·順川都護府·光陽縣의 각 山川條에도 보인다.

了, 즉 牛牧이 살았었기 때문에 연유했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비약된 논리이다. 필자는 문헌상으로 과거 牛島에 소를 방목했었다는 기록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만일 牛島에 소가 방목되었다면 그것은 牛島의 개간이 이루어지만서 농경에 사용되었던 農牛였을 것이다. 그리고 牛日洞을 바로 그 앞바다의 하얀 모래와 관련시켜, 즉 백색의 눈(雪→日)과 같다 하여 붙여졌다고도 하나 하얀 눈과 牛日은 전연 연상이 되지 않는다. 또 牛日洞은 先史時代에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고인돌 云云하는 이야기도 있는 듯 하나 이것만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서는 高麗 穆宗 때에 바다에서 분출했다는 瑞山이 牛島라고 주장하는 견해[26]도 있는데, 그렇다면 高麗 穆宗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섬에 어떻게 先史時代가 있고 고인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전자의 이론이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허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上下 牛日洞을 '웃우묵개'·'알우묵개'라 부른다고도 한다. 우묵개는 우묵(大草)+개(浦)의 합성어로, 해조류인 우무(大草)를 캐는 개(浦)로 풀이하는 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음직하다. 즉 과거 문헌들에는 우무를 牛毛로 표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우무를 캐는 곳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造語된 것이 牛日이 아닌가 한다.

迎日洞은 1970년 경에 後海洞을 개명한 것인데, 後海洞은 속칭 '뒷바당'이라 부르던 곳을 한자의 訓(뜻)을 따서 붙인 것이다. 원래 後海洞의 위치는 섬거리(牛島峰)의 서북쪽 바다에 面하였다 하여 뒷바당이라 했다고도 하며, 혹은 이 섬의 개척자인 金進士가 살았던 '진사터'의 뒷쪽(북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붙여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을에 凶事가 잦은 것이 洞名 탓이라 하여 이들 마을의 公議에 붙여 迎日洞으로 바꾸었다고도 한다.

古水洞은 속칭 '옛물동네'의 한자표기이다. 그러나 이 古水洞은 오늘날 上下 두 마을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옛물동'은 下古水洞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옛물은 下古水洞에 있는 湧泉水를 말한다고도 하며, 또는 이 용천수를 倭人들이 찾아내었다 하여 '왜(倭)물' 또는 '이물'이라고 한다고 하나 믿기 어렵

26) 瑞山에 대해서는 古來로 '大靜縣에 屬한다'(《新增東國輿地勝覽》), '加波島(加波島)'(《尙古博物》), 瑞山(《耽羅誌草本》) 등의 說이 있으며, 金榮祐은 城近 牛島라 하였다.

다. 과거에 용천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째서 없는 것일까? 따라서 필자는 李衡祥 목사가 朝廷에 올렸던 狀啓 중에, "牛島의 목장을 시찰해 보았더니, 빗물을 받는 두 개의 인공 못(池)밖에 없어서 10년 후가 염려된다"고 하면서 "옛 못을 깊이 파거나 보(狀)를 새로 쌓아서 가뭄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한 내용의 두 못과 연계시켜 보고 싶다.

錢屹洞은 속칭 '돈 둔덕'의 한자표기이다. 돈 둔덕은 곧 돈이 많이나는 둔덕, 돈이 많이 생기는 둔덕이란 뜻으로 풀이하고 싶다. 오늘날 錢屹洞은 天草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따라서 예전에도 사람들이 이 천초를 캐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곳이라는 뜻에서 돈올래, 돈둔덕이라 한 것 같다. 따라서 葉錢을 많이 심은 배의 難破說과 연계시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周興洞은 19세기에 이루어진 濟州三邑全圖에 獨津浦·曲分浦·朱郁浦 등 세 개의 포구 명칭이 보이는데, 주흥동은 그 중 주욱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다. 일설에는 전흘동과 관련시켜 돈올래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혹은 청상과부의 아들 송중이의 슬픈 故事와 연계시키기도 하나 부자연스럽다.

天津洞은 '한나루', 즉 한(큰)-나루(津)의 잘못된 한자표기인데, 이는 한나루를 하늘나루·하늘이 동으로 잘못 읽은 데서 빚어진 것이다. 오늘날 牛島의 문호가 되는 곳이며 또한 牛島 최대의 포구가 있는 곳이다.

飛揚洞은 牛島의 동쪽에 위치하여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란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하나 비상이다. 제주도에는 東飛揚·西飛揚이란 말이 있다. 즉 牛島 동쪽의 비양도를 동비양이라 한다면, 서비양은 翰林읍 비양도를 가리킨다.

제5절 異樣船의 來泊

牛島는 地政學上 濟州島내에서도 翰京面의 竹島와 더불어 요충지에 해당된다. 《朝鮮王朝實錄》 世宗 21년(1439) 윤 2월 임오(4일)조에,

··詢諸古老皆云, 旌義縣東牛峰, 大靜縣西竹島, 自古倭船隱泊, 最爲要害之地. ··

라 하여, 여러 古老들에게 물었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정의현 동쪽의 牛峰과 대정현 서쪽의 竹島는 예로부터 倭船이 몰래 정박하는 가장 要害한 땅이 된다"고 대답하였고, 世宗 25년(1443) 정월 병인(10일) 조에도,

又本州東金寧防護所東有牛島, 距陸地三十餘里, 又其西明月防護所, 則西有竹島. 距陸地二十餘里, 竝皆敵船入寇之處. …

라 하여, 김녕방호소 동쪽의 牛島와 명월방호소 서쪽의 竹島는 모두 다 敵船(왜구)이 침입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하였다. 실제 牛島의 동쪽에는 돌구멍이 있어서 노를 저어 들어가면 크기가 石室만 한데, 작은 배 한 척이 들어갈 만하며, 조금 더 나아가면 배 5·6척을 감출만 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倭船들이 候風을 위해 이곳에 잠입하여 여러 날을 보내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金尙憲의 《南槎錄》에,

地誌云, 島之東有石窟可容一船, 稍進則可藏船五六隻, 時有漂風倭船, 潛入于此, 累日不能知, 神人其中大如石室, …

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金錫翼의 《耽羅紀年》 純祖 9년(1809) 조에는 琉球人이 牛島에 漂到했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是歲, 琉球國巡見官翁世煌, 史官姚世康毛維煥等, 漂到牛島, 巡見官髮上插金簪, 簪頭如菊花, 頭載紫綾冠, 腰拖黃緞大帶, 足躡紅靴, 史官皆插銀簪, 載黃綾冠紺色團衣, 大袖長裔, 日奉國王命巡察民政, 到大島竣事, 而還遇風漂來, 王都在中山地, 國俗都無印信, 公行文蹟皆以墨畫用之云.

이에 의하면, 琉球國 巡見官 翁世煌과 史官 姚世康·毛維煥 등이 牛島에 표도하였는데, 그들은 국왕의 명을 받들고 民政을 순찰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大島에 이르러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바람을 만나 이곳에 漂來하게 되었다. 또 王都는 中山에 있으며, 나라 풍속이 印信(官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公行文蹟은 墨畫, 즉 붓으로 싸인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차림새를

살펴보면, 巡覓官은 상투 위에 금비녀를 꽂았는데, 비녀머리는 국화꽃 모양으로 되었으며, 머리에는 자주색 비단으로 만든 冠을 썼고 허리에는 黃緞의 큰 띠를 둘렀는가 하면 발에는 붉은 신을 신고 있었는데 반하여 史官은 둘 다 은비녀를 꽂았으며, 머리에는 누런 비단으로 된 관을 쓰고 紺色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소매는 크고 옷자락은 길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리고 憲宗 11년(1845)에는 英國船舶이 牛島로부터 興陽·康津 근해까지 출몰하면서 허가없이 산에 오르고 水深을 재는 일을 마음대로 해갔다 하여 朝野의 관심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때 牛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耽羅紀年》에 의하면,

> 十一年夏, 異船一艘來泊牛島前洋, 人形深目高鼻碧瞳髮如羊毛, 其中一人容服頗異, 粗解文字, 乃是華人見問順也, 或時時放砲響震山岳, 投小艇下來以繩量島, 每百步許聚石塗灰, 以鐵釘揷其上. 將遍三邑沿岸, 問其所以則曰, 圖畵山川云, 牧使權穆擧募馬兵統手城丁而備之.

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異樣船 한 척이 牛島 앞바다에 정박하고, 작은 배를 내려 노끈으로 섬을 측량하면서 매양 百步 정도에 돌을 모아 灰를 칠하고 쇠못을 그 위에 꽂으므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山川을 그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이들이 砲를 쏘아 산악에 울려퍼지자 이에 놀란 당시 權穆 牧使가 馬兵과 銃手·城丁들을 모아 이에 대비하였다고 하였고, 《朝鮮王朝實錄》 憲宗 11년(1840) 6월 己未條에는 "이달에 이양선이 湖南·興陽 및 濟州 근해에 출몰하여 왕래하면서 大英國船이라 자칭하였는데, 섬에 이르면 곧 자그마한 하얀 旗를 꽂고 노끈으로 水深을 측량하는가 하면, 돌을 쌓고 거기에 灰를 칠하여 방위를 표시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竹木 세 개를 묶어 세우고 그 위에 鏡板을 올려 놓아 들판에 절을 하며 祭祀를 지낸다는 것이다(羅拜行祭). 그러나 이는 측량기를 가지고 측량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일 뿐이다. 그런데 "濟州 譯學·通事가 달려가서 問情했더니, 그들은 〈錄名紙〉·〈諸國地圖〉·椋榻扇 등을 던져주고는 돛을 올려 동북쪽으로 떠나 버

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英艦名은 Samarang號이며, 船長은 Captain E. Belcher이라 하였다.[27]

그런가 하면, 光武 8년(1904) 8월 27일자로 濟州牧使 洪鍾宇가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閣下에게 올린 다음과 같은 報告書 第9號도 있다.

本牧所管濟州郡守洪友淳의報告書를接准內開卽見左面演坪里五所任報告音陰七月二十四日에日本輪船一隻이入泊本浦호고日人數十名이下陸호야家材與役器를卸下本浦호고將有造家之意이다이오며鱗次到付大靜郡守南瑗里의報告書를接准內開卽接右面下摹里機察將朴基永告目內陰七月二十五日巳時量에日本輸船一隻이到泊本浦호야日人九六名이下陸호고家材를卸下호야將造二間屋於摹恩峰上호오니未知緣何事端호와先玆馳報等因이온바該兩郡報告書에指飭호되此地은係是不通商港口而外國人之結構家屋를曾可濫許리오另探根委호며各別禁斷호고形止馳報케호얏숨더니再次到付濟州郡守報告書內開郡守가令往摘奸호고問其事實則日人海軍經理部軍屬大竹林造와海軍二等水兵福田生吉과海軍水兵岩本豊喜의所答內濟州一島가處在東南大洋호야正合瞭望之地故로結構數間屋호야以察各國船而已요初無別故이다이오며一時到付大靜郡守報告書內開郡守가馳往該浦호야質問根委호니日本人水軍古賀辛兵衛所答內現今日俄開戰에欲察他艦之往來호야摹恩峰上에望樓를建造이다이오며且日軍用上攻守七韓日이同盟이라이오며且日軍用上警備는秘密이爲主하니不必與人相議요且以地方官彦之라도登諸公文호야播人身目은亦宜不可라호온緣由報告登因이옵기該兩郡報告書에亦爲指飭호기를設若瞭望이라도守土官吏는必承我國政府知委然後에乃可奉行而經先建屋는有偉國典호니另加禁斷호야第待報部下回라호얏숨더니連續到付兩郡報告書內開指飭辭意를更詳說明이온즉答以公文이方將下來이다이오며已建家屋는有難毁撤호와先此報告等因이온바玆에謄錄轉報하오니

照亮호시믈伏望

光武八年八月二十七日

濟州牧使 洪 鍾 宇

指令第三號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閣下

當據報交涉事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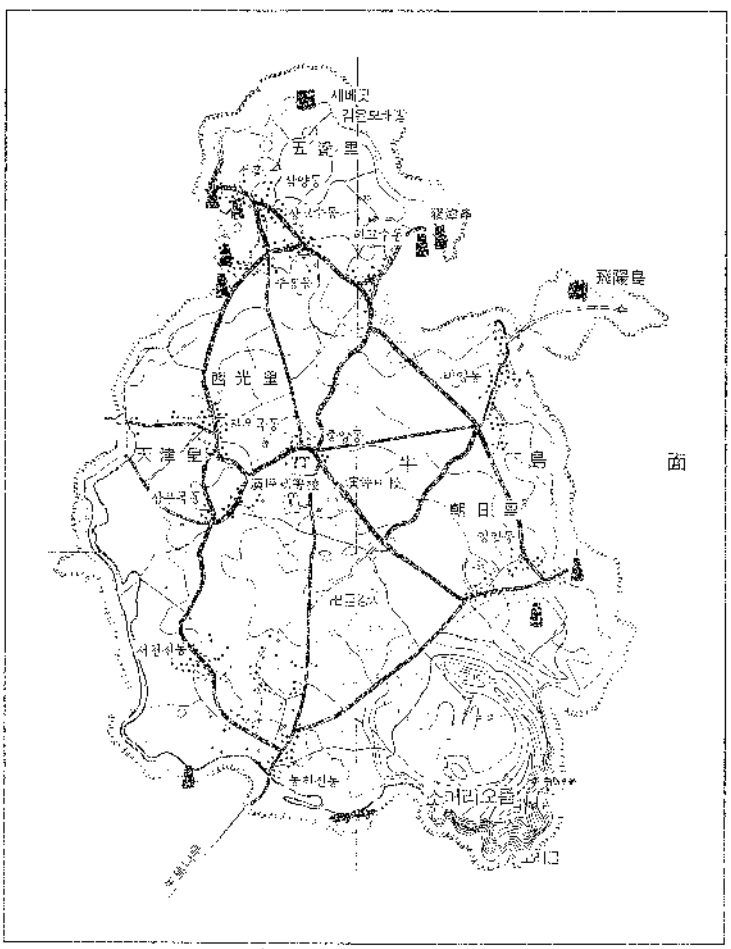
十一月十七日[28]

27) 宋鎭一, 前揭書.

28) 《報告書 및 訓令》 一 建陽 및 光武年間 一.

위 報告書는 濟州郡 左面 漢坪里 5所任의 보고 내용을 濟州郡守 洪友淳이 접수하여 濟州牧使에게 보고한 내용과 大靜郡 右面 下摹里 機察將 朴基永의 告目 내용은 大靜郡守 南萬里가 접수하여 제주목사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전자는 음력 7월 24일에 日本 輪船 한 척이 연평리 포구에 입항한 뒤에, 일본인 수십 명이 家材와 役器를 가지고 상륙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7월 25일 巳時 쯤에 日本 輪船 한 척이 역시 하모리 포구에 입항한 뒤에, 일본인 5·6명이 가재를 가지고 상륙하여 집 세 채를 모슬봉에 지으려 하는데 그 사단이 무엇인지 연유를 알지 못하여 우선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목사는 兩郡 군수에게, "이 땅은 通商과는 관계가 없는 港口이므로 外國人이 집짓는 일을 어떻게 마음대로 허락할 수 있겠느냐?"하면서 그 根本曲節을 탐지하여 각별히 禁斷하고 形止(사실의 전말)를 급히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 결과 재차 도착한 제주군수의 보고 내용은, 군수가 몸소 가서 摘奸하고 그 사실을 물었더니, 日人海軍 經理部軍屬 大竹林造와 海軍水兵 福田庄吉·岩本豊喜 등이 답하기를, "제주도가 東南大洋에 위치해 있어 망보는 데에 적합한 곳이므로 집 몇 채를 짓고 各國의 선박을 살피려는 것 뿐이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였고, 대정군수의 보고 내용은, 군수가 당해 포구에 달려가서 根本曲節을 물었더니 일본인 水軍이 답하기를, "현재 일본과 러시아가 開戰함에 있어 다른 나라 艦艇의 왕래를 관찰하기 위해 모슬봉에 망루를 세우려는 것이며, 또 軍用上 攻守는 韓·日이 함께 맹세하였고, 軍用上 정비는 秘密爲主이니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으며, 地方官으로 말하더라도 공문을 올려서 남의 신문을 피뜨리는 것은 역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주목사는 다시 兩郡 군수에게, "설사 망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지방관은 반드시 政府에 보고한 뒤에야 실행할 수 있으며, 먼저 집을 짓는 것은 國法에 어긋나니 특별히 禁斷을 가하여, 上部의 下回를 기다리라"하였으나, 계속하여 도착한 兩郡 보고서에 "지시의 내용을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도록 요청"하므로, "공문이 곧 내려올 것이며, 이미 지은 집은 허부는데 어려움이 있다"하여 두 군수의 보고 내용을 베껴서 上部에 보고하는 것이니 사정을 살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處分 내용은 마땅히 보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교섭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此後 이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未詳이다.

제2장 遺跡과 遺物



〈지도 1〉 유적 분포도

제1절 序

牛島面은 濟州道의 동북부에 있는 섬으로 濟州島에 附屬된 8개의 有人島 가운데서 가장 큰 섬이다. 위치상으로는 東經 126°58′3″이고 北緯 33°29′6″이다. 면적은 6.7㎢이다.

牛島面은 南北 약 4㎞, 東西 약 3㎞로 南北으로 길게 이뤄져 있는데 마치 호리병과 흡사한 모양이다. 남동쪽으로 海拔 132m의 牛島峰이 있

고 나머지는 완만한 平地를 이루고 있다. 행정구역은 4개 里에 12개의 自然部落으로 되어 있고 8개의 포구가 형성되어 있다. 牛島의 남측으로는 城山邑 성산리 포구와 우도면 西天津洞 포구까지 3.8㎞, 서측으로는 舊左邑 종달리와 하우목동 포구까지 2.8㎞ 정도 떨어져 있다.

유적과 유물 조사는 우도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耕作地, 오름, 住居地, 해안선 등에 대하여 編年에 관계없이 실시하였다. 형태가 쉽게 변하는 浦口에 관해서도 기록을 해 두었는데 家內에 있는 産業道具와 낭, 무덤, 물통 등은 여건상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조사방법은 현지조사, 口傳採錄, 지도표기, 촬영, 收拾, 기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지조사는 1차 1992. 11. 16~21(6일간), 2차 1993. 3. 7~8(2일간)에 걸쳐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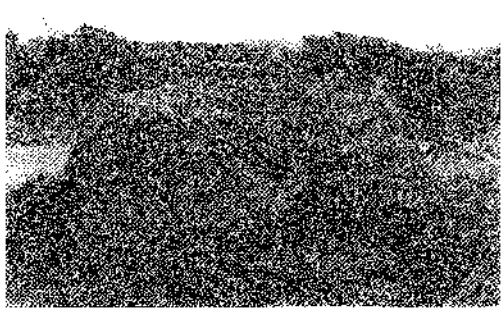
제 2 절 先史時代의 遺跡과 遺物

1. 遺　　跡

1) 고 인 돌

우도봉 서측 해안가 가까이에 성산일출봉과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지도 1).

상석은 길이가 200㎝, 너비가 150㎝, 두께가 60㎝ 정도의 크기로 윗면은 자연석 그대로이지만, 모서리는 떼내어 다듬은 흔적이 분명하다. 장축방향은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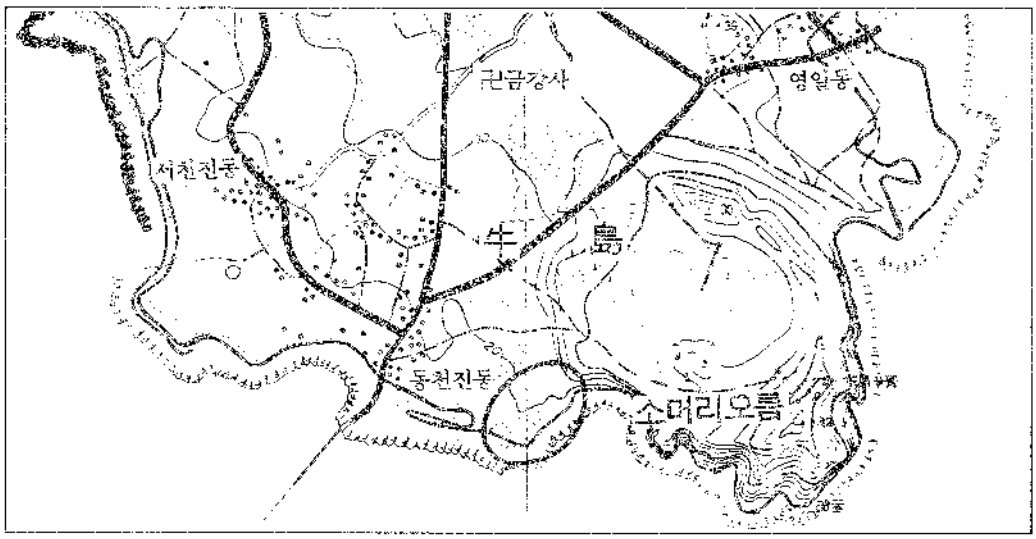


〈사진 1〉 지 석 묘



〈사진 2〉

본심의 한라산 주봉을 향하는 동서방향이다. 현재 支石 북쪽에 1매, 동쪽에 상석이 비탈을 따라 다소 미끄러져 드러난 납작한 支石 2매가 확인된다. 1985년도 처음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없었던 지석묘 동쪽 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지석묘 서쪽 부분이 다소 교란되었다.



〈지도 2〉 지석묘 위치도

2) 우도 고인돌의 성격

우리 나라 고인돌은 한반도에 집중 분포하고 있지만, 북쪽으로는 중국 요령지방, 남쪽으로는 제주도 그리고 일본 구주지방에까지 퍼져 있다. 그중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전남 지방으로서 이 지역에만 2만기가 넘는 것이 조사되어 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중 가장 빠른 것은 기원전 1000년대 초에 무문토기 제작집단들에 의해 축조되기 시작하여, 늦게는 기원전후한 시기까지 성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전남지방의 고인돌에 대해서는 기원전후한 시기까지 축조되었다고 주장된다.

제주도의 고인돌은 남한지방의 무문토기인들 중 공렬토기를 제작 사용했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건너와 처음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공렬토기 사람들이 축조한 무덤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용담동에서 딸

굴된 石槨무덤 뿐이다. 물론 한반도에서 무문토기인들은 고인돌과 함께 석곽무덤을 축조하였다. 세주대학교 박물관에서 1986년도 발굴조사한 전남 보성강 유역의 승주군 대광리 고인돌 유적의 예를 들어 보면 큰 상석이 있는 고인돌 주변에 별도로 상석이 없는 석곽무덤이 10여기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서 제주시 용담동 석곽무덤을 축조한 공렬토기집단이 고인돌도 또한 축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제주도에서 조사된 고인돌에서는 공렬토기가 발견되지 않고, 그보다 늦은 시기의 곽시1식토기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대체로 90여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무덤의 매장시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매장시설은 지하에 있는 것과 지상에 있는 것이 있으며, 지하에 있는 경우 상석을 들어내서 발굴하지 않는 한, 무덤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 최근에 남한지방의 섬진강, 보성강, 낙동강 등의 댐 수몰지역에서 대규모 고인돌군 유적이 발굴되면서 상석을 몇개의 지석으로 고인 고인돌 중에 대부분은 지하에 석곽매장시설이 확인되었지만, 한편으로 지하에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예도 적지 않게 알려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일부 고인돌은 지하에 시신을 묻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우도의 고인돌도 그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남지방의 고인돌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이러한 무덤이 아닌 고인돌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에서 정리된다. 하나는 고인돌이 처음에는 매장시설이 없는 제단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가, 나중에 지하 석곽묘와 결합하여 무덤으로서 축조되었다는 해석이다. 다른 한 해석은 무덤으로서의 고인돌이 후대에 이르러 지하 석곽시설은 생략한 이른바 지상 開石式 고인돌로 되면서 제단 혹은 墓標石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지상 위석식 고인돌 전부가 무덤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고인돌이 무조건 무덤이라고 주장만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이렇게 볼 때, 우도의 고인돌은 발굴조사를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덤 혹은 제단 어느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고인돌이 후대에 축조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역시 발굴조사가 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근에서 고인돌 축조 시기에 속하는 마제석부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부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파도에서 많은 마제석기와 패총 유적이 있으므로 해서, 발굴조사가 되지 않더라도 외관상 고인돌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파도 고인돌이 실제 고인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과 같다.

그 축조 연대는 우선 제주도 본섬의 고인돌 연대가 그 대부분이 곽지1식의 적갈색경질토기 시대라는 점과 우도 발견의 마제석부의 추정시기 역시 앞서 곽지1식토기와 비슷한 시기라는 점에서 대체로 기원 1~5세기경의 어느 한 시점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본섬에서 고인돌 지석과 그 하부에서 확인되는 토기가 바로 곽지1식토기이며, 이 토기가 마제석부와 공반되는 것이 광령리 유물산포지는 물론, 곽지리 패총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본섬의 대부분의 고인돌과 함께 우도 고인돌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축조된 고인돌이 되는 셈으로, 고인돌 축조 전통이 특히 제주도에서 더욱 오래 지속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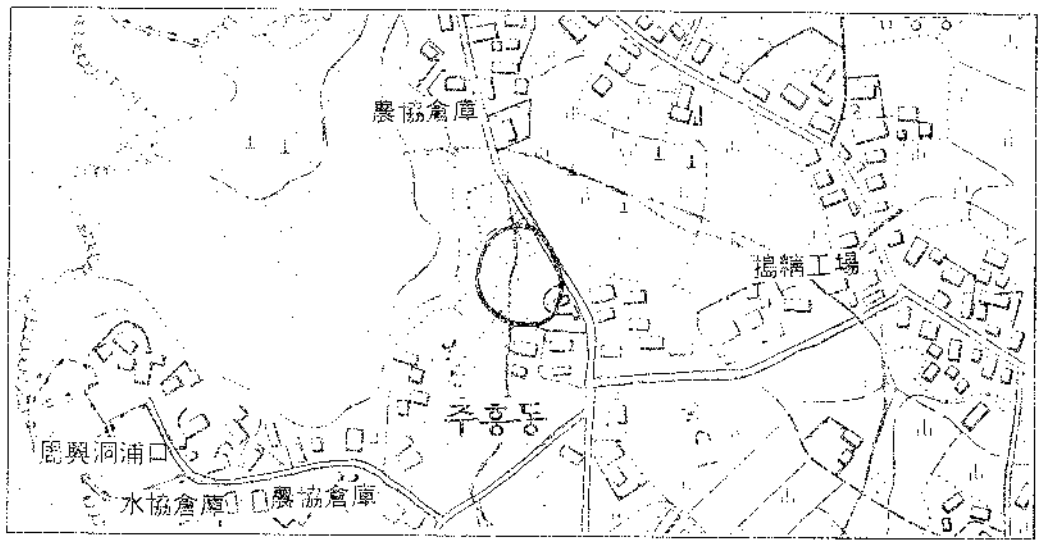
2. 遺　物

1) 돌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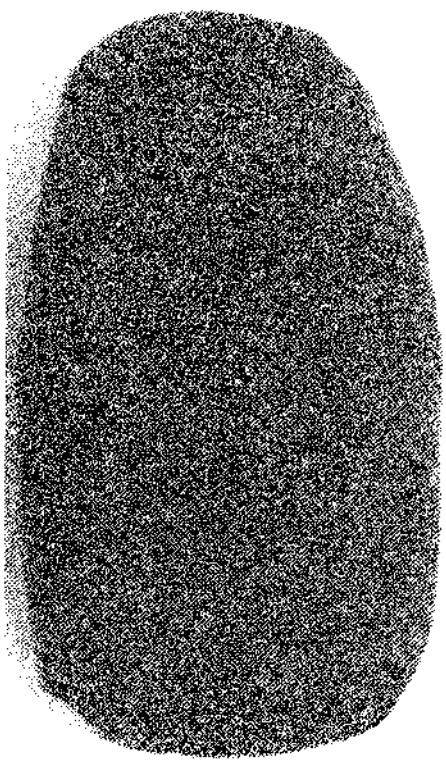
돌도끼는 길이 8.4㎝, 너비 4.6㎝, 두께 3.1㎝로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강도가 센 돌을 이용하여 한 쪽을 예리하게 간 것으로 나무를 자를 때나 사냥을 할 때 사용된다. 이 돌도끼가 발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1982년이다. 발견자 고응수(남. 59세)가 그의 소유인 우도면 주흥동 33번지 현 집을 뜯다가 발견하여 지금까지 소장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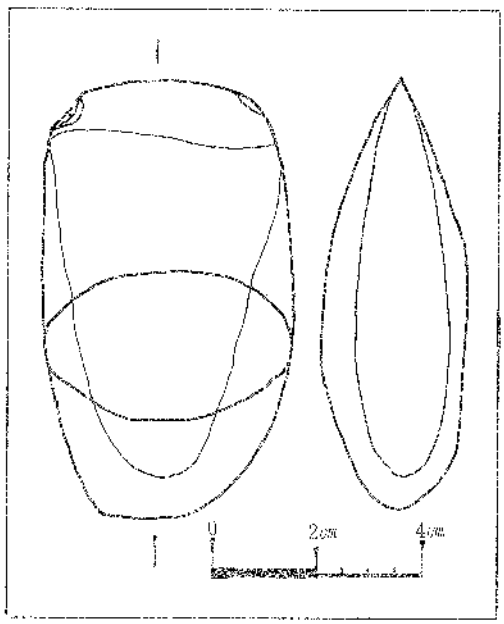
발견된 장소는 바다와 거의 붙어있는 곳으로 주위는 암반으로 높게 둘러쳐 있다. 다만 바다쪽인 서쪽만이 트여있는 듯한 곳이다. 면적은 약 660㎡ 정도이고 地表土의 흙의 두께는 상당히 얇은 것으로 보인다. 지표상에는 자갈과 靑磁末에서 近代의 陶磁器片들이 散布되어 있다.

이곳은 구좌읍 종달리와 마주보고 있고 발견된 선사유물도 종달리 유적에서 出土되는 것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됨으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시적인 生活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 3〉 주흥동 신사시대 유물 출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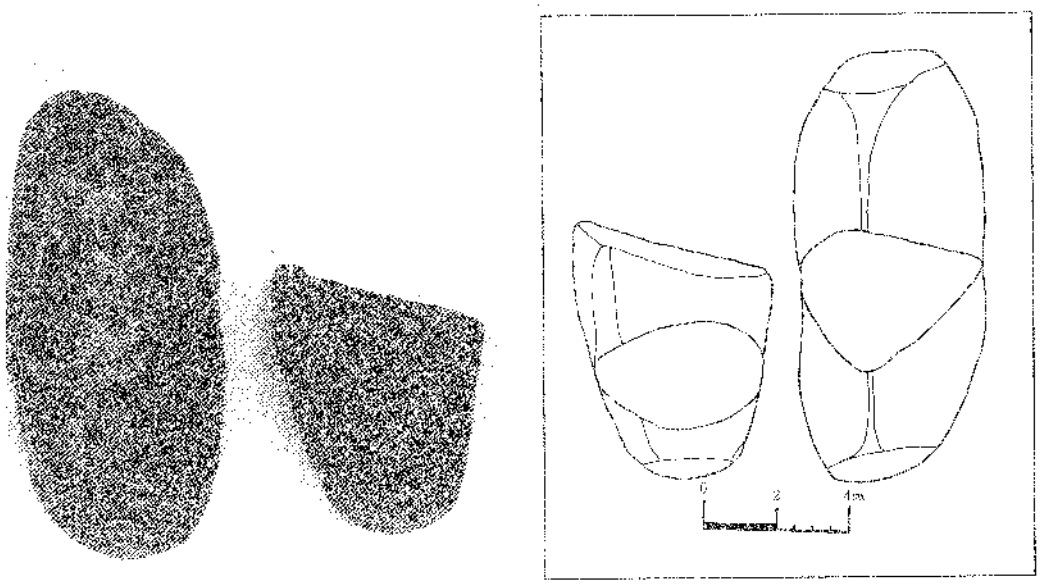




돌도끼

2) 몸돌-1

음식이나 藥草 등을 빻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길고 둥그스름한 돌을 사용하고 양쪽 마구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마무리면에는 부딪혔던 흔적이 남아 있다. 앞의 고용수씨의 제보에 따라 돌도끼가 발견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규격은 11.8㎝, 두께 4.7㎝이며 상태가 양호하다. 대공질 현무암으로 제작되었다.



몸 돌

3) 몸돌-2

앞의 것과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다. 몸돌-1보다는 많이 사용하여 부딪힌 면이 훨씬 넓게 형성되었다. 한쪽으로 조각나 있다. 규격은 길이 6.8㎝, 너비 4.9㎝, 두께 2.8㎝이다. 대공질 현무암으로 제작되었다.

제 3 절 朝鮮時代 및 近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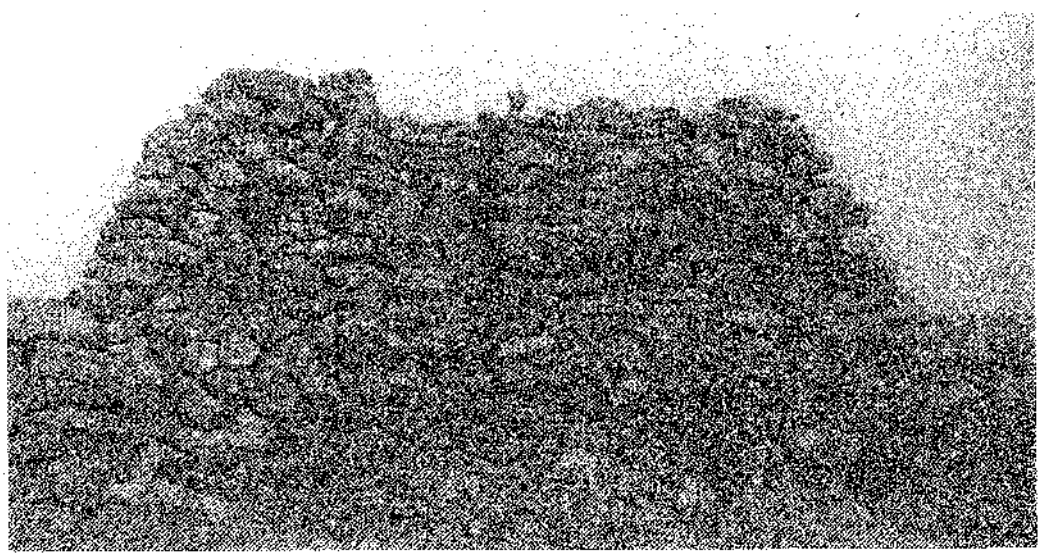
1. 望臺와 防邪塔

1) 望　　臺

우도의 望臺는 제주도에 있는 烽臺들과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용도상으로 보면 觀察하기 위한 것으로 烽臺처럼 관찰하고 신호로써 적을 알리던 것과는 약간 다르다. 우도의 望臺는 두 곳에 있는데 모두 우도의 북쪽에 있어서 우리 나라 남해안 쪽을 관찰하게 되어 있다.

이 望臺가 쌓아진 시기는 제주도의 4·3사건(1948) 당시로 牛島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烽臺와는 분명히 다르나 근대의 4·3관련 遺跡으로는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또한 石築과 흡사한 점이 많으므로 烽臺의 石築방법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 답다니탑 望臺



답다니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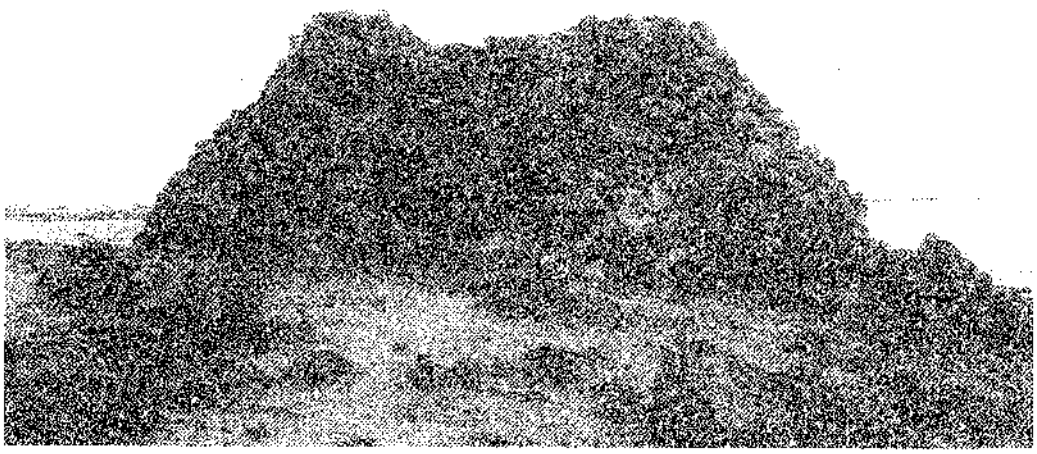
천진동 북쪽 바닷가에 있다. 속칭, '답다니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망대가

있음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완만한 경사를 이룬 바닷가의 암반위에 편년 사각, 정면 사다리꼴 형태로 이뤄졌다. 築造石은 넓적한 현무암을 이용하고 있고, 축조방식은 제주도의 성과 같은 방식인데 雜積으로 쌓아지고 있다.

크기는 높이 370㎝, 東上 486㎝, 東下 730㎝, 西上 487㎝, 西下 715㎝, 南上 535㎝, 南下 770㎝, 北上 453㎝, 北下 720㎝이다.

주요 관측 방향은 북, 동, 서쪽으로 보이며 계단은 남측으로 나 있다. 상호관계는 동쪽으로는 비양동 望臺, 남쪽으로는 연대동산(추정)이다.

(2) 비양동 望臺



비양동 망대

비양동 동북쪽에 있는 비양도 동북쪽에 있다. 望臺의 북측으로는 급경사의 암반이고 나머지 방향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높은 곳이다. 형태는 평면 사각, 정면 사다리꼴 형태를 이루고 있다. 築造石과 축조방식은 남다니탐 望臺와 같다.

크기는 높이 360㎝, 東上 460㎝, 東下 670㎝, 西上 440㎝, 西下 830㎝, 南上 520㎝, 南下 795㎝, 北上 430㎝, 北下 840㎝이다.

주요 관측 방향은 동, 동남, 남, 서쪽으로 추정된다. 계단은 동측으로 나 있다. 상호관계는 남쪽의 연대동산, 서쪽의 남다니탐 望臺로 보인다.

2) 防 邪 塔

제주도의 防邪塔은 마을의 災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형식은 사다리꼴형과 원뿔형이 있다. 보편적으로 2기가 한조가 되는데 때로는 1기만을 세우기도 하고 많게는 4기 이상의 세워지기도 한다. 牛島面의 防邪塔(厄塔)등은 전자에 속하는 2기 1조의 형식들이 대부분이다. 세워진 이유는 災殃을 막기 위한 것이 공통적이다. 하고수동과 상고수동의 경우 남녀 즉, 陰陽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천진동의 경우는 1개뿐이며 煙臺, 바다경계를 뜻한다고 하여서 독이한 양상을 內包하고 있다. 또한 영일동의 경우는 1기는 사다리꼴형이고 1기는 원뿔형이라서 이 또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1) 하고수동 厄塔



하고수동 액탑(북쪽)



(남쪽)

하고수동 포구 양쪽(남,북)에 각 1기씩 모두 2기가 있다. 북쪽 厄塔은 바다에서 200㎝정도로 높은 암반위에 높이 206㎝, 지름 290㎝ 정도로 원뿔통형으로 쌓아져 있고, 남쪽 厄塔은 바다에서 높이 320㎝ 정도의 岩盤위에 높이 240㎝, 지름 320㎝ 정도로 쌓여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厄塔'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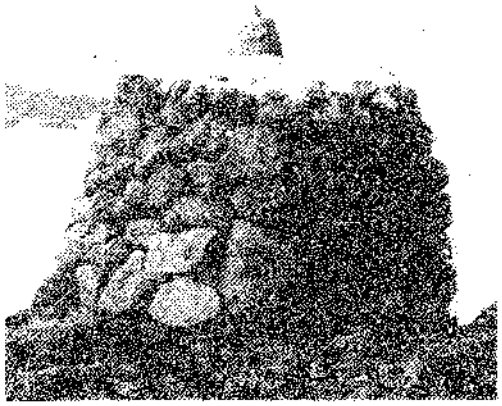
築造材은 현무암을 그대로 쌓고 있는데 가끔 거친계 다듬은 흔적이 보인다.

口傳에 의하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궂은 잡귀를 막아 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북측의 것을 하르방이라 하고 남측의 것을 할망이라고 하여 남과 여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곧 陰과 陽을 뜻하기도 한다.

(2) 주흥동 防邪塔



주흥동 방사탑(남쪽)



(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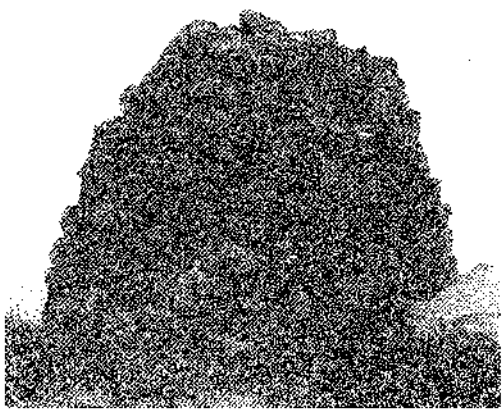
주흥동 포구 남, 북쪽에 각 1기씩 모두 2기가 있다. 크기는 남쪽 것이 높이 220㎝, 지름 310㎝ 정도이고 북쪽 것이 높이 210㎝, 지름 270㎝ 정도이다. 모두 원뿔통형으로 쌓아져 있는데 남쪽의 경우 상단부에 넓적한 돌이 세워져 있고 돌의 정면(북쪽)면에는 辛卯石이라고 陰刻되어 있다.

축조석은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쌓고 있는데 口傳에 의하면 당알코지에 있는 것을 하르방, 할망알코지에 있는 것을 할망이라고 하여 男과 女 즉 陰陽을 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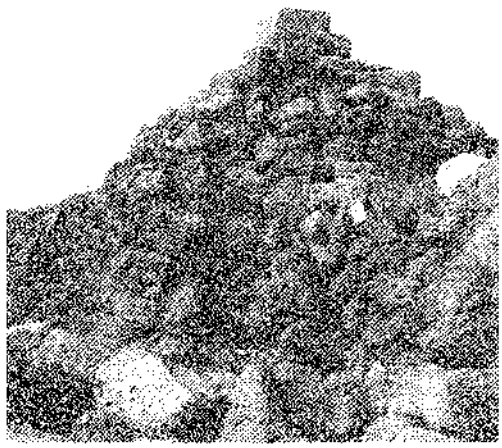
(3) 영일동 防邪塔

조일리 영일동 포구에 1기와 동남쪽의 耕作地에 1기가 있다. 포구에 있는 것은 평면 사각형, 정면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높이 530㎝, 너비 450㎝ 정도가 된다. 상단부은 세멘트로 발라 있고 조그만 구멍 3개를 뚫어 놓았다. 1962. 10. 11 공사라고 음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때에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築造石은 현무암을 대략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동남쪽 耕作地의 것은 원불통형으로 높이 290㎝, 지름 280㎝ 정도가 된다. 축조석은 현무암을 거친다듬하여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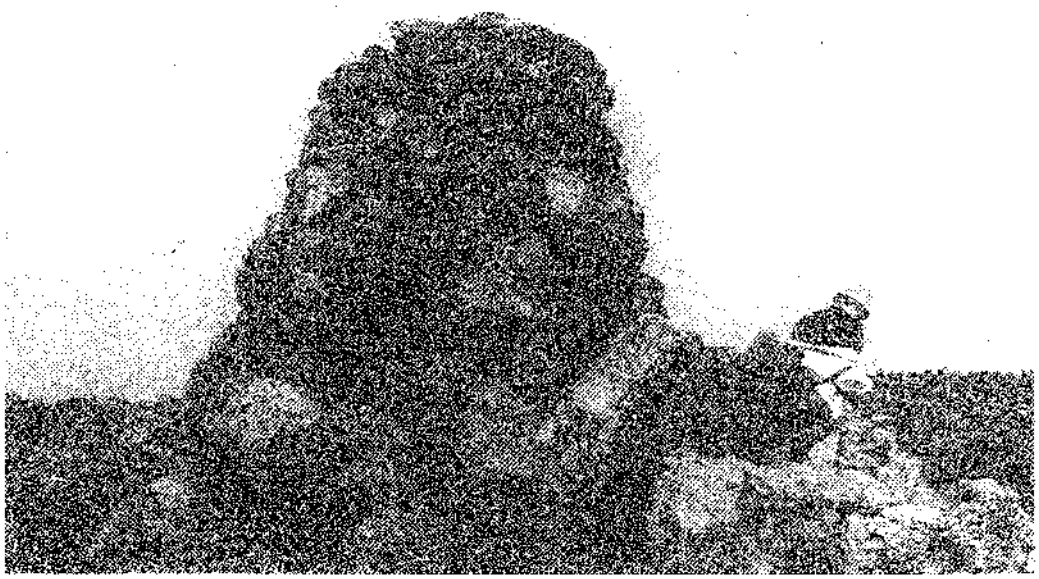


엉일동 방사탑(남쪽)



(북쪽)

(4) 동전진동 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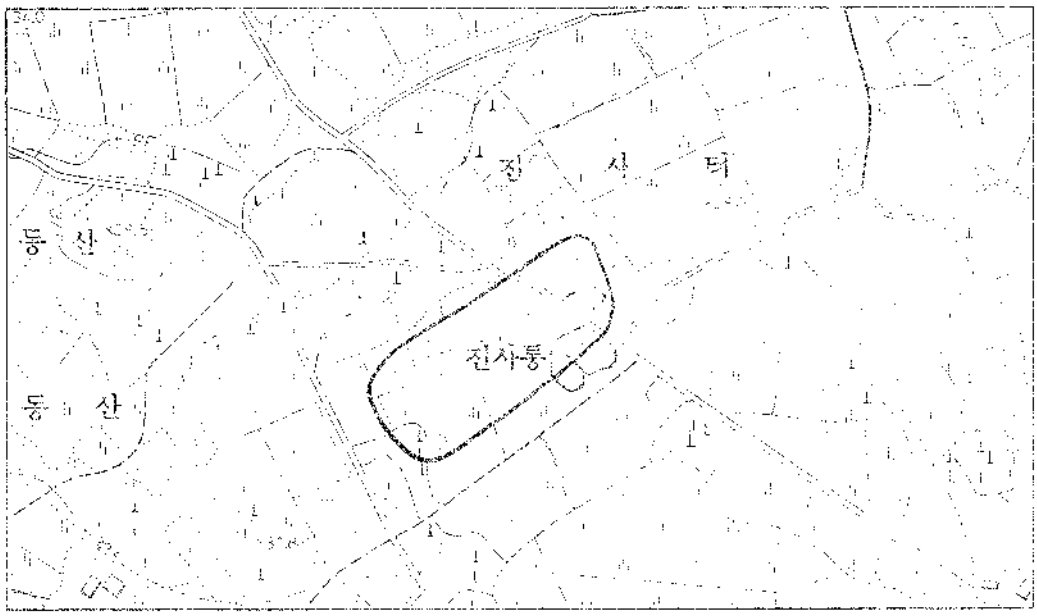
서천진동탑

동천진동 포구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1기만 있다. 높이 250cm, 지름 330cm 정도인 원뿔형으로 쌓아졌다. 북쪽면에 세멘트로 발라진 곳이 있는데 陰刻으로 '봉화대 1976년'이라고 써져 있다. 이 塔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口傳에 의하면 동천진동과 서천진동의 바다 경계 표시, 防衛兵들이 쌓은 것, 봉홧불 등으로 알려지고 있어 매우 불확실하다.

2. 집터와 遺物 散布地

1) 집　　터

(1) 김진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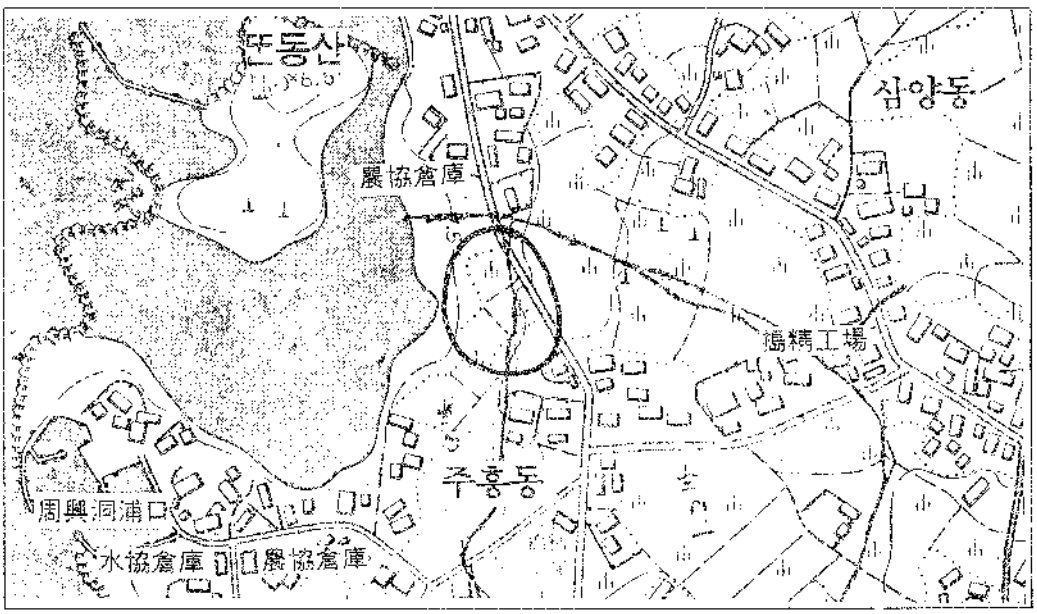
〈지도 4〉 김진사터 위치도

朝鮮時代 철종 때에 김석이라는 進士가 소설에 임도하여 居住했던 곳으로 알려지는 곳이다. 중앙동과 영일동으로 이어진 길 동남측 耕作地로 범위는 대략 4필지 정도이다. 동쪽으로는 우도봉이고 있고 북쪽으로는 와무덤(외쿠넘)동산이 있다. 주거지라고 알려지고 있는 곳은 현재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남측으로 대나무가 심어져 類推할 수 있을 따름이다.

북측으로 김진사통이라고 하는 물통(봉천수)이 2군데 형성되어 있는데 口傳에 의하면 김진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주흥동 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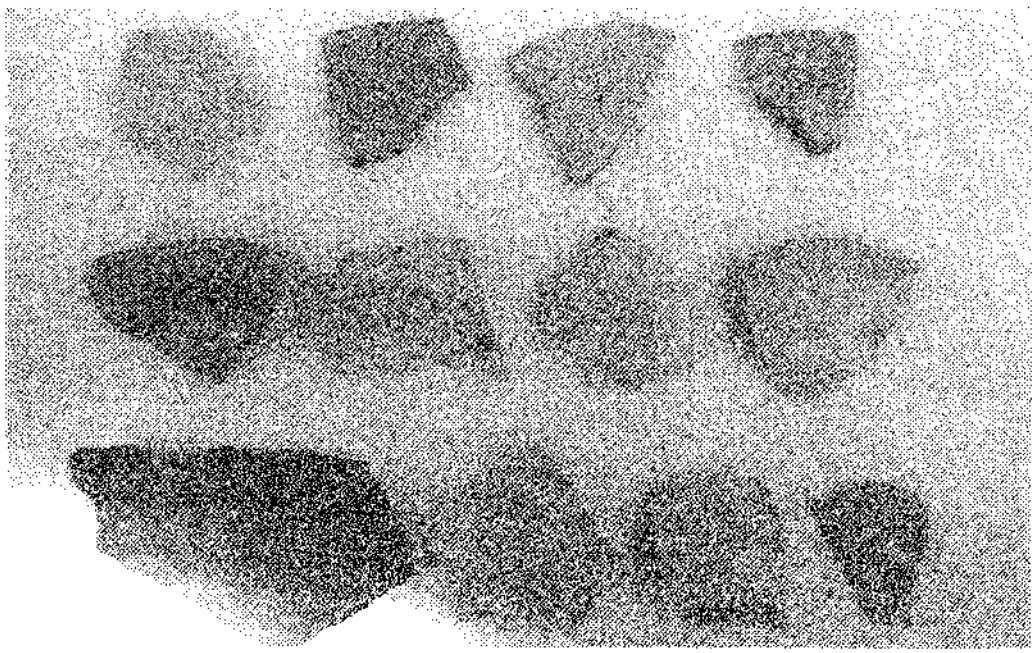
(지도 5) 주흥동 집터 위치도

주흥동 33번지로 先史時代의 들도끼와 뭉돌이 발견된 곳이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편들이 있는 바 이는 사람이 居住하였음을 立證하는 자료이다. 이곳은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바다와 근접되었고 주위 지경보다 레벨이 낮아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① 朝鮮白磁사발片

기형은 破片이라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外反된 굽에 曲線을 그리며 서서히 外反되는 樣相을 보여 작은 사발류의 것으로 보인다. 회청색으로 나타나는 釉藥은 사발의 내외부는 물론 굽안까지 골고루 施釉되고 있으나 굽안은 기포발생 흔적이 있다.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혼합된 粘土인데 수비가 잘 되어 기공이나 균열은 보이지 않는다. 굽은 높힌굽을 하고 있으며 모래받침을 하고 있다(사진⑪).

보편적으로 이러한 양상의 도자기는 조선시대인 17~18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濟州島 一圓의 집터나 遺物散布地에서 자주 나타나는 도자기의 종류이다.



주흥동 집터 수습유물

① 조선백자편	⑦ 조선백자편	⑬ 조선백자편	⑭ 모물사기편
⑤ 조선백자종지편	⑥ 조선백자대접편	⑦ 조선백자편	⑧ 조선백자편
⑨ 시루편	⑩ 모물사기대접편	⑪ 조선백자편	⑫ 조선백자편

② 朝鮮白磁대접片

굽은 모양은 높린굽이며 모래굽받침을 하고 있다. 수직된 듯한 굽과 外反된 기벽으로 보아 대접인 것으로 판단된다. 釉藥은 청색을 머금은 백색으로 대접의 내외부에 골고루 施釉되고 있으며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胎土는 백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수비가 잘 되어서 기공이나 균열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사진⑧〉. 이러한 대접류는 제주도 일원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지라고 판단되는 곳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막그릇으로 사용된 듯 하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18~19세기의 것으로 類推된다.

③ 朝鮮白磁底片

작은 조각으로 전체의 기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굽이 작고 급격히 올라가는 기벽을 하고 있어서 종지로 보아 타당할 것 같다. 釉藥은 회백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지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胎土는 백토질의 粘土이며 수비가 양호하게 이뤄져서 균열이나 기공이 전혀 없다. 굽은 들린굽이며 모래굽받침을 하고 있다〈사진⑤〉. 濟州島에서는 쉽게 나타나는 종류이며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인 19세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④ 朝鮮白磁片

백색과 회백색으로 나타나는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혼합되어 있으며 수비의 상태가 양호하다. 釉藥은 회백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破片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모두 조그만 조각으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인 19세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사진① ② ③ ⑦ ⑧ ⑫〉.

⑤ 모물사기대접편

胎土는 갈색을 머금은 백토이다. 수비는 적당히 되고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잔기공이 보인다. 유약은 청색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미색의 백자유인데 대접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유약에 겨미줄과 같은 세세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모물사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⑩〉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말기인 19세기와 근대초기인 20세기초에 제주도내에서 주로 사용된 도자기이다.

⑥ 모물사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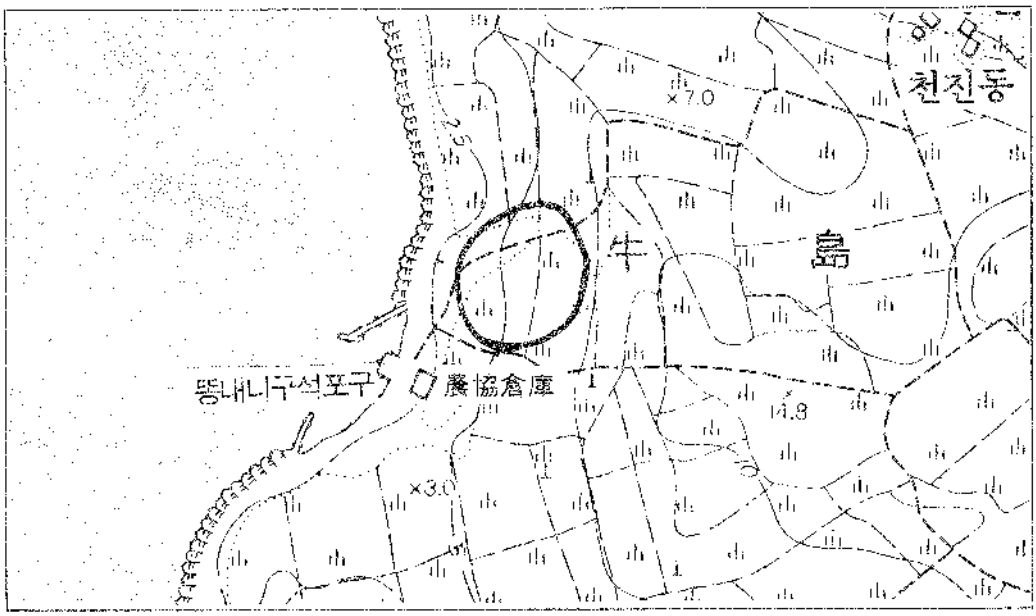
파편으로 기형은 알 수 없다. 胎土는 갈색을 머금은 백토이다. 유약은 회색이 약간 함유된 미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두텁고 거미줄 같은 잔 균열이 있다〈사진④〉. 시기적으로는 대략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기에 사용된 것이다.

⑦ 시루편

기벽은 적립되고 급격히 외반된 입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선시대말기에서 근대중기까지 사용된 시루라고 판단된다. 釉藥은 전혀 施釉되지 않았고 초벌구이에서 완성된 것이다〈사진⑨〉.

2) 遺物 散布地

(1) 서천진동 遺物 散布地



〈지도 6〉 서천진동 유물 산포지

서천진동 포구로 진입하는 도로의 좌(남)측 경작지서 收拾된 유물들은 조선시대 후기에서 근대초기의 陶磁器들이다. 주변 상황으로는 서측으로 바다와 연접하여 나머지 방향으로는 보편적으로 지형의 높낮이가 심하지 않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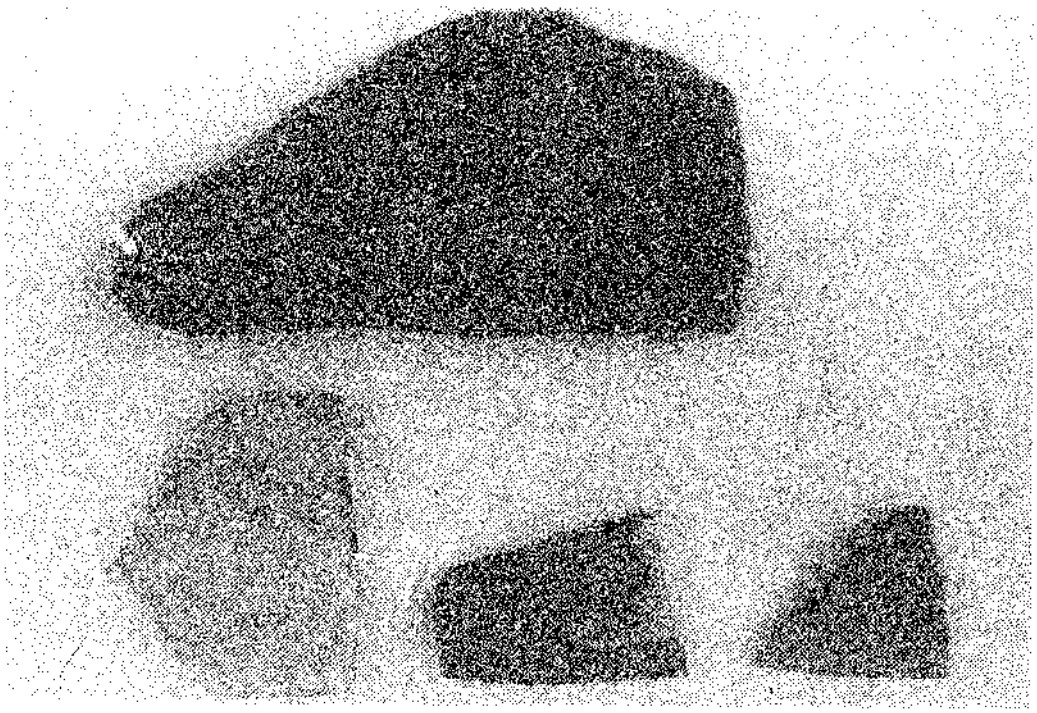
① 朝鮮白磁片

유약은 청색을 머금고 회백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벽의 내외부로 골고루 시유되어 있다. 태토는 아주 세밀한 모래가 혼합된 회색의 粘土인데 수비의 상태가 양호하여 균열이나 기공은 눈에 띄지 않는다.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을 추측하기에는 미흡하나 구연부가 작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접으로 類推된다〈사진②〉.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대초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朝鮮白磁片

연갈색으로 나타나는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소량으로 섞여 있다. 수비의 상태

는 양호한 편이라서 가공이나 균열은 찾아볼 수 없다. 유약은 연회색으로 기명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고 있는데 굵은 氷裂이 있다. 조그만 파편으로 정확한 기형은 알기 어려우나 구연부가 급격한 곡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종지의 일종으로 類推된다(사진②).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대초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천진동 유물 산포지 수습유물

① 모물사기편 ② 조선백자편 ③ 조선백자편
④ 시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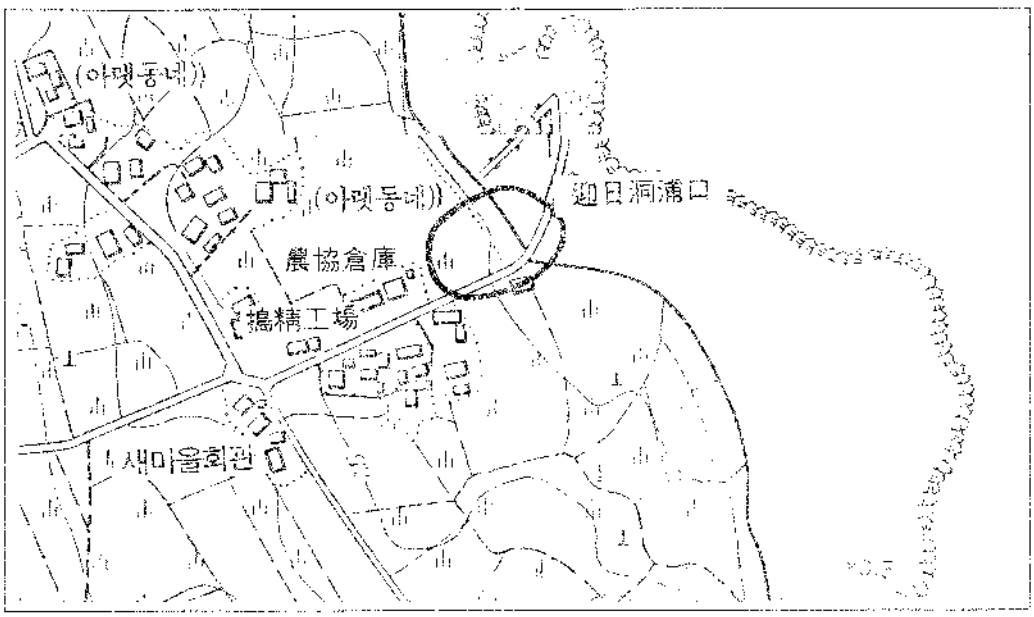
③ 모물사기편

흰색으로 나타나는 유약은 기명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유약의 상태는 좋은 편이나 거미줄 모양의 세세한 氷裂을 동반하고 있다.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혼합된 粘土이다.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을 類推하기에는 부적합하다(사진①).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말기에는 근대초기에 사용된 모물사기라는 陶磁器로 제주도에서 상당량 사용되었다.

④ 시루편

직립된 기벽에 두툼한 입술을 하고 있는 짚그릇으로 시루의 구연부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 胎土는 연갈색으로 세밀한 모래를 혼합하고 있다. 수비는 보편적으로 양호하게 되어 있는 편이나 거친 듯한 느낌을 주며 가끔 잔 기공도 있다(사진④).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대초기에 사용된 종류로 類推된다.

(2) 영일동 遺物 散布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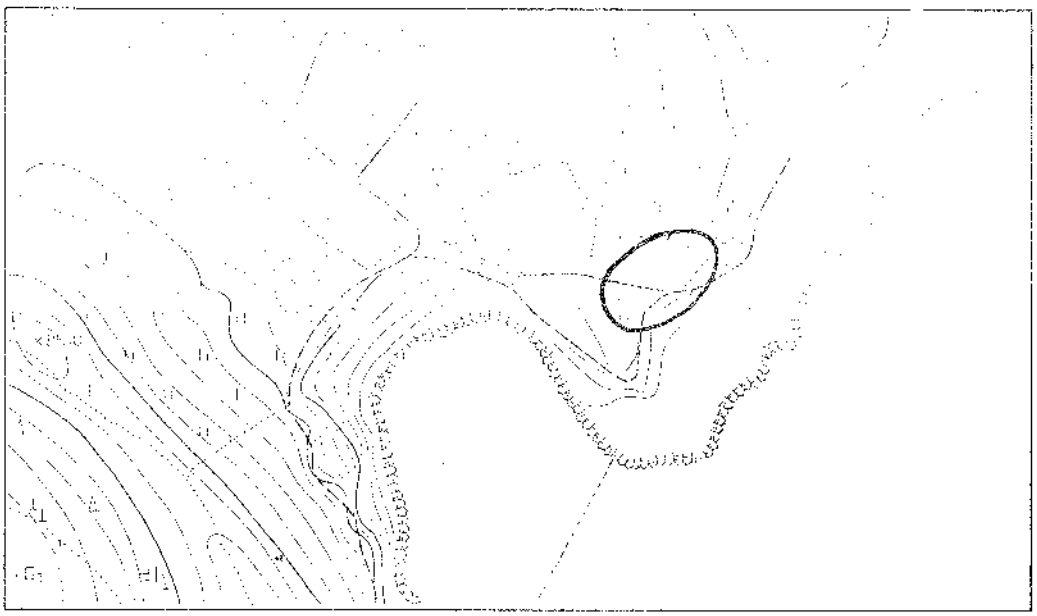
〈지도 7〉 영일동 유물 산포지

영일동 포구 남측 해안에서 收拾된 것과 소머리오름 북측 해안도로에서 수습된 것으로 주거지와의 관련성은 애매하다. 조선시대말기에서 근대초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간혹 눈에 띄나 시기적으로 확실한 것을 수습하였다.

① 朝鮮白磁사발片

소머리오름 북측 해안도로변에서 수습한 것이다. 기형은 외반된 굽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다시 외반되는 것으로 보아 사발편임을 알 수 있다. 회청색으로 나타나는 釉藥은 사발의 내외부에 골고루 시유되고 있으나 두껍고 불균일하며 기포가 발생했던 흔적이 있다.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혼합된 粘土인데 수비가 양호하

여서 기공이나 균열은 없다. 굽은 높은 들린굽을 하고 있으며 모래굽받침을 하였다 〈사진①〉. 이러한 양상의 도자기는 濟州島 一圓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막그릇으로 사용된 듯하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인 17~18세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영일동 유물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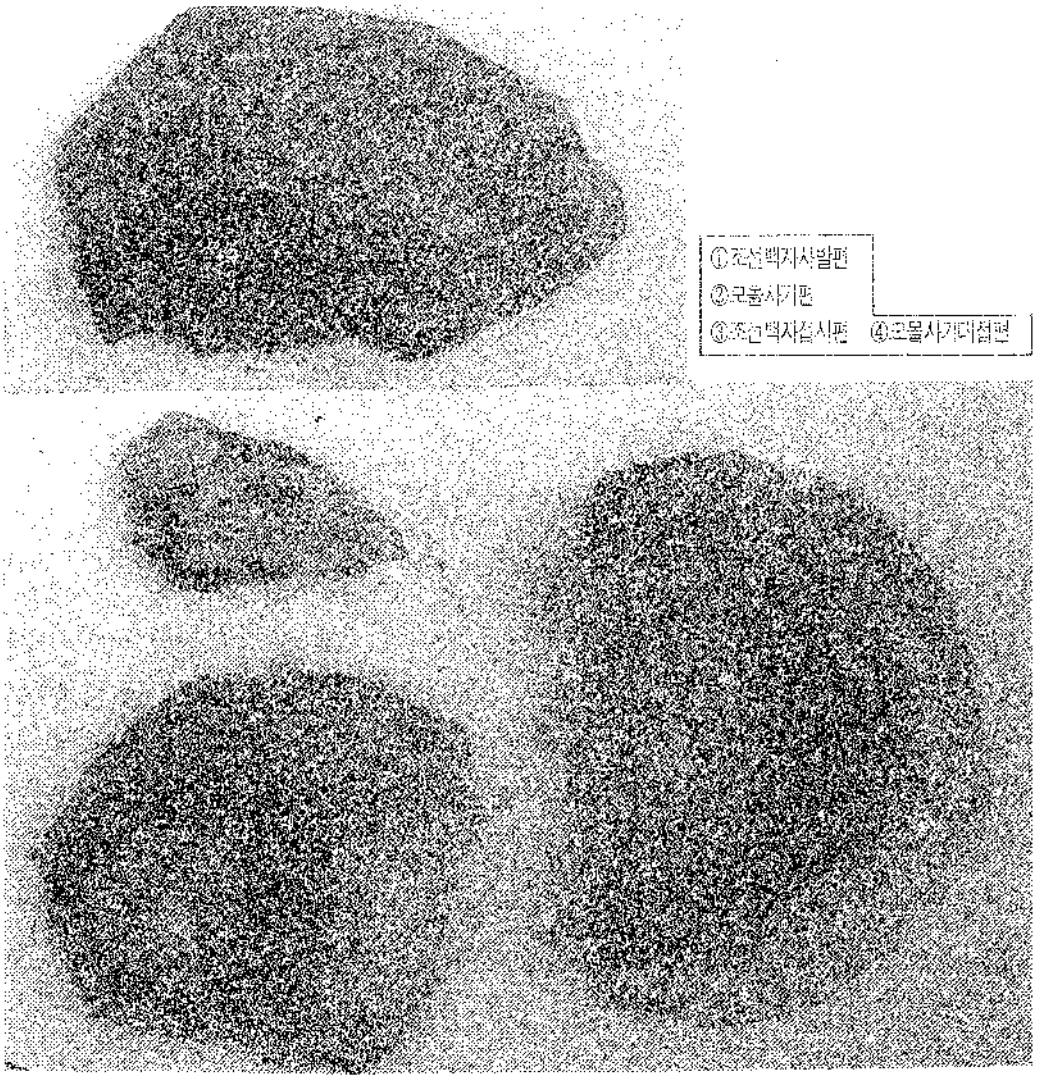
② 朝鮮白磁접시片

영일동 포구 서측도로와 해변 사이에서 수습된 것으로 높고 들린굽을 하고 있으며 급격히 외반되는 기벽을 하고 있어서 원래의 기형은 접시인 것 같다. 胎土는 연회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주 세밀한 모래가 보인다. 수비는 양호하여서 기공이나 균열이 없다. 유약은 회청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접시의 내외부에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접시의 중앙부에 굵은 모래비짐받침 흔적이 여러 개 나 있다. 모양으로 보아서 일반적인 그릇은 아니고 제기용 접시인 것으로 판단된다〈사진③〉. 이러한 형태의 기명은 제주도 내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이며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 말기인 19세기말에서 근대초기인 20세기초에 사용된 것이다.

③ 모물사기대접편

영일동 포구 안에서 收拾된 것이다. 직립된 굽은 작고 두툼한데 들린굽이다.

내접의 안쪽 중앙에 모래비짐받침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대접도 모래비짐받침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胎土는 백색의 점토인데 수비가 적당히 되어서 자세히 보면 기포가 보인다. 유약은 담색을 띠는 백자유인데 거미줄 모양의 빙렬이 많다(사진④⑤). 이와 같은 모돔사기 대접은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막그릇과 제사용 그릇 등이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조선시대 말기(19세기말)에서 근대초기(20세기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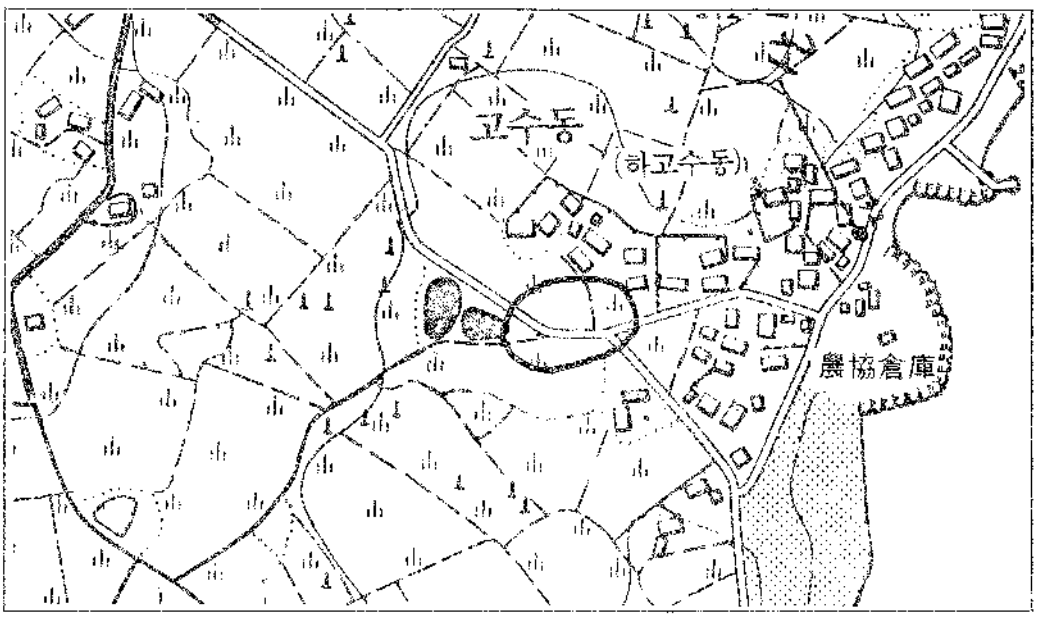


인일동 우물 신포지 수습유물

④ 보물사기편

영일동 포구 해안도로변에서 收拾된 것이다. 조그만 파편으로 전체의 기형을 알 수 없다. 다만 급격히 휘어지는 곡선으로 이뤄지고 있어 종지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胎土는 갈색이 혼합된 미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비는 적당히 이뤄지고 있어서 자세히 보면 세밀한 기공과 균열이 보인다〈사진②〉. 시기적으로 19세기말기와 20세기 초기에 사용된 그릇류이다.

(3) 하고수동 遺物 散布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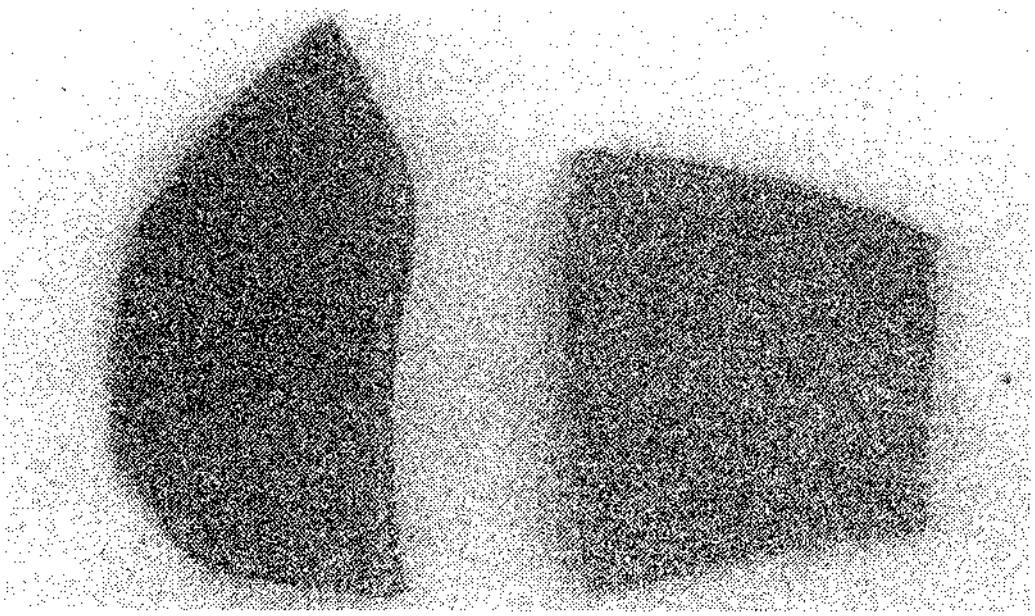
〈지도 8〉 하고수동 유물 산포지

하고수동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불통이 2군데 있고 주변은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발견된 유물은 도자기편으로 불통 근처와 경작지에서 收拾된 것이다.

① 朝鮮白磁사발片

구연부만 남아 있는 파편인데 상류부의 곡선이 급하고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어서 사발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胎土는 연회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세밀한 모래가 섞여 있다. 수비는 양호한 편이어서 기공이나 균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약은 청색을 머금은 회색으로 엷고 골고루 施釉되고 있다. 빙렬은 없으나 그릇의 외면에 갈흑 기포가 발생한 흔적이 있다〈사진②〉. 이러한 양상의 기명은 제주도내의 여러 주거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후기인 18~19세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하고수동 유물 산포지 수습유물

① 조선백자편 ② 조선백자사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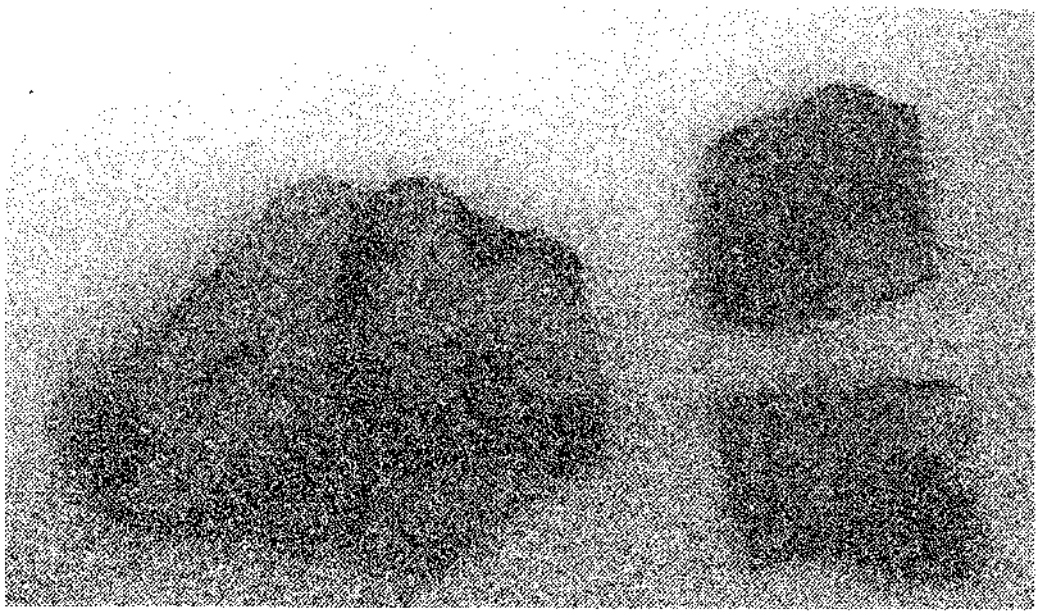
② 朝鮮白磁片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을 알기에는 부족하다. 胎土는 세밀한 모래가 섞여있는 연회색의 粘土이다. 수비는 양호하게 된 편이나 자세히 보면 세밀한 기공이 있다. 유약은 청색을 머금은 회색을 하고 있는데 빙렬은 전혀 없고 빛깔도 양호하다〈사진①〉. 유약이나 胎土의 양상으로 보아 조선후기의 도자기로 판단된다.

(4) 중앙동 遺物 散布地

중앙동에서 주흥동으로 가는 도로의 중간쯤의 우(동)측 경작지에는 도자기들이 간혹 눈에 띈다. 시형은 보편적으로 높낮이가 없으며 자갈 함유량이 적은 편이다. 발견되는 유물은 陶磁器片외 별다른 유물을 찾아볼 수 없고 시기적으로는 조

선사대 후기에서 근대초기의 것들이다.



중앙동 유물 산포지 수습유물

① 조선청화백자편	② 모물사기편
	③ 조선백자편

① 朝鮮白磁片

釉藥은 기명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었으며 얇은 빙렬을 동반하고 있다. 색조는 청색을 약간 머금은 백색으로 나타났다.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을 알 수 없으나 굽각 정부의 각을 둔 접시 또는 종지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세밀한 모래가 혼합되어 있는데 수비의 상태가 좋아서 기공이나 균열은 없다(사진③). 시기는 대체적으로 조선조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각을 둔 기명은 흔하게 발견되지 않은 귀한 것으로 소중한 기명류에 속한다. 편년은 18~19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 朝鮮青華白磁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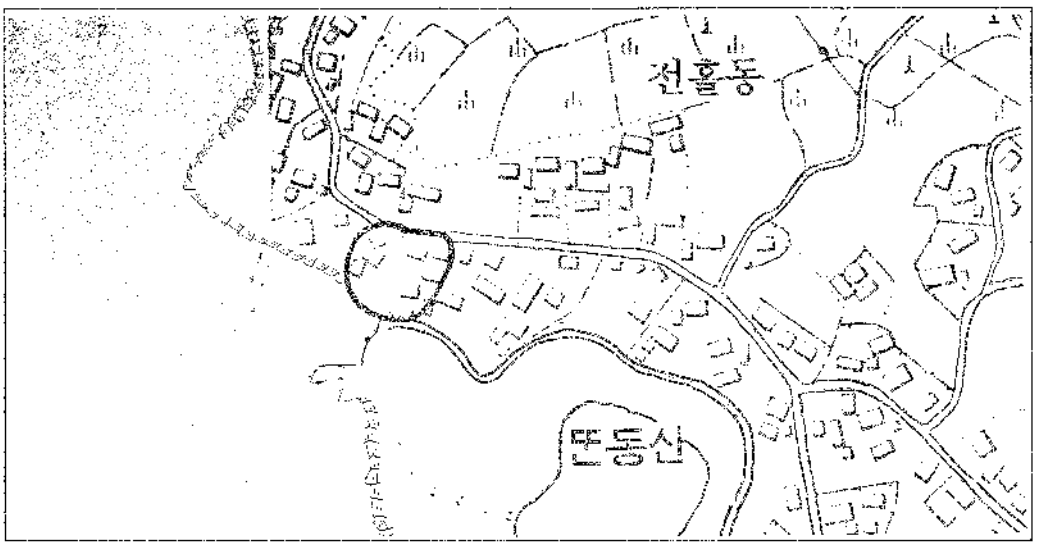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을 알 수 없으나 아가리부위가 완만한 곡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대접일 가능성이 크다. 태토는 연회색으로 나타나는 바 세밀한 모래

가 혼합되어 있다. 수비의 상태는 양호하여서 기공이나 균열은 눈에 띄지 않는다. 청색으로 나타나는 그림은 기벽의 외부에만 있는데 문양은 알 수 없다(사진①). 이러한 양상의 기벽류는 조선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제주도 일원에서도 흔히 출토되는 종류의 기벽이다.

③ 모물사기편

연갈색으로 나타나는 胎土는 수비의 상태가 양호하여 기공이나 균열이 없다. 유약은 미색으로 나타나는데 잔 방렬을 동반하고 있다(사진②). 조그만 파편으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조선말기에서 근대초기에 제주도에서 다량으로 사용된 모물사기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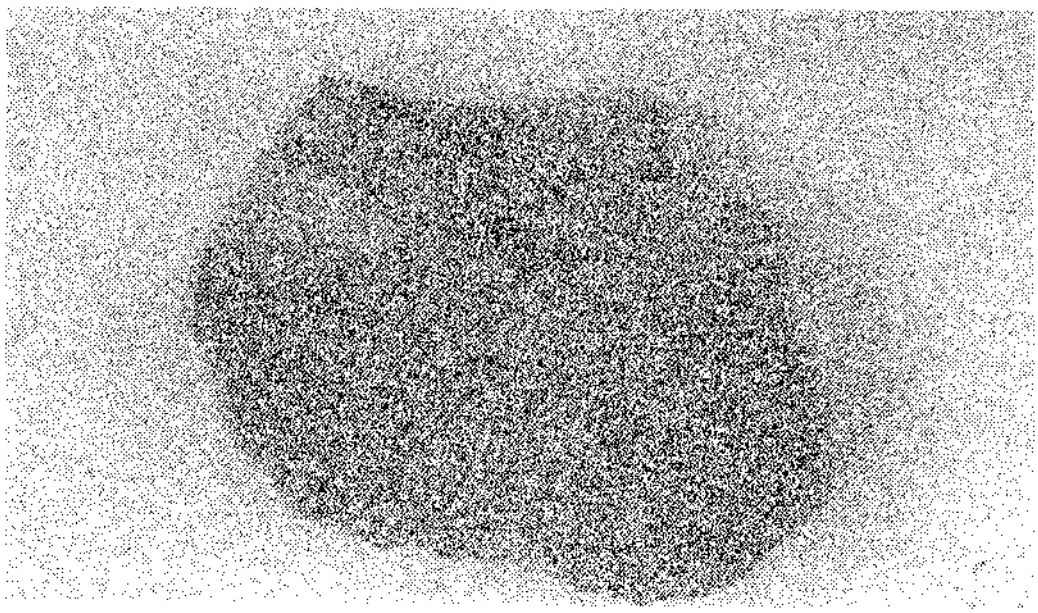
(5) 전흘동 遺物 散布地



〈지도 9〉 전흘동 유물 산포지

전흘동 즉, 상고수동 포구의 축조중인 불양장에서 수습하였는데 도자기편은 1점에 불과하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18~19세기의 도자기편으로 언급하여 두고자 한다. 또한 포구로 진입하는 비포장 도로 공사장의 돌무더기 속에서 4점의 기와가 발견되었으나 돌무더기 속에 버려진 것이라서 전부 수습하지 못하고 2점만 수습하여 제주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① 朝鮮白磁片



전물동 유물 산포지 수습 조선백자편

조그만 파편으로 전체의 기형을 알 수 없다. 태토는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밀한 모래가 혼합되어 있다. 수비의 상태는 양호하여서 기공이나 균열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유약은 비취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벽의 내외부에 두텁고 골고루 시유되어 있으며 굽고 세세한 빙렬이 있다. 이러한 양상의 기형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에 나타나며 제주도 내에서 시기적으로 같은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연년은 18~19세기의 것으로 유추된다.

② 구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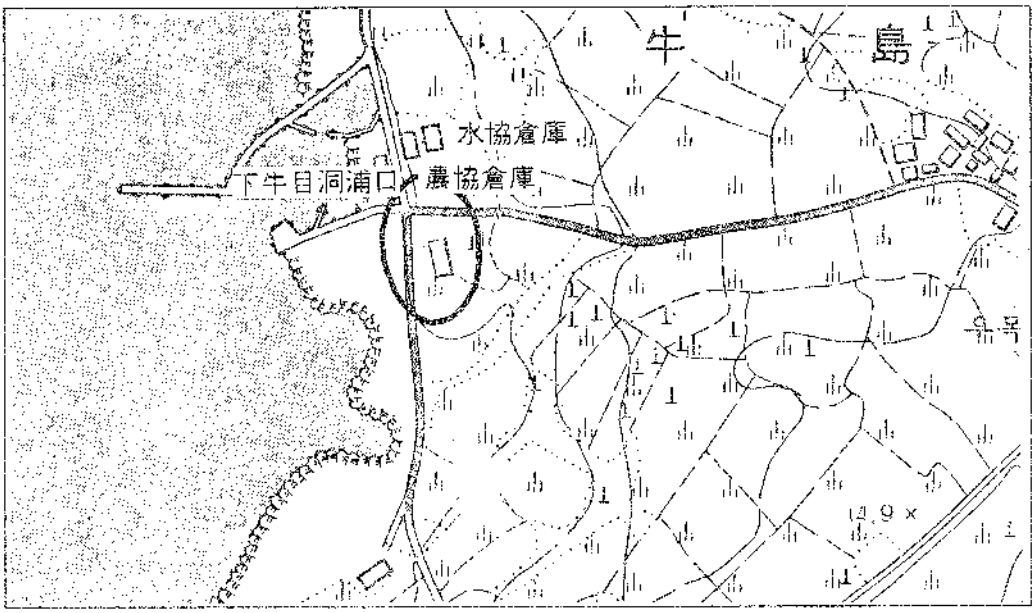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윗부분이 보면 원형을 하고 있다. 구래의 윗돌인 원판으로 된 가운데는 알판과 연결하는 구멍이 있고 중앙을 조금 비켜서는 곡물이 들어가는 주입구가 사각형으로 뚫어져 있다. 측면으로는 손잡이인 구멍조롱을 끼워 돌리게 된 사각형 모양이 구멍이 있다. 지름은 41.0㎝이고 높이는 11.0㎝이다. 알판은 수습할 수 없었다.

③ 구래-2

구래-1과 같은 장소에서 수습하였는데 구조나 양식 다른 점 별다른 특징은 없

다. 지름은 41.0㎝이고 높이는 9.0㎝이다.

(6) 하우목동 遺物 散布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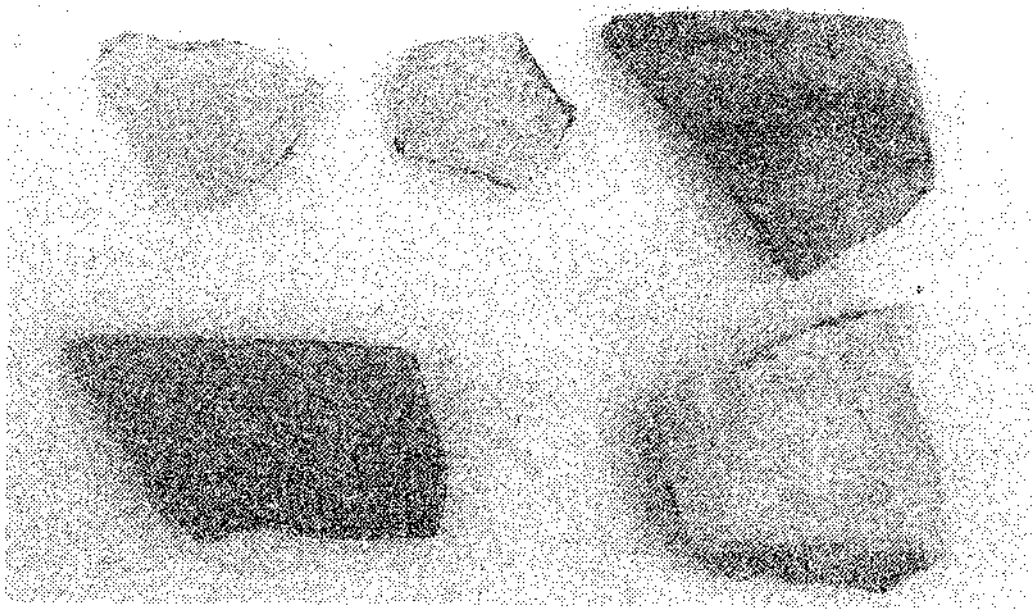


〈지도 10〉 하우목동 유물 산포지

상우목동에서 하우목동 포구로 진입하는 비포장 도로변에서 수습한 도자기편으로 조선말기의 근대중기의 것이 있다.

① 朝鮮青華白磁片

청색을 머금은 백색의 유약은 기명의 내외부로 골고루 施釉되고 있는데 잔잔한 氷裂을 동반하고 있다. 胎土는 연갈색으로 세밀한 모래를 혼합하고 있는데 수비의 상태가 양호하여서 기공이나 균열이 눈에 띄지 않는다. 굽은 파손되어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모래가 나타나고 있어서 모래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코발트계를 사용하여서 청색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青華무늬는 기명의 안팎 중앙과 벽에 그려졌는데 문양의 형태는 알 수 없다〈사진③⑤〉. 이러한 조선청화백자는 주로 조선시대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편년적으로는 19세기경에 해당된다고 思料된다.



하우목동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① 모골사기편 ② 모골사기편 ③ 조선청화백자편
④ 백자편 ⑤ 조선청화백자편

② 모골사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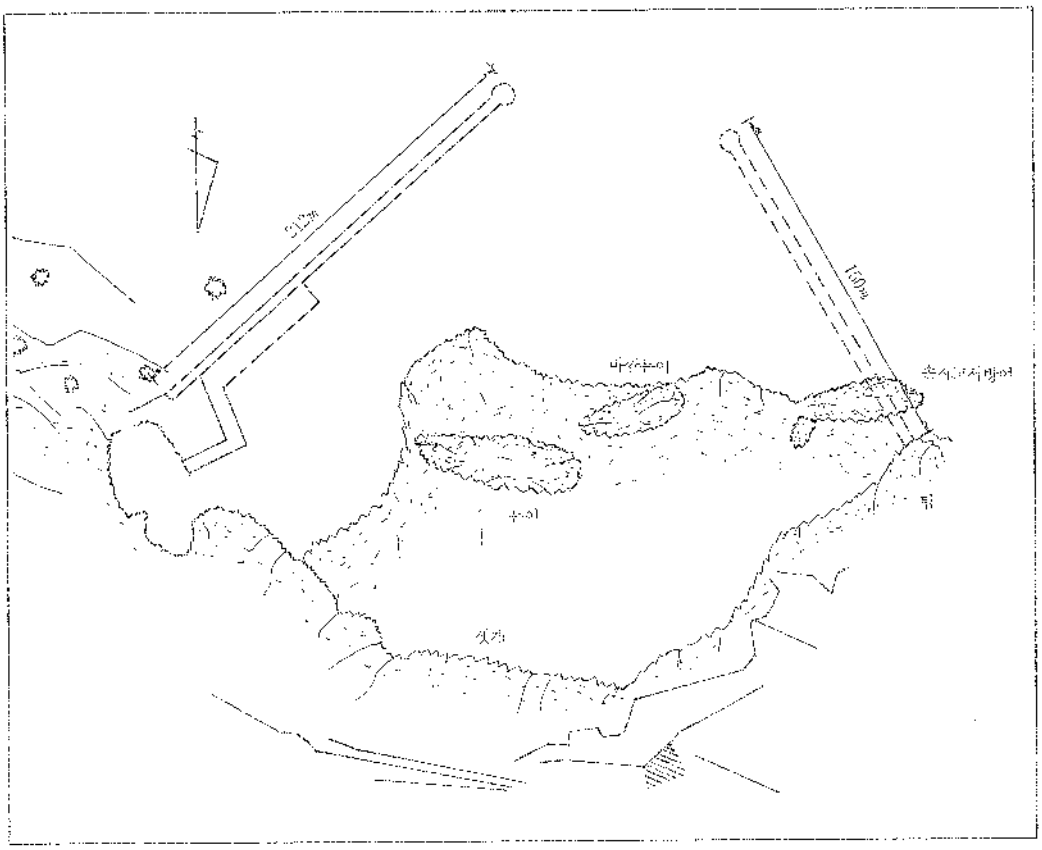
胎土는 연갈색으로 나타나며 세밀한 보래를 혼합하고 있다. 수비의 상태는 양호하여서 기공이나 잡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유약은 청색을 머금은 연회색으로 기형의 내외부에 골고루 시유되고 있는데 잔 균열이 있다. 조그만 파편으로 전체의 기형을 유추하기 힘들다〈사진①②〉.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말기에서 근대초기에 사용했던 陶磁器로 추정된다.

③ 白磁片

釉藥은 백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형의 내외부로 시유되고 있는데 방렬이나 잡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胎土는 연회색으로 수비의 상태는 양호하여 기공이나 균열은 전혀 없다. 구연부이긴 하나 작은 파편으로 기형을 유추하기는 힘들다. 〈사진④〉. 보편적인 시기는 근대초기에서 중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3. 浦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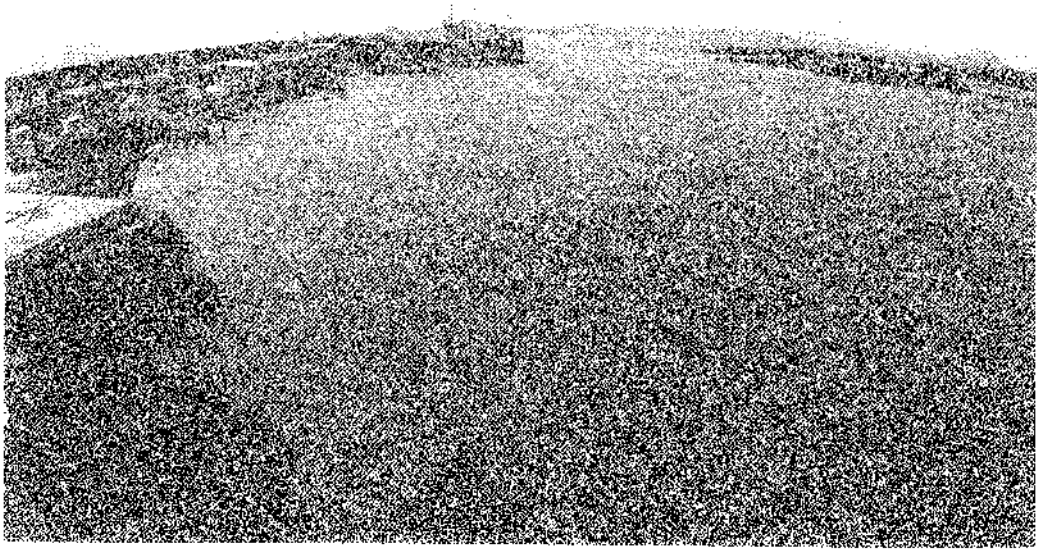
1) 동천진동 포구(우도항)



동천진동 포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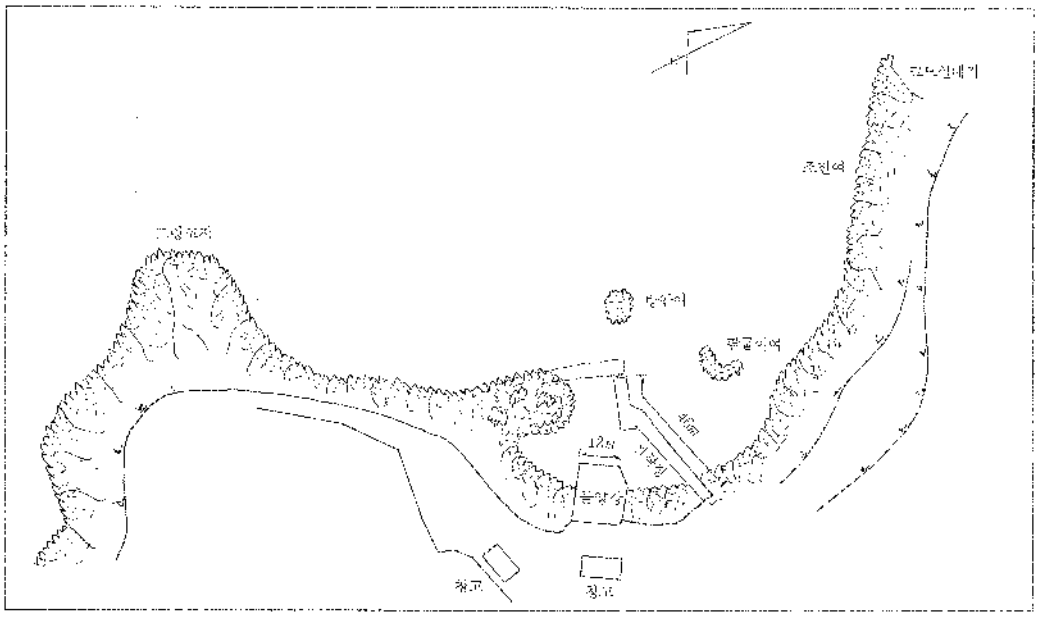
동천진동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우도항은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항과 마주하고 있어서 우도와 성산항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이다. 남서쪽으로 물양장과 防波堤가 축조되어 있는데 물양장은 길이 99m정도이고 防波堤는 길이 212m이다. 포구안 해안은 '틀여', '바깥틀여', '손지고서방여' 등의 암반이 있으며 안쪽으로 '샛개'라고 하여서 포구가 형성되기 전에 조그만 배들을 정박시키던 곳이 있다.

포구의 서측으로 깊게 바다로 뻗은 암반이 서쪽으로 오는 해풍을 막아주고 있다. 동남쪽으로 방파제가 길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앞으로 더욱 주요 포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천진등 포구 전경

2) 서천진등 포구



서천진등 포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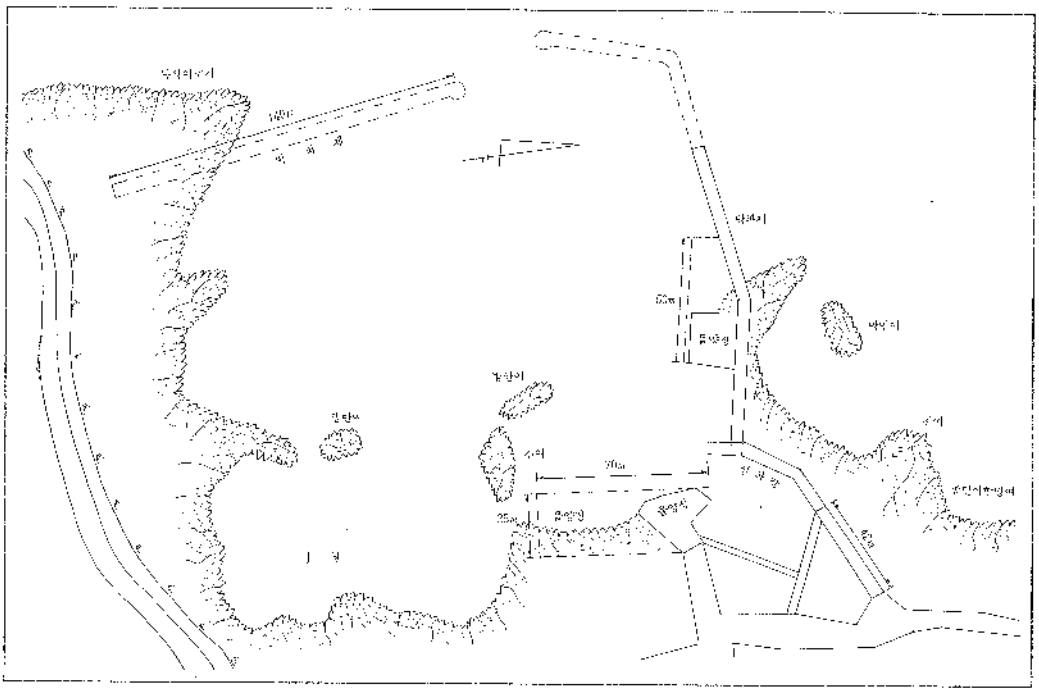
서천진동 포구 전경

서천진동 서쪽 해안에 위치한 포구는 사라호태풍(1959)의 피해가 발생한 후 점차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포구로서의 역할을 잃고 있는 실정에 있다. 잔존한 선착장은 46m로 서쪽으로 향하여 길게 나 있고 해안쪽으로는 너비 12m의 물양장이 축조되어 있다. 그러나 선박의 입출항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사라호 태풍이 있기 전에는 우도에서는 규모가 큰 포구로 많은 선박들이 있었다. 당시는 선착장이 지금의 포구 남쪽의 앞만에서 북쪽으로 길게 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상황으로는 북쪽으로 '드렁코지'가 있고 남측으로는 '그므칠내기'라는 바다로 돌출된 지점이 있어 양쪽으로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포구 주변으로는 포구의 앞쪽으로 '방안여'가 있다. 선착장 너머 북쪽에는 '팔굽이여'가 있어 간접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천진동 포구는 이미 기능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 요즘은 선박의 왕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선착장이 포구의 너비를 좁게하여 축조되었고 포구안의 깊이가 바닥인 암반과 가까워 포구로서의 역할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하우목동 포구



하우목동 포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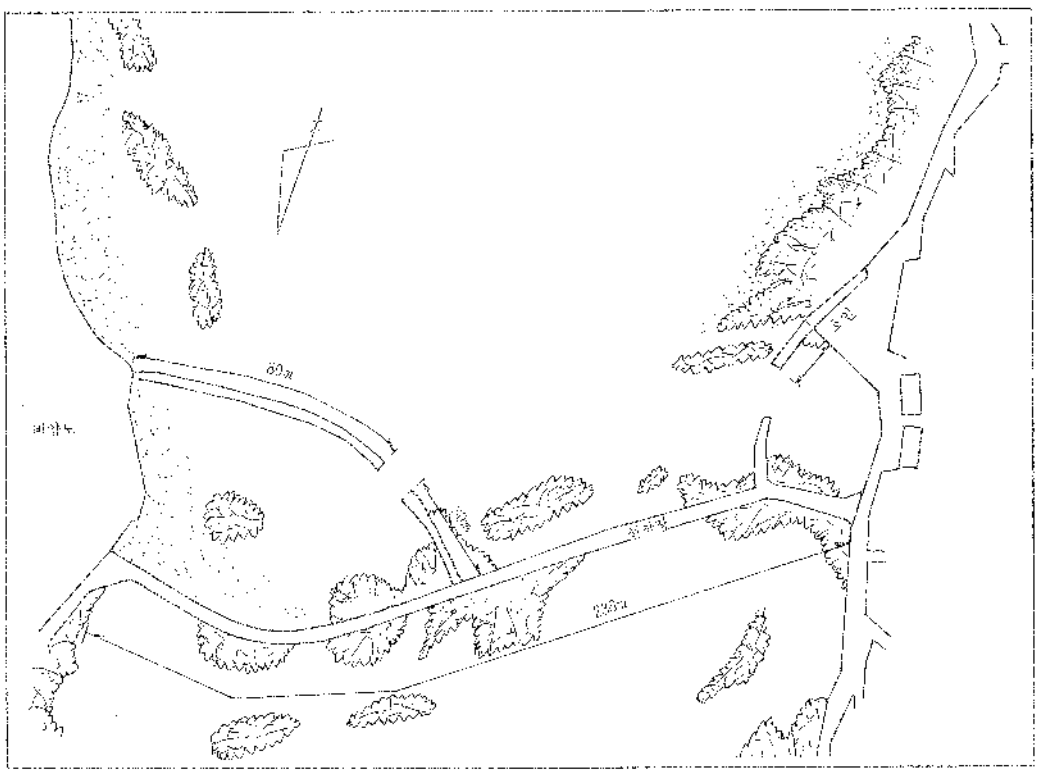


하우목동 포구 전경

하우복동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포구는 남쪽으로 '독성이보지'라고 불리우는 암반이 바다로 길게 뻗어 있다. 북측으로는 '모들여'라고 불리우는 암반이 바다로 돌출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도 포구가 형성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포구의 축조는 자연적인 암반인 '정달이할망여', '진여', '모들여'로 길게 이어지는 곳을 이용하였다. 기준선착장이 남서쪽으로 약 84m정도가 되고 42m지점에서 서쪽 방향으로 길이 40m의 선착장이 있다. 이 선착장의 12m 정도의 지점에서 다시 남서쪽을 향하여 길이 42m의 선착장을 축조하였으며 끝에서 너비 26m 정도의 물양장이 만들어졌다. 기준이 되는 선착장에서 서쪽을 향하여 116m 정도의 방파제가 있는데 30m 지점에서 너비 20m의 물양장이 축조되었다.

포구의 중앙부에는 '진여', '방안여', '제반여'가 있다. 전체적으로 규모를 갖춘 포구라고 판단되며 선박의 왕래도 잘 이뤄지고 있다.

4) 비양동 포구



비양동 포구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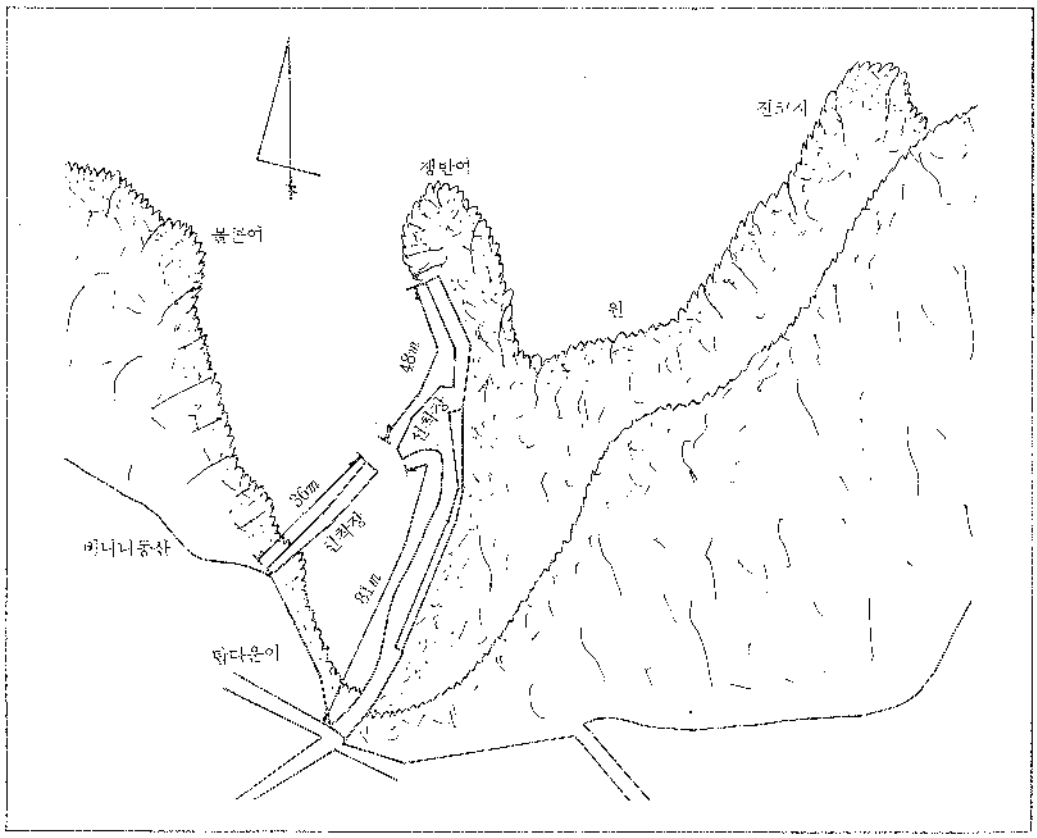
비양동 포구 전경

비양동 북쪽 해안에 위치한 포구는 그 양상이 특이하다. 비양동에서 동측 방향에 비양도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중간중간에 암반들이 있다. 이 암반의 위로 선착장을 길게 쌓아서 비양도와 연결한 다음 비양동쪽의 남쪽으로 길이 15m의 선착장과 북쪽으로 길이 22m의 선착장을 쌓고 터우를 위주로 하여 사용되었는데 선박들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비양도쪽으로 별도의 선착장을 둥그스름하게 쌓고 또 하나의 포구를 만들었다.

근저가 모두 모래와 암반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포구의 깊이가 낮게 보인다. 그러나 동, 서, 북쪽이 자연적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해풍으로 인한 피해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점이 있다.

5) 영일동 포구

영일동 북측에 위치한 포구는 동쪽으로 '쟁반여'라는 바다로 길게 돌출된 암반과 서쪽으로 나 있는 '버나니동산'과 '볼코여'라는 암반을 적당히 이용하여 형성되었다. '쟁반여'편으로는 길이 129m의 선착장이 있고 반대편으로는 36m의 선착장이 있는데 그 규모가 미약하여 포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



▲ 영일동 포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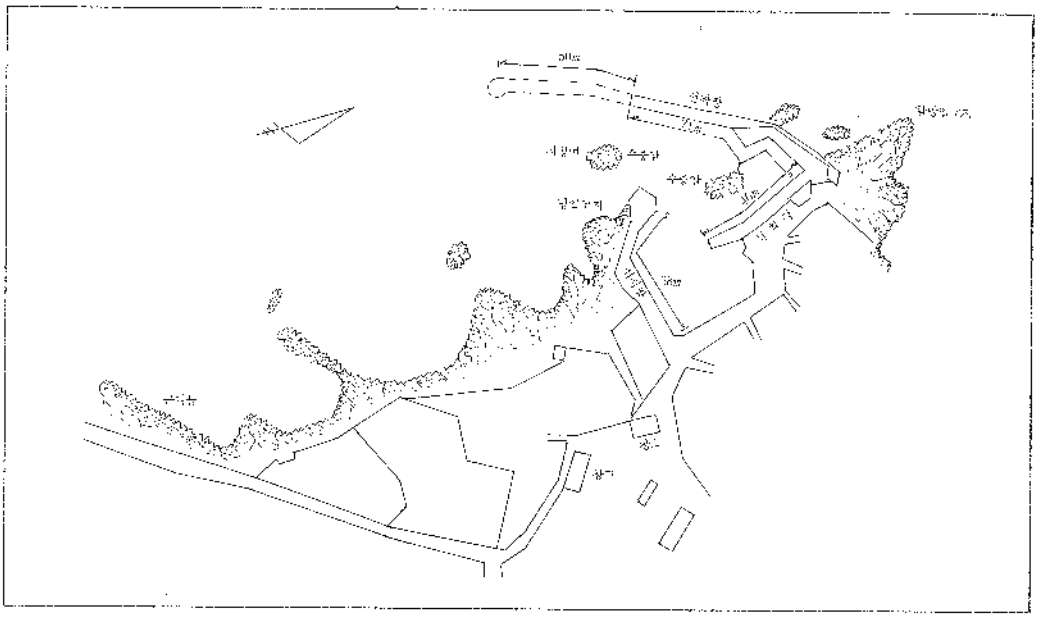
영일동 포구 전경 ▼



밖의 왕래도 지의 없다. 지금은 대우 1척만 정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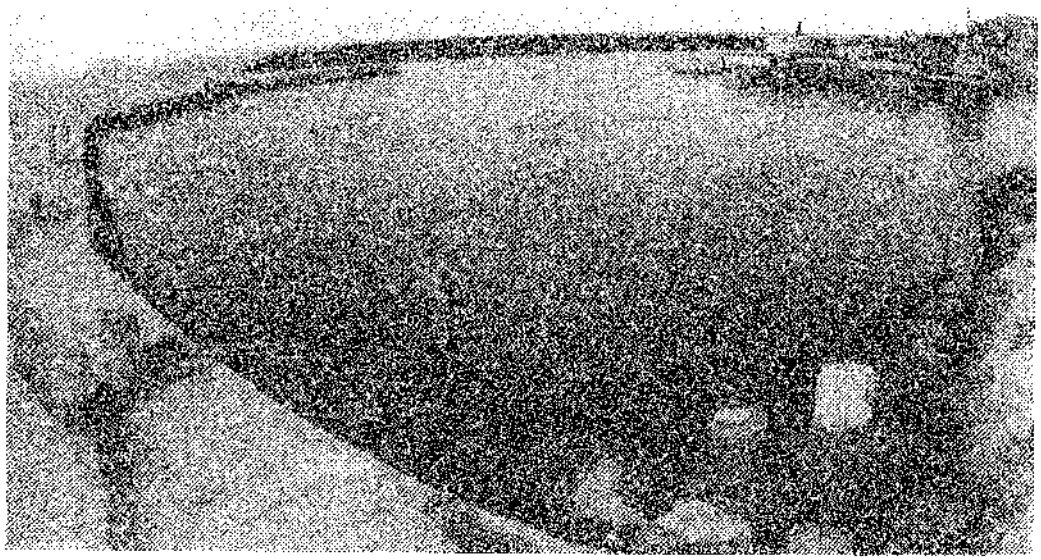
포구 안쪽의 육지에 지명상으로 '담다운디'라고 불리우는 곳에 방사탑 1기가 세워져 있는데 우도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6) 주흥동 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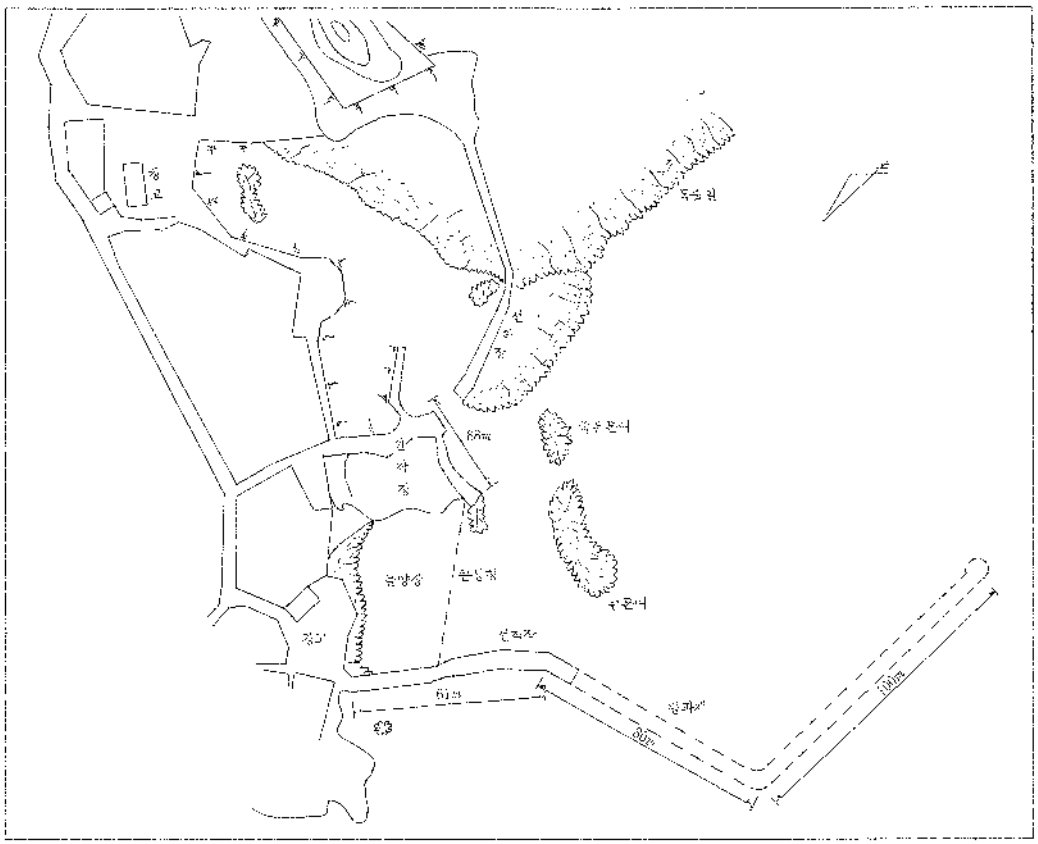
▲ 주흥동 포구 평면도

주흥동 포구 전경 ▼



주황봉 마을 서쪽 해안에 위치한 포구는 남측으로 '당알코지'라는 바다로 뻗은 암반과 북측에 '할망알코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뤄지고 있다. '할망당코지'로는 길이 약 30m의 선착장이 ㄱ자로 꺾여 있으며 북측으로는 '할망알코지'에서 ㄷ자 형식으로 선착장이 이뤄지고 있다. 포구의 입구에는 '지방여'라고 하는 200평방미터의 수중암이 있고 안쪽에도 100평방미터의 수중암이 있다. 대체적으로 선박의 왕래가 좋으며 약 4~5척은 정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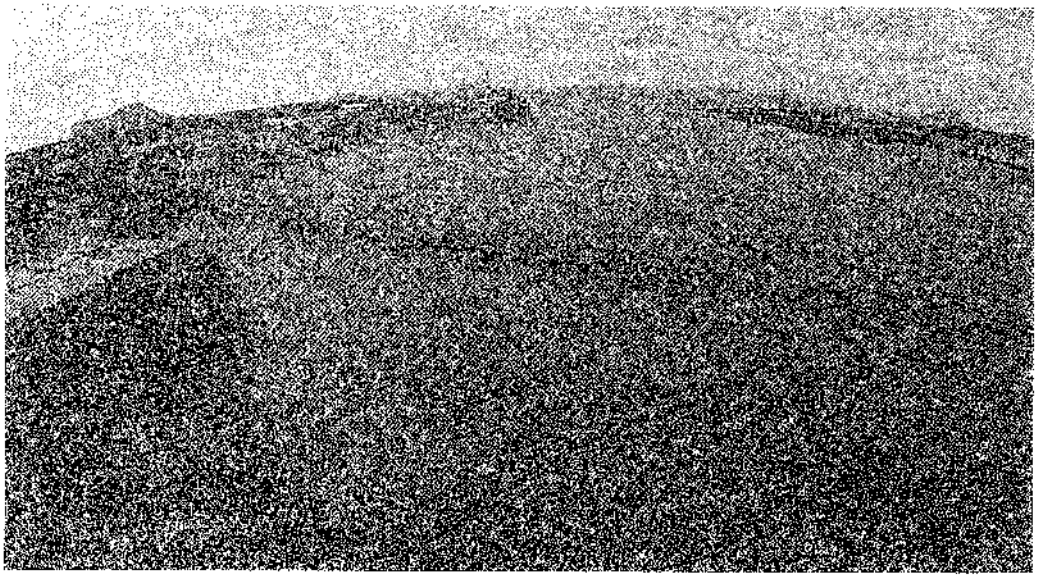
7) 전홀동 포구



전홀동 포구 평면도

전홀동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포구는 북측의 선착장이 중심이 되어 남서쪽으로 형성되고 있다. 남측으로 '폭순알'이라고 불리우는 암반이 북쪽을 향해 길게 나 있고 이 암반을 따라 90m의 선착장이 만들어졌다. 북측으로는 동쪽의 바다를

향하여 길이 61m의 선착장이 축조되었고 길이 10m의 방파제가 만들어진 상태이다. 포구 가운데 부분은 Y자형식으로 선착장이 축조된 상태인데 북측의 선착장과 북양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포구 입구에는 '족은돈여'라고 하는 100평방미터의 수중암과 '큰돈여'라고 하는 700평방미터의 수중암이 있다. 보편적으로 선박의 왕래는 순조로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략 4~5척이 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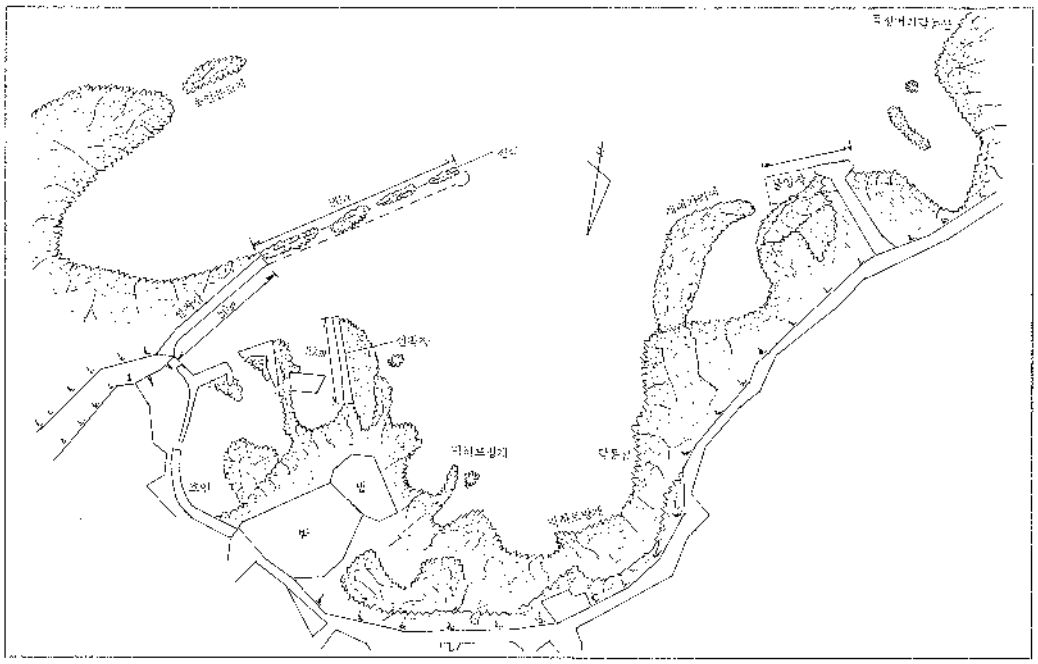
전흘동 포구 전경

8) 하고수동 포구

하고수동 남측 해안에 위치해 있는 포구는 동측으로 진여라고 불리우는 암반을 이용하여 축조된 선착장과 방파제가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편으로 호안시설과 선착장을 축조해 있다. 호안과 선착장은 암반을 이용하다 보니 여러 갈래로 되어 복잡한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둥그무단여'라고 불리우는 암반이 바다로 둥그스름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곳에 길이 32m의 호안과 너비 17m의 선착장이 있다.

중심이 되는 방파제의 동측으로 '웃앉은코지'라는 암반이 바다로 뻗어서 포구를 보호하듯 이뤄지고 있고 서측으로는 '늘렁머리당동산'이라고 하는 암반이 바다로 돌출되어 있어서 동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적절히 막고 있는 형상이다.

선박의 왕래가 순조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5~6척 정도가 정박하고 있다.



▲ 하고수동 포구 평면도

하고수동 포구 전경 ▼



4. 기 타

1) 망돌산

우도 동남쪽에는 해발 132.5m의 큰섬머리, 해발 98.5m의 작은섬머리라고 불리우는 오름이 있다. 후자를 망돌산이라도 하는데 이는 바다의 동태를 살피다가 왜적이 침입하게 되면 연기나 불꽃으로 신호하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호관계는 남쪽으로는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봉과 서쪽으로는 북제주군 종달리의 지미봉이다.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남아있는 흔적은 없었다.

2) 포젯돌산

우도 사람들이 마을제(酺祭)를 올리던 곳으로 속칭, '게우마루', '게우바루'라고 한다. 포제일은 매해 정월 초 정해일로 정하여 이뤄졌으나 1870년경에 누군가가 人葬하는 바람에 부정한 곳이 되어버려서 각 동별로 행해졌다. 지금은 남아있는 유물이나 시설을 찾아볼 수 없다.

3) 외무덤

비양동과 영일동 사이에는 나즈막한 구릉이 있다. 이곳을 일컬어 '외무덤', '이부덤', '에부덤', '의부덤' 등으로 불러우고 있다.

이 구릉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① 전설에 의하면 왜적들이 침입하여 왔다가 우도 사람들과 싸워서 죽은 사체가 묻힌 곳이다.

② 일본 상선들이 근해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고 사체가 떠 밀려오면 우도사람들이 묻은 곳이다.

③ 일본인 사체를 묻은 곳이다.

④ 비양동과 영일동 사이의 해변에 사체들이 많이 올라 왔다. 섬 사람들은 사체를 모두 묻어 놓았는데 잘 묻어지지가 않아서 쉽게 노출되었다.

⑤ 우도의 소년 장수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싸우다가 죽으니 묻은 곳이다. (일본 NHK)

아직까지 이곳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발견되어 있지 않다.

현지조사를 1992년 11월 17일~18일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앞의 내용들은 겨우 짐할만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구릉은 바다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고 해발 20m 정도이고 길이는 동서로 약 100m 정도이다.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이나 능산부분은 작고 낮은 무덤들이 많다. 이외한 것은 잔돌로 주위를 두르고 봉분을 만들고 있다. 간혹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대초기의 도자기편이 눈에 띄나 작고 소량이여서 수습할 수 없었다.

구전조사는 대부분 앞의 내용과 일치되어 수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을 바다의 경계를 조사하는 도중에서 비양동 마을 바다가 영일동 쪽으로 많이 나가 있었다. 그것은 시체가 많이 떠오르는 속칭 '너른궤' 근처의 해안 때문이다. 이곳에는 유난히 시체가 많이 떠오르는 곳이라서 비양동과 영일동에서 관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떠오르는 시체가 보기 싫으므로 주로 비양동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바다도 관리하는 마을이 비양동 것이 된 셈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와우궤 동산 북동쪽 해변에서 시체가 많이 떠오른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며, 그 시체들은 가까운 외무덤봉산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시체들이 일본인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다만 타지방에서 흘러 들어온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①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②, ③, ④는 신빙성이 있으나 모두 왜인인지는 의문이 있으며, ⑤는 전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위에서 나타나는 '외', '의', '왜', '이'는 보편적으로 '왜(倭)'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外)'와 '이(異)'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4절 結

牛島面에서 나타나는 遺跡과 遺物은 支石墓와 돌도끼, 몽돌 등으로 미뤄 볼 때 初期鐵器時代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朝鮮時代 後期인 18세기까지 어떠한 遺跡이나 遺物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18세기 동안 空白이 있다. 이

는 先史時代에는 少數의 사람들이 짧은 기간을 寄居했던 것으로 理解되며 본격적으로 住居形態를 갖추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朝鮮時代 後期인 18세기경으로 봐야 할 것이다.

防邪塔 조사에서 할망과 하르방으로 표시된 곳 男女의 일컬음이요 陰陽을 칭하는 것이기도 하여서 防邪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된다.

支石墓에 관해서는 근처에서 관련된 遺物이 없어서 불확실한 면이 있다. 이는 정확한 調査가 실시되어 밝혀져야 할 課題이다.

부편적으로 遺跡이나 遺物이 많이 나타나는 편은 아니나 종류에 있어서는 遺跡으로 望臺, 放邪塔, 浦口, 堂, 遺物散布地, 집터, 물통 등으로 多樣한 편이며 望臺와 같은 遺跡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重要하다고 判斷된다. 遺物로는 鐵器時代에 속하는 돌도끼나 몽돌이 확인됨으로써 濟州島의 先史時代의 領域이 바라도나 가파도에 이어 附屬된 섬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立證시켜 주고 있는 것이라 思料된다.

제3편 社會環境



제1장 社會構造와 姓氏構成

제1절 사회구조

1. 토착성과 전통성

우도 주민의 대부분(약 90%)은 우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본토박이들이다. 그리고 약 50%의 사람들은 고조부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이다. 본인 당대에 入島하여 사는 사람들은 10% 남짓이며 이들의 경우에도 약 60%의 사람들은 10년 전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다.

출생지가 우도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우도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출생하여 그 부모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과 본인 당대에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그 출생지를 보면, 제주 본섬의 농촌지역(군부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약 50%), 육지부인 경우 호남지역이 약 20%로 가장 많고, 서울·경기·충청·영남지역이 각각 5%정도로 비슷하며 외국 출생인 경우도 있으나 강원과 이북 출신은 드물다.

통혼권에 있어서 보면, 같은 마을 내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반수의 사람들이 같은 마을 내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우도 내의 다른 마을 간에 통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약 30%가 된다. 말하자면 우도 주민의 80% 이상이 우도 내에서 결혼하였고 이는 우도라는 지역 범위가 우도민의 유력한 통혼 지역 범위가 되어 왔다는 것이 된다. 우도 내 거주자 중 우도가 아닌 지역에 거주할 당시 결혼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제주도 본 섬의 경우 같은 마을 내의 결혼사례는 30% 정도이고 제주도의 다른 마을과의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진 사례는 60% 정도가 된다. 육지 지방의 경우, 마을 내 결혼이 약 14%에 불과하고 같은 도내의 다른 마을 사이의 결혼은 약 30%, 다른 도와 통혼한 경우는 40%를 초과하고 있다. 우도 주민 중 5%의 사람들은 육지 지방과 통혼하였다.

우도 주민들이 우도 내에서 통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현재 처가(혹은 친정)가 같은 마을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 우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약 20%, 그리하여 70%를 초과하는 우도민들은 우도 내에 처가(혹은 친정)를 두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도 주민들의 대부분은 우도 내에 외가, 처가, 친정, 친가를 두고 있어서 이는 우도 내의 "경·조사 때는 주민 80%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연유가 되는 것이고 "결혼 잔치가 5일 정도 계속되며 돼지도 열 마리나 잡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인용 부분은 현지의 어떤 지역 인사의 말)

우도 주민의 약 25%를 넘는 사람들이 전통적 무속 신앙으로서 무당 굿을 하거나 무속적인 제를 지내고 있으며 당에서 비념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데 그들 중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 소재의 당을 이용하고 있다. 포제 등 전통적 마을 행사에 참여하는 율은 약 15% 정도로 그리 높지 못하며 동족 모임 참여율은 60%를 넘고 있다.

자주 만나는 친구는 대부분 같은 마을(약 70%)을 포함 우도 내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는 상대는 대체로 가족·친척 등 혈연이다. 그리고 주민 중 우도에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80%를 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그 이유로 드는 것을 보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기 때문'이라거나 '나와 내 가족이 살아온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혈연적 의미가 현재의 이곳에 계속 살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도민은 보착적이며 전통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우도민의 특징적인 면모는 도서적, 봉쇄적인 한 변모이기도 하다.

2. 생활 공간의 범위(공동생활권)

마을 단위 공간을 벗어나 생활하는 공간 범위를 살펴보면 과반수의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도 내의 다른 마을들을 왕래하였다. 그 왕래 횟수에서 보면 매일 왕래하는 사람들이 10% 정도이고 대부분(약 70%)의 사람들은 월 1회에서 9회정도 왕래하고 있다. 우도를 벗어나지 않고 우도라는 지역 범위를 생활 범위로 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17%에 이르고 있고 그 중 노인층의 경우 극히 적은 수이기는 하나 마을 밖 출입을 안 했던 즉 마을지역 범위가 그 생활 범위인 사람들도 있다.

우도를 벗어나 다른 읍·면지역에 왕래한 사람들은 31%이고 이들 중 10%를 상회하는 사람들만이 '하루 건너 한번' 이상 왕래하였고, 대개는 그 왕래 횟수가 '월 9회' 이내에 머무르고 있다. 서귀포시에 왕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6% 정도) 그 왕래 횟수도 월 1~3회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에 왕래한 사람들은 우도 밖의 어느 지역에 왕래한 경우보다 많아서 그 비중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약 60%)은 그 왕래 횟수가 월 1~3회 정도이다. 제주도 밖 육지 지방으로 왕래한 사람들은 약 14%, 이들 중 거의가 그 왕래 횟수 월 1회 미만이나 월 10~19회 정도 육지 지방을 출입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자신의 마을을 벗어나 다른 마을 혹은 다른 지방에 출입하는가?

우도 내의 다른 마을에는 생활필수품 및 생활비품의 구입이나 행정 및 금융기관 이용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제주시와 우도 외의 다른 읍·면 지역에는 병·약방 이용, 가족 및 친지 방문의 경우가 많은데, 제주시에는 특히 가족 및 친지 방문 등 신변 사항 때문에 왕래하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시와 육지 지방에의 왕래는 거의가 가족·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마을 밖 왕래 목적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

○ 생활필수품이나 생활비품 구입을 위해서는 대체로 우도내의 다른 마을을 왕래하고 있으나 때로는 제주시 혹은 우도 외의 다른 읍·면을 왕래하고 있다.

○ 책·잡지·학용품의 구입을 위해서는 우도 내의 다른 마을이나 우도 밖의 다른 읍·면지역을 비슷한 비중으로 이용하고 있다.

○ 영농·축·어로용품의 구입 및 그 생산물의 판매를 위해서는 대체로 우도 내의 다른 마을을 왕래하고 있으나 우도 외의 다른 읍·면 때로는 제주시를 내왕하고 있고 극히 적은 경우이긴 하나 도 외의 육지 지방에 왕래할 때도 있다.

○ 병원이나 의약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개 제주시를 왕래하고 있으나 우도 내의 다른 마을을 이용할 때도 적지않다. 간혹 도 외의 육지지방에 왕래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귀포시를 왕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개 우도 내 다른 마을을 왕래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제주시를 왕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극히 드물기는 하나 우도의 다른 읍·면을 왕래하기도 한다.

○ 가족 혹은 친지 방문 및 개인적 신변 정리를 위해서 출입이 가장 잦은 지역은 제주시인 것으로 보이며, 우도의 다른 마을을 왕래하는 경우도 많으며 우도 외 읍·면이나 도외 육지지방을 왕래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서귀포시 왕래는 적다.

○ 한편 여가 활동은 대개 우도내 특히 자신의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도외의 다른 지역을 꼽는다면 제주시 정도가 될 것 같다. 그 외의 다른 지역은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여가 활동을 위해 찾아 다니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우도민에게 있어서 생활상에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지역은 물론 우도이지만 우도를 벗어나서 보면 제주시가 가장 그러한 지역인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 우도 외의 다른 읍·면 지역이며 서귀포시는 비교적 중요치 않은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보다는 오히려 육지 지방이 더 의미가 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도민에게 있어서 우도는 시장권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역 단위로서 대부분(약 80%)의 사람들은 우도 내에서 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으며 우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는 제주시가 그런 지역이 되고 있다. 성산포 등 다른 읍·면 소재지도 우도민에게 시장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5일 시장의 역할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도민의 약 30% 정도의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우도 외의 읍면 소재지에 개설되는 5일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권에 관련해서 보면 우도는 하나의 단일 교육권이 되고 있다. 우도 아동들은 모두 우도 서광리 중앙동 소재의 같은 초등학교(연평초등학교), 같은 중학교(연평중학교)를 다니고 있다. 고등학교는 우도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도 밖으로 그 권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과반수(약 55%)가 제주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30% 정도가 다른 읍·면 소재지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대학 진학에 관련하여서 보게 되면 제주도외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보다 4 : 3의 비율로 더 많다.

종교권의 경우를 보면 우도민은 대체로(약 70%) 우도내의 종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우도는 우도민의 하나의 종교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약 30%의 사람들이 우도 밖의 다른 지역 소재의 종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약 80%는 성산포 등 다른 읍·면 소재의 종교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약 20%의 사람들은 제주시 소재의 종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3. 사회조직

1) 우도내의 조직

우도 내에는 35개의 소집단 조직(자발적 결사체)이 있다고 하는데 우도 총 인구 3007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1202명이 이들 조직에 가입되어 있다. 이제 그 조직의 성격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친목조직 : 친목조직은 다른 어떤 성격의 조직보다도 그 명칭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으며 수도 많고 그 구성원 수도 가장 많다. 구체적인 고유 명칭이 붙은 친목계만을 나열하여 보면 우정친목회, 88친목회, 병술친목회, 10형제회, 7형제회, 을미회, 상록친목회, 성지친목회, 신우회, 돈우회, 일심친목회, 경인회 등이 그것이다. 대체로 나이를 공통점으로 하는 갑장회, 친구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려는 친우회, 형제회, 출신지를 공통점으로 하는 친목회, 부녀들 사이의 친목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도면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된 친목조직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명 칭	소 재 지	설립년도	회 원 수
마 음 친 목 회	오 봉 리	1980	17
성 지 친 목 회	〃	1978	15
신 우 회	〃	1983	12
상 록 회	〃	1986	20
8 8 친 목 회	〃	1988	22
청 솔 회	우 도 면	1987	11
백 송 회	〃	1989	8
우 도 동 우 회	〃	1986	22

○ 영농·경제 관련 조직 : 어촌계, 잠수회, 영농후계자모임, 어민후계자모임, 작목반, 상인 조직 등이 있다. 어촌계는 그 공식 명칭이 '우도법인어촌계'(정관 1조)로서 1978년 설립(설립위원장 : 김석범)되었으며 도내 유일의 법인 어촌계이다. 목적은 '계원의 생산력 증진,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 수행,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정관 2조)이고 지역 범위는 '우도면 일원'이며 사무소 소재지는 서광리이다. 리별 조합원 현황을 보면 천진리 92명, 서광리 79명, 오봉리 180명, 조일리 126명 계 477명이며, 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촌계장 1, 이사 5, 감사 2명이다.

'잠수회'는 우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바다에 면해 있지 않은 서광리 중앙동을 제외하고 모든 자연부락 단위 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 잠수회의 현황과 영농후계자모임 및 어민후계자모임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우도면사무소 제공).

명 칭	소 재 지	설립년도	회 원 수
동 천 진 동 잠 수 회	천 진 리	1973	40
서 천 진 동 잠 수 회	천 진 리	1974	50
상 우 목 동 잠 수 회	서 광 리	1973	29
하 우 목 동 잠 수 회	서 광 리	1974	50
주 흥 동 잠 수 회	오 봉 리	1974	38

명 칭	소 재 지	설립년도	회 원 수
전흘동잠수회	오 봉 리	1974	40
삼양동잠수회	오 봉 리	1974	40
상고수동잠수회	오 봉 리	1975	50
하고수동잠수회	오 봉 리	1975	60
비양동잠수회	조 일 리	1972	80
영일동잠수회	조 일 리	1973	56
농민후계자협의회	서 광 리	1986	12
어민후계자협의회	오 봉 리	1987	12

○ 건강·취미 관련 조직 : 산호조기회(1987년 설립 회원수 23명), 우도낚시회가 있다.

○ 마을 운영 관련 조직 : 개발위원회가 있다.

○ 기타 특정 부문 조직 : 연령별 성별 특수부문 관련 조직으로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원로회, 우도위생협회 등이 있는데 우도 내의 특정부문 조직들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자료 : 우도면사무소 제공).

명 칭	소 재 지	설립년도	회 원 수
우도위생협의회	서 광 리	1987	10

- 청년회 -

천진리청년회	천 진 리	1973	35
서광리청년회	서 광 리	1986	14
오봉리청년회	오 봉 리	1986	16
조일리청년회	조 일 리	1986	15
우도청년연합회			

- 부녀회 -

천진리부녀회	천 진 리	1986	25
서광리부녀회	서 광 리	1974	25
오봉리부녀회	오 봉 리	1986	28
조일리부녀회	조 일 리	1974	50

명 칭	소 재 지	설 립 년 도	회 원 수
대 한 우 도 노 인 회	서 광 리	1988	35
연 평 국 교 어 머 니 회	서 광 리	1984	80
연 평 중 교 어 머 니 회	서 광 리	1988	70

위의 표에서 청년회와 부녀회는 마을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우도내 조직에의 가입 상황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60% 정도의 사람들이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2개 이하의 조직에 가입하고 있으나 3개 이상의 조직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앞에 분류한 조직의 성격별로 보면 친목 조직에는 약 50%, 영농·경제 관계 조직에는 6~7%의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나, 건강·취미 조직이나 마을유영에 관련한 조직에는 그 참가율이 극히 저조하다. 따라서 우도 내의 조직활동을 하는 경우 우도민의 관심은 대체로 친목조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우도 밖의 조직(활동)

우도민이 우도 밖에서 관여하는 조직(활동)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군 홍보위원회, 갱생보호협회, 군의회, 지체장애자 복지회, 동창회, 신한국당 등 정당, 교회 관련 단체, 새마을협의회, 승공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연합청년회, 치과위생사모임 등 15, 6개종의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10% 이내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조직 중 성격상 행정 조직 혹은 정부 시책과 관련된 조직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전문직업 관련 조직이며 친교집단, 봉사단체 등도 있다. 그 조직(활동)의 지역적 범위를 보면 서귀 구좌친목회, 연합청년회 등이 있고, 군 단위 조직으로는 군 의회, 지체장애자복지회, 군 홍보위원회, 동창회 등이, 도 단위 조직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하이진(치과위생사모임), 새마을협의회, 갱생보호협회, 승공연합회, 교회 단체 등이 있으며, 어민후계자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신한국당 등 전국 단위 조직도 있다.

4. 직업구조와 계층구조

1) 직업구조

우도의 직업구조를 보면 농·어업이 대부분(약 75%)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의 직업으로는 상업, 공무원, 회사원, 종교인, 목수, 해녀(여자의 경우)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는 상업이 구성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직률은 9% 정도이다.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 구조를 살펴보면 농·어업 비중이 약 78%를 초과하여 1차 산업 중심의 직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가 27%정도인데 이 경우 겸업으로는 어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 상업, 축산업, 건축업 등이 있다. 순 어업의 비중은 약 6.7%, 다음이 상업(약 5%), 사무직과 노무직이 약 4%내외이다. 사무직으로는 공무원이 제일 많고 그 이외에 목사 등 종교인, 회사원 등이 있고, 노무직으로는 우편배달원, 미화원, 목수 등이 있다.

우도의 경우 특히 여성 직업으로 해녀가 많은데 약 2/3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녀 가구이다. 해녀 소득도 해녀 가구의 1/2정도가 그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 가구 소득의 90% 이상을 해녀 소득이 차지하는 가구도 해녀 가구의 약 5%가 된다.

마을별로 직업구조를 보면 조일리가 가장 농업 우위의 직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오봉리는 덜 농업적인 대신에 어업적이면서 동시에 비농업적인 직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비농업적인 모습은 서광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마을별로 어떤 비농업적(직)업소가 있는지를 보면 잡화상은 4개리 모두에 있어서 조일리에 5, 천진리에 4, 오봉리에 7, 서광리에 6개가 있으며, 식당은 조일리에는 없고 천진리와 오봉리에 각 1개 씩이 있는데 대해서 서광리에는 4개가 있고, 미곡상은 오봉리에 2, 서광리에 1개, 민박 가옥은 천진리에 3개, 고물상은 서광리에 2개, 식육점은 오봉리에 1개가 있다. 기타 이발소, 빵집, 다방, 당구장, 노래방 등은 모두 서광리에 1개소 씩 있으며 미장원도 서광리에 3개가 있다. 숙박 시설로서 명신여관(고명찬)과 중앙여인숙(김광빈)이 서광리에 있고, 노선 버스 및 차량 대절

운행을 하는 우도교통(김용훈)이 또한 서광리에 소재하고 있다. 해상관광을 위해 소형 선박을 운항하기도 하는데 서광리의 덕일호, 천진리의 길조호와 대진호가 그러하다.

농업인 경우 그 농업상의 계층을 보면 자작이 65%, 자작 겸 소작이 17%, 자작 겸 지주(경작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 9%, 소작 4%이고 농업노동은 2%, 지주는 1%정도가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주적 성격의 계층은 약 10%, 소작적 성격의 계층은 23%이며 순수 자작 계층은 65%이나 자작적 성격의 계층(순수 자작층 및 자작을 겸하는 모든 계층)은 90%를 상회한다.

약 18%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업을 가지고 있어서 순수 영농층은 약 82%라고 볼 수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아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 경험 없이 농업만 지어온 사람들만의 비중은 약 68%가 된다.

부업을 포함하여 농·어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약 8% 정도 되는데 그 중 행정기관 공무원 혹은 그에 준하는 직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약 67%) 그보다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점 등 자영업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들 농·어업 이외의 직업 활동은 대체로(약 75%) 우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는 제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 같다.

이제 우도면사무소가 제공하는 우도의 자영업 현황과 직장(주요기관) 현황을 보면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자영업 현황(마을별)

* 표에서 숫자는 가구/인구임.

	상 점	식 당	고물상	당구장	숙박업	계
천 진 리	5/20	1/3				6/23
서 광 리	20/45	4/10	2/7	1/1	2/5	29/68
오 봉 리	8/15	1/3				9/18
조 일 리	5/8					5/8
계	38/88	6/16	2/7	1/1	2/5	49/117

<표 2> 주요 기관 현황

* 표에서 숫자는 인구임.

	5급이상	5급이하	계	본지 : 우도	비 고
우도면사무소	1	16	17	5	소재지 : 서광리
연평중학교	2	15	17	2	〃
연평초등학교	2	13	15	2	〃
우도지서		8	8	1	소재지 : 천진리
우도우체국		3	3	1	소재지 : 서광리
한전우도주재소		2	2	1	〃
한국통신우도분국	2	2		〃	
농협우도지소		6	6	4	〃
우도법인어촌계		9	9	9	우도내자생조직 소재지 : 서광리
우도등대	3		3		소재지 : 천진리
전경기지대			약30명		

2) 소득 및 학력 계층

연 소득 총액을 300만원 단위로 급간을 정하고 그 계층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00만원 이하 29%, 301만원~600만원 25%, 601만원~900만원 16%

901만원~1,200만원 12%, 1,201만원 이상 8%.

이 현황에서 보면 우도의 소득 계층구조는 대체로 피라밋형의 불평등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약 7%이고 소득액이 약 5,000만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소득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 가구 : 78%, 어업소득 가구 : 63%, 농·어업 외의 소득 가구 : 25%, 직업 이외의 기타 소득(외부로부터의 송금 등 잡수입) 가구 : 15%이다.

농업소득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층이 대부분(60%)이고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7% 정도이고, 어업소득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층이 대부분(64%)이나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10%를 상회하고 있다. 대체로 보아

농업 소득보다 어업 소득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업에 해녀 직업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하여 보면 해녀 소득이 우도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농·어업 이외의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가 36%로서 농·어업 소득의 경우에 비해 그 비중이 훨씬 낮은 반면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21% 정도로써 농·어업 소득의 경우에 비해 그 비중이 높다. 직업 소득 이외의 잡수입이 있는 가구는 15% 정도인데 그 액수는 90% 이상이 500만원 이하로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력상의 계층을 보면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2% 정도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무학의 각 계층들은 각각 20~25%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학력상의 불평등 현상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토지 소유 및 영농 규모의 구조

전체 토지 소유 규모는 1,000평 미만 10%, 1,000~1,900평 29%, 2,000~2,900평 23%, 3,000~3,900평 18%, 4,000평 이상 20% 정도이다. 그러니까 대부분(62%)의 가구가 3,000평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우도라는 섬의 지리, 지형적 이유이겠지만 대토지 소유자는 없다.

경작지만을 놓고 보면 1,000평 미만 11%, 1,000~1,900평 33%, 2,000~2,900평 22%, 3,000~3,900평 15%, 4,000평 이상 18%정도이다. 이와 같이 경작지 소유규모는 3,000평 미만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의 물적 기반은 섬이라는 지형 지리적 배경과 더불어 우도의 영농 성격을 제약함으로써 그 직업 구조상 어업적 성격을 띠게 하는 것이며 소농적 영농 구조를 형성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농 규모를 보면 1,000평 미만 16%, 1,000~1,900평 22%, 2,000~2,900평 28%, 3,000~3,900평 18%, 4,000평 이상 16% 등으로서 대체로 보아 2,000평대의 규모를 정점으로 하여 2,000평 미만의 적은 평수에 비중이 더 실린 정상분포곡선을 그리고 있다(그림 참조). 최대 영농 규모는 7,000평이며, 약 50%의 영농 가구는 1,000~2,900평 규모의 영농을 하고 있다.

영농 규모 현황을 자작과 소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작 영농 가구는 약 65%이고 소작 영농 가구는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소작 별 영농 규모는 다음 <표 3>과 같고 자작 최대 영농 규모 7,000평, 최소 500평이며 소작 영농 규모의 경우는 최대 3,000평, 최소 500평이다.

<표 3> 자·소작 별 영농 규모 현황

	1,000평 미만	1,000~1,900평	2,000~2,900평	3,000~3,900평	4,000평 이상
자 작	20%	31%	21%	15%	11%
소 작	28%	42%	20%	11%	

자·소작 모두 과반수가 2,000평 미만의 영농을 하고 있으며 1000~1900평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작의 영농규모는 소작 영농보다 크다. 그리고 13%의 가구는 자신의 경작지 일부 혹은 전부를 빌려주고 있어서 지주적 성격의 가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빌려준 경작지 규모는 대부분(70% 이상)이 2,000평 미만의 소규모이다. 경작지를 그냥 놀리는 경우도 약간 있다(약 6%).

4) 계층(직업) 이동

우도민의 주업을 기준으로 하여서 보면 부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59%가 그 직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어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13%, 기타 비농·어업적 직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15% 정도이다. 그러니까 부친의 직업이 농업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직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어업보다는 그 이외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부친의 직업의 어업의 경우 그 직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경우가 적어서 대부분(57%) 농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일부(약 29%)는 비농·어업적 직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부친의 직업이 농·어업 이외의 기타 직업인 경우는 농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약 62%)이고 어업으로 이동했거나 기타 직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에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친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는 다른 직업에 비하여 그 직업을 대체로 계승하였고 어업인 경우는 그 직업을 그대로 계승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농·어업 이외의 기타 직업인 경우 어업의 경우보다 더 비농·어업적인 기타 직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5. 계층 의식과 공속 감정

생활 수준을 상·중상·중하·하·극빈의 5개 층으로 나누고 제주 농촌 생활을 기준으로 하여 우도민이 생각하는 소속 계층을 보면 상층 약 1%, 중상층 약 20%, 중하층 약 27%, 하층 약 40%, 극빈 약 11%이다. 하층(소속)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하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그 다음이 중상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상층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극빈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다.

우도민의 우도 공속 감정을 보면 대부분(약 82%)의 사람들은 우도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지(약 5%)보다는 제주도내의 어떤 곳(13%)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도내 이사 희망자들의 대부분(약 65%)는 제주시를 선호하고 있어서 向都의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 육지 지방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向都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특이한 것은 영남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가 도시로, 호남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가 농촌으로 그 이사 희망 지역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를 희망하는 이유를 보면 자녀 교육이라는 이유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라거나 사회적 상승 이동의 기회 부족이라는 이유가 비교적 많으며 가족간의 합류 때문이라는 이유도 적지 않다.

마을 소속 감정은 상당히 강한 편이어서 우도민의 약 87%는 '평소 생활하면서 이 마을 주민의 한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도민이 '우리 마을'

이라는 지역 단위는 우도 전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자연부락을 '우리 마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현재의 행정리를 '우리 마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우도민의 의식 구조에서 보면 우도 전체가 하나의 '마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내부에서 결속력 있는 지역 단위는 자연부락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1. 현지 조사 자료 ① : 우도의 전체 행정 4개 리(천진, 서광, 조일, 오봉) 별로 가구 수 기준 1/4에 해당하는 가구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표집된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SPSS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하였다. 마을 별 표본 수는 천진리 35, 서광리 32, 조일리 39, 오봉리 52가구(총 표본 수 158가구)이며 면접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일주일 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학생들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2. 현지 조사자료 ② : 각 행정리의 이장과의 심층 면접을 거쳐 리별 제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3. 각종 행정 자료와 서류 : 우도면사무소로부터 제공되었다.

제 2 절 성씨 구성

1992년 2월 10일 현재 전산 출력된 주민등록표에 의거 조사한 바에 따르면 629가구 중 본관과 성씨 모두 미상인 가구가 61가구(본적이 우도인 경우 27, 우도가 아닌 경우 34)이고 성씨는 알 수 있으나 본관이 미상인 경우가 33가구로서 본관과 성씨를 확인할 수 있는 가구만은 535가구가 된다. 본관과 성씨 모두 미상인 가구는 그 남편의 성씨를 알 수 없는 여자 가구주인 경우이고 본관이 미상인 가구는 우도가 본적이 아니어서 호적부를 대조 확인하지 못한 경우이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가구는 호적부 대조에 의하여 본관과 성씨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535가구이지만, 먼저 본관을 확인키 어려운 성씨에 관하여 일별하기로 한다. 본관 확인이 안 되는 성씨의 가구는 본적이 우도가 아니고

타지인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는 남자가 가구주인 경우가 33가구이고 여자가 가구주인 경우가 34가구인데 부계 가족제도에서 성씨구성은 여자의 경우 그 남편의 성씨를 고려해야 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남자 가구주인 33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성씨(본관 물고려) 구성을 보면, 강씨 4가구(오봉리, 조일리 각 1, 서광리 2), 고씨 3가구(조일리 2, 서광리 1), 김씨 10가구(오봉리 4, 서광리 5, 천진리 1), 남씨(천진리), 박씨(천진리), 오씨(서광리), 육씨(천진리), 윤씨(서광리), 주씨(오봉리), 차씨(서광리), 채씨(천진리) 각 1가구, 이씨 3가구(조일리 1, 서광리 2), 정씨 2가구(조일리, 서광리 각 1), 홍씨 2가구(서광리)가 된다. 이들 본적이 우도가 아닌 성씨들을 리 별로 보면 서광리에 17가구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오봉리에 6가구, 조일리와 천진리에 각각 5가구 씩 살고 있다. 이들 성씨의 리 별 분포를 보면 오봉리에 3개 성씨, 조일리에 4개 성씨, 서광리에 10개 성씨, 천진리에 5개 성씨가 각각 분포되어 있다.

이제 본관 및 성씨가 확인된 가구 535가구를 대상으로 우도의 성씨 구성을 보기로 한다.

가장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씨는 113가구인 제주 고씨로서 이 성씨는 일백가구가 넘는 유일한 성씨이며 본관이 확인된 가구의 약 21%가 된다. 고씨 이외에 그 수로 보아서 많이 살고 있는 성씨들 9개 만을 나열하여 보면 김해 김씨 86가구(16%), 파평 윤씨 63가구(12%), 제주 양씨 35가구(7%), 곡산 강씨 25가구(5%), 광산 김씨 23가구(4%), 진주 강씨 19가구(3.6%), 단양 우씨 17가구(3%), 청주 한씨 15가구(2.8%), 곡부 공씨 14가구(2.6%) 순이다. 굳이 명명해 보자면 이들 성씨를 우도의 10대 성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군위 오씨, 전주 이씨, 진주 정씨 등 3개 성씨는 각 11가구로서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성씨들은 2%(10가구) 미만의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소 성씨들이다. 이들 군소 성씨들을 나열하여 보면(가나다 순), 안동 권씨 2가구, 경주 김씨 9, 남평 문씨 3, 밀양 박씨 7, 여산 송씨 2, 평산 신씨 4, 함양 여씨 7, 성주 이씨 2, 완산 이씨 2, 여천 임씨 4, 천안 전씨 8, 동래 정씨 2, 경주 정씨 3, 연안 차씨 2, 평강 채씨 5, 전주 최씨 8, 남양 홍씨 7, 창원 황씨 4가구 등이며, 단일 가구인 성씨들도 있는데 현풍 곽씨, 청주

김씨, 청풍 김씨, 장흥 마씨, 수원 백씨, 순흥 안씨, 전의 이씨, 경주 이씨, 나주 임씨, 풍천 임씨, 초계 최씨, 연주 현씨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본관과 성씨 모두 확인된 성씨 단을 가지고 보면 우도는 모두 44개의 성씨가 있으며, 본관 미상의 성씨(그 성씨가 본관 확인된 앞의 성씨들과 같은 명칭의 성씨를 제외한 성씨)를 포함하면 49개의 성씨가 있다. 44개 성씨에 추가되는 5개 성씨는 남씨, 부씨, 육씨, 조씨, 주씨이다.

성씨별로 그 성씨들이 각 리(행정리)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고씨 : 오봉리 44가구(39%), 천진리 27가구, 조일리 25가구, 서광리 17가구.

김해 김씨 : 조일리 33가구(38%), 서광리 23가구, 오봉리와 천진리 각 16가구.

파평 윤씨 : 대부분(36가구, 57%)이 오봉리에 거주하고 있고 천진리 12가구, 조일리 9가구, 서광리 6가구.

제주 양씨 : 대부분(22가구, 63%)이 오봉리에 거주하고 있고 천진리에 7가구, 서광리에 5가구, 조일리에 1가구.

곡산 강씨 : 오봉리 9가구(36%), 천진리 8가구, 조일리와 서광리 각 4가구.

광산 김씨 : 천진리와 조일리에 각 9가구(39%) 씩, 약 80%는 이 두개 리에 거주하고 있고, 오봉리에 4가구, 서광리에 1가구.

진주 강씨 : 오봉리에 대부분(14가구, 74%)이 거주하고, 천진리에 5가구, 조일리와 서광리에는 없음.

단양 우씨 : 오봉리에 대부분(12가구, 71%)이 거주하고 서광리에 3가구, 조일리와 천진리에 각 1가구.

청주 한씨 : 조일리에 8가구(53%), 오봉리 5가구, 천진리와 서광리에 각 1가구.

곡부 공씨 : 천진리의 1가구 외에는 모두(13가구, 93%)가 조일리에 거주한다.

이상의 10대 성씨외에 우도의 성씨 구성 비중에서 2% 정도(1가구)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3개 성씨(군위 오, 전주 이, 전주 정)의 리별 분포를 보면, 군위 오씨는 서광리에 대부분(8가구)이 거주하고, 조일리에 2가구, 오봉리에 1가구가 거주한다. 전주 이씨는 천진리에 5가구, 조일리에 4가구, 오봉리와 서광리에 각 1

가구씩 분포되어 있다. 전주 정씨는 11가구 모두 서광리에 거주한다.

10가구(2%) 미만의 군소 성씨들의 리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안동 권씨 2가구는 오봉리에, 경주 김씨 9가구는 오봉리에 4, 조일리와 서광리에 각 2, 천진리에 1가구, 남평 문씨는 조일리에 3가구, 밀양 박씨는 오봉, 조일, 서광 3개리에 각 2가구 씩, 천진리에 1가구, 여산 송씨 2가구는 천진리에, 평산 신씨 4가구는 천진리 3가구, 서광리 1가구, 함양 여씨 7가구는 조일리에 3, 오봉리와 천진리에 각 2가구씩, 성주 이씨 2가구는 오봉리에, 완산 이씨 2가구는 천진리에, 여천 임씨 4가구는 서광리에 3가구, 천진리에 1가구, 천안 전씨 3가구는 천진리에, 동래 정씨 2가구는 오봉리에, 경주 정씨 3가구는 조일리에, 연안 차씨 2가구는 오봉리에, 평강 채씨 5가구는 오봉리에 3가구, 천진리에 2가구, 전주 최씨 8가구는 조일리에 6가구, 서광리에 2가구, 남양 홍씨 7가구는 서광리에 5가구, 천진리에 2가구, 창원 황씨 4가구는 조일리에 각각 분포되어 있다.

한 가구 뿐인 단일 가구 성씨를 보면 현풍 곽씨는 오봉리, 청주 김씨와 청풍 김씨는 조일리, 장흥 마씨는 천진리, 수원 백씨는 조일리, 순흥 안씨는 오봉리, 전의 이씨는 오봉리, 경주 이씨는 조일리, 나주 임씨는 오봉리, 풍천 임씨는 서광리, 초계 최씨는 조일리, 여주 현씨는 서광리에 각각 분포되어 있다.

4개 행정리 별로 성씨 분포를 보면 :

오봉리 : 제주 고씨 44, 파평 윤씨 36, 제주 양씨 22, 김해 김씨 16, 진주 강씨 14 등 5대 성씨 포함 23개 성씨.

조일리 : 제주 고씨 25, 김해 김씨 33, 곡부 공씨 13 등 3대 성씨 포함 모두 23개 성씨.

서광리 : 제주 고씨 17, 김해 김씨 23, 진주 정씨 11 등 3대 성씨 포함 모두 19개 성씨.

천진리 : 제주 고씨 27, 김해 김씨 16, 파평 윤씨 12 등 3대 성씨 포함 모두 20개 성씨.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봉리와 조일리는 다른 두 개 리(천진과 서광)에 비해 비교적 성씨 구성이 다양한데, 가구 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보면 조일리의 경우가 그 성씨 구성이 가장 다양하고 오봉리의 경우가 비교적 단순한 성씨 분포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주 고씨와 김해 김씨는 4개리 모두에서 대성씨(11가구 이상)가 되고 있으며 제주 양씨는 오봉리에서, 파평 윤씨는 오봉리와 천진리에서, 곡부 공씨는 조일리에서, 진주 강씨는 오봉리에서, 진주 정씨는 서광리에서 각각 대성씨가 되고 있다. 이들 대성씨 중 영향력 있는 성씨는 조일리에서 김해 김씨와 제주 고씨, 오봉리에서 제주 고씨라고 하며(해당리의 유력 인사의 설명) 다른 두 개의 리에는 영향력 있는 성씨가 별로 없다고 한다.

이 글은 1992년 2월 10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전산출력물)에 의한 것이지만, 성씨 구성에 관련된 우도면사무소 비치 자료로는 1992년 7월 현재 [호적 색출장]과 [주민등록표 색인부]가 있다. 이들 자료에는 본관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데 본관을 고려에 넣지 않고 보았을 때 [호적 색출장]에 따르면 36개 성씨가,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따르면 39개 성씨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호적에는 있고 주민등록에 없는 성씨는 馬(4가구), 宋井과 趙(각 1가구) 등 3개 성씨이고 호적에 없고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있는 성씨는 羅, 南, 陸, 曺, 朱, 陳(각 1가구) 등 6개 성씨이다.

<표> 마을별 성씨 분포

1992. 2. 10 현재, 주민등록표(전산 출력물)에 의함.

<표>에서 숫자는 가구 수임. ( )속의 숫자는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

	본 관	오봉리	조일리	서광리	천진리	계
강(姜) :	진 주	14(6)			5(1)	19(7)
강(康) :	곡 산	9(3)	4	4(1)	8	25(4)
고(高) :	제 주	44(17)	25(11)	17(6)	27(14)	113(48)
공(孔) :	곡 부		13(5)		1	14(5)
곽(郭) :	현 풍	1				1
권(權) :	안 동	2(1)				2(1)
김(金) :	청 주		1			1
	청 풍		1			1
	김 해	15(5)	33(15)	23(6)	16(6)	86(32)
	경 주	4(3)	2	2	1	9(3)
	광 산	4(2)	9(1)	1	9(3)	23(6)

	본 관	오봉리	조원리	서광리	천진리	계
마(馬) :	장 흥				1(1)	1(1)
문(文) :	남 평		3(3)			3(3)
박(朴) :	밀 양	2(1)	2	2(1)	1(1)	7(3)
백(白) :	수 원		1			1
송(宋) :	礪山				2(1)	2(1)
신(申) :	평 산			1	3(2)	4(2)
안(安) :	순 흥	1				1
양(梁) :	제 주	22(11)	1(1)	5(3)	7(3)	35(18)
여(呂) :	함 양	2(1)	3(1)		2	7(2)
오(吳) :	군 위	1	2(1)	8(5)		11(6)
우(禹) :	단 양	12(8)	1(1)	3	1(1)	17(6)
윤(尹) :	파 평	36(10)	9(3)	6(2)	12(7)	63(22)
이(李) :	전 주	1(1)	4(1)	1	5(1)	11(3)
	전 의	1(1)				1(1)
	성 주	2				2
	경 주		1(1)			1(1)
	완 산				2(1)	2(1)
임(林) :	나 주	1				1
임( ) :	慶川			3(1)	1(1)	4(2)
임(任) :	풍 천			1(1)		1(1)
전(全) :	전 안				8(5)	8(5)
정(鄭) :	동 래	2				2
정(鄭) :	진 주			11(3)		11(3)
정(鄭) :	경 주		3(1)			3(1)
차(車) :	연 안	2(2)				2(2)
채(蔡) :	평 강	3(2)			2	5(2)
최(崔) :	草 溪		1			1
	전 주		6(3)	2		8(3)
한(韓) :	청 주	5(1)	8	1	1	15(1)
현(玄) :	연 주			1		1
홍(洪) :	남 양			5(2)	2(1)	7(3)
황(黃) :	창 원		4(1)			4(1)
(미상)*		8(8)	9(9)	3(3)	7(7)	27(27)
종 합	44개 성씨				562가구	

* '미상'은 여가구주의 경우로서 그 남편의 본관과 성씨가 모두 미상임.
<표>에서 562 가구 중 남편 성씨 미상의 여가구주인 사례 27 가구를 빼면 본관과 성씨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가구는 535 가구임.

<표> 본관 미상의 성씨 현황

본적이 우도가 아니어서 그 본관을 확인하지 못한 성씨.

<표>에서 '남' '여'는 가구주의 성별이며, 숫자는 가구수임.

	오봉리		조일리		서광리		천진리		계		계
성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강	1	4	1	1	2	1		1	4	7	11
고			2	1	1			2	3	3	6
공		1		1						2	2
김	4	2		1	5	3	1	4	10	10	20
남							1		1		1
박							1		1		1
부		1								1	1
안						1				1	1
양		1		1		1				3	3
오					1				1		1
육							1		1		1
윤		1			1	1			1	2	3
이			1		2				3		3
정			1		1	1			2	1	3
조								1		1	1
주	1								1		1
차					1				1		1
채							1		1		1
최						2				2	2
한					1				1		1
황					2				2		2
계					남 33가구		여 33가구,		총 66가구		

제2장 家 族

제1절 家族과 家口

家族은 우리에게 매우 '친밀한' 환경이며 또한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므로, 가족이란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당연하여 대답하기가 어색하거나 까다롭다. 더군다나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崔在錫(1968 : 19)은 가족을 "家計를 공동으로 하는 親族집단"으로 규정하였으며, 李光奎(1975 : 27)는 "결혼과 血緣이란 관계로 결부된 사람들이 이룩한 사회집단이며 同居同財의 공동체이고 生殖과 양육의 기능을 가진 생활공동체"로 가족을 보았다. 이에 비해 인구조사를 비롯한 사회조사의 단위나 마을행정의 단위로 사용되는 家口는 구성원의 성격(친족집단)이나 관계(결혼과 혈연)를 고려하지 않고, 거주하는 공간과 가계라는 경제적 협력만을 기준으로 한 집단을 말한다(李光奎 1975 : 33~34).

가족 구성원의 관계는 부부라는 혼인관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인 것은 분명하나, 가족이라는 단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다양한 가족생활의 현실을 볼 때 정하기가 쉽지 않다. 濟州島 가족의 경우, 부모와 자식부부가 한 울타리 내 안거리와 밖거리의 다른 채에 거주하면서 취사를 달리하는 등 부모와 자식부부가 각각의 독립된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한 울타리 내의 집단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아야 하느냐 두 개의 별개 가족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崔在錫(1979 : 21)은 "제주도의 가족에

있어서는 〈家計의 共同〉, 즉 경제생활의 공동 가운데 취사의 공동이 단위로서의 가족생활 확인의 가장 유효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여 두 개의 별개 가족(부모 가족과 분가한 자식 가족)으로 보았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제주도에서 살림을 따로 낼 때, 즉 분가하는 것을 '솥가른다'고 말하는 것을 들고 있다(崔在錫 1979 : 30. 金惠淑 1984 : 129).

그러나 李光奎(1975 : 32)는 안거리와 밖거리에서 따로 살고 있는 제주도의 가족을 결혼과 혈연으로 결합된 구성원이 동거집단을 이룬다는 점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취급하면서, 공동취사집단을 世帶라고 부르고 있다. 즉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에서는 가족과 세대가 일치하지만, 제주도에서는 1가족 2세대 형태의 가족생활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취사단위를 세대라고 부르는 것은 가구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세대(특히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는 다르다고 부언하고 있다(李光奎 1975 : 34).

그렇지만 李光奎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탐라문화학술회의에서는 崔在錫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공동의 거주와 공동의 경제라는 가족의 요건 중 경제생활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안거리와 밖거리에서 따로 살고 있는 제주도의 가족은 경제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실제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가족이라는 것이다(李光奎 1984 : 62~63).

공동의 거주와 공동의 경제생활이라는 관점 이외에 玄容駿(1973 : 72)은 이러한 제주도의 가족이 대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회생활과 家族意識의 측면을 언급하였다. 즉 두 집단(부모 世代와 자식 부부 世代)이 "사실상" 두 개의 가족이면서 마을행정의 단위로는 하나의 가족으로 취급되며(사회적 혹은 행정적 公認의 측면), 대외적으로 하나의 가족임을 나타내고(가족이라는 단위의 범주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기능하는 측면), 또 두 집단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가족구성원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을 지적하였다.

세 학자들의 제주도 가족에 대한 논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현실의 가족생활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확인"(최재석), "실제가족"(이광규), "사실상"(현용준) 등의 표현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족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이광규는 처음에는 동거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다가

후에는 경제생활의 단위라는 기준으로 가족을 규정하여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재석과 이광규의 논의는 외부자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가족제도의 특징을 파악하여, 내부자인 구성원의 관점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용준은 "사실상"의 표현을 쓸 때는 관찰자의 입장 혹은 개념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주도의 가족을 설명하고, 덧붙여서 가족의식이라는 구성원의 관점을 고려하여 한 울타리 안에서 부엌을 따로 쓰는 가족과 부엌을 같이 쓰는 가족을 구별하였다.

제 2 절 자료의 성격

국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가족을 분석한 崔在錫(1966 : 19)은 가족을 "家計를 공동으로 하는 親族집단"으로 규정하면서, 국세조사가 가구 단위로 조사되었다는 자료의 성격상 분석할 때는 "家口에서 非家族員을 제외한 잔여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우도의 가족을 기술하는 이 글에서도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가족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주된 자료로 사용한 것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이 1991년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도의 총 666가구(북제주군 1990년 통계연보) 가운데 유작위로 추출된 148가구에 대해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부인과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개별방문 면접으로 수집한 자료이다(정대연 외 1991). 그러나 2가구는 가구주와 가구주의 부인 둘 다를 면접한 결과로 나타나 실제 가족구조를 조사한 가구는 146가구이다.

이 조사로 파악된 가족은 응답자가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동거여부만을 물은 결과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족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우도 주민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동거여부에 대해서도 한 울타리 안의 안거리와 밖거리에 두 世代가 사는 경우 응답자가 이런 현실을 동거로 했는지 비동거로 했는지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의 판단에 의존한 자료라 하겠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네 명에 국한해서 혼인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비동거 가족원 중 혼인에 의한 비동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도의 가족을 "우도 주민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족구성원

중 학업이나 군복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동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학업이나 군복무로 우도에서 살지 않은 가족구성원을 포함시킨 것은 우도에는 중학교까지만 있어 고등학교부터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경우 부양의 책임이 전적으로 우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있기 때문이며, 군복무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출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도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족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동거가족원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주민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족과 주민등록부상의 世帶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2년 2월 10일 현재의 주민등록부를 대조하였는데, 1991년도에 개별 방문면접 조사에서 파악한 146가구 가운데 125가구만을 주민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도 가족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1973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90)가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때는 당시 11개 자연부락 중 上牛目洞과 下牛目洞 두 개의 자연부락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다. "먼저 里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표를 옮겨적어 公簿상의 가구원을 확인하고, 다음 각 家戶마다 돌아다니며 퇴거 출타 여부, 주거 및 생산 소비생활의 공동여부 등 실제의 가족을 확인"(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58)하여 주민등록상의 108세대 중 89세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991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도거주의 가구를 조사한 것인데, 1991년도 조사와 차이가 나는 것은 1973년도의 조사는 먼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확인한 후 생산 소비생활의 공동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의 단위와 관찰자의 관점에서 가족을 조사한 것과 가족의 크기나 가족의 유형을 분석할 때 학업과 군복무 등 잠정적인 별거 상태의 가족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제 3 절 家族의 크기

우도 가족의 크기를 평균 가족원의 수로 살펴보면, 1973년도 조사에서는 세대당 6人으로 나타난다. 1972년도 濟州道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4.63人이고

「1972년도 제주도통계연보」를 보면, 우도는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한 가구의 크기가 매우 큰 편이다. 1989년 상주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제주도 전체의 가구당 가구원수(3.96人)보다 우도 전체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4.84人)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1년도 조사의 자료를 보면, 비동거자 중 학생과 군인을 포함한 가족의 크기는 가족당 3.64人이며, 동거가족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크기는 가구당 3.12人이다. 주민등록상 세대의 크기가 세대당 평균 4.24人(1992년 2월 현재)이고 보면, 1991년도 조사의 결과가 가족당(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작은 이유는 우도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가구)의 크기를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원을 바탕으로 조사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조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도 거주 가족(가구)의 크기와 제주도 전체 가구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대반 우도와 가족에서는 취업 등의 이유로 출타한 가족원이 많기 때문에 거주가족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기중에는 우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우도에 상주하고 있는 가구의 크기는 더욱 작을 수밖에 없다.

평균 가족원수보다 더욱 가족의 크기를 잘 보여주는 자료는 인원수에 따른 가족의 분포라 하겠다. 제주도 가족의 크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1人 家口의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金惠淑 1985, 李昌基 1987 : 190), 우도 가족의 경우에도 제주도 전체 가족의 양상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표 1〉에서 보듯이 1991년도 조사에서는 1人 家族이 13가족으로 조사 대상 가족 146가족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우도에 상주하는 인원으로만 살펴 본 1人 家口는 16가구로 전체의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1人 世帶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 13.6%(17세대)나 된다.

〈표 1〉 인원수별 가족/가구/세대 분포

구 분	거주가족 (1973년)	가 족 (1991년)	가 구 (1991년)	세 대 (1992년)
1인	1(1.1%)	13(8.9%)	16(11.0%)	17(13.6%)
2인	6(6.7%)	24(16.4%)	42(28.8%)	14(11.2%)
3인	6(6.7%)	38(26.0%)	37(25.3%)	19(15.2%)

구 분	거주가족 (1973년)	가 족 (1991년)	가 구 (1991년)	세 대 (1992년)
4인	12(13.5%)	30(20.5%)	22(15.1%)	16(12.8%)
5인	11(12.4%)	19(13.0%)	20(13.7%)	20(16.0%)
6인	16(18.0%)	15(10.3%)	6(4.1%)	22(17.6%)
7인	14(15.7%)	5(3.4%)	3(2.1%)	8(6.4%)	
8인	9(10.2%)	2(1.4%)	-	7(5.6%)
9인	8(9.0%)	-	-	-
10인	5(5.6%)	-	-	2(1.6%)
11인	-	-	-	-
12인	1(1.1%)	-	-	-
계	89(100.0%)	146(100.0%)	143(100.0%)	125(100.0%)
평균가구원수	6.00	3.64	3.12	4.24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를 보면, 1人 가족(가구)의 비율이 9.5%(崔在錫 1979 : 51), 34.1%(金惠淑 1985 : 332) 등으로 조사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1973년도의 우도 조사에서는 1人 家族의 비율(1.1%)이 매우 낮은 이유가 두 개의 자연부락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우도 전체를 조사한 1991년도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1991년도 조사에서도 1973년에 조사한 上牛目洞과 下牛目洞에서는 1인 가족이 발견되지 않고,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1인 가족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1인 가족의 비율은 지역의 생계양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여진다.

특히 우도는 자연부락별로 생계양식에 차이가 나며 자연부락(동)별로 향약과 시행규정을 따로 갖고 있어 자연부락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정대연 외 1991 : 352-353)는 점에서 1인 가족이나 1인 가구의 생활방식이 자연부락별로 달리 나타나 1인 가족(가구)의 비율도 자연부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한 표본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1991년도 조사가 얼마나 우도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1인 가족의 분포를 보면, 조일리 8가족(조사대상 47가족 중 12.8%), 오봉리 4가족(조사 대상 38가족 중 10.5%), 천진리 3가족(조사 대상 38가족 중 7.9%)으로 1973년

조사지역이었던 서광리는 조사대상 23가족 중 1인 가족이 한 가족도 없었다. 현재의 서광리는 上牛目洞, 下牛目洞, 中央洞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73년 당시의 조사지역은 上牛目洞과 下牛目洞이었다. 1인 가구를 보더라도 조일리 7가구, 오봉리 6가구, 천진리 3가구로 분포되어 있었다.

1973년도 우도 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1991년도 조사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 이유를 시간적인 차이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1960년 9.0%, 1966년 9.6%, 1975년 12.2%, 1980년 11.2%, 1985년 12.7%로 1975년 이후 커다란 변화없이 12% 전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李昌基 1992a : 174-176)에 비추어, 두 조사에서의 1인 가족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아니고, 앞서 이야기한 조사 마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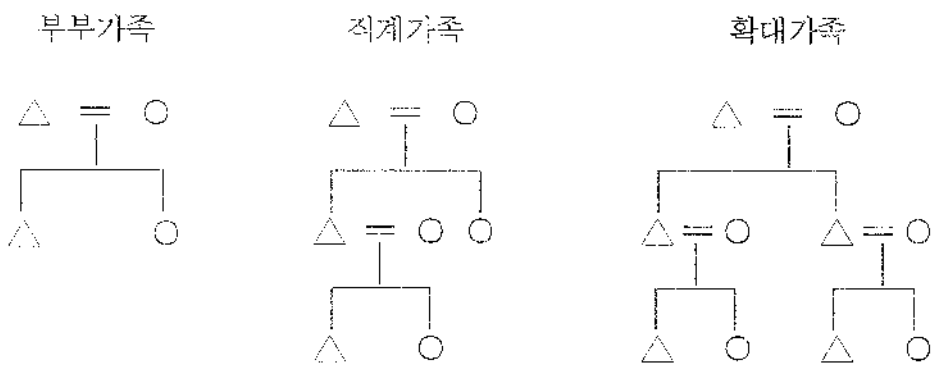
1인 가족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가구수의 2.3%(1960년)~6.9%(1985년) 정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9.0%(1960년)~12.7%(1985년)의 분포를 보이면서 1975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전국적으로 가구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산업화나 도시화와 같은 변화로 설명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장남까지도 결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분가하고 자녀를 모두 분가시킨 부모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한다는 가족제도 때문에 전국에 비해 1인 가구가 많고 가구의 규모도 작지만, 시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인구학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李昌基 1992a). 다시 말해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뿐만 아니라 우도의 여건이 취업으로 인한 移出者와 학업으로 인한 비동거자의 수가 많다는 것(〈표 1〉에서 가족과 가구의 크기 차이)도 우도 가족의 크기를 이해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

제4절 家族構造

가족구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의 類型이다. 가족의 유형으로는 夫婦家族, 直系家族, 擴大家族 등이 있다(〈그림 1〉 참조). 부부가족은 부부

와 그들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이며, 결혼한 자식 1인이 동거하는 가족을 직계가족, 결혼한 자식 둘 이상이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을 확대가족이라 한다.

〈그림 1〉 가 족 유 형



보기 : △ 남자
○ 여자
= 결혼관계
| 出系관계(부모-자식 관계)

한국가족의 이상적인 가족유형은 직계가족이다(崔在錫 1966 : 91, 李光奎 1975 : 59).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계가족보다는 부부가족이 더 많은데, 이는 직계가족의 원리상 차남 이하의 아들들은 결혼 후 분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가족은 직계가족을 이루기 前 단계의 부부가족이기 때문에 서구의 核家族과는 다르다. 따라서 가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家族周期의 순환에 따라 가족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결혼을 하여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世代 부부가족으로 시작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부부와 未婚子女로 이루어진 2世代 부부가족이 된다. 그후 長男이 결혼을 하여 같이 살게 되면 부모와 장남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世代 직계가족이 되고, 장남 부부가 자녀를 낳게 되면 3世代 직계가족이 된다. 3世代 직계가족에서 最上世代인 부모가 모두 죽으면 다시 2世代 부부가족이 된다. 그러

나 최상세대가 모두 죽기 전에 長孫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4世代 직계가족이 되기도 한다. 또한 차남 이하의 아들의 경우,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하여 처음 단계인 1世代 부부가족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직계가족으로 변화를 한다.

우도가족의 구조를 가족유형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1973년도 조사에서는 부부가족이 조사가구의 57.3%이였으나, 1991년도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가구의 80.8%로 부부가족의 비중이 커졌다. 따라서 직계가족의 비중은 39.3%(1973년)에서 17.8%(1991년)로 낮아졌다.

〈표 2〉 가족유형별 가족/세대 분포

구 분	거주가족 (1973년)	가 족 (1991년)	세 대 (1992년)
부부가족	51(57.3%)	118(80.8%)	103(82.4%)
직계가족	35(39.3%)	26(17.8%)	21(16.8%)
기 타	3(3.4%)	2(1.4%)*	1(0.8%)**
계	89(100.0%)	146(100.0%)	125(100.0%)

* 숙모+조카부부+조카자녀
친정어머니+편모+자녀

** 시숙+편모+자녀

1991년도 가족구조 조사에서 부부가족의 비중이 1973년도에 비해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世代別 가족의 분포와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부부가족들이 가족주기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인데, 世代別 가족수는 〈표 3〉과 같다.

〈표 3〉 世代別 家族/世帶 분포

구 분	거주가족 (1973년)	가 족 (1991년)	世 帶 (1992년)
1 世 代	4(4.5%)	25(17.1%)	26(20.8%)
2 世 代	53(59.5%)	99(67.8%)	77(61.6%)
3 世代 이상	32(36.0%)	22(15.1%)	22(17.6%)
계	89(100.0%)	146(100.0%)	125(100.0%)

1代 가족은 1인 단독가구나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형제자매만으로 구성된 가족인데, 1973년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가구의 4.5%인 4가족이 1대 가족이었다. 그러나 1991년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가구의 17.1%인 25가족이 1대 가족으로 그 비중이 커졌다. 1대 가족의 경우 1인 가족이 13가족,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12가족인데 (〈표 4〉 참조), 1인 가족은 모두 여자로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1명, 60대가 4명, 70대가 6명, 80대가 2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의 배우자는 부산에서 둘째 부인과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족이 형성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과 자식이 독립해 나간 경우(결혼 혹은 취업)가 대부분이다.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2가족의 가구주의 연령은 50대가 2명, 60대가 6명, 70대가 4명으로 나타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도 가족주기의 첫단계인 결혼후 출산이 없는 부부가족이 아니라 2대 부부가족에서 미혼자녀의 출타나 결혼한 아들들이 모두 분가한 후의 부부가족이다. 따라서 1대 가족은 가족의 축소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농촌 저주가족의 가족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유철인 1981 : 114).

2대 가족은 1973년 조사에서 전체 조사가구의 59.5%인 53가족이었고, 1991년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가구의 67.8%인 99가족이었다. 3대 이상의 가족은 대부분 직계가족의 형태를 보이는데, 1973년 36.0%(4대 가족 2.3% 포함)에서 1991년 15.1%(4대 가족 없음)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교육과 취업으로 우도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가족유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991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가족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부부가족이 전체 조사대상의 48.6%인 71가족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편부모(대부분이 편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부부가족이었다(15.1%, 22가족). 직계가족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편친(전부 편모임)과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인데, 전체 146가족의 8.9%인 13가족이었다.

〈표 4〉 결합형태별 가족/세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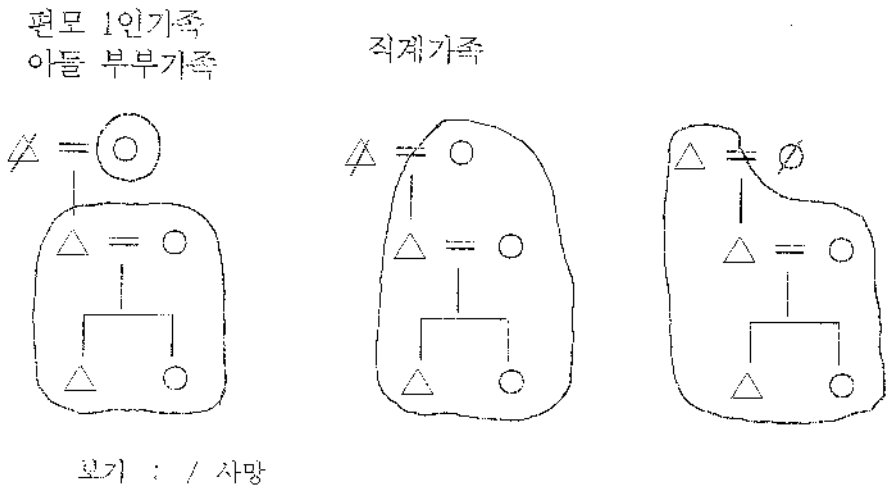
구 분		가 족 (1991년)	世 帶 (1992년)
1世代	1인 단독	13(8.9%)	17(13.6%)
	부부	12(8.2%)	8(6.4%)
	형제자매	—	1(0.8%)
2世代	부부+자녀	71(48.6%)	58(46.4%)
	부부+자녀+형제자매	—	2(1.6%)
	편부모+자녀	22(15.1%)	17(13.6%)
	양친+부부	1(0.7%)	—
	양친+부부+형제자매	1(0.7%)	—
	편친+부부+형제자매	4(2.7%)	—
3世代	양친+부부+자녀	2(1.4%)	—
	양친+부부+자녀+형제자매	—	3(2.4%)
	편친+부부+자녀	13(8.9%)	9(7.2%)
	편친+부부+자녀+형제자매	—	4(3.2%)
	양친+편부모+자녀	1(0.7%)	1(0.8%)
	양친+편부모+자녀+형제자매	—	1(0.8%)
	편친+편부모+자녀	2(1.4%)	1(0.8%)
	기타	4(2.7%)*	2(1.6%)**
4世代	조모+편친+부부+자녀+형제자매	—	1(0.8%)
계		146(100.0%)	125(100.0%)

* 조모+손자
조부모+손자
숙모+조카부부+조카자녀
친정어머니+편모+자녀

** 조부모+손자
시숙+편모+자녀

편모와 아들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그림 2〉에서 처럼 濟州本島에서는 편모가 노동력이 있는 한 독립생계를 유지하여 편모 1인 단독가구와 아들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부부가족으로 나누어지고, 노동력이 없어지면 동일가족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63). 편부의 경우에는 남자 혼자서 취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역시 아들부부와 동일가족을 이룬다.

〈그림 2〉 편부모와 아들 가족의 가족구성



보기 : / 사망

우도의 가족 중에서 편모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직계가족(13가족)의 편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60대가 2명, 70대가 7명, 80대가 4명이다. 여자 1인 가족의 여자 13명의 연령이 50대가 1명, 60대가 4명, 70대가 6명, 80대가 2명인 것과 비교하면 직계가족을 이루는 여자의 나이가 약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계가족의 경우, 60대 1명만이 불질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2명은 모두 일을 안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1인 가족의 경우, 50대 여자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0대 여자 4명 중 2명은 각각 농사를 짓거나 보살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일을 안 한다고 응답했다. 70대 여자의 경우도 6명 중 4명이 일을 한다고(불질 3, 농사 1) 응답했으며, 80대 여자 2명 모두는 일을 안 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편모가 노동력이 있는 한 독립생계를 유지하여 편모 1인 단독가구를 이룬다는 제주본토 가족에 대한 설명이 우도 지주 가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91년 조사에서 1인 가족의 경우 아들 가족이 한 울타리에 사는지, 우도에 살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조사가 되지 않았다. 편모를 모시고 있다는 가족의 경우도 母와 아들부부가 따로 살다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합쳐서 사는지, 아니면 한 울타리에서 독립된 취사 단위를 이루면서 조사자에게 하나의 가족으로 응답했는지, 또는 부모를 모두 모시고 살다가 父가 죽은 후의 가족을 나타내는지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도 가족의 경우도 母의 노동력이 과연 두 개의 가족(1인 단독가족과 부부가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개의 직계가족을 이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1973년 조사에서는 母의 노동력 때문에 오히려 牛島에서는 직계가족을 이룬다고 설명하여 母의 노동력 유무가 濟州本島와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고 가설로 제시하고 있다(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66). 牛島에서는 한 울타리에 살면서 母와 아들 가족이 따로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가 한 가족도 발견되지 않았고, 1인 가족도 단지 한 사례만이 있어, 직계가족이 제주본도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도의 생업의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 우도는 어업, 특히 해녀의 裸潛漁業이 성하여 5·60세의 老女나 14·5세의 少女까지라도 자기의 생활비는 넉넉히 벌어 들인다.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노동력이 많아 가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老母나 미혼의 누이가 아들의 가족과 같은 가족을 이루고 있어도 경제적인 갈등 같은 것이 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직계가족이 많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66).

이러한 설명 방식은 같은 조사에서 養女에 대한 설명방식과 일치한다. 우도전체에 걸쳐 1973년도 현재 양녀가 28명이었는데(당시 조사하기 전에는 양녀가 5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22명은 자녀로 입적되어 있었고, 나머지 6명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양녀들을 데리고 온 가족의 구성이 모두 아들 딸이 갖추어 있는 가족인 것을 보더라도 양녀는 노동력의 획득에 그 동기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72). 따라서 1973년도 가족 조사에서는

가족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었다(〈표 1〉 참조).

1991년 조사에서는 양녀에 대해 천진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때 당시에 사실상 나이 많으신 우도사람들이 하나의 욕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기서 해녀작업을 하다가 이제 여기 해녀작업을 안 하는 시기에는 돈벌러 육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보면 거기에는 순 남자 힘 가지고만 먹고 살아가니까 힘든 지방 아닙니까? 전라도 경상도 촌 지방은, (중략) 참 못 살 때인데, 그러니까 해녀작업이 끝나서 돌아올 때가 되면 우리 딸 데려가서 좀 키워달라고 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데려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서 데려오느냐, 여기 와서 키워서 바다 다니게 되면, 돈을 좀 모으겠다 이겁니다. 여기는 해녀가 없어서 난리일 때니까. (중략) 요즈음은 나가서 데려오는 사람이 없지.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매호당 1명 정도는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대연 외 1991 : 354).

밭농사와 물질에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혼여자 1인이 생활의 단위가 되어 (佐藤信行 1973 : 110, 李光奎 1984 : 65에서 재인용), "빈약한 자원과 매우 열악한 기후풍토 속에서 가족노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 최대한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가족구조가 단순하다는 주장(李昌基 1992b : 29)과 여자는 노동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가족의 크기가 크다는 상반된 주장(玄容駿 1973 : 79,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0 : 66)이 있다. 다시 말해 母 1인 가족과 아들 가족으로 분리되는 것이나 母와 아들 가족이 직계가족을 형성하는 것이나 모두 여자의 노동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 5 절 가족의식과 行政 世帶

제주도의 가족은 한국가족과는 달리 장남도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한다. 이 때의 분가는 앞서 설명했듯이 한 울타리 안에서 안거리와 밖거리로 생활공간을 분할하여 부모가족과 장남가족이 별개의 취사단위 즉 경제단위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를 玄容駿(1973)은 "直系家族的 意識"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직계가족적 의식은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것으로도 표현된다.

예를 들어, 천진리에 사는 한 長男은 "이런 얘기하면 우습지만 우도 실정이란 것이 못난 놈만 삽니다. 미련하고 못난 놈만 삽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장자 아닙니까? 예, 장자는 못난 놈이예요. 여자 못된 것이 큰 아들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못난 놈들만 부모 때문에 지키고 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고향 들어온 지가 10년입니다"(정대연 외 1991 : 352-353)라고 말하였다. 한 울타리 안에서 부모와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모를 장자가 모셔야 한다는 직계가족의 원리 혹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객지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우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현실적 가족 유형은 부모와 같이 사는 직계가족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관념은 직계가족의 원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 가족유형과 가족의식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1991년도 가족 조사와 1992년도 주민등록상의 세대구성을 비교해 보면, 〈표 4〉에 나타난 결합형태별로 볼 때 결합형태가 다른 가족이 39가족 22종류로 나타났다. 결합형태가 다른 가족을 가족유형에 따라 두 자료가 다른 것을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가족과 行政世帶의 가족유형

구 분		가 족 (1991년)			계
		부부가족	직계가족	기 타	
行政世帶 (1992년)	부부가족	13	11	1	25
	직계가족	9	4	—	13
	기 타	1	—	—	1
계		23	15	1	39

응답자가 가족구성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 부부가족이었는데 주민등록상의 가족구성은 직계가족인 경우가 9가족이었고, 응답자가 직계가족이라고 생각한 11가족이 주민등록상 부부가족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실제 동거하는 가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가족연구에서 보통 의미없는 자료로 취급되지만, 응답자가 말하는 가족구성과 행정상의 세대구성이 다른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안거리와 밖거리로 주거형태가 나뉘는 제주도 가족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응답자가 부부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주민등록상에는 편모가 같은 世帶를 이루는 경우(9가족)에는 안거리와 밖거리로 나뉘어 살면서 응답자가 스스로 다른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응답자는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부부가족으로만 기록되는 경우(편모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를 포함한 11가족)는 실제로 분가를 했으면서도 같은 가족임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金惠淑

1984 濟州島 家族의 姑婦關係에 대한 硏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17 : 119-144.

1985 濟州島의 一人家族 硏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20 : 329-344.

庾喆仁

1981 農村家族構造의 家族類型論的 分析. 『農村經濟』 4(2) : 103-116, 韓國農村經濟硏究院.

李光奎

1975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서울 : 一志社

1984 濟州硏究의 現況과 展望 : 社會學的 側面. 『耽羅文化』 3 : 61-7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李昌基

1987 濟州島 家口의 크기. 『耽羅文化』 6 : 179-202.

1992a 濟州島 家口構成의 變化 : 1960-85. 『人文硏究』 14(1) : 171-18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b 濟州島의 社會文化的 特性과 環境 : 挑戰 · 適應 · 超越의 메카니즘. 『濟州島硏究』 9 : 17-35, 濟州島硏究會.

鄭大然, 庾喆仁, 金永熙

1991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濟州有人島學術調査』, pp. 271-384. 제주시 : 濟州文化放送株式會社/濟州道.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北濟州郡 舊左邑 涯坪里. 『濟州島 部落誌(Ⅲ)』, pp. 15-1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崔在錫

1966 『韓國家族研究』. 서울 : 民衆書館.

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서울 : 一志社.

玄容駿

1973 家族.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査報告書』, pp. 70-80. 濟州道.

佐藤信行

1973 濟州島の家族. 『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 中根千枝편, pp. 109-146.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제 4 편 民俗과 信仰

제 1 장 歲時風俗과 民間信仰

제 1 절 섬공동체의 特徵

1. 漁村性

牛島面은 환해의 섬이며, 地勢가 '소가 누운 形局'이라 하여 '소섬'이라 한다. 牛島面은 12개의 자연 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중앙동을 제외한 11개 마을은 모두 해안에 위치한 浦口 마을이다. 때문에 우도면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도서 어촌마을로 잠수·어로 작업을 생업으로 한다. 바다로 둘러진 섬이기 때문에 특히 그 信仰이나 歲時風俗이 바다와의 관련성이 깊다. 그 하나가 防邪塔이다. 우도면의 각 마을은 바다로부터 오는 邪를 막기 위하여 세웠다든가 동네 젊은이들이 자주 뜻밖의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세웠다는데 방사탑이 없어진 것도 많지만 남아있는 것도 여러 군데 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로부터 비치는 邪를 막으려고 여러 기의 탑을 쌓아 놓은 것은 해촌 마을로서의 특이한 인상을 준다.

〈남아 있는 방사탑〉

영일동	2기
하고수동	2기
주흥동	2기
동천진동	1기

어떤 지관이 와서 이 동네를 살펴보니, 바다 쪽이 너무 허하고 동산자고 그러니 탑을 쌓아야 되겠다 해서 탑을 쌓았다. 탑 위에는 뾰족한 돌 하나 놓았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 또 영일동 산 위에 음침하게 패인 곳이 있는데,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용호자리'라 했다. 왜 '용호자리'라고 붙였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올 때, 용이 승천하면서 꼬리로 쳐서 땅이 패인 자리기 때문이다. 어느 지관이 동리 앞에 저렇게 보기 싫은 게 있으니 과부가 많이 난다 했다. 거기서 기우제를 지냈다. 우리가 17~8세 때 동네가 보기 싫게 비친다고 해서 흙을 덮어 메운 자리다. (영일동 : 김항종)

탑위에 뾰족하게 새 닮은 것을 놓지 않은 건 여자다. 옛날 동네에 사람이 많이 죽자 탑을 만들어 놓은 거다. 언제부터 생긴지는 모르지만, 내 나이 70세가 넘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꽤 오래된 것이다. 근간에 허물어졌는데, 계속 동네 사람들이 죽어가니 동네에서 의논하여 제사라도 지내고 탑을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 쌓았다. (하고수동 : 윤수남)

방사탑은 요새 말로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이란 의미다. 그걸 세워야 邪도 방지한다 해서 세웠는데, 요 근래 수축한다고 해서 내가 視을 지어주었는데 그게 20년이 지났을 거다. (상고수동 : 김윤일)

2. 潛嫂村性

또 예로부터 우도면 潛嫂가 많고 연중 무래질(물질)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며, 해초의 시세가 좋을 때는 가계 수입이 대부분이 바로 이 해전 작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겨울 추운 날에도 바람의 반대쪽 1종 공동어장에는 수십여명의 잠수들이 물질을 한다. 세찬 바람처럼 강인한 생활의 풍습이다. 이와 같이 해전경작은 우도 전 지역 1종 공동어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였으나 자연부락 단위로 어장분할이 이루어지자 '바당'의 경계 때문에 '바당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의 바다 경계를 가르는 '바당금'이 나눌 '分子'로 새겨져 있어 해녀들이 물에 들 때면 감시자가 있어 다른 마을의 잠수가 경계를 침범하여 어장을 잠식하는 것을 감시한다. (하우목동 : 정찬경)

3. 共同體性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도 사람들은 부차적으로 밭을 갈기도 하여

반농·반어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바다에서 나는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산물의 경기가 침체하고 발작물의 수입도 나빠져 이전보다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11개 마을에 관혼상제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을처럼 참여하여 부조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분들의 푸념을 들을 때는 아직도 후한 인심이 남아 있고, 섬공동체의 미풍이 여실히 남아 있는 곳이라 여겨진다. 부조하는 풍습을 보면 혼례나 상례 때, 남자는 상에 가서 봉투를 하나 놓으면 되지만 여자는 그 집안의 상주 각각에게 따로 扶助하기 때문에 상주가 열이면 열 군데 부조하는 셈이 된다. 또 우도면은 마을 안에서 혼인하는 마을內婚이나 이웃 부락과 사돈을 맺는 근처혼이 많아 결국 섬 전체가 서로 친인척 관계를 이루는 동일 통혼권에 속하며 신앙 또한 본향당을 가지 갈라다 따로 모시는 동일 신앙권이다. 때문에 마을의 관혼상제에는 부락민전체가 부조하는 혈연·지연·신앙·생산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우도는 친척끼리 부조를 하니까 남이 해주는 두 배를 하는 셈이다. 잔치도 4~5일을 하게 되어 불편한 점이 많다. 우도면이 603호가 되어 나이 많은 분을 빼고 나면 500여 호가 상·혼례에 끌려 다니는 셈이다. 잔치에 남편 가는 데 여자가 따라가게 되면 그쪽 집의 여자는 친구가 되니, 친구와 그 집안의 어머니와 시집가는 신부에게 모두 부조를 해야 한다. 또 남편은 그 집안의 남자 주인에게 부조를 한다. 상례 때도 상주가 5명이면 5명 각자에게 다 부조를 해야 하니,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 최근에 동네 어떤 분은 아들 아홉 형제 있는 소상 집에 문상을 갔는데, 아들들이 조카뻘 되기 때문에 며느리까지 해서 주근주근 2만원씩 부조하니 18만원, 상에 2만원 놓고 절하니 모두 부조로 20만원이 싹 나가더라 한다. 20만원이 들 것 같으면, 돼지 한 마리나 쌀 한가마를 하면 표적이나 날 텐데 말이다. 생각으로는 2~3만원 부조하여 상에 올리고 절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서천진동 : 김항자)

4. 女多男少

우도에는 밖에 나가 공부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눌러 앉아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고향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 점점 남자의 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한편 밖에 나가 성공한 지도급 인사들이 있어 우도면에 직·간접적으로 향토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들이 모두 밖에 나가 살아버리고 남편이 죽게 되면 할머니들만 우도에 남게 된다. 서천진동에는 15戶 가운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일곱이나 된다. 이들 다섯 난 집도 혼자, 셋난 집도 모두 할머니 혼자다. 해녀는 한 25명이 되지만, 남자 어른은 일곱 뿐이다. (서천진동 : 김항자)

마을 조사에 도움을 준 분들은 아래와 같다.

영 일 동 김항종(남, 77세)
영 일 동 여성화(남, 59세)
영 일 동 김준택(남, 59세)
동천진동 신인홍(남, 70세)
하우목동 오영돈(남, 66세)
하우목동 김천능(남, 74세)
상고수동 김윤일(남, 79세)
하고수동 윤수남(남, 69세)
비 양 동 강기현(남, 65세)
서천진동 김연배(여, 73세)
서천진동 김항자(여, 55세).

제2절 歲時風俗

1. 歲時風俗

〈正月〉

□ 설날

명절에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는데, 우도면은 명절의 차례보다 제사를 더 크게 생각하고 성대히 한다. 때문에 명절은 그냥 평범하게 지낸다. 명절에는 좁쌀을 빚어 술을 담는데, 청주와 탁주를 만들어 먹었다. 또 좁쌀 가루를 쪄서 누룩을 섞고 버무려 항아리에 담아서 탁주를 만들어 두었다가 고소리로 진불을 뽑아 증류하면 독한 술이 되는데 이를 '고소리술'이라 했고

이를 물에 타 희석하면 소주가 되었다고 한다. (하우목동 : 오영돈)

□ 酬祭

영일동과 동·서천진동에서 正月 初丁日에 유교식 마을제로 酬祭를 한다. 우도의 포제는 상·하단제로 치러진다. 상단제는 酬神, 하단제는 場神을 위한 제사다. 우도가 單一 里로 되어 있었을 때는 지금 충혼묘지가 있는 포젯봉산에서 각 자연마을에서 1인을 제관으로 선출하여 포제를 크게 하다가 해방이 되자 자연마을 단위로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두 마을에서만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酬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을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 문전비들기

우도에서는 정월에 심방을 빌어다가 집안의 안녕을 축수하는 문전제를 〈문전비들기〉라 한다. (하우목동 : 오영돈)

〈문전비들기〉는 正月 15일 심방을 빌어서 한다. 문전신을 주신으로 삼아 신년 집안의 평안을 빌고 이어서 조왕·안칠성·밧칠성 등 가내 제신들에게 기원한다. 이 날은 집 뒤뜰에 있는 '칠성눌'을 갈아 덮기도 하는데 '칠성눌'은 주생이[1]를 덮어 놓은 것인데, 그 안에는 빈 단지에 조, 콩, 팥, 수수 등 잡곡과 소라껍질이 들어 있다. 단지에다 새 곡식을 갈아 넣고 주생이를 새 것으로 갈아 덮고 소라껍질을 새 것으로 바꾸는 밧칠성에 대한 의례를 '칠갈이'라고 한다.[2]

□ 방쉬

정월 명절이 지나면 토정비결을 본다. 그 해 신수가 나쁘다고 하면 방쉬를 하여 액을 막는데 부도를 그려 붙여서 액을 막는 집도 있고 달이 뜰 때 버선 짝에 무엇을 담아 달맞이를 하거나 '허재비'를 만들어 삼도전 거리(세거리)에 나가 이 밥과 저 밥 사이 12~1시 사이에 그것을 세워 두고 온다.

또 토정비결을 보는 대신 '떡점'을 치는 경우도 있다. '떡점'은 식구마다 시루에 이름을 적어 층을 놓고 시루떡을 찌는데 식구 중에 액운이 있으면, 그 층의 떡이 잘 안 쪄진다.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방쉬(防邪)를 하였다.

1) 낟가리 위에 비가 새지 않도록 짚으로 엮어 덮은 것.
2) 탐라문화연구소 편, 『濟州島部落誌』(3), 제주대학 탐라문화연구소, p.133.

□ 액막이

서천진동에서는 정월 보름날 당에 가서 과세문안을 한다. 이를 〈신과세제〉라고 하는데, 이 굿은 앉은제로 간단하게 지내는 마을의 본향당제이기도 하지만, 이때 배를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당에 닭을 가지고 가서 '액막이'를 하며, 따로 뱃고사도 지낸다. 하우목동에서도 정월 14일에 신과세제를 지내며, 배를 부리는 사람은 '액막이'를 한다.

□ 당굿(新年過歲祭)

우도의 정월 당굿은 신과세제와 뱃고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어선을 가진 사람과 해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정월 보름굿은 정성을 다한다. 제물도 남달리하고 명쇠(命錢)도 특별히 놓는다. 漁船을 가진 사람들은 당에 닭을 가지고 가액을 막기도 하고(하우목동), 당에 다녀와 한 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뱃고사를 하기도 한다(동·서천진동). 하우목동·전흘동의 목지당에서는 14일날 신과세제를 크게 한다. 대부분의 단골들이 제물을 차리고 가 신에게 과세문안을 드리며, 바다에 요왕지를 드린다. 정월 보름날의 풍어를 기원하는 돈짓제와 뱃고사는 중요한 신례의례의 하나다.

〈二月〉

□ 요왕제와 지드림

서천진동에서는 3년에 한번 크게 〈잠수굿〉을 하였고, 각 가정에서는 매해 개인적으로 심방을 데리고 바다에 가서 앉은제로 요왕에 지를 드린다. 동천진동에서는 매해 돈짓당에서 심방을 데려서 요왕제를 지내고 바다에 지를 드리고, 짚으로 만든 배를 바다에 띄워보내는데, 이 요왕제를 〈돈짓제〉 또는 〈영등제〉라 한다.

□ 영등굿

동천진동, 서천진동 하우목동에서 영등굿을 하였다. 우도는 해변 자연부락 단위로 돈짓당이 있어 2월 보름에 '요왕에 지를 드리는' 돈짓제를 지내기도 하지만, 하우목동 목지당에서는 영등굿을 크게 하였다. 특히 우도는 제주도에 입도한 영등신이 떠나가는 길목이므로 영등 2월 보름날은 모든 도항선의 항해를 금하고, 당굿을 하는 본향을 청하고 요왕맞이를 하여 씨를 붙이고 한해 바다농사의 풍흉

을 선치고, 바다에 지를 드린 후에 짚으로 만든 배를 띄워 영등신을 보낸다. 영등신이 떠난 후에야 모든 선박의 출항이 가능하다.

〈三月〉

□ 청명 · 한식

연중 사대 명절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한식 명절이다. 한식 명절도 다른 명절에 준하여 하지만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도에서는 명절은 간소하게 하고 제사는 크게 생각하는 때문에 한식 명절은 해방이 되면서 없어져 버렸고, 청명 날에 선묘에 비를 세운다든가, 성묘하는 풍습은 지금도 남아 있으나 성묘는 대부분 8월에만 다닌다.

〈四月〉

□ 보리쌈장

보리밥을 해서 퍼워서 담는다. 보리장은 쌈장으로 먹는 여름 음식이다. 콩장을 담아 놨다가 보리를 물방애에서 갈아 오는데 장 담을 보리는 거칠게 갈아도 된다. 그것을 솥에서 쪄서 퍼우면 곰팡이가 잘 피어나는데 그것을 소금에 잘 버무리고 고추가루를 뿌려두었다가 먹으면 맛이 일품이다. 보리장은 새콤하여 국을 끓여 먹지는 못한다. 국은 된장으로 끓이고 보리장은 쌈장으로 먹는다. (하우목동 : 김천수)

□ 초파일 머리깎기

초파일날 아기 머리를 깎아주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 태안에서 자란 머리를 깎아주면 머리에 부스럼이 안 생기고, 숱이 많아지며, 머리칼이 까맣게 자란다는 속신에서 나온 것이다.

〈五月〉

□ 단오

'端午名節'은 설과 추석과 더불어 3대 명절 중의 하나다. 시기적으로 보리수확이 막친 때라, 여느 때의 명절보다도 분주한 명절이다. 조상들을 모셔서 차례를 지내는 이외에, 이날은 술봉, 맷순, 검은콩, 보리골, 검은 쇠똥 등을 모아 두었다가 약으로 고아 먹는 습속이 있었고, 여자들은 이슬이 마르기 전에 여러 약초

를 캐어 말린다. 주로 집 주변에 흔한 쑥과 익모초, 인동 등 넉 가지 약초를 캐어 '누룩지 에리듯' 엮어 처마나 외양간에 매달아 말린다. 이렇게 말린 약은 집안에 임산부가 해산했을 때 요긴하게 쓸 뿐만 아니라 백중날 걸보리로 엿기름을 놔 말렸다가 섣달 첫 납일에 엿을 고아 먹으면, 만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단오명절은 60년대 가정의례 간소화로 폐지되어 그후 사라져 버린 명절이다.

(六月)

□ 제석코수

포제 다음으로 큰 마을제가 6월 戊丁或亥日에 택일하여 하는 '제석코수'다. 이날 '메밥'을 산메로 씨면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 메밥이 익고 선 것으로 어느 쪽은 흉년이 들겠다 풍년이 들겠다 하며, 기울어진 것으로 어느 쪽에 바람이 불겠다 하며 점을 친다. 제물은 메와 과일 해어 등을 차리고 동네 책임자 두세 사람이 가서 난헌난작하고 잠식하여 끝낸다. 제석제는 30년 전에 없어졌다(하우목동 : 오영돈).

□ 독잡아먹는 날

음력으로 유월 스무날이 되면, 제주도민들은 한참 닭을 잡아먹기에 바빠지는 풍속이 성행한다. 이날 잡아먹는 닭은 이른 봄에 깐 병아리를 마당이나 우영에 풀어서 기른다. 유월 스무날 쯤 되면 중닭으로 자라는데, 한 집에 두어 마리를 잡는 게 보통이다. 닭에 마늘을 놔 쌀죽을 함께 끓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다. 환자가 있는 집에는 마늘 외에 다른 몸보신되는 약재를 첨가하기도 한다. 특히 닭 중에도 烏骨鷄(=발과 온몸의 살색이 검은 닭)는 약효가 더 있다 하여 허약한 사람일수록 약닭으로 사다 잡아먹는다. 주로 중병으로 몸이 허약한 사람은 이 烏骨鷄를 잡아 몸대산이(마늘) 한 보시기에 칠낭(옻칠나무) 다소를 넣어 실로 꿰메고 고이 먹는다. 이때 그 칠이 몸에 오르지 않으면 보기(補氣)가 되어 건강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닭을 잡아 먹일 경우는 닭 속에 어영뒤낭(앵두나무)을 다소 잘라 놓고, 황토 물과 쌀 한 보시기를 넣어 실로 꿰메고 고아서 먹이면 회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부인병으로 몸이 허약한 사람은 황계(새빨간 수탉)를 잡아서 그 속에 몸대산이

한 줌, 쌀 한 줌, 백도란과 지네를 놓아 다려 먹으면 보기(補氣)가 된다고 한다. 아무튼 유월 스무날에 닭잡아 먹으면 반병봉치라 하거니와 여자는 반드시 수탉을 먹어야 하고 남자는 암탉을 먹어야 더욱 그 효과를 본다고 한다.[3]

〈七月〉

□ 백중제

7월 14일은 백중제를 지낸다. 이 명절은 〈쉐멩질〉이라 하는 牛馬를 위한, 우마를 키우는 집안의 명절이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명절이라고 해서 〈소시께〉라고도 한다. 현재 하우복동·오봉리, 특히 동천진동에서는 이 백중제를 아주 크게 하였다. 소를 기르는 집안에서는 제원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돼지나 닭을 잡고 모두 모여 잔치를 하며 논다. 또 각 집안에서는 술과 떡를 마련 대차롱에다 놓고 소를 방목하고 있는 동대 부근에 있는 '섬머리'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동천진동 '섬머리'는 牧場地였고, 동천진동에서 牧場祭 또는 場祭를 따로 지내기도 하였다. 목장지가 육짓사람에게 넘어간 뒤 따로 場祭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八月〉

□ 추석

팔월 명절은 지금도 크게 하는 정월 명절과 함께 2대 명절의 하나다. 8월에는 '보도리 상어'를 잡는 시기이므로 상어잡이를 하여 제수(상어적)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 후, 당에 가서 액을 막고,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닭을 잡아 액을 막는다.

□ 모듬벌초

8월 들면 초하룻에서부터 추석 전날까지 조상의 무덤에 벌초를 한다. 특히 초하룻날은 묘제나 시제를 하는 웃대조상의 묘소에 친족집단이 공동으로 벌초하는데, 이를 〈모듬벌초〉라 한다. 〈모듬벌초〉를 통하여 웃대조상의 묘역을 벌초한 연후에, 초하루를 전후하여 벌초하기 시작하며 적어도 추석 전에 끝내는 것이 제주도의 벌초하는 풍습이다. 벌초는 대개 무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자손들이

3) 진성기, 앞의 책, pp. 217~220.

많이 모여 하루에 끝내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2, 3일씩 걸리는 수도 있어서 보통 지역별로 분담하여 벌초를 하며, 모듬벌초 때 남자들이 없는 집에서는 여자들이 대신 나오는 수도 있다. 한 가구당 1명씩, 의무는 아니지만 안 나오면 따돌림을 받으니 대개 한 명씩은 나온다. 그래서 문중에 따라서 상황은 각각인데 술이나 음식들을 가지고 모여들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 당굿

팔월 열나흘 굿이라 해서 복지당의 당굿으로는 정월 신과세제와 마찬가지로 크게 한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뒷날이 팔월 보름이기 때문에 특히 정성을 다하여 당에 가고, 당에 가서는 닭을 가지고 가서 심방에게 산을 받고 액을 막는다. 팔월 보름 돈짓당의 제일에는 어부·해녀들이 당에 가 제를 지내고 뱃고사를 한다.

〈十二月〉

□ 장담기

동짓달에 메주를 쑤어 섣달 그믐날은 귀신이 없는 날이라 하여 대부분 이날 장을 담는다. 옛날 풍속에 정월에는 메주를 안 담고 2월이 넘으면 장맛이 없다 하여 그래서 주로 섣달 그믐에 장을 담는다고 한다(하우목동 : 오영돈).

□ 갑장회와 추렴

음력 스무 이틀날부터 스무 여드렛날까지 나이가 3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동갑끼리 7~10명 정도로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갑장회를 구성하고 있다. 갑장회에서는 연말 결산총회와 함께 명절 祭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돗추렴을 한다. 돗추렴은 돼지를 잡아 인원수대로 공동분배하는 것이다.

2. 生業歲時

우도 해안에서 채취하는 해초는 실갱이 듬북, 넘메역, 감태, 톳, 천초 등이다. 처음에는 실갱이 듬북을 보리밭에 비료로 사용하면서 듬북이 중요한 해초로 등장하였다. 그후 하우목동에서부터 종달리까지 이어지는 넘메역(광포)이 저 멀리 중국에서까지 팔리게 되어 넘메역을 채취하게 되면서 하우목동이 부촌이 되었고 우

도면은 넙메역 채취가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육지에 양식 미역이 나면서 넙메역의 시세가 떨어지자 넙메역이 많이 나는 하우목동이나 천진동은 수입이 줄고 천초가 많이 나는 비양동이 부촌이 되었다 한다. "잘리목이 부자목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해산물의 시세 변동에 따라 우도 해안 마을의 경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은 감태, 톳, 천초가 수입원이 되는 주요 해산물이다.

〈표 1〉 해초의 채취기간

기간 / 해초명	채취기간 (陰 ·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채취도구 / 채취방법
실갱이듬북		—	—										줄나시, 조구성
넙메역					—								갈퀴, 조구성
감태							—	—					풍태구미
천초			—	—	—	—							물질, 번안자구미
톳		—	—	—									물질, 톳구미

□ 실갱이듬북

실갱이듬북은 음력 2월 25일부터 3월 한달 채취한다. 실갱이듬북은 과거에 밭에 비료 대신 쓰였던 중요한 해초로 주흥동과 비양동에서 많이 난다. 실갱이듬북은 주로 '줄나시'라는 도구로 채취를 하는데, 이 도구를 대장간에서 버려 준비해 두었다가 이 줄나시 양쪽에 줄을 매어 한 사람이 터우로 노를 저어 주면 듬북이 줄나시 날에 걸려 무거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뒤에 따라간 터우가 이를 건져서 실어 온다. 실갱이듬북 채취기가 되면 몇 사람씩 조를 짜게 되는데, 줄나시를 이용하여 실갱이듬북을 베는 사람 2인, 노젓는 사람 1인 해서 3인. 그 뒤에 실어나르는 터우배가 3척. 1척에 두 사람씩 하려면 9인이 한 조가 되는 것이다. 특히 듬북을 베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으로 해야 한다. 이리하여 듬북을 펴 올리면 집에 있는 사람은 그걸 호미로 잘라서 말린다. 이를 보리를 갈 때 비료로 사용하였다. 비양동에는 '이장실갱이밭'이란 게 있었다. 옛날 이장은 다로 보수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실갱이듬북 밭에서 사람을 날여 자기가 필요한 만큼

듭북을 베어갈 수 있는 채취권을 주었다. 이는 보수 대신 주는 것이다. 지금은 비료가 나니까 실갱이듭북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비양동 : 강기연).

□ 톳

톳은 음력 2월 그믐 불찌(불때)부터 채취를 시작하여 4월 한달 동안 작업을 하는데 최근에 톳 시세가 하락하여 예전처럼 열성껏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톳은 우도면 수확량의 2/3가량이 비양동에서 나고 나머지는 삼양동과 서천진동 '넙대기여' 부근에 많이 난다. 비양동에는 '톳구미'가 네 개의 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구미'라는 말은 경계 또는 구역이란 말로 쓰이는데, 비양동 톳구미는 수눔바위 한 구미, 동등머흘 한 구미, 섯등머흘 한 구미, 윤등머흘 한 구미, 한와지가 한 구미 해서 모두 4개의 톳구미가 조직되어 윤번제로 4개반을 돌아가면서 한 구역의 톳을 채취하였다. 예전에는 개맛까지 톳이 자랐는데 감태가 올라 썩으면 톳은 자라지 않는다(비양동 : 강기연).

서천진동의 '넙대기여'는 3, 4반 구역으로 과거에는 1, 2반과 공동 채취를 했는데 82년도부터 구역을 갈라 3, 4반에서만 톳을 채취하게 되었다(서천진동 : 김항자).

□ 넙미역 채취

넙미역 채취기는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한 보름 동안이 된다. 넙미역은 보통 남자들이 채취하는데 배를 타고 나가 갈퀴라는 도구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다. 배 하나면 보통 갈퀴를 세 개 놓는다. 그러니 배 없는 사람은 미리 배 있는 사람과 조를 짜고 집안 식구들도 작업에 동원이 된다. 5월이 그믐어 가면 넙미역의 발육도 좋아져 번성기가 된다. 이전에 조를 다 갈아서 파종해 버리고 고구마도 다 심고 나면 바로 넙미역을 채취할 시기가 된다. 넙미역은 우도면 하우목동 바다에서부터 종달리 바다쪽으로 서식지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넙미역은 '넙미역작지'라는 광택이 나는 하얀색의 굵은 보래(珊瑚砂)자갈 위에 서식한다. 해초기가 되면 우선 하우목동이 중심이 되어 우도 전지역에 기별을 하여 아무 날부터 넙미역을 채취한다고 알린다. 우도에서 시작이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종달리 오조리 심지어 멀리 서귀포에서까지 소식을 듣고 와서 넙미역을 채취한다.

채취방법은 물때를 본다. 풍선이기 때문에 들물에 하늬바람이 불면 채취하기가 쉽지만 마파람이 불면 할 수가 없다. 물과 바람이 같이 불면 한 번 쓸어가면 넙미역 바다 바깥까지 끌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썰물에 마파람이면 물이 뭍쪽으로 오니까 채취할 수 있고, 밀물엔 하늬바람이면 더욱 좋다. 밤에 채취할 때는 불을 켜고 키를 잡고 어둠 속에서 작업은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남의 배를 들이받아 놓고 달아나는 일이 있다. 어둠 속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른다. 넙미역을 할 때는 물은 역수가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채취할 수 없다. 넙미역은 물의 흐르는 쪽으로 눕고 반대로 거스르듯 끌어야 걸리기 때문이다. 넙미역 갈퀴의 길이는 석 자 또는 두 자 반이 되며 혼자 끌기에는 무척 힘이 드는 도구다(동천진동 : 신인홍).

□ 감태채취

요오드 성분이 많은 감태는 7월과 8월에 태풍이 불고 바다가 뒤집힌 다음 갯가에 피오른다. 이를 풍태라고 하는데, 이를 건져 올려 말리어서 판다. 마을마다 조를 짜고 구역을 정하여 윤번제로 돌아가며 풍태를 줍는데 이 풍태가 오르는 구역을 풍태구미라 한다. 감태가 나는 바다에서 김태를 주워버리지 않으면 썩어 바다의 갯지렁이가 고갈되고 톳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불고 풍태로 떠오른 것은 반드시 거둬주어야 하는데 시세가 하락할 때는 이를 게을리하여 톳과 같은 다른 해초도 흉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태는 샛바람(동풍)이 불면, 비양동 서천진동 등에 많이 오른다. 특히 서천진동의 '뚱내미구석'에는 태풍이 한 번 바다를 뒤집고 나면 온갖 쓰레기가 잔뜩 몰려든다. 미역이나 천초도 오르고 풍태도 오른다.

샛바람이 불면 감태 많이 오릅니께. 샛바람이 한 2~3일 불다 그치면 감태가 올라와서 한 개 되면 인력도 작고 건조장이 작기 때문에 못해 썩혀버리고 싹히다 보니가 지원이 많이 고갈되는 거라마씀. 감태 썩는 물이 독물이 되여 가지고 물이 내려가서 부근에 고말, 갯지렁이 이런 거 다 죽어분단 말이우다. 톳도 안 나버립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해는 한 물찌에 다 못해버리면 썩어. 동네에 감태 썩으멍는 여름에 잠을 못잡니다. 냄새 생겨가지고(비양동 : 강기연).

92년도엔 풍태 값으로 65만원 갈랐수다. 이 동넨 뚱내미구석에서 95% 풍태가 올라오는더양. 경호문 어멍 땐 너무 귀찮앙 너무 지겨웡 "뚱내미구석은 뚱내미구석이로

다"합니다게. 정월달만 나믄 너무 바당에서만 사는 실정이 되난, 어떤 땐 너무 방송을 많이 ᄒᆞ믄 엠프가 고장낭 고동을 븜니께. 우리 1, 2반은 고동 소리에 노이로제 걸려짐직 합니다. 자당으믄 아침 6시에 불믄 곽 싫증나도 나가야 되고, 다섯시에도 가곡 경합니께(서천진동 : 김항자).

□ 천초

천초(우뭇가사리)는 '우미'라고 하는데, 미역의 사세가 하락한 뒤 전복·소라와 같은 해산물 이외에는 여전히 값이 나가는 해초류로 우도면 전 1종 공동어장에서 난다. 태풍이 불면 바닷가에 밀려오는 '우미번안지'도 있지만 무래질(물질)을 하여 캐어내는 우도면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천초는 많이 오를 때는 정월부터 올라오지만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채취한다.

□ 번안지 구미

비양동에는 풍대나 천초 번안지[4]를 줍기 위해서 바다 전체를 4개 반이 육상의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윤번제로 돌아가며 수집하였다. 듬북, 감태 같은 것이 태풍이 불면 오르는 구미가 있고, 전연 감태 한 포기 구경 못하는 구미가 있다. 또 감태가 안 오르는 대신 번안지가 올라오기도 한다. 구미는 '바당 겁' 바다의 구역을 말한다. 4개 반이 돌아가면서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번안지를 줍는 것이 귀찮으니까 최근에는 천초밭을 마을에서 팔아버린다. 입찰을 해가지고 한 20~30명이 투자해서 권리를 사게 되는데 천초 번안지를 사서 천초가 많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안 오르면 손해를 본다. 이와 같이 우미(천초)만 주워먹는 번안지는 동네에서 팔아버리고 감태와 듬북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반별로 주워 먹는다. 감태는 팔게 되는데 금년은 60㎏에 4만 8천원으로 값이 좋았다. 바다를 파는 회의는 12월 30일 전 규약상으로 12월 25일 이전에 신구 개폐을 하게 되어 있다(비양동 : 강기연).

우리 어릴 때, "번안지 주시래 가게"ᄒᆞ영 간 보난 매역 오른 걸 번안지 번안지 핸게, 그것이 이젠 이름이 되연 감태 오르면 감태 올랏젠 합니다 마는 우미가 올라도

4) 번안지는 잠수가 바다 밑에 가서 캐어 오는 해산물이 아니라 바닷가에 밀려와서 줍는 미역이나 천초를 말한다.

번안지 올랐져, 메역이 읍랐또 번안지 올랐져 흡니다. 감태 오를 땐 감태 올랐져 흐는디 요샛 사람 덜은 품태엔 흡니다(서천진동 : 김한자).

제3절 마 을 祭

I. 儒敎式 마을祭

우도면의 마을제로서 남성 중심의 유식 마을제는 〈酺祭〉, 〈蜡祭〉, 〈祈雨祭〉 등이 있었고 지금은 천진동과 영일동에서 〈酺祭〉만을 계속하고 있다.

1) 酺 祭

경민장이 마을의 里政을 맡던 이전부터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우도면은 1리였으며, 전 마을 공동의 단위 酺祭로 지금 충혼묘지가 있는 '포젯동산'에 있는 포제단에서 祭를 지냈다. 마을의 경비나 포제의 경비는 우도 섬 중의 섬인 飛揚島가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고 이곳의 지명을 '뚠비양'이라 했는데, 이 '뚠비양'에서 나는 해산물의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포제의 경비도 처음에는 각 마을 별로 분담 거출하였는데, 비양동 사람들이 해방 전에 '뚠비양'을 주면 자기네가 '뚠비양'에서 벌어 먹는 대신 포제 비용을 전담하겠다 약속하여 그 당시 이장과 비양동 주민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비양동 사람들이 '뚠비양'에서 나는 해조와 해산물을 채취하여 얻은 수입의 일부로 포제 비용을 전담하다가 해방이 되자 당시의 이장과 비양동 주민사이의 계약문서는 분실되고 우도면의 소유였던 '뚠비양'은 비양동 소유로 넘어갔고, 포제는 흐지부지하게 되었다.

그후 포제는 각 마을 단위로 분산하여 치르게 되었으나, 새마을운동 당시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영일동과 동·서천진동에서만 지내오고 있다.

① 神位

젯상은 두 개로 벌인다. 그러나 대상 神位는 酺神之靈과 場神之靈, 그리고 境內無祀鬼神 3位이다. 酺神에는 제관이 여덟 사람이 들고, 場神에는 두 사람이 든다.

酺 神 之 靈 …… 상단의 신위

場 神 之 籩 …… 하단의 신위

境內無祀鬼神 …… 雜神

② 祭官

우도면 단일 포제로 할 때는, 각 마을 단위로 대표 한 사람씩 선출하여 포제 제관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마을에서만 뽑는데 8제관을 쓴다.

제관의 자격은 연령도 보고, 집안 사정도 보고 제 지내는 동안 무슨 바쁜 일이 없는가, 무슨 일이나 나자 않겠는가 여러 각도로 살피고 선출한다. 그런데 요즈음은 누구나 제관으로 뽑히는 걸 꺼려 한다.

初獻官 …… 祭官

亞獻官 …… 祭官

終獻官 …… 祭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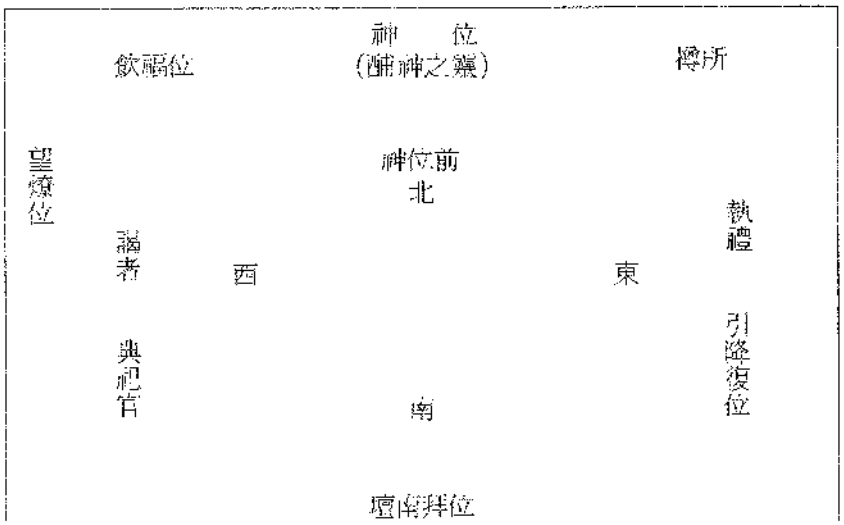
執 禮 …… 祭를 지낼 때, 사회자 격으로 祭記를 부르는 사람

大 祝 …… 祝文을 고하는 사람

謁 者 …… 안내 역을 하며, 집례가 홀기를 읽는대로 복창하고 안내한다.

典祀官 …… 모든 祭物을 관리하는 사람.

□ 제관 및 제장의 배치도



③ 祭物

산 희생은 조신에 올리고 익힌 것은 장신에 쓴다.

祭物陳設은 상단과 하단이 약간 다르다. 上壇에는 白飯 1器, 犧牲(돼지) 1마리, 孰(돼지를 삶아 익힌 것), 淸甘酒(날 것으로), 魚膾 1, 黃脯 1, 菁芹菜 1, 五果, 幣帛, 幣紙 등을 올리고, 下壇에는 白飯 3器, 雜穀飯 3器, 孰(돼지 한 마리를 삶아 적하던 나머지를 전부 올린다), 海魚(군 것) 1, 黃脯 1, 五果, 甘酒 등을 올린다. 上壇에는 메를 제외하면 거의 날 것을 올리며, 下壇에는 익힌 것을 올린다.

④ 祭日

정월 初丁日을 祭日로 하지만 마을에 불상사가 있을 때는 그 다음 戊丁或亥日에 제를 지내게 되며 늦어도 2월로 넘기지는 않는다.

⑤ 祭次

8제관이 酺祭를 지낸 다음, 그 祭官이 장신제를 지내는데 제일 하급 제관이 장신제의 초헌관이 된다. 장신제는 단헌난작하고 축을 읽고 끝난다.

먼저 상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酺神之靈位'라는 紙榜을 써 붙여 상단제를 지낸다. 제관이 각각 위치에 서서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燔幣禮 → 初獻禮 → 讀祝 → 亞獻禮 → 終獻禮 → 飮福 → 撤籩豆 → 望燎 → 焚幣 → 焚祝의 순으로 진행된다.

上壇祭가 끝나면 下壇에는 紙榜을 붙이고 제물을 진설 하단제를 지낸다. 하단제는 典祀官 혼자 헌관이 되어 單獻으로 告祝하는 것이다. 하단제를 끝낼 때 단에 올렸던 각 제물을 조금씩 떠어 모은다. 이를 '잡식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재단 境外에 나가 주위에 뿌리면서 걸명축을 낭송한다. 〈걸명〉이란 하위신, 잡신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⑥ 정성기간

3박 4일 정성을 한다. 제를 지내기 1주일 전부터 동네 입구 제단 제청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제관이 제청에 들어 입재가 되면, 정성은 4일을 하고, 4일 되는 자녁 厂正을 기해서 제를 지내게 되는데, 그 뒷날이 해일이나 정일이 되니, 그 날 첫 시에 하는 後日祭인 셈이다.

⑦ 포제향회

동장이 반장을 통하여 동회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포제에 쓰이는 경비의 규모, 제관의 선출, 제비의 마련, 제청의 결정 등을 의논하게 되는데 이를 '포젯상회(酺祭鄕會)'라 한다. 祭廳은 제관들이 合宿齋戒할 장소로 마을 안에서 크고 조용하며 깨끗한 곳으로 정한다.

⑧ 홀기 및 축문

□ 笏記

謁者引祝及諸執事人就壇南拜位. 祝以下皆四拜鞠躬拜. 興 平身. 引詣盥洗位. 東向立. 盥手帨手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拜位. 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諸行事.

獻官伊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東向立盥手. 引詣樽所西向立. 執樽者洗酌擧冪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三上香獻幣. 獻酌 獻祝 俯伏 興小退 跪. 祝進神位之右 東向跪. 讀祝 俯伏. 興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 東向立 盥手. 引詣樽所 西向立. 執樽者洗酌擧冪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獻酌 俯伏 興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 東向立 盥手 引詣樽所. 西向立 執樽者洗酌擧冪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獻酌 俯伏 興平身. 引降復位. 獻官伊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謁者引初獻官詣飮福位 西向跪 執事者以酌授獻官 獻官伊受酌飮卒酌.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伊受爵 俯伏 興平身 引降復位. 謁者進獻官之左祝進嘏簋豆. 執事者以取祝及幣皇置于坎.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西向立 焚幣焚祝. 毛血盖燎. 引降復位. 謁者進獻官之左. 獻官伊皆四拜 鞠躬拜興 平身. 白禮畢, 謁者引獻官出. 謁者引祝及諸執事俱復壇南拜位. 祝以下皆四拜 鞠躬拜興 平身 禮畢出.

□ 祝文(迎日洞)

酺神祝(상단측)

酺神之靈伏以. 於赫明神 鎭我疆域 大哉其位 盛矣其德. 歲首設享. 匪今伊昔伏惟尊靈 特垂陰澤 俾我一洞. 永受多福. 嘔瀉元氣 克掃疾疫. 五穀豊登. 六畜蕃殖. 行船無敗. 擧網多得 冀蒙神休. 敢薦菲薇 孟聖不言. 水火不驚 民

産滋盛 閭閻安堵.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

饗

場神祝(하단축)

場神之靈伏以 墾耕山來 鎭我疆域 除害降福 莫匪神祐. 人無疾疫 穀無蟲害 畜不呵嚙 魚必多得 水火不驚 農商得利. 伏願靈神 歆我殘誠 使此殘民 康樂太平. 謹以淸酌 庶羞奠獻 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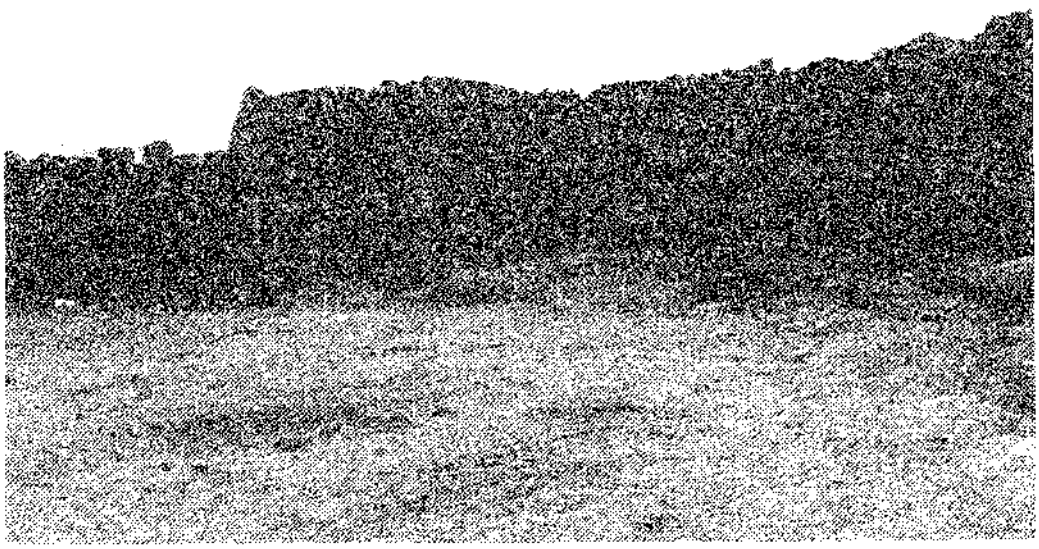
饗

境內祝(하단축)

境內無祭鬼神 或流離乞死刀兵遭害 或水死火死厄死鬼神 或落傷致死獄死杖死結項致死 或父子寃鬼夫婦寃鬼 或落胎産死路中伏死 或墻壁顚壓蟲獸嚙害 或癘病厄死草亂橫死 或本國客神他國客神 或牛馬軍牧下殘軍卒携男挈儔來我祭祀醉飮飽食作賀以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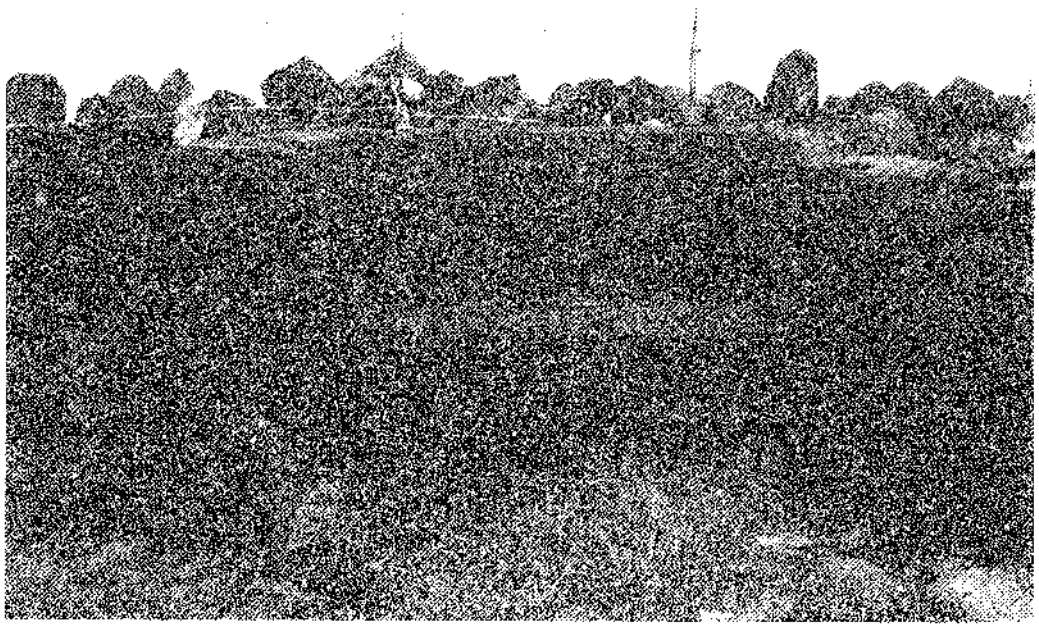
⑨ 포제단

□ 동천진동 포제단



동천진동과 서천진동 사이 탑이 있는 윗쪽 큰 동산 밭 가운데 가두는 담을 높이 둘러 쌓은 곳에서 한다. 포제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를 지낼 때는 임시로 천막을 치고 제단을 마련한다. 제단을 만들려 했으나 외지인 소유자가 부지를 팔아주지 않아 아직도 제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영일동 포제단



2) 蟲祭(영일동)

서숙(좁쌀)을 갈고 파충한 뒤 여러 된 김을 매고나서 동네에서 이 행제를 지낸다. 이를 〈말축회수〉라고도 한다. 제물을 차리고 축을 고하는 정도로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蟲祭祝

維歲次云云

惟神之寵伏以 墾耕由来 鎭我疆域 除害致祥 莫測神極 含哺鼓腹 伊誰之力 可啞近日 怪肆毒蟲 其作孽蟲螽 斯螣欲盡 五穀飛集阡陌 伏願靈神

監斯恤斯 荐降陰德 克掃凶災 稻粱菜田 妖孽乃去 莖秀葉潤 重沾膏澤

使此殘民 康樂太平 謹以清酌 庶羞奠獻 尚

饗

3) 帝釋祭

조 파종이 끝난 뒤, 혹정혹해일 子時에 한다. 마을 戶마다 보리쌀 1되씩 모아 제물을 차리고 동장과 반장이 맡아 치른다. 제일 전날 저녁 제관인 동장과 반장이 기주떡, 해어, 숙감주 등 제물과 백미 술을 지고 제장에 가 솥을 걸어 메를 짓고 子時가 되면 돗자리를 깔고 메 1기 떠 올려 제물진설하고 배례없이 감주를 한 잔 부어 올리고 숟가락을 메에 꽂고 잠시 있다 잡식을 한다. 메밥을 지을 때는 산메를 짜는데 밥의 높낮이로 점을 치기도 한다. 메밥이 높은 방향에 풍년이 들고 낮은 쪽 방향엔 흉년이 든다고 하며, 밥에 구멍이 뻐끔뻐끔 나 있으면 큰 바람이 분다고 한다.

제석제는 밧일 할 때 밭에다 밥을 캐우리며 하는 '제석할망고사'를 마을제로 지내는 것이 특징이며, 여기서 帝釋神은 농경신으로 〈세경할망〉을 일컫는 것이다. 제석제는 조농사의 풍등을 비는 농경의례의 하나다.

2. 堂信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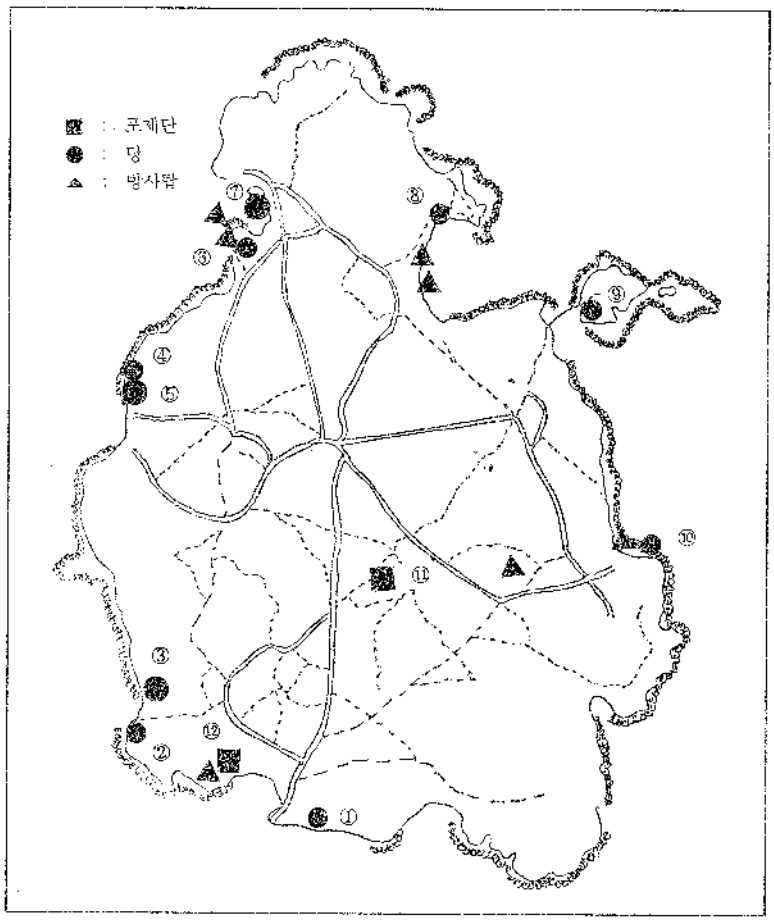
巫俗部落祭로서 당제는 〈본향당제〉와 〈돈짓당제(海神祭)〉가 있고 1년의 세시로 보면, 정월의 〈신과세제〉 2월의 〈영등제〉 7월의 〈백중제〉가 있다. 포제를 하는 영일동과 동·서천진동을 제외한 마을은 당제를 주로 하여 마을과 개인의 안녕을 축수하고 농사와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한다. 특히 우도면은 본향당이나 돈짓당에서 정월 대보름을 중심으로 바다의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와 2월의 영등제가 성행하고 있다.

1) 본향당과 당굿

① 전흘동 목지당

'큰당', '목지당' 또는 '□울당'이라고 한다. 오봉리 5개마을 주흥동·삼양동·상고수동·하고수동·전흘동 사람들이 다니는 본향당이다. 전흘동 포구 동남쪽 '뜬동산'에 있다. 제일은 정월 14일, 2월 보름, 7월 14일이며, 당에 갈 때는 배 있는 사람은 메 3그릇, 보통은 2그릇 가지고 가며, 당굿할 때는 보십쌀을 가지고 가서 산을 받는다.

우도면 신당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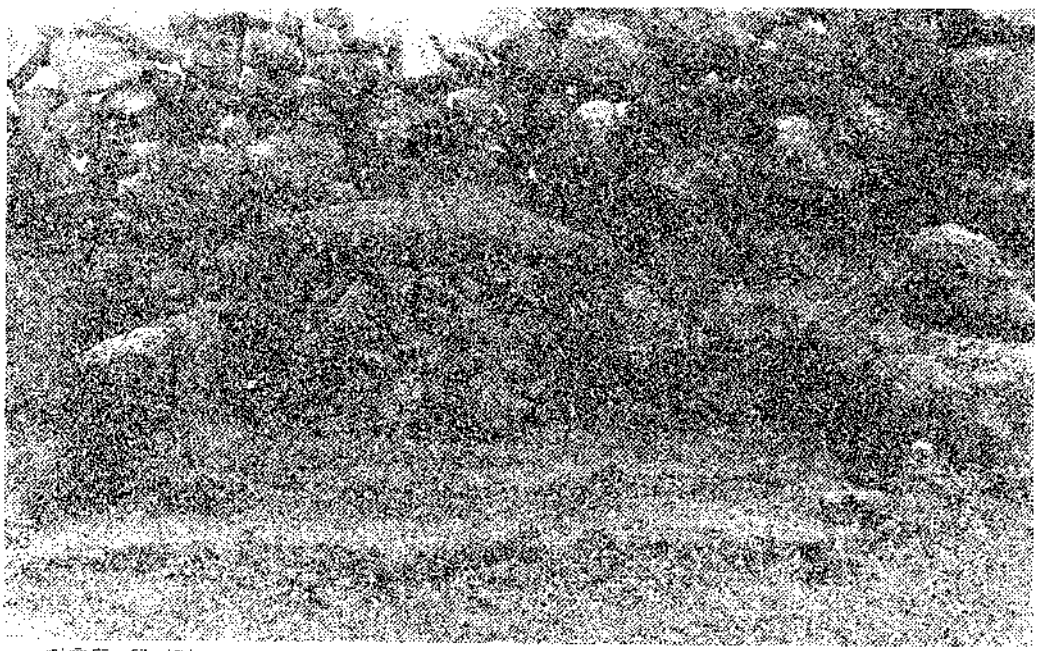
① 동천진동 돈짓당
② 서천진동 돈짓당
③ 서천진동 본향당
④ 하우목동 돈짓당
⑤ 하우북동 본향당
⑥ 주흥동 돈짓당
⑦ 전흘동 본향당
⑧ 하고수동 돈짓당
⑨ 비양동 돈짓당
⑩ 영일동 돈짓당
⑪ 영일동 포제단
⑫ 천진동 포제단

② 하우목동 본당

하우목동의 본향당은 '본당' 또는 '목지당(牧者堂)'이라 한다. 本堂은 본향당을 말하는 것이며, 목지당은 당신이 '牧畜神' 또는 '牧者의 神'이기 때문에 붙인 기능을 포함한 당이름이다. '우묵개' 선창이 있는데 몇 해 전에 돌로 쌓아 만든 궤를 중심으로 지붕을 덮어 추운 날에도 당굿을 할 수 있게 당집을 지었다. 가운데 '하르방·할망' 두 夫婦神의 위패를 모시고 왼쪽에는 부근에 있는 하우목동의 돈짓당을 같이 모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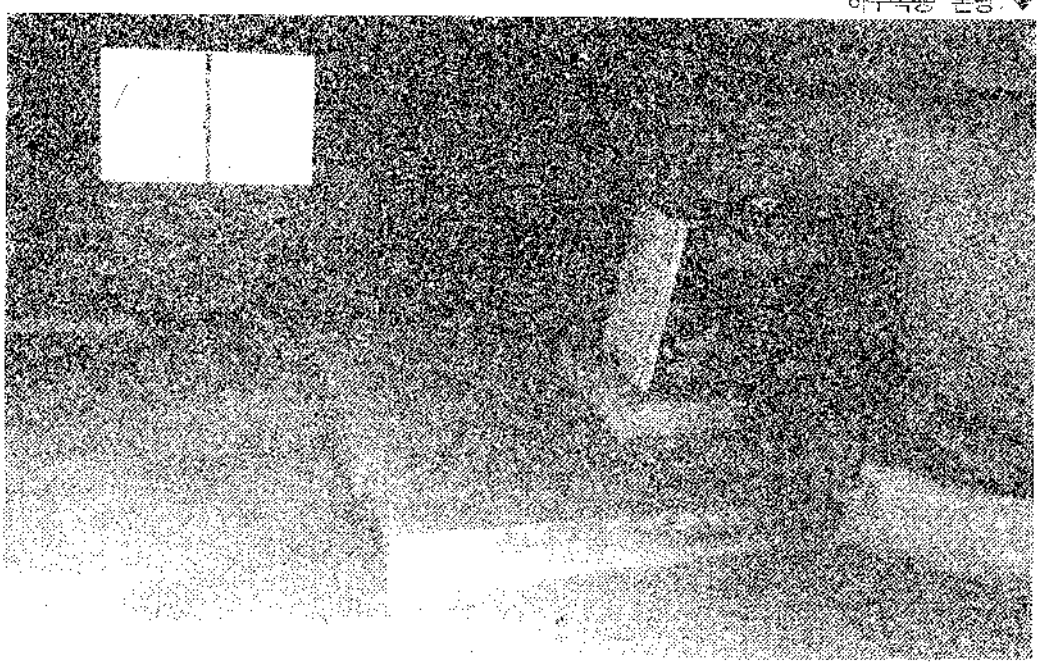
당에 갈 때는 집안에서 메 두 그릇하고 제물 그리고 붉은색, 흰색, 노란색의

삼색 물색과 종이 지전 열장을 가지고 가서 산을 받고 액을 막은 뒤, 물색은 걸고 지전은 태우고 온다.



▲ 전흘동 목지당

하우목동 본당 ▼



할머닌 당에 갈 때 떼 볼 그릇 가지고 갑니까?

당에 올리는 거 한 그릇, 해 주는 사람은 떼 두어 개 행 가면 되여. 매 주곡 무레도 나가믄 쇠 그릇도 주고, 요왕지 들일 때는, 이녁 식구대로. 요왕지 놓이곡 당에 당지들이곡 본지에 돈전지 들이곡 이녁 몸지 놓이곡, 하당에서 돌아가시믄 영갯지 놓이곡, 몸지, 당지, 벳지… 당에는 정월 열나흘 날주곡 이월 열나흘 날, 칠월 연나흘 날 잡네다(하우복동 : 김천능의 처).

□ 하우목동 본향당의 유래[5]

堂設立의 由來

本鄕堂은 只今으로부터 150余年前 金氏할망이 設立하였다는 說이 있는데 堂의 形態는 돌로 쌓아 안쪽에 五色 천과 白紙를 걸어 놓고 江南國道通使者堂하르방 할망의 神位를 모셔 年例行事로 세 차례의 堂祭日을 지내어 마을의 泰平과 사람들의 平安을 祈願하는 곳을 메물어 왔는데 매년 첫달 正月 十四日에 지내는 堂祭日은 집안 食口의 康寧을 빌기 爲하여 아낙네들은 精誠껏 메밥과 祭酒·제숙·과일 등과 食口들의 이름과 나이를 자차에 석어서 祭物 구럭에 넣어 堂에 가서 祭壇에 올려놓고 拜禮를 하면 신방은 본풀이로 들어가는데 堂하르방 할망님께 祈願을 하고난 다음 歷代 심당님께 安息를 빌고 나면 마을의 無事泰平을 祈願하고 다음으로 信者들의 一年運을 보고난 뒤 심방이 豫言하는데 堂祭日 날 심방의 豫言은 거의 맞는다는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說이 있다.

「西紀 一九八八年 正月 十四日 堂祭日 때 豫言中 이달 그믐 쯤 漁船一隻이 매우 좋지 않으니 매우 銘心하라는 豫言이 있었는데 같은 달 正月 二十六日 漁船이 風波에 破損되고 船員 三名이 死亡한 事件이 發生하여 信者들은 더욱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심방이 運數를 보고나며 아낙네들은 白紙에 멧밥을 싸고 바다의 요왕님께 빌면서 자릴 바다에 던진다.

다음은 영등달로서 二月 一日 濟州道 北濟州郡 한경면 한수리로부터 人島해서 濟州를 돌아보고 二月 十五日 소섬으로 떠났다고 하여 하루 前日인 二月 十

5) 1980년 8월 마을에서 정리한 「본향당의 유래」라는 원고이다. 우노현 노인회장을 역임한 오영부씨가 직접 정리하고 보관하였다가 제공한 자료이다.

四日에 영등을 보내는 굿을 하는데 심방의 본풀이 굿이 끝나면 漁船에 심방과 아낙네들은 올라타서 징과 북을 요왕님께 잠수들이 물질하는데 無事함과 모든 海産物 豊作을 爲하여 씨앗을 뿌리며 온 바다를 돈 다음 아낙네들은 술과 노래를 흥겨웁게 부르면서 포구로 들아오면 굿이 끝이난다.

세번째 堂祭日인 七月十四日은 百中굿으로 家畜의 疾病豫防과 가을 農事가 豊作은 이루도록 祈願하는 굿인데 심방은 본풀이를 하면서 장담 포에 부명천으로 꿰어서 마을 안을 돌며 모든 厄邪을 막는 굿을 하는데 近來에 와서는 하지 않고 堂에서만 굿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비우제 굿을 하였으며 가을 穀食 밭에 벌레가 번지면 예방하는 굿을 해 오기도 하였다.

一九六〇年부터 一九七九年까지 二十年間은 나라 方針으로 巫堂을 禁하여 큰 受難을 當하였지만 信者들은 官의 눈을 피하여 堂에 가서 精誠을 드리는 程度로 지내오다가 西紀 一九八〇年度 無形文化財 制度가 定해지면서부터 本鄕堂은 活氣를 찾고 堂祭日을 지내게 되었으며 西紀 一九八五年 二月十五日에 濟州無形文化財團 主管으로 영등굿을 지냈는데 이때 대학교수 및 학생들이 研究하기 爲하여 參觀하기도 하였다.

本鄕堂의 形態가 매우 허술하여 信者들이 뜻을 모아 堂을 補修할 것을 洞에 建議하여 西紀 一九八八年 十二月 二十五日 洞定期總會의 議決을 보아 西紀 一九八九年 陰十月二十九日 심방으로부터 着工祭를 올리고 建坪十坪의 스레브 건물을 四月二十日 竣工하였다.

歷代심방
第一代 金氏 심방
第二代 宋智弼 심방
第三代 朴氏 심방
第四代 洪昌元 심방
第五代 오순이 심방
第六代 今女 심방
第七代 高氏 심방
第八代 梁正順 심방
第九代 李氏 심방
第十代 梁正順 심방

補修推進委員會
委員長 高英舟 洞長
委員 梁性英 運營委員長
委員 禹斗錫
委員 高京權
委員 金千吉
委員 康淳培
委員 金用堅
委員 吳永敦 監諮問委員長
委員 梁連順 婦人會長
委員 梁玉子 總務
委員 尹春年
委員 高京春
委員 梁正蘭
委員 李起蘭
委員 高正玉
一九八九年 四月 二十五日

③ 서천진동 당동산 종달잇당



서천진동 당동산 종달잇당

서천진동의 본향당은 구좌읍 종달리에서 가지갈과 온 당으로 '종달잇당'이라 한다. 종달리에서 건너 온 사람들이 당을 설비하여 소섬 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당에 다니다가 하동(전흘동) 하나 '알우목개' 하나 해서 세 군데로 나뉘어 갔다. 동·서천진동 20가호가 이 당에 다니며 3년에 한 번씩 좀수굿을 한다. 특히 도항선을 취급하는 선주들이 이 당에 다니는데, 제일은 정월 보름, 2월 보름, 7월 보름 1년에 세 번이다. 정월은 〈신과세제〉, 2월은 〈영등제〉, 7월은 〈백중제〉라 한다. 2월 15일은 제주도에 入島한 영등신이 바로 소섬으로 해서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성산포와 우도를 운항하는 도항선이 잠시 운행을 중단하고 소섬 사람들을 바다에 나가 지를 드리며 영등신을 전송한다. 영등신이 나간 뒤에야 도항선이 비로소 운항을 시작한다. 당에 갈 때는 배 두 그릇, 삼색 물색, 지전, 과일, 제숙, 소주해서 간단하게 차리고 간다.

> 과거에 조상들이 떵겨나난 부모 떵겨난 디라 해서, 어른덜이 말ᄒᆞ기를, 그 당에는 우리 호적들이 돌어있다 생각하고 다녀야ᄒᆞᆫ다. 호적ᄒᆞ지 예? 우리 멩을장소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부정이 있으며는 거기서 호적을 앗아불며는 생명이 위험ᄒᆞᆫ 당이니까 그 조상을 위해야 ᄒᆞ다는 뜻에서 다니는 집주.

이 당을 맨 심방은 오순이 하르방 → 홍창원 → 김담연 → 양정순 → 이순이 → 강금녀, 지금은 종달리 심방 강금녀씨가 당을 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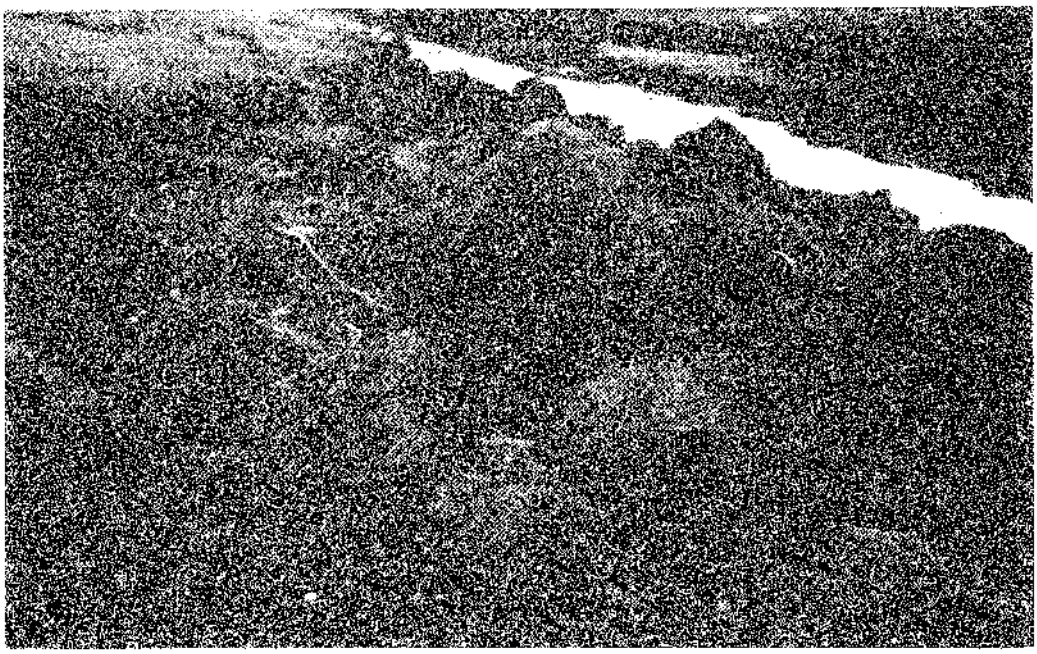
2) 돈짓당과 돈짓제

① 영일동 돈짓당

영일동 포구 남쪽 100m 지점에 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 일부는 돈짓당에 가제를 지내며 특히 8월 명절에는 크게 차리고 간다. 요왕제를 지낼 때는 바다 아무데나 가서 '지드린다'고 하였으나 간단하게 돌은 덮은 형태의 당이 있었다. 정월 나면 1년 동안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왕제를 지낸다. 또 초하루 보름이나 뱃고사를 하기 전에 이 돈짓당에 먼저 간다고 한다(영일동 : 呂成華).

□ 영일동 돈짓제

영일동에서는 남성 중심의 포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바닷가에 작은 돈짓당이 있을 뿐 별다른 무속적인 당굿을 마을 단위로 한 적이 없다. 바다 여장은



영일동 돈짓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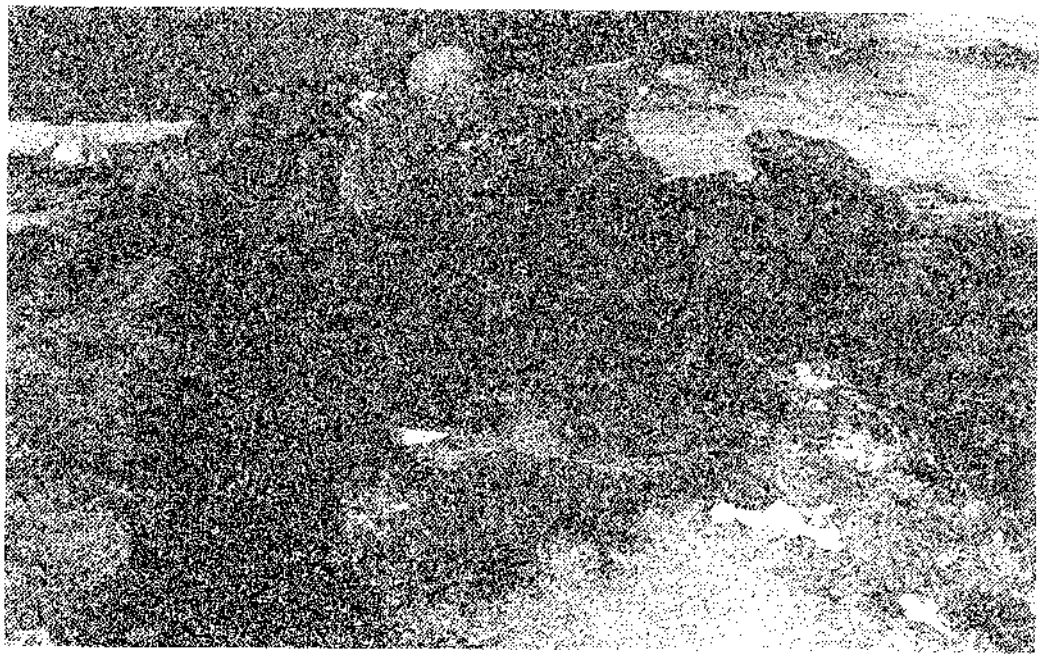
넓으나 포구 사정이 좋지 않아 어부도 적은 편이다. 주로 어부들이 증신이 되어 하는 돈짓제가 있다. 겨울철 출어를 하지 않고 놀다가 처음 출어하는 날 메·해어·술·페지버리 등 재물을 준비하고 돈짓당에 가서 진설한다. 제는 배례함도 없이 술을 부어 올리고 메에 숟가락을 꽂아 두었다가 잡식한 다음 배로 가서 한 판에 제물을 진설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제를 지내고 잡식한 것을 바다에 띤진다.

② 비양동 돈짓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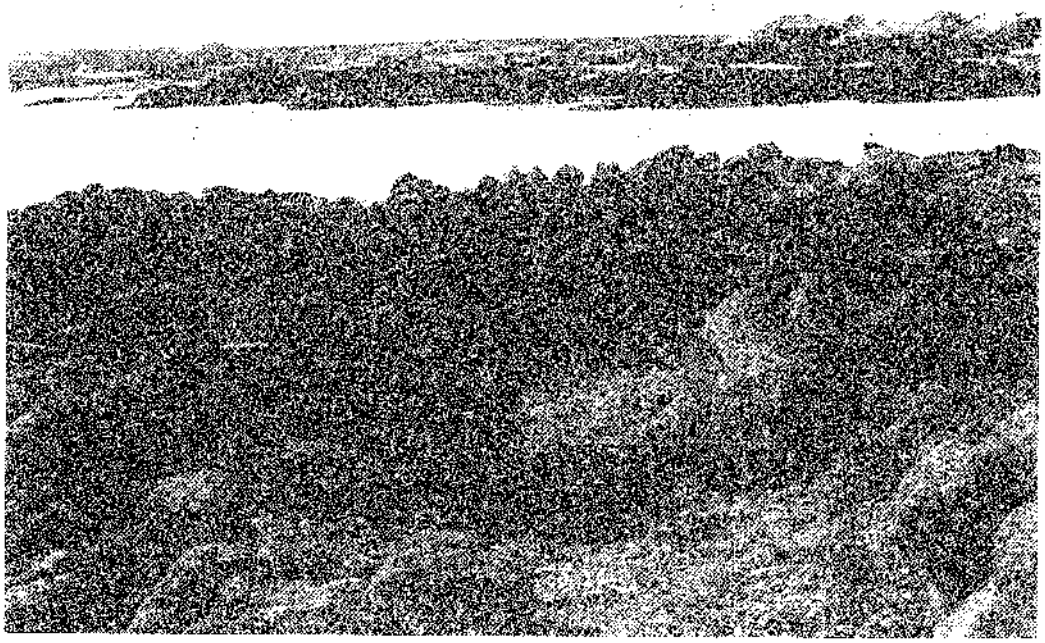
비양동의 돈짓당은 '두리성창'을 지나 '꾼비양(飛揚島)' 燈臺가기 전 다리를 지나면 바로 오른쪽 높은 동산에 있다. 이 당은 비양도 사람만 다니는 해신당이다. 넙적한 돌로 만든 궤가 있고 이 궤에다 神位를 모셔 돌분을 달아두고 있으며 2~4평의 잔디밭에 운타리를 두르고 있다. 이 당을 '개당'이라고 하는데 해녀나 어부가 다니며, 보통 정월 보름날 많이 가며, 배가 고사를 지낼 때 먼저 이 당에 제를 지낸다. 배에서 당에 갈 때는 돼지머리를 가지가기도 한다.

③ 상·하고수동 '성창봉오지' 돈짓당

하고수동 포구에 있다. 상·하고수동 해녀와 어부들이 다닌다.



비양동 돈짓당



하고수동 돈짓당

음력으로 1월 초승달 때, 초 하루와 그믐날, 그리고 팔월 추석에 크게 차려, 선주나 어부들은 정성을 들여 당제와 뱃고사를 하기도 한다. 보통 때는 초하루 보름에 좋은 날을 택해서 쌀과 멧그릇을 가져 가 제를 지낸 후 바다에 지를 드리기도 하고, 배하고 사람들은 돼지 머리도 가지고 다닌다.

하고수동은 배 두 척에 열 사람의 어부가 있고 해녀는 한 집에 1인 꼴로 30명, 상·하고수동 합쳐 70여명이 된다. 요즈음은 해녀·어부들이 전부 당에 다니지 않고 일부만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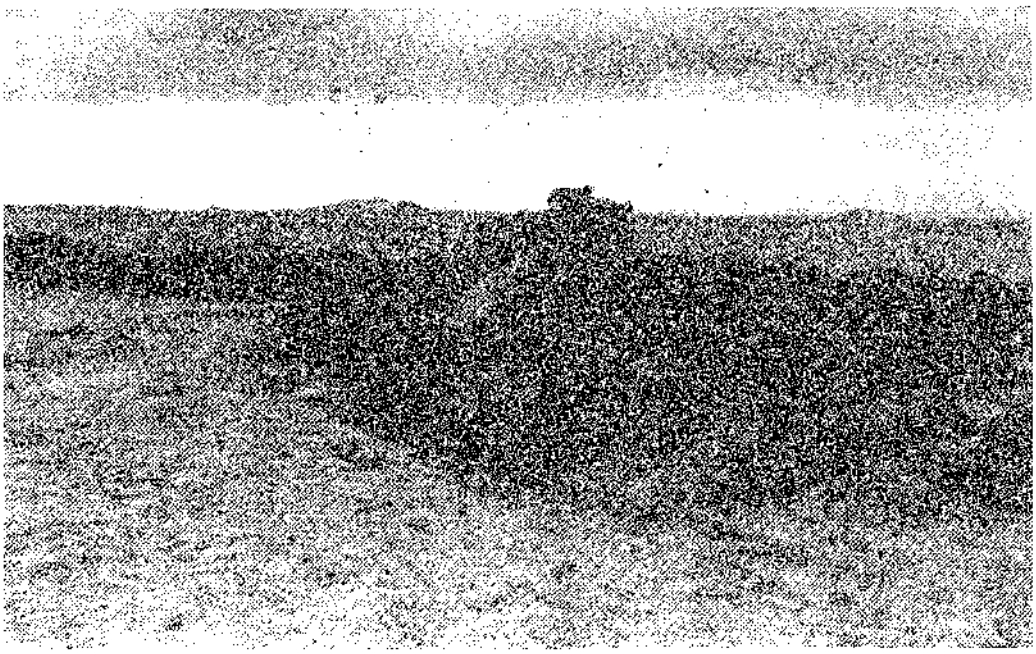
④ 주흥동 돈짓당

주흥동 '중개' 포구 왼쪽에 방사탑이 있고, 그 부근 동남쪽에 '당알'이라는 곳에 돈짓당이 있다. 당에 갈 때는 보통 택일해서 다니지만, 뱃고사를 지낼 때 당에 가며, 당에 갈 때는 메 2그릇 가지고 간다.

⑤ 하우목동 돈짓당

'우목개' 선창 길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본향당에 당집을 짓고 본향당신 좌측에 옮겨다가 모셨다.

⑥ 서천진동 '똥내미구석' 돈짓당



서천진동 '똥내미구석' 돈짓당

'똥내미구석' 동쪽 높은 지경에 돌을 쌓아 둔 곳이 이 당이다. 지금도 당에는 돌을 쌓아 둔 속에 지전·물색 조각이 보인다. 주로 해녀들이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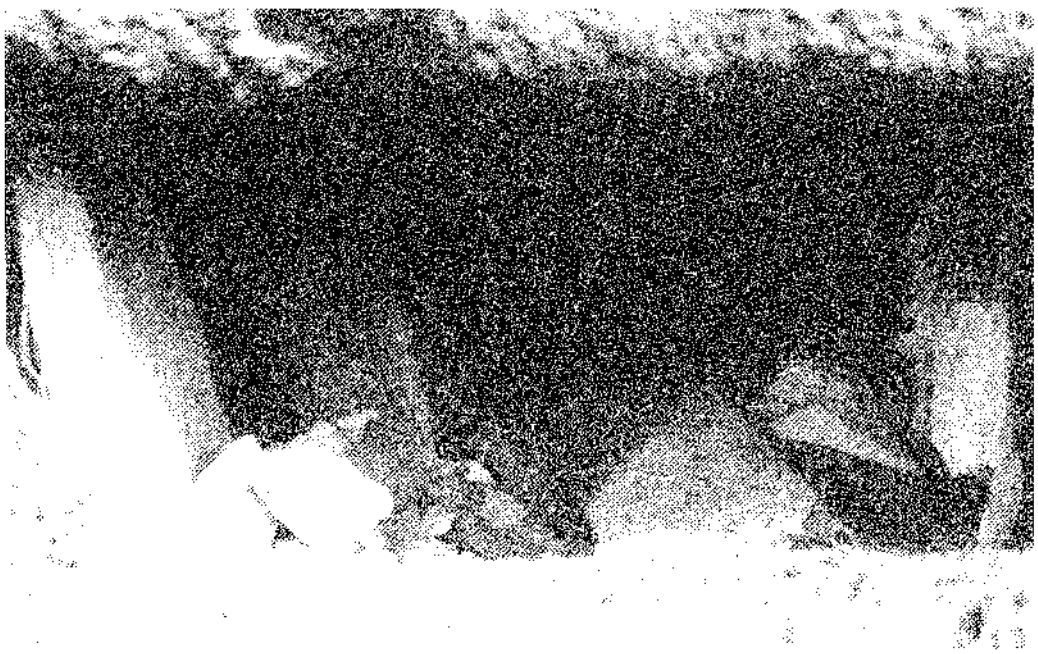
⑦ 동천진동 돈짓당



동천진동 돈짓당

돈짓당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잘 정돈된 당으로 영등굿을 하는 당이다. 도항선이 다니는 포구 동쪽 200m지점 바닷가에 울타리를 둘렀으며 들도 만든 궤 속에 지전과 물색이 있고 돌문을 닫아 둔다. 동천진동 돈짓당에는 이 돌집 안에는 日本의 '가미다나(神棚)'식으로 나무 판자를 가지고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赤·綠·黃 삼색의 물색을 백지 한 장으로 싸 접은 것을 7개 걸어 놓고 있다.

이 당은 주로 해녀들이 수강하여 다니는 당으로 매해 2월 15일에 영등제를 올린 연제로 지내며 이를 〈돈짓제〉라 한다. 특히 우도는 영등신이 떠나는 곳으로 2월 15일이 되면 모든 배의 도항과 출륙을 금한다. 짚으로 만든 배를 띄워 보내는 백중선이 끝나고 비로소 영등신이 섬을 떠나면 도항선의 출륙금지는 해제된다.



통천진동 돈짓당 궤안

□ 통천진동 돈짓제

제물로 메·시루떡·돌래떡·닭·술·채소류·五果 등을 마련하여 짚으로 만든 배가 준비된다. 이날 어부가 헤녀 특히 배를 부리는 집안에서 당에 와서 제물을 진설하고 심방은 요령을 흔들며 마을과 각 집안의 선박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한다. 기원이 끝나면 제물을 종이에 싸서 바닷가로 가 던지는데 '지 드린다'고 한다. 단골들이 행열을 지으며 바닷가에서 지를 드린 후 심방은 짚으로 만든 배에 각종 제물을 싣고 바다로 띄워 보낸다. 영등신은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다.

□ 말축굿

〈말축굿〉은 메뚜기의 번식으로 생기는 농작물의 蟲害를 막기 위한 굿이다. 이 굿은 30년 전까지 했으나 지금은 없어진 것이다.

〈말축굿〉은 메뚜기가 성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심할 때, 하우목동의 바닷가 '우묵개'에 있는 돈짓당에서 하였다. '우묵개'는 우도면의 모든 牛馬를 실어 내고 들이는 포구였으며 '우묵개'에 있는 돈짓당은 또 우도의 대표적인 돈짓당이었다. 돈

짓당의 신은 '돈자하르방·할망'으로 〈말축굿〉은 이 당신에게 기원하고, 메뚜기를 몰아다가 배에 실어 떠나는 보내는 굿이다.

돈짓당의 제일은 정월 14일과 7월 14일인데 이 때의 굿도 〈말축굿〉과 비슷하다. 굿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린다. 굿하는 날 아침에 상·하우목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도 각각 제물을 지고 돈짓당에 모여든다. 제물은 메 2器, 쌀 1되, 海魚, 술, 實果, 白紙 등인데, 어선을 부리는 집에서는 수탉을 한 마리 더 가져와 액을 막기도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당 앞에 제물들을 벌여놓고 심방이 굿을 시작하는데 굿은 다른 당굿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이 굿의 특징인 메뚜기를 몰아내는 굿 제차로 이어지는데, 수심방이 제장에서 '어떤 마소 어떤 마소를 아무개 테우리(牧童)가 몰러 갑니다'는 내용의 사설을 창하면, 무악기를 치던 小童들이 목동들이 분장하고, '멜망탱이(어깨에 메게 되어 있는 작은 멱서리)'를 메고 막대기를 들고서 '아무 소를 몰러 나간다'고 외치며 제장을 빠져 당의 양쪽으로 갈려 나간다. 한 쪽은 오른쪽으로 출발하여 상우목동과 천진동의 사잇길로 돌아 섬의 중앙 부분으로 나가고, 다른 한 쪽은 왼쪽으로 출발하여 하우목동의 변경을 돌아 섬의 중앙 부분으로 나간다. 그들은 손으로 닭을 끌며 '어어렁 떠어렁 어허허허' 마소 모는 소리를 해가며, '아무 마소가 내려간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걸어간다. 닭은 수탉이요, 노끈으로 산채로 코를 꿰어 그 노끈을 무명천으로 묶어 메고 그 무명으로 잡아 끌고 다닌다. 두 일행은 섬 중앙에서 만나 동네 안 길로 해서 제장이 있는 '우목개'로 돌아온다. 끌고 있는 닭은 털이 빠지고 거의 죽어 있다. 이 닭을 다리, 날개, 머리를 각각 산산조각으로 찢어서 바다에 던지고 나머지는 배에 싣는다. 배는 이미 짚이나 바가지로 자그마하게 만들어 두었다. 수심방은 "요건 쌀입니다. 요건 간장이고, 요건 소금입니다. 아무 테우리 아무 테우리, 어서 배에 올라서 마소를 싣고 가실소서." 하는 내용의 사설을 창하며 갖가지 제물을 조금씩 뜯어 싣고 여기에 닭도 싣고서 배를 먼 바다로 띄워 보내면 굿은 끝난다.[6]

6)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연평리 학술조사보고서」(탐라문화연구소편, 『濟州島部落誌』(3), 제주대학탐라문화연구소 1990), pp. 129~130.

제2장 漁撈民俗

제1절 머리말

牛島는 濟州島 본섬 동쪽에 위치한 섬이다(北緯 33도 29분 6초, 東經 126도 58분 3초). 면적 6.646㎢로 제주도 부속 도서 중에서는 가장 큰 섬이다. 행정상으로도 단일 牛島面을 이룬다. 섬 한가운데 면사무소와 학교 그리고 상가들이 있는 中央洞을 중심으로 하여 섬 둘레를 돌아가며 여기저기에 11개의 자연취락이 늘어서 있다. 바로 이 자연취락들은 하나의 漁撈共同體를 형성한다. 여성들은 나잠어업(무레질)으로 어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하여 생업에 도모하는가 하면, 남성들은 그 나름대로 바다에서 행해지는 생업들이 여러 가지 있다. 《牛島面誌》 편집체계상 해녀들에 따른 漁撈民俗이 따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 글은 남성들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어로민속 조사에 한했다. 조사 대상도 男性들 중심으로 행해졌다.

지금은 행해지지 않는 전통적인 어로민속은 간접조사에 의존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조사대상자들의 증언 내용을 녹음, 轉寫하여 기록했다.

牛島는 수산업법상 단일 구역의 1종공동어장이나 섬사람들 관습상으로는 바다밭을 11개 구역으로 나눈다. 上下古水洞은 두 개 자연취락이면서도 같이 바다밭을 갖고 있고, 西天津洞은 단일 자연취락이면서도 바다밭을 둘로 나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中央洞을 제외한 그 이외 지역은 자연취락 단위로 바다밭

을 공유한다.

우도의 자연취락별 家口·人口·漁村契員數 漁船 현황은 다음과 같다.

聚落別 家口·人口·漁村契員數·漁船 現況

里	자연취락	家口	人口		漁村契員		漁船
			男	女	男	女	
大津里	東大津洞	68	153	170	9	50	12
	西大津洞	71	160	178	1	32	
西光里	上牛目洞	30	69	66	3	23	
	下牛目洞	67	143	159	8	45	8
	中央洞	54	112	131			
五峯里	開興洞	42	86	110	7	34	10
	錢屹洞	45	98	117	6	33	10
	三陽洞	43	93	112	3	32	
	上古水洞	35	75	91	8	21	
	下古水洞	41	91	103	4	28	4
朝日里	飛陽洞	92	189	221	7	65	8
	迎日洞	63	131	151	6	50	
總計		351	1,398	1,609	62	413	52

제2절 漁撈環境

漁場·潮流·바람으로 나눠 牛島의 漁撈環境을 조사했다. 漁場 또한 남성 중심의 어로민속에 따른 어장과 여성 중심 어로민속(潛潛業)에 따른 어장이 다르다. 남성 중심으로 어로민속과 관련된 어장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어로환경 요인인 潮流나 바람도 어장 환경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가급적 漁撈共同體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했다.

1. 漁　　場

沿岸에서부터 바다 深海로 이어지는 線上에, 그 低質의 조건은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만큼 그에 걸맞는 海産物 자원도 다르다.

보통 '개又'(갯가)이라고 하는 연안 潮間帶에서부터 바다 깊숙한 곳까지 岩盤이나 돌덩이로만 깔려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연안에서부터 일정한 지점 線上까지 모래로만 깔려 있는 곳도 없진 않다. 또 沿岸은 돌로 형성되었으나 潮間帶를 넘어서면서부터 모래가 깔려 있는 곳도 있다. 일종공동어장 구역이라고 하나 돌덩이나 岩盤이 깔려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모래가 깔려 있는 곳이 있다.

아무튼 高潮線과 底潮線 사이 조간대 연안을 지나 일정한 線上의 지점까지, 돌이나 암반으로 깔려 있는 곳을 '걸바당' 또는 '어덕'이라 하고, 모래가 깔려 있는 곳을 '모살바당'이라 한다. 걸바다와 모래바다는 혼재해 있는 셈이다. 걸바다나 모래바다를 지나 연안으로부터 보다 深海에, 그 低質이 온통 펄로만 깔려 있는 곳이 있다. 이 바다를 '펄바당'이라 한다. 우도 사람들은 펄바다에서 전통적으로 어로활동을 펼쳐오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에 따른 漁撈慣行이나 기술이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에 이르러 下古水洞 일부 漁家에서 펄바다까지 어로활동을 나간다고 한다.

牛島는 섬 한가운데 자리잡은 中央洞을 중심으로 11개 자연취락들이 늘어서 있다. 자연취락들은 나름대로 沿岸의 일정한 海域을 나눠 갖는 漁撈共同體를 형성한다. 바다밭 나눔으로 자연취락들 간의 갈등 요인도 없지 않다. 중앙동을 중심으로 시계바늘 돌 듯, 자연취락별 海域과 그 안에 있는 바다밭인 어장의 이름을 살핀다.

東天津洞[1]

迎日洞과 分界点인 속칭, '보설통우지'에서부터 西天津洞과의 分界点인 '개올레'까지다. '개올레'는 바닷속으로도 이어지는 듯, 西天津洞 해역에 속한 '손지코서방여'와 東天津洞 해역의 '족은분여' 사이로 그 바닷속 밭이 모래로 깔린

1) 東天津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朴仁弘(남 · 70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곧은 이른다. 그 골은 바로 동서친진동간 바다 分界線을 이룬다.

보섭봉우지 : '보지'(狹)가 보습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牛島연안에서 가장 水深이 깊다. 수심이 깊으매, 상어를 잡기 위한 그물이나 주낙을 놓기도 했었다. 이곳에서 상어잡이도 했었다. 冬至 전후하여 내려지는 雨期인 속칭 '동지마' 동안이 상어잡이 漁期다.

보섭봉우지앞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보섭보우지뒷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살뒷인개샛봉오지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샛봉오지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밧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그 여 주위에, 그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밧여'와 그 밖에 있다고 하여 '배깟밧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고 하여 '가운덧밧여'가 있다.

주실머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장옥이아방여 : 장옥이 아버지라고 한 이가 자리를 잡다가 돌에 그물이 걸렸는데, 자리그물을 따라 당기다가 그물을 찢겨 버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여에는 특히 초봄에 자리가 많이 몰려들기로 유명하다.

돌락여 : 지난 날에는 볼락이 많이 서식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락여' 또한 그 앞에 있다고 하여 '앞여'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다고 하여 '뒷여'가 있다. 자리도 많이 서식한다.

민금이아방여 : 초봄에서부터 늦가을까지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지난날 牛島에 金肥가 보급되기 전에는 보리 거름으로 가장 좋은 藻草인 속칭 '실겡이뜸북' 自生地이기도 하다. 그 시절에 실겡이뜸북을 채취하는 데는 '줄아시'라는 커다란 낫으로 베었었다. 그 시절 민금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실겡이뜸북을 베기 위하여 '줄아시'라는 낫을 사용하다가 잃어버린 곳(여)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숨은여 : '민금이아방여' 동편에 위치한 여다. 자리가 많이 서식한다.

하늘의앞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돌텅머리(등덜) :

꼴정여 :

물깨니 :

새쌀맞인개 : 솔개(우도 사람들은 '춤새'라고 한다)가 서식하는 곳이다. 産卵期에는 그 새가 사나워져 사람이 접근해가면 부리로 쪼아버리는 수가 왕왕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쌀맞인개코지 :

西天津洞[2]

東天津洞과의 분계점인 '개올레'에서부터 牛目洞과의 분계점인 '냇골알'까지다. '개올레'는 서천진동 해역의 '손지고성방여'와 동천진동 해역에 있는 '족은듬여' 사이로 냇골을 이루며 바다로 이어진다. 두 여 사이 바다로 이어지는 냇골이 경계선이다. 그리고 상우목동과의 분계점인 '냇골알' 일대 연안은 모래밭이기 때문에 경계짓기가 그리 까다롭지 않다.

서천진동은 하나의 자연취락이면서도 '들엉코지'를 중심으로 바다밭을 다시 둘로 나눈다. '개올레'에서부터 '들엉코지'까지는 3·4班 사람들 바다밭이고, '들엉코지'에서부터 '냇골알'까지는 1·2반 바다밭이다.

손지고서방여 : 자리돔이 서식하는 여이기도 하다. 옛날 한 高氏 선조가 자그만한 배를 타고 어로활동을 하다가 배가 부숴져버린 여라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넙대기 : 넓적한 水中 여다. 滿潮가 되면 수심 2~3m쯤되나 干潮 때에는 모습을 살짝 드러내기도 한다. 풋도 자라고, 자리돔도 서식한다.

시뭇물 :

빅개통 : 장마 동안에 상어 산란장이었다. 그때는 손쉽게 산란하러 온 상어(빅게)가 손으로도 잘 잡혔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혹통알 :

진여 :

진개뜰여 :

2) 西天津洞의 마을별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金源旭(女·66세)·金恒子(女·51세)씨의 도움이 컸다.

들엉크지 : 서천진동 내에서 바다밭을 분계하는 분계점이 되는 곳이다. 일명 '들어온코지'라고도 한다. 牛島에 入耕하기 위하여 맨처음 들어온 사람이 첫발을 내딛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방앳여 : 돗은 자라지 않으나 우뭇가사리는 자라는 수중 여다(우뭇가사리는 水深 5m 前後에서 자란다).

* 여가 영 수랑ᄒᆞ디(이라 갸륵한데), 가운디가 복지난 방엣귀(절굿공이) 닮댄해연 방앳여 〈西大津洞 金連培〉.

좃인여 : 썰물일 때는 모습을 드러내는 水中 여다. 자그마한 수중 여가 촘촘히 네 개가 한데로 모여 있다.

쏠지미 : '좃인여'에서부터 바다쪽으로 70여m 나간 지점에 있다.

바당여 :

납제기여 : 넷골알에 있는 여로 돗도 자랄만큼 조금만 썰물인 때도 모습을 드러낸다.

똥내미구석 : 西天津洞 포구 일대다. 우도 내에서도 風藻가 가장 많이 떠밀려드는 바닷가로 유명하다. 서천진동 1·2반 바다밭 연안에 떠밀려드는 풍조의 95%는 집중적으로 이곳으로만 몰려든다고 한다.

* 샛ᄇᆞ름(東風)만 불민 궂인 건 그디 다 올릅니다. 온 쓰레긴 다 둥글어 옵내다. 우미·감태도 하영(많이) 올라오곡. 우리 동네 사름덜 직장이 바로 이 '똥내미구석'이우다 〈西大津洞 金恒子〉.

* 썩으민 그 냄새가 오작ᄒᆞᆫ 거꽈(오죽할 겜니까). 게난 '똥내미구석'이랜 ᄒᆞ곤낭이라. 우리 동네 비당이 족으난 요왕(龍王)님이 다 이레만 저두와불이는 겁주 〈西大津洞 金連培〉.

上牛目洞[3]

東天津洞과의 分界点인 '넷골알'에서부터 '듸셍이코지'의 '떡개'까지가 上牛目

3) 鄭學俊(男·93세) 金泰順(女·89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洞의 해역이다. 上牛目洞 북쪽으로의 분계점은 지금의 '득생이코지'에서 남쪽 약 50m지점까지였다. 상우목동에서 포구를 만들기 위하여 직선 거리로 5m 정도 하우목동 해역이 필요했다. 上牛目洞에서는 그것을 받고 '득생이코지' '남덕여'로 분계점을 내줘버렸다.

* 성창 안다운 땐 그 '구린질목' 알꼬진(밑까지는) 우리 바당이라십주게. 우리 바당인디 족은모실냇기에 성창 멘들아낫는디 헤크라져브난 멘들다가 없단 말이우다. '구린질목알'에 성창을 만들잰 ᄒᆞ난 하우목동 바당이 ᄒᆞ쏠(조금) 필요 해연 성창은 우리가 ᄒᆞ쿼 구린질목알 바당은 해 먹어불랜(먹어버려라고) 〈上牛目洞 鄭學俊〉.

냇골알 :

큰모실냇기 : 白沙場이 보다 드넓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왕모실냇기 : 보다 큰 모래자갈돌인 '넓메역작지'가 많이 떠밀려오는 바닷가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족은모실냇기 :

고등여불턱 :

고등여 :

너븐너릐 :

똥싼지미 :

* 줌수(潛水)덜이 물건 태레 간다(따러 갔었는데) 짚어노난 물엣 거 해영 나오멍 똥싸벗댄 해연 〈上牛目洞 鄭學俊〉.

* 거기 여 서너게 잰잰ᄒᆞᆫ 거 잇우다. 해녀덜 눔에 듣언 나오멍 숨 다 먹언 똥싸나브난 '똥싼지미'엔 ᄒᆞᆯ네다 〈上牛目洞 金香順〉.

수또지미 :

감태뿌리 :

下牛目洞[4]

上牛木洞과 分界点인 '득생이코지'의 '남덕여'에서부터 周興洞과 분계점인

4) 下牛日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鄭贊景(男 · 74세) · 金千能(남 · 74세) · 金千喜(남 · 58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북돌코지'까지가 下牛目洞 海域이다. 양쪽으로 나눌 '分'자를 암반 위에 새겨 분계점을 식별한다. 周興洞과 분계점을 識別하는 방법은 돌보인다. 나눌 分 字 위에 선을 그어놓고, 다시 바다쪽에는 금이 번듯한 돌덩이를 세웠다. 북쪽을 향해 있다는 의미에서 '북돌'이라 한다. 分 자 위에 새겨진 일직선과 북돌의 일직선을 따라 바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이다. 일직선은 최종적으로 제주도 본섬의 '행원코지'와 연결되게 되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周興洞 高應秀씨 談).

下牛目洞의 海域은 伸縮의 역사를 갖고 있다. 上牛目洞쪽 해역으로는 늘어났고, 주흥동쪽으로는 줄었다. 득생이코지 남쪽 약 50m아래까지 였다. 그런데 지금의 분계점으로 고정됐다고 한다(오영돈씨). 상우목동 해역에는 배를 정박시킬 만한 포구가 없었다. 어멸시리 포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선거리로 5m 정도의 하우목동 해역이 필요했다. 바로 그 해역을 상우목동 사람들에게 양보해주는 조건으로 직선거리로 약 20m 정도의 해역을 하우목동 사람들에게 줘 버린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득생이코지'다. 하우목동 사람들은 상우목동 사람들에게 해역을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 되어버렸다.

득생이코지 : 상우목동과 分界点을 이루는 곳이다. 우도에 入耕이 허락되기전에 '득생이'라는 牧者가 집을 지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주위에 우물을 파서 먹으며 살았다는 '득생이물'은 지금은 메워져 버렸다.

우뭇개 : 하우목동 해안 境上에 위치한 옛 포구 이름이다. 지금의 포구 바로 인접하여 그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지금 동네 이름인 '牛目'도 바로 이 이름, '우뭇'에서 말미암은 듯하다.

개창 : 우뭇개로 들어오는 뱃길의 목이다. 포구의 입구, 곧 窓이었다는 의미(?)를 갖는 듯하다.

진여 : 포구로 들어오는 길목에 기다랗게 놓여 있는 여다.

방잇여 : 방아처럼 둥그렇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여의 이름이다. '우뭇개' 옆으로 지금의 포구를 新築하면서 그 여를 發破해버려 지금은 자취도 없어졌다.

마뉴름개 : 하우목동의 신축된 포구 이름이다. 이 포구는 마파람(南風)이 의지되는 포구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따니여 : '옷'이라는 바닷 말매기가 많이 몰려드는 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신축된 포구의 防波堤는 바로 이 '오따니여'를 의지하여 축조되었다.

사우통 : 지금 포구 물양장 자리다. 지난 날에 낚시 미끼로 이용되었던 새우('사우')가 많이 잡히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샛모살개 : '우뭇개' 근처 연안 이름이다.

안조랑개 : '우뭇개' 근처 연안 이름이다. 지금은 매립되어 버렸다.

장통알 : '우뭇개' 북쪽 연안 이름이다. 이렇게 命名하게 된 배경이 전해진다.

* 장통이라는 것은 옛날 이 섬이 목장지(牧場地)지요. 사름도 안 살고 쇠물반 질렀지(길렀지). 옛날엔 포구도 어섯고(없었고). 여기 '장통알'이란 대가 수심이 좀 깊었던 모냥이지. 옛날에 배가 와서 우마를 실어날을려 ᄒᆞ면은 돌팍구가 만ᄒᆞ니 쇠물덜이(많으니 소말들이) 다리가 상ᄒᆞᆯ런지 모르니까 장통을 발에 끼와서 쇠나 볼을 배에 실렀다고 해서 '장통알'이라 했다 말이우다. 그래서 우리가 풍설(風說)로 듣진다는 '장통알'. 돌아가신 영감님덜안티 들은 말이라 〈下牛目洞 鄭贊景〉.

우벙에알 : 禹氏 先祖가 살았었다고 전해지는 집터 바로 아래쪽 연안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임춘이강알 : 포구 북쪽 연안 이름이다. 임춘이는 사람 이름이고, '강알'은 두 다리 사이인 살의 제줏말이다. 그렇게 命名되게 된 사연이 전한다.

* 옛날 임춘이옌 ᄒᆞᆫ(임춘이라고 하는) 사름이 상점을 ᄒᆞ난 모냥이라. 그래서 배를 해여서 성산포(城山浦) 가서 물건을 떼어 범ᄉᆡ 들어오다가 이거 포구다 해여가지고 들어오다가 배가 부서졋던 모냥이라. 그래서 이름을 '임춘이강알'이라고 이름을 지와 분거라(지워 버린거야). 그디가 하늬ᄇᆞ름(西風) 치면은 행펜이 사나운디라 〈下牛目洞 鄭贊景〉.

번지여 :

장반여 :

섬여 :

넙메역작지왓 : 下牛目洞 경 1종공동어장 구역을 벗어나 濟州 本島보다 가까운 終達마을 가까이까지 질펀하게 넓미역(廣葉)이 자생하는 바다가 펼쳐진다. 廣葉은 '넙메역작지'위에서 자생한다. 이 일대를 두고 '넙메역작지왓'이라 한다. '작지

왓'은 자갈밭이라는 말이다. 더하여 문어 서식처이기도 하다. 이 바다밭을 토대로 넓미역(廣布)을 채취하는 일과 문어를 낚는 漁撈技術慣行이 전승되어 왔다.

周興洞[5]

下牛目洞과 分界点인 '북돌코지'에서부터 錢乾洞과 분계점인 '물코'까지가 周興洞 해역이다.

고에물 :

산물통 : 우도에서는 드물게 해변가에 산물(살아 있는 물?)이 솟는 곳이다.

당알 : 神堂이 위치한 그 아래쪽 해안가다.

족은원 :

청년원 :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에 이 동네 청년들이 원담을 쌓아 그 안에 몰려든 멸치를 青年들 스스로가 잡아 청년회 공금으로 마련했다는 데서 붙여진 원(垣)이름이다.

족은구미 :

실겡이듬북밧 : 金肥가 보급되기 전에 보리밭 거름으로 가장 愛用되었던 '실겡이'라는 海草가 자생하는 바다밭 이름이다.

周興洞 연안 潮間帶에는 어느 정도 돌바퀴로 이뤄졌으나 底潮線을 벗어나면 온통 바다 밑은 모래로만 깔려 있다. 모래바다를 조금 지나서 '실겡이듬북'(海草) 바다밭이 나올 정도로 1종공동어장 구역은 주로 모래로만 깔려 있다. '실겡이듬북'도 金肥가 보급되기 전이라면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었겠으나 지금은 아무 가치가 없다. 때문에 극성스레 '실겡이듬북'을 채취하는 일도 없다. 모래로만 깔려 있는 바다에는 현재 換錢 가치가 높은 海産物(우뭇가사리 · 뜻 · 전복 · 소라 · 해삼 등)들은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周興洞 사람들은 물론 이 일대 이웃 동네 사람들 간에 바다밭으로 인한 갈등 요인이 된다.

金肥가 우도에 보급되기 전, 실겡이듬북이 없이는 보리를 耕作할 수 없던 시

5) 周興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거주하는 高應秀(남 · 59세)씨와 尹能洙(남 · 56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철에는 周興洞을 비롯한 인근 錢屹洞이나 三陽洞은 지금 주흥동 해역에 있는 '실겡이듬북밧'에서 해초를 베어다가 보리밭에 거름을 취야 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겡이듬북은 지금의 換錢 가치가 높은 우뭇가사리나 소라 전복에 못지 않았다. 주흥동 해역의 실겡이듬북은 지금에 이르러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또 래바다가 많아 換錢價値가 높은 해산물도 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실겡이듬북이 나지 않던 전흘동과 삼양동 해역은 지금에 이르러 換錢가치가 드높은 해산물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되어 버렸다.

지금에 이르러 세 동네 사이에 그 갈등을 해소하는 智慧가 나타난다. 그것은 세 동네 간에 바다밭을 합리적으로 共有하는 것이다.

周興洞은 행정단위상 가장 작은 단위인 네 개의 반(班)으로 나눠져 있다. 주흥동 漁撈공동집단이 공동으로 채취하는 돗은 주흥동 해역에서만 행한다. 1종공동어장의 低質이 거의 모래로만 깔려 있는 주흥동에는 개별적으로 채취 대상인 우뭇가사리나 해녀들의 주채취대상물인 전복 소라가 그리 많지 않다. 우뭇가사리는 얼마 동안 금지했다가 일정한 기간에 그 채취를 허가하는 '許採' 기간에만 채취하고, 소라 전복은 해녀들이 수시로 채취한다. 이를 '헛무레'라 한다. 자원이 빈약한 주흥동 해녀들은 우뭇가사리와 소라 전복을 그들 해역인 周興洞 바다는 물론 이웃 전흘동과 삼양동으로 나눠 가서 채취한다. 그것도 錢屹洞이나 삼양동에서 마을 공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名目으로 구획된 속칭 '기성회바다' 이외의 해역이다. 논의의 편의상 그 이외의 해역을 '공동바다'라 해두겠다.

錢屹洞[6]

下牛日洞과의 分界点인 '물코'[7]에서부터 이웃 三陽洞과의 分界点인 '불선원'까지가 錢屹洞 해역이다.

기성회바다[8] : '물코'에서부터 '새비듬여'를 포함한 '새비코지'까지 해역이다.

6) 전흘동에 거주하는 金광善(男·56세)씨의 도움으로 조사했다.
7) 주흥동과 錢屹洞 사이에 바닷물이 물으로 들어와 하나의 沼를 이루는 곳이 있다. 이를 두고 '듬벙'이라 한다. 바로 이 듬벙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을 '물코'라 한다.
8) 牛島에서 '기성회바당(바다)'이라는 말은 마을 공동 해역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그를 힘으로 그들 전용 漁口를 築造하자는 취지에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이 해역에서 자라는 우뭇가사리(天草)나 톳은 전흘동 어로집단 공동으로 채취하여 집단 공동기금으로 삼고, 부정기적으로 해녀들이 주로 전복이나 소라를 따는 '헛무레'는 전흘동 거주 해녀들만의 바다밭이다. 한 제보자(주흥동 거주 尹能洙) 씨는 '기성회바다'를 다음과 같이 말해줬다.

> * 옛날은 그 축항(築港)을 동네 자체로 만들아십주, 동네 사름덜이. 그렇게 해보니 그 돈이 없으믄 안되어마씀. 그러니까 바다를 끊어가지고 아줌마덜이 불건을 캐어도 동네에서 관리하는 거라마씀. 동네에서 호당(戶當) 혼 사름이민 혼 사름, 두 사름이민 두 사름 나와가지고.
>
> 그 바당에서 나온 천초(天草)혼고 ᄀᆞ익(가에) 나는 톳을 풀앙(팔아서) 동네 공금으로 잡는 거라마씀. 지금도 마찬기지우다. 다 부락마다 기성회바당이 잇잖우꽈(있잖습니까). 그러니 그 바다는 딴(다른) 부락의 해녀덜이 와서 침일을 못홉주 〈屈興洞 尹能洙〉.

여기서 '딴 부락'이란 錢乾洞이나 三陽洞 입장에서보면 屈興洞의 해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공동바다(박머리) : '새비코지'에서부터 三陽洞과 分界点인 '물썬원'까지의 해역이다. 전흘동 어로집단 공동으로 채취하는 톳은 전흘동 어로집단만이 공동으로 채취하나 일정한 기간에만 채취가 許容되어 개별적으로 채취하는 우뭇가사리와 부정기적으로 채취하는 해녀들 '헛무레'는 전흘동에 거주하는 해녀와 주흥동의 3, 4반 해녀들의 어장이다.

또 이 해역을 두고 '박머리'라 한다. 우도에서도 가장 潮速(물발)이 느센 곳. 때문에 조속이 센 곳이라 '저립'(재방어) 漁場이기도 하다. 해녀들도 물발이 어느 정도 느슨한 조금 동안에만 '무레질'(해녀작업)이 가능하다. 대신 干滿의 차가 심한 '웨살' 동안에는 보다 潮速이 느슨한 '물코'에서부터 '새비코지'까지의 해역인 기성회바다에서 작업한다.

박머리 해역 내에는 자리 서식처인 '자리밧'이 두 군데나 있다. 이곳 또한 潮速이 어느 정도 느슨한 '조금'기간 중에서도 썰물이 어느 정도 느슨해질 때만 자리잡이를 고집한다.

박머리여 : 2~4척의 배를 세워 자리그물 2~4個網을 드리울 수 있는 크기의 여다.

닷다니여 : 한 척의 배에서 자리그물 하나만을 드리울 수 있는 크기의 자리밭이다.

새비코지 : '새비튼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코지'(岬)다.

소금밧 : '새비코지'에서 물쪽, 바로 남서쪽에 위치한다. 조금은 옴폭 패인 듯한 2백여평 정도의 岩盤이다. 지난 날 이 암반에 바닷물을 가둬놓아 소금을 만들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명 '꼴대밧'(갈대밭)이라고도 한다. 소금을 생산하지 않게 되자 한때 바닷물에서도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 '갈대'들이 있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비튼여 : '새비코지'에서 떨어져나간 듯이 수중에 타원형으로 놓인 暗礁다. 어느 정도 썰물이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여'를 중심으로 하여 천초나 톳 등의 해조류는 물론 어패류 그리고 그 주위 동북쪽에 자리 서식처인 '자리-밧'이 다섯 군데나 줄줄이 있다.

① **넙덕여** : '넙덕여뒷흑'과 '반넙덕여' 두 곳으로 나뉜다.

② **탓여** : 다섯 개 자리서식처(자리밧) 중 가장 深海쪽으로 밖에 위치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 **샛여** : 다섯 개 자리서식처 중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④ **두린새비여** :

⑤ **문하르방여** : 자리서식처(자리밧)를 이리 命名하게 된 배경이 전한다.

* 원래 요 동네 살았던 옛날 하르방인데 그 하르방이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지은 모냥이라마씸(모양입니다). 지금 살아 계셨으면 백오십세 정도 〈錢屹洞 金君善(남, 66세)〉.

이들 다섯 군데 자리서식처인 '자리밧'은 一個의 자리網만 드리우면 좋을 정도의 자그마한 수중 암초들이다. 물때(무수기)를 가리지 않고 다섯 군데 모두 썰물潮速이 어느 정도 느슨한 때를 택하여 그물을 드리운다. 이처럼 썰물이 급하게

흐르다가 어느 정도 潮速이 완만해지면서 느슨해지는 순간을 '썰물꽂입'[9]이라 한다. 자리그물을 드리우는 데는 바로 그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 뭍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그 위치를 찾는다. 다섯 군데의 자리발은 주로 마을의 집들을 이용한다. 이처럼 마을의 집들만을 지형지물로 이용하여 가늠함을 '부옴가늠'이라 한다.

감태구미 : 북풍이 불어대면 돌이나 암반에 붙어 서식하고 있던 감태가 저절로 떨어져 밀려드는 해역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미'는 일정 구역의 해역을 의미하는 말인 듯하다. 이웃 飛陽洞에서도 확인되었다.

뜰벙 :

통치코지 : 지난날 돔의 일종인 '통치'를 낚던 '코지'(岬)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 66세된 한 제보자(金君善)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 20세까지만 하더라도 낚시에 문어를 한 마리 끼워 던져내 버리면 10여킬로나 되는 돔들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돌썬원 : 이웃 三陽洞과의 분계점이면서, 담을 축조해 놓고는 밀물 따라 몰려든 고기떼들을 가둬잡았던 원이 있던 자리다. 지금도 그 담을 축조했던 흔적은 남아 있다.

똔겔 : '똔'은 다르다의 뜻을 갖는 제주말 '똔나다'의 어간이고, '겔'은 바다의 低質이 돌덩이나 암반으로 깔려 있는 바다밭인 '걸바당'의 줄임말이다. 물해변에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지는 線上에서 해변의 걸바다를 지나 자갈이나 모래자갈밭으로 이어지고 한참 심해로 나가다가 우뚝 외딴 수중 암초인 여가 돌출되었다. 한 제보자(김순선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외딴 여는 타원형으로 생겼고, 한 200여평은 남짓할 것이란다. 보다 바다쪽에 있는 외딴 여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기들이 많이 서식한다. 線上의 지형지물을 가늠하며 그 여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여에서 어로(주로 낚시어로)작업이 가능하다.

---

9) '썰물꽂입'에 대한 金君善(남 · 65세)씨의 설명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 썰물 탁 나가다가 자갈 데. 물 순환이 아주 저하(低下)되어갈 때를 '썰물꽂입'이라고 함주 〈錢旺洞 金君善〉.

三陽洞[10]

錢乾洞과 分界点인 '물썬원'에서부터 上下古水洞 분계점인 '늙은이물코지'까지가 三陽洞 해역이다. 이 공동어로집단 해역 또한 周興洞과 관계에서 기성회바다와 공동바다로 나뉜다.

기성회바다 : '물썬원'에서부터 '꿀정여'까지다. 이 해역에서 자라는 우뭇가사리(大草)나 톳은 三陽洞 어로집단 공동으로 채취하여 집단 공동기금으로 삼고, 삼양동 해녀들만이 부정기적으로 전복이나 소라를 채취하는 '헛무레' 바다이기도 하다. 이 해역은 潮速이 보다 드센 곳이라, 干滿의 차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조금 기간(아끈조기 · 한조기 · 흔물)에 '헛무레'를 하고, 干만의 차가 보다 심한 그 나머지 날에는 공동바다에서 周興洞 1, 2班 해녀들과 함께 헛무레를 한다. 삼양동 해녀들이 기성회바다에서 헛무레를 하는 동안에는 주흥동 1, 2반 해녀들은 자기네만 삼양동 공동바다에서 헛무레 작업을 하지 못한다. 그 동안에 주흥동 1, 2반 해녀들은 작업을 포기하거나 보다 해산물이 풍부하지 못한 주흥동 해역에서 작업을 한다.

공동바다 : '꿀정여'에서부터 상하고수동 분계점인 '늙은이물코지'까지 해역이다. 톳은 삼양동 어로집단만이 공동으로 채취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채취를 허용하는 우뭇가사리와 不定期 개별적으로 해녀들이 소라 전복을 채취하는 '헛무레'는 三陽洞에 거주하는 해녀와 주흥동 1, 2반 해녀들 어장이다.

자락머흘깍 :

뭔여 : 자락 가까이에 있는 水中暗礁인 여다. 滿潮 때에는 안보이나 干潮에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이까라여 : '답다니'와 '자락' 사이에 있는 수중 암초인 여다.

답다니 :

허트방여 :

독여 :

10) 三陽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金財秀(남 · 51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펭풀개 : 썰물이 되면 그 일대가 마치 屛風을 둘러놓은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앞개 :

멩주할망여 : 옛날 멩주 할머니가 그 여에만 가서는 즐겨 우뭇가사리를 채취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늙은이물알 :

늙은이물코지 : 이웃 상하고수동과의 분계점이 되는 '코지'(岬)다. 바로 이 코지의 돌출된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바다쪽으로 '새강알여', 다시 바다쪽으로 '난여'가 놓였는데, 세 지점의 일직선을 기준하여 分界된다. '난여'는 가장 干潮 때에만 모습을 드러낸다.

上·下古水洞[11]

上古水洞과 下古水洞은 두 개 自然村落이면서도 바다밭은 하나다. 포구 또한 한 군데로 같이 이용한다. 三陽洞과 分界点인 '늙은이물알 큰개코지'에서부터 飛陽洞과 분계점인 '불코동산'까지가 상하고수동 바다밭이다. '늙은이물알코지'에서부터 수중 여인 '난여' 동쪽 海底 '모살통'을 기준하여 경계 삼고, '물코동산'에서 '몰래통바위'를 기준 삼아 바다밭을 나뉘었다.

늙은이물알 : 現인 '큰개'와 '돌렝이덕'까지 해안 이름이다.

큰개 : 堰이 있었다. 지금은 원담이 헐어져 버렸다.

돌렝이덕 : 해녀들이 작업하고 나와 언 몸을 녹히던 '불턱'이 있던 곳이다.

난여 : 밀물 때 자리돔 어장이기도 하다.

족은여 : 밀물 때 자리어장이기도 하다.

숨은여 : 썰물 때 자리어장이기도 하다.

굴은여 : 썰물 때는 모습을 드러낸다.

먹돌개 :

엥목애 : '앵목애원'이라는 堰이 있었다.

11) 上下古水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金允一(男·79세)씨와 尹奉春(男·62세)씨의 도움에 의했다.

진코지동산 :

물여 :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들이 자란다.

샛개 :

앞개 :

방앗여 : 샛개와 앞개의 경계를 이루는 여다.

성창돗강 :

오분작여 :

박하르방개 :

개막동산 : 일명, '명군 장군'이라고도 한다.

이왕밋이코지 : 지드리는 동산.

셍독통알 :

샛모살 : 間石이 놓인 동쪽 일대의 白沙場.

큰모살 : 간석은 기준하여 서쪽 일대 白沙場.

모살문여 : 썰물 때는 모습을 드러낸다.

뭉게여 : 멸치어장이 형성되었을 때 그물이 잘 찢기는 곳이기도 했다.

셍벵터 : 물코동산 윗쪽 일대.

돌골랑여 :

전여 :

개와당 :

똑진개모릇(여) :

등상여 :

터웃개 :

산물통 : '예불동네'(古水)라는 동네 이름이 이 물에서 비롯되었다.

飛陽洞[12]

이웃 上下山水洞의 분계점인 '첫모살'에서부터 迎日洞과의 분계점인 '김동산'

12) 飛陽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康基鉉(남 · 65세) 李成雨(남 · 58세)씨의 노움에 따랐다.

까지가 비양동의 해역이다. '섯모살'에서부터 '검동산'까지 차례로 바다밭 이름을 알아본다. 현재 '검동산'에는 迎日洞과 분계점을 구분하기 위하여 암반에는 '分'자가 陰刻되어 있고 그 기준점이 되는 말뚝도 박혀 있다.

수눅바위개맛 : '개맛'은 포구의 토박이말이다. 지난 날 상하고수동과 비양동 사이에 질펀히 깔려 있는 모래밭에서는 멸치를 잡기 위한 마을 공동의 후림그물이 성행했었다. 그 백사장을 두고 흔히 '개와당'이라고 했다. 바로 그때 이용되었던 옛 포구 이름이다. 지금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덕돌개 :

개두멩이여 : 해산물은 커녕 어로활동상 장애가 되는 암초다.

* 여기는 톳도 안납니다. 미역나냑 ᄀᆞ뜩만(같으면) 파바처럼 눈에 가심주. 배들어오는디 장애만 되는 검주. 파도가 치민 여기서 파도가 랑이 입주. '안비양'을 놀아가지고 배가 들어와야 한다 말이우다. 갈치 낚앙(낚아서) 들어올 때도 뭣ᄒᆞ민 이디서 배가 다치기도 ᄒᆞ곡. 이거 이수 골차아픈…〈飛陽洞 康基鉉〉.

두리성창 : 비양동 앞에 있는 섬이다. 그 섬을 干潮에 관계없이 드나들 수 있게 다리를 놓았다. 바로 그 다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 엣날에 반조가 되민 어려와도 간조가 되만 사름이 왓다갓다 해난 모양이라마씀(모양이지요). 우리 어렷을 때 우섯 일곱 그쯤 햇는가, 그때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두리성창'을 만든 검주(게지요). 그래서 불이 들거나 싸거나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잇엇던 검주 〈飛陽洞 康基鉉〉.

섯배수 :

동배수 :

한와지 :

한외지원 : 돌담을 쌓아 놓고 밀물따라 몰려든 고기떼들을 썰물이 나면 가둬놓아 잡는 원이다.

서뚱더흘원 :

동뚱더흘원 :

불락통 :

오다리 : '오다리'는 바다 갈매기 일종의 이름이다. 오다리가 많이 몰려드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다리둔여 : '오다리'에서 따로 떡 떨어진 여.

동뚱머흘 :

서뚱머흘 : '동뚱머흘'과 '서뚱머흘' 사이에 동서로 조류가 드세게 흐르기 때문에 품질좋은 풋이 자란다.

벌러진여 :

모살비양 :

볼래낭알 : 보리수나무가 자라는 일대 아래쪽 해안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볼래낭알원 : '볼래낭알' 일대의 '원'(亘).

진코지 :

장수발자국알 : 해안 岩盤 위에 천연적으로 말발굽처럼 패인 곳이 있는 해안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옷앉는봉우지 :

터옷개 : '해우'를 많이 매었다는 데서 붙여진 마을 바로 앞 포구.

먹돌개 :

곶인물통알 : 지난 날 마소 먹이용 물과 빨래터가 있던 물통 아래쪽 해안가라는 데서 붙여진 바다밭 이름이다. 동풍(샛부름)이 불면 각종 해조류들이 바람에 떠밀려 온다.

번난지개 : 강풍으로 일어나는 파도에 뜻전다어 돌에 붙어 있던 여러가지 해조류들이 떨어져 떠밀려 오는 것을 '번난지'라 한다. 곧 '번난지'가 곧잘 밀려드는 살짝 灣을 이르는 듯한 곳인 포박이말 '개'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른바위 : '주른'은 '짧다'의 뜻인 토박이말 '좁다'의 어간인 듯싶다. 다음의 증언에서 짐작컨대, 물발이 그다지 세차지 못한 곳이라 자잘한 돌이 자라는 바위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이 바다밭에서는 飛陽洞 공동어로집단의 한 변천사를 들춰볼 수 있었다. 한때

는 동네일을 보는 洞長과 班長 보수로 바다를 주기도 했다가 또 일부 동네 사람들에게 그 일대를 파는 賃貸관행도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동네 청년들로 하여금 그 일대에서 서식하는 톳을 채취토록 하여 스스로 청년회 자금을 마련케 동네에서 배려해주기도 했던 곳이다. 바로 그 당시에는 이 바다밭 이름을 '청년바당'이라 했었다.

* 우리가 흔 스무 멧솔 때꼬지는 '주룬바위'에 톰(톳)이 출고, 물발이 엇기(없기) 때문에, 얼마 나지도 아니ᄒᆞ고 ᄒᆞ니까 동네에서 동장(洞長), 반장(班長) 보수로 바당을 줘버렷다 말이우다. 다음은 이것을 몰아가지고 멧 사름이 사서 해먹다가, 청년회 주문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먹으랜 줘 버리기도 해낫고. 이젠 톨이 잘 안나마씀 「飛陽洞 康基鉉」.

산물통듣산알 : 牛島에서 유일하게 생수가 조금 나와 물통을 이루는 곳 밑 해변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쫄락코지 :

똥내미여 : 자리그물 7~8척을 동시에 드리울만큼 제법 큰 水中 여다.

돌물머리 : 자리그물 7~8척을 동시에 드리울만큼 제법 큰 수중 여다.

너븐지 : 飛陽洞 해역에 있지 않고 영일동 해역인 등대 밑에 있는 자리밭이다. 이곳은 潮速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간만의 차가 느슨한 조금(조금사리)에만 자리를 잠을 수 있다. 우도 동쪽 연안 어로집단민들 중에서 비양동 사람들이 보다 자리잠이에 극성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곳까지 出漁했었다 한다.

迎日洞[13]

너븐구미 : 海域(구미)이 조금은 넓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는여 : 썰물이 나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은구미 : 屍身들이 잘 떠밀려드는 해역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살개 : 영일동 포구 일대 바다밭 이름이다.

젱빋여 :

13) 迎日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吳成華(남 · 59세) 金準澤(男 · 58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청삽빌레 :

먹돌개 :

뒷새비 : '뒷새비코지'에서부터 '산바우'까지 바닷가 이름이다.

옷앉는여 :

산바우 :

거멀레 : 검은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바닷가.

신문 : 石壁이 新聞을 펼쳐 든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검은콧구멍 :

붉은콧구멍 :

진빌레 :

서우통 : 겨울 동안에 상어그물로 상어를 잡았던 곳이다.

돌렝이 :

선돌 :

가메혹 :

절테 :

너른지 :

밧여 :

섭여 :

족은섭여 :

2. 潮　　流

漁撈民들은 그 지역 조류를 철저히 認知하고 있어야 한다. 나잠어로를 펼치는 해녀들도 같은 海域이라고 하나 干滿의 차에 따라 入漁하는 장소를 가린다. 錢岐洞 나잠어로집단 해녀들의 경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간만의 차가 보다 심한 '웨살' 때에는 기성회바다에서 그리고 간만의 차가 보다 느슨한 조금 전후로는 '박머리' 연안에서 작업을 한다. 남성들에 의하여 펼쳐지는 어로작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썰물에 자리를 잡는 어장이 있는가 하면, 물들에만 자리를 잡는 곳도 있

다. 어떠한 어로 행위에서건 潮流를 철저히 認知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필자는 우도에서 특이한 潮流 現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도 섬 전체적으로 볼 때, 썰물은 서에서 동으로, 밀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름이 일반이다. 그런데 썰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빼어나게 돌출된 '코지'(岬)에 부딪고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逆流하는 곳이 있었다. 이와같은 현상의 逆潮流를 '돌런지'라 한다. 조류가 일정 지역에서만 역류하는 '돌런지' 현상은 우도 전체적으로 두 군데, 우도 남쪽 북쪽 연안에서 일어난다.

우도 남쪽 연안 돌런지

우도 남쪽 연안 돌런지 현상은 썰물 때 서에서부터 동으로 흐르는 썰물이 남쪽 연안 중 가장 돌출된 속칭 '보섬봉우지'에 와서 닿으면 일정한 곳까지 逆流하다가 다시 合水되면서 되흘러간다. 돌런지 현상이 일어날 때만을 골라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 어장(여)이 있기도 하다.

* '돌런지'에 혼 디가 자리 젤 하영 거립네께('돌런지'라고 하는 데가 자리 제일 많이 거립지요) 말 그대롭주. 돌아오는 물입주게. 썰물이 서에서 동너레 내려오는 물이 젤로 영 내려오다가 '보섬봉우지'에 왕 탁 다이민(닿으면) 다시 물이 올라옵네께. 올라갓당 내려오는 물에 합수(合水)되영 내려가곡. 그뭇(남)이 보입네다 〈東天津洞 申仁弘〉.

우도 북쪽 연안 돌런지

우도 북쪽 연안 돌런지 현상은 썰물 때 서에서부터 동으로 흐르는 물이 북쪽 연안 중 돌출된 속칭 '안비양'까지 흐르다 와닿으면 일정한 곳까지 역류하다가 다시 커다란 썰물 조류와 합류되어 되흐른다. 錢乾洞 연안 '동치코지'에서부터 飛揚洞 앞의 섬 '안비양' 사이에 돌런지 현상이 일어난다.

* 돌런지옌 혼 것은 썰물 나민 '동치코지'서 비양도(飛揚島)꼬지 쎄게 나민 비양도 강 탁 박치기 반대 방향으로 이레 온다 말이여. 썰물(썸물)이지만 안네는 돌물 되분다 말이여. 비양도 쏙 나간디서부떠 그 안네 물만 물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다 말이여.

이디선 '돌런지'라고도 혼여. 썰물이 쎄어도 그 안네선 걱정없이 작업할 수 잇다

밤이여. 물이 잔잔ᄒᆞ다 밤이여. 바당이 작업ᄒᆞ기가 젤 무드럽주게. 썰물도 쎄게 안가고 들물도 쎄게 안가고, 괴기도 하영(많이) 놀곡 〈錢乞洞 金岩善〉.

그래서 일정한 곳 밖으로는 썰물이 되어 동쪽으로 흐르나 그 안으로 돌린지 현상으로 潮流가 逆流한다. 흐르는 물과 逆流하는 물이 교차되는 지점을 두고 '돌린지점'이라 한다. 조류가 서로 較差되는 지점에는 각종 고기들이 많이 몰려든다.

* 밖으로 나가면은 썰물이 가는데 안으로 볼씨 들물이 들아가브러. 그 점을 '돌린지점'이라고 ᄒᆞ는디 언제든지 고기가 만ᄒᆞ여 〈飛陽洞 康基鉉〉.

물촘과 좃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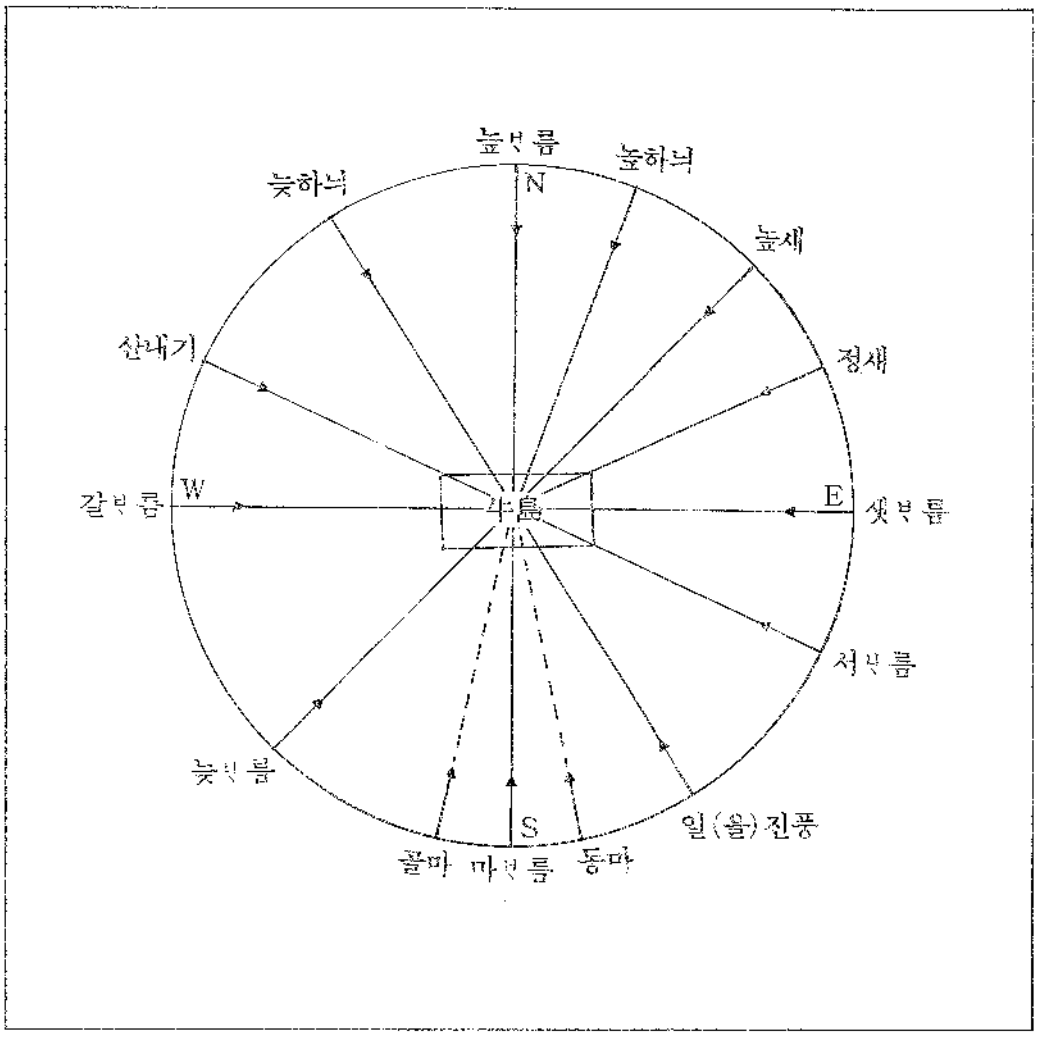
가장 滿潮되었을 때 조류가 잠시 멈춰 있어 잔잔한 동안을 '물촘'이라 하고, 그 반대로 가장 간조시 아직 밀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멈춰 있는 때를 '좃인물'이라 한다.

3. 바 람

바람 또한 漁撈環境 중 중요한 한 요인이 된다. 風速이나 바람 방향에 따라 어로활동이 규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牛島 어로민들은 바람을 認知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바람 방향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상황도 예견하고 있어야 한다.

飛陽洞 사람들은 샛바람(東風)이 불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風壓가 밀려들 것이라고 豫見한다.

錢乞洞 사람들은 음력 4월에서부터 7월까지만 자리잡이를 한다. 자리 서식처에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錢乞洞 연안에서 가장 이름난 '새비덤여' 주위 다섯 군데 자리 어장은 샛바람(東風)은 의지가 되어 어로작업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나 하늬바람(西風)에는 어쩔 도리없이 작업을 삼가야 한다. 음력 7월 이후부터 줄곧 하늬바람이 찾아들래, 자리그물을 철수해버린다. 그러나 東天津洞



우도의 바람 이름

자리어장은 하늬바람이 의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라도 바람만 먹으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필자는 周興洞에서 바람이 어로집단민들을 강력히 規制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날은 '92년 11월 17일, 샛바람(東風)이 제법 부는 날이었다.

周興洞 1종공동어장구역 低質은 모래바닥다. 나심어장 조건이 썩 좋지 못하다. 때문에 周興洞 1·2반 해녀들은 三陽洞 공동바다로, 3·4반 해녀들은 鐵屹

洞 공동바다에서 나잠업을 하고 있음을 살핀 바 있다. 샛바람이 부는 날이라 삼양동 공동바다에는 작업을 할 수 없었으나 전흘동 공동바다는 샛바람 의지되는 곳이기에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삼양동 공동바다에서 나잠업을 하는 주흥동 1·2반 해녀들은 하는 수 없이 자원이 시원치 않은 주흥동 구역 1종어장에서 해녀작업을 해야 했고, 2·3반에 거주하는 해녀들은 전흘동 공동바다로 가서 해녀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샛바람이 불면 三陽洞 飛陽洞 上下古水洞 迎日洞 해역에서는 나잠업이 안 되고, 하늬바람(西風)이 불면 錢乾洞 周興洞 上下牛目洞 해역에서는 나잠업을 할 수 없다.

제3절 漁撈技術

牛島에서 해녀들 나잠업을 제외한 남성들만이나 男女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어로기술 관행들은 기술관행에 따라 낚시, 그물 그리고 採藻 별로 나눠 살핀다. 지금까지도 전승되는 기술관행은 현장조사에 의존하나 지금은 전승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어로기술관행들은 村老들 증언에 따른 간접조사 방법을 빌렸다.

1. 낚 시

1) 저립(재랑어) 끌낚기

漁場 : 저립은 이동성 고기를 쫓아 우도 연안 가까이까지 몰려들었었다. 요즈음에 이르러 집어등을 켜놓고 들방으로 보다 먼 바다에서부터 移動性 고기인 고등어 '각제기' 멸치 등을 마구 잡아버리는 바람에 우도 가까운 연안까지 예전처럼 저립은 많이 몰려들지 않는다. 1986년도, 그 당시 舊左邑漁協出張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립어획량은 3톤이라고 했다(자유판매 어획량은 불확실). 지금도 끌낚기를 갖고 있는 어부는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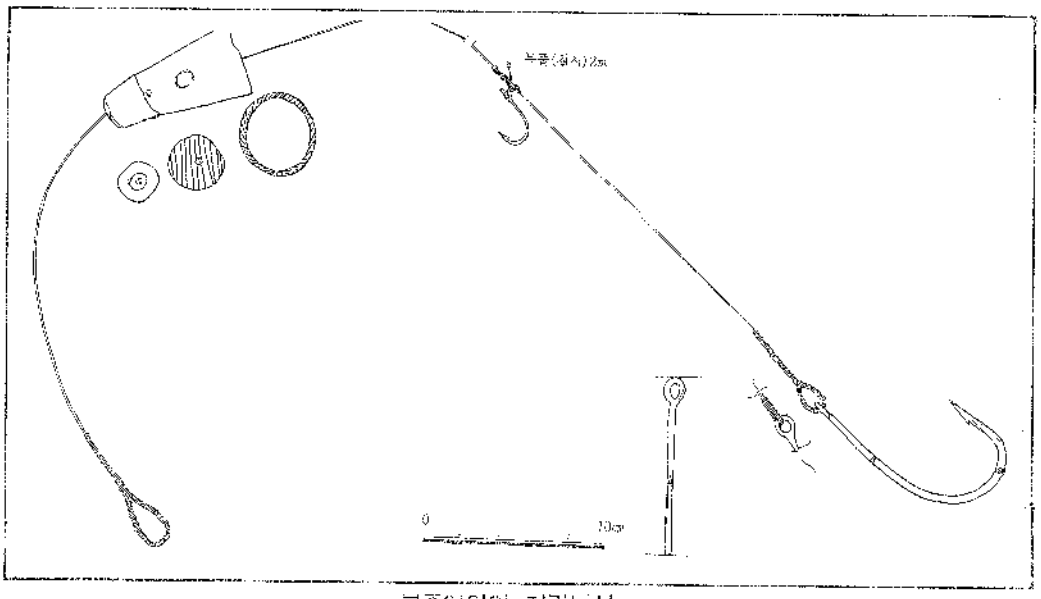
濟州島 내에서는 西歸浦市 甫木洞에서 저립끌낚기가 확인되나 저립끌낚기는 제주도 중에서는 우도를 꼽는다. 우도 저립 어장은 두 군데다. 우도 북쪽 '박머

리'에서부터 '새비든여' 뒤쪽까지 이어지는 일대 어장과 牛島 등대 밑 迎日洞 해역인 '너른지'다. 이 두 곳 중에서도 '박머리'가 主漁場이다. 이곳들은 한결같이 우도 내에서도 潮速이 가장 급한 곳이다.

漁期 : 음력 5월 20일경부터 약 9월말 霜降日 전후까지다. 5월달에는 자그마한 저립(이를 '꾀저립'이라 함)이었다가 7, 8월에는 최성어기이면서 저립도 150㎏ 내외의 무게를 갖는다.

물때 : 간만의 차가 1순한 '조금' 기간보다는 간만의 차가 드센 '웨살' 동안에 더 잘 잡힌다. 물살이 세어야 좋다. 주로 낮 동안에 낚으나 달밝은 밤에도 낚는다. 어느 때건 물발이 세찰 때라야 좋다.

漁具 : 두툼한 본줄 200여발에다 목줄 2m 철사줄에 낚시를 달아맨다. 낚시로부터 25㎝ 위에 자그마한 낚시를 매단다. 덧달아맨 낚시는 본낚시에 꿴 미끼를 위에서 다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줄어의의 저립낚시

지난 날에는 주로 갈치만을 미끼로 사용했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그 위에 납덩이를 박아 고정시킨 쇠뿔이 부착되어 있다. 쇠뿔 양쪽으로는 구멍을 내고, 그 자리에 소라나 전복껍질을 박는다. 바로 이것은 저립으로 하여금 고기(미끼)의 눈이라고 눈가림하기 위한 것이다.

지워 낚시에 부착되는 쇠뿔은 아무 것이나 되는 게 아니다. 세 살쯤된 살아 있는 수소 뿔을 뽑아 만들어야 한다.

* 이것도 옛 어른들은 죽은 소뿔은 사용을 않고 산 소뿔을 뽑아게. 빛깔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산 놈의 뿔을 뽑아야. 그것도 암소뿔이 아니고 부렁치뿔. 부렁치뿔이 오그라지지 아니해영(휘어지지 않아서) 곧게 나기거든. 암소뿔은 대부분 오그라지기 때문에 못써. 부렁치뿔도 늙은 쇠엣 건 취색이 일어가시고 안 되고 세 술(세 살)이나 네 술된 놈은 뿔이 반질반질혼다 말이우다. 그런 걸 뽑아야 되어 〈岡興洞 尹能洙〉.

미끼 : 미끼에 따라 漁法 쓰임이나 漁法이 조금씩 다르다.

① 갈치 : 지난 날에 주로 사용했던 미끼였다. 갈치를 반으로 토막내어 머리쪽으로 내던지 버리고 꼬리쪽만 사용한다. 이때 소뿔은 바로 갈치 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갈치를 통째로 꾀면 저립이 꼬리만 잘라먹고 내빼는 일을 국소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듯하다.

② 만벡이 : 근래에 개발된 미끼다. 배 물간에 '만벡이'를 살려뒀다가 산채로 낚시에 꾀어 미끼로 삼는다.

③ 고등어 : '만벡이'미끼를 구하지 못했을 때 고등어로 대신한다.

漁法 : 미끼를 달아맨 낚싯줄을 물 속으로 드리워놓고 배를 이동시켜줘가며 낚기도 하고, 또 닻을 드리운 채 배를 고정시켜 놓아 낚기도 한다. 앞의 漁法을 '흘림배기', 뒤의 漁法을 '닻배기'라 한다.

미끼에 따라 漁法도 다르다. 흘림배기에서는 갈치를 미끼로 삼고, 닻배기에서는 살아 있는 '만벡이'나 고등어를 미끼로 쓴다.

또 漁法이나 미끼에 따라 하루 중에서도 시간대가 다르다. 갈치 미끼를 이용한 흘림배기에서는 해뜨기 전(이때를 '북새'라 함)과 해질 무렵 그리고 달밤에만 낚고, 닻배기에서 고등어를 미끼로 할 때는 밤에, 그리고 '만벡이'를 쓸 때는 낮 동안에 낚는다.

흘림배기 동안에 저립이 물면 저립은 배를 끌고 가게 배를 흘려주고, 닻배기 때는 배를 고정시킨 채 미끼를 달아맨 낚싯줄을 흘려내버려 뒀다가 고기가 물면 힘을 내어 낚싯줄을 잡아당긴다.

미끼에 따라 漁法과 시간대가 다르다. 20여년 전까지는 갈치만을 미끼로 삼다

가 그 이후부터 살아 있는 '만베이'와 고등어를 비끼로 삼았다. 미끼에 따른 漁法의 변천사를 짐작케 한다.

2) 갈치 끌낚기

濟州島에서 갈치를 낚는 데는 두 가지 漁法이 전승되어 왔다. 하나는 거의 배를 고정시키다시피하여 낚는 어법이다. '푸끔술' 또는 '묻음갈치술'이라 하는 손줄낚기[14]. 또 하나는 배를 흘려줘가며(2노트 정도의 속도) 낚는 끌낚기 漁法이다. 우도에서는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킨 채 손줄낚기로 갈치를 낚는 일은 없다. 갈치는 온통 끌낚기로만 낚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낚고 있다. 牛島사람들은 이와 같은 갈치 끌낚기를 두고 '홀치기' 또는 '끄술뤼'라 한다.

* 우도 사름덜은 배를 ᄀᆞ만이 세왕(가만히 세워) 낚으지 않고 배를 돌라멍만(달리면서만) 낚읍니다. 또 성산(城山)·오조(烏照)·시흥(始興)·종달(終達) 사름덜은 닻 주영 배를 세왕 낚으지 배를 돌리멍 낚으진 아니ᄒᆞ고. 우리 식으로 낚으는 게 하영 낚읍네다(많이 낚지요). 왜냐, 갈치가 ᄀᆞ만이 잇는 괴기가 아니난(가만히 있는 고기가 아니니까) (東天津洞 朴○弘).

漁場 : 이동성 고기이기 때문에 牛島 연안 여디에서건 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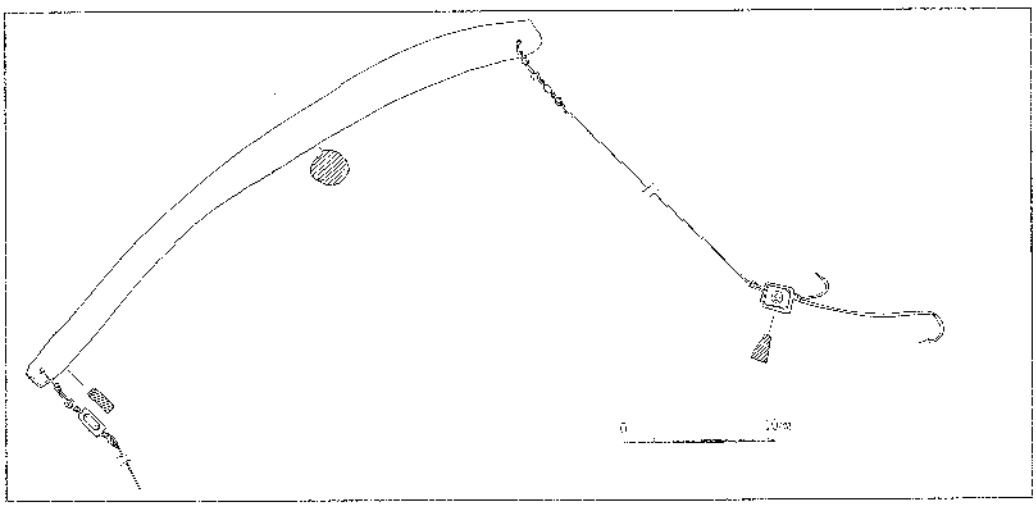
漁期 : 8월 추석 전후에서부터 霜降日까지다. 漁期 중 하루 동안에도 시간을 가린다. 日出没 전후마다 약 2시간반 동안이나 달이 밝은 날 밤에 낚는다. 前者를 '해차구'(또는 해거름), 후자를 '돌차구'(또는 돌지기)라 한다.

물때와 航海方向 : 물때를 가리지 않으나 갈치 끌낚기에서는 항해 방향이 중요하다. 潮流의 방향으로 航進하지 않는다. 그 반대 방향으로나 아니면 조류 방향의 가로에서 세로로, 세로에서 가로로, 지그재그로 항진한다. 항진 속도는 보통

14) 갈치는 이동성 어족이다. 갈치를 낚는 손줄낚기 어로기술관행은 펄바다나 걸바다 어데서건 이뤄진다. 닻을 드리워 배를 고정시킨 채 낚는다. 낚싯줄을 드리워 놓고 손으로 줌칫 줌칫 놀려준다. 이 행위를 두고 '푸끈다'라 한다. 갈치를 낚기 위한 손줄낚기를 두고 '푸끔술'이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어로관행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갈치물이 물어주는 水深上 지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지점을 두고 'ᄀᆞ리'라 한다. 그 'ᄀᆞ리'를 찾으면 그 수심만큼의 줄을 발에다 휘어 감는다. 그 낚싯줄 길이를 'ᄀᆞ리'에 맞춰 고정시킴이다.

2노트. 낚시줄이 15도 각도로 비스듬히 들어가도록만 유지하면서 항진속도를 조절한다.

漁具 :



갈치 끌낚기(홀치기 또는 고슬퀴)

牛島 갈치 끌낚기 漁具도 변천사를 갖고 있는 듯하다. '뿡들'(낚시추)이 지금처럼 낚시 바로 위에 '고지돌'로 살려 있기 전에는 줄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납덩이를 달아매었었다고 한다. '고지돌'이나 자잘한 '납덩이'는 모두 줄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낚시추 기능을 한다.

* '고슬퀴' 낚싯줄이 보통 열다섯 발이면 되는데, 오 숫발꼬지는 줄 중간중간에 납을 박읍네다. '고지돌' 배기 전에는, 고지돌이나 납은 찹이 물 우티레 뜨지 말라고 해서 돌아맨 거지요. 경ᄒᆞ다가 ᄎᆞᄎᆞ 발달되여가니 수십년 전부터 '고지돌'이 나왓이요 〈土古木洞 金ᄁᆞ—〉.

고지돌의 중량은 2.5~2.8㎏ 정도. 조금은 휘어지게 만들었다. 휘어지게 만들어야 낚시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휘어지며 들어가기 때문에 낚시는 본줄에 꼭 얽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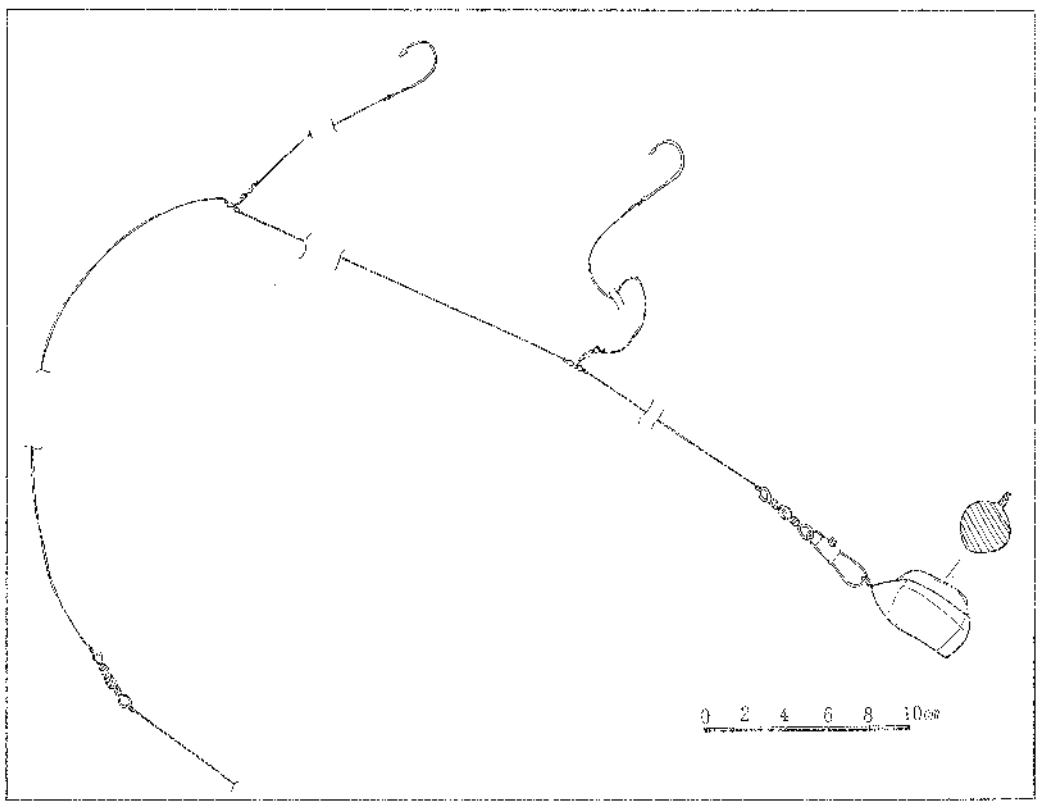
* 왜 휘었느냐, 뭔 짓도 이유가 잇는 겁주(게지요). 휘지 아니해영 곧장ᄒᆞ민 낚시가 술에 오당 각아저마씀(줄에 와서 감기지요). 경ᄒᆞ멍 떡분에 고지돌이 휘어지면 비소듬이 들어가니까 낚시가 줄에 왕 걸리지 안홈주(와서 걸리지 않아요) 〈東大津洞 申允弘〉.

미끼 : 감치ᄆᆞᆯ리 · 고도리 · 문어발 등 갈치는 미끼를 썩 가리지 않는 魚種이다.

3) 구문쟁이 손줄낚기

'구문쟁이'는 다금바리와 구별이 잘 안 될만큼 엇비슷하다. 고기 등어리에 세로로 금이 나 있다. 주낙으로도 낚으나 주은 미끼를 꺼리는 고기이기 때문에 보통 손줄낚기로 낚는다.

하루에 평균 17㎏(도매가격 ㎏/23,000원)을 낚는다.



구문쟁이 낚시

漁場 : 연안 해저 低質의 돌발으로 이뤄진 곳에서만 사는 정착성 어종이다. 이와 같은 저질 조건 바닥밭을 두고 '어덕'이라 한다. 어덕에 서식하는 고기라고 하여 '어덕괴기'라 한다. 주로 수중 암초인 여만을 쫓아다니며 낚는다.

漁期 : 4걸 낮 동안.

물때 : 잘 가리지 않는다.

漁具 :

미끼 : 살아 있는 미끼만을 고집한다. 지난 날에는 살아있는 자리돔을 미끼로 사용했고, 지금은 '각제기'를 미끼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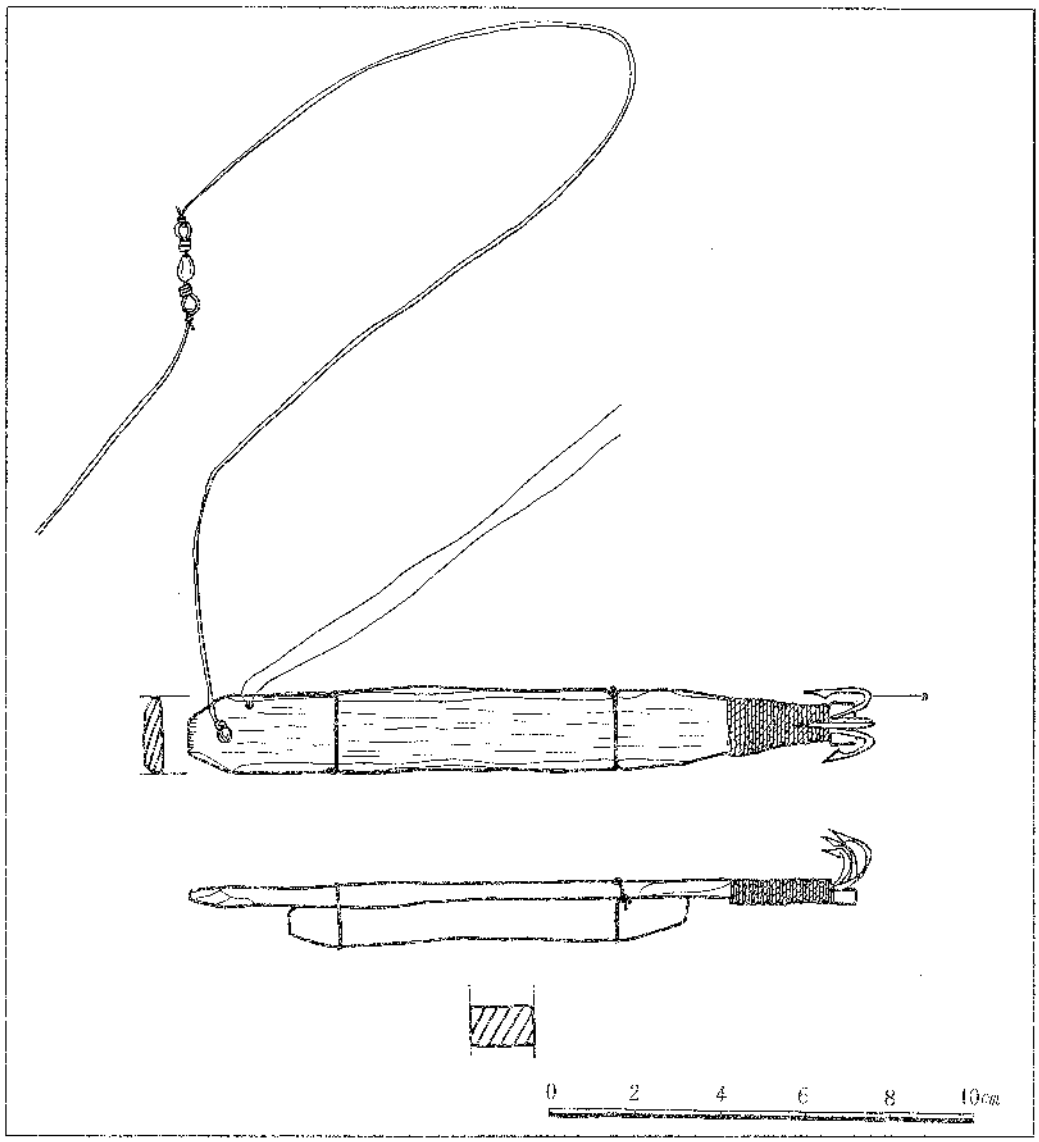
4) 문어 끌낚기(뭉게 심봉)

漁場 : 낚시를 海底面에 닿게 하여 끌어주며 낚는다. 문어가 돌덩이나 안반이 깔려 있는 바다(어덕, 걸바당)에 서식 않는 것은 아니나, 문어 끌낚기는 넓미역 자생지에서만 행해진다. 그 해저면에는 넓미역과 공생관계인 자잘한 자갈(이를 바을 사람들은 '넓메역 작지'라 함)이나 그 모래밭이다. 그래서 넓미역 채취어장과 문어 끌낚기 어장은 같다. 주로 그 어장과 보다 가까운 上下牛日洞 어민들에서만 전승되어 왔다. 지금도 간혹 문어 끌낚기가 행해지기도 하나 지금은 프라스틱으로 만든 문어통을 이용한 陷穽漁法으로 문어를 많이 잡고 있다.

漁期 : 봄 가을에 문어 끌낚기를 해왔다.

漁具 : 문어질이용 끌낚시를 두고 '뭉게삼봉'이라 한다. 납덩이와 대나무를 부착시켜 철사로 감아 고정시킨다. 대나무 끝에 낚시 세 개를 실로 탄탄하게 감아 묶었다. 미끼를 감아 묶기 위한 가느다란 철사도 부착되었다. 미끼를 대나무 위에 놓아 이 철사로 감아 묶는 것이다.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목줄(아리)을 고정시켰고 목줄은 회전고리에 연결된다. 회전고리는 다시 원줄에 연결된다.

미끼 : '각제기'나 '어렝이'를 쓴다. 문어가 여러번 물어 뜯어가면 미끼 신선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새로 간다. 자잘한 문어를 낚아 그 가죽을 벗겨두고 미끼로 쓰기도 한다. 끌낚기도구만 들고 바다에 나가 하얀 형겊을 낚시에 묶어 문어 한 마리만 낚으면 그것으로 문어 미끼를 삼기도 한다. 문어 미끼는 하루 종일 두어 번만 미끼를 갈아주면 될 정도로 질겨서 좋은 점도 있다.



문어 골낚기(몽게삼봉)

漁法 : 潮流 따라 배가 살살 흘러가도록 닻을 드리워 닻줄로 船速을 조종하며 항진한다. 선속이 빨라져버려 낚시가 底面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어가 와서 낚시에 걸려지면 줄이 팽팽해진다. 보통은 한 마리, 많으면 두세 마리까지 한 낚시에 걸려드는 수도 있다.

5) 상어 주낙

漁期 : 봄과 가을.

漁具 : 보통 주낙과 같으나 낚시가 무척 크다.

미끼 : 고도리.

對象魚 : 즉상어 · 가시상어 · 점백이상어 · 모도리 · 빅게 등.

6) 돔치 낚기

錢屹洞 해안 지명 중 '똥치코지'는 바로 '똥치'를 즐겨 낚는 '코지'(岬)라는 말에서 말미암는다.

2. 그 물

1) 족바지

바닷가 일정한 구역에 돌담을 築造해 놓고 밀물따라 몰려든 고기떼들을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는 장치를 해둔 곳을 원이라 한다. 원 안으로 몰려드는 主魚種은 멸치이나 멸치를 따라 다른 고기들도 몰려들 때가 있다. 원 안으로 몰려든 멸치는 '족바지'로 떠잡고 그 이외 고기들은 맨손으로 또는 작살을 날려 쏘아 잡았다. 20여년 전부터 濟州島 연근해 먼바다에서부터 집어등을 켜 남방으로 이동성 떼고기들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원은 그 자취만 남아 있고, 원에서 사용했던 최소형 그물인 '족바지'도 필요없게 되었다.

족바지는 Y字 모양의 소나무가지를 손잡이로 삼고, 휘어지는 성질이 강한 대나무를 덧붙여 둥근모양 테두리를 만든다. 테두리 재료는 참나무로 대신하는 수도 없진 않다. 이 테두리를 '어욤' 또는 '애옴'이라 한다. 거기에 그물을 꺼워 달아맨 것이 '족바지'다.

어로공동집단들마다 그들 바닷가 연안에 인공적으로 돌담(원담)을 쌓아 원을 만들기도 했고, 또 썰물이 되어버리면 물웅덩이를 이뤄 천연적으로 원이 형성되는 곳이 있다.



원(垣). 일명 개는 즐거운 추억거리를 주는 곳이었다. 한여름밤 소임이 '멜들었져'하는 외침에 족바지를 들고 뛰던 일이 눈에 선하다.

우도 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원담의 實測과 형태 등이 파악되어야 마땅하나 紙面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동어로집단마다 원 이름과 한 어로집단(飛揚洞)의 원어로관행을 살피는 것에 한한다.

어로집단	원 이 름	조 건	비 고
東天津洞			浦口 확장으로 매립
西天津洞	쑥통(빅개통)	천 연	천연적인 원인데, 쑥상어 産卵場[15]
下牛目洞	큰 원	인 공	
	족 은 원	인 공	

15) 한 제보자(申仁弘)의 證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둔다.

＊ 보리 누렇누렇허기만 쑥이 새끼치레 물통 ?만디 어십 우리씩(같은데 이십 마리씩) 떼지엉 올 때가 잇어. '쑥통'이엔 ᄒᆞᆫ 디가 잇어. 쑥이 들물에 들어왕 물나 가불민 가누와정 사름들이 들어강 맨손으로 심어. 우리 욕은지 후에도 혼해낫어. 보리 누렇누렇ᄒᆞᆫ 때 비나 와남을 ᄒᆞ민 우선 그레 가봐. 쑥이나 오라시카브댄(왔는가 싶어서). 우리가 잡아봐도 쑥 숫놈은 귀해여. 열 개를 잡아봐도 아홉 개는 다 알놈. 새끼도 하나 두 개만 안 배고 이십 개씩 배어 이 '쑥통' 있는 일대를 '진게'라고 ᄒᆞ여.

어로집단	원 이 름	조 건	비 고
周興洞	족 은 원	인 공	
	정 년 원	인 공	집단에서 청년들만이 운용, 공금을 마련하던 원(약 40여년 전).
錢屹洞	족 은 원	인 공	
	큰 원	인 공	
	묻 썬 원	인 공	
三陽洞	답 다 니 원	인 공	
	자 락 원	인 공	
上下古水洞	엥 목 개 원	인 공	원담 35m에 700여평
	큰 개 원	인 공	원담 길이 60여m에 2000여평
	박 하 르 방 개	인 공	ㄴ字型 70m에 2500평
飛陽洞	서 뚱 머 흘 원	인 공	
	동 뚱 머 흘 원	인 공	일명 '물질은원'이라 함.
	모 살 비 양 원	인 공	
	불 래 낭 알 원	인 공	
	한 와 지 원	인 공	
迎日洞	너 른 구 미 원	인 공	원담 30m에 80평 넓이
	석 은 구 미 원	인 공	원담 20m 정도에 40평 넓이
	모 살 개 원	인 공	원담 40m 정도에 100평 넓이

飛陽洞 거주 康基鉉(남, 65세)씨 증언에 따르면, 공동어로집단 구역내 원들은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보수했었다. 원 運用慣行은 변천되어 왔다. 제보자 기억으로는 원담은 공동으로 보수하나 원안에 든 고기는 개별적으로 잡았다. 그 이후에 '소임'(所任)제도를 도입, 집단에서 선임한 소임이 수시로 원 안에 고기가 몰려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몰려들었으면 어로집단 공동으로 잡아 분배했었다. 한 호당 한 사람이 나와 원안에 몰려든 고기를 공동으로 잡고 분배할 때 소임에게는 한 찍을 더 줬다. 원 어로공동관행이 시들해지면서 공동어로집단에서는 원운용관

리권을 동네 일부 성원들에게 팔기도 했었다.

* 우리 어린 때 보면 망어도 많이 늙어와낫고. 멜 뜨라온(떨치 따라온)거 손으로도 잡곡, 그불 작살로도 잡곡. 그때는 원에 멜(멸치) 들어온 거 본 사름이 임재(임자).

경ᄒᆞ다가 지단 부락이니까 소임(所任)이라고 셔낫우다(있었으렛지요). 멜 들엇을 때 이것을 관리ᄒᆞᆸ니다. 관리해가지고 멜 들어오면은 호당(戶當) ᄒᆞᆫ 사름씩 나와서 동네에서 멜을 '족바지'로 잡아올리면은 ᄒᆞᆫ 무근에 일단 멜(멸치)을 모이도록 ᄒᆞᆸ니다. 모여가지고 갈릅주. 소임에게는 ᄒᆞᆫ 짝을 더 줫어.

경ᄒᆞ다가 사름덜이 놈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욕심이 생겨가니까 다른 사름에게 관리권을 팔기도 해낫우다 〈飛陽洞 康基鉉〉.

2) 멸치 후릴그물

조직 : 周興洞 1개 조직망과 上下古水洞과 飛陽洞을 합하여 1개 조직망이 있었다. 2개網이 하루씩 교대해가며 작업을 했다.

漁場 : 개와당.

漁期 : 여름과 가을.

물때 : 만조 때.

* 들물이 나면 '한와지봉우자'에서 이 개와당 안터레(안으로) 불을 담거든. 게민 멜이 물조류를 ᄯᆞ랑(따라) 이 안터레(안으로) 막 들어오거든. 게민 이딧 물이 만조(滿潮)되기 직전에 바깟더레(밖으로) 나기불거든. 그 전에 그물로 가뚜와야 되는 거라 〈飛陽洞 李成雨〉.

그물과 運用 :

* 옛날에 이 '개와당'에는 뭐를 잡앗는고 ᄒᆞ니까, 멜치. '후리'라고 ᄒᆞ지요, 후리. 여름 가을로 저녁 때쯤 멜이 들어오면은 풍선에 그물을 나눠 싣읍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은, 밤에 멜떼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불켜서도 멜떼를 못보는 것이고, 멜이 노는 부리를 찾일려고 ᄒᆞ면은 발로 맷창을 탁 쳐분다 말입니다. 맷창을 탁 치면은 멜 수룩이 많이 잇는 디서는 불빛이 올라옵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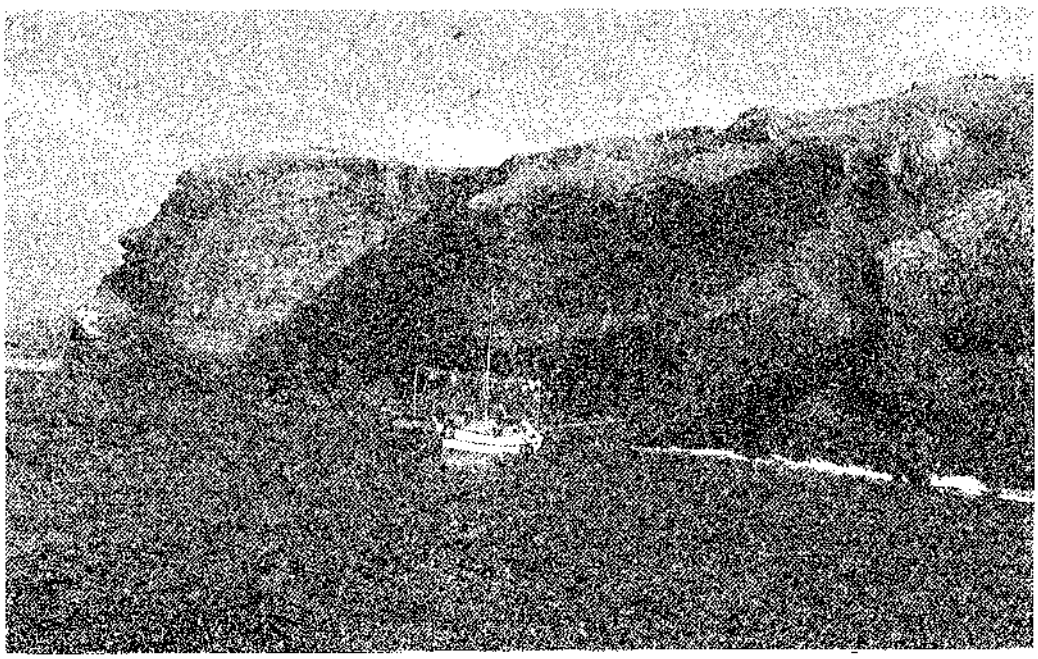
그러면,

'여기가 멘이 많이 붕쳐져 있는 곳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포위하는 것이지요. 가두면 최종적으로 그에다가 덫가지를 붙여 가지고 이 그물을 펭기는 겁니다 〈飛揚洞 康基鉉〉.

3) 자리그물

漁場 : 자리가 서식하는 어장을 '자리밭'이라 한다. 자리가 서식하는 자리밭은 거의 水中 暗礁인 '여'들이다. 자리밭은 牛島 전연안 해역에 띄엄띄엄 있다.



'자리'는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한다. 지금도 자리는 재래식 방법에 의해 잡지만 태우가 동력선으로 바뀌었다.

우도연안 자리밭 일람표

海 域	漁場(자리밭 이름)	여의 크기 網(舊式)	물 때	가 능
迎 日 洞	1. 보섬봉우지앞여	2	滿潮(물참)	不必要
	2. 보섬봉우지뒷여	10	滿潮(물참)	不必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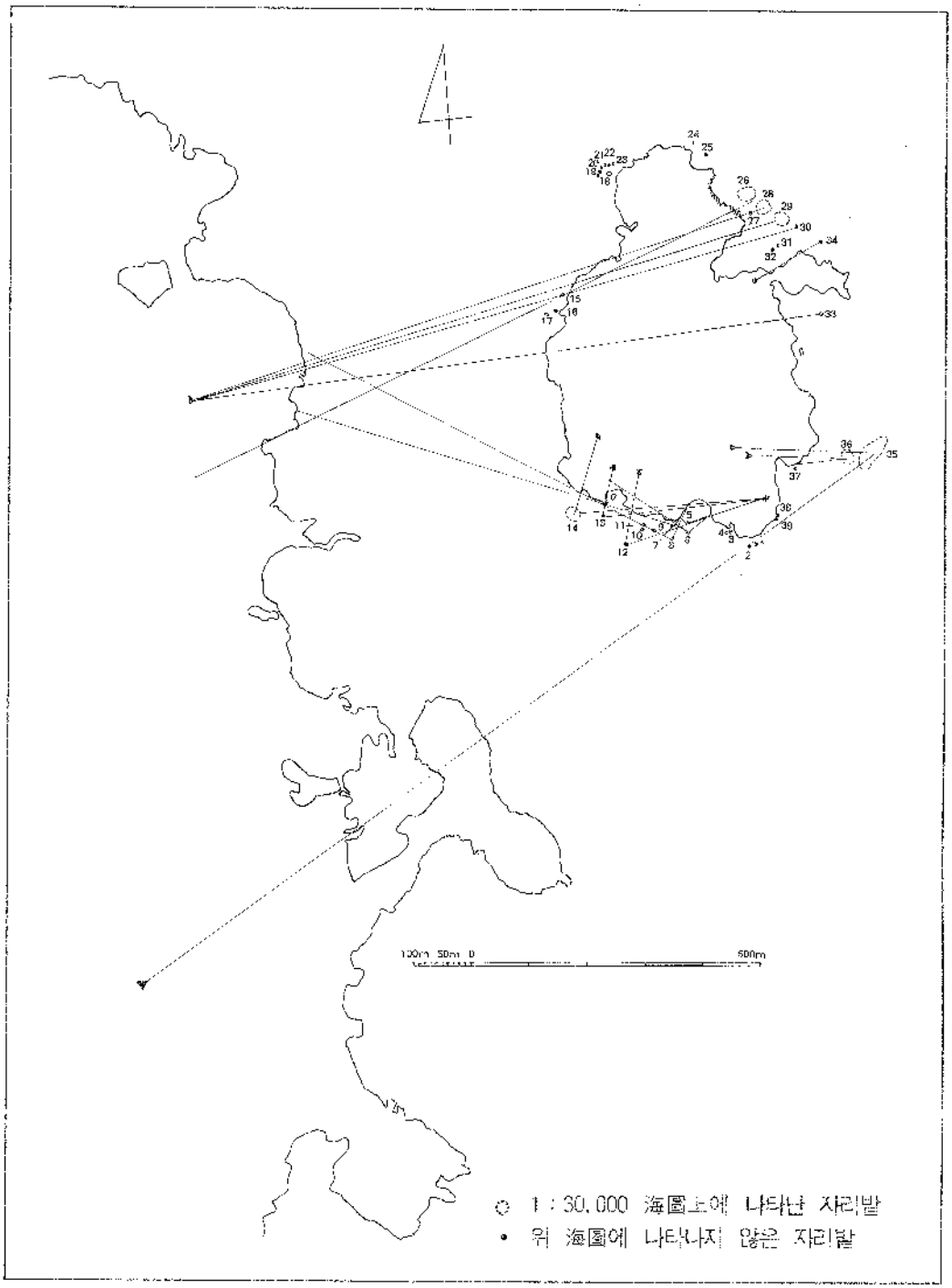
海 域	漁場(자리밧 이름)	여의 크기 網(舊式)	물 때	가 늠
東天津洞	3. 쌀맞인개샛봉우지여(東)	1	干潮(줏인물)	不必要
	4. 쌀맞인개샛봉우지여(西)	1	干潮(줏인물)	不必要
	5. 안밧여	1	밀물과 썰물돌련지	左/매눈코지 右/돌까니엉
	6. 베낏밧여	2(5)	밀물과 썰물돌련지	左/매눈코지-동네전봇대 右/돌까니엉
	7. 골정여	1	밀물과 썰물돌련지	左/넙대기코지-下道모래밭 右/바다路 層階
	8. 주실머리	1	밀물과 썰물돌련지	左/無 右/바다路 層階
	9. 장옥이아방여	1	上同	上同
	10. 날 락여뒷여	1	上同	上同
	11. 날 락여앞여	1	上同	上同
	12. 만금이아방여	2(7~8)	上同	左/동네 한 집 右/광대코지-등대
	13. 하늘이앞여 (海女 : 등멀여)	2(7~8)	上同	左/리사무소-나무 右/안구석-등대
西天津洞	14. 넙대기큰여	1(5)	上同	左/집(김상학씨宅) 右/길-등대
下牛木洞	15. 북돌코지	1	돌련지(15분)	不必要
	16. 코짓여	1	돌련지(15분)	不必要
	17. 번짓여	1	썰물	不必要
鍍屹洞	18. 넙덕여뒷후	1	웨살썰물	不必要
	19. 만넙덕여	1	웨살썰물	不必要
	20. 밧여	1	웨살썰물	不必要
	21. 샛여	1	웨살썰물	不必要
	22. 두린새비여	1	웨살썰물	不必要
	23. 든하르방여	1	웨살썰물	不必要

海 域	漁場(자리맡 이름)	여의 크기 網(舊式)	물 때	가 늠
三陽洞	24. 박머리여	3~4	조금썰물	?
	25. 닷다니여	1	조금썰물	?
古水洞	26. 난여	3	들물	수덕동산-지미봉
	27. 족은여	3	들물	수덕동산-지미봉
	28. 숨은여	3	쏠물	수덕동산 지미봉
	29. 등상여	2	양물	독진ᄂᆡ루당-지미봉
	30. 독진개ᄆᆞ루(여)	1~2	쏠물	집 한 채-지미봉
	31. 비양ᄂᆡ루모살통바위	1	양물	不必要
	32. 한참봉여	2~3	쏠물	不必要
飛陽洞	33. 똥내미여	7~8	웨살들물	길-지미봉 물알가늠(모래)
	34. 들물머리	7~8	조금쏠물 웨살물돌아지	한외지봉우지-집(방자) 물알가늠(모래)
迎日洞	35. 너른지	7~8	조금양물 웨살물돌아지	左/선돌-소수산봉 右/뒷새비코지동산-배움동산
	36. 맛여	7~8	조금쏠물	左/뒤새비코지 모양 右/청심빌레-족제비동산
	37. 산바우	5	초들물	不必要
	38. 선돌들물팟	2	들물	不必要
	39. 선돌쏠물팟	2	쏠물	不必要

漁期 : 우도에서만큼은 자라는 어느 정도 정착성 漁種으로 이해된다. 錢乾洞에서 경우 그 어기는 음력 4월에서부터 7월까지다.

물때 : 무수기(물때) 상 干滿의 차가 심한 '웨살' 때도 가능한 어장은 웨살 동안이라고 하나 潮速이 느센 곳으로 이해된다.

우도에서 전자는 東天津洞 연안 해역과 錢乾洞 '새비ᄃᆞᆫ여' 동북쪽에 줄줄이 위치한 漁場이고, 후자는 三陽洞의 '박머리' 일대에 있는 두 곳 어장과 迎日洞의 '너른지'와 飛陽洞의 '들물머리' 등이다.



牛島 연안 자리발과 '가늠'의 實在

'썰물팟'은 썰물 때만, '들물팟'은 밀물 때만 그리고 '양물팟'은 썰물 때나 밀물 때를 가리지 않음으로 이해된다. 자리그물은 조류를 이용하여 그물이 조류를 타고 흘러내리다가 수중 암초인 여 자락에 가서 살짝 기대고 있다가 자리가 몰려들었다고 하면 건져내게 되어 있다. 때문에 우도에서 썰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밀물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썰물팟'에서는 여 동쪽으로, '들물팟'은 여의 서쪽으로 그물을 드리우게 되는 것이다.

漁具 : 제주도에서 보통 자리그물을 두고 '사물'이라 한다. 필자는 濟州 本島에서 네 가지 형태의 자리그물을 확인한 바[16] 있다.

① 손잡이와 그물이 분리 안 된 사물 : 그물과 손잡이가 분리 안 된 '국자' 모양의 사물이다. 한마디로 족바지형 사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지 손잡이와 그물이 기역(ㄱ)字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

② 손잡이와 그물이 분리된 사물 : 翰京面 高山里에서 조사한 바 있다. 배를 타고 나가지 않고 혼자서 해안가로 나가 자리를 잡는 그물이다.

③ 돛대에 그물을 고정시킨 사물 :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돛대를 손잡이로 삼고 거기에다 걸어 그물을 바닷물 속으로 드리우고 떠올리며 자리를 잡는 사물이다.

④ 그물만 있는 사물 : 西歸浦市와 그 일대에서 전승된다. 자리사물인 사물에 손잡이나 그에 걸맞는 돛대가 없이 직접 바닷속으로 그물을 쳐넣어 드리우고 당겨 잡게 된 사물이다.

우도에서도 자리잡기는 ③ 형태 사물이 보편적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에 錢乾洞에 거주하다 지금은 故人이 되신 高奉孝씨가 개발해낸 속칭 '골체사물'이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우도에는 ③ 형태의 사물은 1個網, '골체사물'은 6個網이 있다.

배 양쪽 이물과 고물에 여섯 발 정도의 굵은 대나무를 '골체'(삼태기)처럼 조금은 벌어진 듯이 장치해놓고 그 사이에 그물을 장치한다. 대나무 이외의 것은 무거워서 잘 되지 않는다. 굵은 대나무를 釜山에서 구입해 온다. 배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는 조정된다. 필자가 조사할 즈음에는 '골체사물'은 漁期가 끝나버렸을 때라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

16) 고광민(1993) : 《濟州道誌》 "漁撈技術慣行"편 중 자리그물 참조.

4) 상어그물

지금은 전통적인 상어그물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상어도 귀하다. 村老들에 따르면, 지금 나이론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상어는 귀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로 飛陽洞의 漁民들에 의해서 상어그물은 행해져 왔다.

魚種 : 우도에는 상어가 많았던 듯하다. 村老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상어들이다.

막쟁이 : 모도리 새끼를 두고 '막쟁이'라 한다.

점뱅이 : 몸에 점이 박혀 있는 상어다.

어우네기 : 모도리와 같이 따라 다니는 상어인데 모양은 다르다.

백수 : 백상어의 토박이말인 듯하다.

귀상어 :

촐상어 :

죽 : 죽상어인 듯.

빨상어 :

漁場과 漁期 : 漁期에 따라 漁場도 바뀐다.

음력 7월쯤 멸치를 따라 연안 여기저기(특히 원)로 몰려들다가 10월에서부터 12월 사이에는 우도 연안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소머리오름(우도봉 標高 132.5 m) 기슭 연안(특히 서우통)에 서성이다가, 봄이 되면 우도 연안에서 빠져나가 버린다. 飛陽洞 漁民들 사이에서만 상어그물 어로가 전승되어 온 점으로 미뤄볼 때 牛島 전 연안 중에서도 비양동 연안 해역에 그만큼 상어들이 많이 몰려들었을지도 모른다.

* 음력 칠월쯤부터 '개와당'에 벨만 들어왔다 ᄒᆞ게 되면은 그 멜(멸치) 좇아 가지고 상어떼덜이 뎅기다가(다니다가) 그물에 걸리는 거라마씀(겁니다). 테위에 실르지도 못ᄒᆞ는 게 십배다. 그러민 줄에 돌아매어가지고 끄서옴주(끌고오지요). 끄서다가 '테웃개' 앞에다가 느런이 늘어놓게 되면은 참 볼만해십주. 경ᄒᆞ다가 구시월 동짓돌 섯돌되어가민 등대 앞에 갑니다. 그 부근에 가민 홈치[17] 덜이 이십주. 그런디 강 그물로 박앙놔두민 상어덜이 그물에 들어마씀. 경ᄒᆞ당(그러다가) 봄되민 나가불어 (飛陽洞 康基鉉).

17) 해안조간이 살짝 灣을 이루는 듯한 곳을 두고 하는 말인 듯.

물때 : 干滿의 차가 심한 웨살 때가 좋다.

그물 : 現存하지 않아 증언에 따랐다. 상어그물을 만들어 위하여 울타리에 삼을 심었다. 삼 껍질을 벗겨 그물을 엮고, '갈'이라는 흙으로 염색을 한다. 두툼한 그물의 윗줄(웃베리)과 아랫줄(알베리)은 짚으로 꼬아 만든다. 나무가 귀한 섬인 만치 바다 연안으로 떠밀려오는 나무를 주워다가 이어붙여가며 부표를 만들었다. 그물 아랫줄에는 띄엄띄엄 돌멩이로 봉돌을 만들어 달았다. 그물이 떠 도망가지 않게 별도 닻줄(이를 '공닻'이라 함)은 그물 한쪽에 묶어 커다란 돌덩이에 묶어뒀다. 그물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지 않고 물 위에 뜬 그물로 장치해 뒀다.

* 집 울타리 주뜬니(같은데) 삼을 싱거십주, 그물 만들라고. 산으로 그물을 만드는 대 산 껍데길(껍질을) 잔 빨아가지고 하얗게 발해서 노꼬아서 염색합네다. 옛날부 터 원료가 '갈'이라고 하는 거. '갈'이 그거 황토치럼 생긴 건데 잘 개여지지도 아니 해여마씀(생긴 것인데 잘 개지지도 않지요). 그거 녹여가지고, 염색해여가지고 그물을 만듭니다.

요샌 나이롱으로 만든 버국(浮標)덜이 많이 나오주만은 그때는 낭으로(나무로) 만든 버국이가 주로 올라옵디다. 옛날은 버국이가 아랑이 불면은 조류에 따라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민 역불 주으레(일부러 주으러) 다닙니다. 봐지민 붸ᄀᆞ치 몽가와서(뭣처럼 주워다가) 이것을 조가리 조가리 새겨가지고(이어붙여서), 대로 좁으면서 이 녹음기 정도 덴들아가지고 중간중간 웃베리(윗줄)에다 묶으고, 아래는 짚으로 새끼줄 노꼬와서 중간중간에 돌을 ᄆᆞ아맵주(달아매지요).

그것을 뜬그물로 청 내보는 거라마씀(쳐서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믄 '공닻'이엔 헌 걸 묻읍네다. 공닻은 쇠줄, 공닻은 큰 돌에 묶으고 그물을 놓는 거라마씀 〈飛陽洞 康基鉉〉.

1908년 일본인들에 의해 이뤄진 《韓國水産誌》 1권 270쪽에는 그 당시 濟州島 일원에서 성행되었던 상어그물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 돋보인다. 그 당시 우리나라 본토에서는 상어를 주낚이나 손줄낚기로만 낚고 있었지만, 濟州島에서는 그물로 잡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더하여, 상어그물 구조를 그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물은 線絲다. 줄기 0.15㎝(五厘), 그물 눈은 18㎝(五寸), 그물 길이 14.4~

19.8m(8발~11발), 그물 폭은 75cm(2尺~5尺)이다. 浮漂는 구상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4.5cm(1寸5分)이고 폭은 3cm(1寸)이다. 이것을 15cm(1尺5寸) 간격으로 달아맨다. 봉돌은 34.5g돌이다. 그 길이는 약 50cm(1尺5寸). 아릅 새끼줄에 묶고 1.16~1.54m(3~4尺) 간격으로 달아맨다. 그물 알줄은 칡으로 꼬아만든 줄로 그 굵기가 0.75cm(2分5厘)이고, 그물 윗줄은 종려나무 껍질로 만들었는데, 0.6cm(2分)이 된다.

灣內나 연안, 그리 멀지 않은 수심 7~8m되는 곳에 이 그물을 3~4網을 이어묶어 암초와 모래밭 사이에 그물을 드리워 놓는다. 그 그물이 드리워진 곳을 표시해두기 위하여 부표를 달아매뒀다가 이튿날 아침에 이를 잡아당긴다.

5) 돌락 그물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까지, 우도 내에서도 飛陽洞 漁民들에 의하여 행해져 왔다. 지금은 그물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돌락그물에 잠시 종사했던 한 제보자(飛陽洞, 康基鉉)의 口傳에 따라 간접조사했다. 돌락그물로 잡는 主對象 魚種은 망치와 돌락이다. 망치도 '왁망치'와 '생망치'가 있었다. '생망치'는 멸종이 되었는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漁場 : 飛陽洞 근해 자리가 서식하는 수중 암초 '똥내미여'가 第一 어장이다. 우도를 한 바퀴 빙 돌아가면서 돌락과 망치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가며 잡았다는 증언으로 봐서 자리가 서식하는 여에서 돌락과 망치 어장도 형성되었지 않았나 한다.

漁期 : 파도가 잔잔한 봄날.

* 봄에 이 조구늘 나갑니다. 이 '똥내미여'에 가게 되면 자리도 많이 거리곡 돌락도 많이 놀곡 흠주(놀고 하지요). 봄이 되면 바다기 돌지 안홉니까(잔잔하지 않습니까). 게민 돌락 노는 것을 봐마씸(그러면 돌락 노는 것을 보지요) 〈飛陽洞 康基鉉〉.

그물 : 가운데는 폼치고 양 옆으로는 좁혀지게 만든다. 물론 웃줄과 알줄이 있고 浮漂와 봉돌도 매달려 있다. 그물 전체 길이는 60m 정도.

그물의 運用 : 돌락 떼를 확인하고 潮流 방향 반대쪽으로 그물을 드리운다. 대막대로 수중 暗礁인 여 바닥을 쿵쿵 울린다. 울림 소리에 놀란 돌락들은 그물 안으로 피한다. 그물 웃줄은 보다 천천히, 알줄은 보다 빨리 당겨나간다. 牛島 한

바퀴를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잡아나간다.

* 풍선 두 척으로 해가지고 한 척은 그물을 실으고(싣고), 한 척은 빈 배로 다녀. 불락이 어섬직 한 디(있음 직한 데) 가서 불타을 보면은 물 역순(逆順)으로 가서 그물을 놓기 시작합니다. 불락 노는 것을 보고 에와싸면은 고기가 한꾼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붐창(붐밀)을 대막대기로 때려주는 거라마씀. 붐 우의만 때려주는 게 아니고 여에 돌바퀴를 쿵쿵 소리가 나게 때려주는 거라마씀. 게민 고기떨이 겁이 낫는지 모르지만은 그 수룩이 그물에 가서 싸지민, 그물 웃줄은 천천히 뱅기고(천천히 당기고) 알줄은 빨리 뱅겨줘야 합니다. 경하멍(그러면서) 불락을 거리면서 우도(牛島) 한 바퀴를 빙 돕니다 〈飛陽洞 康基鉉〉.

3. 採　　藻

1) 넓 미 역

牛島 연근해 제주도 최대 넓미역 어장이 있다. 한국 본도 연안에서 양식 미역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은 넓미역을 캐어내지는 않는다. 3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도의 넓미역은 크게 각광을 받았었다. 한때 軍納하던 시절도 있었다.

바다 岩盤이나 돌덩이 위에서 자라는 돌미역이 여성들의 자맥질로 캐어내는 海藻類라면 우도 사람들이 속칭 '넓메역 작지'라고 하는 바다 속 하얀 자갈밭에서 섬유성 뿌리를 내려 자라는 넓미역은 남자들에 의하여 채취된다. 돌미역은 자맥질하여 호미로 베어낸다면, 넓미역은 배를 이동해가며 '갈퀴'라는 도구로 건져낸다. 간혹 보다 얕은 바다에 자라는 넓미역은 해녀들이 자맥질하며 건져내기도 하나 남자들이 갈퀴로 건져내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

漁場 : 濟州 牛島와 牛島 동쪽 사이 어느 쪽이나 1종공동어장 구역을 벗어난 公海다. 牛島에서 가늠점으로 볼 때 下牛目洞 해역 '큰모살넷기'에서부터 錢屹洞 해역 '톤걸' 사이다.

어느 쪽으로나 1종공동어장을 벗어난 공해상에 있기 때문에 우도 사람들은 물론 濟州 本島 사람들까지도 몰려와서 채취했었다. 채취를 시작하는 시기 질정은 넓미역 어장, 보다 가까이에 있는 下牛目洞 漁民들이다.

漁期 : 음력 5월 말부터 6월 사이. 그 시기는 넓미역이 최고로 성장해 있을 때

이번서 조 파종이나 고구마 심기 등 밭일이 한가한 때이기도 하다.

물때 : 불때를 가리지 않으나 넓미역이 조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못하여 곧장 서 있을 때보다 넓미역이 조류에 따라 비스듬히 쓸린 듯해 있을 때가 좋다.

* 물이 잘 때는 잘 걸리지 안는다 설물이 되엇건 들물이 되엇건 비식이 들어누면은 갈쿠리를 ?로 끄시면은 갈쿠리에 들어간 놈은 전부 걸려나오는 거라 〈下牛目洞 鄭贊景〉.

채취도구 - 갈퀴(또는 갈쿠리) : 필자는 下牛目洞에 거주하는 金千能·鄭贊景·金千喜씨의 도움으로 넓미역 채취도구를 직접 제작해봤다.

○ 차 : 갈퀴 몸통 부분이다. 밑부분에 홈을 내어 '넓메역쌀'을 촘촘히 박을 수 있게 홈이 나 있다.

○ 넓메역쌀 : 넓미역을 걸려내는 것이다. 11개 살을 만들고 보니 촘촘치 않아 하나의 살, 그러니 12개를 만드니 몸통인 '차'에 촘촘히 박혀졌다. 쌀은 가시나무 문짝을 쪼개어 만들었다. 간혹 윤노리나무(윤유리낭)로 만들기도 한다. 아무튼 단단한 나무여야 좋다.

○ 관제 : 차에 박힌 쌀을 단단히 묶어주는 끈을 '관제'라 한다. 보통 억새꽃의 껍질이나 '신사리'로 꼬아 만든다.

○ 불돌코 : 차 밑에 불들을 달아매기 위하여 뚫린 구멍이다.

○ 불돌 : 갈퀴가 海底面에 닿도록 무게를 주는, 마치 낚시의 봉들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돌이다. 돕끌로 쪼아 구멍을 낸다.

○ 웃코 : 차 윗부분에 뚫린 구멍으로 배 위에서 집아 당기는 줄(원줄)을 꿰어 묶기 위한 구멍이다.

○ 목돌 : 차의 복 부분에서 바로 이 목돌이 무게를 실려줘야 줄을 끌어당기고 있어도 갈퀴의 몸통(차)이 들리지 않는다.

○ 원줄 : 배 위에서 갈퀴를 끌어주는 줄이다. 단단한 줄 30~40발 정도.

한 사람이 넓미역 한 철을 보기 위하여 갈퀴 3~4개를 미리 만들어둔다. 특히 살은 부러지는 일이 흔하메, 더 많이 만들어 놔둔다.

채취 : 한 척의 배에 보통 네 사람이 乘船, 한 조를 이룬다. 한 사람은 배를 적당한 속도로 항진하는 일을 맡는다. 세 사람은 각자 갈퀴로 넓미역을 건져 올린다.

* 갈퀴가 물 속에서 빙빙 돌주. 넓메역이 질리게 되면은 이 쌀에 데각 질립주(춘좀히 질리지요). 게민 이 갈퀘 하나에 한 점 〈下牛目洞 金天壽〉.

건조와 분배 : 배 한 척이 한 동아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네들도 자연 동아리를 이뤄 공동으로 건조한 후 똑같이 분배한다.

* 남주 어른덜은 배로 강 그것 건져오민 부인덜은 그것 널주게. 다 그질 널거 아니라. 널민 이젠 또 비오람직하민 걷엉 들영 더껏당(젖어들여 덮었다가) 또 날 좋아가민 널엉 물류왕(널어 말려). 널류민 주찌(말리면 같이) 가온 뱃동서덜끼리 갈르주게 〈下牛目洞 金千能씨 부인〉.

2) 거름용 海草(실겡이들복)



실겡이 바당 전경. 실겡이는 제주산 농산물의 거름용 해초였다. 金肥사용으로 토질의 산성화가 보편화된 지금에 한번쯤 되새겨 봄직하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濟州島에는 金肥가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 漁村 마을들에서는 거름용 해초채취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濟州島에서 보리를 파종할 때는 거름을 충분히 했고, 그 그루에 이어서 조를 파종할 때는 특별히 거름하는 일이 없었다.

牛島에서 보리밭 거름용 해초는 '실겡이'·'고지기'·'노랑잼이' 등이 있었으나 그중 '실겡이'를 으뜸으로 꼽았다. 그만큼 '실겡이'는 거름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실겡이'만은 해당 마을 해역별로 음력 3월 중에 채취시기가 합의되어 '許採日'이 결정되면 이웃들간에 組를 이뤄 개별적으로 채취했다.

漁場 : '실겡이'는 아무데나 있지 않았다. 우도 해역 내에는 소문난 실겡이 自生地는 세 군데 뿐. 실겡이 自生地를 '실겡이바당'이라 한다.

① 周興洞 실겡이바당 : 牛島 내에서도 실겡이 최대 자생지다. 지금 설치된 정치망 바깥쪽 일대 해역이 모두 실겡이바다다. 周興洞 錢乾洞 三陽洞 사람들이 채취 시기를 결정하여 채취해왔다. 지금에 와서 보다 자원(특히 우뭇가사리와 소라 전복)이 빈약한 周興洞 사람들이 반으로 갈려 한쪽은 전흘동 바다로, 한쪽은 三陽洞 바다(공동바다)로 가서 換錢 가치가 높은 해산물을 채취하게 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② 飛陽洞 실겡이바당 :

③ 東天津洞 실겡이바당 : '만금이아방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일대 바다다.

採取 道具 : '줄아시'라고 하는 커다란 낫이다. 지금 우도에서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줄아시를 확인할 길 없다. 현재 濟州大學校 博物館에 소장중인 줄아시는 날의 너비 5.7㎝, 그 길이는 378㎝나 된다. 줄아시로 베어나가는 대로 '공챙이'로 건져 올린다. 그 도구 크기만큼이나 줄아시 하나에 따른 작업 구성원도 많다.

採取 方法 : 飛陽洞의 사례다. 하나의 줄아시를 기준으로 채취 조직이 편성된다. 실겡이를 채취하거나 실어나르는 배는 모두 '테우'다.

採取 組 : 3인이 한 배에 승선한다. 한 사람이 노를 젓고, 두 사람은 줄아시를 양쪽에서 운용한다. 줄아시 양쪽으로 줄이 매어져 있다. 잡아당겨나가는 대로 실겡이는 베어져나간다. 베어진 실겡이는 자연적으로 물 위에 뜬다.

* 줄아시로 해여서 양쪽에 줄 매어가지고, 한 사람은 테우 노 저어주면은 테우가 앞으로 나갈 게 아닙니까. 기다가 실겡이가 날에 걸리면은 테우가 무거워서 못나간다 말이우다. 게민 잡아치지요. 잡아치면 날이 있으니까 베어지는 겁주. 베어지민 불 우의 떠, 실겡이등북엔 버꿀레기(氣胞)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飛陽洞 康基鉉〉.

運搬 組 : 6~8인. 2인씩 한 배에 승선하는 테우가 3~4척. 베어나가는 대로 물 위에 떠오르는 실겡이를 공젱이라는 갈취로 건져 싣고 뭍으로 운반한다. 서너 척의 테우가 건져 운반하는 것이다. 운반하는 배를 '뒷배'라 한다.

* 뒷배, 실러나르는 배 서너 척이 공젱이로 건짐주. 시껴당 '먹돌개'에도 푸곡, '터웃게'에도 푸곡 〈飛陽洞 康基鉉〉.

乾燥, 分配 : 대개 편성된 組의 부인들이 이를 건조한 후, 공동으로 나눠 갖는다.

3) 톳

해안 조간대층에서 자라는 톳은 牛島 11개 어로집단별로 그들 해역에서 공동으로 채취하여 공동으로 분배한다. 기준은 家戶다.

飛陽洞이라는 하나의 어로집단에서는 하나의 동네를 네개 반(班)으로 나눈다. 바다밭도 넷으로 나누고 만 단위별로 輪番으로 돌아가며 채취한다. 일정하게 바다밭을 나눈 해역을 두고 토박이말로 '구미'라 한다.

① 수늑바위
② 서뚱머흘
③ 동뚱머흘
④ 한와지

나눔의 기준은 그 집이라기보다 톳의 생산량에 따른 듯하다.

4) 風　　藻

바람에 떠밀려오는 해조 일체를 '風藻'라 한다. 換錢가치가 있는 '감태'·'우뭇가사리'도 있고, '듬북' 등 거름용 海草도 있다. 풍조 채취 관행은 어로집단들

마다 조금씩 다르다.

〈西天津洞 1, 2班의 예〉

서천진동 1, 2반 30여가호 '물엉코지'에서 '넷골알'까지가 西天津洞 1, 2班 해역 바닷가다. 바닷가 중에서도 '똥내미구석'에만 집중적으로 풍조가 떠밀려든다(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班에서 채취하는 풍조의 95%). 샛바람(東風)이 불고나면 십중팔구 풍조가 밀려든다. 主채취대상물은 우뭇가사리와 감태.

약력 12월에 반 정기총회를 열어 반장 2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반장은 수시로 풍조가 떠밀려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반원들에게 사실을 알린다. 班員 공동으로 풍조를 채취해다가 건조시켜 공동창고에 보관했다가 판매한다.

판매금액으로 마을 운영비도 내고 도로도 보수하고 어버이날 행사비도 마련한다. 또 반장 보수도 지급한다.

그러다가도 돈이 남으면 가호당 나눠갖는다. '92년도에는 戶當 65만원씩 배당받았다.

〈上牛目洞의 예〉

상우목동 해역 내에서 바다밭 나눔은 없다. 샛바람과 하늬바람에 풍조는 많이 떠밀려든다.

풍조 채취대상물은 환전가치가 있는 우뭇가사리·정각·감태 등이다. 공동으로 풍조를 채취하여 洞공동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가호(27戶)마다 나눠갖는다.

班長이 바닷가 風藻를 관리한다. 그 값으로 해녀들이 간간이 채취하는 소라·전복·해삼 등 '헛무레' 商權을 획득하기도 했다가 요근래에 이르러서는 年間 手當額을 정해 버렸다.

반장은 풍조가 떠밀려들었을 것이라 판단되면 작업량을 판단한다. 27가호는 평균 7호씩 4개조로 나눠져 있다. 1개조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1개조만을 동원한다. 매일 그럴 경우에는 輪番制로 돌아간다. 그리고 전가호가 총동원되어야겠다고 생각되면 온 동네 출동을 알린다. 알리는 수단은 스피커. 출동하지 못한 家口에는 시간당 일정액의 罰金을 내야 한다.

채취한 물건은 건조시켜 차곡차곡 동네 공동창고에 보관한다.

'91년도에는 동네 공동자금을 제외시켜두고, 가호당 40만원씩 분배받았다.

〈飛陽洞의 예〉

풍조 구미 또한 넷으로 나눈다. 뜸북은 가호별로 나눠 밭에 거름으로 쓰고, 갈태는 반 공동으로 채취하여 팔아 班 共同資金으로 쓴다. 풍조가 보다 많이 떠오르는 구미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해역도 있다. 때문에 전 해역을 네 개 구미로 다음과 같이 나누고 1년을 週期로 시계바늘 돌듯 돌아간다.

① 수눅바위 구미 : 上下古木洞과 分界点인 '섯모살'에서부터 '뚠비양'으로 들어가는 갈목 서쪽인 '섯배수'까지.

② 뚠비양 구미 : '뚠비양' 전체

③ 텨웃개 구미 : '먹돌개'에서부터 '졸락코지'까지.

④ 주름바위 구미 : '먹돌개에서부터 '검동산'까지.

飛陽洞에서 바람에 떠밀려오는 우뭇가사리 채취 관행만은 조금 다르다. 飛陽洞에는 전체 어로집단의 자금을 마련하는 '기성회바다'가 없다. 대신 연안에 파도 타고 밀려드는 우뭇가사리 채취권을 일정한 집단 사람들에게 팔아 그 자금을 어로집단 공동자금으로 마련한다. 약력 12월 20일 경에 洞會議를 소집하여 競賣에 붙인다. 우뭇가사리 채취권은 가호 단위이고, 보통 30여호의 계원들이 이에 참여한다.

〈迎日洞의 예〉

영일동은 두 개 동네(웃동네 알동네)로 나뉜다. 두 동네마다 30여가구 내외. 風藻채취를 위해서 바다밭도 둔, 곧 '검동산'에서부터 '도살개' 그리고 '모살개'에서부터 '거멀레'까지 나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풍조 채취를 위한 바다밭은 2년마다 교체된다.

두 동네마다 반장이 있어 풍조가 떠밀려 올 것이라고 판단되면 바닷가를 돌아보며 확인한다. 풍조가 떠밀려오면 동네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풍조를 건조하여 보관했다가 판매하면, 반장에게는 한 가구 몫을 더 준다.

제3장 宗 敎

한국인의 신앙을 분류해 보면 대개 샤마니즘(무교 · 민간신앙), 불교, 유교, 도교, 예수교(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신흥종교 등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조지훈 1962). 현대사 속에 한국사회가 오랜 혼란기를 경험하는 동안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 불안을 느낄 때마다 정신적인 위안을 찾으려고 종교에 귀의하려는 성향이 강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사회는 "세계 종교의 전시장" 또는 "종교 백화점"으로 불리울 정도로 각종 종교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 종교의 실정을 감안할 때 농어촌 사회에까지 각종 종교들이 전파되고 번창하는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얼핏히 말해 농어촌 사회로의 종교의 침투는 사회변혁의 한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혁에는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 차원이 있을 수 있다. 각 종파의 종교인들은 자파에 신도들을 확보하려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동질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이한 종교의 범주에 합류하게 되고 또 각각의 종교가 제시하는 도그마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공동체 사회의 동질성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점이 아울러 주목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화란 불가피한 과정이며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종교가 농어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이든 부정이든지 간에 심대한 것으로 사려된다.

우도의 종교 양상도 한국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독특한 신흥종교까지 전파됨으로써 우도의 지역민들 사이에 신앙의 대상은 훨씬 다양해지게 되었다. 일

제 초기부터 카톨릭이 전파되었는가 하면 기독교와 불교가 뒤늦게나마 진출하여 교세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도에는 종교에 관한 한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색을 잘 갖추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우도의 종교 현상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신흥종교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소위 찬물계 종파의 태두가 바로 우도 출신인 김봉남이라는 점이다. 신흥종교는 흔히 사이비 종교로 여겨질 정도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빚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신흥종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신흥종교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향인들에게까지 무시되어온 김봉남의 업적이 우도지의 발간을 계기로 재조명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천지대안교와 관련해서 드러나는 김봉남의 업적과 사상 그리고 영향 등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제주 출신의 한국 신흥종교의 태두, 김봉남 선생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자 시도하였다. 필자는 우도 조사에 앞서 1984년부터 근 3년 동안에 걸친 토산리 조사에서 천지대안교와 삼천교 등 소위 김봉남의 영향하에 발생한 찬물계 종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해 왔는데 종교라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조사상의 어려움이 컸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연구된 결과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도에 진출해 있는 종교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보고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의 수집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지에 있는 각 종교의 교회나 불당 혹은 교당을 방문하고 그곳의 책임자나 주민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현지 조사자료에서 미비한 부분은 문헌자료로 보완하였다.

제1절 불 교

조선조의 불교에 대한 탄압은 가혹하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불교의 탄압에 제주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절 오백, 당 오백이 관권에 의해 폐쇄당하고 불교는

"근 200년 동안 본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한라연감 1991 : 493) 시가지에서 사찰이 폐쇄되고 산사들만이 불교의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895년 서울에 승려 입성 금지가 해제되면서 불교는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특히 본도민과 불교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여 다른 지역보다 단기간에 포교가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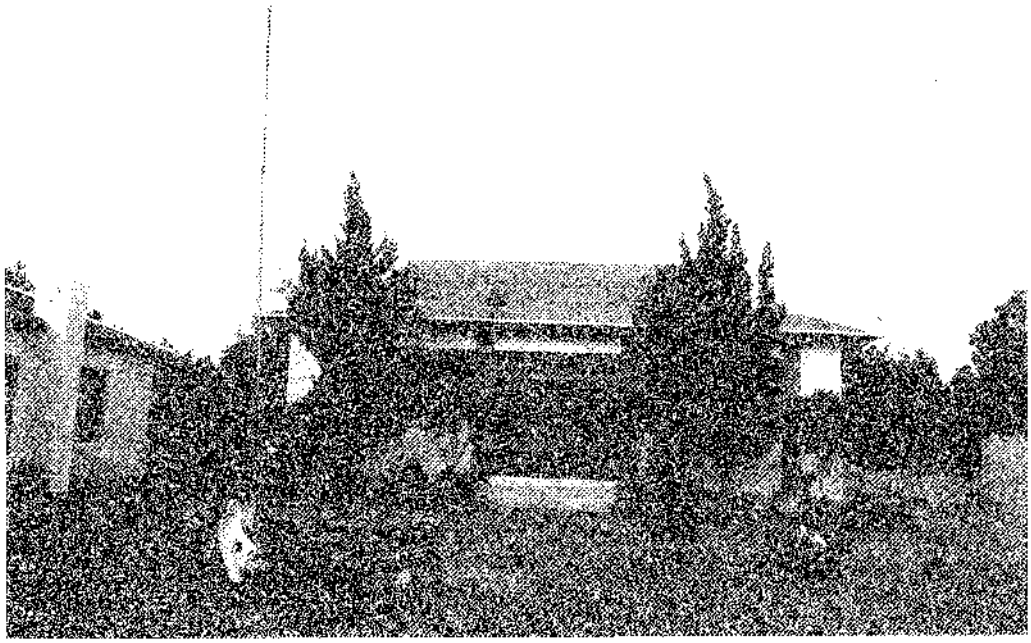
제주에 들어와 있는 불교의 종파는 다양하지만 조계종과 태고종이 가장 큰 세력을 점유하고 있다. 조계종은 본사를 관음사로 하여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또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 수에 있어서는 태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태고종은 조계종에 비해 체계적인 면에서나 단일 사찰들의 규모에 있어서 열세에 있으나 사찰의 수에 있어서는 조계종을 앞서고 있다. 제주에는 기타의 불교 종파들인 법화종, 진각종, 원효종 등의 군소 종단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단에 소속된 사찰이 20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무소속 사찰이 8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교인은 타 종교를 압도할 정도로 제주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만 2,643 명(1979년 문공부통계)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도에는 1개소의 암자를 포함해서 모두 2개소의 불사가 세워져 있고 그 밖의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비교적 많은 신도들을 확보하고 있다.

1. 대한불교 태고종 금강사

우도에 있는 유일한 불교사찰인 금강사가 서천진동 1841번지에 세워져 있다. 우도에의 불교전래의 역사는 바로 금강사의 유래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우도에 불교가 소개된 것은 지금부터 약 50여년 전의 일이며 제주시 관음사에 있던 강남옥 스님이 내도하여 동천진동의 현재 교인이 된 김창훈씨댁의 방을 빌어 작은 불상을 모시고 예불을 드리면서 우도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스님이 내도하여 예불을 드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도내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보였고 신도가 되었다.

장소가 협소하여 예불을 제대로 드릴 수 없음에 따라 당시 다년간 신도회장을 맡고 있던 고 최용현 여사를 중심으로 이행길, 홍원석, 이노하 등이 신도와 당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고태주씨 등이 거들어 동천진동 앞동산에 대지 100평



금강사 전경

을 마련하고 2칸 정도의 작은 초가집을 짓고 이곳을 불당으로 삼아 정식 불상을 모시고 예불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동천진동의 이 작은 초가집이야말로 바로 현재의 금강사의 전신이며 최초의 우도의 불사였다. 신도들은 다시 절을 서천진동으로 옮기고 초가지붕을 스레브지붕으로 개조하여 불사로 사용하였다. 그러는 동안 강남옥 스님은 성산읍 동남에 근설을 짓고 우도를 떠났고 강 스님의 뒤를 이어 변인종, 이어 조성민 스님이 내도하여 예불을 주재하였다.

현재 서천진동의 1841번지로의 이전은 1971년 8월 11일 불당 설립을 위한 법정 등록을 마치고 1973년도에 이루어졌다. 신축불사 공사가 1980년도에 완공되어 불사의 명칭도 금강사로 변경되었다. 금강사의 부지는 면적이 600평인데 동천진동의 불사부지 100평과 교환하여 확보되었다고 한다. 불사의 건평은 28평이며 이외에 17평의 부속건물이 금강사를 형성하고 있다.

조성민 스님은 67년도 제주시 아라동 죽림성에 덕흥사를 기공하면서 우도를 떠났고 이어 최씨 스님 등이 우도를 거쳐 갔고 현재 주지스님으로 있는 강성부 스님은 1977년도에 우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금강사를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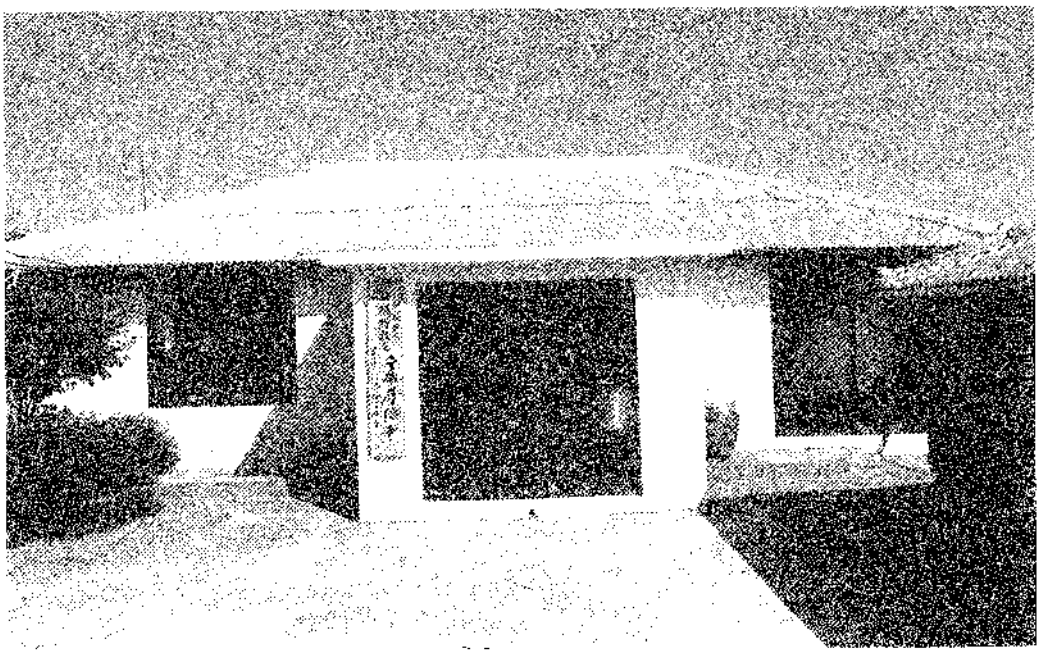
불교 신도는 100가구로서 한 가구의 인구를 3~5명을 가정할 때 신도수는 대략 4~500여명으로 추산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신도들이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의 신도들은 약 200여명 정도로 볼 수 있다. 불교는 기독교나 천주교와는 다르게 비교적 많은 신도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 자체가 주민들이 신봉하는 민속신앙인 무속과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아서 이곳의 주부들이 부담없이 찾아 올 수 있는 부차적인 이점을 지닌 종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곳 사람들은 한 종교와 다른 종교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긋고 어느 한 종교의 교리를 철저하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무당을 찾아가 무의를 행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유교식 의례를 지키는가 하면 불당을 찾아 부처님에게 기원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신앙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불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무속적 성격을 깊게 가미하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없이 수용되고 있다.

불교에서 행하는 큰 의례는 소위 10재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 십재일중에 주민들의 호응이 비교적 좋은 몇몇 세의만 거행하고 있다. 이곳 절에서 주로 행해지는 의례로는 음력 정월 초이레, 정월 15일, 부처님의 탄신일인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 칠월 백중, 시월 시오일, 십일월 동지, 12월 초여드레 성도재일을 들 수 있다.

개인 불공은 정월 한달에 한정하여 각 가정이 날을 보아 절을 찾아와 드리나 그외의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절을 찾지 않는다. 심지어는 여드렛당이나 이렛당을 찾은 후 불당을 나중에 찾는 사람들도 있다.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신 가구가 90가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가정은 정월 보름과 칠월 보름에 찾아 올 뿐이며 주민들 대부분이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은 것 같지는 않다. 주민들이 열악한 노서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적인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신앙은 자연히 부차적인 일로 밀려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강 스님의 말은 이곳의 주민들의 종교적 태도를 잘 반영하는 말로 여겨진다.

2. 대한불교 원효종 수덕암

우도에 있는 원효종의 수덕암은 강정희(여 69세)보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수덕암 전경

암자와 원효종 종단과의 관계는 매년 종단 운영비조로 거출되는 회비 9만원씩을 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밖에 강제적인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떠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 보살은 점도 치고 푸닥거리 등 부속의례까지 하고 있어서 이 암자가 순수한 의미에서 불교의 절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정도로 무속과 깊게 연관되고 있다. 강 보살은 25년전에 서귀포 서홍리에서 우도로 건너온 뒤 상고수동에 막사리 한 채를 지어 불당을 모시고 불교식 의례와 무속의례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동시에 수행해 왔다. 입도 당시에는 스님도 함께 와 불공은 스님이 전담하여 드렸는데 불교식 의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미미한 것을 알고 스님이 심을 떠남에 따라 현재까지 강 보살만이 남아 이 암자를 혼자 운영, 유지해 오고 있다. 현 위치의 암자로 옮겨온 것은 17년 전의 일이다. 현재에도 불공을 드릴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스님을 초빙하여 드리고 있는데, 큰 불공은 대정읍 화순리 회강사의 고수일 스님이 도맡아 드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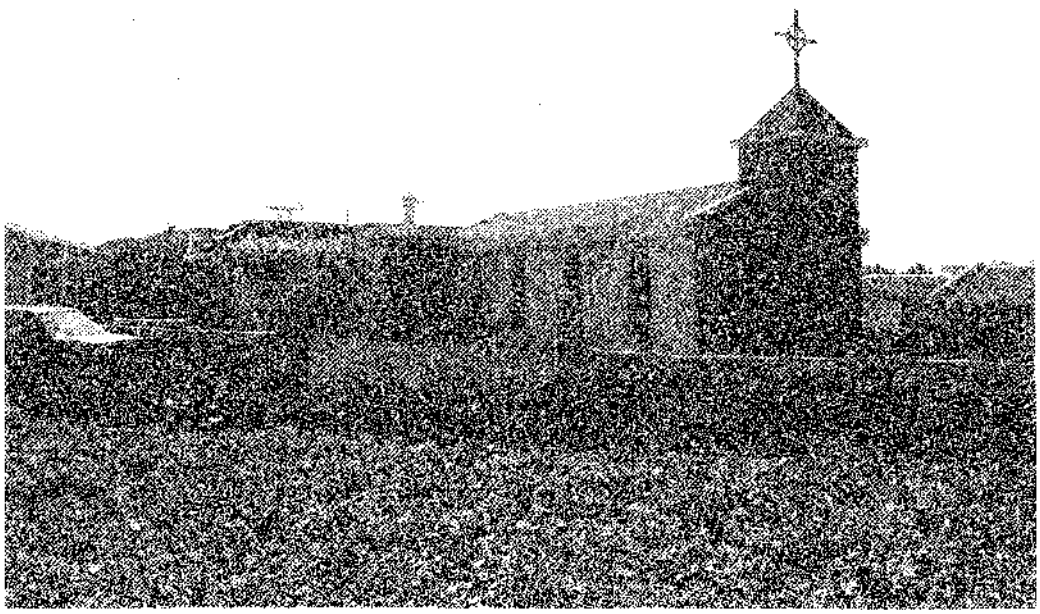
이 곳에 드나드는 신도들은 호구수로 산정되는데 모두 70호의 사람들이 이 암자와 인연을 맺고 있다. 역시 이 암자를 찾는 이들이 여성임을 감안할 경우 신도

수는 100여명으로 볼 수 있다. 절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내에 수복을 기원하거나 액운이 낀 해에는 좋지 못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닥친 흉사를 무난히 넘기려는 의도하에 이 암자를 찾고 있다. 이 암자에서 드리는 각종 의례들은 공식적으로는 모두 불교식 의례들이다. 큰 불공이 이루어지는 날들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정월 보름, 삼월 삼짇날,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 칠월 백중, 10월 절제불공(절이 새워진 날), 동지 등 연중 8일이며 이러한 날에는 외부에서 초빙된 스님이 주재하여 불공을 드린다. 다른 절은 매달 음력 18일은 지장제일, 24일은 관음재일로 불공을 드리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신도들의 대부분인 여성들이 물질하느라 농사일을 거드느라 분주하기 때문에 매달 드리는 불공은 생략하고 있다. 공식적인 불공 이외에 독불공이라는 개인 불공이 있는데 가내에 평온과 워복을 기원하면서 개별가정이 자청하여 드리는 불공으로 주로 정월에 행해진다. 그러나 집안에 우환이 발생하거나 삼대운에 접하게 될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절을 찾아와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에게 안녕을 기원하게 된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드리는 예불은 4~5시 사이에 행해지고 있다.

강 보살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사람들의 신앙심이 엷어짐을 우려한다. 이러한 지적은 모든 종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하다. 절에 찾아와서도 신도들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번 이야기라든지, 물질적인 이야기 등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얽힌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므로 믿음이 엷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2절 천 주 교

제주도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858년 본도인 베드로 펠릭스라는 한 사공에 의해서였다. 그는 1956년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중국 광동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유학중이던 조선인 신학생을 만나 교리를 배워 입교한 뒤 1858년 제주도에 돌아와 가족, 친척, 친구 등 20여명을 입교시키고 집단으로



천주교회 전경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원군의 병인년 박해로 이 교우 집단은 없어지고 그 뒤 1899년 페이네(Peynet) 신부와 김원영(金元永) 신부가 파견되어 제주을 대교당과 서귀포 한논에 본당을 창설함으로써 제주도에 복음이 시작되었다(이상 한라연감 1991 : 495 참고). 이렇게 전파된 천주교는 비약적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는 1901년에 제주교난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 교란에서 근 700여 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도의 천주교 전파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신유년 교난에 관한 연구서(김옥희 1980)이다. 교난시의 교민들은 가옥과 재산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의 피해상을 밝히는 대목은 연평리의 고영준, 고관송, 강찬기, 윤명관 등이 가옥 및 가산 피해를 당한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다(앞의 책 207).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도에 천주교가 전래된 역사는 제주교구의 역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유교란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서들과 논문들이 나왔으므로(김옥희 1980, 이기석 1988 등) 여기에서는 자면 관계상 상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주민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있는 우도에의 천주교 전파는 1901년 제주 천주교회

초대 신부인 구마실 신부가 내도하여 포교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당시 구마실 신부는 전 천주교 연평 공소장인 고정환씨의 증조부 고영준(당시 하고수동에 거주)씨와 외조부인 강찬기(역시 하고수동에 거주)씨와 접촉하여 포교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우도내의 상하고수동과 삼양동, 천을동, 주흥동 일대에 교세를 확장하며 신도들을 끌어들였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교란시에는 4명의 교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우도에의 천주교 전파 연대는 1901년 교난이 일어난 해와 일치하고 있는데 신축년 교난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천주교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일찍부터 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교세는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이곳의 주민들이 전통적인 민속신앙에 깊숙히 젖어 있어서 이질적인 종교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우도내에서의 교민 확보가 어려워 교세를 확장하는 일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973년도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조사반이 내도하여 우도 전반에 대해서 학술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보고서를 펴내었는데 이중 종교분야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신도들의 학력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인들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명, 고등학생이 10명, 중학생이 2명, 초등학생이 8명 그리고 중학교 중퇴자가 1명으로 학생 신도들이 24명이고 기타의 신도가 27명, 총원 51명으로 집계되었다. 학생들이나 식자계층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 교인이 33명으로 남자 신도 18명의 거의 배에 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주교 전파의 역사가 오랜 것은 아마도 이 지역 주민들이 어선을 이용 일찍부터 육지부와 직교역을 실시하여 육지부의 문물을 어느 지역보다 먼저 접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회는 천주교 성산포 본당 우도공소 교당이 서광리(중앙동 1458-4번지)에 세워져 있다. 일요일마다 공소에서 미사를 올리고 있고 성산포에서 신부가 매월 1회씩 본 공소를 방문하여 미사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성탄절인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신강림일, 성모승천일 등 대축일에는 표선, 세화 공소의 신도들과 함께 우도 공소의 전 신도들도 성산포 본당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린다.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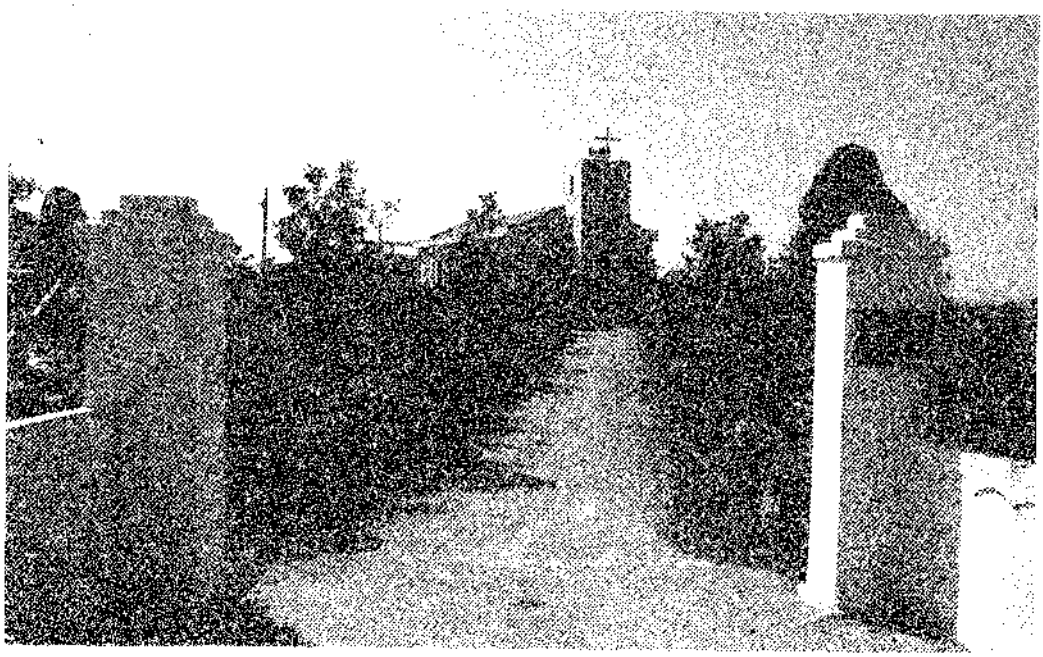
(1992년 12월)의 신도수는 30명이며, 이중 여성이 20명, 남성이 10명으로 여성 교인이 여전히 배에 달하고 있다. 연령층은 2세에서 7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70년대보다 신도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세받은 신도들이 다시로 출타해 나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생계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이곳 주민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할 때 영적인 신앙 생활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도 신도수가 증가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라고 현 공소장인 한광천(57세, 하고수동거주)씨는 말하고 있다.

제3절 기 독 교

기독교 즉 개신교가 제주도에 선교되기 시작한 것은 1907년으로 기록되고 있다(한락연감 1991 : 497-498). 제주 선교는 바로 이해 9월 17일 평양중앙교회에서 조직된 조선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창립 7인의 목사 중 이기풍 목사를 제주 선교사로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제주 선교사로 결정된 이듬해인 1908년 남해의 거친 풍랑을 넘어 제주에 상륙하였다. 당시의 제주의 상황은 신축성교난으로 인심은 거칠대로 거칠어 있었다. 도민들은 서양사교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독교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기독교의 선교를 허락한 후였으므로 관가에서는 소요하는 도민들을 무마할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이기풍 목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내(城內)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위협당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적대시 당하거나 심지어는 침식마저 거절당하는 어려움 속에 제주선교에 심혈을 기울였다(앞의 책 : 497). 이러한 희생적인 선교의 결과로 1925년에는 제주시를 비롯하여 모슬포, 법환, 세화, 성읍 등에 교회가 들어섰고 기독교 신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기독교 제주 전파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우도에의 기독교 전파는 뒤늦은 감이 있다. 현재 두 교회가 세워져 각 교회가 신도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의 기독교 교세의 전망은 밝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도내의 기독교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대한 장로회 우도교회



대한장로회 우도교회 전경

본 교회는 1974년 서울에 있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파견한 김유미 여선교사가 우도에 내도하여 동년 5월 19일 연평리 서천진동 윤석찬씨 댁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첫 기도회를 가졌고, 동월 25일에는 김혜숙씨 댁에서의 예배로 개척 전도가 시작되었다. 동년 7월에는 장로회 신학교 하기 봉사대 8명이 찾아와서 전도함은 물론 교회학교를 열어 참석한 주민들에게 기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연평초등학교, 공의 진료소, 구 농협 건물 등으로 이동하며 예배를 드렸다. 또한 장년들을 위한 저녁 예배는 윤지홍, 김연금씨 집에서 드림으로써 장로회 교회의 존재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다. 1974년도에 현재 하우목동에 거주하는 오영돈(66세)씨가 교회부지(중앙동 1943번지)을 제주시 장로교회측에 임선하였다.

1975년 5월 14일에는 중앙동 1943번지내 480평 대지에 제주노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총무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건립 기공식을 가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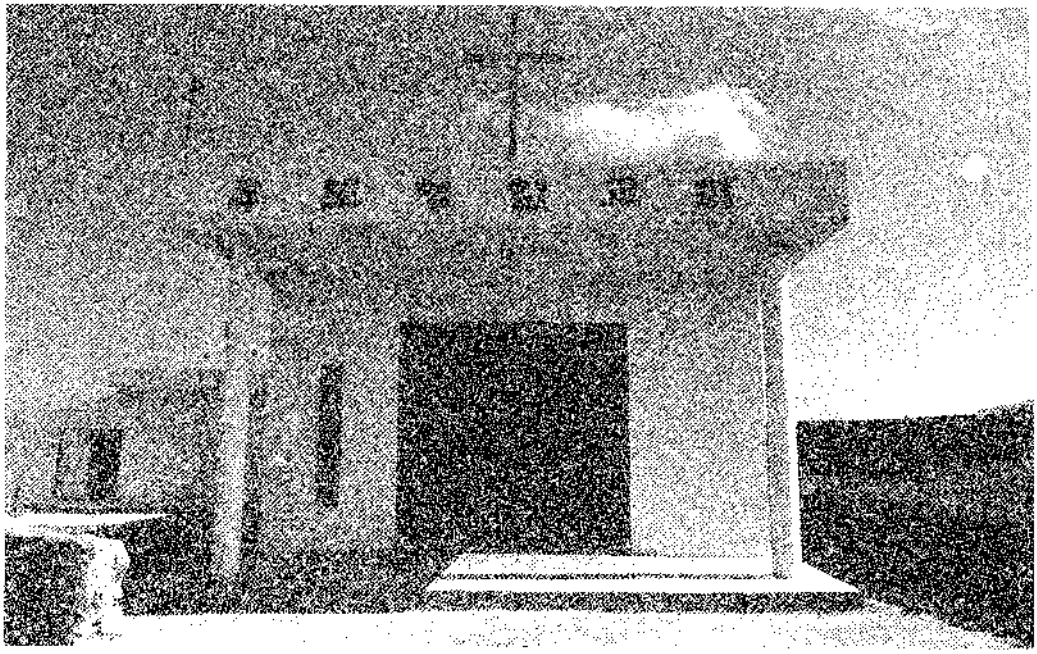
며, 1976년 12월 준공을 보았다. 이어 1977년 4월 20일에 제72회 제주노회에서 우도교회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본 교회는 종로5가에 총회를 두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교회조직으로 제주시에 있는 제주노회, 그리고 그 하부 조직으로 동부지역에 20여 지역 교회들이 분포되어 교세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우도에서는 1978년 5월 5일 이종구 전도사가 제2대 책임자로 부임하여 동년 7월에 사택을 건립하고, 10월에 완공을 보았다. 이 전도사는 이후 계속 우도에 남아 전도사업을 하던 중 1983년 전도사직을 사퇴하고 우도를 떠났다. 현재 재임중인 차재천(66세) 목사는 제3대 부임자로 1983년 8월 4일에 부임하였다. 차 목사는 동년 교회부지내에 건평 40평의 교육관 건물을 건립하고 84년 3월 5일에 완공을 보았다. 이 건물을 이용하여 어린이 선교원을 개원하였고 1986년 6월 20일 군청에서 정식 인가를 받아 현재는 명칭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유아원 운영에는 양정희(2급 정교사)교사가 원아생 50여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원장은 차재천 목사, 원감은 홍성숙씨, 급식영양사는 우후선(23세)씨가 맡고 있다.

신도들은 모두 85명에 이르고 있다. 신도는 대부분 여성들이며 약 30%정도만 남성들이다. 연령별로 보면 장년부가 30명, 청년부 12명, 중년부 23명, 주일학교 유년부 교인이 23명이다.

이 곳에 교회를 건립하게 된 동기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기독교인의 사명 의식하에 섬중의 섬인 우도까지 선임 전도사들이 내도하였다고 차목사는 회상하고 있다. 교회 건립 당시만 해도 3년내에 300명의 신도가 구성되리라 생각했으나 이러한 기대는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포교 10년을 맞고 있고, 또 사회적인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교세 확장의 어려움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10명을 전도하는 것은 육지부에서 1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차목사는 실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이곳의 문화적 양상에 기인하고 있다. 즉, 주민들은 전통신앙인 무속에 깊이 몰입해 있어서 교인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래서 교세확장의 희망은 단지 유아원 운영에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유아원생들도 자라서 교인이 된 후 섬을 떠나기 때문에 신도들이 증가하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2. 우도 영일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우도영일교회 전경

우도에 전래된 종교단체 중에 가장 뒤늦게 도입된 종교단체가 바로 영일교회이다. 교회의 공식명칭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우도 영일교회」이다. 성결교회 총회는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1907년에 세워졌고 우도로 전파된 것은 1990년에 이르러서이다. 현재 영일교회를 정기채 전도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한 여전도사가 들어와 선교하다 떠났다고 한다. 이어 1990년 7월 2일 정기채 전도사가 영일동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함으로 본 교회는 우도에 다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후 1991년 5월 9일에 교회자리를 다양동으로 이전하고 대도시의 여러 신도들의 성금으로 모아진 자금으로 현재의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고 이듬해 8월 29일에 교회건물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부대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40여평의 건물에서 정기채 전도사 부부가 교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회의 역사가 짧아 신도들의 수는 이곳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적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교인들은 모두 25명에 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 보면 장년층이

3명이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9명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13명에 이르고 있는데 역시 대부분이 여성신도들이다. 교회의 건립은 전적으로 앞서 지적한 기독교인 특유의 강렬한 신앙심과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전도사의 사명의식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섬을 떠났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 올 경우에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인 확보에는 다른 교회와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다. 즉 이는 기독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기존 민간신앙에 대한 깊은 믿음 등이 교세확장에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사정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전도사는 자신의 깊은 신앙심이 많은 주민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리라는 일념에 차서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려고 성의를 다하고 있다.

제4절 신 흥 종 교

1. 신흥종교의 일반적 성향

오늘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수 많은 자생 신흥종교들과 외래 신흥종교들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저마다 교세의 확장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들의 종단수는 현재 약 4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신도수도 3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노길명 1990 : 15). 신흥종교들은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날 한국은 "신흥종교의 왕국", "세계종교의 전시장" 그리고 "종교백화점"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신흥종교하면 계룡산이나 전라북도의 모악산을 연상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로부터 도피하려는 과거의 소극적이거나 폐쇄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대도시에는 물론 농촌지역에까지 적극적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계파의 세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흥종교의 발생의 원인은 연구자들 사이에 여러가지로 주장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신흥종교란 사회적인 모순과 기성종교의 한계나 문제점에서 발생한다고

주장된다(노길명 1990 : 25). 그래서 발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원인이며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원인이다. 대체로 안정되고 건전한 사회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종교가 제기능을 다할 때 새로운 종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널리 인식되어 왔었다.

제주도의 종교 현상도 한국사회의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흥종교로서 제주도에 처음으로 이입된 종파는 1916년의 태을교를 들 수 있다(이강오 1977 : 126~130). 일찍부터 도입된 이 태을교는 1922년에 보천교로 개칭되어 포교되었는데 당시의 많은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이 이 교에 귀의하여 수도하였다. 그래서 한때 이 보천교는 제주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가장 큰 교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천교 자체가 제기한 문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일제의 완강한 탄압에 의해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면서 교세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 후 제주에는 뚜렷한 종파의 이입이 없다가 6·25동란과 더불어 피난민의 대열 속에 끼여 각종 신흥종교들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제주도의 신흥종교는 그 유형별로 볼 때 8계열로 구별된다(이강오 1977 : 127). 즉, 불교계, 물법계, 기독교계, 일본계, 증산계, 수운계, 무속계 등이다.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수 많은 신흥종교들을 여기에서는 모두 언급할 수 없고 본고에서는 우도에 도입된 종교에 한정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2. 물법계의 신흥종교

우도의 종교현상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신흥종교는 바로 불법계 종교이다(이하 노길명 1988 : 106~109 참고). 이 종교의 창시자는 제주도 연평리(우도) 김봉남(金奉南, 본명은 김영선, 1898~1950)이다. 그는 8세 때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였으나, 14세 때 위장병에 걸려 만성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18세 때에는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육지부로 건너가 구병도와 같은 신흥종교들을 찾아 다니며 많은 도인들을 만나 도술을 배우고 21년에 걸쳐 입산수도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던

중, 1937년 정상남도 기장의 연화산에서 두 차례의 백일 기도를 드리던 끝에 하늘로부터 물법을 받고, 피가 맺힌 고깃덩어리 하나를 토해냄으로써 마침내 병을 고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1943년 강신 체험을 하면서 중생의 삼고를 해탈하고 심수법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는데 치유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생불로 추앙하며 따르게 되어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교단의 교세가 커지자 일제 당국은 김봉남을 사도난민의 혐의로 체포하여 고문을 가했는데 이로 인해 한때 그의 교세는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다. 8·15해방 후 김봉남은 교단 본부를 기장에서 부산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지를 순회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모아 거대한 교세를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자, 그의 제자들은 교권상의 문제와 교리 해석상의 이견으로 저마다 새로운 종단을 세움으로써 현재에는 여러 종파로 분파되고 말았다. 이 물법계의 신흥종교로는 삼법수도원·천지대안교·성덕도교화원·태화교·무방교·용화삼덕교·찬물교·봉남교·대한도교 그리고 삼천교 등 20여 종파가 있다.[1] 그리고 신자는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법계 종교의 신앙대상은 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질로서의 물이 아닌 물법의 신비로 바뀌었다. 물법이란 단식을 하고 주문을 외우며 찬물을 마심으로써 심신의 죄악은 물론 고통과 질병을 퇴치하고 노통에 이르는 수도법을 말한다. 물법계에서는 찬물은 인간의 심기를 맑게 하고 심화기화(心和氣化)의 작용을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물은 우주만물을 생성시키는 원질이며, 만물을 키우는 생명력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의 심성은 본래 깨끗하고 맑은 것이며, 인간의 체력은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물의 기질을 지님으로써 생기가 왕성하게 된다. 인간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깨끗하고 맑은 마음에 죄악과 번뇌가 생겨서 심성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성이 더러워지면 자체에 오염이 생기고 생명에는 수기가 결핍되며 생기에 지장을 초래하여 질병이 생기게 된다. 즉, 질병은

1) 찬물계 계통의 신흥종교의 형성과정, 특히 김봉남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글은 조성윤(1992)의 글을 참고하기 바람.

인간의 심기가 수기를 잃어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법을 통해 심수(心水)의 벌을 육체에 불어 넣고 신체의 생명수를 충족시켜야만 질병이 치유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질병에 대한 치유 방법으로는 마음을 밝히는 참회와 주문암송, 기를 깨끗이 하는 찬물마심과 안찰 및 단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종단에서는 신체의 질병은 마음의 잘못에서 온다고 하여, 물법치료를 받기전에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물법계의 신흥종교는 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교리에는 유불선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 즉, 윤리규범으로써 삼강오륜과 인의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유교적인 것이며, 참회와 심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교적인 것이며, 주문을 외우고 물을 마심으로써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도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찬물요법이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불선 삼교의 진리를 통전한 대도진법의 시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법계의 종단은 유불선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다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교단으로 분파되기도 한다. 현재 천불교와 성덕도교화원은 유교의 윤리적인 면을, 용화삼덕교와 봉남교는 불교의 염불과 참회를, 대한도교와 삼법수도원은 선교의 주술치병을 보다 중시하여 분파된 종단들이다. 특히, 태화교와 봉남교의 교리나 신행에는 무속적인 내용까지 융합되어 있으며, 태화교에서 분파된 삼천교는 부속신앙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이상 노길명 1986 : 106~109를 참고함).

우도에 들어와 있는 물법계의 종교로는 천지대안교와 타불교가 있다. 그리면 이 두 교의 발생의 배경과 종교적 특징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천지대안교[2]

1) 천지대안교의 창립 배경

천지대안교는 제주 출신인 부경순(夫景順)이라는 여인이 창립하였다. 천지대

2) 종교적 부분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로 시소한 점에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본고의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전 전북대 이강오 교수가 조사하여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실려 내용을 다듬고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안교를 일으킨 곳은 부산 영도구 영선동이며 부경순은 이곳을 포교활동을 위한 본거지로 삼았다. 부산의 본당이 충남 논산군 두마면 무남리로 이전하게 된 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도의 본당은 철폐되지 않았고 교주의 여식인 조영자가 여기에 머물러 포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천지대안교의 본부는 부산 영도의 분회와 계룡산의 본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셈이다. 한편 영도 남항동에 천지대안교 지부는 신도 김계춘(金桂春)이 설치하여 포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 교단을 창립한 부경순은 서기 1900년 8월 27일 제주도 북제주군 종달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녀는 원래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국문 해독도 못하는 문맹자였다. 21세 때(1920년)에 남편 조상만을 따라 일본 대판에 건너가 노동과 상업으로 연명하다가 45세 때에 해방을 맞게 되었다. 그 해 9월 29일(음력) 당시 소위 "대보환사건"으로 부산을 떠들석하게 했던 선박인 대보환(大保丸)이라는 이름의 발동선을 타고 9인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대마도 근해에서 해적을 만났다. 이 때 시어머니와 남편, 장남 등 가족 6인이 해적에게 살해당하고 부경순은 구사일생으로 1남 1녀만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고국에 돌아온 부경순은 부산 영도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해적에게 받은 심한 충격으로 그녀는 정신적 이상이 생겨 마치 정신병자와 같이 되었다. 때마침 영도에는 제주도 태생인 김봉남이란 도인이 도법에 의해 모든 난치의 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퍼져 많은 환자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고 있었다.

김봉남은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연평리에서 1898년 4월 빈한한 농가에서 농부인 부모슬하에서 태어났다. 그는 8세부터 한학을 배우다가 18세에 우연히 병에 걸렸다. 그 증상이 정신이상과 같아서 온갖 방법으로 치료하였으나 효력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마침내 병고를 비관하고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집을 나와 육지부로 나갔다. 뭍지에 나오자 그는 전국을 유랑하면서 정신수양에 전념하였고 한때는 보천교에 입교하여 입신수도도 하여 보았으나 효력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또 사찰에 들어가 수도를 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그는 마지막으로 116일 동안 물법 단식치료를 스스로 행하였는데 이때에 신병의 완치를 볼 수 있었다. 이 물법 단식치료는 일체의 식사를 끊고 찬물만 마시

면서 수도하여 병을 고치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단식의 기간은 병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15일이 소요된다. 단식하는 기간에 찬물만을 마셔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찬물은 청정한 것이어서 심신의 모든 오염을 씻어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단식 치료하는 동안 주문을 계속하여 외우게 되는데 이 주문을 외움으로써 심신이 수련되어 질환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도력을 얻어 신선의 경지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김봉남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모든 질병이 심신의 부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질병을 고치는 데에는 약물보다 주송(呪誦)으로 심성을 밝히고 찬물로써 오염을 씻어내며 동시에 지난 날의 허물을 참회하면서 도덕을 실천하면 모든 병이 퇴치된다고 하였다. 도덕의 실천은 유교의 법이요, 심성을 밝히는 것은 불가의 법이요, 찬물요법은 도술의 법을 취한 것이라고 하여 찬물요법을 단순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 불, 선, 삼교의 진리가 통합되어 있는 대도진법의 시행이라고 하였다. 실제로도 환자들이 주문을 외우고 찬물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과정에 접령자와 같이 심신의 이상이 생기고 신과 통하여 계시를 받는 사람과 같이 이상한 말을 지껄이게 된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김봉남의 도력과 그가 시행하는 불법의 신비를 느껴 스스로 종교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김봉남의 문하에는 많은 문하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들이 점차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종교단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2) 김봉남의 도술치유법

김봉남으로부터 신병치료를 받은 부경순은 마침내 봉남교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김봉남은 자기의 교법에 어떠한 종교의 이름을 내세운 바 없었지만 사람들이 봉남의 산하에 모이는 단체를 가리켜 "찬물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부경순이 찬물교의 신도가 된 것은 찬물치료의 신비에 끌린 바도 있지만 보다 더 마음이 끌린 것은 김봉남의 "도통공부"와 "운도"를 말하는 예언이었다고 한다. 봉남이 지도하는 도통공부에 깊이 들어가면 천지의 "영해"에 도달하여 마음 가운데에 부형의 "심수", "심법"을 통할 수 있고 동시에 천지의 "태평", "태평"을 보아 심신의 "대도", "대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교리의 핵심

을 아루고 있다.

그런데 이 도통공부의 방법은 팔팔정국이라는 단계적 수도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우선 첫째 단계의 <초통공부>에서 주문 <나무아미타불이나 태상노군>을 주로 하여 여러 가지 주문을 연속하여 외우고 있으면 이상한 기운이 생겨나 몸을 흔들게 되고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을 토로하거나 혹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거나 통곡을 하거나 자신의 가슴을 두들기는 등 광적 현상을 연출하게 된다. 또는 기도하는 사람의 눈앞에 천상과 지견, 신비한 물형과 귀신의 형상 등이 나타나는가 하면 혹은 신어(神語)와 같은 이상한 말이 들리기도 한다. 김봉남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도통에 들어가는 과정에 식마의 경지(마에 걸린 경지)라고 명명되었지만 공부하는 자들 대부분은 이 신비한 현상에 매혹되는 자들이 많았다. 특히 김봉남의 물법은 도통공부의 이법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도통공부에 어떠한 신비를 얻으면 신병은 곧 치료가 되는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물법에 효과를 얻은 자는 의례이 도통공부에 정진하면서 차물교의 교도가 되는 것이었다. 이 수련공부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대개는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보통인데 때로는 다른 지방의 정적한 곳을 찾아서 집단수련하기도 하였다.

3) 천지대안교의 탄생

부경순은 물법에 의하여 자신을 치유한 후에 아들의 병도 치료하였다 한다. 때로는 부경순은 김봉남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였다. 그는 도통 공부 중에 얻은 신비가 곧 자신이 도통된 것을 입증한다고 자부하였고 도중에 맞는 환영이나 자신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말(此說이라고 함) 모두가 자기에게 구세의 권능을 주는 신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부경순은 마침내 교주 김봉남을 비관하고 자신이 교주가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4월 8일(음력)에 김봉남이 사망하자 지도자를 잃은 교인들이 각자 행동을 취하려 할 때 부경순은 자기에게 천명으로 구세의 권능이 내렸다고 하면서 자기 슬하에 신도들을 모이게 하였다. 이 때 자기에게 태상노군(太上老君)이 강림하였다는 말로 신도들을 유인하였다. 태상노군은 중국의 도가들이

종주로 받드는 노자(老子)의 존칭이다. 김봉남의 물법이나 도통공부가 선가의 치병술과 주술적인 수련방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련공부에서 태상노군은 가장 중요한 신앙대상인 것이다. 부경순은 또한 자신의 도호(道號)를 해월선(海月仙)이라고 하였다. 이 도호는 봉남이 죽기 전인 1949년 11월 6일 부경순의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그대는 해월선이다. 말세 인간들을 구제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천령(天靈)께서 자기에게 도호를 주어 구세의 권능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세의 방법은 다름 아닌 봉남에게 받은 물법과 수련공부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부경순이 영도의 홍법사 불당에서 수양할 때 도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도통은 김봉남의 도통이 태상노군 강림으로 이룰 수 있는 뜻으로 말하였다. 그런데 이 도통은 천상의 도통으로 변하였다. 이 김봉남의 물법을 받아 질병을 치료하는 부경순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점차로 수를 더하게 되자 1952년 가을에 자신이 일으키는 교가 천명으로 천지대안교라는 도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천지대안교의 교주가 되고 영도의 자기 집을 천지대안교의 본부로 삼았다. 이때의 교도는 여자들로서 약 50명 정도였다고 한다. 1952년 가을 부경순은 천지대안교의 교주이므로 자신이 곧 옥황상제이며 미륵세존으로서 새로운 천지가 개벽되는 운수(運數)에 말세인간을 재난에서 구제한다는 해괴한 설을 퍼뜨리는 바람에 우매한 부녀들이 모여들었다. 1956년 9월 충남 계룡산의 삼신당에서 천지인 삼합도수에 의한 공사를 본다고 여신도 5인(5선녀)을 데리고 기도수련을 하게 됨을 계기로 하여 영도의 본부까지 신도안에 옮기었다. 이때 천지대안교가 계룡산에 옮기게 된 이유는, 첫째로 부경순 교주가 1955년 정월에 천지대운이 한국에 내임(來臨)함을 알린다고 신도들을 이끌고 부산에서 시가행렬을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조소와 빈축을 사게 되어 교의 위신에 심한 타격을 받게 된 것과, 둘째로 새 운수(運數)의 개벽을 주장하는 교리는 한국의 새 운수가 세워지는 터전으로 알려진 계룡산 신도안에서 펴기가 쉽다는 생각에서이며, 셋째로 김봉남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를 자기의 교리로 주장하기에는 김봉남을 따랐던 제자들의 저주도 있으려니와 봉남교의 발상지에 본부를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사종교의 못자리라고 알려진 계룡산에 두는 것이 표교상의 이를 거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강오 1977)

천지대안교의 본부가 계룡산에 이전된 뒤에는 그 포교의 활동이 더욱 넓어졌다. 각종 신흥종교들이 모여 있는 중앙에 어엿한 교당이 세워지고 한국에 새 운이 오고 교주가 이 운수를 개척한다고 하여 때로 교도들을 동원하여 행렬을 하고 신도안이 떠들썩하게 하여도 아무런 거칠 것이 없었다. 이곳(신도안)이야말로 온갖 미신을 도맡아 행하면서도 미신 타파를 한다고 해도 통하는 지대였다. 그런데 1965년 6월 4일 그러니까 계룡산으로 본부가 이전된 후 9년째 되는 해에 교주 부경순이 사망하자 그의 후계자로 제주 태생인 김태순 선녀가 교단을 맡고 있다.

4) 교 리

천지대안교에서 신도들은 교주 해월선을 절대자이며 구세주로 신앙한다. 해월선은 부경순 교주가 천명으로 받은 도호라고 한다. 그런데 이 해월선은 인간 부경순의 호가 아니라 조물주이며 옥황상제이며 태상노군이며 미륵세존의 집약된 칭호라고 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1953년 겨울에 교도들이 공부할 때에 해월선님의 하는 말이 "금일까지는 나의 육체로 지도하였으나 앞으로는 영(靈)으로 지도하겠다" 하면서 공부하는 자들의 등을 한 번씩 치고 "영을 보라" 외치자 공부하는 자들이 모두 통영(通靈)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통영이 되어 보니 백발 노인이 천당에서 내려와 강당에 좌정하였다가 해월선으로 변신하여 하는 말이 "나는 옥황상제다. 옥황상제는 태상노군이오, 태상노군은 미륵세존이다. 미륵세존은 부해월선이오, 부해월선은 인간 육체 부경순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차 통영으로 보니 그가 말하기를 "천상 분부 받아라, 지상 분부 받아라, 세계 역사 받아라, 신 분부 작성하여라, 해월선님은 신천지 오만년 운도를 내어 놓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해월선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조물주라고 신도들은 믿는다. 이도 또한 선녀 김태순이 통영으로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룡산 본부에 세운 교주의 비(碑)에 「천지 대안도 완전 조물주 부해월선」이라고 새겨 놓고, 여기에 새 천지의 개벽을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물주는 물론 유일신적인 존재이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교의 유일신은 한국재래의 무속신앙에서 보는 다신(多神)의 위에 두는 일신(一

神)인 것이다. 말하자면 다신신앙의 바탕 위에 일신을 세우는 것이다. 해월선은 후천 말세의 인간들을 구제하는 구세주인데 이 구세주는 조물주의 사자로 강림한 것이 아니라, 후천 조물주께서 직접 인간 세계에 내려 온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해월선은 후천운도의 신천지를 개벽하는 개벽주이다. 이 새로운 천지는 지하운으로서의 지상극락이다. 지상극락은 불교적으로 용화세계이다.

따라서 해월선은 도래한 용화주 미륵불이다. 이 미륵불이 내려 와서 용화세계를 완전히 받들지 못하고 다시 귀천하였다면 그는 죽어서 인간세계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체만 인간세계를 떠난 것이고 그 영체만은 인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하며 앞으로 재생할 것까지도 믿어야 한다. 한편 해월선은 용왕신이다. 용왕신은 바다의 신이다. 그리고 이 바다의 신은 천신과 결부시킨다. 부경순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에 대마도 근해에서 조난한 것은 해월선이 해운천명을 반은 것이라고 한다. 이 증거로서 부경순이 공부 중에 천영에서 하는 말이 "너의 가족 되살리려 하지 마라 성현이 하는 일에 혈살이 무엇이냐? 내가 구천관에 앉아 구천년 동안 살피다가 대해를 잔너올 때 대가족을 달아 올리고, 인간 장성 소원 발원하고 육체에 대신 하강 하였노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 교에서 숭배하는 만국기(萬國旗, 神旗)에 용과 거북을 그린 것도 해월선이 용왕신으로서 용궁조화(龍宮造化)를 부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敎의 신앙 목적은 새로운 천지운수의 개벽시기에 처하여 있는 말세인간들로 하여금 재액을 벗어나서 크게 안락한 새 세계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교의 교주나 신도간에 어떠한 체계적이며 이론적인 우주관이나 인생관이 세워질 수 없지만 굳이 우주관이나 인생관을 말하라면 천지의 새 운도개벽을 믿는 것과 말세에 처한 인간의 새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주관이며 인생관이라 하겠다.

이 교의 경전 계운전(啓運典)은 곧 천지운도가 열리는 법전이라는 것이다. 계운전에서 보면 1949년 2월 7일 상오 3시경 부경순이 수도 중에 통영으로 말하기를 「때가 오고 運이 오니 선후천이 바뀌어지니 앞으로는 지하운이다. 지하운인 새 천지운 공부를 하여야 보평하리라」하였다는 것이다. 이 선후천운도가 바뀐다

는 것은 중국의 역사상(易思想)과 음양사상, 한국의 전래적인 도참사상에 뿌리를 박고 있는 신흥종교일반에서 공통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말세설이며 또한 부경순의 스승으로서 사실상의 교주라고 볼 수 있는 김봉남도 이를 주장한 것이지만 특히 부경순이가 말한<지하운(地下運)>은 선천(先天)의 운도(運度)가 천운(天運) 즉 건도운(乾道運)이었음에 반하여 후천의 운도가 곤도운(坤道運)이란 말이며 곤도운은 곧 여자운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남자운수가 다 되고 여자운수가 이른다는 것이다. 이 여자운에는 여자가 남자의 상위에 있게 되므로 도를 펴는 천명도 여자에 돌려진다는 것, 이것이 지난 날 봉남에게 도명이 있다고 믿은 것을 해월선 자신에게 도명이 주어진 것으로 믿으라는 이론이기도 하다. 지하운은 다시 해운(海運), 선운(仙運), 용화운(龍華運)으로 설명된다. 역학적으로는 후천운이며 음양학적으로는 지하운, 곤도운, 수운이며 도교적으로는 선운이며 불교적으로는 용화운이며 무속적으로는 해운이란 이름이 차례로 이어진다.

이와같이 본다면 부경순은 역학 등 전래적인 운도설을 자기의 무교적인 운도설로 전향시킨 셈이 된다. 선운은 태상노군이 주재하는 운도이다. 부경순이 처음 김봉남에게 받은 물법이나 도통공부는 대개 태상노군을 믿는 선술(仙術)의 내용에서 취한 것이다. 이 공부에 의하여 남자는 태을선인이 되고 여자가 옥황선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선운개벽이다. 이 선운개벽에 의하여 부경순 교주가 해월선님이 되고 모든 신도들이 물법과 단식, 도통공부로 지상선이 된다고 믿는다. 다만 곤도중심(坤道中心)이 아니라 선녀가 중심이 되는 것이 특색이다. 사후에도 남자는 선남으로 극락 세계에 참여할 뿐인데 여자는 옥황선녀의 자리에서 남자를 지도하게 된다는 사후사상이다. 용화운은 미륵불이 주재하는 운도이다. 1954년 3월 15일 해월선이 신령으로 전하기를 "앞으로 각 도(道), 각 파(派)는 합덕지운(合德之運)을 맞이하였으니 미륵세존을 단성으로 숭배하라. 미륵세존은 통합 일운(一運)이다. 일운으로 개척하여 나가라."라고 하였다. 즉 미륵세존은 유불선 모든 도파가 하나로 통합되는 운인데 이 운도의 세계는 5만년의 지상극락이라고 한다. 이 5만년 용화운은 곧 해월선이 주재하는 해운(海運)이다. 해운은 1954년부터 해월선에 의하여 개척되는데 六大九月에 완전히 개벽된다고

하였다. 六大九月은 한국의 전래되는 도참설에 여섯 번 큰 九月달에 새로운 세계정부가 개벽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마침 음력으로 1969년부터 6년 동안 구월달이 크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도참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때에 세계의 개벽이 있으리라고 믿는 이가 많았다. 부경순이 말한 해운의 새 세계도 물론 한국 땅에서 개벽된다는 것이다. 도참설에 말한 계룡산 운수는 곧 해월선의 해운개벽이라는 뜻에서 계룡산에 본부를 이전한 것이다. 도참설에 정도령이 가지고 나온다는 海印은 다름아닌 해월선의 바다해字(海)의 도술조화(道術造化)라는 것이다. 이 교에서 주문으로 「바다해자 해월선님 도술조화 지하지리 통일통령 물비소시 소원성취」라고 외우는 것은 해월선님의 바다 '해'자 도술조화로 계룡산 해운이 개벽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5) 계 운 전

천지대안교의 경전은 계운전이다. 계운전은 교주 부경순이 통영으로 토설(吐說)한 내용을 주로 하고 신주들 특히 김태선 선녀와 신경생 선녀가 수도중에 통영으로 본 것이나 토설한 것들을 수집하여 해월선이 새 천지운도 개벽에 주재자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에 교주 부경순의 역사와 김태순, 신경생 선녀의 역사를 첨가하고 교주의 경계 말씀과 성경문·신자들의 수도 공부에 대한 방법과 시험·소원문·찬가·평론가 등을 합하여 1961년 3월에 신도들의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四六版 400페이지로 된 것으로 그 내용은 대개 무녀(巫女)들이 신에 접한 이야기 같은 것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어서 해괴한 내용이 많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내용이 천령의 말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6) 예 배

이 교에서는 교주 해월선 외에 어떠한 신앙 대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월선이 생존시에는 교주를 산 조물주로 숭배하고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는 다른 예배가 없었다. 교주인 해월선에 드리는 예

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상시의례로서 교주가 죽은 뒤부터 교당에 교주의 사진을 모시고 신단을 설치하고 그 신단에 조석으로 찬물을 올리고 기도소원문을 외우며 찬양가와 천지평론가 등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3]. 조석예배시 외우는 주문은 「바다햇자 해월선님 도술조화 통일통령 불비소시 소원성취」라는 24자를 주로한다. 24자 주문은 김태순선녀가 1954년 9월 30일에 백일단식 통령(通靈)으로 강설(降說)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주문은 세종대왕이 지은 한글과 같은 숫자로서 한글 24자는 한민족을 교화를 목적한 것이지만 본 교의 24자의 주문은 전 세계 인류를 구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언급한 예배는 통상 예배시에 행하는 절차이다. 다음으로는 입시 예배가 있다. 신도들의 물법수련이나 도통수련도 교주 해월선님의 개운도수와 은혜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주에 대한 일종의 예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교단에는 국가수도라는 명목으로 교단에 모여 기간을 정하고 기도수련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예배가 바로 입시예배이다. 다음으로는 정기예배가 있다. 정기예배는 이 교에서 중요한 날로 지정된 때에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3월 15일(음력 이하 同 : 해월선이 용화운을 받아 본 날), 4월 6일(교주 해월선의 終天地날), 7월 15일(해월선이 천자대알도호를 받은 날), 8월 27일(해월선의 誕生日), 11월 6일(해월선이 도호를 받은 날)에 신도들은 본부나 지부 또는 교당에 모여 예배를 올린다.

---

3) 〈기도소원문〉
합장예도 천하유와 해월신
어머님전 소원이올시다.
만천하에 중생들이 역천죄를
지을지라도 천지어머님의 은덕으로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심시오.
거룩하신 어머님의 새로운 봉재로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기 소원이올시다.
〈찬양가〉
높고높은 해월선님 깊고깊은 심신으로
선심수도 길이하여 선녀보여 운았치니
구천선녀 하강한듯 선생풍덕 하심러냔
포고분을 등에지고 방방곡곡 돌아보며
빈한한자 구제하여 있는자를 제유하며
도덕세계 되였으니 그아니 좋을소냐
중생제도 널리하여 억조창생 하였으니
덩정하신 해월선녀 천만세에 포덕하세

7) 修 道

본교의 수도생활이라면 대개 <물법수도>라고 해서 찬물만 먹고 단식하면서 주문이나 기도문 등을 외우는 것이다. 단식 기간은 보통 1주일로 하는데 개인 능력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기도 한다. 여기에 최장기 단식 수련이 현 교주 김태순이 행한 백일단식이라고 한다. 물법치료의 방법은 사람과 때에 따라 다른 점도 있겠지만 대개는 하루에 찬물 다섯 그릇을 마시고 매일 찬물로 목욕하는 과정이다. 이 물법수도는 원래 부경순 교주가 김봉남에게 받은 방법에 주문을 가미하여 변경한 것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물법수도를 하게 되는데 물법수도야말로 심신의 죄악을 제거시키고 통영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도통공부> 또는 <통영공부>라고 한다. 또한 이 공부는 해월선님의 운도 개척에 참여하는 공부라고 해서 <운도공부>라고도 한다. 이 운도공부는 한국을 중심으로 오만년이 계약된 용화세계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국가수도>라고도 한다. 물법과 해월선의 운도개벽과의 연계관계는 후천운(後天運)은 해운(海運)이며 수운(水運)이라는 데에 있다. 「바다햇자 해월선님 도술조화 통일통령 물박소시 소원성취」라는 24자 주문을 외우는데 이 주문을 주로 외우면 강신이 되고 통령이 되어 몸이 흔들리고 귀신 등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설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의 계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 계시는 바로 교주 해월선의 신력에 의하여 나오는 것으로서 1965년 해월선이 사후에는 공부 중에 보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어쨌든 이 수도공부에 의하여 해월선의 개벽하는 신천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현재 질병이 낫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삼재팔난(三災八難)까지 무난히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요컨대 본교의 신앙인 물법수도의 목적은 당면한 병고와 앞으로의 재앙을 물리치고 새 운도의 개벽에 참여한다는 데에 있다. 신도들은 본교의 신앙에 대한 10가지 신조[4]를 갖는다. 또한 엄격한 8조의 계율[5]이 정해져 있다. 본교에서 내세우는 윤리는 사강육론(四綱六論)[6]이라는 색다른 윤리를 세우고 있다. 이는 종래 유교의 三綱五倫에 대하여 새로운 윤리를 세운다는 의도의 소산이다.

신도들의 가정생활은 위에 말한 윤리관에서 보더라도 보수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신도들은 신교육을 받지 못하여 특별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대개는 농, 공, 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도들은 이 빈궁한 생활이 말세에서 구제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앞으로 개벽되는 세계는 빈부의 차가 없는 이상세계인데 오래지 않아 이 세계가 도래하리라고 신도들은 믿는다. 새로운 천지개벽이 있고 새 정부가 세워진다고 믿는 이 교에서는 현재의 정부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현정부에 불평한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를 추하면서 새 정부가 열리기를 고대한다. 정감록 비결을 믿는 사상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수련생활을 하는 데에 술, 담배, 도박 등을 멀리해야 한다. 기타 신흥종교들에서 보이는 남녀 신도들 사이의 성적 문란은 없는 듯하다. 신도들의 특수한 풍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없으나 전래적인 민속을 그대로 행하고 무속적인 행위가 많은 것이 특징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들의 의례적 관계를 보면 여신도를 선녀, 남신도를 선관이라 부르는데 선녀는 보통 재래식 한복에 황색벙거지(모자)를 쓰고 선관은 백색 두건을 쓰는 게 특색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대개 생식으로써 생 쌀가루를 장관하여 찬물과 같이 먹는 것이 보통이다.

---

4) * 신조 : 본교에는 「신앙에 대한 집시」라고 하여 10조의 신조를 갖는다.
(가)천지 어머니를 염원할 일, (나)나라에 충성할 일, (다)부모님께 효성할 일, (라)형제간에 화목할 일, (마)예의를 바르게 지킬 일, (바)빈한한 자 구제할 일, (사)어질고 바름을 지킬 일, (아)두 가지 마음을 먹지 말 일, (자)악은 불을 재촉하는 것이니 소멸시키고 이집을 행하여 우리 근본을 찾는 일, (차)마신을 영원히 타파할 일 등 이 열 가지 신조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10조 마신을 타파한다는 조항이다.

5) * 계율 : 본교에서는 「해월선님의 경계말씀」이라고 해서 8조의 계율을 정하고 있다. 즉 (가)남의 인권을 뺏지 말 것, (나)남의 후론하지 말 것, (다)남에게 보력하지 말 것, (라)시기, 투기하지 말 것, (마)자기 자칭하지 말 것, (바)내 몸에 난 치하지 말 것, (사)말소리 지국소리 높이지 말 것, (아)사람의 복은 마신에 있지 않고 말과 에도에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이다.

6) 四綱은 父爲子綱, 師爲弟綱, 夫爲婦綱, 國爲民綱이며,
六倫은 사강에 대하여 배강에 육윤이 있다는 것이니
父爲子綱에서…父道生 慈德成 師道生 和德成 夫道生 義德成
師爲弟綱에서…明道生 信德成 友道生 愛德成 長道生 明德成
夫爲婦綱에서…師道生 敎德成 弟道生 道德成 婦道生 順德成
國爲民綱에서…民道生 忠德成 子德生 敬德成 幼道生 孝德成을 뜻한다.

8) 교 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교의 교맥(敎派)은 김봉남 계통에 있지만 김봉남의 사후에 부경순이 스스로 자칭 천명을 받은 교주로 선언함으로써 김봉남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교단을 형성하였다. 교주 해월선은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며 우상인 것이다. 신도들은 이러한 해월선의 독재적인 명령에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교단을 운영하는 데에 상사하는 책임자나 또는 포교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도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 다만 백일단식에 통영하였다고 하는 김태순과 신경선 여인이 선녀라고 하여 교주의 뜻을 받들고 있을 뿐이다. 이 밖에도 통영을 한 자라고 해서 25선녀와 25선관을 지정하여 이들이 교단운영과 포교상에 중추가 되어 있다. 부경순이 사망한 뒤에는 김태순이 명목상 2대 교주가 되었으나 사실상 전 교주의 영령을 받드는 대리 교주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교인의 확장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두고 본부는 본교 발상지며 교주의 주거지인 영도에 두었다가 1965년 계룡산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지만 교주의 자택이 영도에 그대로 있고 그 자녀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본부는 영도 신선동과 계룡산 두 곳으로 나누어 있는 셈이다. 다만 부산 남항동에 김계춘 여인이 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각 지부는 제주, 거제 등지를 합하여 20여개소가 있는데 그중 제주도 지부가 17개소나 된다. 1969년 현재 교인은 3,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주도 출신이나 제주 태생의 신도들이다. 각 지부는 대개 지부 책임자의 가정 교당이 되고 있다. 대개는 선녀의 칭호를 얻은 독실한 신자들이 전교자들을 데리고 지부 선생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부는 소속 신도의 성금을 받아 지부와 본부 운영까지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포교의 목적이나 방법은 본부나 지부가 다를 것이 없다. 해월선의 뜻에 따라 새 천지 운도개벽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포교의 목적이다. 포교방법은 물론 물법으로 치료하고 운도개벽을 선전하는 것이다. 물법수련에 의하여 병이 낫는 것을 해월선님의 영(靈)에 의한 도술조화라고 한다. 물법의 신비와 선녀들의 영통(靈通), 토설(吐說) 등을 증거리고 내세워 해월선을 절대자이며 구세주로 우상화 한다. 때로 신도들을 모아 운도개벽을 알린다는 시위행렬도 한다. 포교의 외부적인 선전은 세계평화와 국가의 운수(運數)를 기원하는 국가수도(國家修道)

라는 명목을 내걸고 있다. 포교의 대상은 주로 병환자들이다. 특히 학문이 얕고 무술(巫術)을 좋아하며 세상을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여성들이 많다. 이렇게 신도들 대다수가 여성들인 까닭은 교주 해월선이 역시 여성이며 새 세계가 여성 운이라 주장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해월선을 믿어야 된다는 이론에 혹할 남성이 드물기 때문인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포교지역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즉 신입자(信入者)는 주로 부산과 제주도인데 그 중에도 제주도의 신도가 9할 이상을 차지한 것은 본교의 무속적인 교리가 무속신앙의 본향인 제주도 여인의 생리에 맞기 때문인 듯하다.

3) 우도지부



천지대안교 우도지부 전경

우도내의 천지대안교는 이 교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김봉남 선생이 태어난 본고장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종파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이 교의 중요성이나 의의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이지 않는다. 교당은 4년전 동천진동 입구에 있던 것을 현 위치인 동천진동으로 옮겨 왔으며 고옥박(66세) 선생이 교회 책임자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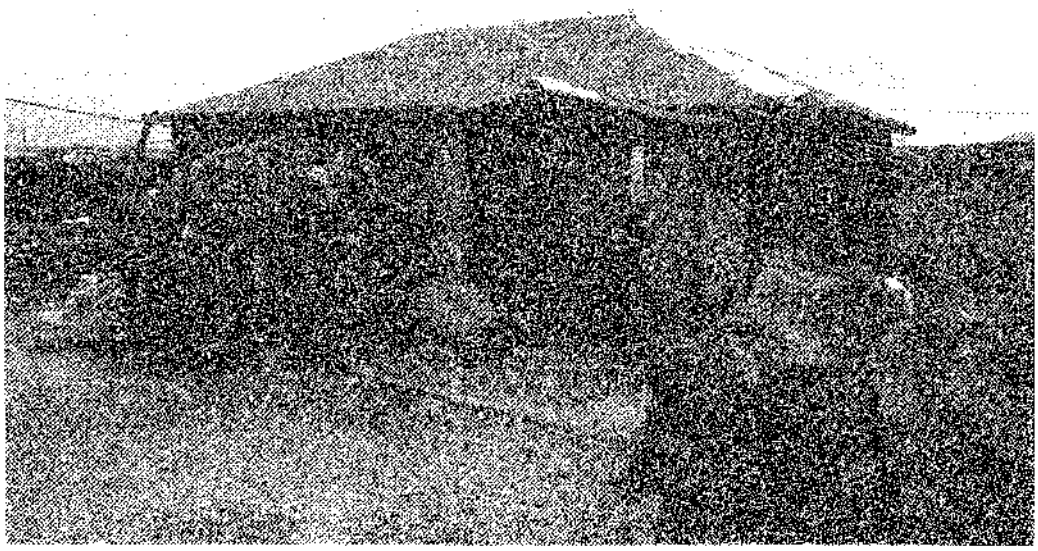
고선생은 우도 출신으로 비양도 출신의 교육자인 남편에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다시 우도로 돌아와서 천지대안교 선생직을 맡고 있다. 근래에 제주지부 천지대안교 내부에서 신도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사건이 장기간 끌면서도 해결되지 않아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심해졌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이곳 우도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쳐 많은 교인들이 교당을 등돌림으로써 교인의 수는 격감했다. 10년전에는 100여명의 신도들이 교당을 찾았으나 현재는 25명의 신도들만이 교당을 지키고 있다. 이들 교인들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동천진동, 서천진동, 비양동, 전흘동, 상우목동, 하우목동 등 우도내 여러 마을에 분산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본교가 처한 내부의 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신도수는 증가할 추세로 보인다.

신도들은 매일 아침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기도시에는 기도문을 외운다. 제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이며 5일에는 기도소원문을 15회, 15일과 25일에는 각각 25회씩 외우며 5일부터 10일 동안은 생식을 하며 냉수욕으로 신체와 정신을 정결하게 한다. 생식은 피의 순환을 좋게 하는데 특히 위와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고 신도들은 믿고 있다.

이 교당은 대부분 여성신도들이 찾고 있는데 이곳을 찾는 그 밖의 외부인들은 대부분 환자들이다. 교당의 선생은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데 우선 환자에게 냉수를 뿌려 어루만져주며 치료를 시작한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인 경우는 식이요법에 의존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중환자의 경우는 단식을 행하도록 하여 병을 치료한다. 이곳 신도들의 말에 의하면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도 100일 동안만 단식하면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 신도들은 5일, 15일, 25일에 성심금으로 교당운영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헌납하고 있으며 신도들 각자 가정과 자식들의 무병장수와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고자 교당을 찾고 있다.

4. 바불교 : 용화사

통남교의 아미타불 주송이 빨라지면 필경 「다불 다불」만 연송하는 것처럼 들리



한국불교태고종 청강사 연평 염불당 전경

므로 외부 사람들이 이 교를 조롱하는 뜻에서 타불교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 교파는 특별히 내걸은 교명도 없이 자기의 교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붙여진 교명을 그대로 적용한 호칭이 바로 타불교이다. 이러한 교파가 여러 개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부산파와 제주파 두 개의 교단으로 나눌 수 있다.

우도에도 천지대안교와 더불어 이 타불교가 들어왔다. 타불교는 공식 명칭이 아니라 세칭에 불과하고 이전에는 용화사라 불렀다. 이 교는 제주출신 윤유선 여인에 의해 창설된 종교이다. 윤유선이 김봉남 밑에서 수도할 때 동기생이었던 강기춘은 부산에서 용화삼덕교를 세웠고 제주에서 윤유선(尹有善 : 호적명 윤선유)은 용화사를 창설하였다. 윤유선은 구좌면 종달리에서 출생하여 남편 권경생을 따라 부산 영도에 기거할 때에 김봉남이 죄없이 일헌에 구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진하여 구출운동을 벌였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해방 후 봉남에게서 물법을 전수받고 환자들에게 물법을 시험해 본 것이 의외로 신비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윤유선은 제주에 돌아와 현 구좌읍 종달리에 용화사란 절을 짓고

포교를 시작하였다. 윤유선의 물법치료의 신묘한 효험이 널리 퍼져 한때는 구좌읍, 성산읍 그리고 표선면 일대에서 약 2,000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절을 찾아와서 용화사는 큰 교단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윤유선의 포교가 성공하게 되자 천지대안교, 수운교, 금강도 등에서 지마다 윤유선을 자교단의 지부로 포섭하려 하였다. 이때 윤여인은 여러 교당의 요구에 응하여 때로는 천지대안교의 지부가 되고 때로는 수운교, 또 때로는 금강도의 지부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윤유선에게 따라오는 신도들이 대개는 위의 앞서 언급한 3개 교단의 신도로서 이 교단 저 교단으로 넘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윤유선의 아들 권명환(權明煥)은 모친인 윤유선의 교인들을 이끌어 5·16군사혁명 당시 종교단체의 공식 등록을 요구할 때인 1962년도 대한불교 태고종단에 가입하였다. 교명도 용화사에서 모친의 호를 따라서 청강사로 고침으로써 정식 교당의 명칭은 대한불교 태고종 청강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윤유선의 타불교는 혼합신앙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그 신앙대상이나 교리체계가 이원화되었다. 불교의 예식을 따르면서도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는 김봉남의 물법치료를 따름으로써 신흥교단으로서의 독특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타불교의 공통점이 염불과 물법치료 그리고 마찰요법을 이 교에서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염불시 환자들은 "아미타불"을 빠르게 외워야 한다. 빠른 염불은 안찰의 효과를 지니며 호흡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다. 종달리 청강사에는 약 250여호의 신도가족들이 찾아들고 있다. 불교교단에 정식 등록됨으로써 모든 의례는 불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대재일은 정월보름, 4월 초파일, 7월 15일 백중, 그리고 11월 15일이며 그 밖에는 매일 드리는 아침 예불이 있다.

우도에 도입된 타불교는 현재의 공식명칭은 한국불교 태고종 청강사 연평 염불당이라 불리운다. 지금부터 약 20여년 전에 이곳에 처음으로 염불당이 설치됐을 때에는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었는데 현재는 하고수동의 고유순(79세)을 중심으로 14명의 교인들만이 불당을 찾고 있다. 이들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수양차 모여 촛불을 켜놓고 염불을 외우고 찬물요법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제5절 끝맺는 말

우도에는 그동안 다양한 종파들이 진출하여 오늘날 주민들 사이의 종교의 양상은 산업 사회의 유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 곳에 진출한 종교들은 정작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신앙의 근원을 무속을 바탕한 전통 민간신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서 타 종교에의 전환을 원하고 있지 않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신앙은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배척되어 온 관계로 주민들 각자는 오랫동안 이어 내려온 신앙행위에서 아직까지도 당위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본향당을 찾고난 후 다시 불당을 찾는 주민들의 행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부심이 일깨워져야 하겠다. 근래에 들어와 우리 고유의 신앙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 과거의 편견이 많이 시정되었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감을 갖기에 부족한 상황에 있다. 우리들의 민속종교에서 당을 찾는 행위가 미신이 아닌 것은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불당에서 불공을 드리는 행위가 미신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고유의 신앙형태가 미신으로 매도된 것은 바로 일제치하에 일인들에 의해서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사항은 우도에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종교인의 한 사람인 김봉남을 배출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우도에 진출해 있는 종교들 중에서도 천자대안교와 다불교는 모두 김봉남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종교들이다. 신흥종교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정체를 고집하고 교세의 확장에 전념하는 나머지 부리한 주장을 하거나 주민들을 현혹하는 기상천외한 교리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김봉남 선생은 생전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일관된 노력으로 살다가 타계한 유일무이한 현대의 종교인이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도인은 김봉남을 재평가하고 그의 사상과 치적에 대해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루 속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82), 봉남계 교단, 한국민속대관 제3권 : 647-651.

김옥희(1980), 제주도신축년교난사, 제주 : 천주교 제주지구.

노길명(1988), 한국의 신흥종교, 서울 : 카톨릭신문사.

이강오(1977), 제주도의 신흥종교,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 126-156, 문화재관리국.

이기석(1988), 1901년 제주민란의 성격과 구조 - 천주교 선교정착을 중심으로, 서의필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73), 우도학술조사 보고서, 국문학보 제9집

조성윤(1992), 찬물교 연구 서설, 한국사회연구회편,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 195-222. 서울 : 문학과 지성사

조치훈(1962), 한국의 종교와 그 배경 - 한국적 신앙의 기반에 대한 고찰, 현대인 강좌 제4권 : 289-310, 서울 : 박우사.

한라연감(1991), 종교 : 493-502, 제주 : 한라일보사.

제5편 産業과 海女

제1장 漁 業

제1절 개 설

해양과 그 자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자유원칙은 2세기 이상 지켜져 왔다. 그러나 최근 해양이용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세계의 연안국가들의 해양개발 경쟁이 치열화되고 있어서 세계해양 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해양에서의 생물자원을 어획하는 어업국가의 어획성능 증가와 그 어획활동이 경제수역내에서의 어업관리와 수산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은 선진 연안국뿐 아니라 개발도상의 연안국과 도서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일으키고 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영해와 전관수역(경제수역)의 범위 확정문제와 공해해역의 자원개발문제를 동의한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의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이 1982년에 유엔에서 합의가 되었다.

이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으며, 발효된다 하여도 어업자원의 이용, 보존 및 관리에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또 이 협약의 이행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공해에서 어획하는 국가의 권한과 2백 해리 경제수역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리와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문제가 고도 회유성 어류와 경계수역의 왕래 수산자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더욱 유엔 해양협약은 공해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관련국과 국제적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가졌으나, 그 보존과 관리조치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협약 체제의 이행에 따르는 문제가 최근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방인 제주도 특히 우도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2절 해양환경



성산포에서 본 우도전경

우도는 제주도의 동쪽에 위치한 환해의 현무암의 섬으로 해안선 굴곡이 적고 해안은 현무암 절벽과 의회암의 조잡한 암반인 암초가 많아서 어류가 서식하기 좋은 어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해류의 하나인 흑조 해류의 지류인 대마 난류가 흘러가는 연변에 있어서 삼치, 멸치, 고등어, 전갱이, 잿방어, 오징어, 복어 등의 중요한 어류들이 회유하여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제주도에서의 중요한 어업기지의 하나로 되고 있는 섬이다.

1981년 변창인 연구사의 보고에 의하면 우도 남쪽인 우도수도에서 수온은 13.3℃~24.5℃로써 최고수온 8월에 표면수온은 24.5℃, 저층 수온은 22℃이고

최저수온 4월에 표면수온 13.5℃, 저층수온 13.3℃이다.

우도 근해에서 형성되고 있는 어업은 고등어 및 전갱이 건착망어업(6월~8월), 멸치 분기초망어업(5월~7월), 장어 통발어업(12월~2월), 잿방어 예승어업(7월~8월), 오징어 채낚이 어업(6월~12월), 갈치 채낚이 어업(6월~11월) 등이 있다.

우도 연안에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의 해조류와 전복, 소라 등의 패류가 서식하고 있어서 해녀들의 작업장인 제1종 공동어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조류와 패류가 서식함으로써 이들을 먹이로 하는 회유성 어류가 많이 내유해서 좋은 낚시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제3절 어업연역

1. 설촌이전(1844년 이전)

우도의 어업은 별도로 변천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어업 발달과정 속에서 남·북제주군의 어업발달과정 특히 구좌읍과 성산읍의 어업 발달과정 중에서 변천하고, 우도에서 어획된 어류, 해조류, 패류는 세화항 및 성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북제주군은 다른 곳과 달리 고대어업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미미하고, 더욱이 우도의 것만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제주도지(1982. 하권) 남제주군지(1986년) 북제주군지(1987년)의 수산업편에 기록된 「수산업의 발달과정」으로부터 간략하게 발췌하여 해방이전의 우도의 어업 발달과 관련을 맺기로 한다.

韓半島에 居住하던 舊石器人들은 적어도 後期舊石器時代에 이르러서는 內水面爲主의 생활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굶주림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만큼 비교적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어류가 그들의 행동권내에서 발견될 때 그것을 잡아 보충적 食糧으로 충당하려는 충동이 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빈약한 知力을 총동원하여 漁獲法을 고안하고 이용하였던 것이 어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도는 다른 육지 지방과는 달리 貝塚이나 遺物, 遺跡 등이 많지 않아서 그것에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 어업의 遺物을 알 수 없으므로 인하여 고려의 어업형태를 명확하는 알 수 없으나, 구좌읍과 성산읍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하나의 어장으로 어업이 행하여졌으리라고는 추측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개척기원(1844, 憲宗 10)까지는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기는 高麗, 高麗史 및 新東國與地勝覽 등의 사적기록에 의하면 성산읍과 구좌읍 연안이 淺深에서 패류와 해조류를 채취하기 위한 潛嫂漁業, 성기게 짠 천으로 만든 채그물류의 쪽지 그물, 회유성 어류를 어획하는 채그물어업, 대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창으로 표면 회유성 어류를 어획하는 殺傷漁業, 아주 작은 포구의 입구를 돌로 막아서 밀물과 썰물에 의한 어업 즉 石防簾漁業(垣防漁業, 원담어업, 갯담어업) 등 있었다.

2. 설촌이후(1844년 이후)

牛島의 設村由來는 기록에 따르면 서기 1842년(憲宗 8년) 牛島와 加波島의 入耕허가가 시작이며 서기 1844년(憲宗 10년)에 進士 金錫麟이 벼슬을 그만두고 임금으로부터 牛島를 下賜받고 入島하여 정착한 것이 개척기원이 된다고 한다. 이후 사람이 정착하면서 썰물시에 패류 및 해조류를 손으로 채취하는 漁業이 발전되어서 潛嫂漁業이 되었을 것이다.

수산생물을 어획하기 시작되었을 것이나 이때에 행하여진 어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성기게 짠 천으로 만든 채그물류의 작은 쪽지그물과 표층 회유성어류(고등어, 멸치)를 어획하는 채그물 어업이 최근까지 제주도 연안에 행하여지고 있는 멸치 분기초망어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포구의 입구를 돌로 막아서 회유성어류(주로 멸치)를 밀물시에 들어온 어류가 썰물시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서 어획하는 石防簾漁業(垣防漁業, 원담어업, 갯담어업)은 우도 지방에서 행하였다.

3. 日帝時代와 光復이후

開港以後 韓半島를 植民地化하기 위한 工作을 고찰하고 비인도적 수단을 동

원하여 진행시켜 왔던 일본은 1910년 8월 29일에 드디어 한국을 強占아래 日本帝國에 併合시키고, 한국에 朝鮮總督府를 설치 운용하였다. 총독부에서는 漁撈技術改善과 漁場開拓이란 명목 아래 植民地 統合 第1期부터 試驗調査 事業, 第2期는 조선총독부 水産試驗場 設置 第3期는 養魚場設置와 水産試驗支場을 設置하여 水産動植物을 대량으로 漁獲하여서 日本으로 가져갔다.

朝鮮時代 末期에 日本人이 來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종류의 漁具·漁法이 우리 나라에 전파되었고, 植民地 統治가 시작된 이후로 그것은 계속되어 한반도에 있어서의 漁業은 韓國在來式 漁具·漁業과 日本式 漁具·漁業의 混合된 漁法이 나타나며 刺網, 手繰網, 大敷網, 巾着網, 潛水器, 鮫鰐網, 壹網角網, 抄網, 敷網 등의 漁業이 행하여 졌다. 따라서 우도 沿岸에서는 능성어, 참돔, 갈치, 붉바리, 우럭바리, 조기, 불뚝복 등을 어획할 수 있는 日本釣 및 延繩의 낚시 어업, 멸치를 어획하는 焚寄抄網漁業과 罹網(후리그물)漁業, 伐船(떼배)를 이용하여 자리돔을 어획하는 敷網(들망)漁業, 전복·소라 등 어획하는 潛水器 어업과 미역, 보자반, 톳 등 해조류를 어획하는 해녀 어업이 행하여졌다.

4. 光復 이후

光復 直後 우리나라는 政治的 混亂과 不安속에서 軍政 및 過渡政府를 거쳐 오는 동안 經濟的으로는 日本 經濟와의 斷絶로 인해 生産萎縮, 日本人등에 의한 生産施設 破壞, 南北韓分割에 의한 産業構造의 畸型性 激化, 思想對立으로 인한 社會的 混亂 등이 經濟發展을 어렵게 하였다.

韓國漁業의 발달은 韓國經濟 全般의 狀況과 그 與件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光復直後 漁具材料의 國內生産이 되지 않고, 6·25 動亂으로 漁船, 漁港 漁獲物 處理加工施設 등의 破壞로 漁業生産에 致命的 打擊이 아닐 수 없었다.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經濟開發 計劃의 着手를 바탕하여 對日請求權 資金, 漁業協力 資金의 投入과 水産廳의 發足을 계기로 우리 나라 漁獲量 및 水産物 輸出의 急伸張으로 漁民의 所得增大를 가져오게 되었다.

1960年代부터 1980年代에 이르는 동안 世界 景氣의 沈滯와 石油波動, 沿岸

國의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漁撈技術의 開發 海外漁場의 進出, 漁業基本施設 및 生産手段의 擴充, 投融資豫算의 增大에 힘입어 漁民들의 잘 살아 보겠다는 굳은 意志가 혼연일체가 되어 漁業의 零細性을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社會 및 經濟的 惡循環을 是正하고 自立經濟의 達成을 위한 基盤構築에 基本目標를 두고 출발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에 발맞추어 沿近海 水産資源의 保護育成과 淺海 干潟地 및 內水面의 開發, 遠洋漁業의 開拓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계속됨으로써 漁業의 발전은 더욱 加速化되었다.

제4절 主要漁業

光復 이후 1950년대의 우리 나라의 沿近海 漁業은 徒手採捕 爲主의 零細漁業에서 漁船漁業에 이르기까지 生産手段의 貧弱과 漁撈技術의 不足으로 沈滯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되면서 漁船勢力의 擴張, 漁業器機의 現代化, 漁撈技術의 開發 등 生産基盤이 構築되고 水産物 輸出增大의 促進으로 漁民所得은 날로 늘어 갔으며 1985년도에는 沿近海 漁獲量은 1,494,940M/T, 沿近海漁船은 50,706隻이었던 것이 1989년에 97,656隻으로 크게 伸張되었으나 沿近海 漁民數는 減少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漁民의 實質所得은 크게 向上되었다.

1990년도 제주도의 漁獲量은 36,688M/T, 漁船勢力은 2,055隻, 14,000톤이고, 養殖生産量은 106톤, 水産物 輸出量 24백만 달러이었다.

1990년도 우도의 漁獲量은 671M/T, 18억 3천만원 정도이고, 漁船勢力은 6隻, 22.95톤이며, 1992년은 1007M/T, 19억 4천만원, 13隻, 47.6톤이었다.

1. 延繩漁業

延繩(주낙)어구가 일본인에 의해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은 1900년경으로, 주

낚 한상자는 길이가 약 450m의 幹繩에 3m마다 1.5m정도의 枝繩에 낚시를 달아 미끼를 끼우고 조업한다. 연승에 의해 두툽상어, 붉바리, 능성어, 참돔, 불뚝복, 옥돔, 조기, 갈치 등이 어획되었다.

그리고 수심 20m 암초가 많이 있는 바닷가에서 대낚시어구에 의한 어업이 있었으나 어획량은 적었다. 특히 예승낚시어구와 자리돔의 미끼를 이용하여 잿방어를 어획하는 어업은 독이한 것이고, 이 잿방어는 제주도내에 있는 음식점의 회감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채낚이 漁業

연안 가까이에 회유하는 오징어는, 우리 나라 南海岸에서는 定置網, 東海岸에서는 走光性이 강한 것을 이용한 대낚시, 보채낚시(大枰釣漁具) 어업이 1970년 이전까지는 어획되어 왔다. 어선이 소형에서 중형으로 개량됨에 따라 發電機의 용량이 크게 증가되자 集魚燈에 의한 오징어, 갈치의 誘集이 쉽게 이루어져서 오징어, 갈치를 어획하는 채낚이 어업이 제주도 연안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3. 焚寄抄網(챗배) 漁業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채그물(抄網)인 챗배는 우리 나라 남해안의 멸치어장에서 두루 쓰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아서 제주도 연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구의 하나이다. 集魚燈은 1920年代까지 肥松의 뿌리, 1930年代에는 카바이트와 석유(탱크식), 1960年代에는 發電機를 이용하였다. 현재는 멸치 분기초망 어업은 우도 연안에서는 2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4. 자리돔 들망(敷網)

들망(敷網)어업은 제주의 고유의 배인 筏船(떼배) 또는 소형선으로 암초위를 유영하는 자리돔을 어획하는 것이다. 그물 어구는 둘레가 5m의 원형태에 주머니 모양의 그물코의 크기가 23㎜인 그물감을 붙이고, 원형테에서 8개의 줄이 한데

모여서 引網에 연결된다. 들망을 자리돔이 잘 유영하는 암초에 쳐놓아서 기다리다가 자리돔 어군이 그물어구 위를 지날 때 그물을 들어 올려서 어획하는 것이다. 어획된 자리돔은 자리 젓갈용, 자리회용, 연승이나 예승어구의 미끼용으로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다.

5. 角建網 漁業

網의 四角網의 建網의 中間形態를 取한 漁具로써 防陣網 漁業과 亞網漁業의 定置網 漁具가 변천하여 지금의 어구가 된 것이다. 어구는 길그물(垣網) 헛통(運動場)으로 되어 있으나, 헛통은 바닥그물(底網)이 있는 그물로 원통(箱網)을 겸하고 있다. 漁法은 하루중에 물 때를 맞추어 즉 정류시(조석에 의한 물의 흐름이 없는 때)에 길그물의 입구를 해저에 있는 그물로 막고, 헛통의 바닥그물을 끌어 올리면서 입망된 어군을 한쪽 끝으로 몰아서 어획을 한다. 각건망에 의하여 어획한 어종으로는 멸치, 고등어, 전갱이, 꼬치고기, 능성어, 쥐치, 벤자리, 참돔, 황놀래기, 쏨벵이 등이 있다.

6. 揮羅網(후리 그물)漁業

후리그물 어구는 地引網 漁具의 하나로서 육지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그물 어구의 구성이 다른 독특한 것으로 우도에서는 주로 멸치 어군을 어획하기 위한 어업(일명 : 별후리접)이다. 그물 어구는 면 그물감과 벼짚으로 길이가 300m내외, 폭이 8~12m경인 직사각형 모양인 그물 어구 끝에 300m 내외의 引網(마닐라 로프, 또는 남동 나무로 제작한 남통줄)을 붙인 것이다.

어구의 첨자쪽이 해저에 닿아서 예인되므로, 해저에는 암초가 없고 모래나 뻘로 되어 있는 해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도면 오봉리 해안에 성행되었다. 후리그물 어구의 양망은 육지에 있는 여러 사람이 引網을 잡아당겨야 되고 한밤중에 조업을 하므로 같은 마을에서 뜻이 맞는 사람이 모여서 계(契, 접, 일종의 상호협조 단체)를 조직하여 조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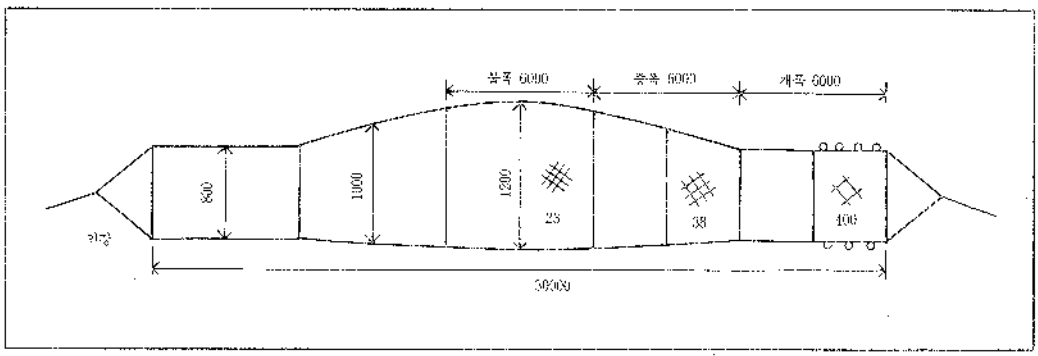
개와당 백사장 전경 (30~40년 전만해도 이곳에서는 멸치후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계원(契員, 점원, 漁夫)은 37~40명 정도가 최소 인원이고 때때로 그 이상도 되었다. 계원의 구성은 어로장인 직책으로 공원 1명(어로에 많은 경험, 지도력, 연륜 등이 있는 분), 공원의 보조원인 소임 2명(힘과 작업 능률이 많은 젊은 분), 보통 계원 34~37명으로 되었다.

어기는 음력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이고, 조업은 강한 조류의 힘으로 멸치 어군이 육지쪽으로 내유가 많은 사리 시기에만 이루어졌다. 조업은 하루 한 번의 투양망을 하는데 밤중의 밀물 초기에서 투망을 시작해서 썰물이 시작하기 전에 양망을 완료하였다. 이 양망 완료시각이 이른 아침이므로 대부분의 계원들은 오전에는 휴식을 하고 오후에는 어구 보수와 다른 집안 일을 하였다.

조업방법은 해질 무렵에 소임이 어장의 주위를 관찰하여서 그날의 조업 여부가 결정되면, 야간의 밀물 초기에 어선 3척(범선 또는 떼배(대우, 筏船))중에 한척(A선, 소임 1인, 계원 7~9명)에 그물 어구(그림 1)와 인강(전체의 반), 다른 1척(B선, 소임 1인, 계원 7~9명)에는 인강(전체의 반)을 싣고, 또 다른 1척(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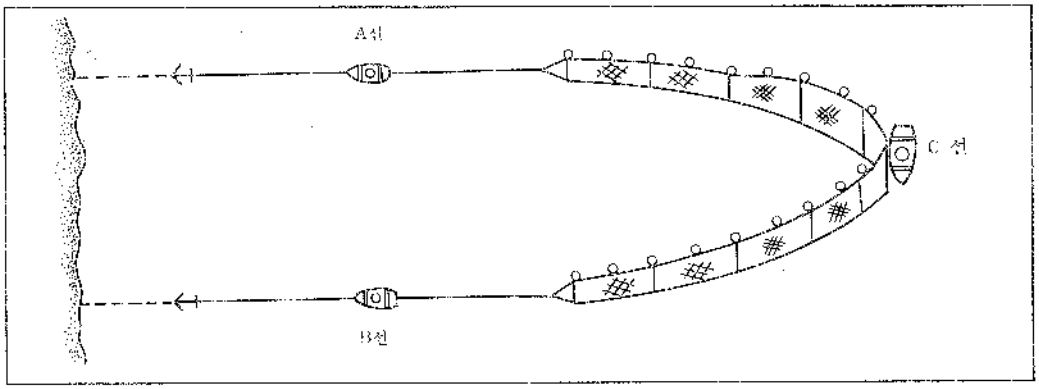
선, 공원, 계원 2~3인)은 공선으로 의해로 나가서 투망할 해역에 도착하면 B선이 닻으로 정선하고, B선의 인강과 A선의 그물 어구의 끝을 연결하여서 해안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그물 어구의 끝을 연결하여서 해안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그물 어구를 투망 완료하고, 인강 투승이 시작되면 어선은 해안선(그물 어구를 투망한 선)과 직각 방향인 육지쪽으로 투승하며, 닻으로 정박하여 A선과 B선은 동시에 인강을 양승하기 시작한다. 또 C선(공원, 계원 1~2인)은 인강과 그물어구의 투하를 총지휘하고, 그물어구의 반이 투망되는 지점에서 그물 어구의 부자쪽을 인장시켜서 멸치 어군이 부자쪽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한다. A선과 B선이 인강을 양승하면서 해안에 닿으면 육지에 있는 계원과 동네 사람이 함께 인강과 그물 어구를 양육하여 멸치를 어획한다.



(그림 1) 어구소요 자료 명세

단위 : 폭,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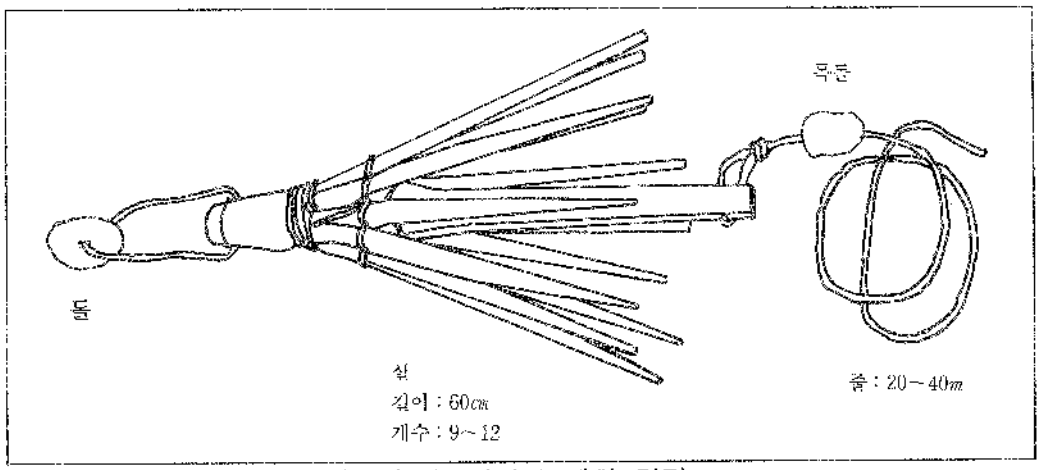
부 분 별 명 칭	재 료	규 격
망 지	면사, 볏짚	
부 자 망	마닐라삼, 남통줄	180合
부 자	나무	
침 자 망	마닐라삼, 남통줄	60合
침 자	돌	
목 통 계	마닐라삼, 남통줄	180合
인 망	마닐라삼, 남통줄	180合



〈그림 2〉 멸치후리그물

어획물의 종류는 주로 멸치이고, 소량의 어린 전갱이와 고등어, 돔, 가오리 등이었다. 어획량이 많을 때는 트럭(4톤)으로 10개 정도이고, 어획된 멸치는 멸치젓갈, 건멸치 등으로 일부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보리농사의 밑거름(비료 대용)으로 이용해서 보리 농사가 잘되어서 멸치 후리그물 계원들은 동네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이 멸치 후리그물 어업은 집어 등을 이용한 멸치분기초망 어업의 발달로 해안으로 내유하는 멸치 어군이 적어서 1960년대 이후에 조업이 중단되었다.

7. 넓미역 채취 어업



〈그림 3〉 넓미역 채취 갈퀴

예부터 우도의 주산물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넓미역은 일

명 광포, 넙과라고도 부르며, 이 미역은 보통 미역보다는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서식하는 수심은 15~25m정도, 해저가 산호 모래인 곳에서 잘 자라고 있다.

채취시기는 7월 중순경(초복을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1개월 정도의 조업기간이 된다. 채취 방법은 어선(동력선 또는 범선)과 써레(일명 갈퀴)를 이용한다.

우도면 서광리, 오봉리, 종달리의 사이에서 행하여 졌고, 채취방법은 어선을 이용하여 깊이 약 15~30m 가량의 밧줄에 가시나무 또는 소나무로 만든 써레로 산호 모래지역을 끌면서 넓미역이 써레에 걸리면 선상에서 인력으로 끌어당겨 채취를 하였다. 바람이 있을 때는 범선, 바람이 없을 때는 풍력선을 이용하며, 어선의 우현에 써레를 2~6개(어선의 크기에 따라서 다름)를 장착하고, 선수쪽에 있는 써레의 줄이 15m이고 선미쪽으로 가면서 써레의 줄의 길이가 5m씩 길게 한다. 그리고 써레의 줄의 간격도 5m 정도이다. 이용 방법은 건조시켜서 식용, 또는 제주도, 전라남도 지방에 판매를 하였다.

※ 우리 고문과 넓미역 채취 어업에 관한 자료는 우도면 오봉리에 거주하는 "유봉춘"씨의 협력에 의한 것.



양식미역이 생산되면서 효용가치를 상실한 넓미역 자생지

제 5 절 어 업 현 황

우도의 어업 생산량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년 790톤 464백만원이었으나 1992년 1,007톤 1,948백만원으로 연평균 740톤 1,330백만원을 생산하고 있다.

어업의 종류는 연안 유자망, 연안연승 연안 외줄낚기 등 135건의 허가어업 〈표 2〉와 2개의 면허어업 〈표 3〉이 있다. 어선 세력은 1992년에 13척 47.6톤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3척 9.73톤으로 감소하였다. 〈표 4〉 어업인구는 어민 후계자가 1986년 이래 총 13명이고 〈표 5〉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전업이 65가구, 겸업 559가구로 1989년부터 전업가구수가 감소하고 겸업가구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3D현상이 나타나서 어선에 승선하는 어업에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여 주고 있다.

〈표 1〉 우도의 연도별 어획고

단위 : kg, 백만원

연 도	수 량	금 액
1979	791,424.95	464,894,539
80	553,560.1	700,089,983
81	583,579.6	915,626,325
82	819,737	1,127,327,701
83	632,747.6	1,030,603,103
84	805,798.7	1,137,003,162
85	993,646.5	1,092,659,701
86	910,274.2	1,498,399,536
87	898,870.2	1,506,115,508
88	594,799.9	1,708,708,644
89	630,327.2	1,673,494,623
90	671,832	1,835,153,491
91	620,991.4	1,993,810,502
92	1,007,451.5	1,948,468,575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표 2〉 해면어업허가 및 신고처분

단위 : 건수

이 업 의 종 류			건 수
총 계			135
허가어업	계		130
	연안유자망	연안유망 연안자망	26
	연안안강망	연안안강망	—
	범선선망	범선석조망	—
	연안연승	연안연승	39
	연안채낚기	연안외줄낚기	40
	연안통발	연안통발	5
		초 호(문)	2
	분기초망	분기초망	15
		연안투망	1
	봉수망		1
		소 계	
		일 본 조	
		초 호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표 3〉 면허어업 현황

어업별	단위	우도	계	우도		
				수협	어촌계	개인
계	건수					
제1종공동어장	1	1	1		0	
제3종공동어장	0	0				
정치어업	1	1	1		0	
양식어업	0	0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표 4〉 톤수별 어선세력

동력선			1톤 미만	1~5톤	5~10톤	10~20톤	20~30톤	30~50톤
연 도	척 수	톤 수						
86	1	2.20						
87	1	6.67			1			
88	8	29.48		6	2			
89	7	27.37		6		1		
90	6	22.95		5	1			
91	10	38.91		8	1	1		
92	13	47.6		11	2			
93	3	9.73		2	1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표 5〉 어민 후계자 지원 현황

연 도	인 원
86	1
87	4
88	2
89	1
90	1
91	1
92	3
계	13명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표 6〉 어업종사자별 수산업 가구 및 가구원

가	구		
연 도	경 영 자 가 구		
	소 계	전 업	겸 업
82	589	65	524
83	563	65	498
84	512	65	447
85	512	65	447
86	551	59	492
87	594	60	534
88	594	60	534
89	594	103	491
90	594	103	491
91	594	103	491
92	624	65	559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참 고 문 헌

1. 高京玉, 濟州道 水産業의 史的考察, 濟州大學 漁業研究誌, 1970, pp. 17~34.
2. 이기완, 제주도 해양생물의 지방명 1. 조류, 제주대학 해양자원연구소, 1981, pp. 63~66.
3. 邊昌翊, 鄭龍晋, 盧洪吉, 濟州島 沿岸의 海況特性에 關한 研究, 1983, pp. 59~64.
4. 제주도지(하권), 제주도, 1982, pp. 147~162.
5. 金命年, 現代韓國水産史, 水友會, 1987, P. 115, PP. 186~199, pp. 413~~429.
6.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1987, p. 250, pp. 530~533.
7. 남제주군, 남제주군지, 1986, pp. 519~523.
8.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 1993. pp. 825~868.

제2장 牛島海에 뜬 도항선

本面의 海上交通은 濟州本島와의 사이에 우도면 서광리 하우목동 포구에서 구좌읍 종달항까지 2.8㎞, 천진리 천진동 포구에서 남군 성산읍 성산항까지 3.8㎞ 폭을 둔 牛島水道의 交通이 주가 된다. 惡天候인 때에는 선박의 피항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며 조류도 비교적 빠른 곳이다.

朝鮮朝의 憲宗 8년(1842년)에 처음으로 入耕許可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시기로부터 濟州本島와의 주민의 왕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朝鮮朝의 海上交通은 원시시대로부터 사용되어 왔던 筏船(뗏배, 태위, 터위, 테우 등으로 불리운다)으로 주로 왕래했을 것이다. 이 筏船은 古代로부터 韓半島 全水域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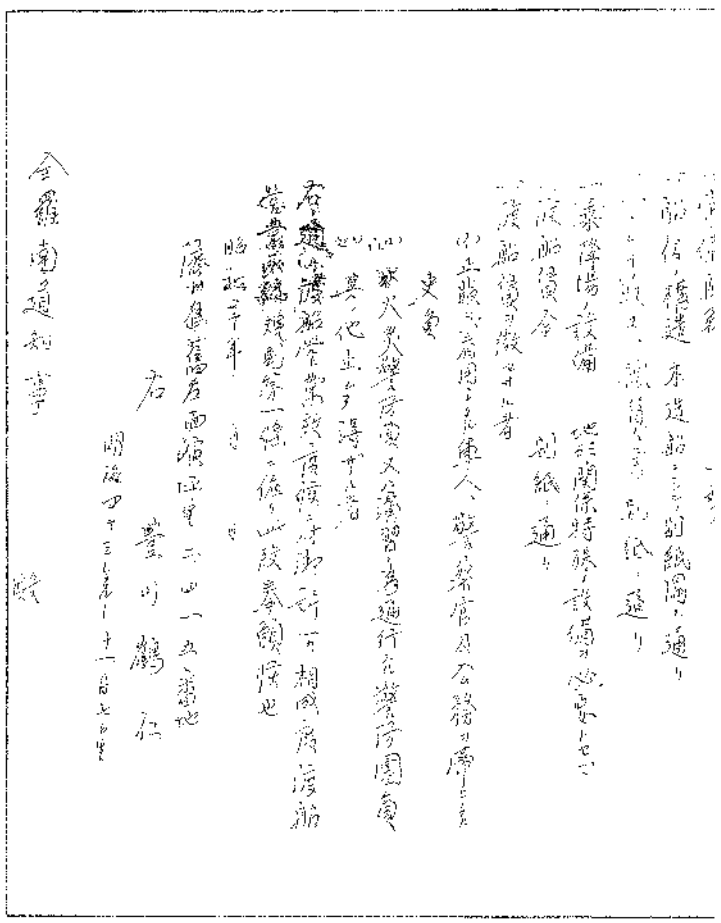
그러나 1938년의 濟州道誌要覽에 依하면 當時의 제주도의 어선 총수는 1,687隻이며 이 중에는 筏船이 541隻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전 어선수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도 당시의 筏船을 漁業用으로 뿐만 아니라 제주도 연안의 유일한 해상교통 수단으로도 사용 되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筏船은 原木을 연결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航海手段으로는 속력이 늦어서 아무리 빨리 櫓를 저어도 한 시간에 1해리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 風潮流가 약간만 있어도 항해가 곤란하다. 그러나 선박의 발달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古代에는 이 筏船으로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왕래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1985년 10월 4

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신문사 주최,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주관으로 筏船을 사용하여 禾北浦를 출항하여 全南 康津港까지의 實驗航海의 結果는 筏船에 의한 제주해협 橫斷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본도와 牛島 사이의 왕래는 고대로부터 筏船으로 이용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牛島 水道는 滿潮時는 北西流가 3해리 정도 흐르고 干潮時에는 南東流가 2해리 정도 흐르고 있으므로 각종 선박의 항해시는 이와같은 조류의 흐름을 잘 이용해야 한다.

筏船 다음으로는 風力을 이용하는 帆船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주해협을 왕래하는 帆船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 많은 항해 기록이나 표류기록들이 있다. 따라서 당연히 牛島 水道의 帆船 왕래도 생각할 수 있다.



우도호 허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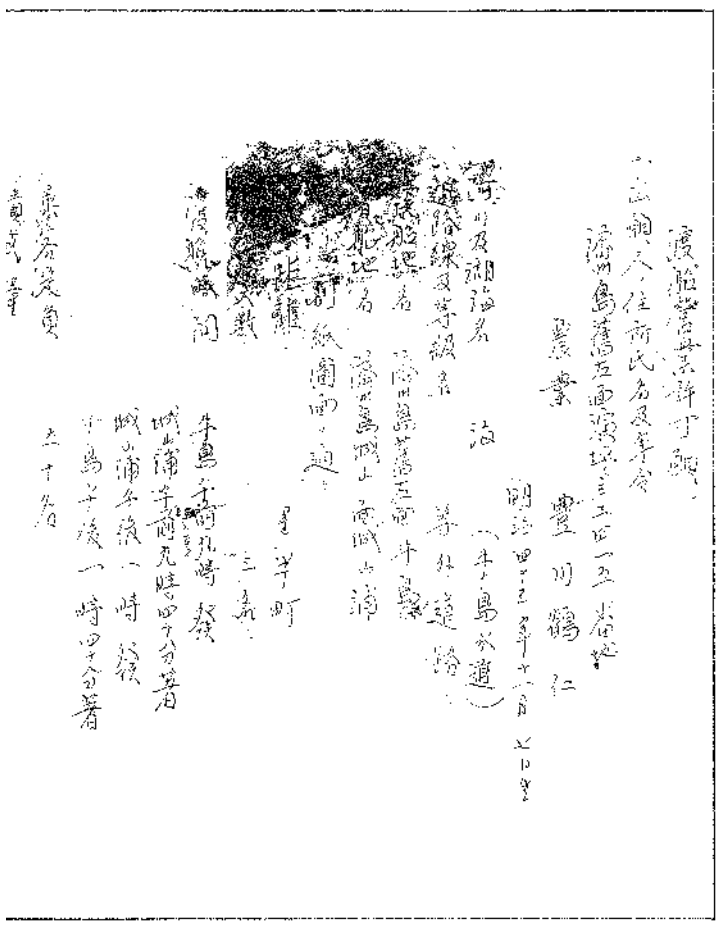
금세기에 들어 日人들이 출입하면서 日本式 帆船이 등장하게 되어 구좌읍 종달리와 牛島 드릉고지를 이들 帆船들이 왕래하게 되었고, 당시의 이 帆船은 돛대가 2本 또는 3本이었으며 여객정원이나 정시 운항 등은 없었고, 潮時와 旅客數에 따라 1일 1왕복 정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筏船時代, 帆船시대에 이어 發動機時代가 시작된다.

1930년대에 들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육지출입이 빈번해지자 1935년 임학인, 김원배, 고좌화 3인 출자로 우도 최초의 동력선인 4.73톤의 우도호를 건조 우도~성산~종달노선의 정기항로를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도항선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때부터 성산포항을 거점으로 도항선을 왕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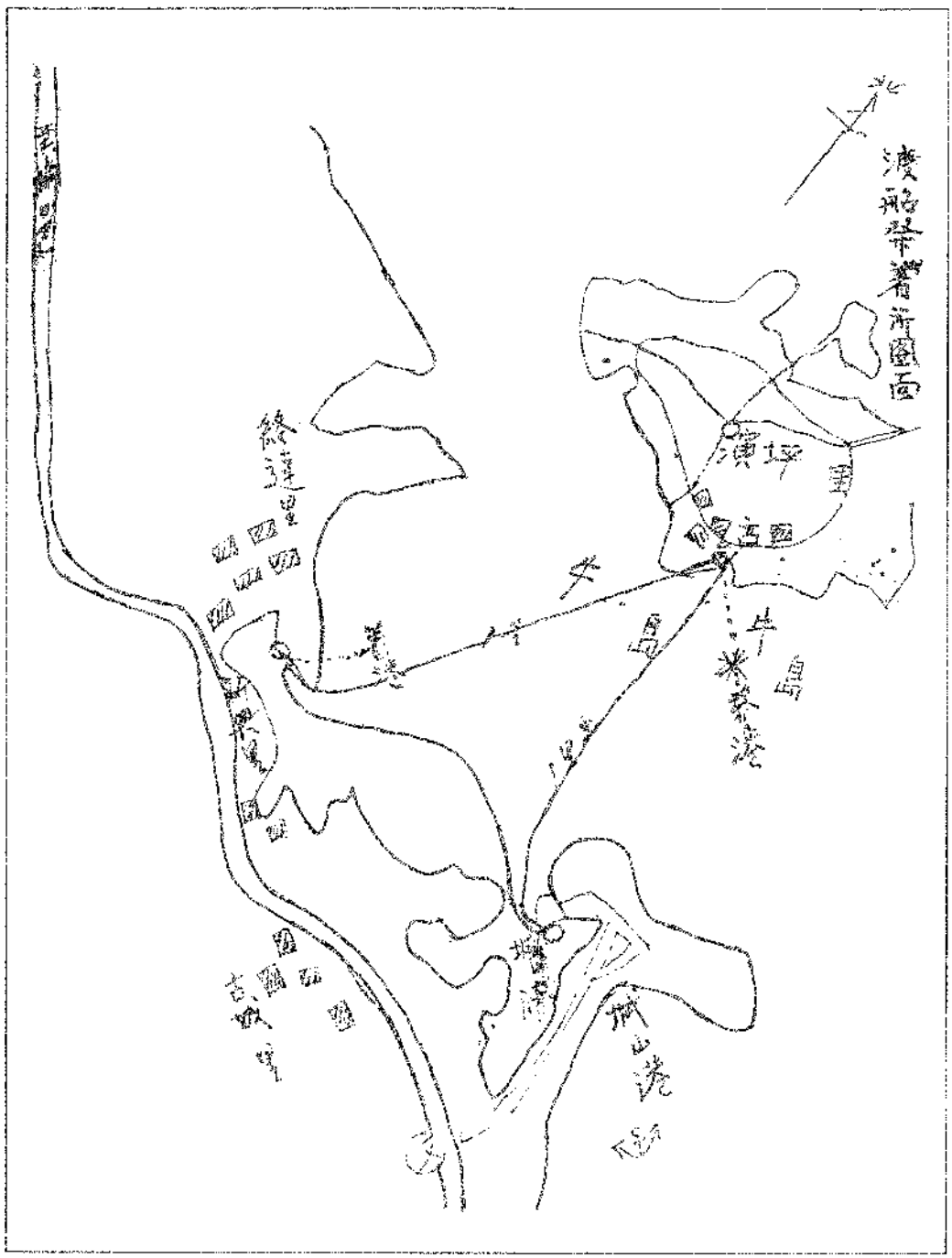
그러나 기선 소구 15마력의 기관으로는 곤란하여 풍을 겸하여 이용 일일 2회의 정기노선을 운항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이 암울했던 일제치하의 시대로 풍천학인(임학인씨의 개명)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으니 시대의 아이러니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1961년 유신정부 이전까지 국내 사정의 혼란으로 행정기관에 도항선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운항하였으며, 또한 동 선박이 적자 경영난에다 잦은 기계 고장으로 부품구입 및 수리를 못하여 돛으로만 운항하게 되었고 1949년(임학인, 홍한댁)과 1954년(임학인, 홍두행) 2차례나 출자자가 변동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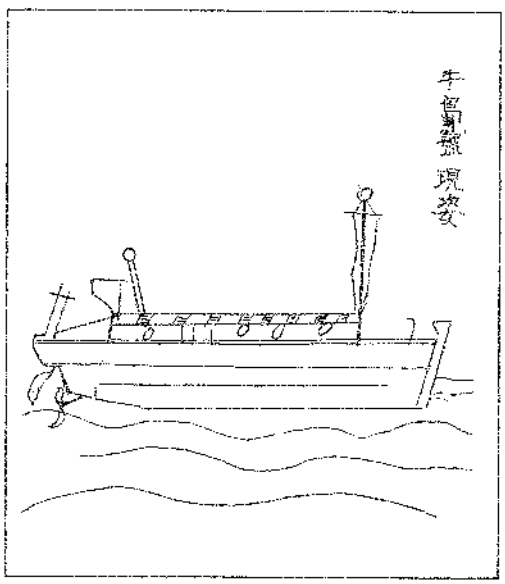
1956년 오영배씨가 4.2톤의 동력선(소구 10마력, 돛 겸용) 염포호를 구입 1년 6개월간 운항하였으나, 운영난으로 1958년 홍한오씨가 인수 범선으로만 1년 5개월간 운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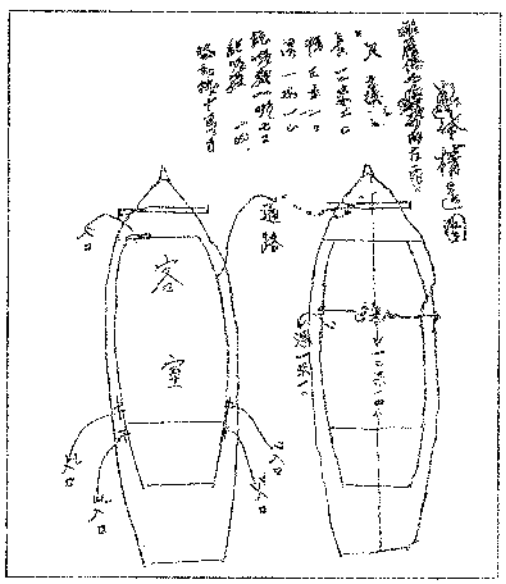


우도호 운항 노선



도롱코지 전경. 1930년대 이전에는 日人들이 이 곳을 통해 종달리 포구로 왕래하였다.





우도호 도면

1960년 광신호(김노대, 강희숙)는 도항선의 동력화(7.5톤 소구 20마력)를 이룩하였으나, 운항도중 발생한 사고는 우도 도항선 이래 최대의 참사로 기록되었다. 1960년 1월 20일 세화 오일장에 다녀오던 중 승객 및 화물과적으로 하도포구에 이르렀을 때 침몰하여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6개월이란 단명의 운항을 기록하였다.

이후 협동(6.2톤 15마력)·협신(7.5톤 20마력)호 2척을 홍한오, 신인홍, 김두정, 양성주 4인 공동으로 1년 4개월간 운항하였다.

1961년 임학인은 선박재원 18.5톤, 추진기관 30마력의 태인호를 건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북제주군수의 인가를 받아 1년 3개월간 운항하다 매도하여 1962년 추자도 도항선으로 이용됐다.

1962년 북제주군소유 선박 창신호를 7인(임학인(사망으로 후에 임봉순), 홍한오, 신인홍, 김두정, 양성주, 김팽경, 강희숙)의 협업으로 임대 제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운항하였다. 협업자들은 15일간 선장 순번제와 당해 선장이 선원 2인 의무고용 및 사고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자체도항선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나, 결국 1963년 7인의 협업운영체가 결렬되고, 홍한오, 임봉순에게 모든 임대지분을 이양하게 됐으며, 그 이후 창신호는 7년 2개월 운항을 마치고 폐선처리되었다.

행정선인 창신호 이후 1968년 어선으로 이용하여 평제호(정성준 소유, 4.7톤)가 1년 2개월간 임시운항하였다.

1969년에는 임봉순, 홍한오가 15.12톤급 자연호를 건조하고 북제주군수의 허가를 받아 취항하였으며, 1973년 5월 10일 동천진동항(우도항)에 대해 우도 도항선출입항으로서의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제주도지사로부터 정식 허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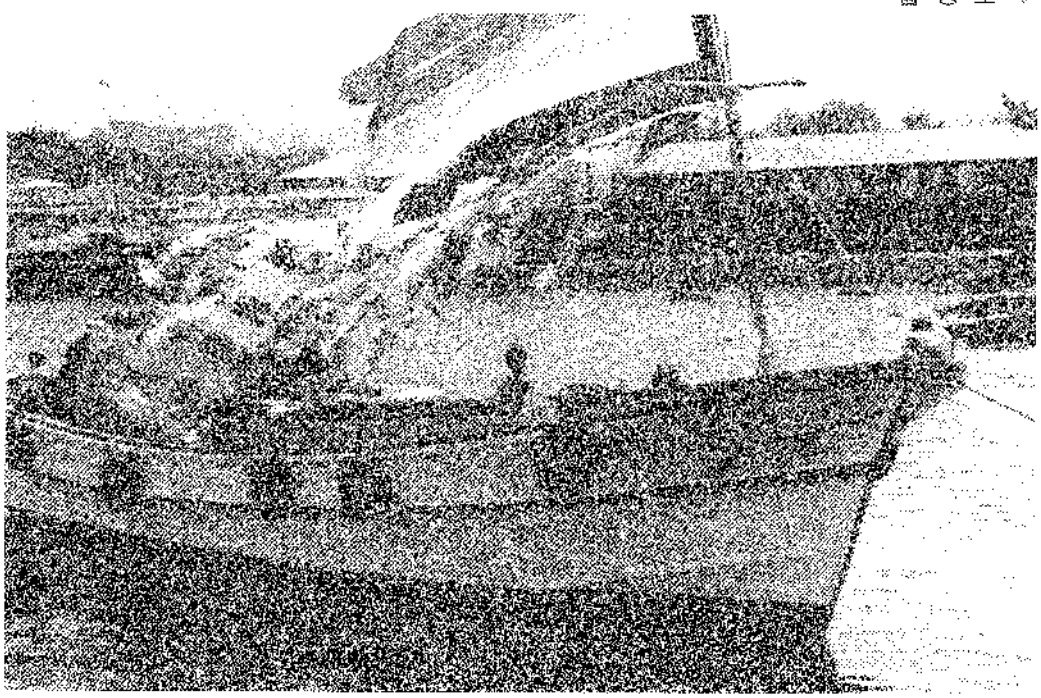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이 본도와의 출입이 잦아지고 도항선 이용객수의 증가로 자연호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1983년 6월 9일 17톤급 연봉호를 복수로 취항하여 운항했다.

1986년 6월 자연호의 노후로 9년 2개월의 운항을 마치고 협성호를 대체선으로 취항하였으나 계속되는 도항선경영난으로 1989년 12월 강영길(제주시 화북 거주)씨가 연봉, 협성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 자 연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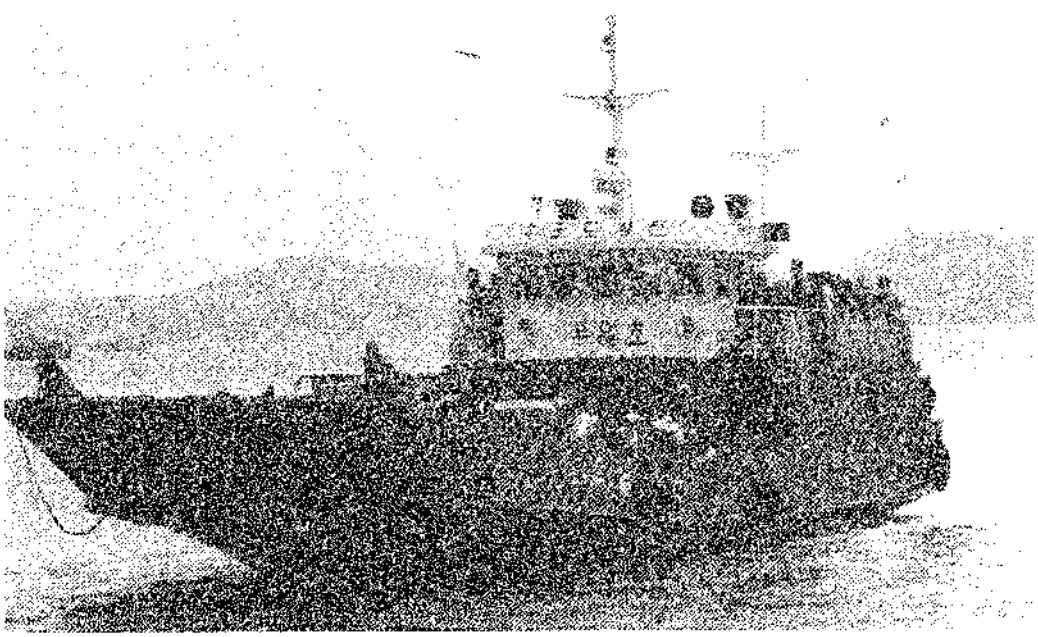
협 성 호 ▼



지금까지의 도항선은 어선의 형태, 크기 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적기 출하하지 못해 우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1988년 10월 강권일씨가 59톤급(75마력 2기, 강선)화물 운반선인 덕일호를 취항하게 됨에 따라 각종 농수산물 및 우도개발을 위한 건설자재를 대량으로 운송이 가능하여 우도산업발전의 계기를 이루었으며 또한 여객(강영길)과 화물은 바지선 운송으로 이원화를 이루게 되었다.

1992년 5월 북제주군과 강영길의 합자로 여객(95명)과 차량을 동시 운송할 수 있는 57톤급(270마력 2기, 강선) 우일호가 취항함에 따라 양대 도항선 모두 대형화, 강선화, 고속화로 여객선의 경우 일일 6~10회 왕복 운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도의 교통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 일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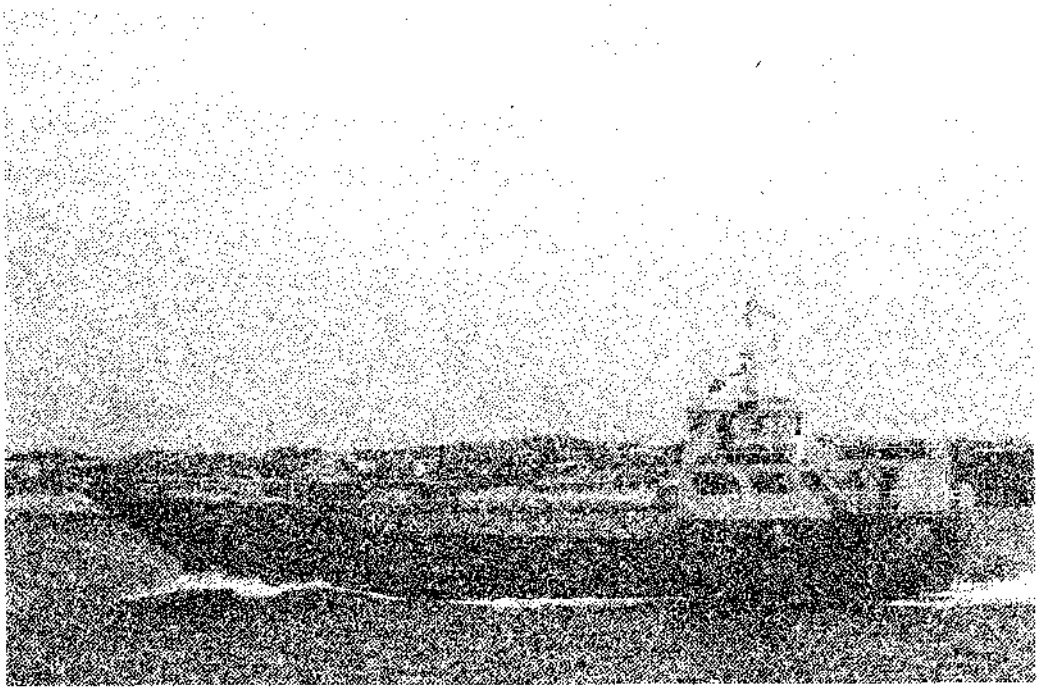
날로 늘어나는 우도개발의 붐으로 각종 산업발전재료를 운반하는 데 덕일호의 한계가 드러나 1998년 8월 63톤급(18마력 2기) 덕일 3호(강순일, 강성일 공동

소유)를 추가 취항했다.

1994년 12월 임봉순씨가 우일호(북제주군수 소유)인대권을 강영길에게 인수 운영하고 있다.

우도산업의 발전으로 생산된 농수산물과 건설자재 운송 및 폭발적인 관광 내도객이 늘어나게 되어 1994년 11월 덕일호를 매도하고,

1995년 5월 승객 81명, 87톤급(325마력 2기) 덕일카훼리(대표 강순일)를 종달~우도 노선간 취항하고, 7월 승객 135명, 120톤급(460마력 2기) 우일카훼리(대표 임봉순)를 각각 취항하였으나 양대 도항선이 무리한 경쟁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우일 카훼리

1996년 5월 양대 도항선의 합의에 의한 합병으로 여객선과 화물의 동시 운송으로 일일 왕복 12회의 정기운항으로 승객 및 차량의 연평균 증가율(1992~1995년) 39%와 174%의 증가로 우도 도항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 연도별 도항선 승선 및 차량 운송현황

연도별 / 수송명	'92	'93	'94	'95	'96. 6월 현재	연평균 증가율 ('92-'95)
승 객	90,183	111,613	167,445	240,601	247,841	39%증가
차 량	1,501	3,492	14,481	25,505	12,068	174% 증가

牛島의 南東쪽에는 牛島燈臺가 있다. 이 牛島燈臺는 1906. 3. 무인등대로 준공되어, 1959. 9. 유인등대로 개량, 1960. 3. 광파표시 개량, 1960. 3. 음파표시 설치(에어싸이렌), 1981. 12. 등대시전(AC전원)인입을 마쳐 초현대 시설을 갖춘 등대로 발전했다.

제주도 최초의 우도 등대는 소속기관도 1906.12월 대한제국 세관광사부 등대국으로 시작해서 1946.11. 운수국 해상운수국, 1948.11. 교통허운국, 1955.2. 해



우도등 정상에 있는 등대

무청 해운국, 1961. 10. 교통부 제주지방 해운국, 1976. 12. 제주지방 해운항만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변에 나란히 있는 巨文島 등대(1905년 4월 준공)와 馬羅島 등대(1908년 2월 준공) 등과 같이 日帝가 당시 한반도의 남쪽으로부터 西海를 경유하여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려는 길잡이 役割로 시설한 것이었으나 지금 이 牛島燈臺는 도항선 운항뿐만 아니라 濟州島의 東側關門의 나침반으로 지대한 役割을 하고 있다.

한편 憲宗 11년(1845년) 秋史 金正喜의 流配地生活을 그의 형제에게 보내는 서한 중에는 다음과 같은 牛島에 관한 기록이 있다.

「去念後, 英吉利船, 來泊於 旌義之牛島, 距此爲近二百里, 而彼船則別無他事, 只是一過去船, 而一島騷擾, 不能底定, 州城如經一亂, 北中근能開論, 幸不至如州矣」

지난 달 25일에 영국선이 정의현 우도에 와서 정박했는데 이곳(대정)과는 2백리가 되어 별일이 없다. 그러나 그 배가 한번 지남으로 온 섬이 불안에 떨어 민심이 안정되지 않았고, 제주성은 마치 난리를 겪은 것처럼 시끄러웠다. 서울에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논의가 안 됐는지 근심스럽다. (오문복 번역)

이 글의 뜻을 다시 韓國水路史에 있는 濟州道實測의 내용으로서 설명해보면 당시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한다. 「1845년(憲宗 11년) 6월 22일 英國軍艦 사마랑號(Samarang)는 艦長 벨처(Capt. Sir Edward Belcher)의 指揮下에 濟州牧 旌義縣 止滿浦 牛島에 나타났으며 旌義縣監에게 英國皇帝의 令을 받아 1843년경부터 極東各處의 船舶의 安全航海를 위한 水路測量을 施行하고 있으며 6월 4일 中國의 廣東을 떠나 呂宋과 琉球를 거쳐 온다고 말하였다.

이 水路測量船은 牛島 주변을 비롯하여 우도 수도를 精測하였으며 西進하여 別防鎭, 魚登浦, 朝天鎭, 咸德浦, 禾北鎭, 涯入浦, 竹島, 桃源浦, 摹瑟浦, 馬羅島등을 寄泊하면서 제주도를 일주하며 20일간 測量한 후 7월 16일 巨文島로 향하였다.

이 測量原圖는 全紙 6장을 1組로 한 大型原圖이며 36,000분의 1의 縮尺으로서 당시의 사마랑호의 탁월한 航海術과 測量術을 말해 주고 있으며, 특기할만한

것은 牛島 부근은 거의 완전한 水深精密度를 유지하여 精測하였으며, 牛島에서 제주항까지는 航跡測深을 하고 있다. 牛島를 비롯한 제주도의 근대적 측량법에 의한 최초의 海圖라고 할 수 있는 점이다.

또, 이 原圖에서 지명은 牛島→Beaufort Island, 飛揚島→Anderson Island, 竹島→Eden Island, 加波島→Barloan Island, 兄第島→Marryat Island, 馬羅島→Giffard Island, 濟州島→Quel Part Island로 표기하고 있다.

수많은 사연은 안고 오늘도 우도와 본도 사이 牛島海에는 바닷물이 들고 난다.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1845년 6월 22일 영국군함 Samrang호가 牛島 부근 수심을 완벽하게 측량했다는 사실이다.

사마랑호가 우도를 Beaufort Island(풍력 등급을 Wind-Scale이라 하는데 Beaufort's Scale에서는 풍력 등급을 0에서 12급까지 분류함. 따라서 문제의 Beaufort는 Sir Francis Beaufort라는 사람 이름이며, 비양도는 동화작가 안델센, 죽도는 에덴 등으로 표기)라 표기한 牛島海는 오늘도 말이 없다.

그러나 언젠가 우도와 성산, 우도와 종달사이에는 방파제가 축조되고 牛島海는 제주 제1의 항구가 될 것이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성공하려면 공항, 항만의 확대가 시급하다. 제주공항, 제주항(산지항)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더욱이 제주항은 자연적인 조건이 전무한 상태여서 곧으로 방파제를 쌓고 있다.

지도를 펴 보면, 牛島海가 왜 항구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영국인들이 1845년 6월 22일 牛島海를 면밀하게 수심, 풍향, 풍속을 측량했는지 곰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牛島는 濟州島의 방파제인 것이다.

제3장 海 女

제1절 牛島海女와 海女社會

우도면은 제주도내에서도 해녀물질이 썩 활발한 곳이다. 제주 해녀라면 너무나 유명해서 전세계에서 주목한다. 연약한 여인들이면서도 시퍼런 바다, 곧 第一種共同漁場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캐어내는 유별난 직종이기 때문이다.

특수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이른바 裸潛漁業에 따라 바닷속 깊이 12미터까지 들어가 십하면 2분 넘짓 견디면서 해산물을 캐어내는 기량이 신비스럽다.

이 세상에 직업으로서의 해녀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되었다. 우도면의 경우는 더욱 해녀가 밀집되었고, 물질도 극성스럽다. 우도면, 곧 소섬 주변이 황금어장을 이룰 뿐더러 주민들의 유다른 근면성과 굳튼튼한 삶의 의지가 바탕에 깔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해녀의 제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우도면의 해녀를 주목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 밖의 어느 나라에도 직업인으로서의 해녀의 분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아직 시원히 밝힐 수 없다. 어쨌든 분포지역이 이처럼 한정되었음은 해녀의 존재를 더욱 珍重하게 한다.

한국과 일본에만 흩어져 있는 해녀의 수효는 얼마나 될까. 그 통계는 막연하지만, 한국에 약 2만, 일본에 약 5천, 도합 2만5천명 쯤으로 추산된다.

우도면에는 현재 6백명 내외의 해녀들이 물질에 전력투구한다. 牛島漁人漁村

契의 집계에 따르면 1992년말 현재 어촌계원수는 479명(남 67명, 여 412명)인데, 412명의 여계원은 모두 해녀다. 潛在海女까지 합치면 실제해녀수는 412명의 1.5배인 약 6백명으로 추산된다.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우도면에서도 해녀는 激減一路에 놓였다. 어촌계의 통계에 따르면 1973년 현재의 공식적 해녀수는 895명이었는데, 불과 9년 사이에 412명으로 줄어 들었으니 46%로 감소된 셈이다.

우도면의 해녀들은 여느 해녀들과 마찬가지로 농사도 더불어 짓는다. 제주도 도처의 해녀들은 저의가 농사를 짓는 범상한 여인들이다. 해녀라면 흔히 평범한 농어촌의 여인들과는 유다른 여인들로서 물질만 치르면서 사는 여인들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물질을 치른다. 제주 해녀들은 실로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물과 바다에 널따란 발을 지닌다.

漁村契員 統計

漁村會別 / 區分	計	天津里		西光里		五逢里					朝日里	
		東大津	西大津	上牛目	下牛目	尙興	錢吃	三陽	上古水	下古水	飛揚	通日
計	479	59	33	26	53	42	39	35	31	33	69	57
男	67	10	1	3	8	8	4	4	8	5	6	7
女	412	49	32	23	45	34	31	31	23	28	63	50

· 1992. 12. 31 현재
· 자료 : 牛島法人漁村契

先天的 血統에 따라서 놀랄만한 물질 솜씨가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해녀들에게 遺傳的 素因이라곤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도면의 소녀들이 열심히 물질을 치르고 기량을 익히면서 제 학비는 스스로 마련하는 사례가 흔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학비를 스스로 마련할 뿐더러, 자립하기 위하여 저금하는 소녀들도 우도면에서는 흔했다.

우도면의 소녀들은 어렸을 때 물질을 익히고 제 용돈을 스스로 마련해서 자립

할 뿐더러, 少女家長으로서 家計를 꾸리는 사례도 드러나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뿌린다. 올찬 自彊不敗意識의 흡족한 본보기다.

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노동력이 家計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우도면에서는 제주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養女制度가 번졌었다.

말하자면 한본토의 소녀를 부모의 승락을 얻고 데려다가 친자식으로 入籍시키고 가족처럼 지내면서 집안일을 함께 거들게 하고 물질을 시킨다. 친자식처럼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면서 굶든든하게 자립하게 된다. 이제도 동기간에는 혈육처럼 지내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國文學報》 제5집, 제주대, 1973). 해녀마을의 養女制度는 일본에서도 가끔 보고된다(瀨川清子 : 《海女》, 112면, 未來社, 1970).

소녀의 노동력이 우도면에서는 家計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해산물 채취로 온 주민이 총동원되는 解警(許採) 때에는 국민학교에서도 며칠 동안 방학하는 관례가 있었다.



해녀들이 물질가는 모습

우도면의 바닷가에는 어린 소녀부터 노파에 이르기까지 예로부터 물질에 그야말로 獻身沒入할 뿐더러, 직업적 子矜心도 유다르다. 한여름철 자그만 해녀연장들을 챙기고 바닷가에서 온종일 물질을 즐겁게 익히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싱그러운 모습은 1970년대초까지만 해도 우도 해안에서 흔히 보이는 광경이었다. 사회의 故變이 超速化하는 오늘에도 그 예사롭지 않은 勤儉·自立의 생활태도는 드높이 칭송하고 계승되어야 마땅하다.

우도면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서 치르는 〈벳물질〉은 않고 다들 〈ᄀᆞ물질〉이다. 〈ᄀᆞ물질〉은 해녀들이 바닷가에서 그냥 헤엄쳐 어장으로 나가서 치르는 물질을 말한다.

우도면의 第一種共同漁場, 곧 해녀어장은 바닷가의 열한 동네별로 나누어졌다. 원래는 우도면의 바다 어디든지 우도 해녀리면 누구나마 입어할 수 있는, 곧 共同所有의 慣行이 이어져 오다가 광복이 되면서 열한 동네별로 분할되었다.

해녀들은 제 동네 앞바다에 입어할 권리를 지니는 한편, 그 어장의 잡초를 제거하는, 이른바 〈바당풀캐기〉 등을 철저히 치르고 해산물의 부당채취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어쩌다가 떠오르는 시체처리도 예로부터 전해지는 중요한 의무다.

〈바당풀캐기〉에 참여하는 일은 철저한 의무로서 만약 이 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벌금을 내어야 입어할 수 있다든가 그 규제가 엄격하다. 그 규제의 관행은 동네마다 좀 다르다.

동네와 동네 사이의 어장 경계는 〈검〉이라 한다. 그 〈검〉의 표지는 〈코지〉(串) 또는 해안 바위에 도끼로 찍어 놓은 점과 바닷속 암초인 〈여〉를 직선으로 연결한다든가 하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제주도의 숱한 해안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漁場紛糾가 일었던 것처럼, 우도면의 동네와 동네 사이에도 가끔 漁場境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도 迎日洞 앞 〈너런지바당〉의 入漁權을 둘러싼 분쟁은 1970년대 전반기에 법정문제화되기도 했다. 그 원인이나 경위를 간명하게 요약하기는 자난하다. 그만큼 물질이 소중한 생업이요, 그 경위가 얼기설기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入漁에 따른 모든 관행은 열한동네가 제각기 동네별로 탄탄히 다져 나간다. 동

네별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 결속이 굳건할 뿐더러, 鄕約과 시행규정을 제각기 설정하고 있다.

漁村契나 婦人會(海女會·潛嫂會) 역시 동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향악 외의 시행규정 역시 慣行에 근거하면서 아주 상세하다. 이는 《濟州有人島學術調査》(濟州文化放送, 濟州道, pp. 354~357, 1991)에 소개된 바 下牛日洞의 시행규정을 참고하더라도 아내 파악되리라 본다.

下牛日洞의 시행규정에서 보면, 해녀의 입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규정된다. 곧 그 제28조에는 "부인회원은 입어시 자기 힘에 알맞는 할석 한 덩이씩을 갖고 바다에 투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바다 가꾸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入漁權이 상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준회원으로서 입어행사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혼인으로 인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자. 단, 당해년도 천초채취는 허용키로 하며, 타지방에서 혼인하여 입주한 자는 입주하는 다음 연도부터 채취권을 갖는다"고 그 규정이 구체적이다. 여기 '준회원'이란 정회원 가호내의 직계가족과 셋방을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제31조).

이 규정에는 漁場의 경계, 禁採期 규정, 우뭇가사리 채취할 때의 病故로 말미암은 代理採取의 규정, 우뭇가사리 채취할 때의 조업규정, 농번기의 입어 금지, 감시원 규정 등을 일일이 담고 있다.

오랜 세월의 慣行과 경험에 의하여 自生的으로 꾸며진 이 규정은 해녀들은 법률 이상으로 잘 지킨다. 농촌보다 어촌은 훨씬 法的이며, 물질이 극성스러울수록 더욱 그 自生的 規程은 깐깐하고 더욱 法的이다.

우도면에서 독립된 해녀로서 물질을 시작하는 연령은 1973년을 기준한다면 평균 15세이며 달마다 물질하는 일수는 4월에서 10월 사이는 10~16.5일, 11월에서 3월 사이는 4.4일에서 7.3일이다.

우도권에서는 해녀 물질에 따른 수입이 절대적이어서 흔히 '돈섬'이라 불리어진다. 1992년도의 해산물 위탁판매를 기준한다면 漁船漁業에 따른 소득이 11%에 불과한 데 비하여, 海藻類(61%), 貝類(12%), 기타(8%)를 통틀어 해녀소득은

81%에 이른다(牛島法人漁村契 통계).

우도면의 해녀 물질이 극성스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가 풍부하게 자라나고 주민들의 勤儉·自立意識이 유다르기 때문이다. 곧 풍요로운 수산자원과 주민들의 근면성이 합치됨으로써 빼어난 해녀작업이 오랜 세월 성행해 온 셈이다.

우도면의 우뭇가사리는 질이 좋고 생산량이 엄청나서 제주도내 총생산량의 절반을 웃도는가 하면, 우도 바다는 넓미역의 두드러진 群落을 이루고 있으며 갈래곰보와 볏붉은 잎이 숱하게 생산된다.

1960년대말까지만 하더라도 6월 중하순이 되어 넓미역이 解警(許採)되면 上·下牛目洞 앞바다는 넓미역을 캐는 배들이 숱하게 몰려들어 일주일 남짓 그야말로 壯觀을 이루었다.

우도의 어선을 비롯하여 終達·始興·城山·天北·爲美 등지에서 1백여척이 몰려들어 넓미역을 캐는 광경은 흡사 일대 퍼레이드를 벌이듯 했다. 줄줄이 몰려든 이 배들은 일제히 넓미역을 건진다.

해녀들은 해녀들대로 15m~20m 깊이로 무자맥질하면서 넓미역을 캔다. 캐어 놓은 넓미역을 나르고 이를 말리느라 해녀 가족들도 일제히 바다로 몰린다. 해녀와 해녀 가족들은 동이 트자 바다로 몰리고, 어린이들은 조반을 짓고 바닷가로 달린다.

이른바 넓미역철에는 바닷가가 온통 人波로 덮인다. 넓미역을 캐는 해녀들, 이를 져나르는 남정들, 이를 바닷가에서 말리는 여인들, 식사를 나르는 등 뒷바라지하는 어린이들이 뒤섞이어 바닷가는 그야말로 사람들로 뒤덮여서 장엄한 교향악을 이룬다.

이제는 이런 광경도 옛 풍경으로 사라졌다. 남해안에서 양식미역이 1973년 전후해서 다량 생산됨으로써 이른바 〈참메역〉·〈돌메역〉 이라는 자연생의 미역을 캐는 일은 점차 사라져 가면서 넓미역 캐기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요마적에 이르러 제주도의 해녀사회는 産業社會化의 거센 물결에 따라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는 바 우도면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첫째 해녀수의 激減現象이다. 제주도 수산당국의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1970년에 비하여 1990년에는 4분

의1로 해녀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곧 1970년에 23,930명이던 해녀수효가 1990년에는 5,951명으로 드러난다. 지금의 연령분포는 대부분 40대 이상, 특히 50대 60대에 쏠렸으니 고령화추세가 두드러지고, 앞으로 30년쯤 흐르게 될 때 제주해녀의 맥락은 아주 끊기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고비에 놓였다. 우도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1천명 이상이던 해녀가 412명(1992년말)으로 줄었다.



예전의 해녀

둘째 세월의 흐름에 따라 海女服과 海女器具 역시 변화를 일으켜서 재래의 해녀복이 합성고무로 탈바꿈된 것은 1973년이 고비가 된다. 그 당시 우도해녀 가운데 고무옷을 입은 해녀수는 약 5분의 4에 이르고 있었다.

합성고무옷을 입게 되자 물질하는 시간이 불어나서 체력소모가 극심해지고, 鎭痛劑·鎭靜劑를 남용함으로써 직업병이 급격히 불어나는 부작용이 우도 해녀들 가운데 적잖게 드러난다.

셋째 채취물의 종류도 변화를 일으켜서 특히 우도면에서 대량 생산되던 넓미역

과 미역을 캐지 않는 반면, 1980년대에 들어서서 갈래곰보와 벳붉은잎이 흔히 생산된다. 제주에서 갈래곰보는 '鷄冠草', 또는 '닥고달'이라 하며 벳붉은잎은 '고장풀' 또는 '고상초'라 하는데, 묻혔던 인재가 느닷없이 발탁되듯 그 効用價値를 인정받기에 이른 셈이다.

제 2 절 牛島海女의 海外出稼

우도 해녀들은 海外出稼 역시 극성스러웠다. 1915년경에도 약 4백명이 한반도 각처로 나갔었다니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 비하더라도 단연 압도적인 수효였다. 이제 우도면 주민 몇 사람의 出稼經驗을 소개함으로써 그 實相을 밝히려 한다.

1. 조완아의 出稼

조완아노파(79)는 天津里 東天津洞의 大上軍 해녀로서 친정은 舊左邑 下道里다. 첫 바깥물질, 곧 〈초웅〉으로 對馬島에 나가기 시작해서 국내외 곳곳을 누벼 다녔다.

딸들이 釜山에 살아서 그곳에 드나드는 일이 흔하므로 동네에서는 흔히 〈부산할망〉이라 부른다.

어렸을 때에는 水鏡을 안 쓴 채 물질하기도 했던 게 조노파로서는 귀중한 추억인데, 마을에서도 열두길 물질하는 大上軍으로 소문났다.

조노파는 열여섯살에 對馬島로 물질나가기 비롯해서, 열여덟에는 淸津으로, 스물넷에는 黃海道로, 스물일곱에는 忠淸道로 나갔었다.

열여섯살(1930년)에 對馬島로 떠날 때에는 친정인 下道에서 일본인 인솔자를 따라 화물선을 이용했다. 음력 3월에 나섰는데 닷새만에 도착하고 6개월 살다가 추석 직전에 돌아왔다.

對馬道에서는 주로 〈벳물질〉이었고, 소라·전복·미역을 흔히 캐었다. 함께 나간 동아리는 서너사람씩 짝을 지어 자취하며 지냈다. 對馬島사람들은 대정해서

절간고구마 가루로 만든 음식을 번번이 선사하곤 했는데, 해녀들은 스스로 캔 채산물을 답례로 전하곤 했다.

그곳에도 물질하는 해녀들이 있었다. 남성들도 팬티만 입어서 해수욕하듯 어설피 물질하는 게 이색적이었다. 그곳 바닷속은 거무죽죽하게 흐렸다.

조노파는 對馬島에 단 한번 물질다녀와서 돈 1백냥을 벌어다가 6백평의 밭을 샀다. 이제 해아리도 뿌듯한 보람이다.

스물넷(1938)에 黃海道 물질을 나갔다가 배 위에서 말딸을 분만했던 일은 분명 사건이었다. 지금의 휴전선 가까이에서 이 섬 저 섬 돌면서 이른바 〈난바르〉를 하던 도중이었다. 〈난바르〉란 여러 날 동안 船上生活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치르는 물질.

물질하려고 〈물옷〉을 갈아입는 순간, 느닷없는 産痛에 직면하더니 이내 애를 분만했다. 배에는 船主와 機關長 및 열두 해녀 등 열다섯 사람이 타고 있었다. 따라서 조노파의 분만 때문에 열다섯의 동아리가 〈난바르〉 물질을 중단하고 回航할 수는 없었다.

바람마저 거센 날씨였지만, 조노파는 일행의 도움을 받으며 배 위에서 조섭하며 지낼 겨를이 없었다. 그때 그렇게 낳은 애는 탈없이 잘 자라서 지금 선일곱이나 된다.

제주 해녀들은 이처럼 분만하기 직전에도 물질한다. 조노파의 경우처럼 배 위에서도 분만하고, 항구나 길에서도 분만하는 사례가 의외로 드러나서 유별난 회제를 낳는다. 〈메선이〉·〈축항둥이〉·〈길둥이〉·〈질둥이〉 등의 별명도 이래서 붙는다. 이처럼 해녀들이 獻身沒入度는 높이 기릴 만하다.

〈난바르〉물질은 꽤 고달팠다. 배 위 화덕에서 장작을 때어 밥도 짓고 물도 끓였는데, 조노파의 다리에는 장작불에 덴 자국이 이제도 거뭇거뭇 남겨졌다.

〈난바르〉물질하는 동안은 배 위에서 자다가 눈을 뜨자마자 이부자리도 그냥 두어둔 채 식전부터 물질은 시작되었다. 아침밥도 열시쯤 돼서야 船主가 좁쌀로 미음을 쑤어 나눠 주곤 했는데, 좁쌀밥도 제때에 배불리 먹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물질은 어둡도록 이어졌으니 썩 버거운 나날이었다.

거기에서는 소라·전복·홍합·해삼 등을 캤었고 仁川에 가서 팔곤 했다. 그

곳 출신의 해녀는 안 보였고, 가다가 팬티만 입고 어설피 물질하는 남성들이 눈에 띄었다.

인솔자들은 물질을 떠나기 앞서 해녀들에게 前渡金을 내주곤 했다. 돈을 미리 받아서 쓰는 편법인데, 어떤 해녀의 경우는 물질을 마치고도 벌이가 시원칠 못해서 그 前渡金마저 갚질 못한다. 그럴 때면 볼모로 붙잡혀서 귀향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를 목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유린이 번저가자 크게 사회문제화되어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인상에 남는 바는 그곳 남성들이 〈테왁〉도 갖추지 않은 채 신주머니처럼 나무조각에 헝겊을 씌운 것을 물에 띄워 〈테왁〉대신 쓰면서 채취물은 그냥 손에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화물선을 타고 莞島를 거쳐 돌아올 때에는 물질을 치르면서 무려 23일이나 걸렸다.

스물일곱(1941)에는 忠淸南道로 나갔다. 船主는 일본인이었고 인솔자는 제주 남자였다. 終達의 한 해녀는 어린애를 데리고 갔었다. 일행이 어느 날 물질하고 돌아와 보니, 혼자 놀도록 두고 온 애가 종적없이 사라져서 등네가 왈칵 뒤집혔다. 해녀들 모두가 마을과 바닷가를 살살이 뒤졌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이제 해아려도 가슴이 서늘한 일이다.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웨살〉로 물속이 흐릴 때에는 물질을 쉬었다. 쉬는 날엔 들판에 가서 땔감을 마련해 오거나 주민들의 보심기를 돕곤 했다.

바깥물질 때 받은 實收益이 얼마나 착취당했는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꽤 뜯겼으리라 여겨진다. 얼마나 뜯기는지 모르는 경우도 흔하였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저 그러는 것이려니 해서 눈감아 버린다는 게 조노파의 말이다. 따져들다가는 미움만 받을 뿐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해녀들도 人權伸張을 위해서는 학력이 탄탄해야 한다고 조노파는 강조한다. 학력이 갖추어져야 해녀들의 기본적 권익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충청남도에서는 주로 우뭇가사리를 캐었는데, 이를 팔 때 저울눈을 제멋대로 속이는, 이른바 不正檢斤이 저질러지는 줄 눈치채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人漁料네, 부슨 手數料네, 태상이네,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제하다가 보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總收益의 3분의 1쯤이었다고 토로한다.

우뭇가사리의 회제는 〈1반초〉·〈2반초〉가 마무리될 때마다 치러지는 게 관례였지만, 물질나간 해녀들 대부분은 자원해서 귀향할 때 한꺼번에 지급받았다. 목돈을 쥐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함께 나간 해녀동아리는 가다가 집단오락회도 열었다. 소득이 괜찮을 때엔 自祝한다고 음식을 푸짐하게 마련하고 노래를 즐기는 그런 오락이었다.

물질나가는 해녀들은 생활비를 아끼느라 식량을 챙기고 간다. 조노과 일행이 나갈 때에도 해녀마다 보리쌀을 서너 15말~20말씩 가지고 나갔다. 쌀이나 된장이 모자랄 경우엔 채취한 해산물로써 그곳 주민들과 물물교환으로 보충하곤 했다.

조노파는 물질에 대한 職業觀이 탄탄하고 유달리 자랑스럽게 여긴다. 흔히 딸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고들 하지만, 조노파의 견해는 다르다.

그래서 차라리 요새 태어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물옷〉을 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긴 시간 자맥질해서 물질을 치를 수 없었던 지난 날에 비하여 요새는 얼마나 편한가고, 물질의 改變에 부러움을 못 감춘다.

조노파는 어기찬 해녀생활의 한평생 삶의 모습도 주목되거니와 확고한 職業觀 또한 범상치 않다.

2. 김효형의 出稼

天津里 西天津洞 김효형 노파(1907~)는 무려 18년 동안 동북아시아 세 나라를 누비어 다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따아롄(大連)에도 나갔었고, 對馬島도 다녀왔다. 한반도에 드나든 곳은 너무 숱해서 일일히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얼른 기억에 떠오르는 지역만 하더라도 慶尙北道 울산·당포·서성·강구·구룡포와 全羅南道의 욕지도·소리도·우왕리·보길도 등지 및 忠淸南道 黃海道 일대에 뻗쳤다.

한평생 삶의 보람을 김노파는 그 숱한 바다를 살살이 누벼다녔다는 데서 찾는다. 서울에 아들들이 살아서 비행기를 여섯번이나 타 보았다는 말도 자랑삼아 덧

불인다. 바깥물질은 그 쓰라림도 지극하지마는, 보람도 크다. 김노파는 그 숱한 바닷속모습을 샅샅이 구경할 수 있었다는 데 큰 가치를 둔다. 사람의 얼굴 모습이 제각기 다르듯이 바닷속 바위들의 생김생김이나 해엄쳐 다니는 고기들, 온갖 해조류의 모습이 신비스러울 만큼 다른 광경을 보는 즐거움을 김노파는 거듭 강조한다.

서른다섯(1941)에 따아롄(大連) 물질도 치렀다. 黃海道로 나갔다가 〈난바르〉 물질로 따아롄을 드나들었다.

돛배를 타고 黃海道로 나갈 때에는 발이면 알맞은 포구에 寄港하곤 했다. 인솔자는 제주 사람이었지만, 船主는 黃海道 사람이었다. 黃海道 어느 곳을 갔는지는 기억에 없다.

황해도에서 물질하다가 음력 5월쯤 따아롄(大連)으로 〈난바르〉 물질도 드나들곤 했다. 날마다 따아롄으로 물질나갔다가 저녁때면 돌아오곤 했는데, 배 위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지냈다.

따아롄 앞바다에서는 일정한 곳에서 물질했던 게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작정질했다. 자그만 섬들과 여를을 바구 돌았다. 전복만을 캐었으니 그 한칠한 우뭇가사리와 미역을 숱하게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 썩 아쉬웠다.

따아롄 앞바다의 전복은 자잘했고, 물속은 흐리고 어둑해서 어림짐작으로 캐곤 했다. 소득은 별로 사원칠 않았다.

그곳에는 해녀들이 안 보였고, 남정들이 팬티만 입은 채 물질하는 모습이 어설프게 눈에 띄곤 했다. 20~30대의 남정들이 서넛씩 동아리를 이루며 물질하다가 제주 해녀들이 불을 쬐는 곳에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몸을 녹이곤 했다. 부인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남정들이 캔 해산물을 저 나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따아롄의 앞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히 끼는 날이 흔했던 것도 인상에 남는다. 음력 7월이 되자 따아롄 물질은 마감되었다. 따라서 따아롄 물질을 마치고 나서 黃海道와 忠淸道 바다를 이리저리 돌면서 〈난바르〉물질을 잇따라 치렀다. 이리하여 한번 물질나간 동안에도 여돌아다닌 바다의 행동반경은 실로 넓찍했다. 셋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애를 데리고 나가서 그 넓찍한 바다를 돌아다닌 셈이다.

그때만이 아니라, 김노파는 바깥물질 나설 때마다 저의 애를 데리고 나섰다.

데리고 간 애 때문에 크게 애탄 적이 없었다는 점만해도 다행스런 일이다.

늘 돛배를 타고 바깥물질을 나섰다. 바람이 자거나 거슬러 불 때에는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여기차게 〈해녀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 당시에는 한번 물질나가서 6개월쯤 살아서 귀향할 때 1백냥쯤 벌어들이면 괜찮은 수입으로 쳤다. 귀향할 때에는 알뜰한 옷을 사고 가족들에게 선사하곤 하는 게 관례였고 즐거움이었다.

18년 동안이나 물질을 치르면서 발돼기나 사들였는가는 물음에는 쓴웃음만 머금는다. 집안살림을 꾸려 나가는 한편, 쉰아홉에 여읜 남편이 시름시름 앓아서 병시중하느라 재산을 돌릴 여유는 없었다.

바깥물질을 나갈 때마다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채취의 3분의 1쯤이었다고 김노파는 단언한다. 入漁料네, 予數料네, 交際費네,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제하다가 보면 수입의 3분의 2는 착취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고령이면서도 사리를 판별하는 눈이 정확하고 냉철하다.

김노파는 바깥물질을 다녀오는 해녀들도 능력에 따라 그 수익은 천차만별임을 강조한다. "노력갈 땐 혼빗, 올라올 땐 천청만칭구만칭"이란 俗談의 뜻이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강조한다. 바닷속으로 부자맥질해서 내려갈 때엔 한빛, 곧 同格이지만, 해산물을 바닷속에서 캐고 수면으로 올라올 때엔 그 능력과 재수에 따라서 千層萬層九萬層으로 해녀 개개인의 소득의 차등이 크다는 것이다.

바깥물질 나간다고 모두 돈을 벌어들일 수는 없다는 점을 김노파는 강조한다. 짓궂은 인솔자를 만나서 착취가 심하거나, 날씨나 바다 사정이 시원칠 못해서 물질이 순조롭질 못하거나, 건강이 기울어져서 제대로 물질을 치르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빚은 지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바깥물질 나간 곳에서 씀씀이가 헤플 때에도 마찬가지다. 미리 前渡金을 받아 쓰고도 그 前渡金을 갚을 만큼 벌어들이지 못할 때 눌보로 잡혀 귀향할 수 없는 예도 흔하다.

국내외의 숱한 바다를 폭넓게 누비어 다녔음을 평생의 보람으로 여기는 김노파의 생각은 퍽 너그럽고 싱그럽다.

3. 김춘산의 出稼

해녀들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다가 보면 오랜 세월 바깥물질을 치른다든가 하면

서 갖은 역경을 겪고도 한치의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天津里 東天津洞의 김춘산 여인(56)도 그런 분이다.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를 김춘산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살살이 누비어 다녔다.

열일곱에 부산 동삼동에 〈초용〉, 곧 첫바깥물질을 나가기 비롯해서 잇따라 巨山島 가까이 가옥도(18세) 및 배물도(19세), 江原道와 蔚山(20세)을 다녀 왔다.

결혼하는 스물한살에도 統營을 드나들었다. 스물둘에는 全羅南道 青山, 스물셋 되는 연초에는 부산 남천동에 나가서 석달동안 물질하다가 큼철이 되자 慶尙北道 九龍浦·木浦 일대로 올라가면서 물질했다.

이 九龍浦·木浦 일대에는 그후 세해 동안 연거푸 나갔고, 솔머리·구만·대천·삼정·강구미 등을 누벼다녔는데 들른 곳을 일일이 기억하기마저 힘들다.

九龍浦 솔머리에는 스물여섯에도 나갔고, 그 이듬해엔 全南 小莞島 주변을 돌았다.

열아홉에 배물도로 나갈 때에는 九死一生의 위태로움도 겪었다. 돛배를 타고 나가다가 거센 풍파를 만났기 때문이다. 지붕같이 몰려드는 파도 속에 휘말리어 배가 침몰할 듯 위태로운 고비에 휩싸이면서 오랜 시간 맴돌았다. 고향에서는 일행이 아주 沒死했다는 소식이 번질 정도였다.

釜山 앞바다의 물질은 또 하나의 위태로움이 따랐다. 그곳에서 침몰했던 배가 오랫동안 깊숙한 바다속에 가라앉아 있었으므로 그 船體 안 으슥한 곳에 홍합이 자라났다. 그 船體 속으로 헤엄쳐 들어갔다가는 빠져나올 길이 막연해서 해녀들이 위험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애꿎이도 일행 가운데 한 해녀는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일도 있다. 이제 헤아려도 등골이 오싹한 일이다.

김춘산 여인은 이른바 〈초용〉이라고, 釜山의 동삼동에 첫물질을 다녀오면서 2천원을 벌었다. 그 돈이 밑발침이 되어 보탬되게도 5천원짜리 밭 한 뙈기를 사들였으니, 이제 생각해도 가슴 뿌듯한 일이었다. 열일곱의 나이에 억척스레 제 힘으로 家産을 불렸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김춘산 여인은 바깥물질 다닐 때의 단출한 식사를 강조한다. 어디어디를 다녀왔는지 빠짐없이 들추어내기도 어려울 만큼 번질나게 육지물질을 드나들었지만, 입쌀밥을 먹어 본 적은 전혀 없다. 한결같이 고향에서 가지고 간 좁쌀로써 참고

견디었다.

자그맣고 외로운 섬에 갇혀질 경우엔 어디에서 찬거리를 마련해 올 것인가. 좁쌀밥에 된장이 고작이었고 김치 깍두기를 마련할 길마저 없었다.

게다가 된장마저 떨어질 경우엔 손수 캔 홍합과 멍게를 소금 들고 마을에서 된장과 바꾸곤 했다. 된장마저도 그립기만 한 각박한 육지물질을 말할 때에도 김여인은 밝은 표정이다.

배 위에서 며칠씩 먹고 자면서 이른바 〈난바르〉 물질도 치러 봤다. 며칠 동안 배 위에서 살며시 〈난바르〉 물질을 치를 때엔 무엇보다도 食水마저 모라자서 크게 고통스러웠다.

그런데도 바깥물질이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굼튼튼하게 돈을 모으는 보람도 컸고, 고향을 떠나서 홀가분하게 친구들과 어우러져 까발리며 떠드는 것도 재미있다. 이런저런 바닷속을 구경하는 재미 또한 괜찮았다.

벌이가 괜찮을 때엔 錢主가 호의를 베풀어서 觀光길에 나서기도 했고, 돼지를 일부러 잡아서 잔치를 벌인 적도 있다. 그 지역으로 나간 해녀들이 몇 동아리 대항으로 노래자랑을 베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으레 뽑혀 나가곤 했다.

김여인은 이런저런 노래를 썩 잘 부른다. 〈해녀노래〉를 비롯한 일하면서 부르는 민요도 잘 부르고 흘러간 옛노래도 잘 부른다. 두어시간 불러도 쉬지도 않은 채 다양한 노래가 이어지는데, 1932년의 해녀들의 抗日鬪爭을 전후하여 널리 번졌던 이른바 〈해녀가〉도 잘 부른다.

한반도 곳곳으로 물질나갔을 때 벌어들이는 수입을 물어 봤더니, 이내 채취액의 35%쯤이라고 달변한다. 實收入이 35%라는 계산은 우선 錢主와 반씩 나눠 가지면 50%인데, 그 가운데에서 사공몫으로 3할을 빼고나면 35%다.

다시 말하면 入漁料네 무슨무슨 수수료네 하면서 우선 錢主에게 50%가 들어간다. 나머지 50% 가운데 뱃물질할 때 사공에게 15%를 빼고 나면 해녀 개개인의 實收入은 35%가 된다는 계산이다.

갖은 不正과 착취에도 흔히 맞닥뜨렸으며, 이른바 不正檢斤에도 직면했다. 不正檢斤이란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저울로 우뭇가사리를 저울질하면서 저울눈을 속이는 일이다. 不正檢斤을 저지르는 줄 알면서도 사실을 밝혀 항의할 수도 없었

다. 따져들다가는 되레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저그런가 하면서 참아 나가는 게 물질의 어려움만큼이나 지난했다.

김춘산여인의 친정어머니는 九龍浦에 물질나갔다가 病死했는데, 그녀가 아홉살 되던 해였다. 그녀는 九龍浦에서 3년간 머물면서 물질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屍身을 고향으로 移葬했다.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38년만의 일이었다.

제3절 文德進 일행의 青島 進出

제주 해녀의 중국 칭따오(青島) 진출을 우도면에서 주도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일제말기 제주 해녀의 칭따오 진출은 우도면 출신 文德進씨의 기발한 입어권 획득에 따라 이루어졌고, 文德進씨와 함께 칭따오에 건너가서 文씨를 도왔던 姜洸燦씨(구좌읍 우도출장소장 역임)도 우도면 출신이다.

칭다오 앞바다의 입어권을 획득한 다음에, 文씨는 제주도내 곳곳에서 前渡金을 내주고 上軍해녀 80여명을 모집해 갔는데, 물론 우도면 해녀가 주장이었다. 이처럼 칭따오 어장의 입어권을 획득한 이가 바로 우도면 사람이고, 우도면 해녀가 많이 나갔다는 점에서 제주 해녀의 칭따오 진출은 우도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文德進씨는 기발한 착상과 철통같은 의지를 갖추었을 뿐더러, 사교에 능란했다고 姜洸燦씨는 강조한다.

일제때에 元山에서 사업에 실패하자, 釜山에서 여관을 차렸지만 기틀이 잡히는가 하면 뜻밖에 불이 화재가 덮쳤다. 對馬島에서 해산물 가공업을 하다가 다시 화재를 만난다.

잇따른 火魔의 否運에 눈앞이 캄캄했지마는 그는 결코 까무러치지 않았다. 오뚝이처럼 우뚝 일어서서 기발한 사업을 찾아 중국 칭따오로 건너갔다.

칭따오 바다에도 우뭇가사리가 휘적휘적 자라지마는, 그곳에는 해녀가 없으므로 남성잠수부들에 따라 일부 채취될 뿐 거의 버려지는 실태에 큰 관심이 갔다.

다욱이나 칭따오 바다에 미역은 안 보였다. 불현듯 文씨는 기발한 발상을 했다. 제주에서 우뭇가사리가 자라는 돌들을 칭따오로 옮겨서 미역이 잘 자라게 되면, 입어권을 얻고 제주 해녀를 모집해 와서 이를 채자고 작심했다.

1933년에 귀국한 그는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제주에서 미역 포자가 붙은 돌과 전복 등을 싣고 칭따오로 가서 바다에 띄웠다.

두해 뒤에 보니, 전복 양식은 실패했으나 미역은 한칠하게 자랐다. 그곳을 점령했던 일본 관청에 그 경위를 알리고 느디어 이의 채취를 위한 입어권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제주로 다시 귀향한 그는 칭따오로 불질나갈 상군해녀들을 전도에 걸쳐 모집했다. 牛島面을 비롯, 舊左邑 終達, 城山邑 古城, 翰京面 龍水, 安德面 沙溪, 表善面 表善 등지에서 80명쯤 모집,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前渡金을 내주면서 집단으로 칭따오로 인솔해 갔다. 칭따오의 중국인들과 일본 관리들도 우호적이었고, 미역 채취는 순조로웠다.

제주 해녀들은 5월에 칭따오로 나가서 8월 추석전에 귀향하곤 했는데, 평균 3백원씩 수입을 올렸다. 당시 소학교 교사 봉급이 40원이었으므로 서넉달에 3백원 수입이라면 괜찮은 벌이였다.

그 당시, 文씨가 미역 포자를 제주에서 싣고 가서 칭따오의 바다에 깔았음은 입어권을 획득하기 위한 구실이었을까. 姜洛燦(1992년 사망)씨의 증언에 따르면 한갓 구실이 아니라, 실제로 미역의 移植에 성공했었다 한다.

일행이 제주에서 칭따오를 드나드는 데에는 18톤쯤의 발동선을 이용했다. 출항하기 직전에는 돼지 등 제수를 마련해서 고사를 치르곤 했다.

발동선으로 55시간쯤 달리면 칭따오에 닿았는데, 오가는 사이에 풍파로 시달려 위태로운 고비는 없었다.

칭따오 출신의 해녀들은 없었다. 가다가 남정들이 水鏡도 안 낀 채 팬티만 입고 자맥질하는 보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 기량은 제주 해녀들에 비하여 퍽 어설펐다.

칭따오 일대에 나간 제주 상군해녀들은 미역을 엄청나게 캐내었다. 그러자 山東省 일대에서는 해외 미역 수입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물질나간 해녀들은 편안히 지내었고, 그곳 중국인들과 알력을 빚는 일도 없었다. 文씨의 외교수단이 뛰어난 까닭이었다고 강노찬씨는 강조한다.

해녀들의 宿食도 文씨가 알뜰하게 뒷바라지해 주었을 뿐더러, 각자가 귀향할 때 3백원쯤의 복돈을 쥐고 올 수 있었음은 큰 보람이었다.

3백원의 화폐가치가 칭따오에서는 대수롭지 않았지마는, 귀국하면 큰돈이었다. 물론 해녀들은 우뭇가사리도 캐었다. 캐어낸 우뭇가사리는 말리지 않은 〈물우미〉로 寒天工場에 팔았다.

해녀들의 권익은 한결같이 잘 보장되었다. 채취액의 50% 이상은 한결같이 보장되었으므로 다른 곳 出稼보다는 유리했던 셈이다.

칭따오 일대는 일본이 점령한 때였으므로, 그곳 漁業權을 둘러싸고 일본인들도 몹시 탐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文씨는 요령있게 기반을 탄탄히 다졌으므로 중국측에서도 그 앞바다의 漁業權은 당연히 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칭따오에서 文씨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였다. 돈을 가마니에 쌓을 정도였다고 제보자들은 표현한다. 그러나 광복을 맞으면서 입어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 괜찮은 돈벌이도 고작 두해 동안에 그친다.

文씨는 칭따오에서 우뭇가사리와 미역을 채취할 때 3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렸다. 사무직원 6명, 현장종사원 4명, 선원 20명 등이었다. 이들도 모두 광복과 더불어 함께 철수했다.

귀국하고서도 文씨는 용골차게 이런저런 사업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진다. 신서란을 키워 로프공장을 경영하기도 했고, 대나무발을 가꾸기도 했다. 하와이 등포한테서 파인애플을 기증받아서 서귀포에서 이의 재배에 선봉선 일도 있다.

어쨌든 제주 해녀의 칭따오 진출은 유다른 뜻을 지닌다. 企劃的, 意圖的 進出이었다는 점에서 여느 海外出稼와는 색다르다.

文씨가 신선한 발상에 따라 일부러 개척한 이상에 그의 인솔로 일제히 나가곤 했으니 만약 그의 進取的 發想이나 果敢한 實行이 없었다면 제주 해녀의 칭따오 진출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한 사람의 기발한 생각이나 意志는 이처럼 큰 자취를 남긴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바는 文의 비범한 關心이다. 여러 사업에 실패했지만, 까무러치지 않고 우

뚝우뚝 일어서며 새 경지를 꿰뚫어 나가는 슬기와 根氣가 예사롭지 않다.

일본이 점령한 중국 앞바다의 入漁權을 획득하겠다는 그 발상도 놀랄거니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그 어정쩡한 고비에 이런 進取的 構想이 實行되었다는 점에서 사람의 願力 實現의 典範을 본다.

제주 여인들의 밭은 동북아시아 일대로 뻗었지만, 이처럼 어장을 일부러 개척하고 入漁權를 당당히 확보해서 出稼한 사례는 칭따오 외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세계적 관제인 제주 해녀의 행동반경은 제주바다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 각 연안과 크고 작은 섬은 물론이요, 일본의 여러 연안과 중국 및 러시아의 바다에까지 멀찌막이 펼쳐진다.

중국의 경우에는 칭따오와 따아롄(大連)이다. 따아롄에도 그저 그곳으로 나가서 불질했을 따름이다.

미역 포자를 바다에 깔고 당당히 入漁權을 획득, 집단인솔에 따른 出稼였다는 점에서 우도면에서 주도했던 칭따오 진출이 지니는 의미는 높이 기릴 만하다.

제4절 龍宮을 다녀온 만행이 할머니

해녀의 불질은 바닷속을 드나드는 이색적인 직업이다. 바닷속 깊이 드나들면서 해산물을 캔다는 점에서 늘 위험이 따른다. 〈해녀노래〉 사설에 드러나듯 그야말로 "七星板을 등에 지고" "저승길을 오락가락"하는 일이다. 실제 물질을 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가끔 드러난다.

따라서 물질에 따른 怪奇談도 갖가지로 전승된다. 〈珊瑚海女〉 얘기나 〈용궁올레〉 얘기도 그런 口碑傳承인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事實이고 어디까지 虛構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 비상한 事實에 근거해서 이모저모로 전승되는 사이에 상당부분 윤색된 채 흥미로운 설화로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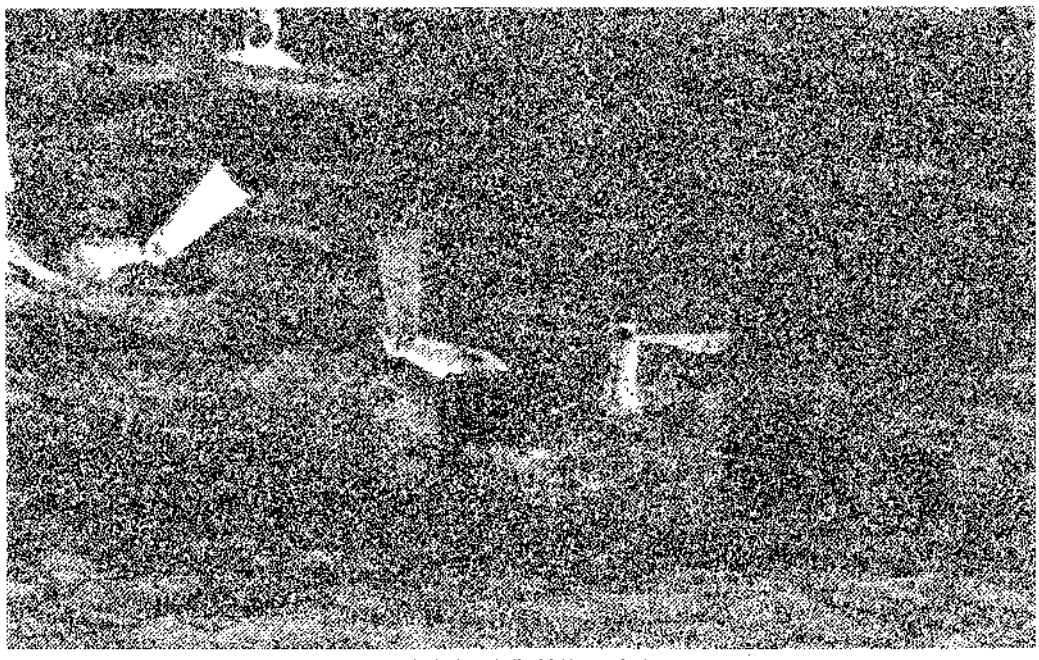
그런데, 1940년쯤에 우도면에서 실제 일어났던 괴상한 이야기가 널리 口傳된다. 西光里 下牛目洞에서 발생했던 기적과 같은 이야기다.

만행이 할머니가 불질하다가 수면으로 솟아오르지 않자, 죽은 줄 알았는데 두

어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머리털이 쥐인 채 살아났다는 신통한 얘기다.

만행이 할머니가 무자맥질했다가 두어 시간만에야 물위로 솟아올랐다는 얘기는 불과 50여년전의 일이므로 실제 목격했던 이들이 살아 있다. 목격했던 이들이 있으므로 부인하지는 못하면서도 이제도 풀 길 없는 수수께끼로 이 얘기가 되풀이 될 때마다 모두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미역을 캐기 시작하는 解警(許採)을 며칠 전에 치른 下牛目洞 바닷가는 온통 미역캐는 해녀들의 인파로 뒤덮였다. 해마다 年中行事처럼 펼쳐지는 미역 解警철의 바닷가는 며칠 동안 미역을 캐는 해녀들과 캔 미역을 져 나르는 사람늑로 온통 술렁인다. 마치 交響樂이 바닷가에 울려퍼지는 情景이다.



해녀가 자맥질하는 광경

그날도 활짝 갠 날씨라 평주바다에 썰물이어서 물질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해녀들은 왈칵 바다로 몰렸다. 한 물거리 물질을 치른 해녀들은 〈불턱〉에 둘러앉아 불을 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만행이 할머니도 함께 끼어들어 우스갯소리를 불쑥불쑥 던지곤 했다.

그러다가 해녀동아리는 일제히 다시 무자맥질하러 바다로 달린다. 호오이호오 이 해녀들의 숨비질소리는 바닷가에 메아리쳤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메역방시리〉에 미역을 그득 채운 해녀들은 줄줄이 바닷가로 몰려나온다. 걸어나오면서도 해녀들은 여느때처럼 왁자지껄 애기꽃이 만발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다들 바닷가로 나왔지만, 만행이 할머니만은 눈에 띄잖는다. 모두 가쁜 숨을 들려쉬고 있을 무렵, 누군가가 버릭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큰일 났수다. 만행이 할망 안 보염싱게"

해녀동아리는 일제히 놀라 일어섰다. 다들 바다를 뚫어지라 살펴봤다. 〈테왁〉만 둥실 떠 있을 뿐, 만행이 할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초조한 시간은 흘러갔고, 일행은 안달복달하면서 술렁대기 시작한다. 한참 시간이 흘러도 할머니는 나타나질 않는다. 이물싸 숨진 게 틀림없구나. 해녀들 모두는 失意에 빠진 채 팽팽한 긴장만이 감돌았다.

뜻밖의 사고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도 파다하게 번져 갔다.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바닷가로 몰려들었다.

해녀 몇은 앞다투어 바닷속으로 무자맥질해 들어갔다. 〈테왁〉만 덩그렇게 떠 있는 물속을 살살이 뒤져 봤으나 할머니는 눈에 띄지 않는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느닷없이 부닥친 사건이라 모두는 얼굴을 마주하면서 어안이 벙벙할 뿐, 어두운 침울만이 바닷가에 내리깔렸다.

망연실색한 채 두어시간쯤 흘렀을까. 다들 만행이 할머니는 숨진 줄 알고 체념하고 있을 때, 이건 무슨 변고일까. 할머니가 물 위로 불쑥 귀신과도 같이 머리를 내미는 게 아닌가. 모두의 눈은 휘둥그렇게 마주칠 뿐이었다.

만행이 할머니임은 이김없으나, 이건 어찜 일로 머리가 빡빡 깎여지지 않았는가. 한참 정신을 가다듬더니 할머니는 천천히 그 경위를 털어 놓는다.

무자맥질해서 전복을 캔다고 열한길 물속쯤 들어가는 것으로 어림되었다. 뭄직한 전복이 눈에 띄었다. 우둥퉁 살찐 전복이었다. 〈빗창〉을 힘껏 캐어내려는데 웬낙 큰 전복이라 대기가 만만찮았다.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온 몸이 저르르 전율하는 순간, 눈앞에는 느닷없이 놋

종지(놋쇠계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놋쇠지는 자기를 따라오도록 할머니에게 시늉한다. 앞장서서 나가는 놋쇠지를 따라가야만 될 듯 느껴져서 그냥 그대로 좇아갔다.

눈앞에는 험칠한 소나무가 드리나고 으리으리한 대문이 나타난다. 웅장한 기와집이 전개되는데, 눈을 부라리며 살펴보니 훌륭한 절이었다. 저절로 함장하게 되고 경건히 배례했다. 어쩌하여 내가 이처럼 엄숙한 절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그 장엄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듯 긴장감마저 일었다.

남 못지 않은 불심으로 이 절 저 절 찾아다니며 불공도 열심히 치르는 할머니였지만, 이런 엄숙한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염주를 굴리는 스님이 와연히 노파를 맞는다. 이곳에 오면 누구든 머리를 깎아야 된다면서 스님은 바싹 노파의 머리를 사정없이 깎았다.

다 깎고나서 스님은

"당신은 이곳에 오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어서 사바세계로 되돌아가서 좀 지내다가 다시 오실 것으로 하시오. 씰골인 지금 서둘러서 돌아가시오."

따스한 스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는 새에 물 위로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불턱〉에 둘러앉아 그 신비스런 경위를 듣는 해녀들과 동네사람들은 신들린 듯 숨을 죽였다.

분명히 노파의 머리는 깎이었고, 목에도 칼금이 나 있었다. 삭발하면 칼이 빗나가서 생긴 상처인 듯 보였다.

이런 신기한 일도 세상에 다 있단 말인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마을로 삽시간에 번져 나갔다.

참 요행히 되살아나기는 했지만, 만행이 할머니는 그 기적같은 일이 있은 이후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았다. 일년반쯤 살다가 이승을 하직했다.

만행이 할머니의 이 기적같은 경험은 동네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영문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겨져서 아무도 밝히지 못한다.

제5절 憂國青年 康寬順이 作詞한 海女歌

해녀들의 찌들고도 억센 삶과 抗日意志가 투철하게 담긴 이른바 〈해녀가〉는 이제도 고령의 해녀들이 진지하게 부른다. 〈해녀가〉를 부를 때의 표정은 늘 싱그럽고 어기차다. 그 가사내용과 부딪치는 실정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가사는 1932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제주 해녀 抗日鬪爭을 은밀히 뒷받침했던 우도면 출신 康寬順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우국청년 康寬順씨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항일투사의 한 사람이다.

이 노래는 특히 牛島面과 舊左邑, 城山邑 일대의 60대 이상의 해녀들 사이에서 부르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그만큼 傳承傳播力이 뿌리 깊다.

어찌하여 이 노래는 牛島面·舊左邑과 城山邑 일대에서 끈덕지게 전승되는 것일까. 그 유명했던 1932년의 항일투쟁과 밀착되기 때문이다.

〈해녀가〉 역시 넓은 뜻으로 보면 민요로서 新民謠라 볼 수 있다. 본격적인 민요라 볼 수는 없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민요에 포괄된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민요는 본디 지은이도 있을 수 없고, 지은 연대도 막연하다. 〈해녀가〉는 牛島面 출신 康寬順씨가 지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가락은 京京行進曲을 차용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민요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노 저으면서 부르는 〈해녀노래〉의 가락이나 숨한 사설을 누가 지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지은이나 지은 연대를 따진다는 것은 본격적인 민요일 경우 사리에 벗어난다.

모든 일노래가 그렇고, 〈행상노래〉 등 의식요가 그렇고, 〈강강술래〉 등 유희무용요나 〈오돌또기〉 따위, 창민요 역시 그 작자나 제작연대는 알 수 없다.

〈해녀가〉를 민요로 보는 견해는 〈목포의 눈물〉 같은 흘러간 옛노래를 민요로 보는 경우처럼 넓은 뜻에서다.

어쨌든 〈해녀가〉의 가능은 폭넓다. 해녀들의 실정을 그 절절한 가사에 투사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확인하는 한편, 싱그럽게 합창하면서 抗日意識을 한껏 드높였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저 물결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 되면 돌아와
우는 아기 젖 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종일 헤엄쳐도 버는 것은 가난해
살자하니 한숨으로 잘 못 이룬다

이른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조선각처 대마도로 본벌이 간다

배움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은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간다
가이없는 우리 해녀 어데로 갈까

이 〈해녀가〉가 1932년 제주 해녀 항일투쟁이 폭발했던, 훨훨 타오르는 抗日의 불길이 아무리 거센 무력에 에워싸였다 하더라도, 그처럼 널리 번지고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전승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중요한 이유로 가사내용이 제주 해녀의 절실한 심정과 심정을 어련히 드러낼 수 있는 점은 우선 들 수 있다.

제1절의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저 바다 저 물결에 시달리는 몸" 이란 표현은 자신들의 실정을 잘 대변해 준다고 믿으면서 아내 공명한다. 놀라운 일이지만 추운 겨울에도 해녀의 물질은 이어진다. 춥든 덥든 물질은 사시사철 치러지며, 비가 오더라도 아랑곳없이 바다밭을 누비는 삶의 실정이 잘 그려졌다. 밭일을 치르면서도 사철 바닷속을 무자맥질해야 사는, 절박한 사정이 잘 드러난 가사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自我正體感을 확인하기도 한다.

제2절에서는 一人三役의 일상적 삶을 어련히 보여 준다. 농사하랴, 물질하랴, 하늘 땅이 맞붙을 만큼 바쁘지만, 밥을 짓고 애를 돌보는 범상한 주부의 직능 또

한 외면할 수 없다. 소득이 낮아 흡족할 수 없는 찌든 삶이지만 이를 감수하면서, 늘 어두워야 "우는 아기 젖 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더욱이나 동북아시아 일대의 바다로 바깥물질을 나서야 하는, 예사롭지 않은 실정이 제3설에는 그려진다.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험하고 먼 바다로 달린다. 실로 제주 해녀의 바다밭은 동북아시아 일대 한반도·일본·중국·러시아로 뻗 트였던 것이다.

해녀들의 搾益과 收益은 무참히 짓밟혔다. 특히 일본인들의 횡포와 착취가 심했으니, 제주 해녀 항일투쟁도 이러하여 촉발되었다. 해녀들의 항의는 직설적이어서 "저놈들이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간다"고 노래한다.

해녀들의 찌든 실정과 抗日意志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른바 〈해녀가〉는 어떻게 습득되었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배워서 이처럼 널리 번지고 관습화하게 불리어지는가.

〈해녀가〉를 잘 부르는 해녀들에게 물으면서 추적해 보았더니, 야학에서 배웠다는 해녀들이 꽤 드러난다. 어디서 배웠다는 말을 발설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야학선생이 은밀히 가르쳐 주더란 말을 흔히 한다.

당시 야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민족의식에 투철했는가 함은 玄基榮씨의 역작 《바람 타는 섬》에서도 잘 그려졌거니와, 抗日意識은 〈해녀가〉의 제4절에 구체적으로 요약되었다. 그러니 은밀히 가르쳐졌을 법하다.

더구나 야학이 성행하던 무렵은 제주 해녀 항일투쟁이 일어났던 1932년 전후한 무렵이니, 〈해녀가〉의 은밀한 학습은 이해될 법하다. 또한 당시의 애국청년세력이 해녀들의 항일투쟁을 극력 뒷받침했으리라 추측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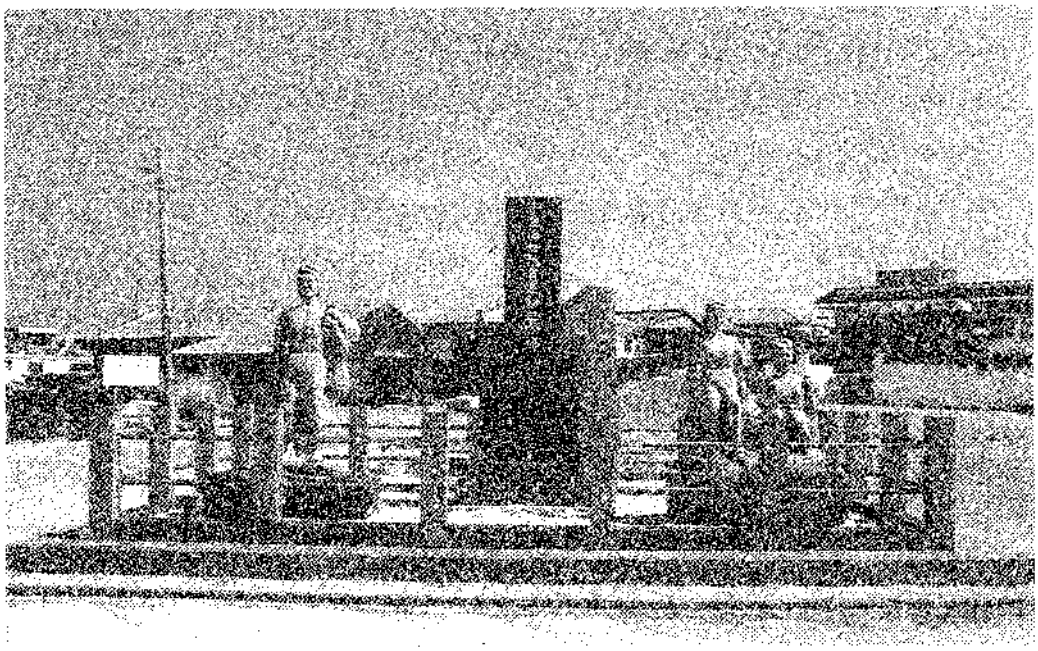
抗日意識에 투철하고 절박한 해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렴히 담겨졌다는 점에서 싱그러운 新民謠로서 아직도 고령의 해녀들 사이에서 〈해녀가〉가 꾸준히 애창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 6 절 海女集團의 抗日鬪爭

1932년 약 3개월에 걸쳐 8원의 불길처럼 제주의 천지를 진동했던 해녀의 항일

운동은 국내 최대의 여성집단의 항일투쟁이면서 국내 최대의 어민봉기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1932년 1월 극렬하게 불타올랐던 해녀들의 항일운동은 약 3개월 동안 연인원이 무려 1만7천여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절규로써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그 뜻이 찬연하다.



우도 해녀 抗日鬪爭기념비

이 역사적 항일운동에 우도면의 해녀들은 대거 참여하여 극렬하게 투쟁했다. 그 자세한 실상을 여기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1932년 1월 12일 해녀어업조합장을 겸임한 田村前意島司가 細化로 들르는 시간에 맞춰 부근 해녀들이 총궐기했을 때 우도면 해녀들도 3백여명이 참여, 결사적인 투쟁을 벌였다.

또한, 1월 26일에는 우도면의 해녀 8백여명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피의자 검거차 우도면에 진너온 경관무리들과 극렬한 항쟁을 벌였다.

이 역사적인 제주 해녀 항일투쟁은 제주도의 어느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舍左邑, 牛島面, 城山邑 일대 여러 마을에서 일어났고, 1932년 연초부터

부려 3개월 이상이나 간절기에 펼쳐진, 대규모의 줄기찬 항거였다.

투쟁의 목표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부당한 해녀 權益 侵害를 분쇄하려는 데 1차적인 뜻을 두었으나, 인간의 尊嚴性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대한 근원적인 항거였다.

또한 이 항쟁은 1월 12일, 細花에서 폭발한 대규모의 시위만을 부각하기 쉽지만, 그날이 해녀어업조합에서 지정한 패류지정판매일이었고, 新任 田口島司가 마침 그곳에 들르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잇따라 細花로 몰려간 것도 순사주재소가 細花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해녀항쟁은 제주 동부 여러 마을 해녀공동체의 줄기찬 투쟁이었으므로 '세화리 해녀사건'이라기보다는 '濟州海女 抗日鬪爭' '濟州海女 抗日運動' 등으로 호칭하는 게 어떨까.

1932년 연초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연인원 1만7천여명이 어기차게 抗日의 횃불을 치켜 올렸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해녀의 權益이 일제에 의하여 짓밟히는 데 따른 항거였다. 그들의 抗日鬪爭은 生存과 自尊意識에 기초를 둔다. 다시 말해서 사람답게 살아남기 위한 인간 본연의 항거였다.

그 收奪은 1920년 4월 16일에 창립된 濟州島海女組合을 통해서 더욱 적나라하게 자행되었다. 당초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제주 해녀들의 權益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였다.

해산물의 수요가 점차 넓혀져 가자, 제주 해녀의 행동반경도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동북아시아 일대로 넓혀져 갔다. 해녀들의 수입이 불어나면서 客主나 雇岩主의 착취는 제주 해녀들이 어디든 꽁무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관청에서도 해녀들의 권익을 위하여 조합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드디어 1920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결성될 당시 한동안은 해녀들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한 바도 적잖았다. 예를 들면 해산물의 공동판매를 실시함으로써 客主의 중간착취를 방지했던 일 따위다.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한국의 모든 어업조합 가운데 최대규모로 커 갔으나

1924년을 기준한다면 조합원수는 5천9백32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의 어업조합으로 커 갔으나,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1925년을 고비로 해서 점차 御用化의 길로 들어섰다. 곧, 불행하게도 濟州島司가 해녀어업조합 장직을 겸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녀들이 목숨 바쳐 캐어들인 해산물이 이래저래 착취의 대상이 되는 점은 고쳐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향을 떠나고 낯선 타향에 出稼, 신명을 바쳐 채취한 해산물 대금의 8할을 가다가 뜯기도 했다.

곧 제주 해녀들이 出稼地에서 캔 해산물은 반드시 조선해조회사를 거쳐서 판매되었기 때문에 수입의 5할은 그 해조회사에 수수료로서 뜯기었다.

또한 해녀어업조합에서 1.8할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했다. 그 밖에 組合費네, 선주의 賃金이네, 소개인 謝禮費네, 그러저럭 뜯기다가 보면 해녀의 實收入은 이따금 배상고의 2할밖에 되지 않았음은 주목할 만하다.

제주 해녀의 동남아 진출은 놀라울 만한 島民大移動이었다. 그 가운데도 우도면 해녀의 진출이 압도적이었으니, 그 收奪의 괴해 역시 측량할 길 없이 육중했으리라 본다.

1910년대로 치올라가더라도 우도면의 해녀 出稼는 우선 그 수효에서부터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石宙現의 《濟州島隨筆》(202면)에서도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 곧 "1915년경의 出稼海女의 數"라는 항목으로 "約 2천5백명인데 出稼地別로는 慶南에 1천7백명, 全南 多島海方面에 3백명, 其他에 5백명이고, 其出稼地로는 牛島의 約 4백명을 필두로 終達里, 舍源里, 法還里, 爲美里 등의 約 1백명씩과 其他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牛島의 約 4백명을 필두로"란 대목이니, 1910년대에 한 지역에서 4백명의 해녀가 전국 각처로 出稼했음은 주목되며, 실한 해녀가 상당히 착취되었으리라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어쨌든 島司가 조합장을 겸임한 해녀어업조합은 날이 갈수록 그 내부도 부패해 갔다. 해녀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출범한 조합이었으나 어기찬 生業戰士인 해녀들을 옹호하기는커녕, 되려 착취기관으로 전락해 갔다.

그리하여 慶南道 下道로에서 1931년 여름부터 해산물 買收價格을 둘러싼 분

생이 일어났으며, 1932년 연초 3개월 동안 대대적인 抗日鬪爭으로 이어진다.

買收價格의 부당성은 이른바 '先口錢販賣制'였다. 해녀어업조합에서는 은밀히 일본으로커늘과 결탁해서 指定商人을 설정하고, 바닷속에서 자라는 해산물을 지정 상인들에게 사전에 口錢入札시킨다. 곧 口錢이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지정판매권이 주어진다. 口錢이란 조합에 대한 수수료, 곧 뇌물의 액수다.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하는 그 액수가 해산물 가격으로 둔갑하는, 비인간적 농락이 생업현장을 멋대로 더럽혔다. 조합과 야합한 상인들의 착취에 격분한 해녀들의 수효는 이웃마을로 번져갔고, 새해 곧 1932년 1월 7일 下道 해녀들 중심의 집단항의가 細花 오일장에서 일어났다.

머리에는 〈불수건〉을 두르고, 그 위에 〈눈〉을 쓰고, 〈정게호미〉와 〈빗창〉을 손에손에 들고 구름떼처럼 행진해 나갔던 것이다.

해녀어업조합지부장은 面長이 겸임했었고, 康井七면장은 신임도사 겸 해녀조합장 田口禎熹가 1월 12일 방문했을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 겨우 무마하였다.

1932년 1월 12일, 제주 해녀의 역사적인 항일봉기는 드디어 대규모로 감행되었다. 우도면의 해녀들도 3백여명이 몰려왔다.

이 날은 해녀어업조합이 지정한 패류의 지정판매일이었다. 우도면에서는 물론, 여러 이웃마을에서 細花로 몰려들어 운분을 터뜨리게 된다. 이 날은 新任島司 田口禎熹가 시찰차 그곳에 들르기로 약속된 날이기도 했다.

해녀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細花 오일장터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細花, 牛島, 下道, 終達, 吾照 등 여러 마을의 해녀들이 꾸역꾸역 몰려왔다.

드디어 田口禎熹島司를 태운 차가 나타나자, 삽시간에 군중들은 그 차를 에워쌌다. 당혹해진 田口島司는 경찰관들을 앞세우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쳤지만, 막무가내였다.

오일장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해녀대표 몇몇은 신랄한 연설을 토했다. 한결같이 해녀어업조합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였다.

1 입찰의 指定販賣를 절대 반대한다.

1. 일체의 계약보증금은 생산지가 보관하도록 하라.
1. 미성년자와 40세 이상의 해녀들에게는 해녀조합비를 면제하라.
1. 질병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입어할 수 없는 해녀들에게는 조합비를 면제하라.
1. 出稼證은 무료로 교부하라.
1. 總代는 마을별로 공명정대하게 선출돼야 한다.
1. 조합의 재정을 공개하라.
1. 상인과 결탁하는 弁出書記官을 즉각 파면하라.

해녀들의 정당한 요구조건은 해녀집단의 결대적인 공명을 불러일으켰을 뿐더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함께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었다.

일제는 1월 24일 새벽 民衆運動協議會라는 단체의 멤버 29명을 검거하기에 이른다. 이 소식을 들은 수백명의 해녀들은 즉각 압송하는 차를 습격, 파괴하고 경찰관주재소로 몰려가서 강력히 석방을 요청, 시위했다.

곧, 1월 24일, 細花에서 5백여명이 운집, 주재소를 습격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다.

곧 1월 24일 아침, 舊左邑 해녀 5백여명이 세화리 순사주재소를 습격, 건물을 파괴하고 경관과 격심한 충돌을 일으켰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제주 각처의 경관을 총소집하고 전남경찰부로부터 32명의 경관이 제주도로 급파된다.

1932년 1월 26일자 東亞日報의 기사를 보면 1월 24일의 해녀의 항일투쟁이 얼마나 극렬했던가를 짐작케 한다.

"五百餘名 海女團 駐在所를 大擧襲擊"이란 표제 및 "警官隊와 衝突, 事態는 險惡 : 雙方에 負傷者까지 내이게 된 모양 : 昨夜 濟州島에서 突發 : 突發의 動機는 二十餘名 檢擧로"란 副題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맞춤법은 수정)

二十四일 아침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濟州島 舊左面 細花里) 해녀 五백여명이 세화리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 건물을 파괴하고 경관과 충돌하여 경관에 부상자 一명이 나고 순사의 모자를 빼앗고 재복을 찢고, 해녀측에도 부상자가 생기는 등, 사태가 험악하여지므로 제주 각처의 경관을 총소집하고 다시 전라남도에 급보하여 전남경찰부로부터 경부보 이하 三十二명의 경관을 二十四일 밤 十一시 목포(木浦)발 경비선 금강환(金剛丸)으로 제주도에 급파하였다.

사건의 원인은 지난 十二일 이래 구좌면 정의면(旌義面)의 해녀 천여명이 해녀조합에 대한 반항으로 시위적 행동을 하며 신임 도사(島司)의 시찰을 기회로 그를 포위하고 폭행을 행한 이래 지금까지 불온한 상태에 있어 경찰이 그날 즉 二十四일 아침에 주모자로 인정되는 해녀 二十여명을 검거하자 해녀들이 이에 격분하여 피검자를 빼앗으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아직 미상이다.

1월 26일에는 우도면의 해녀 8백여명이 적렬하게 벌떼처럼 일어나 경관과 충돌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다. 8백여명의 해녀가 항거했다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를 어내 짐작케 한다. 우도면의 모든 여성들은 빠짐없이 그야말로 총궐기했던 抗日鬪爭이었다.

東亞日報 1932년 1월 28일자의 보도에 따르건대, "三十餘名 檢擧護送中 : 海女團 警官隊 包圍 : 事態險惡으로 嚴重警戒中 : 空砲發射로 一部 鎭壓 ..." 라는 표제로 우도 해녀들의 대대적인 봉기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濟州島 舊左面 細花里)와 그 부근 해녀들이 세화리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여 경찰관과 충돌한 이래, 사태는 여전히 험악하다니 二十六일 새벽 세시경에 경찰관 四十여명이 우도(牛島)에 파견한 해녀 三十여명을 체포하여 우도 선창에서 배에 태워 제주본도로 압송하려 할 즈음에, 해녀 八백여명이 대거 경관대를 포위하고 잡혀가는 해녀를 빼앗으려 하여 다시 충돌, 경관대는 공포 十四발을 발포하여 간신히 진압하였다. 그러나 사태는 그냥 험악하므로 엄중 경계중이라 한다.

해녀 8백여명이 자그만 섬 우도에서 벌떼처럼 일어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8백여명이나 봉기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우도에 파견한 해녀 30여명을 체포하려는 日警의 행위를 강력히 저지하려는 데 그쳤던 것일까.

신문기사는 간단히 기술되었지만, 8백여명이나 맹렬히 봉기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抗日鬪爭이 우도에서도 벌어졌으리라 추측된다. 봉기한 인원수가 엄청날 뿐더러, 며칠 동안 울분에 찬 해녀들의 폭발이 잇따랐다는 분위기로 보아서 우도에서의 항쟁도 엄청났으리라 본다.

그 이틀 전 세화리에서 봉기한 해녀수는 5백여명이라는데 우도에서는 8백여명이다. 그 실상을 밝히는 일은 중요한 숙제로 남는다.

사태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진다. 우도에서 대대적인 항거가 일어났던 다음날, 곧 1월 27일에도 해녀들이 벌떼같이 세화리 주재소로 몰려드는 사건이 벌어진다.

"犯人 奪還코자 駐在所에 또 殺到 : 해녀단은 경관에게 저지되어 : 濟州海女事件 險惡"(東亞日報, 1932. 1.29)이란 표제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 제주도 해녀 소요사건은 작보와 같아 우도(牛島)에서 공포(空砲) 발사로 八백여명 해녀를 진압하였으나, 그후 이련에서 선동한 혐의로 체포한 민중협의회원(民衆協議會員) 四十명을 체포하자 해녀들은 그후 연속적으로 피체된 혐의자 탈환운동을 하다가 二十七일 오후 七시경에도 약 백명이 세화리(細花里)주재소에 쇄도하였다가 경관에게 저지되었다.

어차피 얼기설기 얽힌 이 해녀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및 결말을 총정리하는 일이란 모든 기록과 구전되는 체험담을 폭넓게 수합, 정리해야 하므로 지난하고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결국 이 운동으로 78명(남 43명, 여 35명)이 검거되었다. 검거된 해녀들 가운데 주동자격인 夫春花·夫德良·金玉蓮 세분을 빼고는 3월 3일에 모두 석방된다. (朝鮮日報 1932. 3. 4~5. 每日新報 1932. 3. 5)

배후조종자로 검거된 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형이 확정된 자의 명단과 확정된 형은 다음과 같다. (藤永莊 : "1932년 濟州島海女のたたかい", 109면)

〔演坪里〕 康寬順(2년 6개월) 申才弘(5년) 金奎五(2년 6개월)
〔下道里〕 吳文奎(3년 6개월)
〔細花里〕 金時坤(2년 6개월) 文道培(3년)
〔終達里〕 韓榮澤(無罪) 韓遠澤(1년) 韓春澤(2년·執行猶豫 4년)
高仕萬(1년) 蔡載厚(10개월)

따라서 1932년의 해녀항쟁은 전국 최대규모의 어민운동임과 동시에,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대대적인 여성집단의 抗日運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자그만 섬 우도면에서의 항거가 극렬했다는 점에 유념할 때 철저한 조사 연구가 절실하다.











제6편 敎育과 行政

제 1 장 解放以前의 敎育

제 1 절 敎學의 胎動

조정에서는 조선조말 憲宗 8년(1842)에 牛島와 加波島에 入耕 허가를 내리니 사람들이 들어와 취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母島에서 들어온 流移民들은 入住 초기에는 생계를 위한 생산활동에 온 정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에 敎學이라든가, 文化라든가 하는 문제는 소홀한 상태였었다. 다만, 進士 金錫麟이 1844년에 入住 정착함으로써 이 섬에 비로소 訓學을 개설하게 되었다. 金進士의 학식과 덕망에 영향을 받은 流移民들은 차츰 후생을 위한 敎學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입주자 중에서 漢文실력을 갖춘 인사에게 의뢰하여 千字文, 小學, 童蒙先習 등 기초 한문을 숙달시켰다. 시간이 흘러 流移民들의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자녀들에 대한 훈학이 절실해져 지역 유지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훈학을 요구하게 되었다. 1900년에 접어들어 母島 사람으로서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訓長을 초빙하게 되었다. 金錫麟은 初試에 합격, 進士가 되고 서울의 申判官 딸과의 戀情이 있어 그 여인에게 胎氣가 있자 大科를 포기하고 落鄕하였는데 이미 濟州성 밖 東光陽에는 처자가 있었다. 마침 그 무렵인 1842년에 牛島起耕을 조정에서 허가하자 1844년 金進士는 申氏夫人과 함께 牛島에 들어와 이 곳을 개척하며 훈학에 힘썼다. 淡水契編 「玩羅誌」에 "金錫麟은 濟州城內人이나 純祖朝에 進士에 的中하다"라고 써 있다.

李源祚목사는 이 섬에 처음으로 入耕허가를 내리면서 流移民들로 하여금 농산물과 해산물에서 얻은 수입금 중 일부는 세금으로 司僕寺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耽羅紀年」에 보면 "今民入懇納稅于司僕寺"라 쓰여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이 때 進士 金錫麟은 이 섬 안에서 가장 유력한 지식으로서 稅弊라는 민폐에서 오는 어려움을 알아 牛島民의 편에 서서 이를 감면하여 주는 등 牛島民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였음을 「遺愛碑」를 통하여 알 수 있다.

金進士가 타계한 후 주민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入島起耕 六〇週年, 즉 回甲이 되는 고종 6년 壬寅(1902) 4월에 牛島의 중앙지 동산에 「金進士遺愛碑」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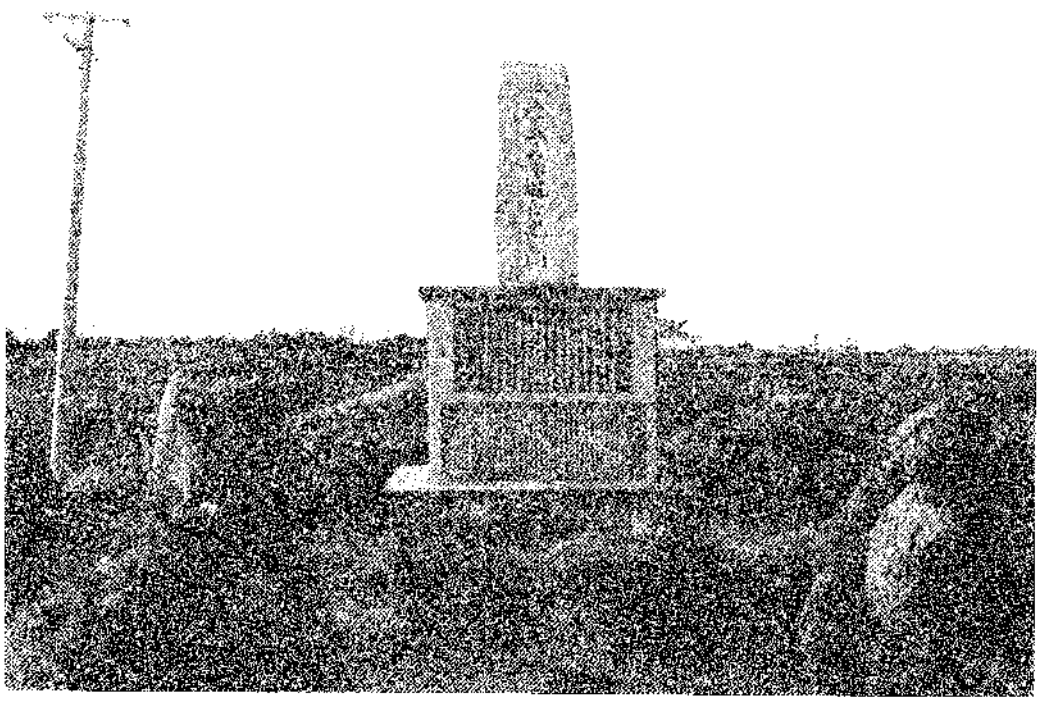


金進士 遺愛碑

건립하여 그를 추념하였다. 과거 매년 실시하여 마을祭를 거행할 때에는 이 遺愛碑 앞에서 온 도민들이 참배하여 그를 숭모하여 온 것이다. 筆者가 수년전 이 비문을 확인한 결과 碑는 두 동강이로 파손되어 原文 5·6字가 애매하여 필자 나름대로 글자를 추정하여 다음과 같이 글 내용을 재현하여 보았다. "進士金公錫麟遺愛碑 緊蒙休息 千秋不朽 惻隱民瘼 減給稅厚 壬寅四月日」 흔히 故人이

仁愛와 遺德을 기리기 위하여 세우는 비석을 遺愛碑라고 한다. 이 비문의 뜻은 "님에게 힘입은 일, 숨소리 그친 듯하나 千秋에 길이 빛나리, 아픈 民弊로 실의에 찬 백성에게 덕한 세금을 감하도록 애썼으니"

어떻든 牛島에 있어서 金進士의 역할은 대단했을 것이며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이 그의 영향과 언행에 좌우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哲宗이 승하하기 전년인 철종 13년 壬戌(1862)은 起耕허가가 내린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해는 三政(田政, 軍政, 糧政)의 문란으로 국내 정치는 더욱 혼란해져 晋州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곧 三南 전지역으로 파급되고 濟州에도 민란이 발생하였다. 이를 壬戌亂 혹은 姜悌儉亂이라고 한다. 大靜人 姜悌儉 金興宋 등이 민란을 일으키자 행정은 극도로 문란하여 민폐가 커 이를 기피하기 위해 流移民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孝子 高達仁의 碑

이 민란이 있은 지 2년 후인 고종 3년(1864)에는 濟州가 大風雨로 흉년이 들

어 牛島로 입주하는 가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규모있는 취락이 형성되었다. 한편, 流移民의 안정된 생활로 정착되고 취락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流移民 二世에 대한 교육열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1900년에 이르러 牛島 사람으로서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훈장을 초빙하게 되었다. 旌義縣 현청소재지인 城邑 출신으로 훈학하던 漢學者 吳完哲을 초빙하여 후대하고 經典 강술을 의뢰하여 수준높은 敎學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1901년 牛島의 부락명을 「演坪」이라고 명명한 것도 바로 吳完哲이며 1902년에 건립할 「進士金公錫麟遺愛碑」의 문장도 吳訓長의 솜씨로 보아 틀림이 없다. 훈장 吳完哲이 敎學에 힘쓴 결과 牛島民의 성품이 순화되고 교양이 풍부해져 가정과 사회윤리가 점차 확립되었다. 이 무렵 조정에서 孝子 高達仁에게 完文을 내리어 현양된 일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高達仁은 演坪里 59번지에서 高宗辰의 장남으로 태어나 남달리 孝行을 실천, 광무 9년(1905)에 孝子 完文과 專令이 내려졌는데 孝子碑로 "돈농산"에 세워졌다.

제 2 절 永明義塾의 敎學活動

1910년 日帝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었으나 牛島의 주민들은 자녀의 교육활동에 손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된 牛島 개척자, 즉 流移民들은 이미 故人이 되었고 다만 二世, 三世들이 의젓한 家長으로서 三世, 四世들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三·四世에 이르러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이룩되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몇몇 유지들이 글방을 만들어 傳來의 방법으로 在來式 漢文書堂에서 한문 및 습자 학습을 익혀 왔다.

그러나 고루한 서당교육을 가지고는 발전하고 변화해 가는 時代的인 추세와 근대화된 지식을 수용하기에는 미흡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관계로 近代化된 新敎育의 필요성을 절실히 갈망하게 되고 또한 漢文교육은 점차 쇠퇴하게 되어 在來式 서당교육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되었다. 日

帝가 1918년 書堂規則을 공포함에 따라 改良書堂 혹은 改良私塾이란 명칭으로 종래의 漢文 및 諺字를 비롯하여 國語(日本語) 算術 등을 추가하여 신식공부를 가르쳤었다.

日帝에 의해 書堂規則이 공포됨에 따라 牛島의 유지들은 즉각 새로운 改良서당의 설립을 서두르게 되어 당시 개량서당 설립은 濟州島司에게 신고하여 개설허가가 내려오면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舊左面誌」와 기타 자료에 보면 "演坪 永明書堂은 1918년 설립, 下牛日洞 都家집에서 개설되었으나 塾長은 未詳이다"라고 밝혀져 있다. 이로써 1918년 5월 10일 上牛目洞의 부락 공회당을 이용하여 永明義塾이 개설되고 初代塾長은 上古水洞 태생인 卞寬仲이며 그의 명의로 濟州島司에게 신고하여 허가장을 받은 것이다. 이 義塾이 개량서당으로서 牛島에 처음 개설된 신식 교육기관인데 후일 이 지역의 초등학교 개설의 母胎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숙장 卞寬仲은 일본사람인 사또(佐藤)라는 교사를 초빙하여 日本語를 가르치려고 하였다. 그 당시 개량 어로법을 도입하려면 塾生들로 하여금 日語를 익혀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부임한 佐藤교사는 우리의 말과 글을 전혀 알지 못한 관계로 어린 塾生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수모만 당하고 떠났다. 그러나 義塾 초창기에 역임한 교사 金應斗, 金炳勳, 金智昊 등은 당대 유명한 제주의 선각자들이며 民族주의자들이어서 塾生들이 이들로부터 받은 영향은 지대하였다. 뒷날 牛島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과 또 海女의 抗日운동에 앞장선 牛島의 저항인사들도 모두 永明義塾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시 교사 金應斗는 濟州城內 龍潭 태생으로 「제주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진 명사이다. 2년간 재임한 후 제주성내에 개설한 私立明新학교 초대교장에 취임하여 맹활약한 바 있다. 그의 뒤를 이어 부임한 金炳勳, 金智昊 양인은 모두 朝天리 출신으로 철저한 排日派 인물이었다. 이 때에 배출된 塾生들은 高漢權, 金仁秀, 李大奎, 康寬順, 宋仁錫(表善人), 高元瀚, 金允玉, 姜太淑 등이다. 더구나 同興洞의 姜太淑은 앞으로의 세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女兒들의 입학을 역설하였으니 이로써 일부 여자들이 修學했으나 잠수질을 시키려는 부모의 이해 부족으로 중퇴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1926년 6월 朝鮮總督府令에 의해 이미 공포한 「書堂規則」을 개정하여 서당은 그들의 지도 감독이란 명목으로 더욱 악랄하게 규제하였다. 그 개정요지는 종전 島司에게 신고 제출만으로 서당의 개설이 가능했으나 1929년부터 道知事의 감독하에 규제하도록 되어 매우 까다로운 상태였다. 아울러 총독부에서 발행한 日語와 算術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적당한 방법으로 일본의 國民道德 교과인 修身까지 가르치도록 강요당하였다.

1932년 접어들어 全羅南道 道知事의 통첩으로 인하여 초등교원으로 하여금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校下의 서당을 시찰 지도함과 동시에 「忠良한 日本國民」, 소위 皇民化교육을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무렵은 1面1校란 제도에 따라 舊左面에는 오직 金寧에 있는 舊左公立普通學校만이 있어서 이 학교의 敎員이 가끔 牛島에까지 와서 永明義塾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였다.

그러므로 1918년 濟州島司에게 신고하여 永明義塾을 개설한 후 1928년까지 10년간을 永明의 전반기로 한다면 1929년 전라남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1938년 演坪私立尋常小학교가 개교되기 직전까지 10년간을 永明의 후반기로 보는 것이 옳겠다. 1929년 永明의숙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증축하고 校勢를 확장하는 데는 독지가 金允玉의 공로가 절대적이었다. 牛島의 三陽洞 태생인 金允玉은 永明의숙 초기의 塾生으로서 스승 金應弼의 교훈에 감화되어 성장 후 많은 私財를 내놓아 牛島의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上牛日洞 태생 金海日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같이 好事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日帝로부터 탄압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1931년 9월 31일자 「朝鮮日報」의 "濟州경찰이 2개 學院 폐쇄, 주민측에서 非難"이란 제목하의 기사를 옮겨 보기로 한다.

舊左邑 演坪里는 제주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나 戶數가 450여호이며 인구가 2천여나 된다. 해마다 학령아동이 1백여 명이 넘는 현상으로 在來의 永明義塾이란 유일한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을 때까지는 그들을 수용하기에 문제가 아니어서 아동교육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나 이 유일한 교육기관인 永明의숙이 里民들의 피와인 열성으로 근근히 신축한 70여평의 校舍가 재작년 5월 비바람에 애처로이 도괴되어 버리고 그에 덮쳐 이 永明義塾을 중심으로 한 1·2派의 구역적 쟁투가 몇 악질분자의

책동으로 궐기되어 장구한 시일을 끌었다. 이에 기인하여 그 존재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자 母校를 잃은 천진한 아동들이 배울 길을 잃어 눈물을 머금고 도로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이를 개탄하는 學父兄들은 앞으로 다시 통일적 교육기관이 부흥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단 하루라도 사랑하는 子女를 놀리지 않으려고 부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本里 下洞에 下洞學院이 설립되었고 뒤이어 下牛目洞學院 등이 설립되어 두 해 동안이나 교수를 계속해 왔다. 지난 8월중에 城山浦경찰관주재소에서 本里 區長과 敎員으로 하여금 속히 인가를 받으라는 공문이 왔으므로 前記 下洞학원에서는 즉시 교원 高元瀚을 특파하여 소관 면사원에 인가원을 제출하고 신학기인 제2학기의 교수를 진행중이었다.

지난 9월 21일에는 돌연 城山浦경찰관주재소의 경찰관 전원이 총동원 당지에 출장하여 전기 2개 學院의 敎員들을 소환하여 認可가 날 때까지 절대로 못한다고 폐쇄를 엄명하고 떠났다. 다시 배울 기회를 잃은 수백명의 아동이 영문도 모르고 落望의 표정으로 街路를 방황하는 꼴은 뜻있는 인사로서는 참지 못할 현상이었다.

이에 학부형들과 사회측에서도 벌써 허가원을 제출하였으니 앞으로 곧 허가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다. 설령 허가가 없더라도 演邦리의 일반정세와 섬이라는 지역관계로 특히 부근 학교에도 통학할 수 없는 교통관계 등을 참작하여 默許라도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단호한 조처를 하는 것은 적어도 교육장려를 표방하는 당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 하여 불평과 비난이 자못 높다고 한다.

이러한 기사내용으로 보아 당시 日帝가 얼마나 교육활동에 대해 관여하고 주민위에서 군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29년 「書堂規則」이 개정되어 서당교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濟州島內의 서당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朝鮮총독부의 자료 제29집 「生活實態調査 濟州島」를 살펴보면 全南 도지사로부터 새로 인가된 義塾은 25개에 불과하였다. 보통 1개 의숙에 교원이 1명 내지 2명인데 오직 永明의숙만은 교원이 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당시 학생수는 50명 이상인 義塾이 13개교로서 과반수가 되며, 100명의 생도가 있는 곳은 新進의숙과 以文의숙이고 120명이 재학하는 普成의숙과 普昌의숙이 있었다. 牛島의 永明의숙은 100名이나 되어 가장 많은 생도수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濟州에서 가장 규모가 큰 義塾이었다.

당시 학습교과는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 및 漢文, 算術, 博物, 作文, 地理, 歷史, 音樂, 體操 등을 4년 과정으로 수학하였다. 塾生들이 학력수준에 따라 甲班, 乙班, 內班, 丁班 등 4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교사 4명이 분담 학습 지도에 임하였다. 학부모들의 의숙에 대한 물심양면의 후원도 대단하였으며 아울러 재직하는 敎員에 대한 존경과 우대는 타지방보다 좋은 조건이었다. 그런 관계로 우수하고 능력있는 교사를 초빙할 수가 있었다.

이 永明의숙의 교사를 역임한 인사로는 細花리의 金浩奎, 牛日洞의 金南錫, 漢東리의 朴性周, 周興洞의 高漢禧, 錢屹洞의 康竟順, 東大津洞의 申才弘, 西大津洞의 高泰林, 飛揚洞의 孔順根, 牛島출신 金太權, 高元瀚, 姜必柱, 禹才權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임하여 塾生들의 훈도에 열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1938년 私立演坪尋常小학교가 설립 인가되자 일부 교원은 소학교 교사로 재임용되어 이 지방 교육에 기여하였다.



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기념비들은 우도 선인들의 교육열을 반영해 주고 있다.

永明義塾은 上·下牛目洞 중간지점에 임시 校舍로 草家二間을 마련해 1915년 개설되었다. 당시 의숙 개설에 따른 篤志家로서 金備保, 金文善, 高在俊,

尹寬仲, 李大奎, 李士奎, 金熙錫, 金基鈞 등을 들 수가 있다.

초창기 시절에 在任한 교사는 金應斗, 金炳勳, 金智昊, 金浩圭 등이 1919년까지 근무했다. 다음 1921년부터 1929년까지의 申才弘, 1922년에 1년간 재임한 康現斗, 1923년부터 1927년까지의 吳文卿, 1923년에 1년간 재임한 玄昌浩 등이 있었다. 1924년 私立尋常小학교 인가 신청에 필요한 校舍 신축을 착공하였으나 認可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 해에 재임한 金俊煥은 후일 滿洲의 間島로 건너가 龍井 大成中學을 졸업하고 中國 共産革命에 가담했다.

1925년 교실이 완공되었으나 普通학교의 인가가 나오지 않았다. 이 때의 교사로는 康寬順, 金聲五, 尹德寶, 金太權 등이고 이들은 이듬해 사임하고 떠나니 후임으로 吳文卿, 高元瀚 등이 부임했다.

이 무렵 申才弘의 부인 張永禮(제주성내 사람)가 여교사로 재임한 일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1928년 이 때의 마지막 졸업 塾生은 모두 13명인데 이 가운데 金萬衡, 梁奉倫, 高性革 등 3명은 私立下道보통학교에 편입한 후 6년 과정의 초등교육을 마쳤다.

이 증언에서, 永明의숙의 처음 개설시기에 관한 언급에 대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자료에는 모두 1918년 처음 開設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증언으로 보아 1915년 개설시는 無認可 상태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1918년 「書堂規則」이 개정되자 正式認可를 받아 운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 3 절 私立演坪尋常小學校

日帝는 그들의 떠들고 주장하는 이른바 「新東亞의 건설」이니 「皇國臣民의 육성」이니 하면서 전시체제에 부합한 교육정책을 편치며 주민에게 강요하였다. 이를 강행하기 위하여 1938년 3월 조선총독부에서는 「제3차 朝鮮敎育令」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교육령 제1조를 보면 "小學校는 국민도덕의 함양과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忠良한 皇國臣民을 육성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학교의 성격을 주렷이 밝혔다. 제2조에는 "소학교는 尋常소학교와

高等소학교로 나눈다."로 되어 있다. 이로써 牛島에는 永明의숙을 모태로 하여 비로소 정규학교로서의 인가 신청을 제출한 바 1938년 4월 16일 私立演坪尋常小학교가 개설 허가를 받게 되었다. 즉 演坪리 1402번지 지금 국민학교 자리에서 개교를 보게 된 것이다.

日帝下인 1939년 濟州島廳에서 발간한 「島勢要覽」에 의하면 "私立演坪심상소학교는 昭和13년(註 : 1938) 4월 16일 인가되고 수업연한은 4년이며 학급수도 4, 교원도 4명이었다. 아동은 남자 212명이고 여자는 13명 도합 225명이었다."고 밝혀져 있다.

이 牛島에 私立심상소학교가 개설되던 1938년 舊左面 관내의 초등교육기관은 타읍면보다 量的인 면에서 우세하였으며 교육활동도 활발하였다. 他邑面에서는 公立小學校가 1개교이며 私立小학교는 1개교가 있을까 말까 하는 상태이었다. 그런데 舊左面에 있어서는 1923년 7월에 설립된 私立下道校와 公立舊左校(현 김녕교), 그리고 1924년 11월에 杏源의 普明義塾과 月汀의 永信의숙을 합병하여 私立中央校(현 구좌중앙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또 1938년 5월에 公立細花校가 설립되고 동년 2월에는 2년제인 松堂簡易학교가 설립을 보게 된 것이다.

이 演坪尋常小학교는 당시 舊左面長이었던 全仁洪이 설립 책임자가 되고 永明의숙의 교원이었던 향리출신 高泰柱, 高元瀚 등을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이 학교의 초창기 기반을 공고하게 확립하였다. 1938년 9월 23일 高泰柱를 교장사무취급으로 발령하여 운영하다가 1939년 4월 14일에 翰林面 今岳 출신 姜上珪를 정식교장으로 초빙하니 학교의 교육체제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姜교장이 3년여 동안 재임하고 전출함에 따라 高泰柱가 제2대 교장으로 1941년 6월 30일 부임하여 4년여 근무 중 조국광복이란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永明義塾이 발전적으로 尋常小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의숙에 재학하던 甲班의 塾生 54명은 小학교 4학년으로 입학을 시킨 후 1939년 3월 25일 제1회 졸업생 51명을 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尋常小학교는 修業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으나 당분간 4년으로 존속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4회 졸업생(1942년 3월 25일)까지는 4학년으로 학업을 마치게 되어 있었다. 1942년 4월 6년제로 승격됨에 따라 제5회 졸업생부터는 6년간을 통하여 학업을 마치게 되었다.

이 때의 학습 교과는 修身, 國語(日本語), 算術, 國史(日本史), 地理, 理科, 職業, 圖畫, 手工, 唱歌, 體操 등이며 여자 생도를 위하여 家事 裁縫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女先生의 不在로 가르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日帝는 해가 거듭할수록 日本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內鮮一體의 교육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국어(日本語)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日本정신의 체득을 꾀하고 皇國臣民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이른바 皇國臣民化를 위한 교육전략이 한국인을 日本人化하고 또 전쟁수행을 위해 식민지정책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였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할 즈음에 日帝의 皇國臣民化의 정책에 의한 민족말살 정책은 한국인의 성명을 없애고 日本式인 姓과 이름을 짓도록 하는 創氏改名이 1940년 강압으로 시행되었다. 그래서 演坪校에서도 高선생, 金선생하고 부르던 것은 岡本(오까모도)교장, 高本(다까모도)선생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모든 생도들도 이런 식으로 姓名을 바꾸어 日本人이 되게 하였으나 겉으로는 일본 사람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속에는 배달겨레의 魂이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永明義塾이나 演坪심상소학교 혹은 母島의 초등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牛島 출신 아동들은 당시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인 濟州公立農業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일부 학생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퇴되거나 육지부로 전학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濟農을 졸업한 인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1921년 졸업생 高漢權, 1922년 졸업한 金仁秀, 高元瀚, 1924년 졸업한 康寬順, 1925년 졸업한 金允鎭, 1926년 졸업한 李斗玉, 高泰柱, 1940년 졸업한 高雲昌, 1943년 졸업한 洪吉三 등을 들 수 있다.

제 4 절 演坪국민학교

1941년 3월 私立演坪심상소학교란 校名이 私立演坪국민학교로 변경되고 또 2년이 지나서 1943년 3월에 公立演坪국민학교로 설립 주체가 변경되었다. 실은 朝鮮총독부의 제4차 改定敎育令에 의거 小學校令을 國民學校令으로 바꾸어져

모든 小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라고 개정하였다.

그들의 이른바 大東亞전쟁, 즉 太平洋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日帝는 최후의 수단으로 「교육에 관한 戰時非常措置令」을 공포하였고, 학교 교육은 초긴장 상태로 돌입되고 숨막히는 계절이 다가오게 되었다. 일제는 1944년 戰勢가 불리해지자 동년 2월 「決戰非常措置要綱」을 발표하였다. 막바지에 이르는 전쟁에 대비한 최후의 발악으로서 소위 聖戰을 위한 國民總動員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부재상태라는 극한점에 도달하여 戰時體制에 매몰되는, 교육의 일대 受難期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初等국민학교 아동들은 근로봉사라는 강제 노력동원에 치중하였으며 月月火水木金金이라 부르며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매일 강제 동원되어 防空壕파기, 전쟁수행을 위한 폐품 헌납, 또 농산물 생산 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때는 정규교육은 의면당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노력동원을 강행하여 참으로 처참한 노예교육이나 다를 바 없다.

1945년 운난히도 무덥던 8월, 日帝는 여름방학도 없이 등교하여 강제노동을 시켰다. 동년 8월 15일 아침 조회시에 교사들은 日本天皇이 중대방송을 한다는 것이며 天皇으로서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여 말해 주었다. 昭和天皇이 美·英·中·蘇를 비롯한 연합국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한다는 방송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半島에 주둔하고 있던 日本軍 부대를 제외하고는 라디오라고는 한 대도 없었으니 무슨 변고로 天皇이 방송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아동들은 작업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祖國光復의 감격과 환희도 그 날에 못 느끼고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달되어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았음을 알게 되었다.

1938년 개교된 후 제7회 졸업생까지 총 312명(남자 301명, 여자 11명)이 배출되었다. 제1회로부터 제3회까지는 사립심상소학교 명의로, 제4회 제5회는 사립국민학교 명의로, 제6회 제7회는 공립국민학교 명의로 졸업하였다. 그리고 제1회는 高泰柱 교장서리시에, 제2회 제3회는 姜士庄교장시에, 제4회부터 제7회(1945년 3월 25일)는 高泰柱교장시에 졸업하면서 日帝時代를 마감하게 된다.

各回期別 졸업생수는 제1회 남자 51명, 제2회 남자 33명, 여자 6명 도합 42명

이고, 제3회 남자 53명과 여자 2명 도합 55명, 제4회 남자 37명, 제5회 남자 36명과 여자 2명 도합 38명, 제6회 남자 35명, 제7회 남자 58명 여자 1명 도합 59명이 배출되어 男女 性比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演坪校가 처음 개설된 후 학교 부지의 희사 및 시설과 성금 등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들이 많았다. 이들을 살펴보면 城山浦의 玄承五, 下牛目洞의 鄭贊玉 高在春(女) 康炳俊 文德珍, 下古水洞의 尹東玉, 高雲橋 高雲松 高西淑 姜永根, 迎日洞의 金昌海, 周興洞의 禹希國 梁官均 梁成龍, 飛陽洞의 姜基厚 孔順根 高光辰 崔德基, 부부인 孔達奎와 李文娥, 西天津洞의 金斗潤 尹在植, 三陽洞의 韓斗玉 등이었다.



1941년 4월 연평국민학교에 유공한 인사들을 위해 세워진 기념비. 공순근, 정찬옥, 한두옥, 최덕기 제씨들의 이름이 선명하다.

이와같이 有功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학교 정문 옆 路上에 기념비를 세워 길이 주민들로 하여금 흠모받을 수 있게 하였다. 尹東玉 高在春(女)의 기념비는 건립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가장 오래된 비문인 것으로 보아 永明義塾 당시의 有功碑로 보이며 그 이외의 비문은 普通소학교가 인가된 이후의 것이다. 이

碑文은 거의 1940년 11월과 1941년 4월에 건립하였는데 私立濟州尋常小학교 건립자는 이와자마(岩島義夫)라고 되었는데 岩島義夫란 당시 薦左面長인 金仁洪의 창씨개명 즉 일본식 이름이다.

제5절 牛島 三大天才의 활동

1920년대 후반 우리 나라에는 社會主義 사상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고 無政府주의 사상도 득풍처럼 불어져 왔다. 이제까지 민족주의로 일관하던 抗日운동의 방향이 左傾이란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濟州島에도 192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사조가 말어닥쳐 비밀리에 확산되었다.

따라서 牛島에도 永明義塾의 교사 金應辛 金智昊 등 民族主義者가 재임하면서 은연히 학교안에서 排日敎育을 주입 지도하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사상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으로는 牛島에서 가장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습득한 신진 엘리트 申才弘의 抗日意志에 공명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申才弘은 어떤 인물인가? 1899년생으로 1925년 5월 12일 牛島 禹斗元의 집에서 李敬弼목사에 의해 처음 洗禮를 받아 기독교에 귀의하였다. 이후 濟州 城內로 가서 新進청년들과 또 基督敎의 인사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이기풍목사가 본도에 처음 개설한 城內교회에 부설한 永興學校의 교사로서 맹활약하였으니 이는 申才弘이 濟州公立농업학교에서 수업하나가 上京, 중등교육을 받은 지식을 가지고 生徒들로부터 실력있는 교사로 숭배받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申才弘은 日島의 留學生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면 이들과 접촉, 抗日의 의지를 펼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濱土로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1930년 3월 姜花里 文道培의 집에서 抗日비밀결사인 「朝友同盟」 결성을 주도, 이듬해 2월 姜昌輔, 金順鍾, 金型煥 등과 함께 「제주도 사회운동자 비밀간담회」를 개최, 新進青年을 조직화하여 침략자 일본에 저항하기로 하는데 앞장섰다. 이 무렵 海女抗日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소위 그 배후 조종 인물로 지목되어 1932년 3월 日帝 당국에 검거되었다. 당시 新聞記者의 신분으로 5년형을 선고

받아 光州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해방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신음하다가 病死되었다는 說과 또 江原道에서 살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說이 있다.

「革友同盟」의 핵심적 인물 姜昌輔는 龍潭리 태생으로 이 抗爭의 주동 책임자였는데 船上의 화물로 가장하여 日警의 눈을 피해 渡日, 그곳에서 줄기차게 항일운동을 지하에서 전개하였다. 그러자 실제의 주모자로 지목받아 申才弘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申才弘은 舊左面 細花里에서 1930년 3월 1일 3·1節 11주년 기념일을 택하여 비밀결사 「革友同盟」을 조직하면서 농림부의 책임을 맡았으며 역시 牛島태생 康寬順은 청년부를 맡았었다. 또 동년 9월경에는 「제주島 社會主義者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밀회의 끝에 제주도를 양분, 東部는 申才弘이, 西部는 張鍾植이 지역책임을 맡았다. 당시 소위 城山浦海女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日帝당국에 저항하면서 농민과 해녀를 革友同盟 조직으로 확대하는 데는 申才弘의 역할이 대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牛島에도 이 조직의 뿌리를 심기 위해 申才弘 자신이 책임자가 되고 동지 康寬順은 연락부를, 金聲五는 청년부를, 高子華는 농림부를, 高元瀛은 여성부를 책임맡아 抗日 비밀조직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 후 中日戰爭이 발발하자 이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終達里 「時事報導강연회」 석상에서 排日反戰사상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革友同盟抗日운동」에 가담된 인사들은 소위 비밀결사에 가입, 그리고 결사조직 목적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행위와 치안방해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의 애국투사를 체포 구금한 것이다.

東亞日報 1932년 3월 4일자에 "濟州海女사건 後聞, 대모사건 取調와 운동자 協議會 탄로"라는 제목하의 기사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濟州島海女사건은 수차의 대모사건과 전속자 탈환으로 또는 檄文사건으로 한참동안 世人의 耳目을 놀라게 한 후 1백여명의 전속자를 내었다. 역일 준열한 취조를 거듭해 오던 바 사건의 일단락을 지은 셈이다.
>
> 지난 수일전에 下道里 해녀 夫春花(25) 夫德良(23) 金三蓮(23) 등 3人을 제외하고는 전부 석방되고 남자 청년으로는 文武炫 愼允珍을 석방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갔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1930년 9월 21일경 細花리 金時利 집에서 청년 10여 명이 간담회 끝에 비밀결사 「民衆운동자協議會」를 발의한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번 海女사건에도 어떤 단서가 포착된 듯하다는데 지금까지 검속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下道里……金順鎭, 吳文奉, 夫介琳, 玄銀淵, 金麗贊, 吳斗萬, 康一龍, 韓文玉, 林丁玄, 등 9명

細花里……金甲天, 金時坤, 金時利, 金三龍, 文益培, 文道厚, 文道五, 李斗一 등 8명

演坪里……金聲五, 康寬順, 吳奉俊, 李斗三, 高子華, 鄭贊植, 申才弘, 孔德奉, 高基昌, 姜熙俊, 梁泰淵, 尹大弘, 高奭作 등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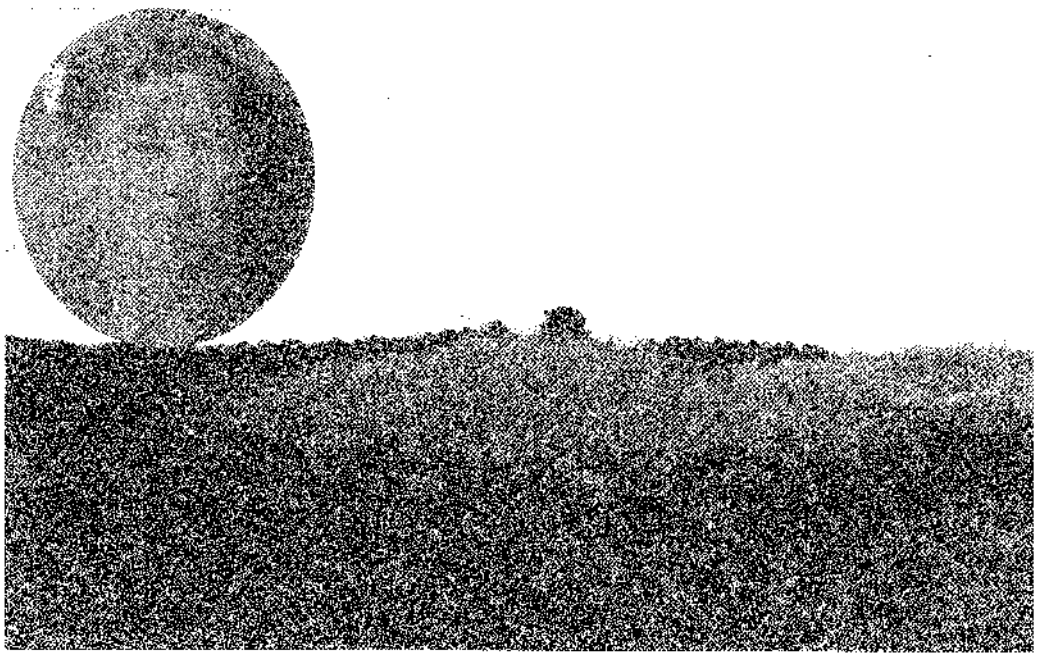
終達里……韓香澤, 韓基澤, 韓元澤, 蔡在五, 康泰一, 高內萬, 康宗遠 등 7명

당시의 이런 記事로 보아 海女抗日운동이 비록 面소재지 細花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저항주체인 海女가 가장 많은 곳이 牛島이며 또 이 저항운동의 後見者들도 절대다수가 牛島人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도 보아 지금까지 밝혀진 「海女抗日운동」의 새로운 照明이 절실히 요구된다.

牛島 사람으로 구속된 13명은 후일 日帝에 굴복 동화되어 附日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오직 은둔생활로 일생을 보낸 이도 있었다. 다만 大邱覆審법원에서 공소되어 1933년 6월 5일 刑이 확정되어 복역한 牛島의 志士는 申才弘, 康寬順, 金聲五 등 3人이었다.

申才弘은 당시 32세인 지방과견 新聞記者로서 소위 「海女사건」의 首長이었다. 징역 5년형을 받아 光州형무소에서 복역한 뒤 귀향, 끝까지 日帝에 굴하지 않고 檀紀年號를 쓴다든가 음력 10월 3일 開天節 기념일에는 이웃 후진들을 모아 민족혼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동지 康寬順은 당시 25세이며 역시 新聞記者로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아 光州형무소에서 복역하고 귀향했다. 그는 문장력이 뛰어나 康觀이란 筆名으로 문예활동을 펼쳤으며 그가 지은 「海女의 노래」는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본시 永明의숙을 졸업하고 1926년 濟州公立農業학교를 졸업한 신진청년으로 服役을 마치고 귀향, 역시 永明의숙의 교사로서 인기가 대단했으나 日帝당국의 미행이 심하자 咸鏡北道 淸津으로 멀리 부부가 함께 떠나버린다. 瀛洲 間島지방을 드나들며 큰 뜻을 펼치려 했던 차에 日警의 모진 고문에

얻은 刑毒과 옥중생활에서 얻은 병으로 1942년 여름 34세를 일기로 요절하였다. 清津에서 죽은 남편의 시신을 옮겨 고향에 안치시킨 부인 金有生女史는 후일 遺腹女를 낳아 그의 血肉을 이었는데 강길녀(55세)로 우도면 천진리에 시집와 살고 있다.



康寬順의 生存時 모습과 墓

康寬順은 그 부인의 역할이 대단하였다고 전한다. 1930년대 전후를 기해 도내의 抗日투사들이 가장 은밀한 장소로 牛島에서 자주 회합을 가졌는데 모슬포의 吳大進, 翰林의 李益雨, 細花의 文道培, 龍潭의 表昌輔, 新桃의 夫泰煥, 朝天의 金學煥, 終達의 韓香澤, 下道의 金順鍾과 吳文奎 등이 자주 출입하였다. 이들의 牛島會合은 첫째 牛島가 은밀한 장소로써 일제당국의 눈을 피하기가 용이했으며 둘째 이들의 좀 長格인 申才弘이 牛島에 살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康寬順의 夫人이 정성으로 접대해 주는 데 모두 호감을 갖고 있었던 때문이다.

또 同志 金聲五는 牛島의 錢屹洞 태생으로 사전 당시 21세인데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3년 6개월 동안 光州형무소에서 복역하고 귀향했으나 失意속

에 방황하고 있었다. 日帝의 屠行이 심하자 동지 康寬順의 뒤를 이어 咸北 淸津으로 건너가 만나 미래를 기약하고 滿洲 間島지방에 있는 東興中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 후 두 同志는 元山에서 실시하는 航海士 乙種시험에 응시하여 共히 합격, 康寬順은 건강관계로 항해활동을 포기했으나 金聲五는 항해사로서 명성을 날렸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釜山에 거주하면서 일류 船長으로 전국에 알려져 大成하였다.

이와 같이 申才弘, 康寬順, 金聲五 등 3人은 당대의 인걸로서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牛島民에 대한 계몽활동과 문화활동에 기여한 世稱 牛島의 三代大才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제6절 文化활동과 啓蒙운동

해가 거듭할수록 日帝의 탄압이 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뜻있는 新進青年들에 의해 文盲퇴치 활동, 夜學을 통한 民衆계몽운동, 연극활동 등을 통해 민족주의 정신을 고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표면상으로는 民族해방을 표방할 수 없어서 農漁民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명목으로 自生적인 조직이 움트게 되었다.

한편 뜻있는 牛島人 중에는 演坪青年會同盟, 海女會, 農民會 등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 뚜렷하게 알려진 모임이 있었으니 1931년에 조직된 演坪農民社였다. 流移民 二世, 三世들이 주축이 되어 선조들의 개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의도로 조직된 결사이다. 뿐만 아니라 牛島 주민의 自生的 自律的 모임으로 자켜 내려온 鄕約을 가지고 復古的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었다.

이 農民社의 結社의 목적은 첫째 농민의 권익옹호를 기하고, 둘째 농민을 계몽하여 생활을 향상시키고, 셋째 牛島의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직 책임자를 보면 위원장에 李大奎, 그리고 집행위원은 康京鎬외 7명으로, 또 검사위원장은 金熙邦이며 위원으로는 梁寬杓, 車와玉 등으로 되어 있다. 이 演坪農民社에 대해서는 濟州日誌에 밝혀져 있다.

이에 앞서 牛島 태생으로 청운의 뜻을 품고 牛島 혹은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거쳐 귀향한 신진 청년층의 활동은 괄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들은 이미 急進思想을 수용하고 잠자던 주민들을 일깨운 민중계몽 운동에 앞장섰다. 그 第一號가 愛國청년 申才弘이니 그는 일찌기 濟州公立農業학교에 입학한 牛島人의 第一號이기도 하다. 1899년생인 申才弘은 濟農 1년을 수료하고 上京하여 중등교육을 마치고 귀향하면서 일찍부터 선각자적인 활동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또 申才弘보다 7세 연하로서 1926년 濟農을 졸업한 康寬順의 천재적인 계몽활동은 牛島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니 이는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사실이다.

申才弘과 康寬順 두 사람은 우도의 열혈 청년을 결속시키고 획기적인 새 바람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다. 보다 체계적인 民衆啓蒙을 펼치기 위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그런 연후 金聲五, 高子華, 高元瀚, 禹本俊 등과 함께 夜學所를 만들어 주민 가운데 남녀 文盲者를 가릴 것 없이 한글 千字文, 算術 등을 가르치며 은연히 민족주의 이념을 일깨웠다. 그 동안 배움에 굶주렸던 주민들은 農閑期를 이용하여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였다. 이러한 新銳 青年들의 희생적인 활동에 바야로 환영하였으며 또 이상향 건설과 신생활 운동에 전도민의 호응과 동참이 있었다. 가히 牛島는 1920년대 後半에 걸쳐 黃金期, 즉 문화의 黎明期를 맞이한 듯하였다.

이 운동의 首唱者이며 지도자인 東大津洞 출신인 申才弘은 비상한 재능을 가진 인사로서 牛島의 유일한 개량서당인 大明義塾의 교사였다. 또 은사로 재임한 바 있는 金炳勳, 金鎭斗, 金智昊 등의 감화를 받았었다고 보아진다. 이들 교사는 모두 당대의 유명한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申才弘은 신학문을 최초로 섭취한 신진청년으로서 漢學에서 조예가 깊었으며 서울의 文物을 체험한 후 귀향하였다. 처음에는 大靜 摹瑟浦의 光鮮義塾에서 교편을 잡았었다. 이 光鮮義塾에는 [illegible] 3·1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기독교 신자 姜圭彦이 함께 교사로 재임하여 또 姜圭彦은 申才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었다. 申才弘은 記者로서 종사도 했으며 향리에 돌아와 永明의숙의 교사로서 牛島民을 일깨우면서 민중계몽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는 牛島人으로서 맨먼저 基督敎 신자가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민중계몽운동과 사회봉사운동에 목적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改良을 급진적으로 실천하려는 데서 日帝로부터 감시와 미행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또한 申才弘과 함께 牛島의 수재로서 쌍벽을 이루는 인사가 있었으니 이가 곧 錢峙洞 출신인 康寬順이었다. 그는 牛島의 중흥을 시도하는 선봉장으로서 특히 文學的인 소질을 갖춘 多藝多才한 청년이었다. 창작활동을 통하여 또는 각본을 직접 지어 素人劇을 연출하며 주민들을 계몽하기도 하여 인기가 대단했다고 한다. 그가 作詞하고 행진곡조로 불리었던 「濟州島 海女의 노래」는 당시 牛島안에서만 불리어진 것이 아니라 濟州 전역과 육지 대처방에 출타한 海女들에 의해서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1.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불쌍한 살림살이 세상도 안다.
   추운날 더운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2.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우는 아이 젖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 종일 해엄치나 번 것은 기막힌
   살가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3.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하고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어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各處 朝鮮 對馬島로 돈벌이 간다.
4. 배움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 놈들은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도다.
   가엾은 우리 海女 어데로 갈까.

이 노래는 日帝 암흑기에 도민들뿐만 아니라 男女老幼 할것없이 온 민족의 悲憤을 대변하는 절규이었다. 당시 방황하는 겨레의 심정이 소박하고 진솔하게 표현되어서 사실 「牛島의 노래」로 日帝의 눈을 피해 열창하면서 설움을 읊은 노래였

다. 祖國光復 이후에는 제3절의 '各處 朝鮮'이란 대목을 '機蔚山' 즉 경상남도의 '機張'과 '蔚山'으로, 또 제4절의 '저놈들의 착취기관'을 '왜놈들의 착취기관'으로 고쳐 오래 불리어 왔다.

結言하건대 牛島는 사람이 살기 시작한 데서부터 150여 년이 된다. 이때부터 조국광복전까지 우도에서의 敎育활동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조국 광복 이후의 교육활동은 달라 언급될 것이기에 본 장에서는 언급을 피한다. 流移民 一世들이 황무지를 일구어 농토를 만들고 풍부한 수자원을 획득하면서 生業에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자 당장 二世의 교육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이럴 즈음에 金錫麟의 입주는 교육 문화활동에 새로운 기운을 움트게 하였다. 이후 재래식인 書堂을 통한 訓學활동은 계속되었으며 1900년에 와서 漢學者 吳完哲을 牛島에서 초빙해 온 데서 牛島의 교학활동은 中興期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10년 日帝의 침략으로 改良書堂 즉 私塾이란 형태가 태동하게 되자 牛島民의 합의로써 1918년 섬 중심부에 永明義塾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38년까지 改良書堂으로 유지해왔으며 이 해에 私立演坪尋常小학교로 승격 개교됨으로써 정규교육기관으로 이 지역의 교육에 기여하면서 公立학교로 개편하였다.

제2장 解放以後의 敎育

제1절 연평중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의 활동

일제 36년의 질곡에서의 해방을 맞은 우도의 경우 제주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적 여건 때문에 여타의 초등학교 설립운동 같은 것은 없었으며 기존의 연평국민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해방 이후의 시대적 교육요구에 응하였다. 1918년에 개설된 영명의숙을 모태로 하는 연평국민학교는 1938년에 개편된 사립연평심상소학교의 연장선에서 해방과 더불어 연평공립국민학교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50년 6월 1일 정식으로 연평국민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96년 3월 1일부터 연평초등학교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명의숙의 정확한 설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은데 1918년이라는 기록과 1929년이라는 기록이 혼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평국민학교의 개교 연대에 대한 기록도 확실한 것이 없다. 다만 사립연평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알려져 있는 高泰林의 이력을 참고해 볼 때 그가 1917년 4월 1일부터 1923년 3월 25일까지 6년간 사립연평보통학교에 재학한 것이 확실하다면 연평국민학교의 개교 연대는 1917년이라는 말이 된다. 또한 고태주에 앞서 구학문을 배운 3회 선배가 있었다는 말을 참고해 볼 때 따라서 영명의숙의 설립 연대는 1914년이 될 것이다.

또한 영명의숙이 일종의 개량서당임을 감안해 볼 때 개량서당의 전 단계인 전통서당의 존재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전통서당 유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그 명

정은 밝혀낼 수 없었지만 그 존재여부는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우도에서도 일찍부터 초등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우도의 근대교육이라는 것이 그 근본에 있어서는 전통교육과 연계되어 민족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음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내의 여타의 학교들이 해방정국의 복잡한 이데올로기 각축에 몸살을 앓았던 대신 연평국민학교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우도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1930년대 이래 사회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설득력이 없으며 다른 무엇보다 우도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된다.

대신에 우도의 교육적 열의나 진전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은 1954년에 개교한 연평중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우도의 경우도 주지하다시피 일찍부터 초등교육이 이루어져왔고 그 열의 또한 다른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지만 중등교육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민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야 말로 당시로서는 지난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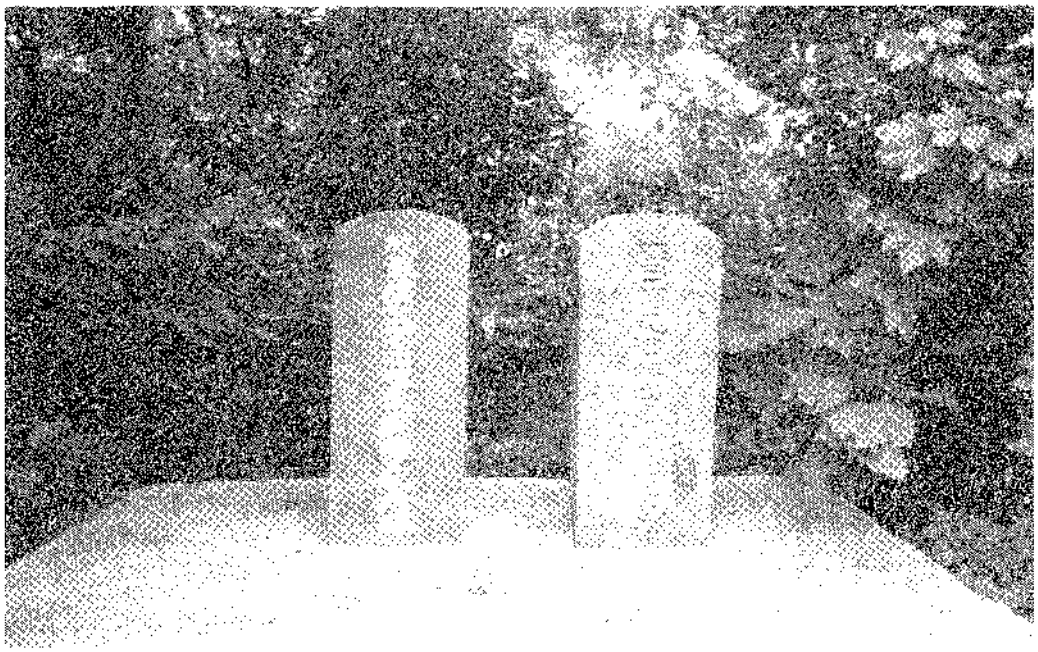
광복이 되면서 우도는 해마다 80여명의 국민학교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1949년에 연평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다소나마 중등교육에 대한 바람을 만족시켜보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고등공민학교란 공민학교의 修修科를 토대로 발전시킨 것으로 1949년의 교육법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즉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초등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일종의 중학교에 준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등공민학교는 특별학제의 일환으로 공민적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기관이었으며 형식적인 의미의 학교교육기관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교육 기관으로서의 중학교 설립을 위해 우도의 주민들은 진력을 하게되는데 특히 우도의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高泰社 등이 중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함으로써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원래 중학교 설립은 고향이든, 타향이든, 혹은 이국이든 우도출신 모두의 숙원

이었기에 일단 기성회가 발족되자 그에 대한 성원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일단 중학교의 부지가 고향에서 마련된다면 설립자금은 재일연평리 향민들이 책임지겠다는 약조 아래 중학교 설립을 위한 행보를 내딛게 되었다.



학교입구에 세워진 연평중학교 설립 공덕비

당시는 아직 韓·日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우도출신 金聲五가 부산에서 선장을 하던 관계로 그를 중간 연락책으로 하여 학교 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성오는 일제말기 해녀투쟁을 조종한 혐의로 검속되어 3년 6개월 동안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였던 우도 출신의 지사로서 일본의 향민들에게나 고향 사람들에게나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간연락책으로서는 가장 적격이었던 것이다.

고향에서는 학교부지 마련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수월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태주, 김필환, 강용전 등이 부지확보를 위해 마을 지주들의 후원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결국 도지를 무상으로 희사받게 되었다. 그 무렵 일본에서도 중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자금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

가 하는 것이었다.

재일향민들은 高元燮나 고태주로 하여금 수금 책임을 맡기를 원하였지만 그들도 이 일로 인해 주민들간에 반목이 생길 우려를 염려하여 그 책임을 수락할 수가 없었다.

결국 중간연락책이었던 김성오가 그 일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김성오는 재일향민들에게 학교 설립자금을 받은 뒤 부산에서 학교 신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구입된 재료들을 신인흥 등이 통통선을 이용하여 우도로 운반함으로써 연평중학교 설립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학교의 설계는 공병대 출신이었던 강용선이 담당함으로써 제반 계획이 성안되었는데 이외에도 그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설립에 전력하였다.

그런데 학교 설립자금은 비단 재일향민들만 후원한 것은 아니어서 고태주나 김성오는 자금 마련을 위해 각 지역의 고향출신 인사들과 접촉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어서 부산에서 한천사업을 하던 김하석을 만나 고향의 교육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하자 일정액의 성금 희사를 구두로 약속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금은 보내주지 않아 학교설립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이렇게 부지가 마련되고 기자재나 자금이 마련되어 학교설립이 본격화됨으로써 주민들도 공동부조 차원에서 출력을 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것은 기술자들이 담당하였지만 자재를 등짐으로 운반하는 일, 석축을 쌓기 위해 등짐으로 돌을 운반하는 일, 울타리를 만드는 일, 운동장을 고르는 일 등은 모두가 주민들 몫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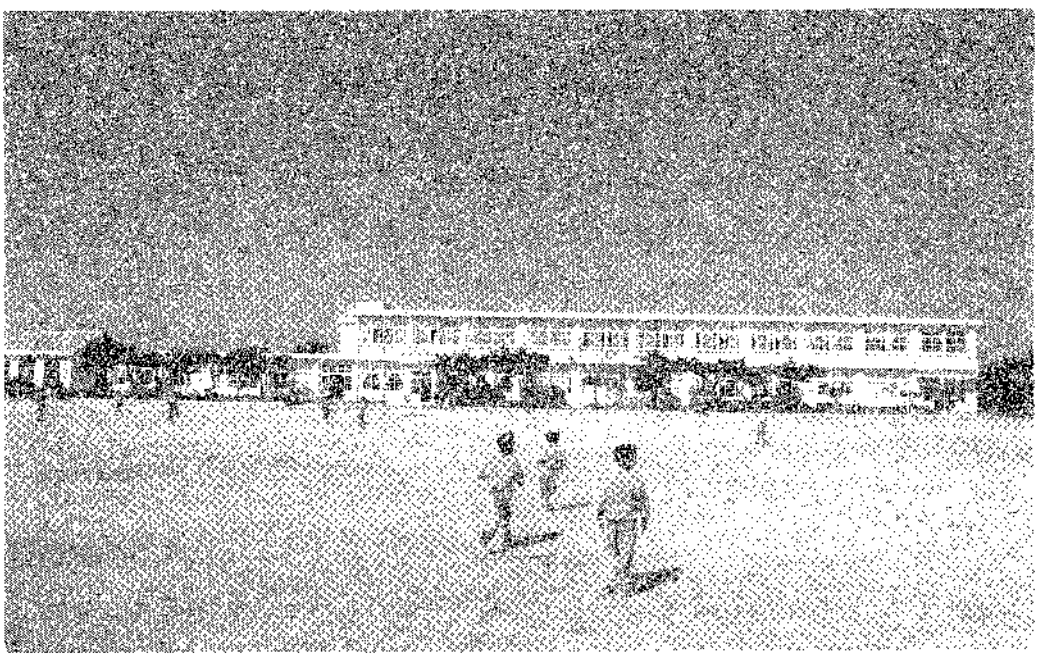
우도의 8개동 단위로 일정하게 책임량을 할당하여 자발적인 來力을 유도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자발적인 주민 출력은 제주도의 제반 학교설립 운동에서 볼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교육전통으로서 현재 제주도의 역사가 오랜 학교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연평중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교설립이 성사될 무렵 재일연평리 출신 鄭贊治 등이 이른바 연평중학교 증축기성회를 조직하여 도내에서 성금 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재일동포들이 고향의 학교설립을 후원했던 예는 제주도의 경우 비교적 많은데 백척간두의 생활에

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고향의 교육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제주도 교육의 역사에서 참으로 가치있는 전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도의 경우는 설립기성회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었고 이어 스스로 중축기성회를 조직 또다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러한 예는 가히 찾아보기 어려운 헌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는 당시 사정으로 자격교사 충원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과목들은 무자격이긴 하지만 우도 출신 가운데 유사한 교과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 유치하여 고향의 교육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미군부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어교사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인데, 이를 계기로 그들도 정식으로 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에는 고태주의 열의가 남달랐다.

제 2 절 60~80년대의 연평국민학교와 "기성회바당"



초등학교 전경

연평국민학교는 1962년 3월 6개학년에 12학급을 인가받게 되는데 이러한 12학급 체제는 1988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만 26년에 이르도록 연평국민학교의 규모는 12학급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70년대만 하더라도 연평국민학교의 재학생 평균수는 600여명이었으나 80년대 초반에는 500여명으로 하락하고 80년대 중반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하락 88년에 이르기까지는 300여명을 유지하는 실정이었지만 12학급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결국 89년부터는 11학급으로 1개 학급이 감축되었고 90년에는 9학급, 91년에는 재학생수 200여명에 7학급 규모로 하락되었다.

따라서 연평국민학교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는 7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재학생 평균수가 600여명에 남녀 학생의 비율이 1 : 1 수준이었으며 교사 수는 평균 13명이었다. 제 2의 개발의 연대라고 일컬어지는 70년대는 국가적으로 초등교육의 개선의 국가발전과의 관련성 속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었으며 특히 義務敎育施設擴充特別會計의 운영에 힘입어 초등의무교육의 운영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던 시기였다.

70년대 연평국민학교의 분위기도 시대적 조류에 힘입은 바가 컸다. 재학생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자 71년 9월에 슬래브로 2개 교실을 증축한 데 이어 72년 10월중에는 슬래브 3개 교실을 증축하고 또한 변소와 창고를 증축하였다. 연이어 73년 6월에도 슬래브 2개 교실을 증축하였는데 이렇게 3년 연속적으로 교실 증축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주도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예였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1967년에 제정된 島嶼僻地敎育振興法(법률 제1870호)과도 관련이 깊다. 동법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종의 적극적 格差政策으로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들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책의 표현이었다. 교육시설, 교재교구, 교과서의 무상공급, 교원사택, 교원 인사면의 특혜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폄으로써 이들 낙후지역의 의무교육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학교운영 재원 문제도 관심거리였는데 1970년

2월 문교부는 학교 육성회 운영 지침 및 준칙을 발표하고 해방 이후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의 형태로 존속해오던 것을 육성회로 제도화시켰다.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의거하여 72년부터 연차적으로 육성회비의 국고부담을 추진하였는데 육성회의 재원은 주로 학교 육성을 위한 큰 재원이 되었다.

그런데 우도의 경우는 학부형 개인의 회비수입에 의존하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학교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설립되어 운영비를 각 호당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후일 학부형회로 전환되어 같은 일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도의 경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해안 공동어장의 일정한 지역을 소위 "기성회 바당"이라고 이름하여 공동노력으로 공동출자하는 형식으로 그 지역을 관리함으로써 학교운영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70년대 기성회 바다 전경

이러한 "기성회 바당"은 1979년에 서울 등 6대 도시를 제외하고 국민학교에서의 육성회비가 폐지되기에 이르기까지 10여년 간이나 운영되었고 학교운영의 자

금도금이 금지된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결과된 재원으로 공금을 마련 부락공동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이것은 성산읍 온평리가 학교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안가 일정 지역을 "학교 바당"이라고 명명하여 운영하였던 예와도 비슷한데 그러나 10여년에 걸친 장기간의 운영은 우도의 경우에 한하며 이는 우도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반증하는 실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온평리의 '학교 바당'은 그 역사가 해방직후부터 오래되었지만 우도의 그것은 기성회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 운영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성회는 종래의 사친회가 전환된 것으로 부족시설 확충과 학교운영비 지원에 큰 기여를 하였고 1970년 육성회의 발족으로 폐지되었던 것인데 우도의 기성회 바당이라는 용어는 70년 이후에도 명칭의 변경없이 통용되어 왔다. 당시의 중등교육비의 70%가 사부담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성회 바당이 우도 교육재정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도 주민들의 열정은 연평국민학교의 '운동회' 행사에서도 나타나는데 당시의 운동회는 국민학교의 행사라기보다는 농한기를 빌어 펼쳐지는 우도주민 전체의 연례 잔치였다. 더욱이 격리된 지역적 여건 때문에 달리 주민 전체가 어우러질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운동회에 대한 주민 참여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도 주민들은 학교 일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였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기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성금을 모아 학교운영비로 기탁하기도 하였다.

대개의 경우 운동회는 연례행사로서 일정한 날이 지정되었지만 이를테면 교실을 증축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된 경우도 있어서 마을의 교육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집단적인 후원과 연대 속에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웅변하는 예가 되기도 했다. 이는 교육사적 전통에서 볼 때 자신의 손으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려는 獨立學校의 정신이 반영이기도 하다.

70년대 연평국민학교의 졸업생 수는 한해 평균 90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상급학교 진학자는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평균 60%수준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79년의 경우에는 무려 98%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추세를 간단히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학급수	학생수(계/여)	졸업자(계/여)	진학자(계/여)	진학평균
70	12	625/320	94/39	62/22	65%
71	12	638/330	83/37	53/16	64%
72	12	626/313	100/58	70/32	70%
73	12	624/317	109/51	84/33	77%
74	12	601/304	103/51	83/33	81%
75	12	619/312	93/42	81/33	87%
76	12	616/308	103/58	89/45	87%
77	12	634/326	96/50	86/42	89%
78	12	628/326	92/49	82/41	89%
79	12	604/324	107/54	105/51	98%

(제주교육통계연보 참조)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자가 확대된 것은 1968년에 결정 공포되어 1971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中學校無試驗進學政策과 무관하지 않은데 중학교무시험정책은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비롯하여 소기의 정책목표를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의 기회확대와 보편화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평국민학교는 여타의 제주도 읍, 면의 학교 사정과 마찬가지로 규모면에서는 점차 그 활기를 잃게 된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보다 내실을 기하게 되어 81년부터는 도서벽지진흥법에 의거하여 시범급식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또한 같은 해에는 병설유치원이 설립 인가되어 3월에 개원을 하게 된다. 84년에 2층 2개 교실 및 계단실을 증축하게 되고 85년부터는 특수학급 1개를 설치하게 되고 학교환경 개선 차원에서 수세식 변소 또한 이때 신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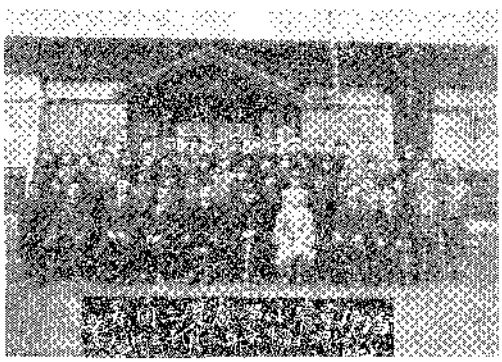
80년대 들어서도 계속된 시설사업으로 교실수는 늘어난 대신 재학생수는 70년대에 비해 100여명이나 감소함으로써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70년대는 약 50여명이었으나 80년대 초반은 40여명, 후반에는 25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도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移村向都의 경향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실례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89년에는 드디어 종전의 12

학급 체제에서 11학급 체제로 1학급을 줄이게 되고 90년에는 9학급, 91학년에는 7학급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결국 1개 학년당 1학급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는 말인데 93년의 경우 특수학급 1개를 포함 7개 학급으로 재학생수는 190여명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5명 꼴이 된다. 이러한 추세로 연평국민학교가 분교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주도 전체의 국민학교 학생수가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된 시점이 1983년으로 우도의 경우도 83년까지는 500명 수준이던 재학생수가 84년부터 400명 수준으로 감소를 보임에 따라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학생수의 감소 문제는 우도의 경우에만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나아가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현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후부터 제기될 문제는 교육의 규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80년대 들어 급격히 부상하게 된 것이 이른바 유아교육 문제이다. 80년대 들어 고조되기 시작한 유아교육 정책에 힘입어 연평국민학교 병설유치원도 개원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재원생수가 80년대는 30명에서 40여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는 20여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간접적으로는 산아제한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무래도 移村向都의 추세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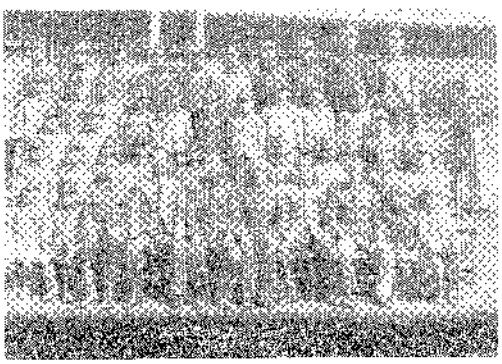
연평초등학교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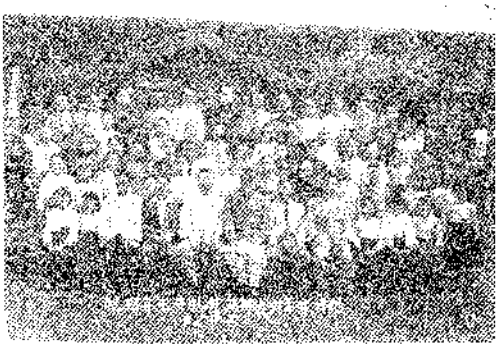
연평심상소학교 제3회 졸업



사립연평학교 제4회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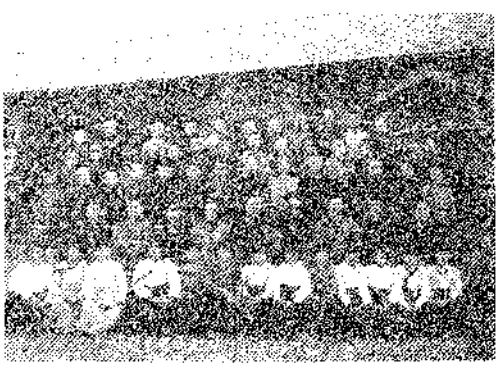
연평학교 제6회 졸업생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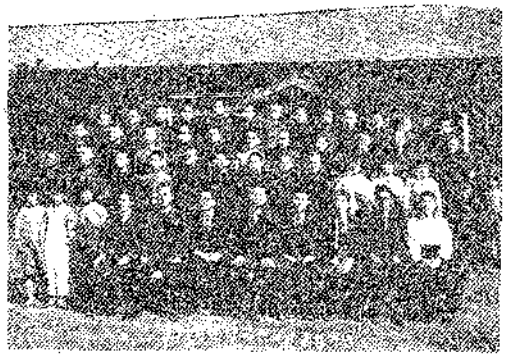
연평공립국민학교 제3회 졸업기념(1948.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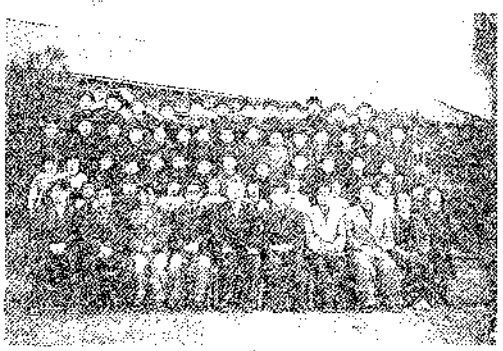
제14회 졸업기념(1952. 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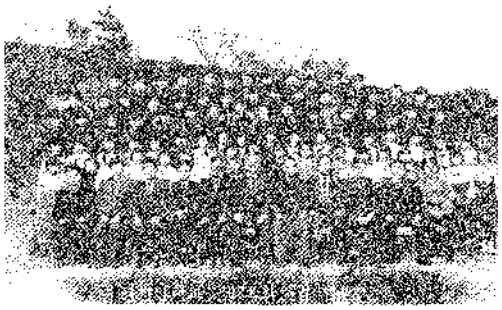
제15회 졸업기념(1953.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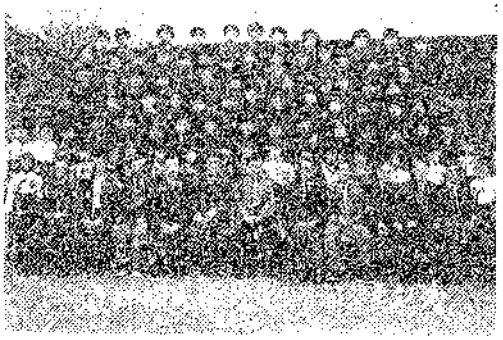
제16회 졸업기념(1954. 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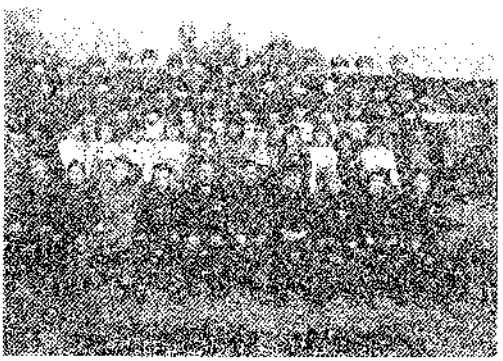
제19회 졸업기념(1957)



제22회 졸업기념(1960. 3. 16)



제23회 졸업기념(1961. 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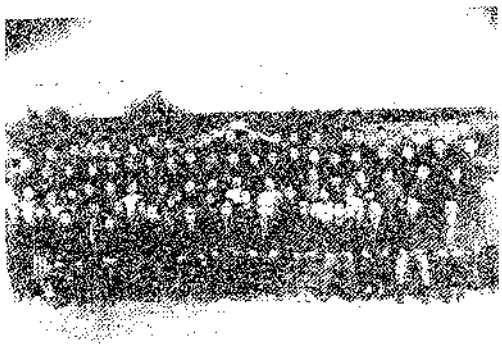
제24회 졸업기념(1962. 2. 16)



제25회 졸업기념(1963. 2. 15)



제26회 졸업기념(1964.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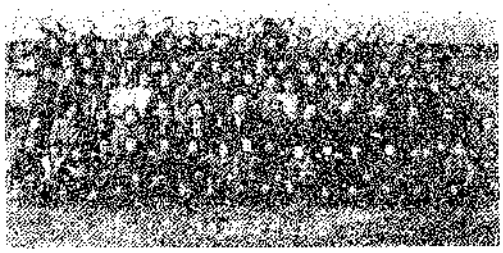
제27회 졸업기념(1965.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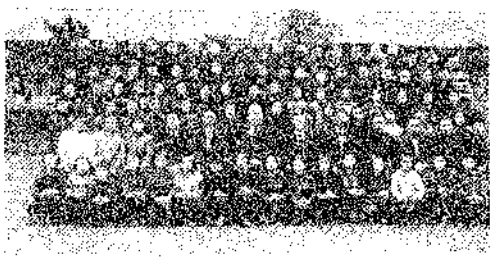
제28회 졸업기념(1966. 2. 16)



제29회 졸업기념(1967.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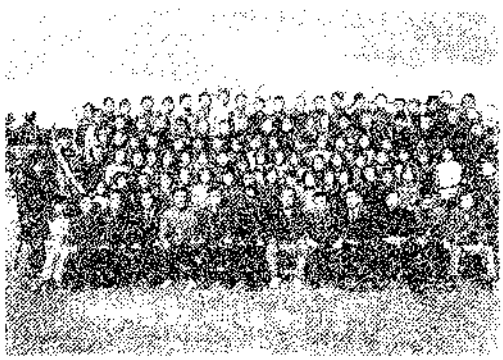
제30회 졸업기념(1968. 2. 17)



제31회 졸업기념(1969. 2. 14)



제33회 졸업기념(1971.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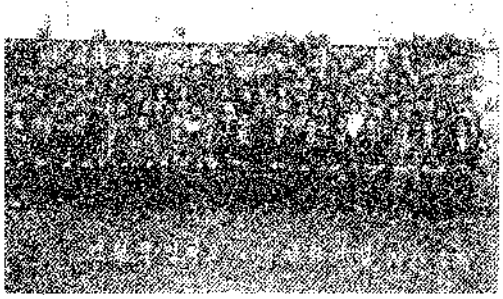
제34회 졸업기념(1972. 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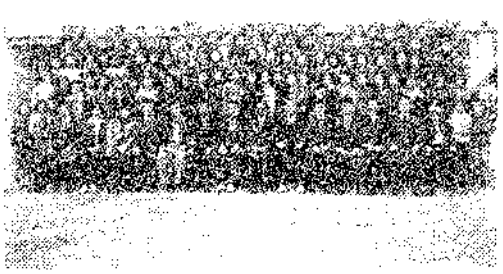
제35회 졸업기념(1973. 2. 19)



제36회 졸업기념(1974. 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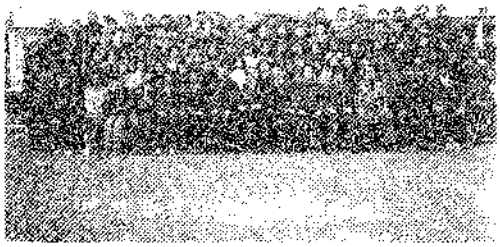
제37회 졸업기념(1975. 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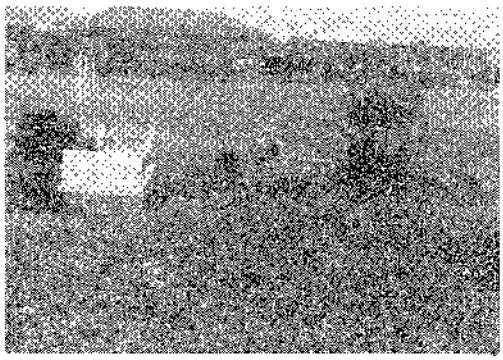
제38회 졸업기념(1976.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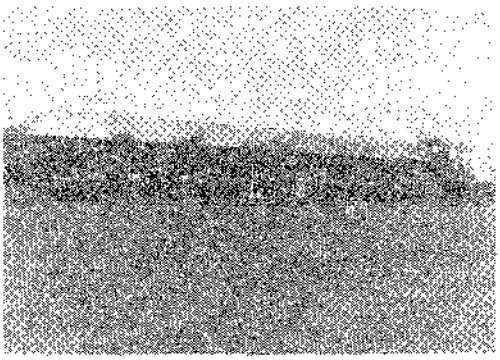


제39회 졸업기념(1977.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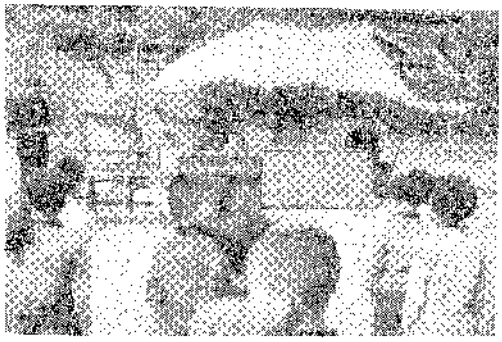


제40회 졸업기념(1978.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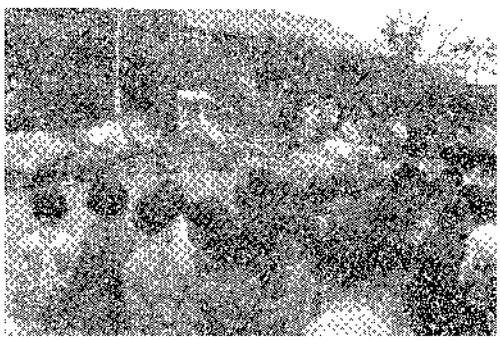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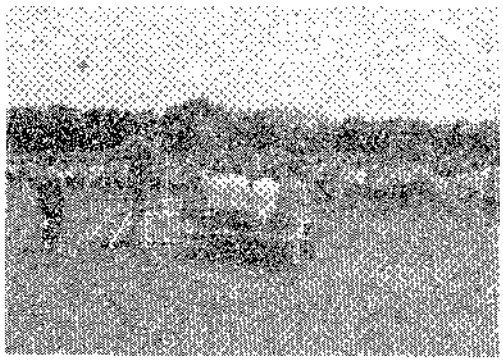
구교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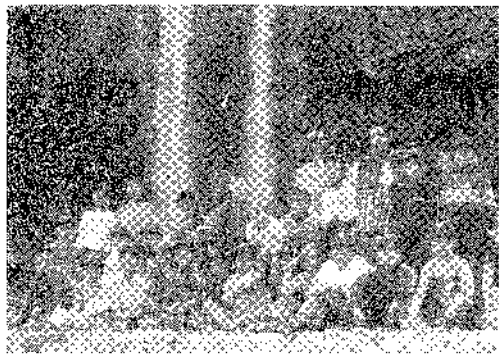
정일권 국무총리시 훈금기증식



도서학교위문단이 학교를 방문 위문품 전달(1972. 5. 29)



희망에 부푼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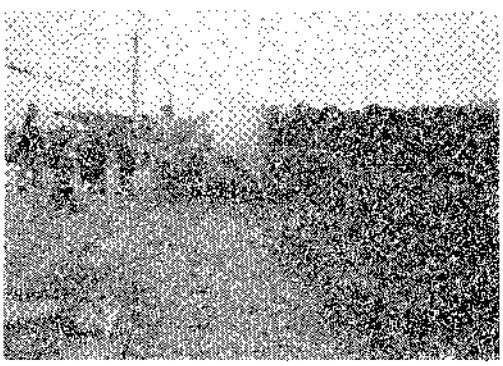
수학여행(1976. 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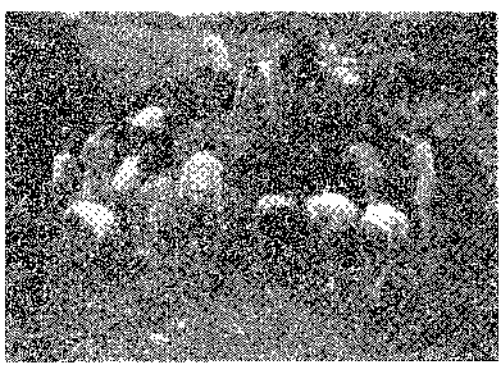
사 생 대 회



즐거운 가을 운동회



마을안길 청소



퇴비증산은 우리 부모님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퇴비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풀을 뜯으고 있다 (79. 11)

제3절 연평중학교의 변천

1954년 5월 22일에 3학급 체제로 설립인가를 받고 동년 6월 20일에 개교를 한 연평중학교는 그 신장세가 급격하진 않았지만 꾸준한 편이었는데 1972년도까지는 3학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재학생수가 200여명을 상회하기 시작한 73년도부터는 4학급체제로 74년에는 5학급, 76년에 6학급 체제로 학칙 변경을 통해 규모있는 발전을 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6학급 체제는 1990년도까지 계속되다 91년도부터는 다시 5학급 그리고 92년에 4학급, 93년에 3학급 규모로 줄어들게 되었고 재학생수도 100여명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연평중학교 전경

시설확충은 1958년에 2개 교실을 증축한 것으로 그치다가 재학생수가 300여명을 상회함으로써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던 1983년을 기점으로 84년 12월에 무려

6개 교실을 신축하게 된다. 83년, 84년, 85년은 연평중학교의 재학생수가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로서 84년의 교실 신축을 통해서도 적절한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86년에 1개 교실을 증축하는 등 학생수의 증가에 발맞추어 시설 확충이 서둘러져 왔다. 이는 연평국민학교의 재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70년대였음을 감안해볼 때 인구파고의 당연한 반영이었다.

70년대 연평중학교의 한해 졸업생수는 평균 65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대개 4 : 1 수준이었는데 이를 가운데 약 50% 정도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였다. 상급학교의 진학자는 대부분이 남학생으로 여학생의 평균진학률은 여자 졸업자의 20%도 채 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도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에 존재했던 관계로 취학을 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고등학교 진학의 경우는 그 문제 해결이 그리 쉽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학교 졸업자의 1/2수준이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는 형편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정도가 매우 심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1 : 1 수준이었던 남녀 비율이 중학교에서 4 : 1 수준으로 성비차가 심해진 이유나 중학교 재학 여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저조한 이유 등을 달리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수의 여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의 진학 보다는 "물질"로서의 현실적인 길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도 경제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역할의 막중함을 대변하는 실례이기도 하다.

그같은 형편은 1979년부터 두드러지게 완화되는데 79년의 경우를 참고해보면 6학급 체제로 재학생수는 262명(여학생128명)이었으며 졸업생 89명(여학생48명) 가운데 상급학교 진학자는 76명(여학생37명)으로 진학률이 평균 85%를 상회하고 특히 여학생의 그것은 77%에 육박하였다. 이것은 전년 대비 평균 25%정도의 신장세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무려 55% 정도의 급격한 신장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이 추세를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학급수	학생수(계/여)	졸업자(계/여)	진학자(계/여)	진학평균(남/여)
73	4	226/ 90	51/19	25/ 5	49/26%
74	5	238/ 98	60/19	19/ 3	31/15%
75	6	241/ 96	70/32	34/ 7	48/21%
76	6	239/103	83/35	34/ 4	40/11%
77	6	255/123	69/22	42/ 7	60/31%
78	6	257/130	74/32	42/ 6	56/18%
79	6	262/128	89/48	76/37	85/77%

(제주교육통계연보 참조)

여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의 급격한 신장세는 소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산업체부설학교의 진학에 따른 결과인데 특히 우도의 경우는 일찍이 부산과 관련이 깊었고 부산지역에 많은 우도 주민들이 터전을 잡고 있었던 관계로 이 지역의 산업체부설학교에 많은 학생들의 진학이 더욱 용이했다.

정부는 1976년 말에 교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산업체에 중고등학교를 부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77년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체에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부설 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1979년에는 1,108개의 산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여 40,000여명의 근로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던 것인데 이러한 실업교육의 추세에 많은 우도출신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과거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했던 우도의 여학생들의 경우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물질을 선택했던 것인데 이제 산업체부설학교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적 욕구도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년 대비 55%를 상회하는 여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열은 우도의 독특한 사정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학교교육 기회를 보상해 준다는 정부의 시혜적 차원에서 실시된 산업체부설학교는 교육과정과 내용이 근로청소년의 실제와는 동떨어져 있거나 회사에서 취학을 미끼로 근로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 등의 문제점도 많았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욕구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이유에서 일단 우도의 여학생들에게는 교육적 폐쇄회로를 열어주는 장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상급학교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단당했던 우도의 여학생들에게도 그 문호가 개방되게 되었다.

도내의 상급학교는 대개 남학생들이 진학했으며 많은 수가 가까운 성산수산고등학교에 적을 두었다. 성산수고에서는 우도 출신의 학생들을 위해 납입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대신 우뭇가사리나 톳 등이 채취되어 마을 주민들이 목돈을 만지게 될 무렵 납입금을 해결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주민들과 합의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예를 들자면 대정 지역이 감자 수확에 따른 판매시기를 통해 납입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유사한데 이 모든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당대의 삶과 무관할 수 없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실감케하는 일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상급학교의 진학에 따른 우도 주민들의 교육적 부담은 매우 컸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앞에서도 보았듯이 상급학교 진학률이, 특히 여학생의 그것이 저조했던 것이고 따라서 우도 주민들은 그러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산업체부설학교와 같은 기회를 적극 이용하고자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급학교 재학 때문에 제주시내 등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클 수밖에는 없었다.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 인문계보다 실업계를 많이 지원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도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득원으로는 풍부한 해산물로서 여러 해산물들 가운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뭇가사리는 특히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우뭇가사리 철에는 손이 아쉽기 때문에 자연 집안 식구 모두가 동원되기 마련인데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를 조퇴하는 게 상례였다. 그렇다고 학생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우뭇가사리가 풍부한 지역의 학생들은 조퇴를 하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수업을 받는 형편이라 정상적인 교육이 문제되었다. 이같은 조퇴 문제는 최근까지도 논란되던 문제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케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학교는 공부할 과제의 구조(academic task structure)와 함께 사회적 참여구조(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가 동시에 논의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전자의 구조만을 강요하는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파행성은 우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뭇가사리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참여구조 요인에 대해 학교가 배타적이 됨으로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오히려 "감자방학"이나 "벌초방학" 등의 방법으로 교육의 의사소통 참여구조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연하게 화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왜 우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보다는 강경한 교육전략을 고수했는지 의문이다.

우도 학에서 상급학교를 다니던 여학생들은 우뭇가사리 철에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채취 작업을 도왔는데 토요일 방과 후에 귀향하여 일요일까지 작업을 한 뒤 월요일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빌린 배를 이용하여 다시 등교를 하던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산물 채취가 우도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실감케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해산물을 원천으로 하여 교육비를 부담하기는 우도 전체가 적는 형편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물질'이 자연 큰 몫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질은 우도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다도해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출가도 장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 여성들의 끈기나 해녀들의 강인함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도의 여성들은 바다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처지에서 더욱 억척스러웠던 것이고 그러한 억척스러움의 결과로 우도의 교육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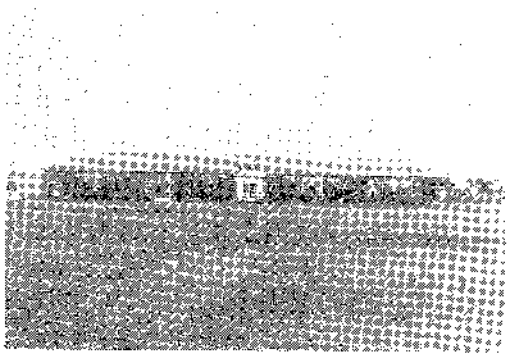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연평중학교가 그런대로 안정되었던 시기는 80년대였다. 80년대는 재학생수도 안정되게 유지되어 학급당 인원수도 1개 학년 2개 학급규모로 평균 40명 수준이었다. 80년도 우리 나라 중학교의 학급당 수요인원이 평균 66명이었고 정부에서는 87년에 57명 수준으로 감축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연평중학교의 학급규모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안정세는 급격히 와해되면서 재학생수도 격감하고 그에 따라 학급수도 종내는 1개 학년에 1학급 40명 규모로 감소된다. 이것은 移村向都의 당연한 결과로서 그러한 추세는 우려할 만큼의 가속도를 갖고 있다.

제4절 맺 음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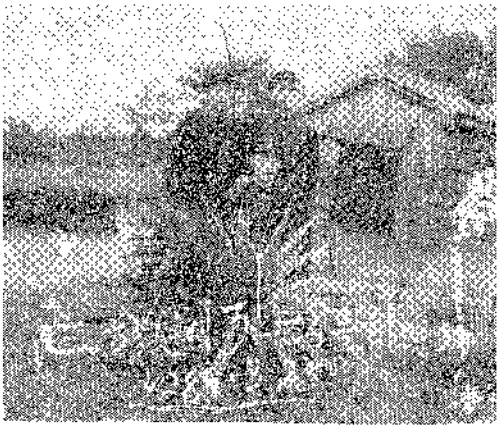
우도의 교육전통은 제주도의 올곧고 내용찬 교육전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만큼 우도의 교육은 그 전통이 역사적으로 풍부하다는 말이다. 그것은 우도에 사람들이 발을 디딘 시기부터 그 험난했던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우도의 교육은 역사만들기(Geschichtemachen)라는 명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말이 된다. 특히 학교설립을 둘러싸고 웅변한 우도 주민들의 공동체적 강고성은 제주교육 전통의 귀감이며 제주교육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過疎化 후기산업사회의 대세는 우도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도 교육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 그 모든 시간대를 한꺼번에 쇠락케 한다는 데 치명적이다. 분교 또는 폐교로 진행되는 학교규모의 회실에 따른 걱정보다는 그 동안 우도가 우직하게 견지했던 교육전통의 상실이야말로 가장 심대한 도전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몫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도 주민들과 더불어 모두의 기꺼운 부담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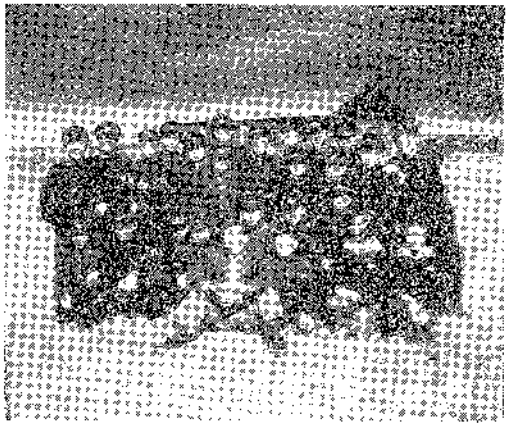
연평중학교 관련사진



구교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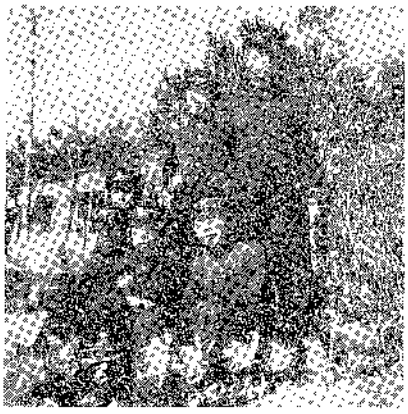
1958년 학생모습



1957년 학생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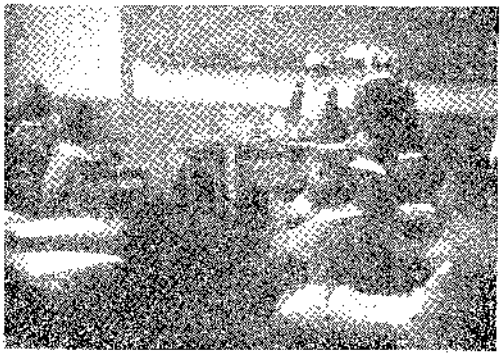
1957년 기술부 학생



1957년 학생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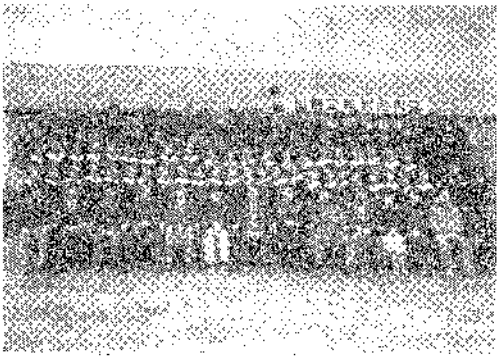
1957년 학생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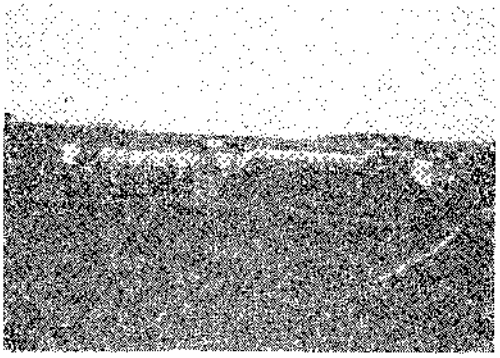
가사실습 광경(1961년)



교실내 풍경



언평중학교 제26회 졸업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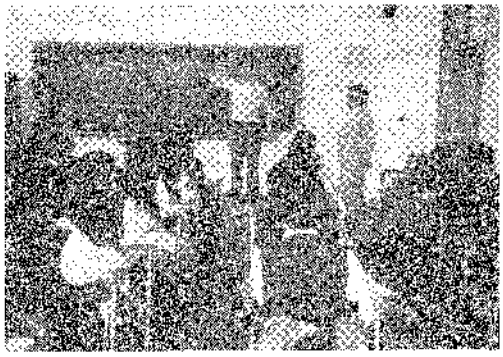
교내체육대회(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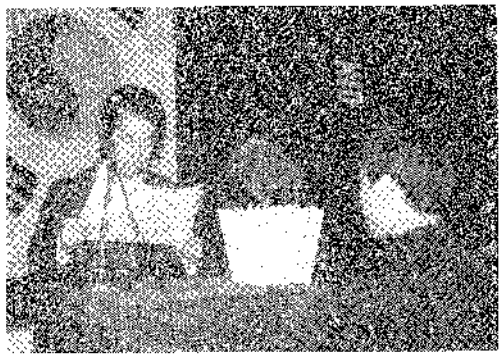
교내체육대회(응원)



교내체육대회(씨름)



원어민 1일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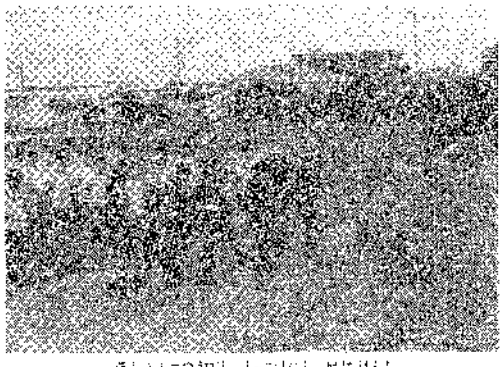
제24회 졸업식장에서 낭클로임회장상 시상



장한어머니상 시상



제37회 졸업식서 동문회장상 시상



청소년환경 누리단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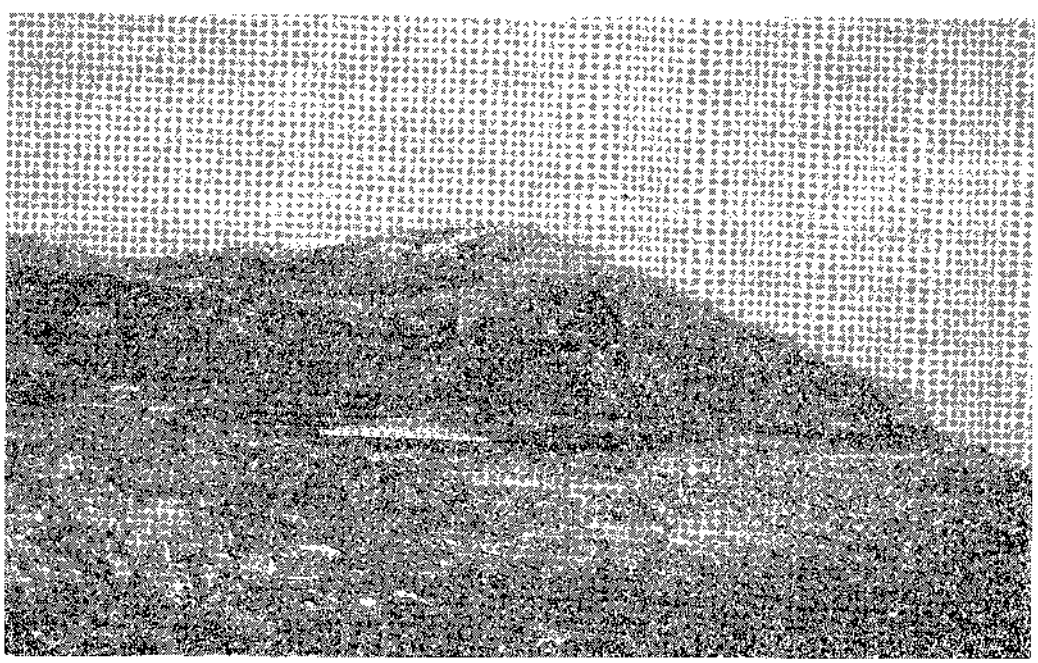


대전보호 활동

제3장 行 政

제1절 概 觀

1. 牛島面의 位置 및 自然



우도항에서 본 섬머리 전경

牛島는 濟州道의 '섬중섬'으로 11개의 자연마을이 해안선을 따라 각각 洞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본 섬 중앙에 中央洞이 있어 모든 공공시설물이 집중되어 있다. 마을에서 "중앙에 간다"하면, 面 單立의 원로회의,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청년회, 부인회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里 單立 대표들이 중앙동에 모이거나, 농협, 수협, 우체국, 보건소 등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마실가는 일'로 받아들인다. 새로 생긴 中央洞은 모든 마을과 통한다. 따라서 牛島面의 行政은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인 마을과 行政의 中心地인 中央洞을 잇는 11개 마을의 疏通關係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도면의 행정구역은 4個里, 12個 자연마을, 24個 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도면은 濟州島의 동쪽 끝에 위치한 제일 큰 섬이다.

우도면은 '우목개 성창(하우목동 포구)'에서 서쪽 구좌읍 종달리까지는 2.8㎞, '우도 나루'에서 남서쪽 성산항까지는 3.8km 떨어진 海上, 東經 126° 58′ 北緯 33° 29′ 지점에 位置하고 있다. 도항선을 타면 10分 거리지만, 물살이 세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폭풍주의보가 내리고, 출륙이 금지된다. 氣象臺 자료에 의하면, 연중 최고 기온이 36° 4′, 최저 기온이 -4℃로 年平均 氣溫이 16℃이며, 연평균 降雨日數도 제주시 쪽의 102일보다 37일 많은 139일이며, 降雨量은 1,800㎜이며, 바람이 잦아 겨울에 눈이 잘 쌓이지 않는다.

우도면은 완만한 경사의 넓은 경지를 가지고 있다.

牛島面의 地勢를 '물소가 머리를 내민 모양' 즉 牛頭型, 또는 '소가 누운 형국' 이니 臥牛型이라 하기도 한다. 이 섬 南端에 해발 132m의 牛島峰이 솟아 있고, 깎아지른 듯한 斷崖가 奇異한 岩壁을 이룬다. 속칭 '광대코지'라고 하는 이 부근에는 해식동굴이 형성되어 햇빛이 동굴 속을 비추면, 신비로운 광선의 조화에 의해 소위 '晝間明月'이라는 絶景을 이룬다. 이 우도봉을 기점으로 傾斜가 북으로 완만하게 뻗어 섬 전체가 굴곡이 없으며 평탄하고 단조롭다. 그래서 牛島

1. 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와 같다.

· 영일동	망김항종(남, 81세)	· 상고수동	김윤일(남, 82세)
· 서천진동	신인홍(남, 74세)	· 하우목동	오영돈(남, 68세)
· 영일동	여성화(남, 62세)	· 비 양 동	강기현(남, 69세)

는 '물에 떠있는 뜰관' 이란 뜻으로 1900년부터 '濱坪'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생겼다. '濱坪', '소섬' 또는 '牛島'라는 지명은 이러한 地勢를 반영하고 형용한 이름일 것이다. 李元鎭의 「耽羅志」 濟州牧 山川條에 보면,

牛島는 주위가 50리로 濟州牧의 동쪽 旌義縣과의 경계에 있다. 인마가 시끄럽게 떠들면 문득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섬 서남쪽에 굴이 있는데 작은 배 한 척이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들어가면 5, 6척을 감출 수가 있다. 그 위에 있는 큰 암석이 집과 같아서, 마치 햇빛이 떠서 빛나면 별빛이 황홀 찬연하게 줄지어 늘어선 것 같다. 그곳은 공기가 몹시 차가워 머리털이 주뼛해진다. 사람들은 이곳을 "신령한 龍이 사는 곳"이라 한다. 7, 8월 사이에는 어선들이 다니지 못한다. 나갔다가는 큰 바람이 일어나고 천둥이 쳐서 나무가 뽑히고 곡식을 손상시킨다. 그 위에는 닥나무가 많다 (牛島周五十里 在州東旌義之境 人馬喧則便有風雨 島之西南 有竇可容一小船稍進則可藏船五六艘 其上大石如屋 如有日光浮耀 星芒燦列 氣甚寒凉毛髮竦然 俗稱神龍在處 七八月間 漁舟不可往 往則大風雷雨 拔木損禾 其上多楮木

1930년에 발간된 「濟州島便覽」에 보면, "牛島는 旌義面城山浦의前大洋三十里許에在한바島의模樣이似牛와恰似한故로牛島라名稱하였다한다周圍가約三十里이니元來無人孤島로써國有牛馬와牧畜場이러니距今八十七年前憲宗八年(西紀千八百四十三年)壬寅에비로소主民함을許可하였으니現在家屋數가五百餘戶달하고있다."」라고 하였다.

2. 牛島 住民의 生活과 經濟

우도면은 豊富한 漁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 마을이 형성된 것이며, 마을은 豊富한 海産資源에 기대어 살아간다. 농경지 역시 취락 가까이 흩어져 있다. 우도면은 南北 길이 약 4㎞, 東西 길이 약 3㎞이며, 1996년도 우도면 업무보고에 의하면, 면적은 6.05㎢로 북제주군 면적의 0.8%에 해당된다. 그리고 경지면적은 4.4㎢(73%), 林野는 0.9㎢(14%), 기타 0.75㎢(13%)이며 戶當 耕地面積은 0.7ha이다.

그리고 가구 수는 624가구(농어가 90%)이고, 인구수는 2,007명(남 47%, 여 53%)로 우도면민 대부분이 半農·半漁의 농어민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점이 특징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것은 제주도 전체가 보편적이지만, 특히 우도면은 미역·우뭇가사리(천초)·톳·갈태·분어·해삼·전복·소라 등 1種

共同漁場에 해산물이 풍부하여, '물질(潛嫂業)'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도년의 海村的特性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표 1〉 우도면의 가구 및 인구의 변화

연 도	가구수	인 구 수			호당인구	비 고
		남 자	여 자	계	평 균	
1929년	441	1,081	1,283	2,364	5.4	84.3
1968년	682	1,621	2,015	3,636	5.3	80.4
1973년	687	1,480	2,070	3,550	5.2	71.5
1988년	695	1,582	1,753	3,335	4.8	90.2
1992년	651	1,398	1,609	3,007	4.6	86.9
1993년	621	1,032	1,211	2,243	3.6	85.2
1994년	622	1,020	1,167	2,187	3.5	87.4
1995년	617	988	1,122	2,110	3.4	88.1

〈표 2〉 마을별 인구현황

○ '95.12.31 현재

마 을 별	통 별	세대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서 광 리	상우목동	28	85	44	41	
	하우목동	42	208	98	110	
	중 앙 동	45	111	58	53	
	소 계	115	404	200	204	
천 진 리	동천진동	76	245	120	125	
	서천진동	60	176	81	95	
	소 계	136	421	201	220	
조 일 리	영 일 동	70	238	115	123	
	비 양 동	84	279	130	149	
	소 계	154	517	245	272	

마을별	동 별	세대수	인구수			비 고
			계	남	여	
3. 봉 리	주 흥 동	46	139	62	77	
	삼 양 동	36	129	63	66	
	전 홀 동	47	150	60	90	
	하고수동	37	127	59	68	
	상고수동	34	108	52	56	
	소 계	200	653	296	357	
총 계	12 개 동	905세대	1,995명	942명	1,053명	

우도면 주민들은 半農·半漁의 經濟生活을 한다. 그러나 牛島面은 4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부한 漁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도면의 주요 산업은 遊日洞을 제외한 경우, 主漁 副農, 즉 어부날이 어장과 해녀들이 바다 밭에서 거둬들이는 소득이 주 생활원이며, 여기를 통하여 밭일을 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遊日洞은 耕作地가 다른 마을에 비해 넓고, 漁口의 立地條件이 좋지 않아 협소하기 때문에 漁船이 적고, 넓은 어장을 가지고 있으나 해녀도 비교적 적다. 이 마을은 농사를 주로 한다.

우도면의 戶當 平均 耕作面積은 0.7ha에 이르므로 그다지 비좁은 편은 아니지만 농토가 척박하여 식량을 自給自足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하여 쌀 자루를 들고 細花里 장터를 드나들던 복이라 하여 '잘리목'이란 지명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식량사정이 좋지 않고 가난했던 한 마을의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우도면 주민들은 渡航船을 이용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終達里를 주요 거점으로 하여 天津洞, 牛目洞, 鼎鼓洞, 錢峙洞 포구에서 風船으로 본도와 왕래하였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육지 출입이 빈번해지자 1930년대로부터 성산포항을 거점으로 연락선이 왕래하게 되었다. 지금은 渡航船이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본도와의 출입이 어려웠던 시절은 통혼권에도 영향을 준다. 우도면 주민들이 본도와 혼인을 맺는 경우는 드물고, 面내혼을 그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우도면

12마을이 친인척을 이루어 冠婚喪祭 면에서 거대한 協扶組織을 이루고 있어서, 집안의 대사를 치르는 데는 몇 날씩 걸리며 부조금의 규모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만큼 면 전체가 地緣으로만 맺어진 것만이 아니라 血緣共同體이며, 儀禮共同體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표 3〉 島民의 생활수준(1995년 현재)

가구수 : 605가구

호 당 소 득	1,300만원(연소득)	T V 보 급	605대(100%)
상 수 도	605 전 (100%)	주 택 보 급	605동(100%)
전 기 보 급	605 호 (100%)	냉 장 고 보 급	580대(96%)
전 화 보 급	570 대 (94%)	농 기 계 보 급	522대(91%)
신 문 보 급	250 부 (41%)		

제 2 절 行政의 變遷

1. 朝鮮 時代

朝鮮朝 牛島面의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면,

1842年 入耕許可를 얻었다.

1844年 金錫麟 進士 等 一行 入島하였다.

1900年 鄕校訓長 吳幼學 先生이 演武으로 命名하였다는 간단한 史實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入耕許可 이전에 牧馬場이 있었으니, 牧夫 등 유동적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李元鎭의 耽羅志에 「牛島 牛島飛陽島 俱有之」라는 기록이 있고, 淡水契編 耽羅誌 「牛島場 舊左面 新邑里에 在하니 輪圍이 五十里요, 大處에 水가 有하다 今廢」라는 기록이 있으며, 金錫翼의 耽羅紀年 숙종 24년(1698년)에 보면, 「貢賀馬二匹餘匹放于牛島」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17세기 말에서부터 牛島에 목마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마장의 명칭은 牛島場이며, 마소를 먹일 물이 6개소에 산재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844년 金錫麟 進士 일행이 入島하기 50여년 전부터 食水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牛島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中葉부터다. 주민들은 주로 舊左邑을 비롯한 제주시 동쪽 북제주군에서 이주해 왔으며 城山浦 以南의 남제주군에서 移住한 경우는 드물다. 조선시대로 보면 旌義縣에서보다는 濟州牧에서 이주하였던 것이다.

2. 일제치하

1927年에 牛島는 단일리로서 演坪里를 2개구(1區, 2區)로 區分하였다. 그리고 1931년 2個區를 다시 演坪里로 통합하고, 統合里長制를 復活하였다.

牛島는 점차 인구가 증가하여 後海洞·天津洞·古水洞·飛陽洞·錢乾洞·周興洞·牛目洞·三陽洞 8개 자연마을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15년 牛目洞을 上·下牛目洞, 天津洞을 東·西天津洞, 1949년 古水洞을 上·下古水洞으로 나누어, 11개 마을이 되었으며, 1970년부터 中央洞이 새로 생겨 12개의 마을이 되었다. 우도의 행정 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술국치(1910년) 이후, 1927년 區長制가 생길 때까지는 강 경민장이란 분이 마을의 里政을 맡아 보았다 한다. 朝鮮朝로부터 日帝 때까지 우도면 里政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조선조에 있어서 本島 마을 행정을 보면, 마을 자치적인 공동체 조직으로서 마을 鄕會가 있었고, 이 鄕會는 ①鄕長 ②警民長 ③尊位 ④農監 ⑤議察 ⑥洞將 ⑦任(下輩)의 체계였다. 각 所任의 職務는 아래와 같았다.

① 鄕長 : 덕망 있는 자로서 鄕會에서 추천되며, 마을의 長이다.

② 警民長 : 警民篇에 의하여 里民의 啓蒙 및 警防에 대한 事務를 담당하였다.

③ 尊位 : 一般庶務의 事務를 處理하였다.

④ 農監 : 농사에 관한 事項은 물론, 토지등급의 조사, 稅穀의 査定과 牛馬에 관한 事項까지 處理하였다.

⑤ 議察 : 看察, 捉拿 等 防犯에 관한 事項을 處理하였다.

⑥ 洞將 : 任 以下의 下輩(使喚)를 통솔하였다.

이상의 소임 중, 警民長과 尊位는 里民의 추천을 거쳐 관에서 任命하였고, 農監, 議察, 洞將은 警民長과 尊位의 推薦으로써 鄕會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우도면의 康 警民長 시절은 마을의 자치조직으로 마을의 里政을 운영하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里政期는 1927년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1927년 區長制度가 생기면서 1931년 이 制度가 폐지되기까지 행정구역이 2個區로 분할되었던 때도 있었다. 그 당시의 1, 2구를 보면,

1區는 古水洞, 三陽洞, 錢屹洞, 周興洞이고,

2區는 後海洞, 飛陽洞, 牛目洞, 天津洞이다.

歷代 구장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역대 구장 명단

1927 - 1931년

연 대	1구(고수 · 삼양 · 전흘 · 주흥)		2구(후해 · 비양 · 우목 · 천진)	
1927년	1구 구장	김기석	2구 구장	김진석
1928년		강찬기		김문선
1929년		고평오		양문구
1930년		윤관종		한칭도
1931년		고자화		김해일

1931년 구장제가 폐지되고 통합이장제가 도입되면서 해방이 될 때까지 고자화씨가 계속 里長職을 맡았다(김유일씨 담).

3. 解放 以後

1951年 7月 1日 舊左面 洞里出張所가 設置되었다.

해방 이후, 통합 里長制가 없어지면서, 각 자연마을 단위의 자치적인 이장 활

동기가 있었다. 이 시기까지 12개 마을 전체가 합동으로 치르는 공동체적인 의례로서 마을 포제가 있었으나, 포제 등의 마을 공공행사 기금을 마련하던 演坪里 所有의 '뚠비양(飛揚島)'이 소유권 이전되면서, 포제도 역시 자연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牛島의 里政은 1951년 7월 1일 구좌면 연평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다시 里長을 선출하여 마을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酬祭는 자연마을 단위의 마을 자치조직인 향회를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後海洞 속칭 '뒷바당'은 1970년 迎日洞으로 개칭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학교 및 각 사무소가 밀집되고 家口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中央洞이다. 그 뒤, 1980年 12月 1日 舊左邑 演坪出張所가 생기고, 1986年 4月 1日, 드디어 12개의 자연취락을 중심으로 한 4個里를 1個의 面으로 하는 面昇格이 이루어져 北濟州郡 牛島面이 되었다.

우도는 면이 되면서 4개 里로 된 겁니다. 면이 된 때가 86년도인데, 76년도에 홍주표 군수 당시 면승격운동을 한 겁니다. 전부 군에 올려 건의했고, 홍 군수가 내무부까지 상신을 했는데 좌절되었습니다. 운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실지 면승격은 86년 4월 1일에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실감을 못했지요. 그날이 만우절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사실상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야 면으로 승격된 것이 사실임을 안 거지요.(오영돈씨 담).

1951년부터 1986년 面昇格 以前까지의 演坪里의 역대 이장을 역임한 분들은 아래와 같다.

〈歷代 里長〉

· 1대	里長	고태주	· 8대	里長	양성하
· 2대	里長	고한권	· 9대	里長	윤유흥
· 3대	里長	윤수백	· 10대	里長	강용전
· 4대	里長	김응석	· 11대	里長	윤봉찬
· 5대	里長	김필환	· 12대	里長	오영돈 (1968-1979년)
· 6대	里長	정찬주	· 13대	里長	고윤팔
· 7대	里長	고지현	· 14대	里長	김승태

이와 같이 김승태씨를 마지막 里長으로 하여 1986년 4월 면으로 승격되었다(오영돈씨 담).

저는 68년 12월에 이장에 부임 받아가지고 79년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이장을 하면서 뭘 목표로 했는고 하니 제가 이장하기 전까지는 이장 사는 집이 이사무소여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사무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지요. 그게 69년도였는데, 사무소를 어떤 방법으로 지었는고 하니 주민 부담은 없었지요. 재일교포 김용숙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천군데 이 부락 사람이지요. 그 분의 도움을 받아 종합식당 그 자리입니다. 그 부근이 옛날 운동장 터지요. 왜 '운동터'라고 이름이 붙었는고 하니 당시 演明書堂, 演明義塾 전에 연명서당 학교에 운동장이 없었지요. 그러니 김화하라는 할머니가 牛島에 희사를 한 겁니다. '운동터'는 할머니가 희사한 건데 이장들이 소홀히 해서 이소유로 이전을 해 두지 않았던 관계로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 개인 땅이 돼버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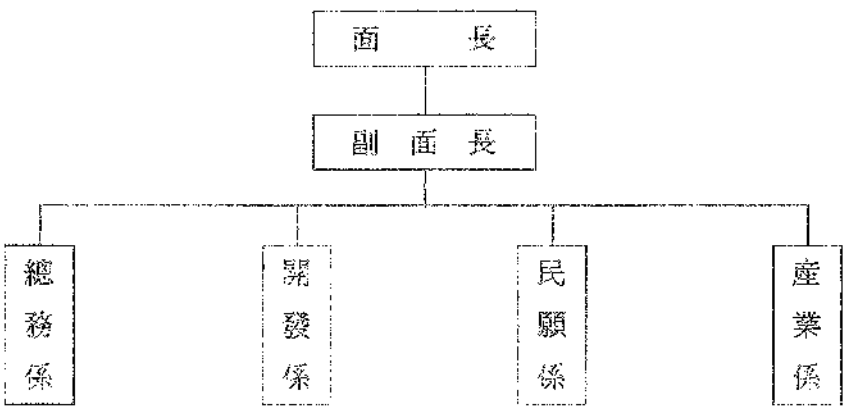
원래 중앙동이란 동은 집이 없었습니다. 육지사람 한 분이 살았는데 제가 이사무소를 짓고, 그 다음에 어촌계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민가가 늘어가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 군데 집이 생겼지요. 농협을 지으려고 하니 등기부 등본상에 김화하라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운동터를 준 할머니로 소섬에 연고가 없는 줄로 알았는데 제적부를 떼고 보니 전씨라고 한 사람이…… 할머니가 그 집안에 시집가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 집에 시집간 후 이 밭이 이전된 것 같아요. 운동터도 공유지로만 알았는데 난데없이 소유자가 나타나 당하게 된 거지요(오영돈씨 담).

제3절 面 行 政

1. 機關 및 團體

1) 面 行 政

〈機構 및 定員〉



〈面開發諮問委員會의 構成〉

委員長 : 高竝秀, 副委員長 : 鄭萬植

委 員 : 全尙萬, 康安根, 梁桂英, 高龍淑, 高益煥, 姜哲石, 申仁弘, 金在玟

〈里長 및 部落長〉

天津里(里長 : 申敎植) ——— 東天津洞(部落長 : 金正吉)
西天津洞(部落長 : 梁熙進)

西光里(里長 : 金勝泰) ——— 中 央 洞(部落長 : 현재 공석중)
上牛目洞(部落長 : 鄭萬植)
下牛目洞(部落長 : 鄭賢一)

五逢里(里長 : 高財秀) ——— 周 興 洞(部落長 : 梁順京)
三 陽 洞(部落長 : 任淳弘)
錢 岭 洞(部落長 : 康淳吉)
上古水洞(部落長 : 梁相浩)
下古水洞(部落長 : 高海哲)

朝日里(里長 : 金榮澤) ——— 飛 陽 洞(部落長 : 韓在弘)
迎 日 洞(部落長 : 金在玟)

2) 公共施設

〈표 5〉 우도면 공공시설 현황

區 分	計	면사무소	학 교	파출소	우체국	농협지소	수협출장소	전화분국	한전주재소	등 대	401레이다기지
個所	11	1	2	1	1	1	1	1	1	1	1

이 機關 가운데 燈臺·牛島파출소·401레이다기지대를 빼면 모두 中央洞에 밀집되어 있다.

3) 敎育施設

〈표 6〉 우도면 각급 학교 현황

計	中 學 校	初等學校	幼 稚 園	幼 兒 園
4個所	1	1	1	1
310명	102명	115명	48명	45명

1954년 開校한 演坪中學校는 현재 3학급 102명이 在學하고 있으며, 1918년 설립된 演明義塾이 1929년 演明書堂으로 바뀌고, 이 곳이 뒤에 演坪初等學校가 되었다. 演坪初等學校는 현재 7學級 115명이 在學하고 있다. 1981년 3월부터 연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인가되고, 1987년 1월부터 유아원이 인가되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4) 便宜施設

〈표 7〉 편의시설

醫療施設		環境衛生施設			食品衛生施設
保健支所	藥舖	旅館	民泊	理·美容	大衆飮食店
1	1	1	28	4	7

2. 社會團體

■ 마을 원로회의(會長 : 申仁弘)

마을원로회의는 노인회의 65세이상의 원로등이 모여 또단위로 精神訓導나 地域開發 등을 논의 한다. 마을마다 〈지역개발위원회〉와 〈마을원로회의〉가 있는데, 지역단위 개발위원회에서는 모든 결의를 하고 마을원로회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마을 원로회장은 아래와 같다.

天津里 申仁弘

西廣里 吳永敦

五逢里 姜哲石

朝日里 高龍淑

■ 우도 노인회(會長 : 申仁弘)

우도 노인회는 남녀 합하여 회원이 260명 가량 된다. 지금 노인회장과 원로회

장은 겸임한다. 노인회는 원로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노인들 사이의 친목이나 화합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어서 거기서 서로 토의도 하고, 학생들에게 한자도 가르친다.

■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전직 지도자, 이장, 중앙연수교육을 받은 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은 20여명 정도이고, 주 사업은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교통질서 및 각종 분야의 지역 새마을 운동을 주도한다.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같은 성격을 띤 여성단체로 里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의 복지, 경로관계, 마을 청소 관계, 가정의례간소화 관계, 답례품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 장	김승태
부 회 장	강순임, 김철수
총 무	여완형
감 사	고운괄, 한두정
운영위원	오종영, 강철식
	고호수, 윤경식

〈새마을부녀회의 구성〉

面 會 長	金恒子
面 副 會 長	安仁淑
面 總 務	呂惠淑
天津里會長	金英淑
西光里會長	梁連心
五逢里會長	金淑子
朝日里會長	禹敬洙

이 밖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會長 : 金哲秀), 청년회, 산호조기회(會長 : 金光珉), 청솔회(會長 : 尹才豪), 신우회(會長 : 高豪秀), 상록회(會長 : 尹奉春), 백송회(會長 : 呂完炯), 운봉친목회(會長 : 金鳳三), 동우회(會長 : 吳永敦), 성진친목회(會長 : 梁泰橘), 우도남시회(會長 : 강영길), 우도의용소방대(隊長 : 禹永壎) 등이 있다. 청년회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청년들로 조직되어 있다. 面단위, 里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단위 청년회가 里단위 청년회를 총괄한다.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관계나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산호조기회는 기관단체 간의 축구대회를 개최하며 북제주군기 쟁탈 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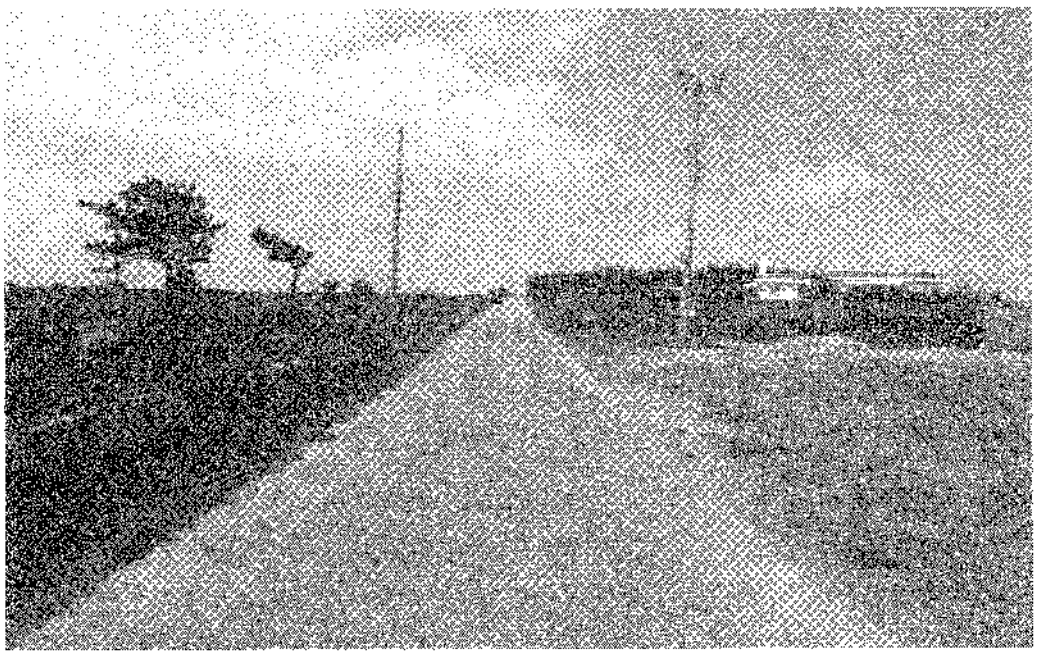
대회에 우도면 대표로 참가한다.

청솔회는 처녀·총각들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協扶組織이다.

그리고 도외 단체로 일본, 동경, 서울, 부산, 경남, 충무, 삼천포, 제주시 등지에 우도면민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특히 부산에는 400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여 在釜山牛島面民會(會長 : 梁豊島)가 활발한 애향활동을 하고 있다.

제4절 開發事業

1. 도로포장 사업



등천잔등에서 주흥동까지 말끔히 포장된 도로

牛島面의 道路는 地形을 이용하여 洞里를 연결하는 小路뿐이었다. 1971년 당시 鄭左面長 康大七氏가 앞장서서 東大津洞에서 成興洞까지 幅3.6m와 각 동을

連結하는 일주도로와 중앙로의 중앙에서 迎日洞-飛陽洞-上牛日洞까지의 간선도로 幅 約 2.4m의 도로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주들의 불응으로 隘路가 많았고, 도로의 굴곡선도 많았지만 本島의 개발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다.

농로확장은 7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기존도로는 4미터인데 일제치하시 개설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힘이 크긴 컸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고 하니 자갯짐을 졌거든요. 예. 그 다음엔 좀 발전되니까 마차, 지개, 리어카 그 다음엔 경운기가 생겼지요. 차츰 길이 넓혀지고 포장되어가니 이제는 차가 생기게 된 거지요. 포장은 71년부터 시작되었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마을은 크게 손해를 봤지요. 크든 작든 새마을 운동으로 나오는 시멘트는 500포입니다. 규모는 면 규모인데 또 단위 예산으로 새마을운동을 한 겁니다(오영돈씨 담).

(표 8) 우도면 도로 포장 현황(1995년 현재)

區 分	연 장 (km)	포 장 (km)	포 장 률 (%)
계	63.4	35.5	56
군 도 로	12.5	11.9	95
농 어 촌 도 로	15.1	10	66
농 로	35.8	13.6	38

(표 9) 우도면 자동차 보유 현황(1995년 현재)

區 分	승 용 차	승합자동차	마 을 버 스	화물자동차
149대	73대	9대	5대	62대

2. 통신 및 전화사업

1970년 한국통신 성산포전화국 우도분국이 생겼다. 그리하여 전신 및 전화는 每日 3回(午前 8-10時, 正午-下午 2時, 下午 4時-6時 사이)각각 1시간씩 연락할 수 있었다.



1970년 성산포전화국 우도분국이 설립됨으로써 본도와의 통신이 가능케 되었고 지금은 자동식 전화 740회선이 가설되어 있다(사진은 제주우도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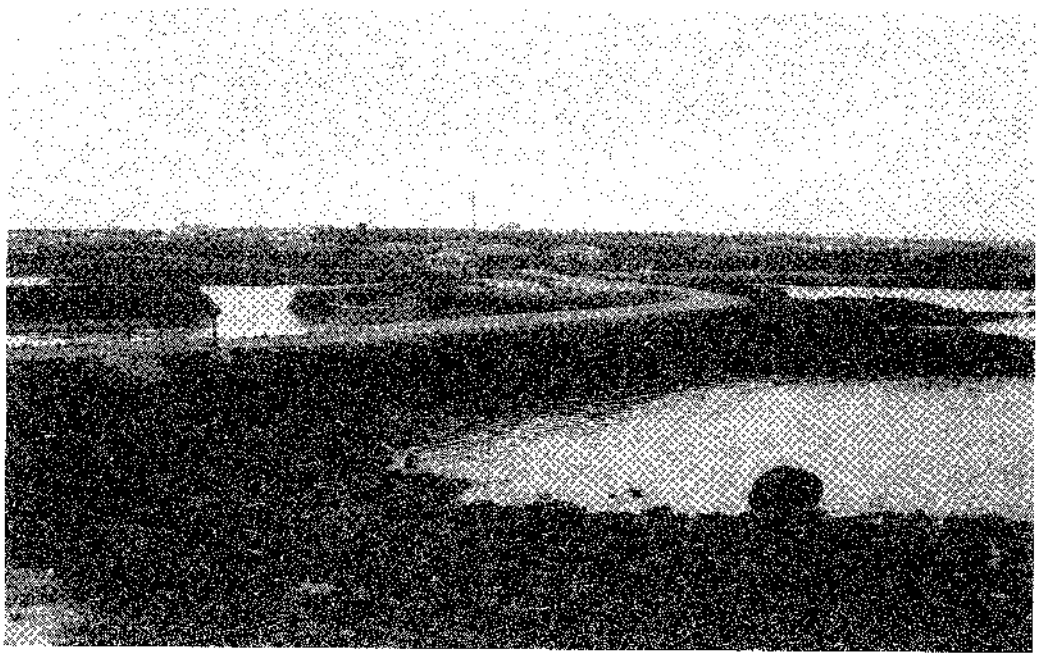
1979년 12월 27일 우도에 체화우체국 牛島분국이 설치되었다. 1980년 6월 23일 磁石式 電話 100回線이 개통되었고, 1996년 6월 自動式 電話 740回線이 증설되어 통신에 큰 불편을 덜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소섬도 문화생활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땐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지요. 강영석 사장하고 협의해서 자가발전을 시작했지요. 그때가 75년도일 겁니다. 그런데 기계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군수한테 사정해서 한전의 기계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완전히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 주민들 부담만 컸지요. 일단 중지를 하고 한전에 운동을 했지요. 82년에야 겨우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지요(오영돈씨 담).

3. 飛陽洞 도리선창 築造

60여년 전, 그러니까 1930 몇 년에 최남선이란 사람이 비양동에 와 살면서 비양포(또는 비양)를 잇는 다리를 놓는 '도리선창 축조사업'을 청부맡았다. 목도꾼을

빌어 굵은 돌을 나르며 별다른 장비가 없이 이루어진 어려운 공사였다. 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청부를 맡았던 최남선 씨는 큰 적자를 보았고, 임금청산이 안 되어 인부들로부터 구타 당해 병을 얻어 죽었다. 그렇게 어렵게 축조된 것이 '누리선창'이다(강기연씨 담).



비양동 도리선창

4. 1990~1992년 地域開發事業

1990년 지역개발사업은 낙도개발사업 · 새마을사업 · 기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낙도개발사업은 12억 5천7백만원을 들여 저수지 시설(50,000M/T)공사를 완공하였으며, 迂廻道路 1,939m를 포장하였고 방파제 20m를 축조하고, 하수구 421m의 시설공사를 하였다. 새마을 사업은 농로포장 100m, 待合室 주변광장 포장 1,685㎡, 하수구시설 300m, 농로확장 590m 및 저축가옥 4棟을 자력으로 정비하였고, 복지회관 1동을 지을 敷地를 선정하였고, 주택을 개량하는 데 총 사업비 1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하였다. 기타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들여 풍천진



저수지 전경

항 1,241㎡ 준설공사와 쓰레기 매립장 복토작업을 하였다.

1991년 낙도개발사업은 도로포장 2.8km(336백만원), 선착장 시설 30m(100백만원)확충, 도항선 1척 건조(150백만원)에 5억8천6백만원,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 단위 개발사업과 도로포장 사업에 5천4백만원,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신설사업과 저수지 개량사업에 5억4천5백만원의 공사를 하였으며, 푸른섬 가꾸기 사업으로 까마귀쪽나무 1,500본과 돈나무 300본 그리고 무궁화 500본을 植樹하였다.

1992년 지역개발사업은 4개 분야 19건 사업비 20억 5천 8백만원을 들여 이루어졌다. 우선 낙도개발사업을 보면, 사업비 13억 7천2백만원을 들여, 소규모 어항방파제 2개 지구 36m(370백만원)를 증축하였고, 천진항 방파제보강 및 수중암 제거작업(638백만원), 저수지 보완공사로 집수정 231㎡외 1식(85백만원)의 공사와 하고수동 침수지역 120m의 하수구 공사, 검불래 계단시설(21백만원), 도항선 건조(150백만원) 등의 사업을 벌였다. 새마을 사업은 사업비 3억 1천만원으로 비

법정 농로포장 5개 노선 2,060m(240백만원)와 4개 마을 하수구 및 포장 500m (40백만원), 그리고 전흘동 안길 포장 300m(30백만원)를 설계 중이다. 그 밖에도 주거 환경사업으로 농촌주택 2동, 부엌·욕실 13동, 변소 50동을 개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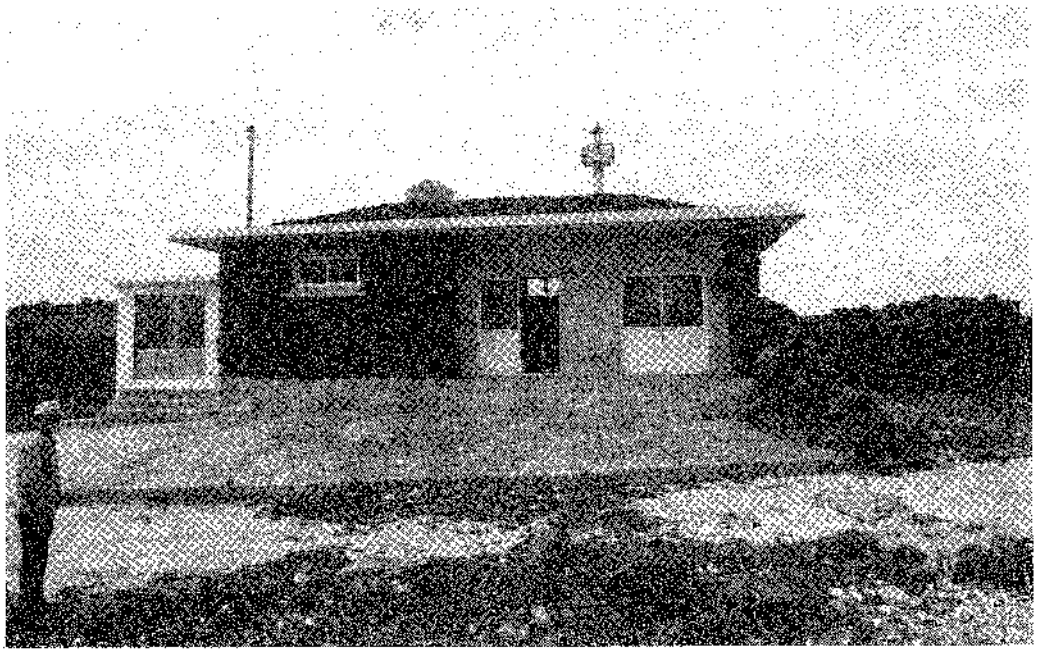
검몰래 계단

5. 1993年 以後 地域開發事業

낙도개발사업은 농로포장 2,885m, 안길포장 1,469m, 하수구시설 556m에 49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 및 욕실개량 31동, 주택개량 3동에 73백만원을 지원, 그리고 농어촌산진흥기반 사업으로 잠수발의장 2개소 시설, 인공어초사업 32ha, 수산물 공동창고 1동, 전복종패 살포 11,500미, 패조류 투석 4ha 등 800백만원을 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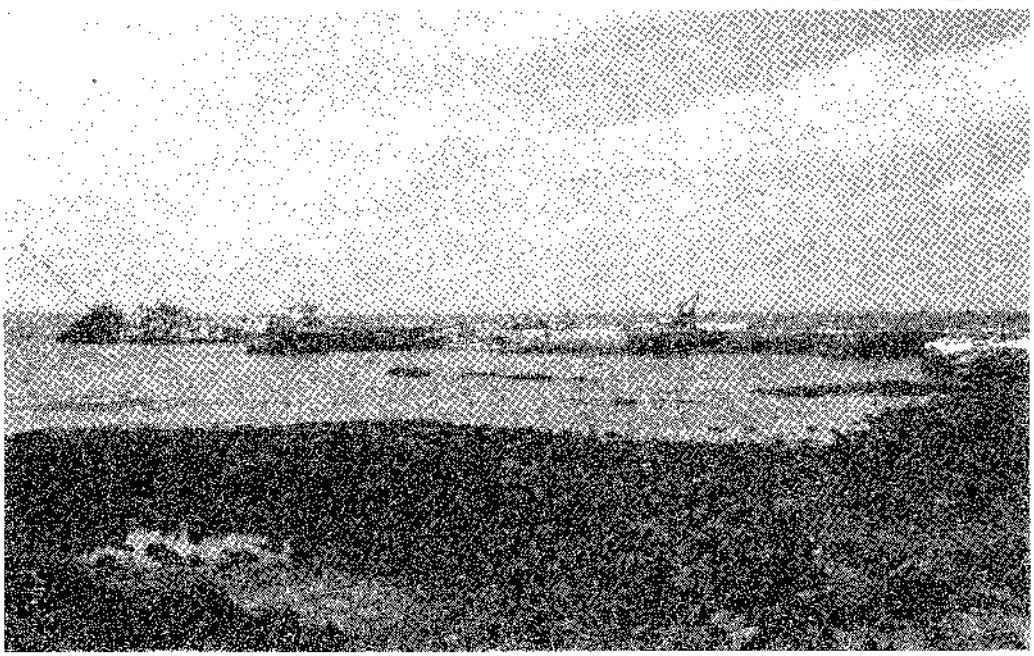
1994년 지역개발사업은 낙도개발사업으로 하우목동 방파제 축조 15m, 물양장 15m, 방파재 보강 30m, 파제벽 25m, 비양동 하수구 시설 310m에 73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포장 1,300m에 157백만원, 그리고 건강한 곡

토 가꾸기 사업 6건에 140백만원,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안길포장 등 7건 1,550m에 170백만원을 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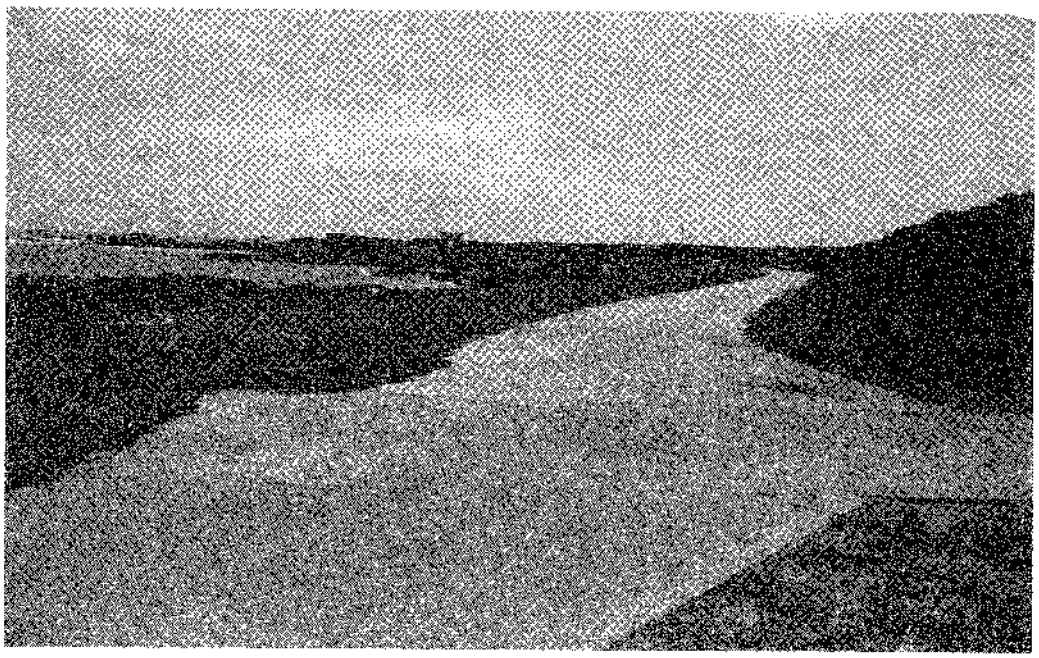


▲ 잠수탈의장 전경

하우목동 방파제 전경 ▼



1995년 지역개발사업은 낙도개발사업으로 군도 재포장 305m, 농로포장 2,135m, 진입로 포장 481m, 해안도로 포장 1,180m, 하수도 시설 982m에 53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녹화사업으로 소규모어항(포구)시설 8m, 진입로 포장 49m, 오봉리 우회도로 500m를 포장 16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5동, 변소개량 32동, 부엌개량 50동에 70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64건에 1,714백만원을 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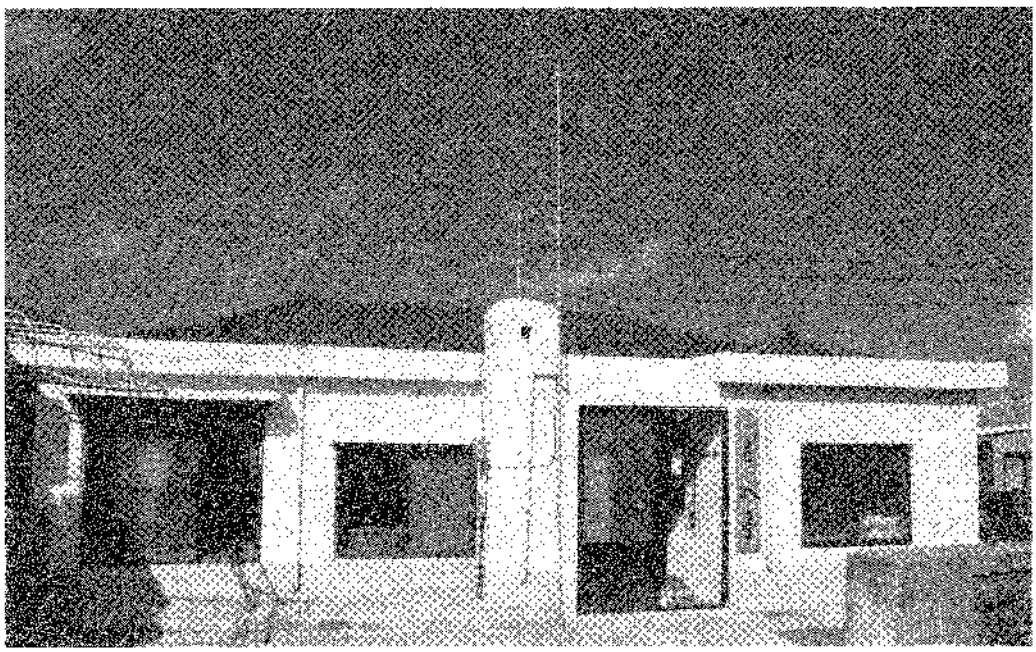


해안도로 전경

〈표 10〉 소규모 어항개발 현황(1995년 현재)

港·浦口別	漁船數(隻)	計	船着場	物揚場	防波堤
計	46	1,218	862	281	75
東天津洞	10	58	46	12	
下牛目洞	9	292	100	146	46
飛陽洞	6	146	110	36	
迎日洞	2	120	120		
虎興洞	10	175	175		
錢屹洞	5	279	229	50	
下古水洞	4	148	82	37	29

6. 社會福祉事業



노인정 전경

사회복지 증진사업으로는 해마다 영세민생활안정, 노인복지 증진, 불우가정 보호,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1995년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8천만원을 지원하여 거택보호 67가구 91명, 자활보호 11가구 22명, 의료보호 2가구 3명, 자녀학비보조 8명, 직업훈련 5명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4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노인정운영을 활성화하였고, 노인건강진단(1회 15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260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였고 노인이·미용권을 46명에게 교부하였으며 효도관광(1회 100명)을 실시하였다.

또, 1천7백만원을 들여 소년소녀가장보호(4가구 4명), 영세모자가정 지원(1가구 2명), 어려운 집 지어주기(2세대), 자매결연 확대추진(78가구 78명)운동을 벌였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하였고 지역별 오물수거 차량을 시간제로 운행하였으며, 쓰레기 감량운동 및 분리수거와 관련 소각장을 설치하였다.

제 7 편 地 域 開 發

제1장 開發方向

제1절 도서지역으로서의 우도

우도는 도서지역이다. 인간의 생활공간, 즉 하나의 경제생활단위로서의 도서는 일반적으로 4면이 완전히 수면으로 둘러싸여 본도로부터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도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육지를 지칭한다. 도서는 이와같은 자연지리적 조건 때문에 본도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은 불리한 점을 갖고 있다. 소위 도서지역은 거의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물·불·발」인 것이다. 물은 식수를 비롯하여 산업용수를 말하며, 불은 전기 및 통신시설을 말한다. 발은 지역내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당장 우도만 하더라도 수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지역주민이 기초생활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이 불안정하여 육지와의 접근성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뿐만 아니라 본도시장으로부터의 격리와 지역시장이 협소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고립성과 폐쇄성 및 교통기관의 미비로 말미암아 문화교류에 제약을 가하여 발전의 주체인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원으로부터 두절케함과 동시에 비합리적이고 정체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발전의 잠재력을 자생적으로 현재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최근에 젊은이들의 이도현상을 가속화하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정부의 도서에 대한 정책 또한 일관성이 없거나 차라리 관심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이름 아래 현재까지 7차에 걸쳐서 각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정책은 변변한 것이 없었다. 굳이 있었다고 해도 새마을 사업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로 인하여 서술한 바와 같이 도서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격감현상이 일어나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1986년에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 후에도 정부가 도서지역에 투자한 돈과 관심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우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을 개발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더 확대하여 말하면 불가피하게 도서지역을 개발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국토이용 측면에서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가 4,000만명이 넘어선지는 오래되었고 2000년대에는 5,0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인구밀도면에서 세계의 2,3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국토의 이용률이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60년대부터 산업화의 추진에 따라 도시와 공업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대도시는 인구 과밀로 걱정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과소라는 양극단적인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0년말 현재 전 국토 99,274㎢중 이용토지(농경지, 공업용지, 대지, 공공용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가 27,000㎢로 전 국토 중 27.2%에 불과하고 비이용토지는 72,273㎢로 전 국토 중 72.8%나 된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 이용되는 국토면적이 점점 많아져 갈 뿐만 아니라, 이미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역시 집약적 이용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도서지역의 개발은 국토 이용면적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도는 다른 도서지역과는 달리 육지와 근접한 거리에 있고 지형이 매우 평평하여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도의 개발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겠다.

둘째, 도서지역은 마지막 남은 청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즉 지역개발의 보완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경제개발의 가속화에 따라 환경오염문제는 이제 경제개발 못지 않게 정부의 중요정책 의제로 되어 있다. 국민들도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고 광범위해졌다. 삶의 질 향상이 개발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환경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국가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해서 도서지역은 개발의 대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제외되었기 때문에 원형대로 보존이 가능할 수 있었다. 좁은 국토, 고도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소득향상은 우리로 하여금 맑은 공기·찬란한 햇빛, 그리고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는 공간을 갈구케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러한 공간과 햇빛이 한량없이 부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도서지역인 것이다.

우도는 현재 제주도내 부속도서 중 유인도로서는 가장 큰 섬이며 우리 나라 유인도 705개 중 인구가 1,000명 이상인 14.7%에 불과한 점을 생각하면 개발의 의의와 잠재성은 여타의 도서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지와의 근접성 면에서 육지와는 불과 3㎞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특히 성산관광개발지역과 가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도의 개발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제주지역내의 관광자원이 과거에 비해 한껏 신비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생각해 볼 때 우도는 깨끗하면서도 신비감을 주는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우도가 지역개발의 대상에서 좀더 많이 투자되고 관심을 많이 받아야 할 지역이라는 것은 명분적으로나 실리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도의 개발방향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우선 우도지역의 자원을 평가하고자 한다. 자원에 대한 평가는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의미외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개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자원의 평가는 인문, 사회자원과 관광자원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원평가를 한 후에 우도가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러한 여건에서 미래의 우도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필자가 여러 차례의 우도 방문과 지역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1991년에서부터 약 3년간 성산포를 중심으로 제주 해안선 개발과 보존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하와이대학교 지역계획과 Karl kim교수와 동행 연구하면서 논의했던 사항도 이 연구에 많은 참조가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우도가 보유하는 자원의 실태와 평가

1. 자연환경

1) 제주도의 동쪽 끝, 「섬속의 섬」 우도

우도는 물소가 머리를 내민 모양(牛頭形) 또는, 누워있는 모양(臥牛形)이라고 해서 소섬(牛島)으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또 이곳은 演坪里라 칭해 왔는데 연평이란 이름은 1900년 訓學을 하던 표선면 성읍리 출신 吳完哲 선생이 「물에 뜬 두둑」이라는 뜻에서 연평이라 명명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우도는 제주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다시말해 우도는 제주도라는 「섬속의 섬」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7백5개의 유인도서 중에는 76번째로 큰 섬이기도 하다.

<표 1> 부속도서를 포함한 제주도 위치에서의 우도

단	지 명	경도 및 위도의 극점	
		경 도	위 도
극 동	북제주군 우도면 조일리(비양도)	126° 58′ 25″	33° 30′ 44″
극 서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126° 08′ 45″	33° 18′ 31″
극 남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126° 16′ 36″	33° 06′ 23″
극 북	북제주군 추자면 시루여	126° 22′ 08″	34° 00′ 00″

출처 : 제주도, 「통계연보」, 1991.

이 섬은 남북 4.9㎞, 동서 2.8㎞로 남북이 동서보다 다소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식수는 샘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봉천수에 의존해왔고 근래에는 5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나 계절에 따라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섬머리오름 정상

우도에의 접근로를 보면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면 약 50㎞ 떨어져 있으며, 버스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산포까지의 접근은 약 1시간 걸린다. 그리고 성산항구에서 3.8㎞ 떨어져 있고, 종달리로부터는 2㎞ 떨어져 있으나 성산항구에서 도항선으로 우도에의 접근은 약 13분 정도 걸린다. 따라서 제주시에서 우도에의 접근은 약 2시간 이내라고 할 수 있다.

우도의 생성과정이나 지형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글(윤정수, 우도의 지형과 지질)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겠으나 큰 맥락만 살펴보면, 우도의 경우도 섬의 형성과정은 제주도 본섬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남동해안에 위치한 우도봉을 제외하고는 고도 35m 이하의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2) 면적 및 토지이용현황

우도의 면적은 북제주군 전체면적의 0.8%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71%가 경지로 이용하고 있어 전국 평균 도서경지면적인 28.4%에 비하면 훨씬 높은 편이다.

<표 2> 면적 및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전 체 면 적	경 지(밭)	임 야	기 타
6.05 (군면적의 0.8%)	4.3 (71)	0.9 (15)	0.85 (14)

자료 : 우도면, 「업무보고」, 1993년.

전술하였듯이 우도는 평지여서 그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도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땅이고 보면 앞으로의 우도의 개발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도의 토지이용형태는 달라질 것이다. 즉, 지금까지 땅콩과 고구마 등 밭작물중심의 토지이용은 1차산업이 사양화하는 현시점에서 보면 토지이용방향에서 대전환이 요구된다. 토지이용방법이 지역개발전략과 동일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도의 토지이용형태는 우도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3) 작은 面

우도의 행정구역은 4개 里, 12개 자연마을, 2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우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작기로 몇 번째 안에 드는 작은 규모의 面이다. 행정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개 里로서 천진리, 서광리, 오봉리, 조일리가 있는 12개 자연마을로 영일동, 비양동, 상·하고수동, 전을동, 삼양동, 주흥동, 상·하우목동, 동·서천진동, 중앙동이 있다. 그리고 전체 24개반으로 행정구역을 지정되어 있다.

이 장에서 우도에서 활동한다든가 설치되어 있는 일선기관 및 자체조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기관 내지 정부투자기관 등 공식기관부터 살펴보면 우도면사무소와 4개의 里에 이사무소가 있다. 면에는 면개발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우도면위원회 등이 있고, 이장들의 모임인 이장협의회와 그 외의 통제관협

의회, 기관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등이 있다. 학교로는 연평중학교, 연평초등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없다. 그리고 기타 기관으로서 우도농협, 우도축협, 우도지서, 우체국, 전화국, 한전출장소, 동대, 보건진료소 등이 있다. 비공식기관으로서는 어촌계, 새마을지도자 우도면 협의회, 의용소방대, 국제승공연합 우도지부, 각 청년회, 농민후계자 협회, 각 부인회, 체육회 등이 있다.

인구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86년도부터 면으로 승격됨으로써 인구와 지역규모로 보았을 때 행·재정지원이 훨씬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기관이 설립됨으로 해서 외부의 선진문화와 정보의 이식, 소비시장의 확대 등은 앞으로 우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含　　義

우도는 우리 나라의 여러 섬 중 사람사는 섬에서는 76번째로 큰 섬이다. 면적으로 볼 때 개발과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발 후 관광객이나 그외 기타 생산방식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개발에 앞서 우선 사회간접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회 기반시설은 우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시설의 확충과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적절한 항구의 시설이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제일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해돋이나 일몰 등을 다 볼 수 있고, 바다와 평지 그리고 오름(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하더라도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2. 인문사회환경

1) 주민이 요구에 의해 개발되어 왔던 역사적 환경

우도는 원래 무인도로서 조정에 진상할 소를 가두어 기르던 곳이었는데, 땅이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1800년 초경부터 사람들이 입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순조 이후 본토민들의 진정으로 인해 목장이 개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토에서 생산되고 있는 곡식으로 다 소화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 따라 주민의 요구로 헌종 8년(1842년)의 <우도와 가파도의 人耕許可>가 농경의 시작이며, 헌종 10년(1844년) 진사 김석린이 벼슬을 그만두고 자청하여 이곳에 정착, 개간한 것이 개척기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도의 개발은 주민의 요구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개발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조선 초기에는 濟州牧의 좌면의 일부였다. 1974년 좌면에서 분리되어 구좌면의 일부가 되었다가 1986년 4월 1일자로 구좌면에서 분리되어 우도면으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2) 인구의 급격한 감소

사람은 토지 위에서 거주하고 토지 위에서 활동한다. 편리한 효율을 추구하는 인간은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는 각종 시설을 토지 위에 설치하게 된다. 지역개발이 인구이동을 유인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인구를 축출할 수 있음은 바로 그 지역의 토지가 정주하는 지역주민에게 타지역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주는가와 비례한다. 지역의 인구는 개발의 주체요 대상이기 때문에 거주 인구의 질과 양은 그 지역개발의 질과 양을 평가해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도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과 전입·전출은 우도지역개발의 잠재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라 할 수 있다.

(1) 절대인구의 감소

우도인구는 매년 크게 줄고 있다. <표 3>에서 보면 면으로 승격되던 해인 1986년도에는 3,325명이었던 것이 1993년도에는 2,243명으로 7년만에 약 33%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감소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감소는 앞으로 우도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면으로 승격된 이후에 더욱 인구가 축소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표 3> 우도면의 인구변화

(단위 : 명, %)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인 구	3,326	3,283	3,254	3,244	3,210	3,210	3,007	2,243
남	1,591 (47.8)	1,531 (46.6)	1,532 (47.1)	1,491 (46.0)	1,495 (46.6)	1,495 (46.6)	1,413 (47.0)	1,032 (46.0)
여	1,735 (52.2)	1,752 (53.4)	1,722 (52.9)	1,733 (54.0)	1,715 (53.4)	1,715 (53.4)	1,594 (53.0)	1,211 (54.0)

주 : 각년도 초에 만들어지는 우도면 「현정보고」, 「업무보고」.

인구 이동이 지역의 편이성과 쾌적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 지역개발의 이론을 원용해 볼 때 우도지역의 지역개발환경은 타지역에 비해 열악해가는 상태임을 짐작케 한다.

(2) 빈약한 경제활동인구

우도의 경제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4>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면 15세 이상의 인구를 칭한다. 우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1,811명으로서 우도인구 2,225명 중 81.4%로서, 전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인 73.0%(1991년 4/4분기현재 : 1992년 북제주군 통계연보 참고)보다는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 15세 이상의 비율은 취학아동인구인 15세 이하의 인구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도의 경우 취학아동인구인 15세 이하의 인구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진학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제주본도로 자녀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가족이 전부 옮겨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타지역보다 많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표 4>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1993년 7월 7일 현재)

(단위 : 세, 명, %)

구분 / 연령	계	남	여
계	2,225(100)	1,036	1,189
0 - 4	85(3.8)	39	46
5 - 9	120(5.4)	62	58
10 - 14	209(9.4)	100	109
15 - 19	319(14.3)	166	153
20 - 24	296(13.3)	156	140
25 - 29	146(6.6)	89	57
30 - 34	106(4.8)	69	37
35 - 39	94(4.2)	51	43
40 - 44	104(4.7)	56	48
45 - 49	104(4.7)	51	53
50 - 54	144(6.5)	61	83
50 - 59	146(6.6)	67	79
60 - 64	119(5.3)	28	91
65 - 69	77(3.5)	19	58
70 - 74	66(3.0)	12	54
75 - 79	42(1.9)	8	34
80 - 84	27(1.1)	2	25
85 이상	21(0.9)	0	21

주 : 이 표는 1993년 7월 7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분석한 것이다. 앞의 표에서는 감소 추세를 비교하는 것이여서 일년 중 같은 시기의 데이터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1993년 7월 7일 현재 상황을 쓰지 않았다.

자료 : 우도면 내부자료.

그리고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 중 가장 왕성한 연령인 15 - 49세의 인구는 전국이나 제주도상황에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며, 1차산업에서도 65세이상의 인구는 적극적으로 활동에 일하지 못

한다. 이렇게 우도는 전국이나 제주도 현황에 비하면 노인인구가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도에서 인구와 관련한 정책은 우도의 사람들을 우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즉 우도사람이 되면 무엇인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청장년 층의 남자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될 것이며, 직업을 찾아 본토나 혹은 육지로 떠나는 직업편향(job bias)이 적게 될 것이다. 또한 역으로 그러한 정책이 있게 되면 우도출신 청장년 층이 타지에서 다시 우도로 전입해 오는 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될 때만이 인구피라미드는 경제활동인구가 균형적으로 분포하는 형태로 될 것이고, 우도의 경제는 생기있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표 5〉 인구구조의 비교

(단위 : %)

구분 / 연령	전국	제주도	우도
	100.0	100.0	100.0
0 - 14세	25.8	25.5	18.0
15 - 29세	30.4	32.6	34.0
30 - 49세	27.6	25.4	18.0
50 - 64세	11.2	10.8	18.0
65세이상	5.0	5.7	10.0

주 : 전국과 제주도는 1990년도 자료이나 우도의 경우는 1993년 7월의 자료이다. 이는 우도의 자료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전국과 제주도의 자료는 최근의 자료의 부재로 인해 1990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음

우도의 경우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많다. 우도의 인구는 이러한 결과와 절대적인 인구수의 절감에 의한 것 때문에 인구수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1989년 당시에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출인구가 전입인구에 비해 거의 100%가 더 많았다.

〈표 6〉 전입전출인구의 비교

(단위 : 명)

구 분	전 입			전 출			전 입			전 출		
	계	남	여	계	남	여	도내	도외	기타	도내	도외	기타
1989	141	68	73	275	132	143	65	76	-	131	144	-
1991	163	92	71	257	124	133	80	83		148	109	

자료 : 북제주군, 「통계연보」, 1990년.
북제주군, 「통계연보」, 1992년.

인구의 이동은 선별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즉, 인구의 이동자는 다른 사람들 보다 교육정도가 높고 더욱 건강하며 젊고 의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이동자들이 이동 전보다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출발지로서의 우도는 인구를 유인하는 요인보다 밀어내는 요인이 많다는 것이 된다.

물론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입에 비해 전출 비율의 증가는 둔화되는 편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이유중 가장 큰 원인을 지역주민과의 면담에서 찾아 보면, 나갈 사람 즉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나간 반면에 도내나 도외로 전출했던 사람들이 사업에서 실패를 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래력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전입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4) 남자보다 여자가 많음.

〈표 7〉 가구 및 인구구성

(단위 : 가구수, 명, %)

가구수 및 인구	비양도	마라도	가파도	우 도	추자도	제주도※※
가 구 수	67	27	209	666	1,113	180,542
인 구 수	291	99	850	3,244	5,208	516,946
남 자	142	52	439	1,491	2,672	-
여 자	149	47	411	1,733	2,536	-
평균가족수	4.3	3.7	4.1	4.9	4.7	4.0
평균가족수※	3.3	2.3	3.1	3.0	-	-
성 비	104.9	90.4	93.6	116.2	94.9	104.0
성 비※	93.2	107.7	90.6	113.0	-	-

주 : 여기에서 성비란 남자 100명당 여자의 수를 나타낸 것.
※ : 표본조사에서 현재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만 기준으로 한 자료.
각 유인도의 표본은 비양도 26가구, 마라도 12가구, 가파도 85가구, 우도 148가구이다.
※※ : 제주도, 「통계연보」, 1990.
자료 : 우도면, 「민정보고」, 1989.
정대연 외,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와 제주도 편, 「제주유인도학술조사보고서」, 1991, p. 282.

성비에 있어서 우도는 다른 도서와 비교할 때 유독 여자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추자도의 경우 94.9%이나 제주도 평균성비인 104.0%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여자들은 어느 정도 농업과 부분적인 어업을 통해서 적응해 가고 있으나, 남자들은 어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그 어업 또한 영세하여,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아 제주본도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3) 반농반어 형태의 직업구조

우도의 산업구조는 주로 1차산업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 대체로 농사와 어업을 병행하고 있다.

우도의 경우 경지면적, 즉 밭이 71%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업에 많이 의존할 것 같지만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직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주문화방송국과 제주도가 표본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직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생산연령 인구층의 직업구조

(단위 : %)

사무직	도소매업자	판매직	서비스	농어업	농업	어업	해녀	학생	단순노무	군인	주부	기타	무직
5.0	6.0	0.3	1.3	13.3	28.7	4.3	14.3	10.0	2.7	1.1	6.8	1.1	4.7

자료 : 정대연 외,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와 제주도 편, 「제주유인도학술조사보고서」, 1991, p. 301.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총 비율은 59.6%이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농업만 하는 경우는 28.7%이고 순수하게 어업만 하는 경우는 18.6%이다. 반농반어의 직업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13.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면 우도의 1차산업의 구조는 반농반어의 구조를 띤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사면이 바다라는 요인이 있지만 현재 제주도 인구 중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990년도 현재 42.9%,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목표년도인 2001년에는 29.5%(전국 9.5%)임을 고려할 때 산업별 고용인구의 조정이 시급하다. 즉,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줄이고 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증대시키는 방안만이 우도가 적당한 인구가 거주하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직업구조 속에서 농업과 어업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 1차산업 중에 어업부문에서 주요 수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우도의 주요 수산물 판매실적(1990년 현재)

(단위 : 톤, 백만원, %)

종 류	수 량	금 액
우뭇가사리	407.9 (60.7)	1,046 (57.0)
톳	49.5 (7.4)	91 (5.0)
성 게	4.7 (0.7)	150 (8.2)
오분자기	11.0 (1.6)	145 (7.9)
소 라	13.1 (2.0)	107 (5.8)
어 류	20.2 (3.0)	121 (6.6)
기 타	165.4 (24.6)	175 (9.5)
계	671.8 (100.0)	1,835. (100.0)

자료 : 정대연 외,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와 제주도 편, 「제주유인도학술조사보고서」, 1991. p.308.

우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에서 주민들의 소득에는 우뭇가사리가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이외에도 지역특산물인 넙미역이라는

미역종류의 해초도 있는데 판로가 없어 채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개방화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값이 싼 해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될 때(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음) 현재 우도의 산업구조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절대적으로 열악한 평균소득

우도의 경우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은 721.8만원으로 비양도보다는 적지만 마라도나 가파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하여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과 비교해보면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0). 물론 자급자족하는 부분과 지출부문에서 도시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수준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공동체내에서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결핍감이 그리 심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나 우도주민들도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보면 월평균소득이 적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10〉 가구당 연, 월 평균소득

(단위 : 만원)

구 분	표본 가구수※	가구당 1년간 평균소득	월평균
비 양 도	25	942.8	78.6
마 라 도	9	352.9	29.4
가 파 도	79	702.1	58.5
우 도	143	715.8	59.7
전 체 평 균	256	721.0	60.1
도시근로자가구		-	115.8

자료 : 정대연 외,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와 제주도 편, 「제주유인도학술조사보고서」, 1991, p.398.
북제주군, 「통계연보」, 1992년.

지역간 소득의 불균형은 인구이동을 촉발시킴과 동시에 자본축적이 점점 적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의한 소득원 창출이 지역개발 정책

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5) 含 義

우도는 인문 사회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개발의 잠재성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전출 인구의 과다와 능력있는 경제인구의 부족, 시대에 뒤진 산업구조와 고용인구비율, 소득의 빈곤 등은 타지역에 비해 우도의 장래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를 제공해 준다. 현재의 상태는 분명히 우도의 장래를 어둡게 하지만 개발정책에 따라서 지혜를 모은다면 회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일례로 인구의 감소는 지역개발에 때로는 이점을 안겨 줄 수 있다. 타지역에 인구가 이동함으로써 인구당 정착지 면적이 늘고, 외부로 가는 사람의 송금으로 인하여 지역소득에 일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도에는 본적지 중심으로 볼 때 해외를 비롯한 육지에 소위 우도인들은 1/3, 도내에 1/3, 우도에 1/3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의 여건만 갖추어지면 자본과 경영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도 출신이 우도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히 있다. 뿐만 아니라 우도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유·무형자원이 될 수 있다.

3. 관광자원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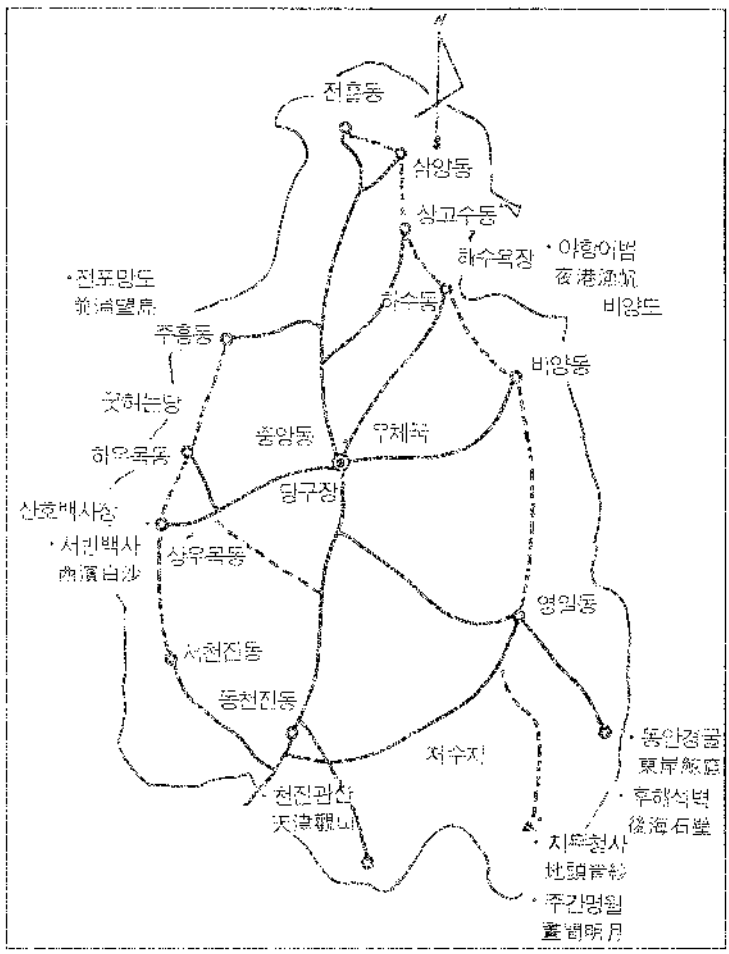
1) 기존에 개발된 관광자원

우도의 관광자원은 牛島八景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도에서만 볼 수 있는 여덟가지의 경치이다.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우도 전지역에 걸쳐 골고루 수려한 관광자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각각의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주간명월(晝間明月) : 섬의 남쪽 "광대코지"라고 하는 기이한 암벽 밑으로 해식동굴이 여럿 형성되어 있는데 오전 10시에서 11시경에 푸른 빛깔의 투명한 바다위로 햇빛이 쏟아지는 수중동굴안에는 둥근 달이 하나 떠오른다. 이를 주간명월이라 하는데, 이 곳 주민들은 달그리안(돌 그리안)이라고 부른다.

〈그림 1〉 기존에 개발된 관광지원



○ 야항어범(夜航漁帆) : 6 · 7월, 여름밤의 멸치잡이 어선들이 수십척 무리를 지어 고기잡이를 하는 광경으로 반짝이는 물빛들은 마치 별꽃들이 피어나는 듯하다.

○ 천진관산(天津觀山) : "하늘이"라고도 하는 우도 동항의 관문인 천진봉에서 한라산을 바라다 본 정경으로 한라산 봉우리들이 하늘을 부르는 듯하다.

○ 지두청사(地頭青紗) : "물위에 뜬 둔덕" 우도봉에 올라보면 황홀한 초록빛 물결이 바다에 날을 담그고 있다. 이곳에 서면 우리의 몸은 순식간 푸르게 물이 든다.

○ 전포망도(前浦望島) : 구좌읍 종달리 앞쪽 바다에서 섬을 본 정경을 전포망도라고 하는데, 우도의 모습이 물위에 소가 누워있는 듯하다.

○ 후해석벽(後海石壁) : 높이 20여m, 폭 30여m의 우도봉 앞 기암절벽이다. 오랜세월 풍파에 견디며 인고의 잔주름을 키워온 듯 차라리 여유스럽기까지 하다.

○ 동안경굴(東岸鯨窟) : 우도봉 아래마을, 영일동의 검은 모래가 있는 「검멀레」해안에 「콧구멍」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다. 굴속의 굴 이중동굴로 이루어진 이곳은 썰물이 되어서야 입구를 찾을 수 있다. 들어가는 굴은 작지만 안에 있는 굴은 별세계를 연상케 하듯 넓다.

○ 서빈백사(西濱白沙) : 우도 서쪽 시천진동과 상우목동의 경계가 되는 해안에 부서져 형성된 모래사장, 이 산호모래는 조금씩 자라난다고 한다. 눈이 부셔 잘 뜨지 못할 정도로 하얗다 못해 푸른 빛이 감도는 듯하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관광자원을 보면 모두 경관과 관련된 자원들이다. 이러한 경관위주의 자원은 시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개발로 인해 그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매력이 차후에 여러가지 시설로 인해 상실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관위주의 자원은 보존하고 문화자원이나 관광시설위주의 가족단위로 즐기는 자원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발가능한 자원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우도의 자원을 개발할 때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나 시설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섬속의 섬」, 演坪이라는 말은 「물위에 뜬 두둑」, 「아껴놓은 새 땅」(이 말은 필자가 만들었음) 등 우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들은 너무 곱고 아름답다. 도시마다 자기 도시의 이미지를 모아 홍보하고 관광자원화하려는 시상정립(city image)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우도의 경우도 우도의 이미지를 함축할 수 있는 이미지정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정립된 이미지가 우도의 훌륭한 하나의 문화측면의 관광자원이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담, 주거문화, 육지나 제주본도와 차별화된 음식문화, 바다와 관련된

노동요를 보아 한 눈에 볼 수 있는 마당, 바다에서 보는 해안절경, 삶의 모습이나 삶의 문화와 어우러진 관광자원으로서 저녁 고기잡이 배에 승선해서 낚시도 즐기고 구경도 할 수 있는 상품개발 등 앞으로 우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한 후에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보에 주력하는 것은 개발한 상품들을 가치있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3) 含義(「아껴놓은 새 땅」)

우도는 우도민이 스스로 아껴놓은 새 땅이다. 제주도 내에 있는 아름다운 것, 아껴두고 싶은 것도 본도의 개발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우도에 가면 이질적이고 제주본도에서 볼 수 없는 이제는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제주도의 환경과 문화들이 있다. 우도의 개발은 이처럼 제주본도에서 볼 수 없는, 그러나 과거와 현재에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실체들을 우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맥락에서 우도의 개발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아껴놓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도를 우도다운 개발, 우도의 자연경관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도 우도의 신비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는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주민들에 의해서 아껴놓은 땅이 되었으며, 이제는 이 새 땅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도답게 적극 개발이 이루어질 때 우도는 우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도인들에게는 만족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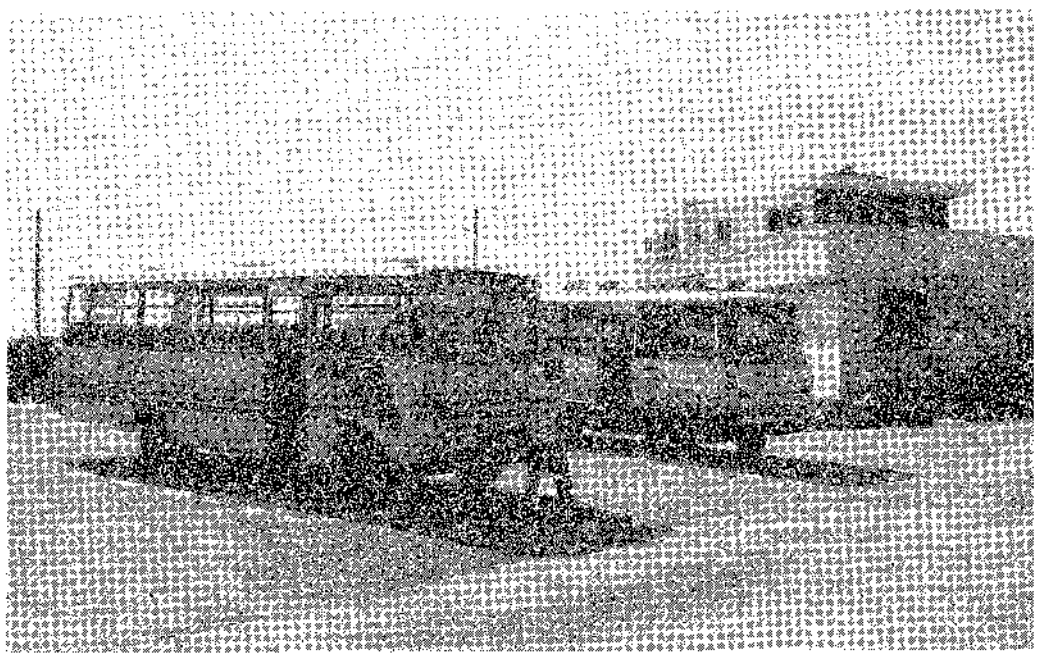
4. 우도의 자원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우도에 대해 자연환경, 인문환경, 관광자원환경에 대해 주마간산격이나마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모색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여 여러 가지 환경들은 개발에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나타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개발의 근거가 되는 자원으로서 어떠한 불리한 점과 이점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개발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자원

가) 행정구역과 개발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 행정

구역상 우도는 북제주군이다. 따라서 남제주군인 성산포와 행정상 관계가 없어 지역개발에 관한한 협조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과 관련된 성산포권계획에서도 우도는 제외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관광단지계획에서도 제외되어 도서로서의 관광개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85년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어우러져 만든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중 성산포 해양단지개발계획에는 우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그리고 1993년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립시에도 성산포권에는 우도와의 연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우도를 도서로서 개발하는 입장에서 성산포권과 연계하여 개발하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도는 제주도관광은 물론 성산포관광권과 코스관광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코스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적지(destination)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말았다.



우도항 정류소에 주차중인 정기버스

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도서로서의 우도를 개발하는 데에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물」의 경우, 현재는 성덜리로부터 수중연결하여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용량 확충의 문제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도서지방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물」의 경우는 도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우도의 경우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인데 이 상수도로서의 물을 끌어들이는 문제, 개발자원으로서 쓰이는 물의 공급문제 등 물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다음은 「발」에 해당하는 교통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통신도 문제가 있겠으나 통신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우도는 육지와 근접해 있고, 전화시설이 지중화되어 있어 양질의 전화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유선방송을 관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로 남겠다. 그럼 교통문제는 어떠한가? 현재 제주본도와의 접근은 도항선 두 척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은 그리 불편한 점은 없으나 앞으로의 수요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인구와 자본이 부족하다. 개발에 있어서 인구와 자본은 개발의 자원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목표이기도 하다. 우도의 인구는 줄고 있다. 특히 남자의 인구가 적어서 개발원동력으로서의 인구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도주민의 월평균소득은 59만 7천원으로 도시근로자월평균가구소득인 115만 8천원에 비하면 고작 5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은 소득 때문에 주민들에게 개발에 투자될 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와 자본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개발에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자원

우도에서 개발에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자원들은 많다. 이 자원들은 우도를 개발하도록 하는 유인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 내용들을 보기로 하자.

가) 제주도 본도와 근접해 있는 도서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점을 준다. 성산포권개발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관광코스의 복적지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된다. 그리고 제주본도에서 바라보



우도에서 본 일출봉과 오름들

는 우도의 정경도 아름답지만 역으로 우도에서 제주도본도를 바라보는 정경 또한 훌륭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이는 우도가 제주도 본도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서로의 정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주요 관광단위와 인접하여 있다는 것과 그러함으로써 관광객유치나 개발을 함에 있어서 동일선상에 설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지금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본도의 관광권과 연계를 이루게 되면 일정한 관광객유치와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 개발에 필요한 토지이용가능면적이 넓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도는 경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험한 지형이나 언덕 등이 없어서 우도 전체가 관광자원으로서 개발가능한 토지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가능한 토지면적이 넓다는 것은 종합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과 바다 그리고 해수욕장과 평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레저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도가 어느 한 부분에만 치중해 있는 관광지가 아니라 우도 나름대로의 종합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있다.

라)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건전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낙후된 우도를 잘 사는 우도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큰 우려가 없는 것은 개발되더라도 지금 제주본도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직한 의지는 개발에 좋은 조건이 된다.

마) 행정구역상 面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개발에 크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면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면단위에 대한 지원을 타면과 동등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행정상의 인력이나 재정상의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면차원에 대한 지원은 개발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개발의 방향

1. 우도에 적합한 개발철학의 정립

지역개발의 철학이란 지역개발의 총체적 방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의 철학은 개발의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며, 지역의 자원동원과 배분방식을 결정한다. 개발의 철학은 지역주민의 삶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미래의 삶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지역개발에서 개발철학의 대립은 당연히 개발과 보존에 관한 것이다.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보다는 보존에 역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러한 논쟁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쟁이야말로 평행선만 긋는 비효율적인 논쟁으로 일관되어 왔다. 오히려 지역내외에 갈등만 증폭시켜 온 것이다. 앞으로 지역개발철학을 논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논지이다. 그러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개발과 보존의 근거가 나올 것이며, 우도의 경우도 이러한 근거에 적용시켰을 때 부분적인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나 보존이냐를 논할 때는 해당지역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도의 자원에 대한 평가를 했듯이 말이다. 해당지역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제반여건과 상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인가? 후퇴 혹은 낙후하는 지역인가? 개발을 하려면 잠재력은 있는 지역인가? 그리고 주민의 개발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후퇴 혹은 낙후하는 지역이면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개발도 지역특성에 맞아야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낙후한 지역임을 알면서도 보존이라는 허울로 대책없이 묶어 둔다는 것은 그 지역을 더욱 낙후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지역개발의 본래의 의미(해당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에도 맞지 않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우도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필자는 우도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현재 우도는 낙후된 지역임과 동시에 침체되어 가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잠재력으로 보았을 때 현재 우도의 주산업인 1차산업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잠재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지역개발의 원리대로 한다면 우도는 보존보다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우도가 무조건적인 개발이나 수용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발, 우도다운 이질적이고 신비스러운 경관을 파괴하는 개발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보존만을 하겠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맹목적인 보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우도에서 해안경관을 파괴하지 않고, 우도의 경관과 어울리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관광시설 혹은 수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개발부분과 더불어 사업의 측면에서 보아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글에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차후에 고민하여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면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도는 섬 속의 섬에 평화로운 해양휴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산지역과 연계된 지역개발

1993년 제 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성산지역의 개발은 남

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일원에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해양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시설 유치, 국제규모의 도입시설의 유치 등 1,231,000㎡에 걸쳐 개발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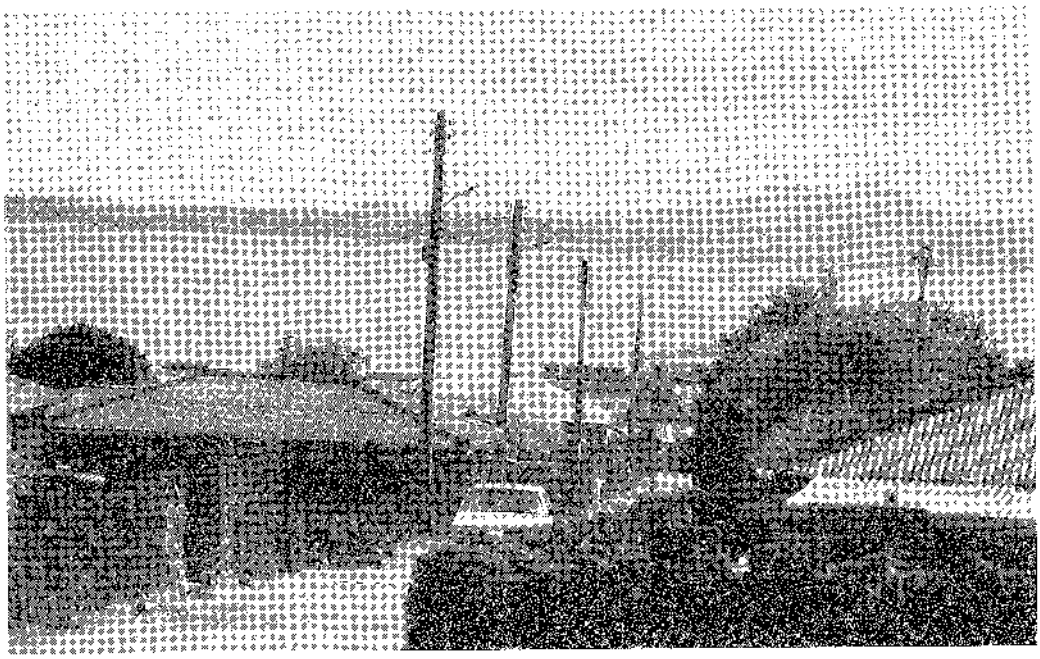
우도는 성산지역과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우도는 지금까지 관광개발의 주요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단지 행정구역상 우도는 북군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우도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포함시켜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중요한 이유를 두 지역일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산포의 입장에서 보면 해양단지에 인접한 섬과의 연계는 규모의 확대라는 점 이외에 그 활용도면에서 무궁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으며, 둘째, 우도입장에서 보면 생활권과 개발권의 일치로 인하여 지역 효율성이 증대되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개발에 대한 재검토시에는 반드시 우도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원적으로는 우도지역을 남제주군에 편입시켜 개발권, 생활권, 행정권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3.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개발잠재력 확충

1) '물'의 문제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용량의 차원에서 차후에 확보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물과 관련된 것으로서 전선주가 우도에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급적 우도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화선처럼 전선을 지하로 매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때 물과 관련된 잠재력 혹은 기반시설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관광자원을 보존하는 데도 일조를 할 것이다.



얼키고 설킨 전기줄과 전화선. 이런 것들이 우도의 경관을 헤치고 있다.

2) '물'의 문제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우도의 경우는 다른 도서와 마찬가지로 물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우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도라는 도서로서의 관광자원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양질의 물은 상수도로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이나 그외의 관광시설로서의 풀장 같은 물이 있어야 하는 시설에 이용됨으로써 육지지방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다.

방안으로서는 성산포의 물은 염도가 높아 식수나 풀장 등의 물로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중산간지역 중 한 곳을 심정굴착하여 해저관을 설치하고 우도에 상시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인 물문제가 해결된다.

3) '교통'의 문제



우도항 전경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구와 도항선 문제, 그외의 교통수단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항구의 문제이다. 현재 조금만 파고가 높아도 5톤 이상은 피항할 곳이 없어서 성산포로 가게 된다. 그러나 성산포도 크고 작은 배들로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항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항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도는 지형상 큰 항구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새로운 공법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무시하면 큰 어항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계획은 비현실적이라 사료된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천진항과 하우복동항을 수송과 산업용으로 이원화하여 중점적으로 확장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음은 본도로부터 도항선에 차를 싣고 관광객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요일같은 경우 극에 달해 하루에 도항선 두 대에서 무려 100여대가 우도에 내려진다고 한다.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쓰레기뿐이다. 왜냐하면 차에 성산포

나 혹은 제주시에서 구입한 음식물들을 가득 싣고 와서 그 남은 오물과 포장에 쓰였던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쓰레기문제만이 아니라 우도의 도로사정이 안 좋은 데다가 도로의 폭도 좁고 지반도 약한 것이어서 차량이 많이 다닐 경우 우도민들이 이용하는 농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평화로운 우도를 자동차들이 다 파괴시키게 될 것이며, 우도의 주요 교통수단인 주민들의 오토바이나 경운기들이 오히려 운행에 불편을 겪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차량유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주민과 관련되지 않은 차량은 일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하루의 기준량을 정하여 그 이상은 차량이 입도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도항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지불케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도내의 상시교통을 확보해야 한다. 도항선의 출항과 입항시에만 비상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우도의 버스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쾌적한 분위기의 버스로 상시교통과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도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도 차량의 유입은 우도에 또 하나의 공해로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 교통수단은 제주본도와 우도를 연결짓는 교통수단이다. 예를 들면 범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범선의 운행은 단지 교통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넣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실적이면서 필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헬기의 운항이 바로 그것이다. 헬기장은 천진항에서 우도봉 사이에 만들면 된다. 그 운항방법은 제주시로부터 성산일출봉관광코스를 경유하여 우도에 내릴 수도 있고, 성산포에서 우도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처럼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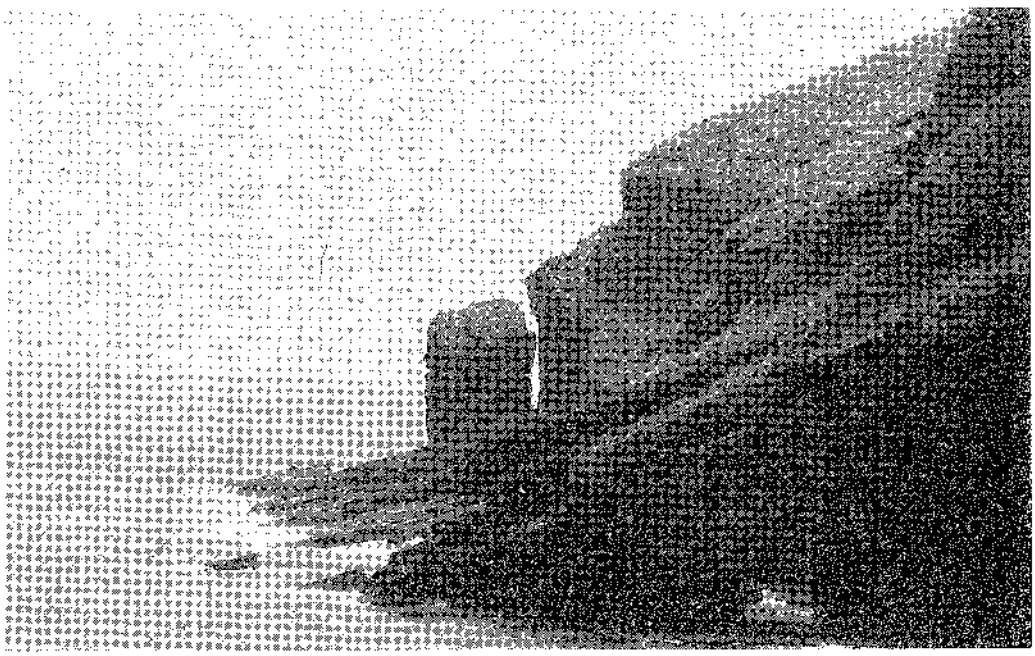
4.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

우도는 좁은 지역이지만 모래사장, 넓은 들, 그리고 우도봉과 기암괴석 등 매우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다. 모래사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도의 모래사장은 섬 속의 해수욕장이라는 점에서 타지역과 다르다. 모래자체도 다르지만 주변의 풍광이 빼어나기 이를 데 없다. 해안도로를 이용한 하이킹코스(자전거코스), 우도봉을 이용한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장, 우도앞바다를 이용한 요트장으로의 활용 등은 종합적인 관광지로서 우도만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직도 외부사람에게는 신비로운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기존에 개발된 관광지에 추가로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도의 189만평 중 약 10%인 20만평이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1991년도 우도면 내부자료) 이들로 하여금 우도의 개발과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관광시설이나 휴양시설 등을 짓게 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스타(영화배우 등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의 몇 곳에 상징적인 시설물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촌이나 영화인들의 휴양을 즐기면서 간단한 촬영도 할 수 있는 휴양시설 혹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파급효과가 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휴양단지, 청소년야영장 시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본도나 육지 혹은 외국일지라도 우도와 연결하여 관광권으로 만들 수 있으면 타 관광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스페인의 지중해 클럽(현재 회원이 약 100만명)과 연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거의 고정화되고, 국내관광객 수도 예약 등을 통하여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도에 투자된 자본은 안정적으로 회수될 것이며, 우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용이하며, 주민들이 관광지개발로 인한 두려움도 한층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추진해야 할 것은 지역주민과 개발과의 연계이다. 지역주민이 자본과 기술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발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방관자 내지 열외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투자라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으면 지역개발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술하게 경험하였다. 지역주민이 생산한 1차 상품을 판매하여 주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검멀레 계단에서 본 선돌. 이 또한 관광자원이다.

5. 체계적인 개발계획 정립

여기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정립하자는 것이 국토건설종합계획,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 도시계획, 우도계획처럼 관료적 계층체계를 따르는 우도계획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체계상의 계획도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듯 하나, 이러한 체계에서 찾을 수 있는 이점은 상부관청의 지원을 받는 것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규제위주의 계획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체계는 우도개발계획을 성산포권과 연계하여 세우든지, 우도개발계획을 제주도차원에서 중점사업화하여 세우는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은 것은 우도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정해상구역(Sea Blue Belt)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계획, 경관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장기체류형 관광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는 계획,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는 계획 등 우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러가지 문제를 한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체계화되려면 시기적으로 단·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항구의 확대와 도로의 정비, 상·하수도 시설의 현재화, 양질의 용수공급, 하수 종말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신설 및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우도의 지역개발은 난맥상을 이룰 것이다. 특히 개발의 과정을 수용하지 못한 채 개발 그 자체로 인한 부작용만 양산되어 오히려 개발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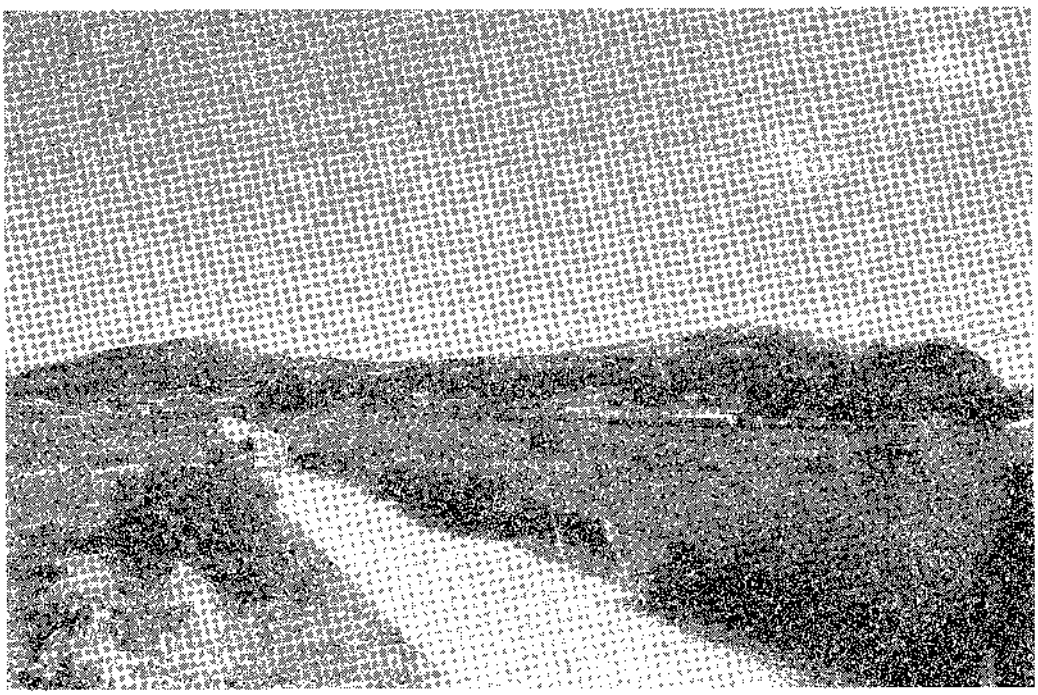
둘째, 중기계획은 우도의 산업구조개편방향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산업구조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계획으로서는 우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토지이용의 방향 및 관광시설을 비롯한 산업시설의 배치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도는 기초가 있는 평화로운 해양휴양단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침체에서 번영으로, 절망에서 희망이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제2장 住 民 參 與

제 1 절 계획의 목적과 설립과정



우도봉 전경

우도지역발전계획(이하 "우도계획"이라 칭한다)은 국토이용관리법과 제반관련

법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우도지역에 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발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종합개발계획에서는 도서 및 낙도개발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P 126~127)

1. 일 반 원 칙

○ 기존의 도서개발 10개년 계획(1988~1997)의 골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서 및 낙도지역의 개발과 정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제성 원리를 따르지는 않는다.

○ 도서군으로 형성된 지역은 중심 도서인 모도와 주변 도서인 자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시키고, 모도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의료,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자도는 기초생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 목　　적 : 도서지역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

○ 근거 및 대상 : 도서개발촉진법('89. 12. 31)

○ 추진부서 및 기간 : 내무부 1988~1997

2. 주민생활 우선의 원칙

○ 주민의 정착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생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 관광시설의 확충시에는 주민의 생활공간과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마을과 연관된 위치에 시설물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마을의 정비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 소득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원 개발로 자립기반을 구축시킨다.
- ○ 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정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도를 기지로 하는 문화, 복지 순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 수산자원 : 노후어선 대체 및 동력화, 양식사업을 지원한다.
- ○ 도는 평상시 도서지방의 순회 서비스와, 긴급사태시 구조와 구급수송을 담당할 수 있는 도서지방 전용헬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 ○ 주민에 필요한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식수 용수원의 개발과 더불어 비상시의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3. 자연환경보존

- ○ 환경자원 :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전과 불량환경을 개선한다.
- ○ 무인도는 자연환경 및 경관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자원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방안을 모색한다.

4. 소 득 향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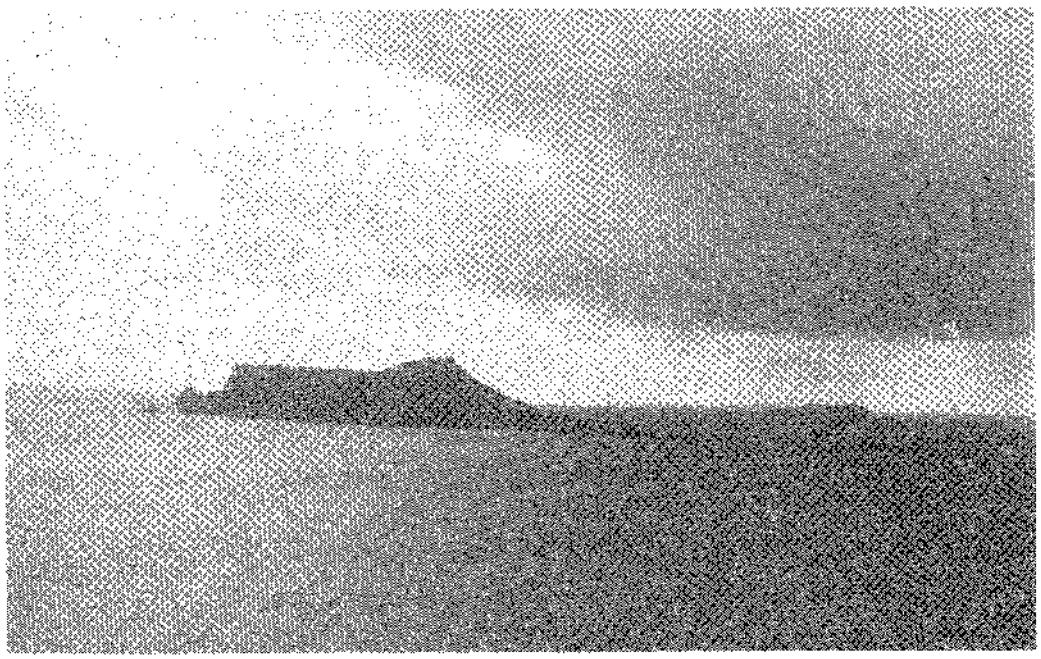
- ○ 각 도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소득향상과 연관시킨다.
- ○ 도서의 특성을 이용한 낚시관광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항만의 정비, 소규모의 숙박시설, 특히 민박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관광객에게는 섬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도서민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한다.

특히, 우도의 발전 및 개발계획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P128)

- ○ 주민에게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주체계를 구축한다.
- ○ 선착장과 방파제를 보완하여 연근해 어장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본도와의 교통의 편의를 도모한다.
- ○ 주민들의 용수 및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상수도시설 및 저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 도로의 포장, 전기시설의 확충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한다.

○ 성산일출봉과 우도팔경을 연계한 해안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를 제고하되, 개발의 주체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어촌계나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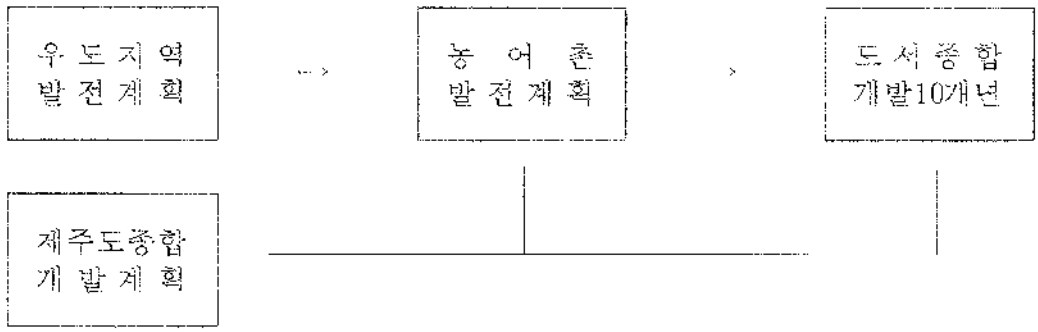
우도봉에서 본 성산일출봉

우도는 지리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우도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그리고 필연적으로 제주도의 경제·사회·토지·교육·복지 등 모든 정책 수립과 실천에 좌우된다. 단지, 우도라는 지역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우도라는 지역의 특수 조건에 기초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실천 방향과 사항들을 지적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종합개발계획이 설정하여 놓은 틀안에서 우도를 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실천사항을, 반면에 도 전체와 관련된 정책 발전에 따라야하는 부분은 개괄적인 면만을 언급하게 된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북제주군 계획의 일환으로서 우도계획을 설명하자면 아

래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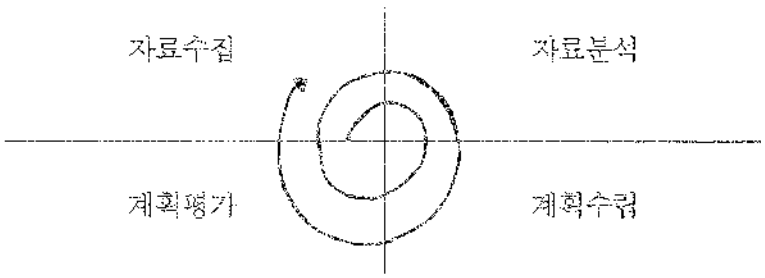
〈표 1〉



도서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는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우도 계획은 북제주군 실시계획의 골격과 방향을 준수하며 1994~1997과 1998~2001년으로 하는 계획으로 우도의 바람직한 발전형태와 발전순서를 수립한다.

우도계획은 기초적인 4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우도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자료와 우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얻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우도 주민들과의 대화는 면장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와 학생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얻어졌다. 또한 도, 군청직원과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특별히 우도 주민들과의 대화는 여러차례의 단체회의를 통하였고 그 회의에서 다수결로 정해진 의견을에 중점을 두었다.



주민여론청취(우도면사무소에서)

이 수립과정은 지속적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며, 그 보완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의 자료에 변화나 수정이 가하여질 때면 전체계획에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년마다의 자료점검이 필요하며, 계획의 재평가와 수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도계획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현재의 상황이 무엇이며, 과거로부터 어떠한 형태를 거쳐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는가, 즉 우도가 지금 어느 지점에까지 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도가 어느 지점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추세가 바람직한 것인가, 또 우도민들이 원하는 것인가는 의논·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의논·결정·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로서의 「이상」(비전)은 무엇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하여 적합한 전략을 세우며, 필요한 모든 자원과 활동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실천을 꾀한다.

우도계획의 부록인 자료편은 우도계획이 설정한 각 방안을 채택하는 데 참고로

한 기본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제 2 절 계획수립의 원칙

우도계획 수립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원칙을 토대로 삼았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위관련계획 준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 상반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 내지 극소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국토이용계획을 가능한 한 준수한다.

또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상위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좀더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따라 지역토지 내지 다른 자연자원을 좀더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상위 계획을 수정한다.

2. 지리적 집중체계의 성장

토지사용 특히 주거 등 도시화 사용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사회기반시설 설비나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쉽다.

또한 지리적인 집중발전을 함으로써 우량 농경지와 보존지역을 보호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지역발전은 현존하는 12개소의 자연마을 형태를 근거로 하여 좀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경제발전계획의 다양화

우도지역은 농업과 수산물 채취에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의 국제화로, 재래식 농경방식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다. 앞으로 농업이나 수산업이 경제적인 산업으로 지탱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농경지의 집단화와 기계화를 꾀하거나 적은 규모이

더라도 2차와 3차산업으로의 확산을 도모한다.

3차산업과의 연계나 확산은 제주도의 제1주요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계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도의 특산물」이라는 시장성을 고려하여 활발한 유통을 계획 실천한다.

4. 자연환경보존

해안선과 다른 자연환경의 보존, 특히 해안선침식,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보존의 원칙을 준수한다.

5. 주민참여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각종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서는 풀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제 3 절 지역환경현황

1. 사회경제분야

1) 인 구

북제주군 인구의 2%를 조금 넘게 차지하는 우도의 인구는 '92년 12월 현재 2,243명으로, 남자 46%, 여자 54%의 비례로 제주 전도의 49 : 51%의 비례에 비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비교적 많은 편이 특징이다. 인구 밀도도 제주전도 밀도 ㎢당 272명과 북제주군의 142명에 비하여 371명이라는 높은 밀도이다.

우도의 인구는 근래에 뚜렷한 감소현상을 보여왔다. '91년과 '92년 사이에는 군 28%에 달하는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군 전체의 8% 인구감소현상에 비하여 큰 감소 비율이다.

종합개발계획은 북군의 인구가 연간 0.81%의 계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우도 등 특히 작은 구성지역의 구체적인 인구추세와 인구는 제시하지 않았다. 북군의 연간 평균 감소 비례 0.81%를 적용하면 2001년의 우도 인구는 2,100명으로 추산된다.

인구추세수란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통계학적으로 미래의 인구를 추정한 숫자를 말하며, 과거와 같은 여건들이 똑같이 계속하리라는 가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

역사적 자료가 많을수록 통계학적인 오차가 적으며, 우도의 경우와 같이 역사적 자료가 적을수록 그 오차는 커진다.

이 인구추세수는 인구목표수와는 다른 것이다. 목표인구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숫자이다. 즉 통계학적인 추세와 다른 모든 여건들을 감안하여 적절한 숫자라고 결정을 짓고는, 모든 여건과 정책을 그 인구수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주는 달성을 하고자 하는 목표 인구이다.

2) 경　　제

총 가구수 621중, 농어가가 99%로 우도면의 대부분이 반농 반어의 경제적 생계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 연간 생산액은 수산물이 18억3천5백만원이고, 농작물이 14억2천7백만원이다. 주요수산물은 천초, 어류, 감태이며 톳과 패류의 수확량도 비교적 높다.

주요 농작물은 보리, 땅콩, 고구마이다. 보리, 고구마는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이를 보여 왔으나, 땅콩은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땅콩은 북제주군에서 우도에서만 경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 6월에 시작된 도항선 대형화로 급증하는 관광객과 9개의 대중음식점 2개의 숙박업 그리고 민박지정가구 5개를 밑받침으로, 우도필경과 낚시 관광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다. 이는 수산물과 농산물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경제기반을 다양화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보조가 필요하다.

수산물은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여건과, 주 농작물인 땅콩과 고구마를 간단히 가공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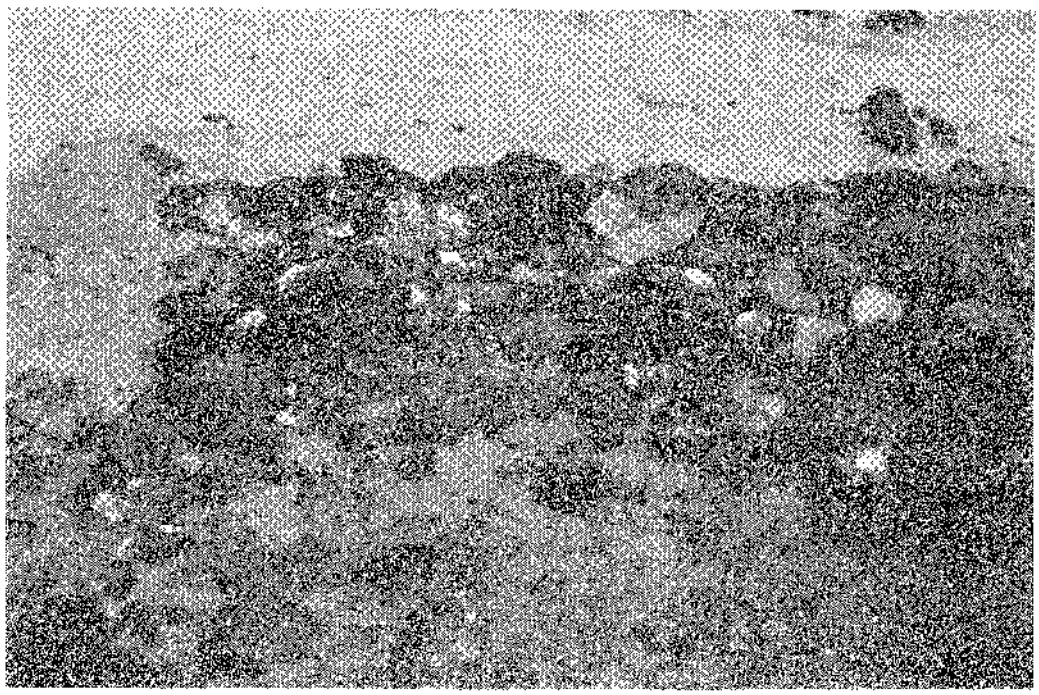
2. 자연환경분야

1) 환　　경

우도는 제주도의 동쪽끝에 위치한 제일 큰(6.05㎢) 섬이다.

성산항에서 천진항까지는 3.8㎞, 구좌읍 종달리에서 하우목동 포구까지는 2.8㎞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의 길이가 약 3.5㎞, 동서의 길이가 약 2.5㎞이다. 해발 132.5m인 남쪽 끝 소머리 오름을 제외하고는, 섬 전체의 90%가 북쪽 끝 세배코지와 답다니탑 중간지역의 해발 4m로 시작하여 2.5% 미만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우도의 중요한 환경요소는 물론 해안선 지역이다. 유일한 서빈백사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이고, 그 이외의 해안선은 모두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간명월(晝間明月), 천진관산(天津觀山), 전포망도(前浦望島), 서빈백사(西濱白沙), 야항어범(夜航漁帆), 지두청사(地頭靑紗), 후해석벽(後海石壁), 동안경굴(東岸鯨窟)이라는 우도팔경도 해안선에서의 경관을 이름함이다.



관광객의 증가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도 증가되어 우도해변이 오염되고 있다.

바다 평균수심 15m까지는 11개 어촌계의 관할인 공동어장으로 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1992년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우도 전 해안선이 수자

원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지정도 없어졌다. 공동어장과 관련하여 수자원보전지역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앞으로 해상유람이나 해상 스포츠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야기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생각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제일 큰 환경오염 문제는 해양수질 오염으로 해안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활활동들이 수질오염의 원인이다.

해안가 곳곳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매립과, 해안가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하수정화처리가 전혀되어 있지 않은 해안선의 11개 부락 등이 수질오염의 원인이며, 증가하는 화학비료의 사용도 궁극적으로는 해양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2) 토지사용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우도의 땅은 준도시지역 0.64㎢(10%), 농림지역 0.11㎢(2%), 준농림지역 5.02㎢(83%), 자연환경보전지역 0.28㎢(5%)으로 나뉘어진다. 실제로 경지면적(밭)은 4.13㎢(72%), 임야가 0.92㎢(15%)이고 나머지 0.82㎢(13%)는 주택 등 기타지역으로 쓰이고 있다.

○ 토지 소유권은 약 96%가 사유지이고, 나머지 약 4%만이 군유지와 국유지이다.

○ 28,903㎡의 비양도는 전체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북군의 토지 종별에 의하면 임야로 되어 있다. 비양도의 7%인 1,686㎡이 국유지이고 나머지 93%는 사유지로 18명의 소유주가 있다.

○ 중앙동 상가지역은 22,000㎡로 6개의 대중음식점, 5개의 소매상이 있고 농협과 수협사무실들이 있다. 838㎡의 공지는 사유재산이다.

3) 유 적

우도에는 4·3사건(1948) 당시 쌓여진 2개소의 망대가 있고 쌓아진 연대가 미상인 4개의 방사탑이 있다.

□ 현 황

구 분	명 칭	위 치
망 대	담 다 니 탑	전흘동 북쪽 바닷가
	비 양 동	비양동 동북쪽
방 사 탑	하 고 수 동 액 탑	하고수동 포구 양쪽에 1기씩 2기
	주 흥 동 방 사 탑	주흥동 포구 남북쪽에 1기씩 2기
	영 일 동 방 사 탑	영일동 포구 1기와 동남쪽 경작지에 1기
	등 천 진 동 방 사 탑	등천진동 포구 서쪽에 1기

3.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

1) 교 통

3.8㎞ 거리의 성산포항과 천진항은 1992년 6월에 신설된 57톤의 우일호로 연결이 된다. 여름철(4~9월)에는 매일 6회 왕복하고, 겨울철(10~3월)에는 매일 5회 왕복한다.

우일호는 인원 100명(선원 5, 승객 95)과 4대의 차량을 수송할 수 있다. 배 시간에 맞추어 우도내에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지역에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우도~성산간의 지역기후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운영이 정지됨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천진항 대표소 대합실은 약 69평의 건물로 연간 2,300명의 도민과 10,000명의 관광객의 일도를 원활히 다루기에는 적은 건물이다.

천진항 광장은 1,200㎡로 간혹 근처 주민들이 농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하거나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로 쓰이고 있다.

천진항에는 급유시설이 없어 급유시설 신설이 필요하다.

도내의 도로는 전체가 45.6㎞로 포장도로가 약 16.7㎞이고 비포장 도로가 약 28.9㎞이다.

2) 상 수

1991년의 확장된 저수지는 50,0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는 1인당 일

일급수량 180ℓ를 기준으로 6개월간의 급수 저장량이다. 기존 지하수(2개공)에서 일일 740톤을 채수를 할 수 있으나 염분 농도가 기준치수인 150ppm을 훨씬 넘는 350~500ppm으로서 잡용수로 쓰고 있다.



각 가정마다 설치된 빗물 저장탱크

모자라는 상수를 보충하기 위해 각 가정에 물탱크가 있어 빗물을 받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가정은 이중 수도관을 설치한다. 빗물의 수질검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3) 하수와 쓰레기

하수도 시설은 천진리의 경우 경찰지서에서 부두까지, 서광리 중앙동에서 오봉리 하고수동을 거쳐 주흥동까지 시설이 되어 있고, 조일리는 하수도 시설이 없다. 즉, 전체 마을의 20%만이 시설이 되어 있으며, 하수도 시설이란 하수관이 묻혀 있는 것 뿐이고, 정화처리없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나머지 80%는 이러한 시설마저 없어 폐수를 그대로 방류한다.

기존 1,706㎡ 오봉리 전홀동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 가능량이 2,300M/T(일일 4톤)으로 1994년이면 다 차게 된다. 새로운 매립장 선정이 시급하다.

폐유수집장소는 동천진동, 하우목동, 주흥동, 전홀동, 하교수동, 비양동 등 6개소항에 있다. 제주시 수협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쓰레기매립장, 폐유수집 관리원들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우도면사무소 및 제주시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4) 에 너 지

1983년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전기공급을 받고 있다. 거의 주민부담으로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2012년까지(30년간) 상환해야 하므로 매달 전기료에 공사대금 금액이 포함되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은 전기료를 내고 있는 셈이 된다.(융자금 751백만원 가구당 월 5,000~7,000원 부담)

통신시설로는 1986년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전화분기국이 중앙동에 있으며 1992년 현재 571대의 전화가 보급되어 있고, 총 13개의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팩시밀리 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망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4. 교육과 사회복지시설분야

1) 교 육

1993년말 현재 190명의 초등학교학생이 연평초등학교에 7개반에 편성되어 있다. 연평초등학교는 부지 16,378㎡에 교원숙소 7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도서실에는 아동 문고가 1,190권, 교사용 문고가 550권이 있다.

연평초등학교에는 1981년부터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어 '93년 현재 19명의 원아가 등록되어 있다.

연평중학교에는 127명의 중학생이 3개 반에 편성되어 있다. 20,839㎡ 부지에는 교원숙소 4개가 있다. 체육관이나 식당·매점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2) 보 건

중앙동에 소재한 면사무소 구내에 보건지소가 있다.

1991년에 건립된 보건지소는 일반내과와 치과로 나누어져 2명의 일반내과 의사

와 1명의 치과의사, 간호사 1명, 위생사 1명이 파견되어 있다. 건물자체에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이 부실하여 자주 막히는 등 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의료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치과는 월 평균 200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학생들을 위하여 매년 구강진료를 하고 있으며 내과는 월평균 35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3) 스포츠 문화

스포츠 시설이라고는 따로 없고, 연평 초등학교에 철봉, 녹철, 구름사다리, 정글짐, 미끄럼틀, 유동목, 축구대, 배구대, 느림봉, 시이소가 있다.

연평중학교에는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탁구대 및 철봉, 평행봉, 씨름장이 있다.

문화시설은 따로 없다. 복지회관이 부지 1,420㎡에 건평 206평의 건물로 강당과 문고와 독서실이 있다. 또 각 동사무실에 문고가 있기도 하다.

4) 공 안

경찰지서는 천진동에, 유인 등대는 소머리오름에 무인 등대는 오봉리 특생곶과 비양동에 있다. 그 외에 우체국, 농협지소, 법인어촌계, 전화분기국, 한전출장소가 면사무소와 보건지소와 함께 중앙동에 위치한다.

묘지는 기존 묘지가 10,000㎡이고, 새로 선정된 곳이 15,755㎡로 소머리오름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5) 주 택

1992년 현재 우도의 가구수는 621, 주택수는 618이고 폐가구수가 15동이다. 대부분의 주택들은 자연부락인 동네에 지어졌으나 근래에 이르러 여기저기 떨어진 곳에 지어진 주택들을 볼 수 있다. 이 주택들은 모두 전기·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또 빗물을 저장하는 큰 탱크가 있다. 대부분의 집들이 기름 보일러를 쓰나 아직도 15%는 재래식 연탄을 쓰는 집도 있다. 주택의 11%가 수세식 변소를 사용한다. 나머지 89%는 재래식 오물 수거용 변소를 사용하며, 오물은 수거하여 본도로 이송한다.

제 4 절 주요 문제점과 발전의 기회

우도 주민들은 우도의 좋은 점이 독자적인 농사가 가능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생활터전으로 안정된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과 조용한 전원적인 환경이 좋으며,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교육열이 높으며 인심이 좋은 것도 우도가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개의 해수욕장과 경관자원이 풍부하여 관광지로도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주민들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 식수에 염분이 많아 주민 건강위협 초래 및 가전제품 등 수명이 짧음
○ 동천진항 계속 공사로 인하여 해녀작업장 손실
○ 노후선착장 계속공사는 실효성 없음
○ 개발로 인한 해안절경 등 자연환경 피해가 많음
○ 관광객의 급증으로 수용태세가 부족하고 각종 환경오염 증가
○ 자동차에 의한 자연훼손 및 해양오염 증가
○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수익은 적음

그러기에, 주민들은 앞으로 정부당국이나 관계부처가 도와주어야 할 점들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식수문제의 우선 해결
○ 우도 등쪽지역에도 어항시설 확충(현재는 천진항, 하우목동항 위주로 개발되고 있음)
○ 해산물 증산 방안 강구
○ 바다목장화사업 보완·추진
○ 해안도로 및 농로포장 추진
○ 도로포장사업 시행시 하수도 시설 병행 실시
○ 우도풀경 개발
○ 농·어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주민소득 증대 방안 마련
○ 가공산업 유치 ——— 농·수산물 활용
○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및 편리한 교통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교량(우도~본도)가설 ——— 민자유치

주민들은 이러한 바람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실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조성되면 우도가 계속 살기 좋은 곳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제 5 절 계 획 안

1. 사회경제분야

1) 인 구

우도를 위한 정책이나 기반시설 계획상 장래 2001년의 목표인구를 2,100명으로 계획한다.

2) 경 제

(1) 연안자원의 서식증가를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을 계속 실시한다.

○ 사업장 위치 : 연근해 공동어장

○ 시설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계	'94	'95	'96	'97	'98~2001
사 업 량(ha)		866	60	100	100	100	506
사업비	계	2,601	180	300	300	300	1,521
	보 조(국비)	2,601	180	300	300	300	1,521
	융 자						
	자 담						

※ 어초시설 적지선정과 시설순위는 수산연구소와 어촌계 총회 결정에 따른다.

(2) 연안자원의 서식증가를 위하여 투석사업을 계속한다.

○ 사업장 위치 : 연근해 공동어장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계	'94	'95	'96	'97	'98~2001
사 업 량(ha)		40	4	5	5	5	21
사업비	계	600	60	75	75	75	315
	보 조(국비)	420	42	52	53	52	221
	융 자						
	자 담	180	18	23	22	23	94

※ 부석사업 장소 순위는 어촌계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연안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민간사업으로 어패류 종묘 배양장 설치를 하도록 융자 지원한다.

단위 : 백만원

시설위치	규 모	사업비				비 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우도면 서광리	1개소/1,000㎡	320		256	64	

(4) 연안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전복 종패 방류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 사업장 위치 : 연근해 공동어장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계	'94	'95	'96	'97	'98~2001
사 업 량 (천미)		790	40	100	100		450
사업비	계	158	8	20	20		90
	보 조 (국 비)	79	4	10	10		45
	융 자						
	자 담	79	4	10	10		45

(5) 전복 양식사업의 계속 증가를 도모한다.

○ 사업장 위치 : 연근해 공동어장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계	'94	'95	'96	'97	'98~2001
사 업 량(개소)		25	2	3	3	3	14
사업비	계	250	20	30	30	30	140
	보 조						
	융 자	175	14	21	21	21	98
	자 담	75	6	9	9	9	42

(6) 소규모 어항개발의 일환으로 방파제 시설을 계속 추진한다.

사업장위치 \ 연도별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2001
계	m	347		43	89	109	106
하 고 수 동	〃	66				66	
하 우 목 동	〃	107		43	24		40
전 흘 동	〃	101			35		66
주 흥 동	〃	43				43	
영 일 동	〃	30			30		
사업비 계	백만원	3,989		494	1,023	1,253	1,219
보조(지방비)	〃	3,989		494	1,023	1,253	1,219
융 자	〃						
자 담	〃						

(7) 소규모 어항개발의 일환으로 물양장시설을 계속 추진한다.

사업장위치 \ 연도별		사업량 단위	계	'94	'95	'96	'97	'98~2001
계		m	304	20				284
하고수동		〃	50					50
하우목동		〃	96					96
전흘동		〃	58					58
주홍동		〃	30					30
영일동		〃	30					30
비양동		〃	40	20				20
사업비	계	백만원	1,511	91				1,420
	보조(지방비)	〃	1,511	91				1,420
	융자	〃						
	자담	〃						

(8) 어장(잠수) 진입로를 계속 정비한다.

어장별 \ 연도별	사업량 단위	계	'94	'95	'96	'97	'98~2001
계	m	2,200	400	400	400	400	600
동천진동	〃	150			150		
서천진동	〃	200	200				
상우목동	〃	200		200			
하우목동	〃	150				150	
주홍동	〃	200	200				
전흘동	〃	200					200
삼양동	〃	200		200			
상고수동	〃	200					200
하고수동	〃	200					200
비양동	〃	250			250		

어장별 \ 연도별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2001
영 일 동		m	250				250	
사업비	계	백만원	242	44	44	44	44	66
	보조(지방비)	〃	220	40	40	40	40	60
	융 자	〃						
	자 담	〃	22	4	4	4	4	6

※ 지역별 우선 투자순위는 우도면에서 조정 가능함

(9) 노후어선 대체 및 소규모 선박 대형화를 지원 보조한다.

○ 노후어선 대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계	'94	'95	'96	'97	'98~2001
사 업 량(톤)		225	10	15	15	15	120
사업비	계	1,155	66	99	99	99	792
	보 조(국비)	233	13	20	20	20	160
	융 자	689	39	59	59	59	473
	자 담	233	13	20	20	20	160

(10) 어선급유 시설 확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장 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국비)	융자	자담	
급 유 시 설	천 진 항	200드럼	10	5	3	2	'98년 이후

(11) 수산물 공동창고를 건립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건립장소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지방비)	융자	자담	
계	200평	200	140	—	60	
천진리	100	100	70	—	20	
조일리	100	100	70	—	20	

(12) 68.7평의 현 천진항 대합실을 어민복지회관으로 수산물 직판장 시설을 포함하여 확장 건립한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국비)	융자	자담	
어민 복지회관	우도면천진리	150평	270	270	—	—	1995년

○ 수산물 직판장시설(어민복지 회관내에 시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국비)	융자	자담	
수산물 직판장	우도면천진리	40평	60	50	—	10	1998년

(13) 해녀 감소화, 노령화 현상을 보완하고 남성들의 취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스쿠버 다이빙 강습훈련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장소는 가능하면 우도에서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1회당 4~6일로 한다.

교육장소는 우도면 사무소 회의실이며, 실지훈련은 우도 주변 공동어장 밖에서 행한다.

○ 스쿠버다이버 훈련 계획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1995	1996	1997	1998~2001	비 고
우 도 면(계)	80	19	10	10	50	
천 진 리	22	3	3	3	13	
서 광 리	16	2	2	2	10	
오 봉 리	24	3	3	3	15	
조 일 리	18	2	2	2	12	

(14) 지역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현대식 잠수 탈의장을 실시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업장 위치	시설규모	사업비				비 고
		계	보조(국방비)	융 자	자 담	
계	195평	245	196		49	
천진리 서천진동	15	35	28		7	'94~'98
오봉리 주 흥 동	15	35	28		7	
〃 전 흘 동	15	35	28		7	
〃 삼 양 동	15	35	28		7	
〃 하고수동	15	35	28		7	
천진리 상우목동	15	35	28		7	
오봉리 상고수동	15	35	28		7	

※ 시설 우선순위는 어촌계 총회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15)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 지원하여 전업 농·어가를 육성한다.

○ 농어민 후계자 육성계획

단위 : 명

구 분	사업비(융자)	계	'94	'95	'96	'97	'98~2001
우 도 면(계)	704	39	3	8	5	8	15
농민 후계자	360	20	—	5	2	5	8
어민 후계자	344	19	3	3	3	3	7

※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는 정착사업비 1,800만원씩 융자 지원한다.

(16) 주 작물인 땅콩의 생산증가를 위하여 협업재배단지를 육성 지원한다.

○ 땅콩 협업재배단지 육성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단지명	사업량 (ha)	참여농가	사업비			비고
			계	융자	자담	
계	40	120농가	116	80	36	
천진리땅콩재배단지	10	30	29	20	9	
서광리땅콩재배단지	10	30	29	20	9	
오봉리땅콩재배단지	10	30	29	20	9	
조일리땅콩재배단지	10	30	29	20	9	

— 사업장소는 참여농가에서 적정장소를 선정하며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다.

(17) 땅콩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가공, 직접 상품화를 촉진한다.

○ 땅콩 가공시설 지원 계획

사업비 : 백만원

구분 / 마을별	시설규모	시설장소	사업비				비고
			계	보조(국비)	융자	자담	
계	80평		120	60	20	40	
천진리	20평	천진리	30	15	5	10	
서광리	20평	서광리	30	15	5	10	
오봉리	20평	오봉리	30	15	5	10	
조일리	20평	조일리	30	15	5	10	

○ 시설규모는 마을 단위로 가내공업 형식으로 시설한다.

○ 시설장소는 마을별로 주민총회 결의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다.

○ 연차별로 시설비를 지원한다.

(18) 백합구근과 산안장의 실험재배를 계속 촉진하고 상업화한다.

○ 도매

○ 소매 —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

○ 농촌지도소의 지도를 받아 실험재배를 추진하고 농가소득전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 농가에 보급 확대 재배토록 한다.

(19) 고구마 품종을 바꾸기 위한 실험 재배를 계속 지원하고 고구마를 재료로 쓰는 식품 만들기를 장려한다.

○ 농촌지도소의 지도를 받아 고구마를 이용한 음식만들기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고구마 품종을 개량한다.

(20) 도민들이 여러 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제주도공무원교육원 사회산업 연수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민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교육장소는 가급적이면 우도면 사무소 회의실로 한다.

(21) 민박 운영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우도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만이 민박운영을 하도록 한다.

(22) 「팔경의 우도」와 「낚시관광의 우도」를 관광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며 홍보에 주력한다.

○ 우도 8경(牛島八景)

- 주간명월(晝間明月)
- 야항어범(夜航漁帆)
- 천진관산(天津觀山)
- 지두청사(地頭靑紗)
- 전포망도(前浦望島)
- 후해석벽(後海石壁)
- 동안경굴(東岸鯨窟)
- 서빈백사(西濱白沙)

○ 낚시터 개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지방비)	융자	자담	
우도면(계)	4개소	346	104	90	154	
천진리 서천진동	1	87	26	22.5	38.5	
서광리 하우목동	1	87	26	22.5	38.5	
오봉리 전흘동	1	87	26	22.5	38.5	
조일리 영일동	1	87	26	22.5	38.5	

※ 낚시터에는 간이주차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한다.

2. 자연환경분야

1) 환 경

(1) 종합개발계획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산호사 해안선(서빈백사)의 보존을 강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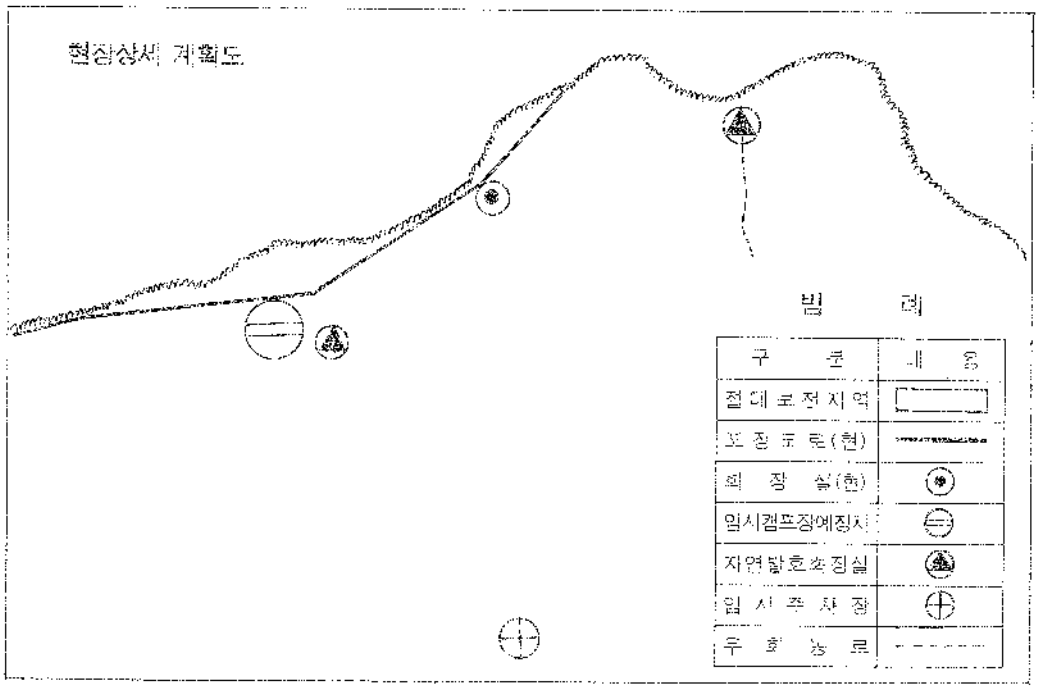
○ 해산물 운송을 위한 경운기와 화장실 관리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의 운행을 통제한다. (경운기는 마을에서 이르는 길에 국한한다.)

○ 인접한 경작지로의 진입을 위하여 우회 농로를 신규 개설 포장한다.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설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 조 (국 비)	자 담	
농로개설 및 포장	우 도 면 천 진 리	L=500m B= 4m	80	72	8	'98 이후



○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 모래 언덕에서의 캠핑을 허용치 않으며, 인접 경작지(또는 야초지)에 임시 사설 캠프장을 허락한다.

○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진항에서 shuttle bus를 운영하며 (7,8월 성수기) 인접한 경작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산호사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광포(넓미역) 채취를 재개한다.

(2) 종합개발계획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하고수동 백사장을 정비하여 자연훼손을 방지한다.

○ 백사장 석축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계	'94	'95	'96	'97	'98~2001
사 업 량 (m)		200	100				100
사업비	계	30	15				15
	보조(지방비)	30	15				15
	융 자						

○ 모래바람으로 인한 인근 가옥에의 피해를 감소하며 해안의 자연훼손을 막기 위하여 주변을 따라가며 나무심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해송, 곤나무 등 해풍에 강하고 향토색 있는 수종을 선택한다.

○ 인접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허용한다.

2) 토지이용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양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방법을 강구한다.

(2) 비양도를 청소년 스포츠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 발효식 화장실, 상수도와 공중전화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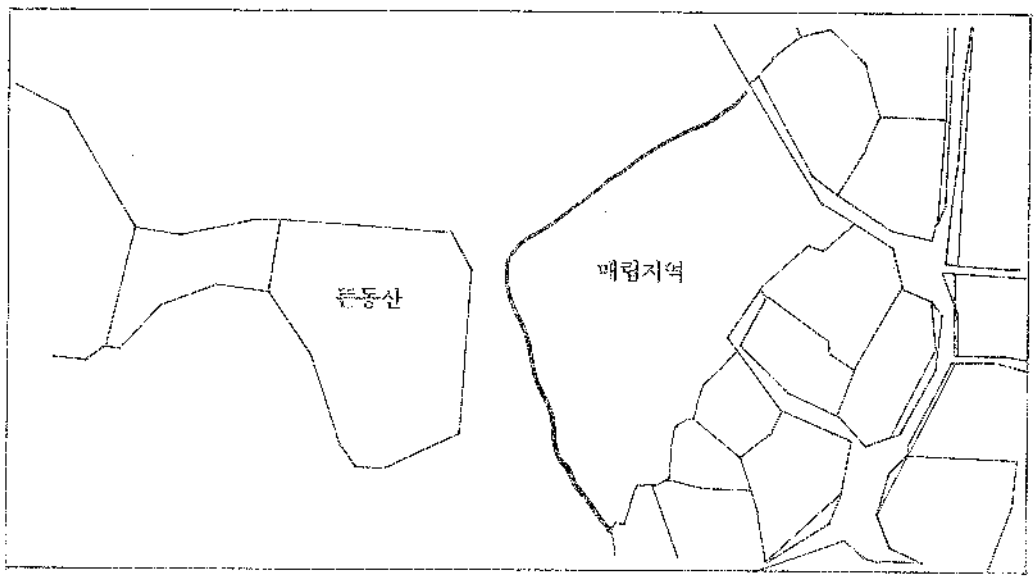
(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천진항 동쪽 연

덕지역과 준도시지역(집단묘지지구)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규 공동묘지 지역에 식수사업을 계속 전개한다.

○ 수종은 해충에 강하고 향토에 맞는 수종(예 : 구름비나무, 해송, 털머위, 콘나무 등)을 선택한다.

(4) 전흘동과 주흥동사이 뜬동산 밑에 매립되고 있는 장소에는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 없도록 녹지공간으로 보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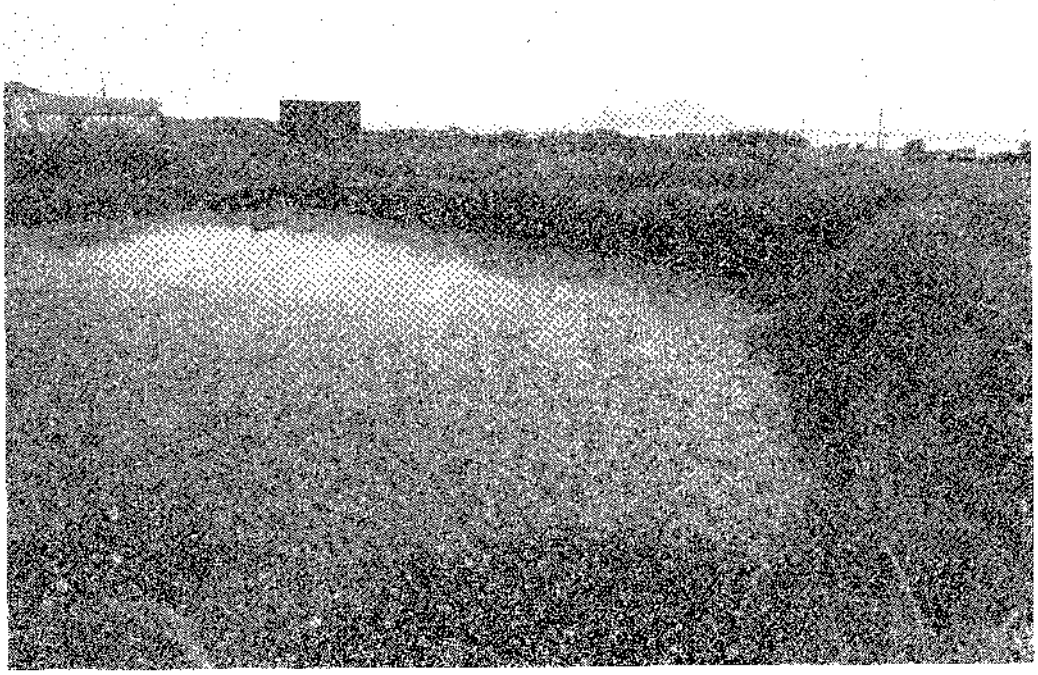
○ 현장 상세 계획도



(5) 신규건축허가(신고)시에는 기존의 마을과 마을 사이(취락지역내)를 메꾸는 형태를 권장하고, 취락지와 떨어진 지역내에는 개별허가(신고) 또는 시설을 억제한다. 취락지역내에서도 하수처리 시설과 상수도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허가토록 한다.

(6) 도 전역에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하고수동·우도봉·해안변을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양행방통 부근에 묘목장을 설치하며 양행방통을 보수하여 물 공급지로 운영하고 묘목은 해수와 바람에 강한 수종(구름비 나무,

털머위, 해송 등)을 선택한다.



앙벵방통과 주변. 이곳에 묘목장을 설치. 앙벵방통을 보수 물공급지로 운영해야 한다.

(7) 유적보호관리

○ 2개소의 광대와 4개소의 당사탑은 각 마을 어촌계가 보호 관리토록 한다.

○ 방문객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1) 교 통

(1) 비포장 도로를 연차적으로 포장한다.

○ 서빈백사 절대보존지역은 제외한다.

○ 포장계획(해안도로 및 농로)

노선별 \ 연도별	사업량 단위	계	'94	'95	'96	'97	'98~2001
계	m	10,500	2,700	1,500	1,500	1,500	3,300
주흥동~하우목동	〃	1,000	500	—	200	200	—
하고수동~전홀동	〃	2,000	500	300	300	300	600
비양동~영일동	〃	2,600	750	300	300	—	1,250
동천간동~하우목동	〃	1,200	300	200	200	300	200
상우목동~하우목동	〃	800	350	200	—	250	—
선천진동~해안	〃	400	200	—	—	200	—
천진리~저수지	〃	1,600	—	300	300	—	950
서광리~오봉리	〃	900	—	200	200	250	250
사업비 계		1,050	270	150	150	150	330
사업비 보조(국비)	〃	1,050	270	150	150	150	330
사업비 융자	〃	—	—	—	—	—	—
사업비 자담	〃	—	—	—	—	—	—

※ 지역별 우선 투자순위는 우도면에서 조정 가능함

(2) 서빈백사 진입로변에(천진동, 하우목동, 상우목동, 기타방향에서 내려오는 도로)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의 도로를 개설 포장한다.

(3) 서빈백사 주변 진입지역에 사설 주차장 시설을 허용한다.

(4) 공공시설은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5) 중앙동 상가지역에 현존하는 공지를 매입하여 공동 주차장으로 포장 조경한다.

○ 중앙동 광장(포장 안된 곳) 현황

위치	소유자	지목	지적	비고
연평리 1404-1	천진1리 1605-2, 윤달선	전	835㎡	1988이후

(6) 천진항 부두에 승객 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통제한다.

(7) 본도와 연결되는 교량시설을 추진한다.

(8) 소규모 어항인 서천진동항을 개발하여 산업항겸 대피항은 물론 우도~종달간, 우도~성산간 항로로 활용토록 한다.

(9) 도 전역에 적정 규격의 도로 표지판을 세운다.

(10) 순환버스 시간을 검토 조정한다.

(11) 해안변을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여 섬 전체를 관광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시설한다.

(12) 흑사포(동안경굴) 돌간이 해안에 물양장 및 선가장을 시설 낚시 관광선 접안 및 조업의 편익을 도모케 한다.

(13) 천진항을 확장 정비한다.

○ 공동주차장을 포장, 조경한다.

위치	규모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공동주차장 포장 및 조경	우도면 연평리 1737-9	포장 1,200㎡ 조경 1식	80	72	—	8	

○ 천진항 확장 정비사업 계획

구분 \ 연도별	단위	계	'94	'95	'96	'97	'98~2001
방파제축조	m	50					50
방파제보강	m	68					68
물양장	m	80	40				80
호안	m	25					25

구분 \ 연도별	단 위	계	'94	'95	'96	'97	'98~2001
준 설	㎡	8,049			4,049		4,000
기 타	식	1 식					1 식
사 업 비	계	2,317	220		556		1,541
	보 조 (국 비) (지방비)	2,313 (2,279) (110)	220 (209) (11)		556 (528) (28)		1,541 (1,470) (71)
	융 자						
	자 담						

2) 상 수

(1) 부족한 식수문제를 해결한다.

○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종달~우도간 해저관로를 개설한다.

(2) 봉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분기 1회 실시(북제주군 보건소 의뢰)

3) 하수와 쓰레기 처리

(1) 미비된 하수관 시설을 확충한다.

○ 하수도 시설계획

연도별 \ 어장별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2001
계	m	4,800	200	600	600	600	2,800
풍 천 진 동	〃	800			200	200	400
서 천 진 동	〃	800		200	200		400
중 앙 동	〃	500				200	300
상 우 목 동	〃	300	200				100

연도별 / 어장별	사업량 단위	계	'94	'95	'96	'97	'98~2001
하우목동	m	200				100	100
주홍동	〃	200				100	100
삼양동	〃	500		200			300
전흘동	〃	300					300
비양동	〃	400					400
영일동	〃	800		200	200		400
사업비 계	백만원	480	20	60	60	60	280
사업비 보조(국비)	〃	480	20	60	60	60	280
사업비 융자	〃						
사업비 자담	〃						

(2) 하수처리는 마을단위로 집단처리 시설을 한다.

○ 집단처리장은 만조선에서 적어도 100m이상 내륙장소에 설치한다.

○ 시설후보 예정지 및 시설계획

연도별 / 시설예정지	사업량 단위	계	'94	'95	'96	'97	'98~2001
계	㎡	4,000					4,000
천진리	〃	1,000					1,000
서광리	〃	1,000					1,000
오봉리	〃	1,000					1,000
조일리	〃	1,000					1,000

연도별 / 시설예정지		사업량 단 위	계	'94	'95	'96	'97	'98~2001
사업비	계	백만원	1,200					1,200
	보조(국비)	〃	1,200					1,200
	융 자	〃						
	자 담	〃						

(3) 쓰레기 수거·매립장관리 관계요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한다.

(5)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물품들을 특별수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수거한다.

(6) 제2의 쓰레기 매립 후보장소 선정

○ 쓰레기 매립장은 지하수, 지질, 해수의 오염방지에 최적인 방안을 채택 관리한다.

○ 제2 쓰레기 매립장 후보 예정지

위 치	지 목	지적(㎡)	소 유 자	매립 가능량
연평리 730 주변	잡	1,500	국	10,000M/T

※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는 우도면 주민의 총의에 의한 변경이 가능함

(7) 해안가 폐유수집장소에 대한 관리와 시설을 보강한다.

4) 에 너 지

(1) 증가하는 전기 수요 추세에 맞는 공급량 확보한다.

(2) 교육시설에 필요한 전압 확충을 우선적으로 한다.

(3) 해저 전기시설 당시(1987) 차입한 융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분야

1) 교 육

(1) 연평초등학교에 skate board, roller skating rink를 설치

(2) 연평초등학교에 다목적 오락실 설치

— 기존의 교실활용을 우선으로 한다.

(3) 연평초등학교에 정기적으로 도서문고 확충

(4) 연평중학교 교실을 방과후에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등시설 확충 및 형광등 소리 제거

(5) 연평중학교에 체육관 시설

— 연평중학교 테니스장 설치

(6) 연평중학교 학용품과 간식을 파는 매점 운영

(7) 연평중학교에 정기적으로 도서문고 확충

(8) 제주시 서점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책 우편주문제 방안 마련

(9) 이동문고 제도를 강화하여 우도를 비롯한 여러 고립된 지역을 순회한다.

(10) 제주 본도로 진학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주시 인근에 마련한다. (민자 유치 및 융자지원 등)

2) 보건의료

(1) 보건지소 치과실에 새 compressor 구입

(2)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구강진단과 치료를 겨울방학(2월)에 실시하여 완전치료 할 수 있도록 한다.

(3) 내과에 필요한 혈액검사 장비 및 X-Ray 촬영기를 배치한다.

3) 스포츠와 문화

(1) 본도에서 사범을 초청하여 무술반(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을 적어도 초등학교 1~3학년, 4~6학년, 중학교 1~3학년 등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장소는 연평중학교에 체육관이 시설될 때까지는 사회복지회관 강당을 개조 사용한다. (현재의 시멘트 바닥에 나무 마루를 깔거나, mattress를 확보한다.)

(2) 비양도를 청소년들의 스포츠 공원으로 활용한다.

- 잔디위에 널려 있는 돌들을 치우고 필요한 수도시설, 자연발효식 화장실과 공중전화 설치

(3) 도내에 이동 예술관을 설치하여 적어도 1년에 두번씩 우도를 포함한 여러 고립된 지역을 순회한다.

(4) 동화작가나 시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이 우도에서 작품, 시 읽기 밤을 개최토록 권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을 자주 갖도록 한다. (장소는 각 학교나 복지회관)

(5) 어른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분기 1회 연평중학교 주관하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공 안(公安)

(1) 소방차를 구입 배치한다. (장기적으로 소방·파출소를 설치한다.)

○ 소방·파출소 설치 계획

위 치	규 모	인 원	장 비	비 고
연평리 1451-3번지	50평	5명	소방차 1대	1988 이후

※ 우도면 사무소내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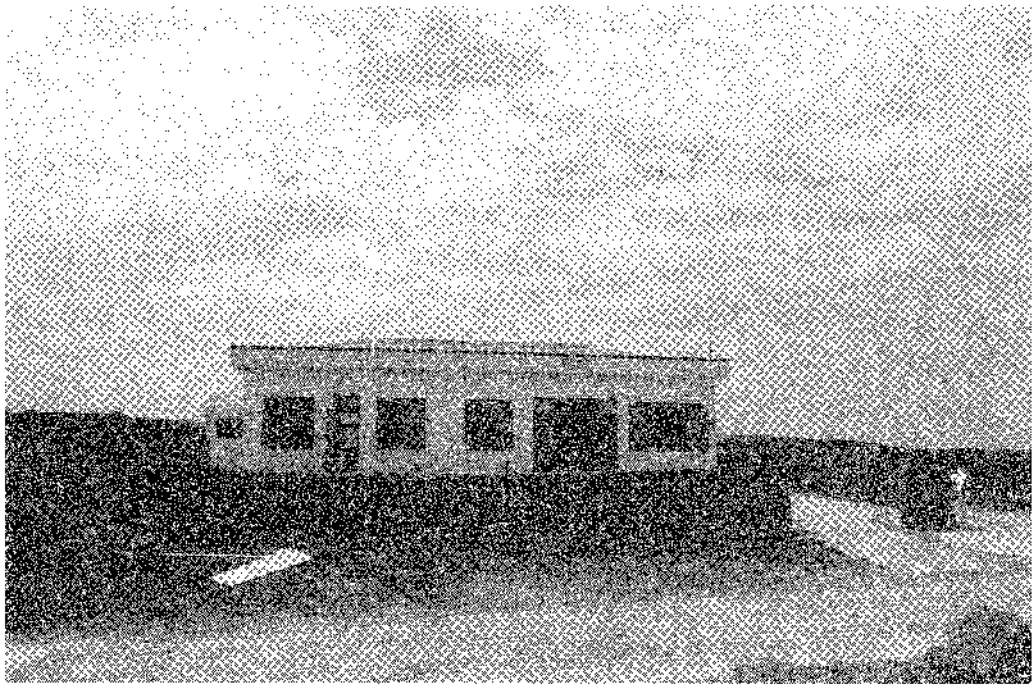
5) 주 택

(1) 폐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폐가는 허물도록 한다.

(2) 민박업소의 방수가 세개이상인 집은 주인식구들이 쓰는 화장실, 욕실과 손님들이 쓰는 화장실, 욕실을 따로 둘 수 있도록 행정지원(융자금 알선 등)을 한다.

(3) 민박 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지도한다.

- 연 2회 - 군
- 분기 1회 - 우도면



민박 가옥 전경. 이의 본격적인 개발은 관광소득을 우도주민의 피부에 직접 닿게 하는 일환책이기도 하다.

5. 정부분야

우도계획을 실시하는 주체는 북제주군이다. 대부분의 계획자체가 북군의 자체 예산이나 중앙정부 또는 민간협의체의 보조로 실행을 하여야 하는 성격의 것들이다. 그리고 적은 부분만이 민간이 실행하게 된다.

(1) 북군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수한다.

(2) 민간이 계획의 일부를 이행할 때에는 모든 허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여 조속한 계획 이행을 도모한다.

(3) 북군의 예산책정에 이 계획들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조속한 실행을 도모한다.

(4)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시행될 부동산세제가 이러한 계획 실행과 병행하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5) 우도면 개발자문위원회가 이 계획의 실행을 점검하고, 또 계획수정에도 참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6.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사업량 단위	총 사업비	'94	'95	'96	'97	'98~2001
총합계			18,836	1,083	2,117	3,114	2,666	9,856
□ 사회경제분야			13,199	558	1,707	2,348	2,356	6,230
1. 인공어초시설	866	ha	2,601	180	300	300	300	1,521
2. 투석사업	40	ha	600	60	75	75	75	315
3. 어패류종묘배양	1	개소	259	20	30	30	30	140
4. 전복종패방류	790	천미	158	8	20	20	20	90
5. 전복양식	1	개소	320	—	—	320	—	—
6. 방파제 시설	541	m	3,989	—	494	1,023	1,253	1,219
7. 물양장 시설	304	m	1,511	91	—	—	—	1,420
8. 어장진입로 정비	2,200	m	242	44	44	44	44	66
9. 노후어선 현대화	225	톤	1,155	66	99	99	99	792
10. 어선급유시설	200	드럼	10	—	—	—	—	10
11. 수산물 공동창고	2/200	동/평	200	—	—	100	100	—
12. 천진항 대합실 건립	1/150	동/평	270	—	270	—	—	—
· 수산물 직판장	식	1	60	—	—	—	—	60
13. 스쿠버다이버 훈련	80	명	—	—	—	—	—	—
14. 잠수탈의장시설	7	개소	245	35	35	35	70	70
15. 농어민후계자	39	명	784	54	144	81	144	281
16. 땅콩협업단지	4	개소	116	—	29	29	29	29
17. 땅콩 가공시설	80	평	120	—	30	30	30	30
18. 백합, 선인장 재배	—	—	—	—	—	—	—	—
19. 고구마 품종갱신	—	—	—	—	—	—	—	—
20. 산업정보 습득	—	—	—	—	—	—	—	100
21. 민박 운영	60	동	300	—	50	75	75	87
22. 낚시터 개발	4	개소	348	—	87	87	87	—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업량 단 위	총 사업비	'94	'95	'96	'97	'98~ 2001
□ 자연환경분야			210	15	—	—	100	95
1. 산호사 해안보존			180	15	—	—	100	80
· 우회농로개설	500	m	80	—	—	—	—	80
· 광포 건조시설	1/50	동/평	100	—	—	—	100	—
2. 백사장 석축	200	m	30	15	—	—	—	15
□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5,427	510	410	766	210	3,531
○ 교 통			3,447	490	150	706	150	1,951
1. 비포장도로 포장	10,500	m	1,050	270	150	150	150	330
2. 천진항 확장정비								
· 공동주차장 포장	1,200	㎡	80	—	—	—	—	80
· 천진항 확장	1	식	2,317	220	—	556	—	1,541
○ 하수와 쓰레기처리			1,680	20	260	60	60	1,480
1. 하수관시설	4,800	m	480	20	60	60	60	280
2. 하수처리시설	4/4,000	개소/㎥	1,200	—	—	—	—	1,200
3. 쓰레기 매립장시설	1,500	㎡	200	—	200	—	—	—
○ 공 안			100	—	—	—	—	100
1. 소방관 파출소	1	개소	100	—	—	—	—	100

자 료 편

사회경제분야

1. 인 구(1988~1993) ……524
2. 인구 증가 전망 ……525
3. 입도 관광객 현황 ……525
4. 수산물 생산량 ……526
5. 공동어장 현황 ……526
6. 어선세력 현황 ……528
7. 해녀 증감 전망 ……528
8. 잠수 탈의장 시설 현황 ……528
9. 농어민후계자 현황 ……528
10. 농업가구 및 인구 ……529
11. 주요작물 생산량 ……529
12. 땅콩 생산량 전망 ……529
13. 농산물 보관창고 현황 ……530
14. 화학비료 사용량 ……530
15. 업소현황 ……530
16. 민박지정현황 및 수요 전망 ……530

자연환경분야

1. 보전지역 현황 ……531
2. 토지 등별 현황 ……531
3. 국토이용·관리 현황 ……531
4. 비양도 현황 ……534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

1. 도로현황 ……535
2. 천진항 현황 ……535
3. 상수원(저수지) 현황 ……537
4. 지하수 개발현황 ……537
5. 장래 용수수요 추정 ……537
6. 쓰레기 매립장 현황 ……538
7. 폐유수집장소 현황 ……538

교육·사회복지시설 분야

1. 초등학교 학생현황(1993) ……539
2. 중학교 학생현황(1993) ……539
3. 폐가구 현황 ……539
4. 민박 지정 기준 ……540

우도계획의 부록인 이 자료편은 우도계획 성립의 배후자료를 한데 묶은 것이다.

우도면의 정치단위 변천상, 역사적 통계자료는 부족하여 현황(1992년이나 1993년) 자료만을 수집하였다.

첫편에는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사회경제분야

인구와 경제활동 상태를 포함한다. 역사적 통계를 분석하여 앞으로 20년 후의 추세를 알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우도면의 정치단위 변천상 역사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다. 더구나 종합계획에서 우도라는 작은 지역의 통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인구추세나 경제활동도 세부분석(micro-analysis)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제주군 기획실에서 준비한 개괄적인 추세를 인용하였다.

자연환경분야

환경과 토지사용에 관한 자료를 다루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

환경과 토지사용에 필요한 기본시설들 즉 교통수단을 위한 도로, 주차장, 방파제, 항만 등에 관한 자료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상하수 시설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자료를 다루었다.

교육과 사회복지 시설

물적시설에 중점을 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비교할 때 교육과 사회복지시설은 물적인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에 관한 역사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서술하는데 주력하였다.

정 부

우도계획을 실시하는 주체는 북제주군임으로 북군 기관 중 계획사항과 관련된 기관의 특별한 정책이나 조례등과 또 계획사항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 자료편의 두번째 편에는 우도 주민들과의 대화를 기록하여 실었다.

도민들 자신이 느끼고 있는 우도의 좋은 점들이 무엇인가, 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앞으로 우도가 해결해야 할 점들 즉 계획하는 점들이 무엇인가를 서술하였으며 가능한 그 순위까지도 결정을 하였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첫번째 회의는 1993.8.19 ~ 21일까지 각 里마다 있었고, 두번째 회의는 10.22일에 있었으며 가장 바쁜 수확시기임을 감안하여 각 통장, 이장 그리고 농협 등 단체장들과 함께 만난 전체 회의였다.(참가자 명단을 첨부하였다.)

현 황 자 료

사회경제분야

1. 인 구

단위 : 명, 가구

구 분		인 구			세대수	비 고
		계	남	여		
'87	군 전 체	112,928	54,273	58,655	27,128	
	우 도 면	3,254	1,532	1,722	669	
	천 진 리	735	332	403	146	
	서 광 리	662	328	334	153	
	오 봉 리	1,072	493	579	219	
	조 일 리	785	379	406	151	
'88	군 전 체	112,725	54,253	58,472	27,183	
	우 도 면	3,224	1,491	1,733	666	

구 분		인 구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88	천 진 리	728	324	404	147	
	서 광 리	654	318	336	151	
	오 봉 리	1,068	481	587	216	
	조 일 리	774	368	406	152	
'89	군 전 체	112,842	54,272	58,570	27,220	
	우 도 면	3,210	1,495	1,715	663	
	천 진 리	732	345	387	153	
	서 광 리	638	311	327	151	
	오 봉 리	1,071	485	586	217	
	조 일 리	769	354	415	142	
'90	군 전 체	108,805	53,370	55,435	26,784	
	우 도 면	3,108	1,503	1,605	660	

- 조사시 마을별인구 미조사 -

2. 인구 증가 전망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0년	1997년	2001년	비 고
북제주군	108,805	104,000	100,000	
우도면(계)	3,108	2,380	2,100	

※ 자료 : 북제주군 기획실

3. 일도 관광객 현황

년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인 원	2,500	3,000	4,000	6,000	10,000	13,000

※ 자료 : 북제주군 우도면

- 1992년 6월 도항선 대형화 시작되었음

4. 수산물 생산량

구 분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감 태	60 (60)	214 (214)	365 (365)	125 (125)	305 (305)	47 (47)	123 (123)	—	70 (70)	194 (194)
톳	103 (101)	132 (131)	131 (129)	114 (112)	86 (84)	92 (90)	76 (74)	52 (50)	60 (58)	43 (42)
천 초	373 (373)	356 (356)	323 (323)	372 (372)	350 (350)	379 (379)	344 (344)	408 (408)	379 (379)	309 (309)
패 류	80 (70)	81 (71)	40 (31)	29 (17)	28 (14)	30 (18)	34 (22)	36 (24)	40 (31)	31 (23)
어 류	284 (4)	269	354	340 (205)	328 (117)	312 (13)	294 (16)	282 (20)	269 (12)	265 (246)
기 타	169 (22)	173 (27)	210 (85)	201 (78)	181 (26)	198 (50)	210 (81)	229 (170)	198 (71)	232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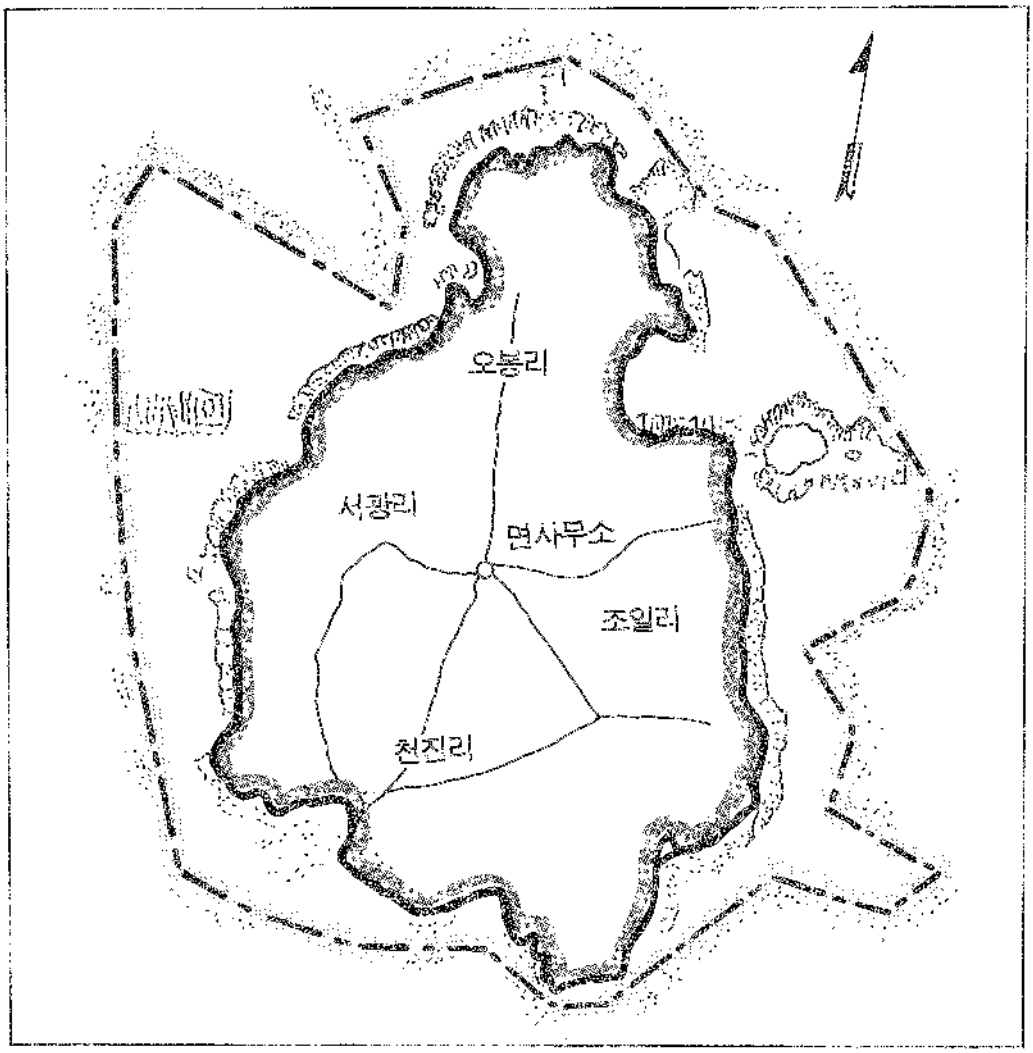
※ ( )은 위탁판매 수량임.

5. 공동어장 현황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수면의 위치	어장면적	수면의 구역
제 1 종 공동어장	나짐도수	연평지선	6,271,000㎡	· 우도 북단 돌각 · 우도 남단 돌각 · 동천진항 남측 돌출부 · 동천진항 서측 돌출부

※ 자료 : 옹계주근 수산과

○ 공동어장도



※ 공동어장내에서

가. 할 수 있는 행위 :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패류, 해조류 또는 문어, 낙지, 성게, 게, 갯지렁이, 해삼 등을 채취하는 어업

나. 할 수 없는 행위 : 어선어업중 자망, 문어단지 등은 공동어장내에서 조업 제한

6.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구 분	계	1 톤 미만	1 ~ 5 톤	5 ~ 10 톤	10 ~ 20 톤	20 ~ 30 톤	30 ~ 50 톤	50톤 이상
북 제 주 군	878	61	557	176	22	20	40	2
우도면	47	-	38	8	1	-	-	-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 (1992)

7. 해녀 증감 전망

단위 : 명

연 도 / 구 분	1992년	1997년	2001년	증 감 (1992~2000)
우도면(계)	392	370	350	△ 9

8. 잠수 탈의장시설 현황

구 분 / 마 을 별	시 설 규 모	시 설 년 도	비 고
계	60평		
천 진 리 동 천 진 동	15	'93	
서 광 리 하 우 목 동	15	'86	
조 일 리 비 양 동	15	'86	
조 일 리 영 일 동	15	'93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1993)

9. 농어민 후계자 현황('93년도)

단위 : 명

구 분	계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	비 고
북 제 주 군	479	302	177	
우 도 면	25	11	14	

※자료 : 북제주군 산업과, 수산과

10. 농업가구 및 인구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농업가구(호)	172	170	168	147	142
농업인구(명)	813	708	707	569	518
종사원수(명)	321	315	314	271	262

※ 자료 : 북제주군 우도면

11. 주요작물 생산량

단위 : ha/M/P

연도별 \ 작물별		대 맥 (보리)		낙화생 (땅콩)		고 구 마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조 곡	정 곡
'88	군전체	4,400	12,319	-	-	2,346	52,748	16,352
	우도면	212	594	-	-	330	7,419	2,300
'89	군전체	4,339	14,323	-	-	2,320	55,680	17,261
	우도면	212	165	-	-	352	8,448	2,619
'90	군전체	5,446	15,412	83	135	2,443	56,921	17,644
	우도면	283	801	20	135	330	7,788	2,416
'91	군전체	5,933	16,800	105	146	2,171	50,090	15,528
	우도면	307	870	53	140	270	6,231	1,931
'92	군전체	5,615	19,653	112	85	2,127	47,488	14,720
	우도면	270	945	102	85	286	6,384	1,979

12. 땅콩 생산량 전망

단위 : ha/M/T

구분 \ 연도	1992년		1993년		2000년		비 고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북제주군	112	95	140	119	150	127	
우 도 면	102	85	125	106	140	119	
비 율 (%)	91	89	89	89	93	94	

※ 자료 : 북제주군 산업과

13. 농산물 보관창고(비료창고 포함) 현황

소재지	규모		소유자	건축년도	운영주체	용도	보관능력(톤)	주요보관작물또는비료
	동수	건평						
계	4	224평					1,007	
연평리 2395	1	29	구좌농협	66	구좌농협	창고	70	맥주맥 겅콩
〃 1447	1	55	〃	84	〃	〃	247	〃
〃 1447-3	1	70	〃	87	〃	〃	315	비료
〃 610-8	1	70	〃	76	〃	〃	315	괙주맥 땅콩

14. 화학비료 사용량

단위 : 성분 M/T

연도별 / 비종별	'87	'88	'89	'90	'91	'92
계	241.8	282.6	307.5	329.4	271.5	241.8
질소	73.7	88.7	98.9	104.5	86.3	79.2
인산	71	80.4	90.3	97.9	75	83.3
가리	97.1	113.5	118.3	127	110.2	102.3

※ 우도내에 반입된 화학비료량(농협) 통계

15. 업소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대중음식점	간이주점	숙박업	다방	비고
우도면	9		2	1	8

※ 자료 : 북제주군 사회과

16. 민박 지정 현황 및 수요전망

단위 : 가구

연도별 / 구분	1992년	1997년	2001년	비고
우도면	5	25	60	

※ 자료 : 북제주군 문화공보실

자연환경분야

1. 종합개발계획 보전지역 현황

단위 : ㎢

지 역 명	소 재 지	면 적	비 고
우도산호사해안변	· 우도면 천진동 - 하우목동해안	0.096	절대보전지역
우도 소머리해안	· 우도면 연평리	0.481	〃
우 도 면	· 해안가 일대	1.01	상대보전지역

○ 종합개발계획 보전지역 현황도

"별첨"

2. 토지종별 현황

단위 : ㎢

지목별 / 구 분	계	전	임 야	대 지	기 타
우 도 면	6.05	4.13	0.92	0.32	0.50
비 율(%)	100	72	15	5	8

※ 자료 : 북제주군 도시과(1993)

3. 국토이용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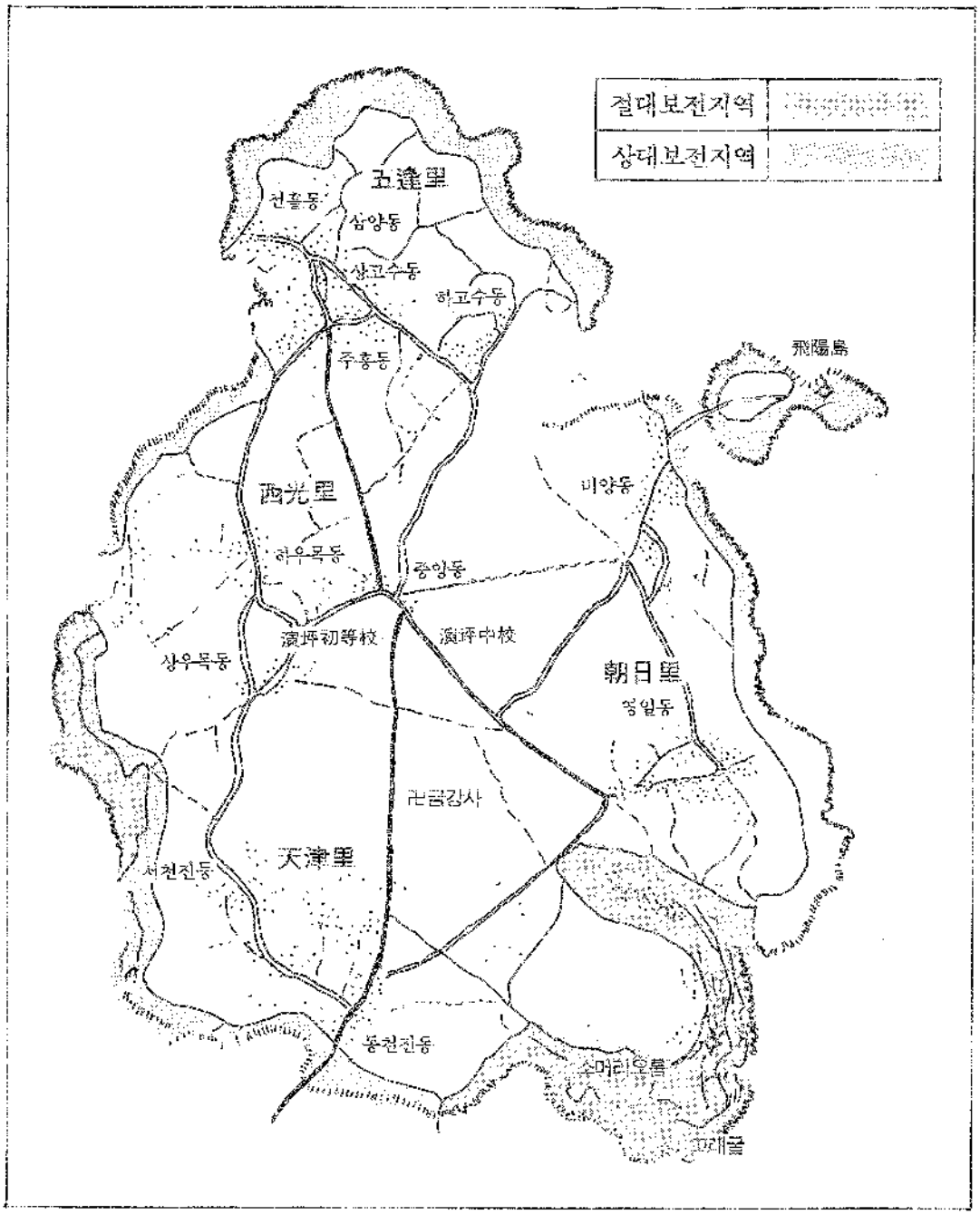
단위 : ㎢

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6.05	-	0.64	0.11	5.02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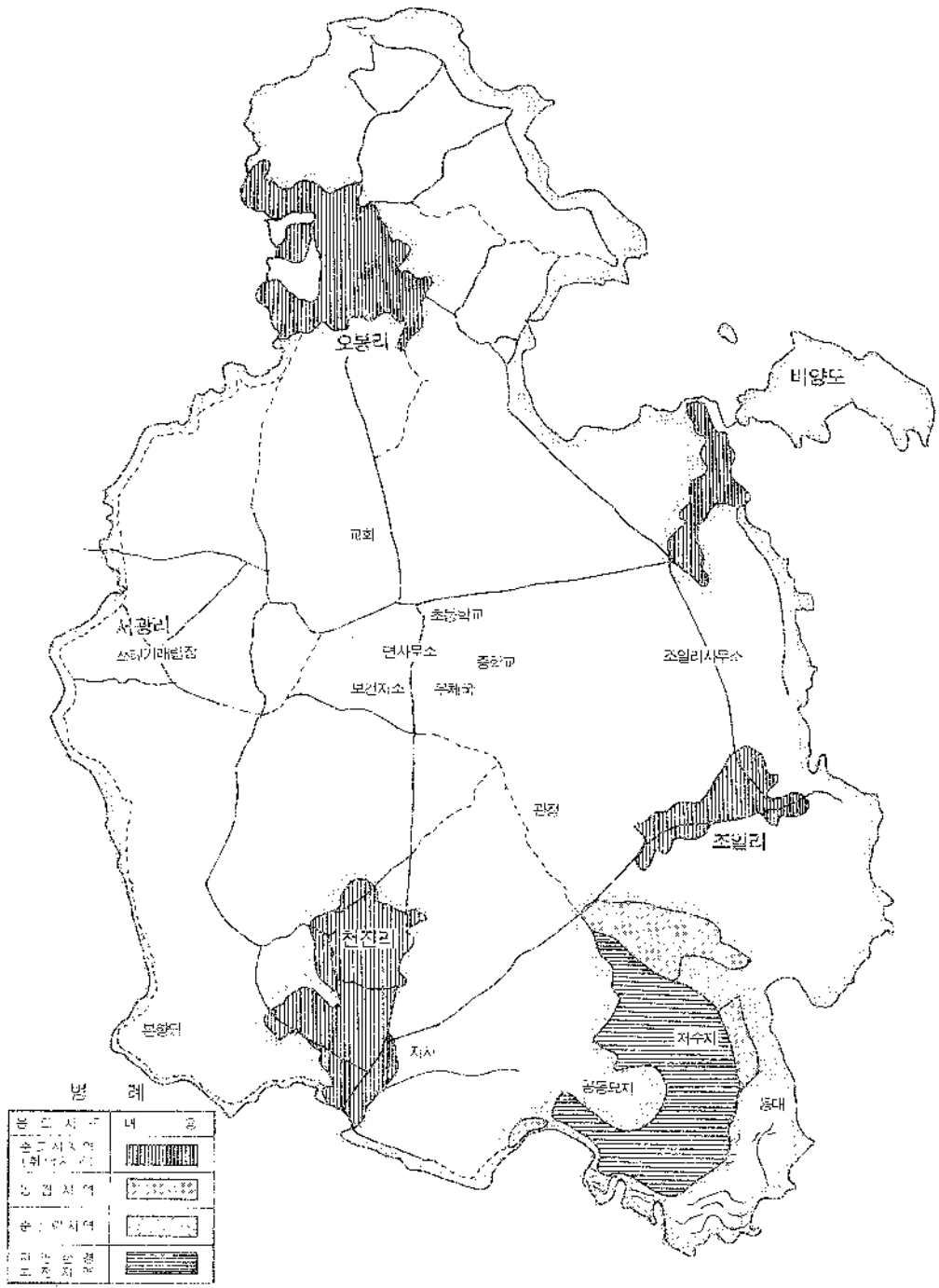
○ 국토이용 계획도

"별첨"

○ 종합개발계획 보전지역 현황도



牛島面國土利用計劃圖


오봉리
비양도
교회
서광리
스타기래빈집
초등학교
면사무소
중학교
보건지소
우체국
조일리사무소
관정
조일리
천진리
분향터
저수지
공동묘지
동대
범 례
내 용

4. 비양도 현황

가. 토 지

단위 : ㎡

계	전	임 야	대	도 로	기 타
28,903	-	27,217	-	1,686	-

※ 자료 : 북제주군 도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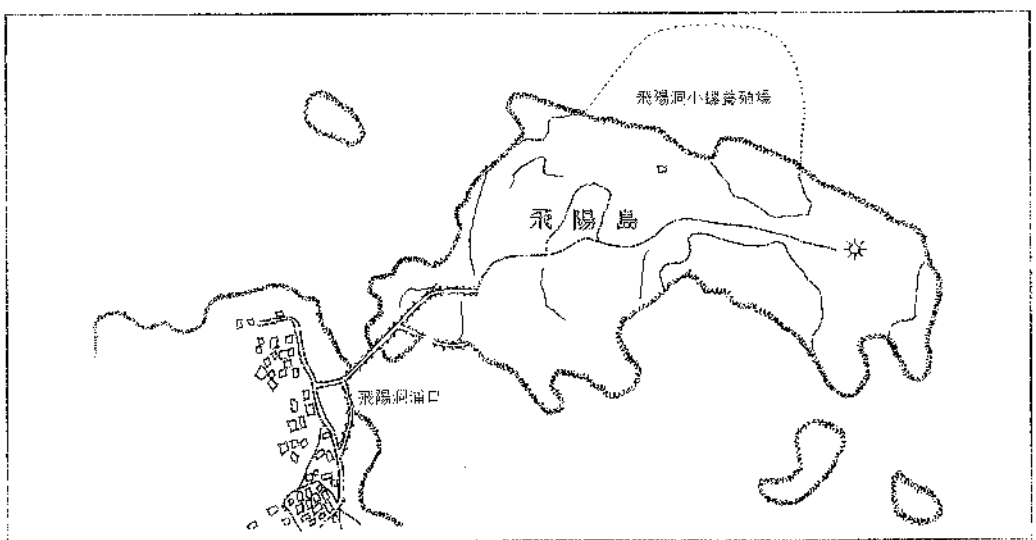
나. 토지소유현황

단위 : 명/㎡

계	도 내 인		도 외 인	공공기관 (국·건설부)
	우 도 면	기 타		
19/ 28,903	6/ 9,759	4/ 4,308	8/ 13,150	1/ 1,686

※ 자료 : 북제주군 도시과

○ 현 황 도



사회간접 자본시설

1. 도로현황

구 분	계		포 장		비 포 장	
	연장(㎞)	폭(m)	연장(㎞)	폭(m)	연장(㎞)	폭(m)
계	45.6	3 ~ 4	16.7	3 ~ 4	28.9	3 ~ 4
군 도	5.7	4	5.7	4	-	-
면 도	6.0	4	5.0	4	1.0	4
리 도	9.2	3 ~ 4	1.0	4	8.2	3
농 로	7.5	3	0.9	3	6.6	3
기 타	17.2	3	4.1	3	13.1	3

○ 도로망 현황도

"별첨"

2. 천진항 현황

가. 일반현황

항 종	관 리 청	지 정 년 월 일	항 내 수 면 적	교 통			비고
				성 산	세 화	김 녕	
2종항	제 주 도	'72. 3. 13	34,600㎡	3.5㎞	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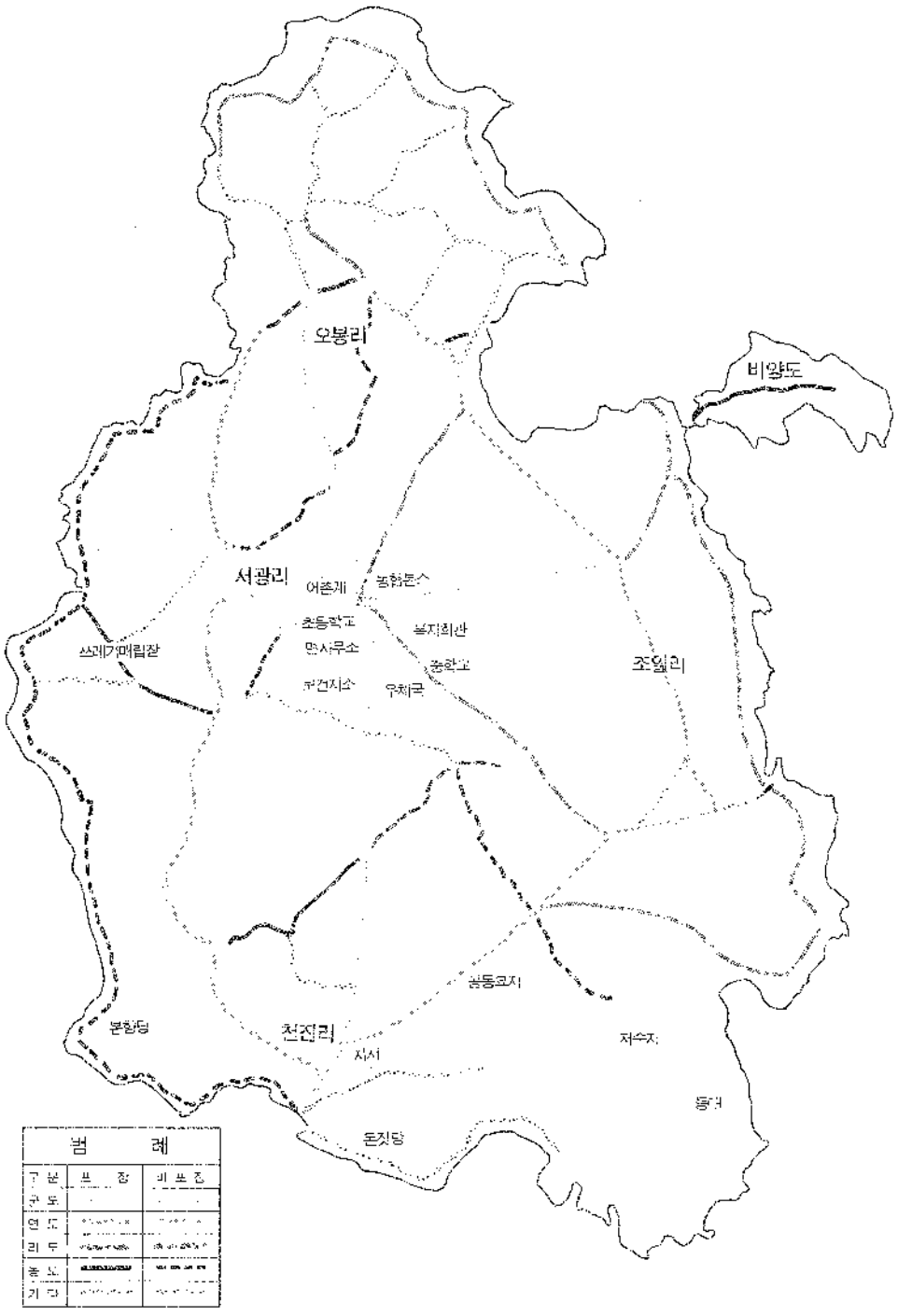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

나. 해운 현황

입출항척수 (일최대)	주 요 입 하 명	입출하량	교 역 지	여 객 선 운 항 지	비 고
10척내외	생필품및 건 재 품	20%t내외	성 산 항 세 화 항	성 산 항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

도로망 현황도


오봉리
비양도
서광리
어촌계
농협돈사
초등학교
보건진료소
면사무소
중학교
쓰레기매립장
우체국
조일리
금동포지
본향당
천진리
시서
저수지
돈짓당
범 례
구 분
도 로
하 천
경 지
기 타

다. 시설 현황

방파제축조	방파제보강	물양장시설	준 설	매 립	비 고
200m	42m	160m	9,985㎡	1,730㎡	

※ 자료 : 북제주군 수산과

3. 상수원(저수지) 현황

위 치	저 장 가 능 량 (TON)	조 성 년 월 일	급수인구 (가구/명)	1인 1일 급 수 량
연 평 리 382 일대	50,000	1. 최초조성 : 1968년도 2. 확 장 : '91.9.30	621/ 2,243	180ℓ

※ 자료 : 북제주군 건설과, 사회진흥과

4. 지하수 개발현황

- 조사위치 : 연평리 503-2 (W-32공)
  〃 419 (W-33공)
- 조사일시 : '92.12.11
- 수 질 : 염분농도 350 ~ 500PPm (기준 150PPm)
- 채 수 량 : 740톤/일
- 수 위 : 33m
- 용 도 : 염분농도 과다로 잡용수로 사용(농축용수로 활용방안 검토)

5. 장래 용수 수요 추정

○ 용수수요 추정 기준

- 2000년까지는 현재 수립중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북제주군 실시계획 및 우도 발전계획 반영된 인구, 관광수요(관광객, 객실수), 농지면적, 가축수 등의 지표를 토대로 일평균 이용량 기준으로 추정(1992년 1인 1일 180ℓ → 2000년 1인 1일 215ℓ로 증가 전망)

- 용수 수요 추정

구 분	1992	2001	비 고
· 생활용수			
- 추정인구(인)	2,243	2,100	
- 1인 1일 급수량(ℓ)	180	215	
· 관광용수			
- 관광객(인)	10,000	50,000	
- 객실수(민박, 실)	10	60	
· 농축용수			
- 땅 콩(ha)	102	140	
- 맥 류(ha)	270	230	
- 채소류(ha)	43	50	
- 소 (두)	255	350	
- 돼 지(두)	126	160	

6. 쓰레기 매립장 현황

위 치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조성년도	매 립 가 능 량	향 후 매립기간
연 평 리 2365	전	1,706	오봉리932 강 길 홍	1990년	7,300㎥ (1일4톤)	1994

7. 폐유수집장소 현황

마 을 별	위 치	수집가능량	비 고
우 도 면 (계)	6 개 소	12㎥	
천 진 리	동천진동	2	
서 광 리	하우목동	2	
오 봉 리	주 흥 동	2	
오 봉 리	전 흘 동	2	
오 봉 리	하고수동	2	
조 일 리	비 양 동	2	

교육·사회복지시설 분야

1. 초등학교 학생 현황('93)

학 년		계	1	2	3	4	5	6	특 수
학급수		7	1	1	1	1	1	1	1
아동수	남	94	14(2)	14	14	11(1)	20(1)	21	(4)
	여	96	13	7	11	21(1)	23(1)	21	(2)
	계	190	27(2)	21	25	32(2)	43(2)	42	(6)

2. 중학교 학생 현황('93)

학 년	1	2	3	계
학 급 수	1	1	1	3
남	20	26	18	64
여	17	20	29	66
계	37	45	47	129

3. 마을별 폐가구현황('93. 12. 31 현재)

단위 :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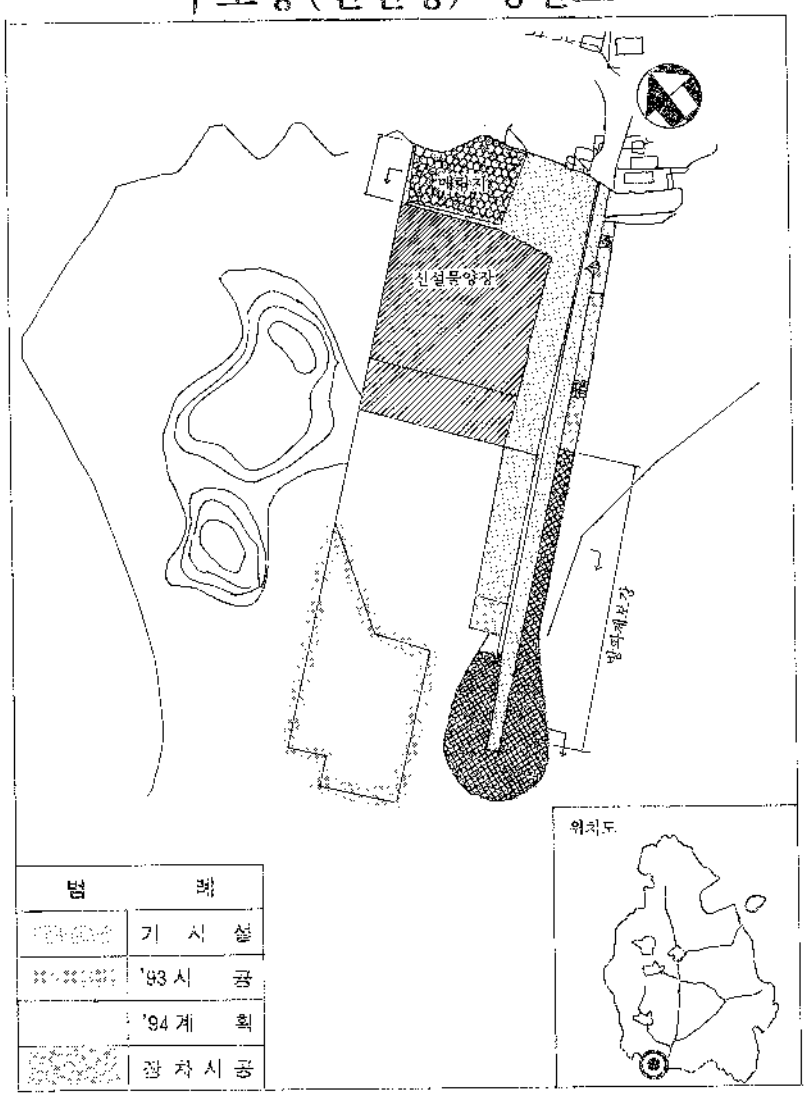
구분 / 마을별	주 택 수	폐 가 수	비 고
우 도 면 (계)	618	15	
천 진 리	139	3	
서 광 리	126	3	
오 봉 리	207	7	
조 일 리	146	2	

※ 자료제공 - 우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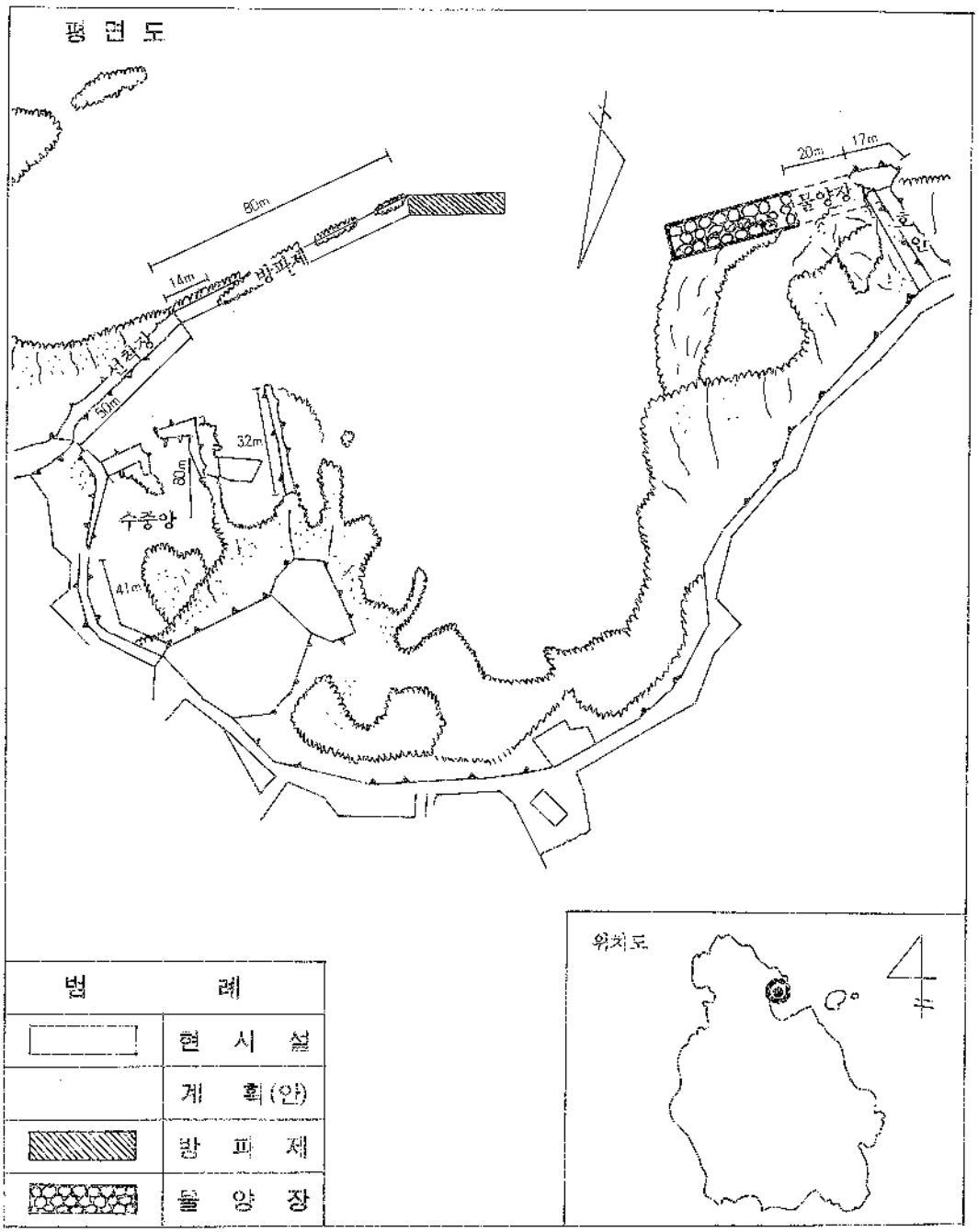
4. 민박 지정기준

- 건물면적 : 66㎡(20평) 이상 주택
- 시설기준 : 방. 2.5평이상
- 건물내 외부시설 환경이 양호한 주택중 부대시설(전화, 화장실,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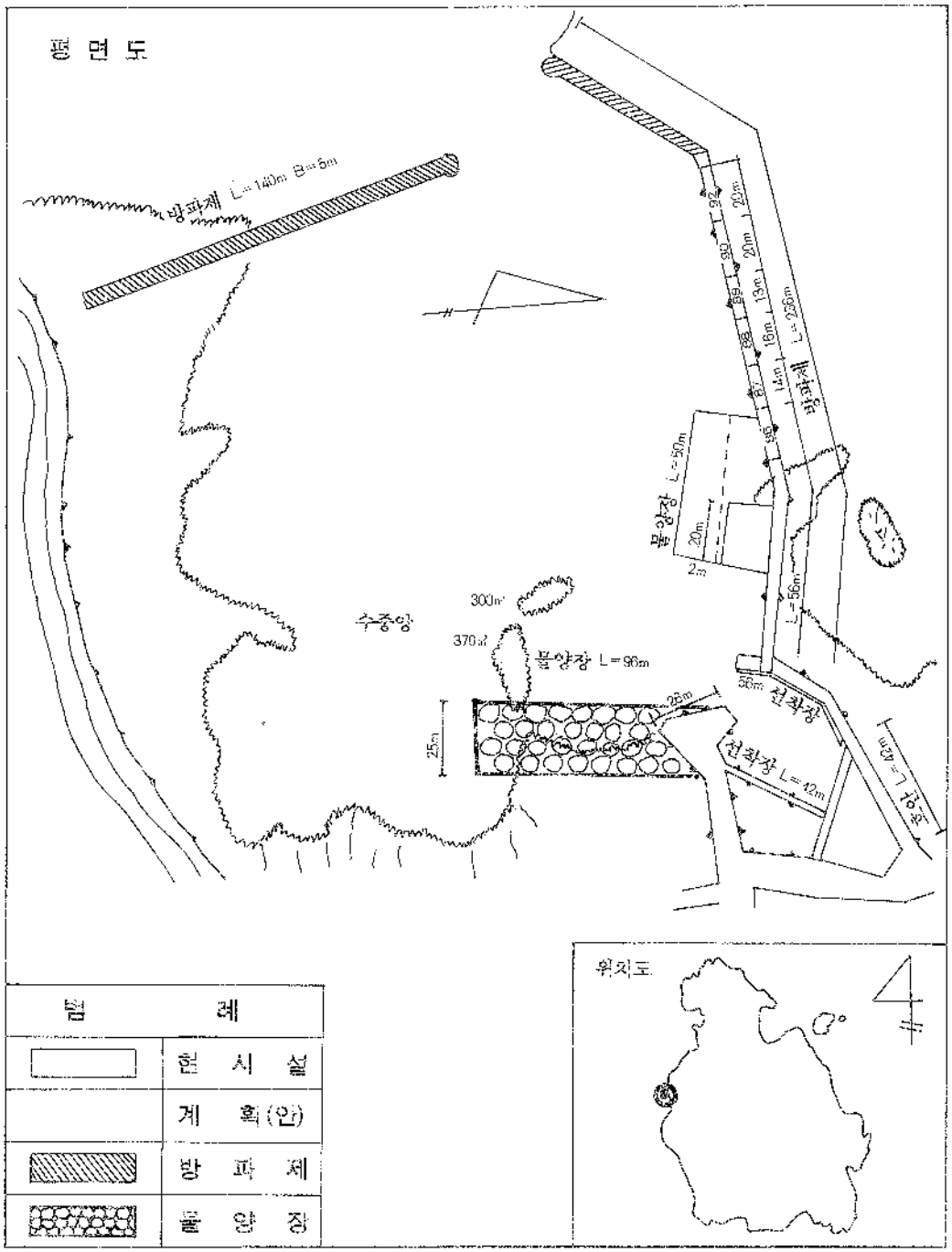
우도항(천진항)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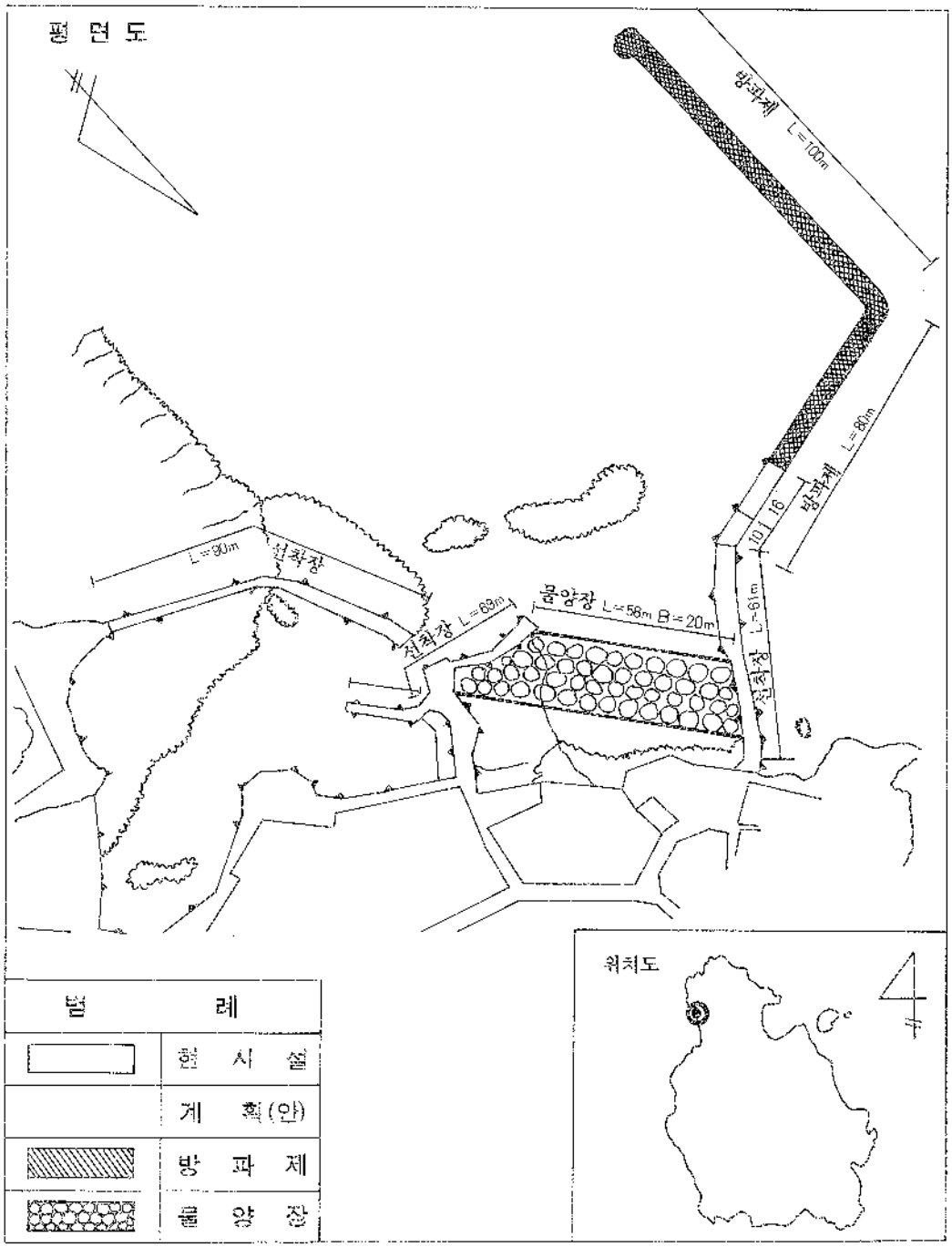
하 고 수 동 항


평 면 도
80m
14m
방파제
시설장
50m
32m
80m
수중앙
41m
20m
17m
물양장
호안
범 례
현 시 설
계 획(안)
방 파 제
물 양 장
위치도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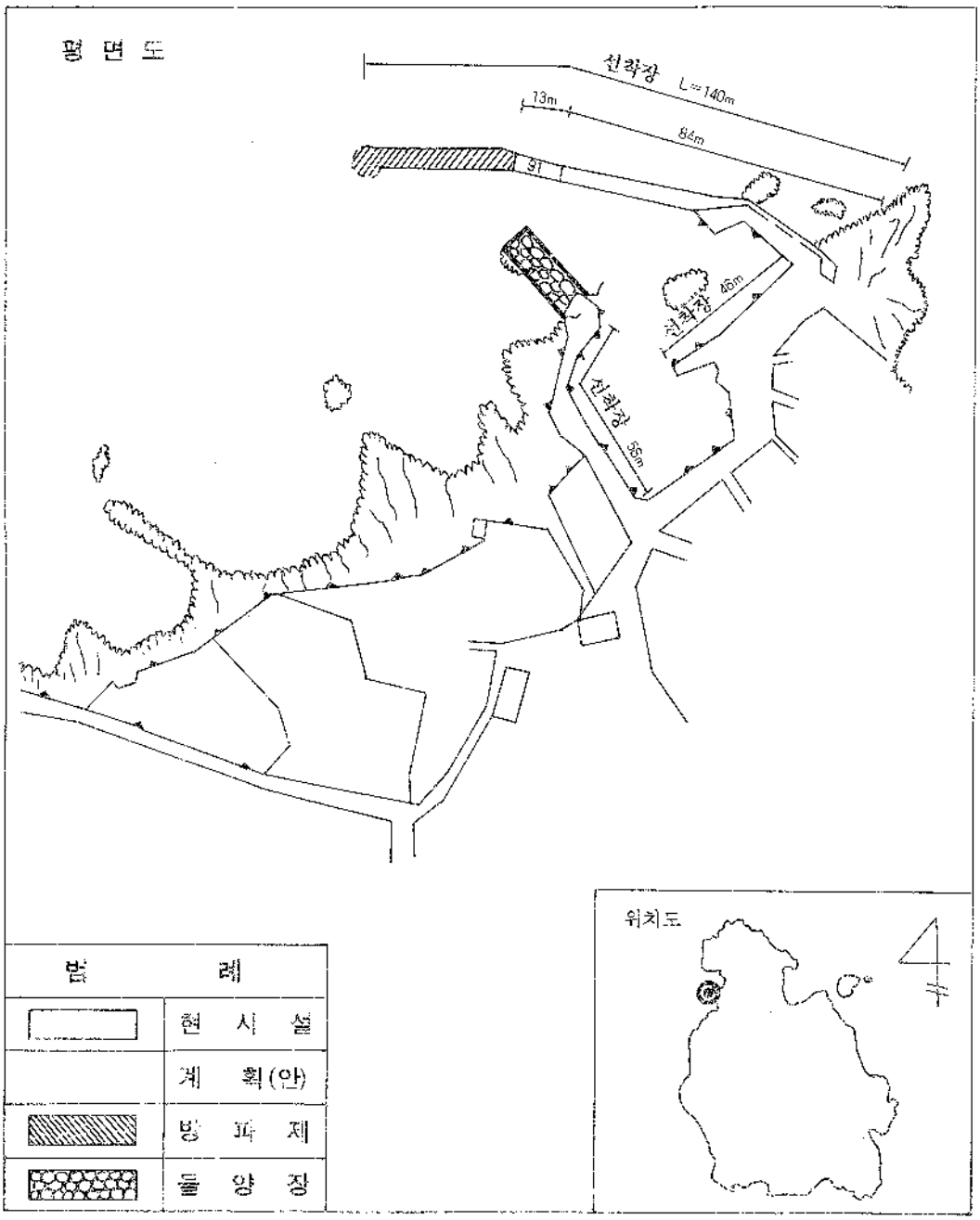
하 우 목 동 항


평 면 도
방파제 L=140m B=6m
물양장 L=50m
20m
2m
L=56m
L=236m
300㎡
370㎡
수중암
물양장 L=96m
25m
26m
96m
선착장
선착장 L=42m
L=40m
위치도
범 례
현 시 설
계 획(안)
방 파 제
물 양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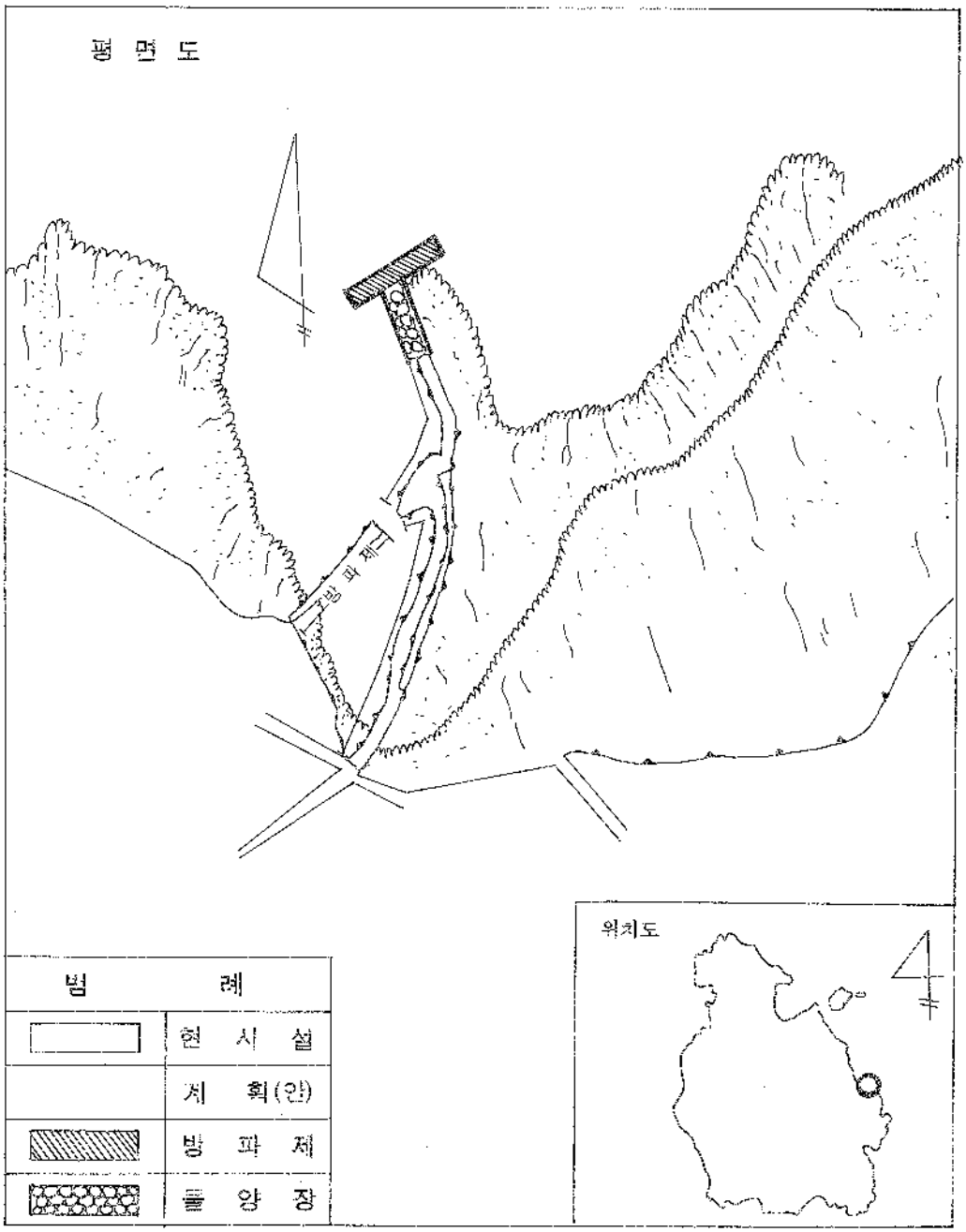
전 흘 동 항


평 면 도
방파제 L=100m
방파제 L=80m
L=90m
접안장
접안장 L=69m
물양장 L=58m B=20m
L=61m
접안장
위치도
범 례
현 시 설
계 획(안)
방 파 제
물 양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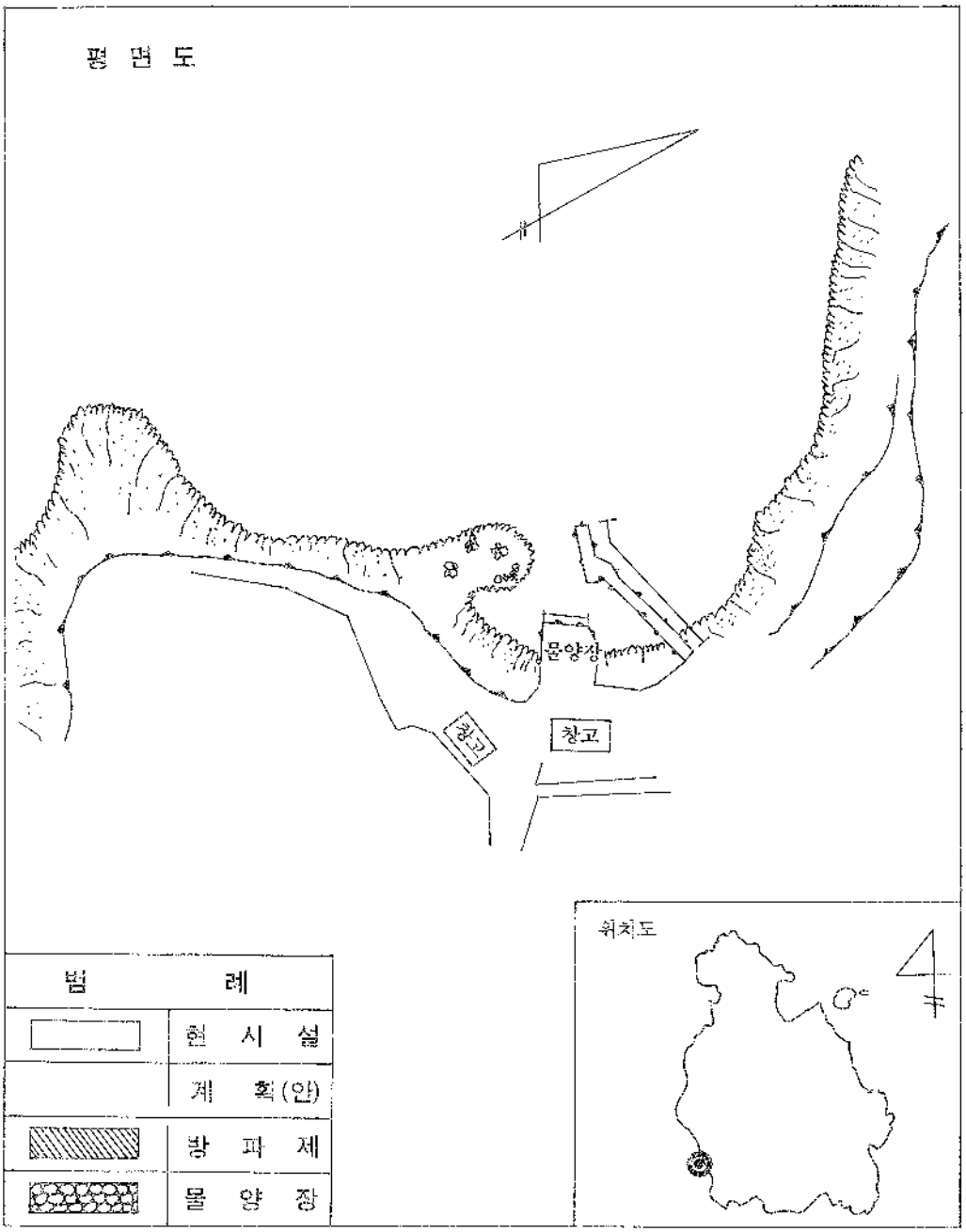
주 흥 동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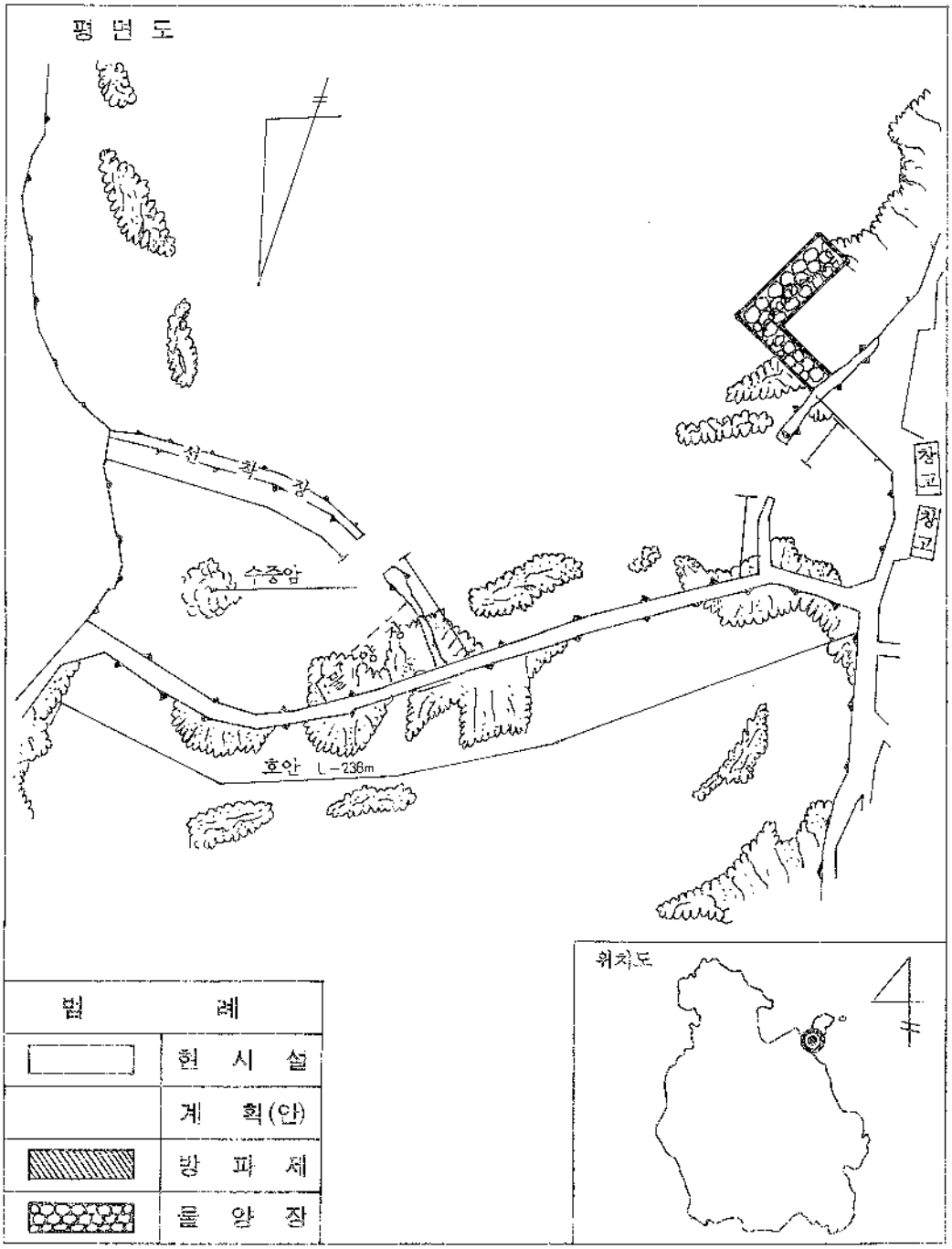
영 일 동 항



서 천 진 동 항



비 양 동 항



제8편 口碑傳承

제1장 口碑傳承

本島(부속 섬들을 제외한 제주본토, 이하 같음)에 부속되어 있는 유인도들은 추자도를 제외하면 주민의 생활풍습이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생업에서부터 습속들이 그렇다. 소섬(연평으로 하지 않은 것은 속칭을 살리려는 의도임)인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本島民의 이주로 주거생활이 형성된 만큼 문화공동체로서 동질성 그대로이다.

그러나 실제 현지답사를 통해 채록된 전설·민요·속담·금기담류인 속신담 등의 구비전승물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本島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전설인 경우 이미 수집되어 문헌에 수록된 것 이외에 2편을 더 채록할 수 있었고, 민요인 경우는 일제치하의 저항의식이 담긴 '해녀가'로 통하는 <잠수연민가>가 애창되었는가 하면 요즘에 불려지는 잠수노래 중에는 그 노랫말이 시대상황이나 향토여건에 걸부시킨 시의성(時宜性)이 돋보인다. 속담과 속신담 또한 本島에서 채록할 수 없었던 이채로운 것이 드러남으로써 소섬의 풍토성과 주민생태를 엿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이들 구비전승물들이 어떤 형태로 전수되고 있는지 설화인 전설·민요·속담·속신담 등으로 구분하여 그 실상을 살펴보겠다. 여기서 덧붙여 둘 것은 채록된 자료의 처리문제인데, 일단 채록된 자료는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서 통용여부를 따지지 않고 현지주민에 의해 구연되는 것이면 그대로 수록했다. 다만 그 중에서도 本島의 것에 비해 이채롭게 생각되는 것만은

해당 분야별로 간추려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설명을 곁들였다.

제1절 傳　　說

여기 제시하는 3편의 이야기를 놓고 설화라고 할 것인가, 전설이라고 할 것인가, 민담이라고 할 것인가 한참 망설였다. 전설과 민담을 포괄할 수 있는 설화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 내용구조를 보면 너무나 사실성이 강할 뿐더러 화소(話素)마저 실제 있었던 인물과 장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설이 갖는 이론적 배경에 부합된다. 그래서 전설로 정했다.

지금까지 채록돼 문헌에 수록된 것을 살펴보면, 「제주도 전설지」(제주도청, 1985)에 <득성이코지> 1편, 「연평향토지」(연평초등학교, 1987)에 <섬을 개척한 金進士>*·<釜山 僉事>*·<점복할망>*·<上中目洞宋중이>*·<孫氏 이야기>* 등 5편, 「국문학보」(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3)에 23편이다. 이들 23편은 '인물에 관한 전설'·'지형·지명에 관한 전설'·'부락에 관한 전설'·'음료수에 관한 이야기' 등 4개의 부분으로 구분돼 있다.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인물에 관한 전설'로는 <섬을 개척한 김진사>*·<부산 첨사>*·<점복할망>*·<주홍동의 송중이>*·<손씨 이야기>* 등 5편, '부락에 관한 전설'로는 <우목동>·<진사터>·<영일동(후해동)>·<고수동>·<전흘동>·<주홍동>·<천진동> 등 7편, '지형·지명에 관한 전설'로는 <의무덤>·<달당고슬>·<칼톡박은 여>·<비양도>·<보섭붕오리>·<광동산과 포제동산>·<고양이 동산>·<돈지당> 등 9편, '음료수에 관한 이야기'로는 <진사통>·<양명방통>·<갈라진 문서방통> 등 3편이다.

앞에 열거한 것들 중 *표의 중복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기록화된 것은 모두 24편이니 양적으로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기존의 자료를 한 곳에 집적해 놓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24편을 전부 수록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면 관계로 그 소재(所載)의 서지사항만 기재하고 아직껏 기록화되지 않은 것 2편과 이미 기록화되었으나 그 내용의 일부가 달리 나타나는 <무곡상 손영감> 1편을 덧붙여 3편으로 한정시켰다.

굳이 이미 기록화돼 있는 1편을 수록하는 이유는 이야기의 주인공 '손씨(영감)'가 출행한 육지부의 선착지(船着地)가 '인천'이 아닌 '강진'으로 되어 있고, 죽은 여인(처녀)의 시체가 선체에 붙어 하우목동 포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양상이 전수자인 화자(話者)의 언술력(言述力)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설화의 변화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들 3편의 전설인 <무곡상(貿穀商) 손영감>·<인골분(人骨粉)이야기>·<조돌패기>를 표준어로 옮겨 수록하지 않고 채록 당시의 화자의 말투를 그대로 살려 기재한다.

○ <무곡상(貿穀商) 손영감> (제보자 : 신인홍·남·72)

하우목동 손씨 가문에 어느 영감님이 전라도 강진에 식량을 사레갔댄 합니다. 어느 부잿집에 간 식량을 풀아도렌 ᄒᆞ난 식량은 풀아줄 수가 있노라. 그 대신 청을 들어 줘사 ᄒᆞ겠다고 ᄒᆞ니, 그 청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집안에 똘년이 씨집도 안 갔는디 애기를 베연 우세를 당ᄒᆞ게 되었으니 이 처녀꾸지 제주로 실령 가민 풀아주켄 ᄒᆞ였더랍니다.

기민 경 홀 걸로 ᄒᆞ난 그 부잿집이서 식량도 ᄒᆞᆫ 배 실려주고, 어느제 떠날 것이냐고 물으난 일기도 바사 ᄒᆞ니까, ᄒᆞᆫ 사을은 서 바사 안다고 ᄒᆞ니, 경 홀 걸로 ᄒᆞ고, 그 곳에 싯단 떠나는 날은 처녀랑 물건덜을 실령 와사홀 판이라.

송영감이 곰곰 생각ᄒᆞ니 그 처녀를 ᄃᆞ령 가켄 약조는 ᄒᆞ였지만서도 이만저만 곤란ᄒᆞᆫ 일이 아니니 ᄃᆞ령가선 안 되겠다고 ᄆᆞ음 먹언 어떤 수단을 부려도 육지에 떼여 놔 뒁 오기로 결심ᄒᆞ고, 뱃사름을 보고 저 처녀가 배에 올를 때랑 발판을 들러불렌 ᄒᆞ였답니다. 그런 중도 몰르고 그 처년 발판을 봅안 타는디 뱃사름은 시킨 대로 발판을 우꿋 들럼부난 그만 바당에 털어젼 죽어버린 거우다.

경 ᄒᆞ여 두고 그냥 배를 몰안 우도 하우목동 포구에 딱 배를 데연 보난 어찌된 영문인지 그 바당에 털어젼 죽은 처녀의 시체가 배 뒤에 바짝 들라 붙언 셨댄 합니다. 그젼 본 손영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절 알고 그 시체를 거두언 잘 안장시켰는디 그 후 시간이 흘르단 보난 주손들이 잘 위ᄒᆞ지 안ᄒᆞ였는지 집안이 망ᄒᆞ였젠 합니다.

○ <인골분(人骨粉) 이야기> (제보자 : 오영돈 · 남 · 65)

비양동에 살던 공달천이란 분이 있었는데 정갱이에 종기가 나서 고치지 못허연 고생을 허는디, 말을 들으난 죽은 사름 뼉따귀를 솔앙 그 분ᄀᆞ루를 불르민 좋덴 허난 그땐 일제시대난 바당에서 죽은 시체덜이 올라온덴 말이우다.

가민 그 시체를 솔아난 디 강 보민 타당 남은 뼉따귀 부스레기덜이 십주. 그젠 그 뼉따귀 부스레기를 가저당 다시 솔아가지고 불이니까 좋아서마씸. 하도 약이 특효허니까 다시 아프민 불일 양으로 그놈이 것을 봉지에 담안 구들 백장 우에 는 궤 우에 놓아뒀는디 마침 그 뒷날은 집에 제서가 이서신디 그만 꼼빡 잊고 궤 우에 논 뼉ᄀᆞ루를 그냥 둔 채 제서를 지내분거라.

그 뒷날은 새벽에 혼 네시쯤 되난 초신을 군화 신듯 질근 동여매고 다리엔 일본놈덜이 즐겨 치던 각반을 두르고 옷은 보난 군복은 아니주만 그 때 잘 입엉 뎅기는 추림으로 섬머리 펜으로 감시난, 마침 김달옥이란 분이 불락 나젓허젠 새워 잡으레 가는디 마주쳔 어디 감수광 물어도 대답도 안 허고 그냥 가더라는 거라마씸.

헌디 톨안 보난 사름이 엇어졌젠 허는 게 아니라. 아마 혼 사을 동안은 촞아실 거라. 촞단 보난 성산포르 가는 광대코지에서 투신헌 걸 발견허여십주. 그건 지금도 아명 생각허여도 그 죽은 사름 뼉따귀광 관계가 이신거 아닌가 해서 신통헌 일르 전해지고 있는 실정일주.

○ <조돌패기> (제보자 : 오영돈 · 남 · 65)

전라도 지방에서 들어완 사는 성은 조씨고 벨명은 돌패기엔 허는 피쟁이가 이서십주. 부사 돌패기엔 헌 벨명이 붙었는고 허니 궤를 잡는디 돌로 머릴 찍엉 죽여 노앙 잡은 허연 조돌패기란 이름이 불어십주.

그 때문에 1975년ᄀᆞ지만 허여도 소섬에 사는 사름덜에게 큰 오명을 들리씨우게 된접주. 인접헌 성산포나 구좌쪽만 가도 조돌패기 닮은 놈이라고 비웃음을 받아 왔는디, 이 돌패기가 궤를 잡으레 뎅길 때 꼭 주멩길 두 개를 차십주. ᄒᆞ나는 눈에 잘 보이는 바깥이 차곡, ᄒᆞ나는 못보는 옷 속옵에 차십주.

그건 웨 그런고 허니 옷 속옵에 찬 주멩기는 궤를 잡당 보민 우왕이 들어시민 그걸 주인 몰르게 감앙 곱짜젠 헌거고, 바깔더 찬 주멩기는 놈이 보민 아무 것도

안들언 손곱은 짓 안 허는 짓으로 보이기 위헌 가장된 시능입주.

그게 그만 잘못 인식되연 소섬 사름덜은 주멩기 둘 창 멩기는 사름으로 알아버린 거라마씸. 이깔은 무신 말인고 허니 각씨 둘 허영 사는 사름으로 알아부는 겁주.

이와 관련헌 일화 가운데 이런 경우가 이섰수다. 이 고을 출신 윤봉일이란 분이 경찰에 근무허고 있을 때 ᄒᆞ루는 서귀포에 큰 살인수건이 일어난다고 식당에 간 저녁식수 중에, ᄀᆞ찌 근무허는 과장인가 허는 상관이 말허기를 소섬 조돌패기 이번 수건을 어떵 마무리 지우민 될거라. 이말엔 윤씨는 화가 치밀언 그 상관에게 이건 분명 수석이다. 도대체 사름을 어떻게 깔보고 소섬 돌패기라고 허는거냐고 바짝 대드난 상관이 잘못허였젠 수정허여났젠 헐 정도로 피해가 커십주.

이젠 이와 ᄀᆞ튼 소섬 돌패기엔 허는 말은 엇어졌지만 어느 잘못된 ᄒᆞᆫ 사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릇 전해져서 소섬 주민덜에게 치욕적인 오명을 입힌 수실은 두고두고 불쾌허기 짝이 엇으나마, ᄒᆞᆫ펜으로는 뒷사름덜에게 요런 고통 속에 살아온 섬무을이 내력을 알게허는디 큰 도움이 되는 교훈으로 생각허고 이십주.

전허는 말에 ᄯᅡ르면 그 조돌패기는 지금 영일동광 비양동 수이에서 살단 죽으난 그 곳에 묻었젠 헙니다.

제2절 民　　謠

일반적으로 소섬의 민요들은 토속성이 강한 편인데, 이는 이 곳의 풍토적 여건이 그 만큼 토속적인 특색이 있다는 말이 된다. 사실상 소섬에서 창민요(唱民謠)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소섬이 갖는 토속성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섬 중의 섬으로서 한국본토는 물론이고 본도와의 교류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 설령 본도와 같이 그 생업형태가 반농반어(半農半漁)라고는 하지만, 농업보다는 어로와 잠수업 쪽에 비중을 두었다는 심증을 갖게 된다.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관기의 수탈과 이민족의 침탈, 특히 일본제국시대에 잠수들이 당한 착취의 통고는 강렬한 적개심과 저항감을 불러 일으켰다. 1932년 일제식민지 수탈에 의한 해산물 관제조합의 횡포에 항거하여 구좌·성산포의 잠수들과 동참하여 투쟁을 벌인 것은 그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황과 여건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소섬의 민요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民謠의 種類와 性格

소섬에 전수되고 있는 민요를 조사해 본 결과 창민요는 거의 없고 노동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불려졌더라도 지금은 거의 살아진 형편이다. 그나마 빈약한 대로 드러나고 있는 민요들을 살펴보면,

농업요(農業謠) : 밧 가는 소리 · 밧 밀리는 소리 · 타작소리 · 사대소리 · 아희기소리
어업요(漁業謠) : 잠수 노젓는 소리 · 잠수 연민가(해녀가)
임업요(林業謠) : 줄비는 소리
잡역요(雜役謠) : 땅 다지는 소리(달구질 소리)

등인데, 그 중에도 지금까지 비교적 온전하게 전래되고 있는 것은 몇 편에 불과하다. 특히 이 지역에는 어잠업(漁潛業)이 아직껏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만큼 잠수 노젓는 소리나 잠수 연민가가 비교적 잘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그 성격면에서도 소섬이 갖는 특성이 눈에 띄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토속적이다. 본도에는 창민요들도 공존하고 있는데 소섬은 그렇지 않다. 이유인 즉 본도는 한국본토에서 유입됐거나 영향을 받아 모작(模作)된 경향이 환경여건상 소섬까지 전파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토속민요 중에서도 특정의 노동요가 발달했다. 특히 어업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어업요라 하더라도 잠수 노래 등 특정의 민요에 집중화 현상이 드러나 있다.

셋째, 본도에 비하여 비교적 진보적 경향이 짙다. 그래서 신창작 민요들이 생성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잠수 연민가'를 들 수 있다.

넷째, 가락은 비교적 단조롭고 사설은 전개적이라기보다 반복적인 성향이 짙다. 그것은 소섬의 민요가 연행적(演行的)인 노동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표현기교 역시 육성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발성법만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본도와 마찬가지로 기층민중성이 강하다. 이것은 곧 민요생성이 지역적 공동의 토대를 기초로 하는 민중들이 능동적으로 창작과 향유뿐 아니라 전수에도 참여했다는 뜻이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토속민요는 생동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소섬의 토속민요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이것은 민요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특정의 노동요에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다.

일곱째, 토속민요 속에는 문화적 공감대를 같이 하는 주민들의 특성, 즉 지역적(향토적) 특성이 풍부하게 함축되어 있다. 이것은 토속민요의 지역적 문화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으로 돌보이는 현상이다.

여덟째, 노동요에는 현실개선을 노래한 것이 많다. 이것은 소섬의 주민들이 부당한 삶의 현장에 막연히 순응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이다.

2. 民謠의 實態

일일이 전부 언급할 수 없으므로 소섬의 어업(로)요를 대표할 수 있는 <잠수 노젓는 소리> · <잠수 소리> · <잠수 연민가> 등 3개만 택해서 그 실상을 살피기로 한다.

1) 잠수 노젓는 소리

어로와 관련하여 가창되는 민요 중에 가장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해녀 '잠수 노젓는 소리'이다. 이 민요는 잠수들이 바다로 물질작업을 나갈 때 배를 저어가면서 부른다. 이 때 노를 젓는 일은 잠수들 자신이 하기도 하지만, 남자들이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민요는 잠수인 여인네들이 주로 부르게 되지만 남자인 어부들도 함께 부른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선소리를 하고 여자인 잠수들이 뒷소리를 받거나 모방하는 형태로 가창된다. 특히 소섬은 잠수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주로 여성들에 의해 가창되어 전래되는 실정이다.

잠수들이 바다로 나갈 때 물으로 돌아올 때 노를 젓는 일은 물질과 함께 힘든 노동이다.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배를 타고 나가지만 노를 젓는 일은 혼자서 젓기보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젓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힘이 좋은 사람이 맡는다.

나머지 잠수들은 뱃전에 모여 앉아 장단을 맞추면서 뒷소리를 부른다. 노를 젓는 동작은 매우 규칙적이면서 강약의 대비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양상은 바로 이 민요의 박절적(拍節的) 규칙성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다가 작업용 도구로 가지고 가는 태왁과 빗창은 장단을 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본도 잠수들의 억척스러움은 널리 알려진 대로지만, 그 중에도 소섬을 중심으로 한 본도 동부지역의 잠수들은 예부터 더욱 그렇게 인식돼 있다. 잠수작업의 무대도 인근지역에 그치지 않고 육지부로 나가서 오륙개월을 머무는 것은 예사이고 일본으로 출행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소섬에서 조사된 잠수 노젓는 소리의 사설내용인데 본도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제보자 : 고태연 · 여 · 74, 김춘산 · 여 · 56)
요벨 젓엉 어딜 가리
진도바당 혼골로 가민
혼착 손에 빗창 쥐곡
혼착 손에 태왁을 쥐엉
혼질 두질 들어간 보난
저승길이 분명ᄒᆞ다
요네착을 젓언 보난
아니 젓엉 어여싸
요물 아래 은광 금은 깔렸건마는
형세 나빤 못ᄒᆞ더라
요년들아 혼저들만
젓어도라 앞서 가게
우리 베에 서낭님아
앞발로랑 허위치멍
여끗들로 득달ᄒᆞ게 ᄒᆞ여도 줍서
고동생복 한 덜로나 가게나 흡서
우리 어멍 날 날 적이

해천영업 태움서로 날 낫던가
가시남이 몽고지에
손에 괭이 백엿구나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무신 날에 나앗던고

위 잠수 노젓는 소리의 사설내용은 비교적 고정적이다. 사설이 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이 민요가 소섬의 잠수들 사이에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이 민요의 사설을 그대로 기억하여 전수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가창형식은 복잡한 편이다. 한 사람이 선소리를 하고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두 사람이 교대로 선소리를 바꿔부르나 모방창(模倣唱)으로 엮어 나가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그 중간 중간에 '이어싸'등의 후렴을 받는 식의 가창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민요는 6마디에서 14마디 정도의 선율이 한 개의 악절을 이루는 구조로 돼 있다. 가창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소리에서 나타나는 악절의 마디 수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두 마디를 짝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얼마만큼의 길이를 한 개의 악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처음에 시작한 가락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즉 민요의 첫 2마디 또는 4마디는 높은 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율은 낮은 형태의 가락이 일정하게 반복된다. 이 반복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악절의 길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선율선(旋律線)을 살펴 보면, 감정기원적인 하행곡선을 이룬다. 악절의 후반부는 사실상 같은 가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낮은 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 높은 소리로 강력하게 가창하다가 후반부로 가서는 차분하게 낮은 음을 연주하면서 다소 여유를 가진 다음 다시 처음의 높은 소리로 돌아가고 있다. 노동의 성격이 강력한 신체적 동작을 수반하기 때문에 감정적 여흥의 폭도 크고 음역(音域)도 넓다.

2) 잠수 소리(제보자 : 고태언 · 여 · 74)

이 '잠수소리'는 물질작업을 나갈 때 여럿이서 무리를 지어 횡대로 열을 짓고 헤엄쳐 가면서 불려진다. 앞의 '잠수 노젓는 소리'에 비해 다른 점은 노랫말인 사설내용이다. 잠수 노젓는 소리에서처럼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정적 사설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이것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조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요물질 ᄒᆞ영 요돈 벌엉 어느 형제간 대학이나 시킬건가"만 보더라도 8·15 광복 이후의 자본주의 세태하에서 겪는 교육열과 직결돼 있다.

이여싸 이어 이여싸
앵돌아진 섬에 삼시 굶엉
요물질 ᄒᆞ영 요돈 벌엉
어느 형제간 대학이나 시킬건가
이어도사나 이어싸
이여차이 저어라차
넘어야 가긴 잘 넘어가도
돌아오긴 만무ᄒᆞ다
이여사 이여싸
저어라 저어라차이

3) 잠수 연민가

이 노래는 소섬을 중심으로 본도 동부지역인 구좌와 성산포 일대에서 가창되고 있는 특이한 성격의 노래이다. 그 명칭도 편이상 붙인 것인데 일부에서는 '해녀가'로 통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잠수 연민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녀가'라고 했을 때 본도 전반에 걸쳐 분포돼 있는 '잠수 소리(해녀 노래)'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 노래의 형성배경은 잠수들에 대한 일제의 수탈이 심했던 억압과 착취에 항거한 저항사건과 연계돼 있다. 전하는 말로는 구좌나 성산포에서 만들어졌다고도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소섬에서 체계화의 산실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가락을 놓고 볼 때 과연 그것이 본도풍(本島風)의 노래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일본의 노래인 소위 '미야꼬부시(陰音階)'라고 하는 음계에 의한 일본조의

가락을 차용하여 부르고 있다. 일제에 대한 항거의 노래가 그 적대국의 가락이라는 점은 납득이 어렵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일본조의 가락들이 어쩔 수 없이 유행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일본식 교육을 받은 식자층이 음악적인 가락에 대한 인식과 작용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점을 고려하면 그 속에 담긴 정신은 높이 사지만 일본조의 가락을 그대로 차용한 점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엄밀히 말하면 이 노래는 본도의 민요라고 하기 어려운 만큼 소섬의 민요라고 하기도 어렵다. 민요를 규정하는 것이 음악이고 보면 외국인 일본의 가락을 본도에서 도용했다고 해서 노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도의 민요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잠수들의 비참한 삶과 투혼이 반영돼 있어서 주목을 끈다. 노랫말의 작사는 제보자인 신인홍 옹에 의하면 이 지역 출신 강관순이란 분이 1932년 잠수항거사건 당시 투옥되었을 때 만들어졌고, 출옥한 후에 잠수들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한다. 그 사설내용은 다음과 같이 4절로 짜여져 있다.

<제 1 절> (제보자 : 신인홍 · 남 · 72)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제 2 절>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하루 종일 애썼으나 번 것은 기가 막혀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도 못자네.

<제 3 절>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 가족 생명선을 등에다 지고

바다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제 4 절>

배운 것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은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가네.
가이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같은 노래이면서도 제보자에 따라 노랫말이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성화가 제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절>

우리는 제주도에 가이없이 해녀들
가난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제 2 절>

어린 아이 젖먹이며 저녁밥 짓네
하루 종일 해 봤자 버은 것은 기막히고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 못이루네.

<제 3 절>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 가족 생명선을 등에다 업고
파도 치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가네.

<제 4 절>

배운 것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왜놈들은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가네.
불쌍한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제 3 절 俗　　談

삶의 생태와 습속을 다양하게 엿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속담이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한두 마디의 간결한 말로 구술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경험을 통해 체득된 지혜와 교훈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 곳 소섬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운 속담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특자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향토적 특색을 가진 것이 그 민족 고유의 것일 수 있고 나가서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소섬에서 채록된 속담들 중에는 본도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4편만 제시해 보겠다.

① 웨 곰세기 뒤엔 큰 궤기 뜻른다.
(외 돌고래 뒤에는 큰 고기 따른다.)
② 상군은 속옷 벗엉 죽곡, 돌파련 비단 속옷 입엉 죽나.
(상군은 속옷 벗어서 죽고, 돌파리는 비단 속옷 입어서 죽는다.)
③ 영등할망 청치메 입엉 오민 날 좋곡, 우장 썽 오민 날 우치곡, 물치게 입엉 오민 춥곡, 몸쌀민 보름 분다.
(영등할머니 청치마 입어서 오면 날씨 좋고, 우비 써서 오면 비 내리고, 누비옷 입어서 오면 춥고, 몸쌀면 바람 분다.)
④ 염송애기 물뚱 싸는 거 본 사름 엇(웃)나.
(염소 물똥 싸는 것 본 사람 없다.)

위 ①의 속담은 이곳 소섬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큰 고기'는 상어를 말한다. 이 말은 결국 돌고래가 여러 마리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곳에는 상어들이 접근하지 않으나, 한 마리만 따로 떨어져서 다닐 때는 거의 상어를 불러들이는 위험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 마리만 떠도는 돌고래 근처에서 잠수들이 작업을 하다가는 화를 입게 되므로 몹시 경계한다. 이와 관련해서 '웨 곰세기 뒤는 딘 가지 말라.(외 돌고래 뒤는 데는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곳

잠수들에게는 상식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고래인 검세기는 소섬의 주민들에게 기상관계를 예상케 하는데 '검세기 가찹게 오민 날'우친다.(돌고래 가깝게 오면 비 온다.)'가 그것이다. 사시사철 해양생활에 종사해 온 어부나 잠수들은 인근 바다생물에 대한 생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관찰해 온 데서 얻어진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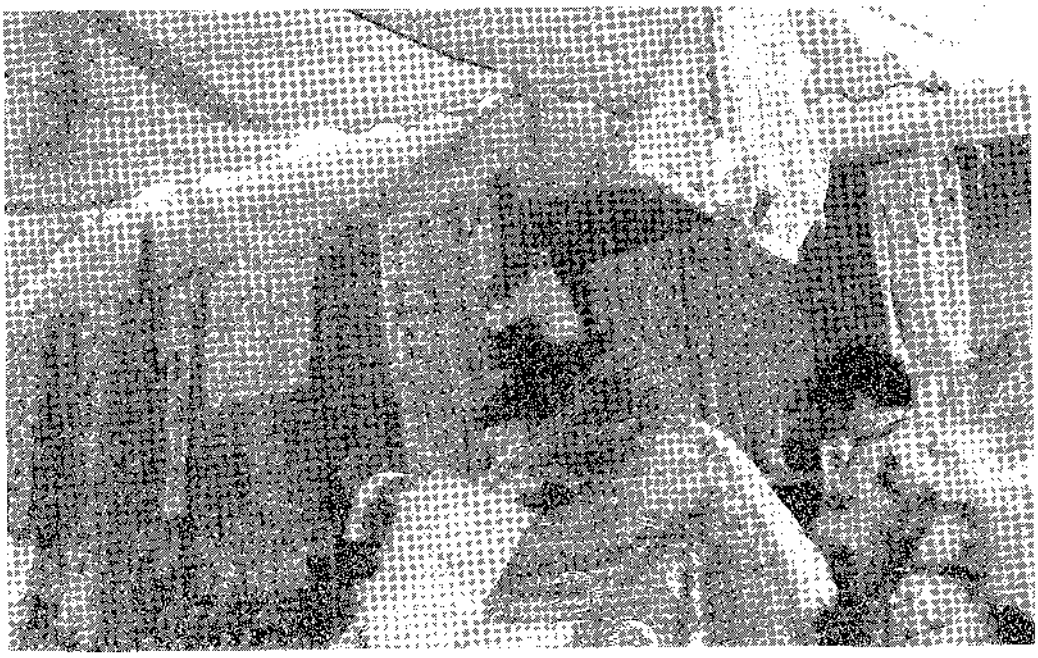
또한 신기한 것은 잠수들이 헤엄쳐 가다가 보면 검세기 떼들과 맞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잠수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를 내어 '배 알로!'하면 마치 그 소리를 알아들은 듯이 잠수들의 배 밑으로 살짝 미끄러지면서 비껴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곳 소섬 주변에 나타나는 돌고래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낯설이 경원시 되는 동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의 속담은 잠수가 최고경지에 이르는 잠수술을 터득하여 상군으로 활동해 보았자 빈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오죽 했으면 죽을 때 속옷 하나 제대로 못 입었을까. 참담했던 잠수의 수익성을 되새겨 보게 한다. 그러면 물질하는 기술이 없는 하군인 잠수의 애숭이 '톨파리'는 비단 속옷을 입을 정도로 잘 살았다는 말인가. 그것은 역설일 뿐, 아무리 한평생을 잠수업에 전념해도 펴지지 못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강조이다.

잠수업이 늘속이 없음은 이곳 소섬만의 것은 아니다. 본도에도 '질삼밧 늙으넌 죽언 보난 미녕소중이가 아홉이곡, 줌수 늙으넌 죽언 보난 일곱에비아덜이 둘로는 도곰수전이 ᄒᆞ나인다.(질삼밭 늙은이는 죽어서 보니 무명고쟁이가 아홉이고, 잠수 늙은이는 죽어서 보니 일곱 父子가 드는 도곰수건[물에 들 때 입는 옷부분 가리는 잠수복]이 하나이다.'를 비롯해서 마라도에서 채록된 '줄숨 죽어도 절름도 안 된다.(잠수는 죽어도 거름도 안 된다.)'는 그 대표적인 속담이다. 아무튼 옛날의 잠수업은 지금처럼 권익이 보장되는 것과는 달리 천대 속에 근근히 연명의 수단으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③의 속담은 속신(俗信)과 연관된 것인데, 음력 2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15일 동안은 '영등할망'이 들어와서 묵는 기간으로 되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각종 금기사항이 있는가 하면 일기변화에 대한 '영등할망'의 차림새의 기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여겼다. 차림새와 관련해서 날씨가 맑게 개인 날이 계속되면 청색

치마를 곱게 입고 왔기 때문으로 알았고, 날씨가 흐려 빗날이 많으면 우장을 하고 온 것으로 알았다. 또 날씨가 추우면 누비옷을 껴입고 왔다고 했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으면 성깔이 사나운 '영등할망'의 조화로 알기 일쑤였다. 시대가 변하고 보니 토속적인 신앙관과 연계된 속신담(俗信談)의 하나로 전락되어버렸지만, 아직도 노년층에서는 심심치 않게 떠올려지고 있다.



영등굿 하는 장면

지금도 음력 2월 15일은 '영등굿'하는 날로 돼 있다. 이날은 영등할망이 최종적으로 거쳐서 나가는 곳으로 되고 있는데, '심머리'쪽 '둥어귀'에서 '영등굿'이 행해진다. 이때는 배에 미역·천초 등 해초류를 싣고 바다로 나가서 띄워 보낸 뒤 그 배가 귀항해야 어로 작업을 나가는 배들이 출항케 된다.

④의 속담은 과거 소섬의 가축 목양장(牧養場)으로 활용되었던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본도가 고려와 조선시대 목축의 최적지로 활용되었을 때 우마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보니 양과 염소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는데 이원진의 『탐라지』에 보면, 사라봉 남쪽에 양잔(羊棧)이 있어 털을 뽑아 진상해서 말안장에 쓴다고 했

고, 고유(羔囿)는 소섬과 비양도에 있다고 기록돼 있다. 기록대로라고 한다면 그리 흔치 않은 염소의 사육지가 이곳 소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도 속담의 소재로 등장하는 가축들 중에 소·말·돼지·닭·개 등의 동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많고 속담도 다양하게 전해진다.

그러나 유독 염소를 소재로 한 것은 '일ᄒᆞ당 죽은 황밧갈쉐나, 놀당 죽은 염송애기나.(일하다가 죽은 황소나, 놀다 죽은 염소나.)'가 고작이다. 다른 가축처럼 본도 전역에 걸쳐 많이 사육되었더라면 이들을 화소(話素)로 한 속담이 한두 편만 채록될 정도로 빈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곳 소섬은 한때 염소의 사육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④와 같은 속담이 형성된 것으로 안다. 특히 염소는 위장이 든든해서 설사를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 실제 설사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설사하는 염소를 누가 보았겠느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곧이 듣겠느냐고 하는 확고히 다져진 신념을 드러낼 때면 이 속담이 유효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에 열거한 것은 이곳 소섬에서 채록된 것이므로 그대로 옮겨 싣은 것이다.

(제보자 : 공덕량·남·72, 김윤일·남·80, 김준택·남·58, 신인홍·남·72, 우봉호·남·73)

○ 갈치가 갈칠 잡아 먹나.
(갈치가 갈치를 잡아먹는다.)

○ 나드는 개가 꿩 물어 온다.
(나들이 하는 개가 꿩을 물어 온다.)

○ 나 똘이 고와사 사윌 골른다.
(내 딸이 고와야 사위를 고른다.)

○ 눌이 커도 주젱이(주지)가 으뜸인다.
(노적이 커도 주지가 으뜸이다.)

○ 돌레떡 안팟 엇나.
(돌레떡 안팎 없다.)

○ 도둑 텐 벗어도 주녀 텐 못 벗나.
(도둑 티는 벗어도 자녀 티는 못 벗는다.)

○ 두루 죽은 영장 혼 불른다.
(덜 죽은 영장 혼 부른다.)
○ 들르는 돌이 서사 낮이 붉나.
(드는 돌이 있어야 낯이 붉는다.)
○ 먹을 거 엇은 제서에 절혼다.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한다)
○ 매여둔 도새기가 기사린 도새기 숭본다.
(매어달린 돼지가 그슬린 돼지 흉본다.)
○ 숭어 튀민 복쟁이도 튀난 배 갈라정 죽나.
(숭어 뛰면 복어도 뛰다가 배 찢겨 죽는다.)
○ 안 먹켄 춤 바끈 우물 삼 년도 안 되영 다시 먹나.
(안 먹겠다고 침 뱉은 우물 삼 년도 안 되서 다시 먹는다.)
○ 업은 애기 일훼 촟나.
(업은 애기 이레 찾는다.)
○ 으스룩흔 디 꿩독쌔기 난다.
(어수룩한 데 꿩알 낳는다.)
○ 조근 궤기 가시 센다.
(작은 고기 가시 세다.)
○ 주끄는 갠 줄곡, 먹는 갠 살친다.
(짖는 개는 마르고, 먹는 개는 살찐다.)
○ 코 불은 아이 거 덜레먹기.
(코 묻은 아이 것 덜어먹기.)

제 4 절 俗 信 談

속신담이라고 함은 금기담(禁忌談)·길흉담(吉凶談)·예조담(豫兆談)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설정한 용어이다. 이들 속신담 가운데는 속담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상당수 있지만, 실제로는 속담과 별개의 것으로 분류된다. 이유

인 즉 속담에 비해 공감대 형성면에서 통속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때 비과학적이고 낙후된 미신이 낳은 우매성의 소치로 알고 무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운신의 방식과 형상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비과학의 과학성(비합리의 합리성)을 인식하고 과거를 재조명하는 언어유산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선인들의 독특한 인습과 관행(慣行)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는 말이다.

앞의 속담에서도 그랬지만, 이곳 소섬의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것들 가운데 돋보이는 것을 골라 살핀 다음 나머지는 금기담·길흉담·예조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① 애기 낳 후탈ᄒᆞ는 사름은 똔 사름 애기 난 디 안 간다.
(애기 낳고서 후탈하는 사람은 딴 사람 애기 난 데 안 간다.)

② 반함 때 써난 사발광 소까락은 삼년상 지날 때꾸지 쓴다.
(飯含 때 썼던 사발과 숟가락은 삼년상 지날 때까지 쓴다.)

③ 물 아래서 거북광 눈 마주청 ᄀᆞ마니 시민 수망 일곡, 피행 ᄃᆞ라나불민 소망 엇(웃)나.
(물 아래서 거북과 눈 마주쳐서 가만히 있으면 재수 좋고, 피해서 도망쳐버리면 재수 없다.)

④ 쉐나 행상 시꾸민 큰 궤기 나곤다.
(소나 행상 꿈꾸면 큰 고기 낚는다.)

위 ①은 산속(産俗)을 드러낸 금기담이다. 지금도 이따금 눈에 띄지만 집안에 어린애가 태어나면 금줄인 새끼를 일부러 왼쪽으로 돌려 꼬아서 마당어귀에 가로매어 놓는다. 아무나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알림이다. 빠르면 7일 보통은 15일에서 21일 동안 걷지 않고 그대로 매어 두는 것이 통례이다. 그 금줄이 걸려져 있는 한은 가족 이외의 사람이 출입이 통제된다. 더구나 초상집에 드나들었을 경우는 한 집안 가족도 산모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삼간다. 이와 같은 금기사항을 외면했다가는 삼승할머니의 노여움을 사서 유아나 산모에게 해가 미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산후 몸조리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끼가 있는 여인네가 방문하면 그 사람을 닮아 후탈이 생긴다고 믿고 잘 지켰다고 한다.

②는 상례에서 나온 속신어이다. 사람이 죽어서 입관하기 전에 염습과정이 치러진다. 그때 수의를 입히고 마포로 시신을 싸서 12마디로 묶게 되고 시신의 입 안에는 그릇에 넣어 물에 불린 쌀 21방울을 7방울씩 3번에 나눠 떠 넣는데, 그 쌀을 물리는 것을 반함(飯含)이라 한다.

본도에 전해지고 있는 재래식 상례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반함을 떠 넣는 것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버드나무가지로 만든 유도(柳刀)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곳 소섬에서는 직접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그 때 사용했던 그릇과 숟가락을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이채롭다. 지금은 장례 후 백일 탈상도 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소상과 대상까지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의례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제(朔望祭)를 지냈고 혼백을 모신 상에는 매일 아침·낮·저녁으로 세 끼의 식사를 올리는 것을 거르지 않았다.

③은 잠수들이 바다 밑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겪는 길흉담이다. 예나 지금이나 거북은 용궁의 사자로 알고 상서로운 동물로 대하기 일쑤이다. 지금도 이곳 소섬에서는 바다 속에 자맥질해서 보면 거북이가 물 밑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순간 거북의 눈과 한참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재수가 좋을 려면 용케도 도망치지 않고 서로 시선을 맞대고 쳐다보는 눈맞춤의 순간이 이어진다. 그런 날은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 채취량이 이외로 많아 수익을 올리는 행운이 따른다.

한대로 잠수가 앞에 당도하면 쳐다보기는커녕 머리를 돌려 도망쳐버릴 때는 재수가 없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잠수출신인 강순옥(71세)과 강정숙(63세) 여인의 말에 따르면 이따금씩 거북이가 죽어서 해변에 밀려오면 그것을 잘 묻어주는 뒷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물질의 안녕과 수익을 기원하는 의례적 관행이라는 것이다.

④는 해몽을 통한 어로의 행운을 예견하는 징조담이다. 꿈 속에 나타나는 소가 크면 클수록 대어를 낚을 징후로 여겼고, 사람의 시신이 운구되는 상여를 꿈꾸어

도 어획량이 많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꿈이라도 '큰 쉐 이껑 들어와 베민 큰 궤기 나끈다.(큰 소를 이끌고 들어와 보이면 큰 고기 낚는다.)'고 해서 황소가 등장하면 더 길몽으로 여기고 있다. 잠수들은 잠수들 대로 '쉐똥을 주서 베민 거펑 땐다.(소똥을 주어 보이면 큰 전복 땐다.)'고 해서 좋아 한다.

행상의 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도 시신을 담은 관인 경우 문명의 이기인 비행기인데도 그 관을 시르면 재수가 좋다고 해서 기꺼이 운반해 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상점에서도 두건을 썼거나 복치마를 입은 상주가 물건을 사고나면 재수가 좋아 물건이 잘 팔린다고 환영한다.

이렇듯 이곳 소섬은 본도와 맥락을 함께 하는 문화공동체이지만, 파고 들면 고유의 이채로움이 있다. 아무리 동질성의 문화공동체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다 같을 수만은 없다. 그 지역 나름의 풍토성에 대응하는 주민의 삶의 생태에 따라 구비전승물의 양상도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禁 忌 談>(제보자 : 강보순·여·77, 강순옥·여·71, 강경숙·여·63, 강철석·남·59, 고복련·여·62)

○ 상젠 잔칫집 음식상 안 문지근다.
(상주는 잔칫집 음식상 안 만진다.)
○ 새각씨 들어올 때 씨어멍은 안 내다본다.
(새색시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안 내다본다.)
○ 새각씨 들어왕 상 받기 전엔 씨어멍 고팡에 들어강 안 나온다.
(새색시 들어와서 상 받기 전에는 시어머니 고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 새스방 새각씨 집에 들어올 때 가시어멍 안 처다본다.
(신랑 신부 집에 들어올 때 장모 안 쳐다본다.)
○ 소넘 둘민 상 못 방앙 먹나.
(마마 둘면 상 못 차리고 먹는다.)
○ 영등돌 넘기 전엔 개궤기 안 먹나.
(영등달 넘기기 전에는 개고기 안 먹는다.)

○ 영등할망 들어온 때 요왕에 제 드리지 못한다.
(영등할머니 들어온 때는 용왕에게 제 드리지 못한다.)
○ 영등할망 들어온 땐 조왕제 못 지낸다.
(영등할머니 들어온 때는 부엌제 못 드린다.)
○ 운구할 때 관으로 문입쟁이 건디리민 붕분 쉐 파분다.
(운구할 때 관으로 문설주 건드리면 무덤 소 파버린다.)
○ 잔치 옷 홀어멍 안한다.
(잔치 옷 홀어미 안 만든다.)
○ 통시 만들 때나 고칠 땐 날 방 한다.
(변소 만들 때나 고칠 때는 날을 화서 한다.)
○ 통싯물건 아무 제나 만지그민 동티난다.
(변소 물건 아무 때나 만지면 동티난다.)
○ 해 트기 전광 해 진 후에 막깨질 소리 내우민 귀신 들어온다.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에 방망이질 소리 내우면 귀신 들어온다.)

<吉 凶 談> (제보자 : 앞과 같음)

○ 고냉이 말ᄒᆞ민 재수 웃(엇)나.
(고양이 말하면 재수 없다.)
○ 날짐생을 죽여 베민 흉ᄒᆞ곡, 살려 베민 길한다.
(날짐승을 죽여 보이면 흉하고, 살려 보이면 길한다.)
○ 맨 문저 멩근 소중이 입영 물에 들민 대정인다.
(맨 먼저 만든 고쟁이 입어서 물에 들면 재수 좋다.)
○ 탓갈쉐 집안에서 죽으민 액운 든다.
(황소 집안에서 죽으면 액운이 든다.)
○ 보띠창옷에 돈 쌍 놔뒀당 노름ᄒᆞ레 가민 돈 딴다.
(보띠창옷<신생아에게 입히는 소매가 긴 옷>에 돈 싸 두었다가 노름하러 가면 돈 딴다.)
○ 영등돌 좀수굿할 때 바당ᄀᆞ에 좁쌀 뿌리민 메역 풍년 든다.

(영등달 잠수굿할 때 바닷가에 좁쌀 뿌리면 미역 풍년 든다.)

○ 요왕할망 말잿똘애기 만날 때 눈 마주보민 수망인다.
(거북이 만났을 때 눈 마주보면 재수 좋다.)

○ 요문 허벅 진 사를 만난 건 재수좋나.
(여문 허벅 진 사람 만난 것은 재수 좋다.)

<予(徵)兆 談> (제보자 : 앞과 같음)

○ 꿈에 송장이나 피(血)을 보민 좋다.
(꿈에 송장이나 피를 보면 좋다.)

○ 노랑젱이 잘 난민 시절 좋나.
(돔복 잘 자라면 시절 좋다.)

○ 바당 알 홍텡이에 모살 ᄀᆞ득으민 풍년 든다.
(바다 밑 움파리에 모래가 가득하면 풍년 든다.)

○ 바당 알 홍텡이에 모살 파지민 흉년 든다.
(바다 밑 움파리에 모래 패이면 흉년 든다.)

○ 설귀떡 시꾸민 점복 잘 뗀다.
(설기떡 꿈꾸면 점복 잘 뗀다.)

○ 소님빙은 강칩에 ᄂᆞᆫ저 들민 피해가 큰다.
(마마가 장씨 댁에 먼저 들면 피해가 크다.)

○ 정월초승에 물꾸럭 잡으민 그 해 재수 좋나.
(정월초승에 문어 잡으면 그 해 재수 좋다.)

○ 쿼 ᄋᆞ물민 보리도 욜나.
(성게 여물면 보리도 여문다.)

○ 메역 ᄆᆞᆯ릴 때 곰 피민 시세 좋나.
(미역 말릴 때 곰 피면 시세 좋다.)

제2장 地 名 由 來

제1절 西 光 里

ㄱ 서광리(西光里)

서광리는 우도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석양이면 서쪽으로 지는 해가 곱게 비친다 해서 서녘서(西), 빛광(光) 자를 이용 서광이라 했다.

예전의 우뭇개(牛目洞), 지금 상·하우목동과 우도의 중심지인 중앙동(中央洞)을 합친 곳이다.

ㄴ 우목동(牛目洞)

우목동에는 소와 천초(우뭇가사리)에 관련된 두 가지 유래가 있다.

우뭇개는 우무(大草) + 개(浦)의 합성어라 할 수 있다. 우뭇가사리를 캐는 포구로, 아니면 우뭇가사리가 많이 생산되는 개(浦), 또는 바닷가에 인접한 촌락으로 풀이하는 설이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천초(우뭇가사리) 생산지이다. 우도는 제주도 천초 생산량의 4분의 1을 생산한다. 이와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우뭇개」는 천초 때문에 생겨난 명칭이고, 「牛目」은 옛 문헌들에 우쿠(大草)를 우모(牛毛)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牛毛가 많이 나는 곳' 즉 목(目)으로 인식하여 「牛目」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소(牛)와 관련된 설도 있다. 우목동은 이 섬에서 선사시대의 주민들이 살았었

다고 전해진다. 1844년 김석린(金錫麟) 진사가 입주하기 전 이 섬은 진상용 소(실지로는 말을 사육했다)를 양육하는 곳이었다.

목자(牧子)들은 섬에서도 거주 환경이 제일 좋은 곳을 골라 살았을 것이다. 그곳이 우목동에 있는 「장통알」이다. 이곳은 움푹하여 거센 북풍에 바람막이가 되었고, 소를 간직하기에도 편리한 지형이다. 이뿐이 아니라 본도와의 거리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소를 실어 나르기에 알맞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도의 목자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다 해서 「牛牧洞」이 「牛目洞」으로 와전된 설이다.

목동들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근래에 장통알 근처에서 공사도중 땅을 팠는데 동물뼈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

또 소의 눈과 관계된 유래도 있다.

우도는 전체가 흑회색의 암석과 모래이었는데 하우목동의 해안(지금의 서빈백사)만이 유독 하얀 모래이었다. 이는 성산포나 종달리에서 보아도 하얗게 빛난다. 이 현상을 우도의 지형(소가 누운 형태)과 결부시켜 '우도의 눈(雪)'으로 표현한 것이 소의 눈(目)으로 와전되어 「牛目洞」이라 불리워진 것이라고도 한다.

ㅁ 웃 · 알 웃뭇개

「웃」은 위쪽 혹은 오른쪽, 「알」은 아래쪽 또는 왼쪽을 뜻한다.

「웃 우뭇개」는 상우목동, 「알 우뭇개」는 하우목동의 속칭이다.

ㅁ 고넹이 동산

「고넹이」는 「고양이」의 제주어이다. 이 명칭을 직역하면 고양이와 관계있는 조금 높은 곳이다.

상우목동과 전흘동 사이에 있는 둔덕으로 고양이의 복수에 대한 전설이 전해진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이 근처에 고양이가 자주 들락거렸던 「고넹이 굴」도 있었다 한다.

50~60년 전 늙은 노인이 이곳에 살았다. 그는 쥐잡이 용으로 수코양이 한 마리를 키웠다. 그런데 고양이는 쥐를 잡기는커녕 암코양이만 찾아 다녔다. 화가 난 노인은 고양이를 잡아 거세를 해버렸다.

어느날 밤, 잠을 자기 위해 이불 속으로 몸을 넣은 노인은 화들짝 놀라 방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불 속에는 고양이가 파란 눈을 부릅뜬 채 웅크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노인은 '쥐를 잡지도 못하는 것이 못된 짓만 골라한다'며 발로 고양이를 힘껏 걷어차고 말았다. 방구석으로 나둥그러진 고양이는 '야옹'하는 울음과 함께 노인에게 달려들어 노인의 고환을 물고 늘어졌다. 노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어 고양이를 죽였는데도 고양이의 입은 열 수가 없었다. 결국 노인은 고양이와 함께 죽고 말았다.

□ 큰 · 족은모살냇기

우도 8경중 일경인 서빈백사(西賓白沙)일대를 말한다. 이 백사장은 두 곳으로 나눠어졌는데 넓은 사장은 「큰모살냇기」, 좁은 곳은 「족은모살냇기」이다. 「모살」은 모래의 제주어이다.

□ 왕모살냇기

「왕」은 크다는 말을 뜻한다. 서빈백사의 모래는 모래라기보다는 작은 자갈(돌멩이)이라 할 수 있다. 큰 모래가 많은 곳을 뜻한다. 지금의 서빈백사 전체가 「왕모살냇기」이다.

□ 포제(酺祭)동산

현재 충혼묘지 부근이다. 우도 사람들은 매년 정월초(正月初) 정해일(丁亥日)을 택하여 집단적으로 제(祭)를 올려 천신(天神)과 지신(地神)께 순풍(順風), 순우(順雨), 풍작과 가축의 번식, 주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이곳 사람들은 평탄한 어로생활을 기원했다 한다. 이를 포제(酺祭) 또는 마을제라 했다. 제를 올리던 곳을 「포제동산」이라 한다.

1870년경 이곳에 누군가에 의해 무덤이 생겼다. 사람들은 회의를 갖고 중지를 모아 묘를 이장하였지만 이 곳은 부정한 곳이라 하여 각 동별로 갈려 나가서 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포제는 폐지되고 말았다.

최근 조상의 뿌리 찾기 운동에 힘입어 정월 정해일에 포제가 재개되었는데 우도면에서는 천진리와 조일리, 두 곳에서 행해진다.

□ 좌 윤 이 통

「임좌윤」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팠다 해서 「좌윤이통」이다. 2048번지에 있는 물통 이름이다.

□ 선 서 방 통

현(玄)씨 성을 가진 사람이 파서 사용했던 물통이다. 현씨가 선씨로 변음되어 지금은 선서방통이다. 2136-1번지 삼거리에 있다.

□ 고 둘 여

「고둥」은 소라(螺)의 방언이다. 그 여(嶼)에서 소라가 많이 잡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고둘여 불턱

고둥여(嶼)」 앞에 있는 「불턱」이다. 해녀들이 언 몸을 녹히기 위해 불을 지피는 곳을 말한다.

□ 똥 싼 지 미

이곳은 수심이 깊기로 유명하다. 어느 날 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자맥질을 하였다가 물위로 올라오면서 대변을 보았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 잰 잰 ᄒᆞ 여

「잰잰ᄒᆞ다」는 「자디잘다」의 제주어이다. 조그마한 암초들이 줄줄이 줄지어 있는 현상을 연상하면 되겠다.

□ 개 낭 둘 산

서쪽의 하우목동 2300번지 일대에는 「개낭(누리장 나무)」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개낭이 많은 곳으로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개낭둘산」이다.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둘산에는 아름드리 바위덩어리가 많이 있었다. 새마을 사업이 실시되면서 지붕 개량사업이 시행되자 집울타리 공사도 병행되었다. 이 곳의 왕석들은 울타리의 좋은 재료였다. 사람 손에 의해 왕석이 쪼개지고, 쪼개진 돌은 가옥을 개축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된지 2~3년, 이 둘산의 돌을 이용

해 개축한 집 사람들에게 「동티(건드려서 안 될 땅을 파거나 돌을 채취 또는 치우거나 거목을 베었을 때, 이것들을 관장하는 신에 의해 입게 되는 재앙)」가 나서 간장염에 걸리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이름 모를 병에 전려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가족들은 무당을 빌어 굿을 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 결과는 「개낭동산」의 돌에 손을 댄 탓이라 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동네사람들은 나머지 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간장염도, 이름 모를 병도 68년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한다.

□ 논 것 디

몇년전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큰물통, 작은물통, '돌그랑(연자매), 놀이터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였다. 예전에 노파가 손자와 같이 살고 있었다. 손자는 일은 하지 않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이면 같이 놀기를 좋아했다. 이를 안 노파는 아이들이 모이면 "노는 것들은 다가"라며 아이들을 쫓곤 했다. 말을 짐못 알아듣은 아이들은 그 노파만 나타나면 "논것디 할망 왈져"하며 도망을 쳤다 한다. 그래서 이후 이 지명은 '논것디'로 되었다는 설이 있다. 다른 일설은 놀이터가 제주어로 「노는디」이므로 이의 변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매립되어 화단이 조성되었다. 하우목동 2219-1번지 앞 일대이다.

□ 동 골 목

하우목동 2239에서부터 2240번지 일대이다. 동쪽을 향해 길게 뻗은 골목이 데서 유래되었다.

□ 탑당ᄀᆞ슬(탑다니)

하우목동에 방사탑이 있었던 곳에서 성산포 쪽을 보면 시원스럽게 트여 있다. 지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 상으로는 이곳이 허(虛)해서 많은 재앙이 낙천다 한다. 특히 종달리(終達里) 지미봉 앞에 도깨비불이 나타나 춤을 추다 「느렁코지」로 우도에 넘어와 「생이동산(상여동산)」으로 이동해 집근처에 떨어져 천화(天火)가 발생했다.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 「탑」을 「ᄀᆞ슬(가을) 놀(노적가리)」 같이 쌓았다. 이 탑은 여느 탑과 같이 수·암탑이었다. 하우목동은 동쪽과 남쪽은 「앞동산」, 「선서방동산」, 「개낭동산」이 있어서 각종 액(厄)을 막아주었

지만 서쪽과 북쪽은 허했다. 그래서 두 개의 탑을 쌓았다. 지금은 허물어져 지명만이 남아 있다.

□ 구린질 목

제주어에서 「구린」은 「속이 비다」이다. 「질」은 「길」. 속이 빈 곳으로 가는 길목을 얘기한다. 하우목동 2399-3번지 일대이다. 지금은 매립되었지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웅덩이가 있었다.

□ 특셍이 코지(岬)

상우목동과의 경계를 이루는 이곳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우도에 경작 허가가 있기전 「득성」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았다는 설과 구좌읍 종달리에 거주했던 김씨의 종 이름을 딴 것이라는 설이다.

100여년 전 종달리에 인물이 호걸이고 풍채가 좋았을 뿐 아니라 특히 목소리가 크고, 쟁쟁하기로 유명한 김씨가 살았다. 그는 어느날 우도에 볼 일이 있어 건너왔는데 풍랑이 거세어 돌아가지 못했다. 할 수 없이 하룻밤을 우도에 묵었는데 이튿날은 날씨가 청명하였다. 김씨는 안종달(지미봉 뒤쪽) 만동산에 말이 있었는데 종놈이 밭을 가는가 보려고 이곳에 서서 말이 있는 곳을 보았다. 웬걸, 종놈은 쟁기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김씨는 "야 - 특셍이 놈아! 일어나 밭 갈아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종달리와 우도 사이는 3킬로미터이다.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알아듣고 종놈이 벌떡 일어나 밭을 갈았다 한다. 그 후부터 김씨가 「득셍이」를 불러 깬 코지(岬)라 하여 「특셍이 코지」라 했다 한다.

그 개 창

하우목동 포구의 입구이다. '개'는 포구(浦口)를 말한다. 창(窓)은 문(門)이다. 즉 포구의 입구란 뜻이다.

그 오 따 니 여

「옷」은 「가마우지」의 제주어이다. 「가마우지」가 많이 몰려 들어 앉은 「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예전에 「옥단」이란 여자가 「물질」을 하다 지쳐서 앉아 쉬었다는 데에 유래되어 「옥단이여」가 변음되어 「오따니여」가 되었다고도 한다.

□ 임충이 강알

'임충'이는 사람 이름이고 '강알'은 사람의 두 다리 사이 「살」의 제주어이다. 옛날 「김암충」이란 사람이 「전흘동」에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살았다.

그는 어느 날 성산포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친구를 만나 술을 한 잔 한 탓에 늦어 배를 띄웠다. 하늬바람이 세차게 불었기 때문에 전흘동 포구에 배를 댈 수 없음을 안 그는 「우뭇개」를 이용하려고 했다. 밤이 되어 우도에 왔는데 「우뭇개」도 알고 배를 접안시켰으나 엉뚱한 곳이었다. 배는 파도에 의해 파손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임충이 강알」이라 했다 한다. 하우목동 포구 북쪽에 있다.

□ 진　　여

「진」은 「긴」의 제주어이다. 포구로 들어오는 길목에 길게 뻗어있다 해서 「진여」이다.

□ 종달이 할망여

「종달이」는 구좌읍 종달리(終達里)이다. 「할망」은 할머니의 제주어이다. 「여(嶼)」는 넓다란 암반을 말한다. 즉 종달리 태생 할머니와 관계있는 암반이란 얘기이다.

예전에 종달리에서 시집온 할머니가 살았다. 천초 해경(許採)시 그녀는 천초를 채취하고 육지로 헤엄쳐 오다 너무 지쳐 이곳에서 쉬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자주 그랬던 모양이다. 이런 탓에 이 「여」를 「종달이 할망여」라 했다.

□ 방 앗 여

「우뭇개(하우목동 포구)」 옆에 있었다. 방파제를 시설하면서 발파해 버렸지만 「방아」 같이 등글다 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 쟁 반 여

「쟁반」같이 작으며, 예쁘고, 동그랗다 하여 명명되었다. 하우목동 포구내에 있다.

□ 코 진 여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길게 뻗은 코지(岬) 앞에 있다 하여 불여진 여(嶼)의 이름이다.

□ 세 우 통

낚시 미끼로 많이 이용되었던 「새우」가 많이 잡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 하우북동포구 불양장 자리를 말한다.

□ 우벙에 알

「벙에」하면 흙덩이를 말한다. 하우목동 남쪽에 위치한 이곳은 토질이 질퍽한 편이다. 곡식을 파종하기 위해 쟁기질을 하면 흙덩이가 많이 생긴다. 소로 쟁기질을 [illegible] '소우(牛)' 흙덩이는 '벙에' 알은 '아래쪽', 소로 쟁기질을 하면 흙덩[illegible] 쟁기는 지경의 아래쪽이란 뜻이다.

다른 설로 [illegible]씨 조상이 살았던 집터 아래 해안이라는 데서 연유했다는 얘기도 있다.

□ 셋 모살개

예전에 상·하우 목동은 우목동으로 통칭되었다. 우목동에는 백사장이 세 곳 있는데 가장 넓은 곳은 「큰모살넷기」, 가운데 것은 「셋모살개」, 작은 곳은 「족은모살넷기」이다.

이런 경우는 「개」「원(垣)」을 연상하면 된다. 밀물일 때면 바다지만 썰물이면 모래턱이 생겨 안쪽에는 바닷물이 빠지지 않아 개(垣)를 형성한 데서 지칭되었다. 하우목동 포구 근처에 있다.

□ 안 조랑개

지금은 매립되어 버렸지만 포구 근처에 있었다. 「안」은 안쪽, 「조랑」은 「작은」의 제주어이다. 「조랑새」「조랑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즉 안에 있는 작은 포구(개)이다.

□ 마부룸개

마바람(南風)에 안전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우목동의 현재 포구이다.

□ 넙미역 작지왓

「넙미역」이 자생하는 「자갈밭」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하우목동 1종공동어장에

서 구좌읍 종달리 근접 해안까지 질펀하게 펼쳐진 넓미역이 자생하는 「자갈밭」을 말한다.

□ 우 뜻 개

지금의 하우목동 포구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우목동(牛目洞)」이란 동 명칭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앞의 「우목동」 유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전해온다. 해방전의 얘기라니 전설이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70여년 전의 일이다.

「웃우뜻개」에 젊은 손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손(孫)씨는 건강하고 잘생긴 뱃사공이었고 부인은 상군 해녀였다.

어느 가을 날, 손씨는 장사차 며칠 예정으로 인천에 가게 되었다. 인천에 도착한 그는 장사로 왕래가 있는 어느 양반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그 집에는 집주인의 딸인 노처녀가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 양반집 아들과 정혼을 하였고, 장성하여 그와 약혼까지 했는데 약혼자가 급환으로 죽고 말았다. 사연인 즉,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 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양반 체면에 재혼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처녀 혼자 독수공방을 한다는 것이다.

처녀는 손씨의 장부다운 기풍에 반하여 그가 올 때마다 몰래 훔쳐보며 흠모하고 있었다. 일이 장교롭게 되려다 보니 며칠 예정인 일정이 늦어지고 말았다. 날씨가 악화되었던 것이다. 이 탓에 손씨가 인천에 묵은 기간은 두 달이 더 되었다. 안 그래도 노처녀는 손씨를 흠모하던 처지라 그들의 사이는 집주인 몰래 가까워졌고, 점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집주인은 딸을 불쌍히 여겨 "여기서는 내 체면이 있으니 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만 제주에 가서 살려거든 가거라" 하고 허락하였다.

날씨가 풀렸다. 손씨가 노처녀와 포구에 나와 배를 타려고 하니 장사해야 여자는 태울 수 없다고 노처녀를 실어주지 않았다. 손씨는 노처녀에게 "살고 있으면 꼭 찾아오겠소" 다짐을 하고 배에 올랐다. 처녀는 선창가에 서서 떠나가는 배를 망연히 바라보다 바다에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

며칠후 배는 「우뭇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얼굴을 알 수 없는 여인의 시신이 밀려와 있었다. 손씨가 이 시체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시체의 주인공은 인천 양반댁의 노처녀였다. 손씨는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지만 하는 일마다 낭패만 거듭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지만 그 자식들도 잘 살지를 못했다. 몇 년 후 이 사실을 안 그의 자식들이 정성을 다해 그녀의 무덤 앞에 제수를 차리고 제를 지냈더니 그때부터 손씨의 자식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 중앙동(中央洞)

1969년 이전만 하더라도 연평리에는 일정한 이(里)사무소가 없었다. 1968년 서광리 오영돈(吳永敦)씨가 이장에 임명되자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 그는 김화화(金和花)할머니로부터 대지를 기증받고 재일교포의 후원으로 현 종합식당 자리에 이사무소를 신축했다. 1969년이었다. 이사무소가 연평리 중심지에 들어서자 지금의 노인정 자리에 보건지소, 그 옆으로 어촌계 사무실이 신축되었다.

지금 이 곳을 보면 연평초등학교 쪽, 그러니까 노인정 앞쪽에는 넓은 공지가 있다. 오영돈 이장은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들을 한 쪽으로 건축토록 권장했다.

1976년 구좌농협 우도지소가 신축되게 되자 이 부지를 농협 소유로 이전하기 위해 관계자는 지주를 찾았다. 결과 김화화 할머니의 친척이 나타나고 현 공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꿈은 지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사무소를 중심으로 우도면에 상주하는 관공서들이 하나 둘 늘어섰다.

우도의 중심지라 해서 중앙동으로 명명된 것은 1970년의 일이다.

제2절 五　　逢　　里

□ 오봉리(五逢里)

1986년 4월 1일 구좌읍 연평출장소가 우도면으로 승격되면서 12개 자연마을이 2~5개씩 합병, 4개의 행정리(行政里)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흥(周興),

전흘(錢屹), 삼양(三陽), 상·하고수동(上·下古水洞)이 오봉리가 되었다.

오봉리는 다섯오(五)자와 만날봉(逢)자를 사용, 다섯 마을이 한데 뭉쳤다. 또는 만났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주흥동(周興洞)

주흥동은 우도면 4개리 12개동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다. 동세(洞勢)가 약한 관계로 고루 번영하라는 뜻에서 두루주(周)와 일어날 흥(興)자를 사용 주흥동이라 했다 하나 이 유래는 글자를 직역했다 할 수 있고, 이 마을 유래에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다.

예전, 주흥동은 연평리 11개동(중앙동 신설 이전) 중에서 가장 부유한(몹시 가난한 자도 없고, 그와 반대로 큰 부자도 없이 고루 잘사는) 마을이었다는 데서 연유했다는 설과 「돈올래(錢屹洞)」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마을 명칭도 돈올래와 관계가 있다고도 한다.

근해를 항해하던 상선(商船)이 태풍을 만나 난파하였는데 배에 실려 있던 엽전(동전)이 많이 올라온 갯목이라는 마을이 「돈올래」이듯이 그 때 '돈을 많이 주은 마을'이라 하여 「주흥개」라고도 하고 가운데(中)에 개(浦口)에 인접한 마을이라서 「중개」라고도 불리웠다 한다.

일설에는 과부 아들 「송중이」의 슬픈 사연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옛날 이 마을에 미역장사를 하는 남편과 「똥배질은 예펜」이란 별명을 가진 뚱뚱한 마누라가 살았다. 그들 사이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도일(渡日)했고, 작은 아들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부만이 살았다. 그들 부부는 부지런하기 그지 없었다. 마누라는 물질을 잘하여 미역 채취는 물론 전복 등 기타 해산물 채취도 우도에서 소문날 정도였다.

어느 날 남편이 본도로 미역장사를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돌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 죽고 말았다. 마누라는 몇 날 며칠을 슬피 울며 통곡하였지만 한번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갑자기 닥친 불행에 그녀는 일손을 놓고 몇 달을 보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녀는 앉아 있을 수만도 없었다. 물질을 시작하면서도 해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 불질을 하곤 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해녀

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어느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해녀들과 떨어져 자맥질을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 떨어져 있던 해녀 한 사람이 "똥배질은 예펜이 안 보염져 : 태왁(드넝박)만 있져!!" 하고 소리쳤다. 물질을 하던 해녀들이 모여들었다.

「어이구 ! 이 예펜네 죽은 것 닮다 ! 」

다른 해녀의 외침이었다. 전복을 따다가도 물숨이 여유 있을 때 나오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죽는 수가 있었다. 많은 해녀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호오이 — ! 」

긴 숨비소리의 뒤를 이어 처량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많은 해녀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모여들었다. 그곳에는 과부가 슬피울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녀들이 그녀를 에워싸 해안으로 나왔다. 그녀는 곧 실신했고 해녀들은 그녀의 팔과 다리를 하나씩 들들고 잔디밭으로 옮겼다.

「이 예펜네 눈(수경)이랑 수건은 어떵 해신고?」

옆에서 마누라의 손발을 주무르던 한 해녀의 놀란 목소리였다.

"게매? 게매?" 모여 웅성거리던 해녀들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이 예펜네 언제 머리 깎아시나?」

그러고 보니 과부의 머리가 단발되어 있었다. 놀란 해녀들은 무당을 불러왔다. 푸닥거리가 시작되었다.

얼마후 깨어난 과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전복 두 개를 보고 물 속에 자맥질을 하고 보니 그것은 전복이 아니고 놋잔 두 개였다. 이상히 여긴 그녀는 놋잔을 가지려고 하니 놋잔이 있던 바다밑이 갑자기 사람이 사는 「구들(방)」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 방은 아랫마을의 구멍기게 주인방과 흡사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도 바로 가게 주인이었다.

"이제 당신은 나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그는 그녀를 불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발버둥을 치며 그곳을 피하려 하자 그는, "이제 당신은 나를 피할 수 없소. 이것이 증거요." 하며, 머리를 잘라 가지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몸이 성치 않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러니 무당 출입이 잦을 수밖에.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출입하던 이 마을에 사는 송씨 무당의 출입은 더욱 잦아졌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과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다. 원래 그녀의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이웃에서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 부끄럽게 생각한 과부는 마을을 떠날 것을 계획했다. 어느 이른 봄날, 그녀는 「대마도」로 출가하는 해녀들을 따라 마을을 떠났다. 과부는 대마도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이름을 「송중이」라 했다.

칠년 후, 그러니까 「송중이」가 일곱살이 되던 해 그녀는 귀향, 아들을 송씨 무당에게 맡겼다. 자손이 없던 송씨는 「송중이」를 호강스럽게 키웠다. 그러다 보니 헤엄도 칠 줄 몰랐다.

어느날 「송중이」는 큰 물통에서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 띄우며 놀다 실족하여 물에 빠지고 말았다. 수영할 줄을 몰랐던 송중이는 '이래착' '저래착' 갑세기(들고래) 애기춤을 추듯하였다.

이것을 보고 있던 동네 아이들은,

"중이 잘 헌다(헤엄친다). 잘 헌다." 하며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어린 아이들은 송중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양을 수영연습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가 물을 많이 먹고 기진맥진하여 물 속으로 잠기니 놀란 아이들이 "중이가 물에 빠졌저! 중이가 물에 빠졌져!" 하고 외쳐대기 시작했다. 이웃에는 김메는 아낙들도 있었지만 죄가 물에 빠져서 애들이 좋아라고 외쳐 댄다고 생각해 내다 보지도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늦게까지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송씨 무당은 '중이'를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알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 아들의 시신을 건져 올렸다. '송중이'가 죽은 후 송씨도 화병으로 시름시름하다 죽고 말았다. 충격을 받은 과부는 아들의 원을 풀어주기 위해 무당이 되어 살다 죽었다 한다.

「송중이」의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중개」라 했고 이를 한자식 표기로 개칭하면서 「주흥동」이라 했다 한다.

ㄱ 전흘동(錢屹洞)

이곳은 속칭으로 「돈올레」라고 부른다.

옛날에 상선(商船)이 전흘동 앞바다를 지나다 돌풍을 만나 난파하였다. 배는 몰아치는 돌풍에 밀려 「전흘동」 가까운 해안에 좌초하였는데 배에 싣고 있던 엽전이 바다밑에 깔렸다.

엽전은 파도가 칠때마다 조금씩 「전흘동」 해안에 몰려들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엽전을 주어 부자(富者)가 되었다 한다. 다시 말해서 돈이 오는 길목, 올레는 표준어로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짧으로 드나드는 좁은 길목'을 말한다.

다른 유래는 「돈」과 관계되는 설로 「돈을동」 「돈오른동네」라고 한다. 즉 부자동네, 부촌(富村)이란 뜻이다.

이 마을에 입주한 사람들은 바다의 혜택으로 살았다. 파도가 치면 해변에 「실겡이(거름용 해초의 일종)」가 뿌리채 뽑혀 부진장 밀려 왔는데 이 해초를 모아 경작지에 거름을 잘 하니 해마다 풍작을 이루어 「전흘동」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었고 마을은 자연히 부촌이 되어 「돈 많은 동네」가 되었다 한다.

ㄱ 고수동(古水洞)

고수동의 옛이름은 「예물동네」이다. 「예물」이란 하고수동에 있는 용천수를 말한다.

1842년 우도에 목장이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부터 「예물」과 주흥동의 「산물」이 있었다고 전해오는 것을 보면 오래된 샘물인 것은 틀림없다.

설촌이후 인구의 증가로 「고수동」이 상·하(上·下)로 분리되었는데 「예물동네」는 지금의 하고수동을 말한다.

이 물은 「이물」이라고도 불려워지는데 예전에는 수량이 풍부하였다. 우도에는 원래 생수가 없었다. 왜인(倭人)들이 이 곳에 정박하게 되었는데 음료수가 없어 온 섬을 헤매고 다니다가 「고수동」에서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팠더니 용천수가 펑펑 솟아져 나왔다 한다. 그 후에도 이 샘은 용수량이 풍부하여 우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샘의 뒷동산에 집을 신축한 후부터 물이 솟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다.

「이물」은 왜놈(倭人)이 발견했다는 데서 유래하였으며 「조일리(朝日里)」에 있는 「왜(倭)무덤」과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 즉 「왜(倭)」가 「예」로 해석되어 한자식 표기를 하면서 「옛물」이 「고수(古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자 그대로 「옛물(古水)」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웃 예 물

「상고수동」의 속칭이다. 「상고수동」과 「주흥동」 사이에 있다. 우도에 입경 허가가 나고 사람이 많이 모여살게 되자 「예물」과 「산물」에서 용출되는 용수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사람들은 수맥을 찾아 헤매던 끝에 이곳에 우물을 팠다. 그러나 용천수는 없었고 비가 와야 통천수가 고였다.

「예물」 윗쪽에 있다 해서 「윗예물」이다. 100여평이 훨씬 넘는데 「전흘동」, 「삼양동」 「상·하고수동」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했다.

□ 중개(中垣)

주흥동의 옛 명칭이다. 이곳에도 두가지 설이있다.

하나는 남쪽 천진리 「하늘이개(天津浦)」와 북쪽 전흘동 포구 사이에 위치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하나는, 서북풍이 세게 부는 날이면 이 「개(垣)」에 난파선의 잔해라든가 바다에서 조난당한 어부 및 선원들의 시신이 많이 밀려왔다. 즉, 죽은 것(잔해와 시체)들이 많다 하여 「죽은개」로 호칭되었던 것이 「주검」은 지역명칭에 나쁘다 하여 「중개」로 변경했다는 설이다.

□ 족은구미, 큰구미

「구미」란 북한어(北韓語)로 '바닷가나 강가의 곳이 길게 뻗고 후미지며 휜 곳'을 말한다. 「족은」은 부사로서 제주사투리로 「작은」을 뜻한다.

주흥동 해변가에는 후미지며 휘어진 곳이 두 군데 있다. 면적이 좁은 곳은 「족은구미」, 큰 곳은 「큰구미」이다.

주흥동과 하우목동 경계표시인 「북돌코지」 북쪽에 있는 것은 「큰구미」, 작은 둔덕 넘어 면적이 좁은 곳은 「족은구미」이다.

ㄱ 진코지(岬)

「족은구미」와 「큰구미」를 형성시키며 바다쪽(서쪽)으로 뾰족하고 길게 뻗은 「빌레(반석)」를 말한다. (진 : 긴, 짐다)

ㄱ 엉챙이 알

날 때부터 윗 입술이 찢어져 있는 사람을 언챙이라 한다. 주흥동 해변가에 험한 바위로 형성된 곳이 있는데 「언챙이」와 비슷하다 해서 「엉챙이」라 했다한다. 「알」은 「아래(下)」를 뜻한다. 즉 날카로운 바위와 돌이 많은 곳의 밑을 얘기한다. 해방 직후 좌초된 화물선의 잔해가 밀려왔던 곳으로 유명하다.

ㄱ 멜개(編垣)

「멜」은 멸치, 「개」는 멸치를 가두기 위해 돌을 모아 원형으로 둘러놓은 담장을 말한다. 「원(垣)」인 것이다. 「멜개」는 멸치를 잡기 위해 해변가에 형성된 곶(串)의 안쪽이나 그와 비슷한 곳을 일면(一面), 혹은 2~3면을 돌로 둑을 쌓았다. 이곳에 밀물시 들어온 멸치가 썰물이 되면 갇히게 된다. 이것이 「멜개」이다.

40여년 전만 하더라도 "멜 들었저!" 누군지 알 수 없는 외침에 「쪽바지」와 「구덕」을 들고 멸치를 잡으러 「개(垣)」로 내닫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ㄱ 당과 당알

주흥동 해변, 890번지 앞쪽에 「할망당」이 있다. 해녀나 어부들이 일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곳이다. 즉 마을주민의 여러가지 일을 지켜주는 신(神)이 거처하는 장소를 「당」이라 한다. 마을의 안녕을 수호하는 「할망(할머니)신」이 좌정해 있다 해서 「할망당」이다.

이곳에서는 일년의 안녕은 음력 정월에, 각종 사안이 발생시는 바로 직전에 「할망신」에게 부사를 기원한다.

「알」은 아래(下), 「당알」은 당이 있는 아래쪽, 바다쪽을 얘기한다. 그 쪽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물(육지)쪽은 위, 바다쪽은 아래라 칭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ㄱ 큰원(大垣)

「멜개」는 그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규모가 큰 것은 「큰개」, 작은 것은 「족은개」이다. 여기서는 「개」를 「원」으로 표시한 것이 특색이다.

□ 북돌고지(岬)

주흥동과 하우목동의 경계이다. 주흥동 해안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반석이다. '북쪽으로 돌출된 코지'이다.

□ 장통 알

「북돌고지」 남쪽, 「북돌고지」는 해안에 있고, 「장통알」은 위쪽 물의 지명이다. 이곳에 있는 밭(田)을 모형이 「장통(길쭉한 깡통)」 같다 하여 생긴 지명이라고도 한다. 주흥동과 하우목동의 경계에 있다.

다른 유래는 우도는 입경(入耕)허가가 되기 전까지 말을 기르는 목장지였다. 이곳이 수심이 깊어 말을 본도로 실어 나르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그러나 해안이 울퉁불퉁해 말이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목자들은 말의 다리에 「장통(긴통)」을 끼워서 돌에 의해 말의 다리가 상하는 것을 방지했다 한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 「장통알」이라 한다.

□ big 여 물

우도의 음료수는 모두가 봉천수(奉天水)이다.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웅덩이에 고인 물을 귀중히 여겼다. 물이 우묵한 곳에 고였다 해서 「고인물」, 더 많은 물을 모으기 위해 인력을 이용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어서 생활용수로 이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고인물이 변음되어 「big여물」이 되었다.

□ 모살개(沙堰)

「큰구미」 바로 옆에 있다. 썰물일 때면 백사장이 드러난다. 밀물에 밀려 들어왔던 멸치떼가 모래 둔덕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된다. 이쯤되면 사람들은 「쪽바지」를 들고 「모살개」로 모인다. 자연적으로 원(垣)이 형성되는 것이다. 백사장에 생겨난 「개」라 해서 「모살개」이다.

□ 앞 바 당

「바당」은 바다의 사투리이다. 주흥동의 앞바다. 주흥동과 [illegible] 사이 [illegible]

입이 용이한 곳을 말한다.

□ 앞 동 산

「동산」은 고개, 지면이 가운데는 높고 사면이 비탈진 곳이다.

주흥동 앞(하우목동)쪽에 있는 높은 둔덕이다. 이곳에 서면 주흥동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 산 물 깍

'깍'은 '가'의 변음된 된소리이다.

「산물」은 생수(生水)를 말하며 여기서는 용천수(湧泉水)를 말한다.

「산물」의 바깥쪽에 위치한 곳이라 해서 「산물깍」이다. 이곳은 「포구(개)」내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다. 예전에 태풍이 몰아칠 때는 어선들을 이곳으로 대피시켰다. 지금도 이곳에 서면 "부름불켜, 배 안터레 들어개라!"는 어부들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온다.

□ 산 물 통

「산물깍」 안쪽에 위치해 있다. 썰물일 때는 물이 솟아나지 않지만 밀물이 시작되면 바닷물이 밀려옴에 비례하여 용출량이 많아진다. 물이 귀한 이곳에서는 염분이 많은 이 물을 「산물(生水)」이라 했다. 가뭄이 들면 동네마다 파 놓은 우물은 마르기 마련, 그러면 우도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허벅」을 지고 이곳으로 몰렸다. 예전 가뭄시에는 이 「산물」이 우도의 생명수였다.

물이 솟는 통이라 해서 「산물통」이다.

□ 까 막 동 산

주흥동 966번지 앞에 바다를 향해 서 있는 두개의 방사탑(防邪塔)을 말한다. 이곳에 까마귀가 자주 앉는다 해서 「까막동산」이라 부른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잘못된 설이다.

제주의 선인들은 풍수지리적으로 마을에서 보서 허(虛)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에 2~3m의 돌탑을 쌓고 꼭대기에는 새(鳥) 모양의 돌을 올려놓았다. 이때 새는 까마귀를 뜻했다.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까마귀가 신(神)의 사자로서 재앙을 쫓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연유에서 「까막(까마귀)동산」이라 명명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 큰 · 족은동산

주흥동에는 세 군데의 동산이 있다. 「앞동산」과 「큰동산」, 「족은동산」이다. 동산이 높다 하여 「큰동산」, 작다 해서 「족은(작은)동산」이다.

□ 둠 벙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서는 '웅덩이'를 둠벙이라 한다.

주흥동과 전흘동 사이에 있다.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둔덕을 쌓아 물을 가두었다. 둑을 쌓았으니 물이 '번번ᄒᆞ게(높낮이가 없이 널따랗다)' 고이게 마련이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 '둔덕'의 '둔'과 '번번ᄒᆞ다'의 '번'자를 따서 「둔번」이라 호칭되었던 것이 변음되어 「둠번」이 되었는데 「둠벙」으로 와전되었다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둑을 쌓고 물을 저장한 곳이 전라 · 충청도 지방의 웅덩이와 비슷하다 하여 「둠벙」이라 지칭한 것이 아닌가 한다.

□ 물 쿄

둔덕을 쌓고 바닷물을 저장했으니 물이 들고 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물이 들고 나는 곳이라 해서 「물쿄」이다.

□ 게 와 당

하고수동과 비양동 사이 백사장이다. 제주방언으로 「호주머니」를 「게와」라 한다. 호주머니는 대개가 입구는 좁고 안쪽은 넓다. 이곳을 잘 살펴보면 밖은 좁고 안쪽은 하얀 모래로 덮여 넓게 보인다. 40여년전만 하더라도 멸치어장이었다. 호주머니에는 물건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다. 이곳 역시 멸치가 한번 들어가면 나가지 못했다. 이런 연유에서 「게와(호주머니)」와 같은 마당이라 해서 「게와당」이다.

어떤 이는 「개맛(포구)」에 멸치가 많이 잡히는 곳이므로 「개(浦)」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개와당」이라 한다고도 한다.

또 이곳을 「특진포(獨津浦)」라고도 한다. 옛날 옥지부에서 작은 배 한 척이

「개와당」 입구 「비중ㄴ리」라는 코지(串)에 상륙했는데 한 사람만이 타고 있었다 해서 「독진곶(獨津串)」이라 했다. 이로 인해 그 곶(串)안에 포구와 같은 백사장이 있다 해서 「독진포」라고 불리웠다 한다.

ㄱ 옷안는 봉오지

하고수동 해안(744번지 앞)에 있는 돌 봉우리이다. 이곳에서는 가마우지(물새)를 「옷」이라 한다. 「봉오지」는 봉우리의 방언. 즉 '가마우지가 많이 앉는 봉우리'라 해서 「옷안는 봉오지」.

ㄱ 사장(沙場)

하고수동 712번지 일대 개와당 물쪽을 말한다. 지금은 경작지로 변모했지만 예전에는 모래밭이었다. 그래서 불여진 이름이 사장이다. 최근에는 이곳에 버스정류소가 시설되었다.

ㅁ 늙은이 물 알

옛날 늙은 부부가 살면서 집안에 조그마한 구덩이를 파서 봉천수를 받아 식수로 이용했다 한다. 이 물이 「늙은이 물」. 「알」은 「아래」의 방언이다. 즉 「늙은이 물 아래 쪽」이란 뜻이다. 상고수동에 있다.

ㅁ 수덕(壽德)동산

상고수동 1089-1번지 들동산 지역이다. 조선시대부터 이곳에 「당」이 있었다. 이 당은 아름드리 왕석으로 둘러싸였는데 사람들은 이 곳에 울긋불긋한 천을 두르고 가족과 자손들의 안녕과 자신의 무병장수를 빌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당은 191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일제에 미신타파라는 미명하에 훼철되었다.

ㄱ 쪽은 수덕

수덕동산 동쪽에 자리한 작은 둔덕을 말한다.

ㅁ 관 통

우도는 섬이므로 물이 귀했다. 봉천수가 많이 모일 것 같은 곳이 있으면 인력

을 동원 우물을 만들었다. 80여년전 이곳에 인위적으로 우물을 만들었다 해서 「판통」, 즉 사람이 판 우물이란 뜻이다. 10년 후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 수량이 모자라자 더 많은 물을 받기 위해 보수를 했다 한다. 또한 이곳을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받는 곳이라 해서 「천수(天水)」라고도 한다. 하고수동에 있다.

ㄱ 구 진 물 통

말 그대로 「구정물」이 모인 구덩이 또는 연못을 뜻한다. 이 경우는 우물이라 표현해야 할 것이다. 우도는 물이 귀한 곳이기에 한 방울의 물도 아껴야 했다. 「판통」에서 음료수로 사용하다 버리거나 넘친 물은 밀의 「구진물통」으로 모여 빨래나 우마 급수용으로 사용하였다.

제주 본도인 경우 수량이 풍부하거나 질이 좋은 생수인 경우 다단계식 샘물이 많으나 우도에는 이 「구진물통」이 유일한다.

예물(古水)근처에 있다.

ㄱ 까 막 동 산

방사탑(防邪塔)이다. 하고수동은 남쪽과 북쪽이 허해서 마을에 재앙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남쪽에는 「수탑」, 북쪽에는 「암탑」을 쌓았다. 원래 이런 탑을 쌓을 때는 그 속에 「누금(우금=밥주걱)」이나 「솥(헌솥)」을 넣고 2~3m 높이로 쌓았다. 밥주걱은 솥의 밥을 긁어 담듯이 밖의 재물을 모아들이라는 뜻이고, 솥은 부서운 불에도 안내력이 강하므로 그 마을의 어떠한 재난도 이기라는 뜻이다.

수탑은 암탑보다 높고 뾰족하며 암탑은 낮고 납짝하다. 탑의 정상에는 새 형상의 돌을 올려 놓았다. 이때 이 새는 까마귀를 뜻한다. 그래서 「까마귀동산」이 줄어 「까막동산」이 되었다.

여기서는 까마귀가 와서 자주 앉는 곳이라 불려지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ㄱ 장 태 코

하고수동 712번지 앞에 「양푼」 모양의 큰 분지가 있고, 지금도 바다쪽으로는 갈라진 곳이 있다. 비가오면 갈라진 곳을 통해 빗물이 바다로 스며들었다. 이곳을 「장태코」, 즉 양푼 모양의 큰 질그릇의 코라는 뜻이다.

□ 동 냥 알

「동냥」은 '먹을 것이나 돈푼을 얻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한다. 제주방언으로 「동냥바치」는 거지를 뜻하는데, 여기서 '바치'는 생략되었다. 「동냥바치」가 모여 살았던 장소의 아래쪽이라는 뜻이다. 「알」은 아래의 방언이다. 과래가 많이 생산되어 이것을 얻으러 오기 때문에 「동냥알」, 전흘동에 난과선의 엽전들이 많이 올라와 이것을 주우러 「동냥바치」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알」이라 하기도 한다.

□ 마주목 거리

주흥동, 상고수동, 하고수동의 경계선인 4거리를 말한다. 이 거리는 우도의 중심지였다. 오봉리의 禹奉水(78세)옹은 "이 거리가 중요한 곳이라. 연평리(演坪里), 소섬사람이 여기 모두 모여서 각종 시비 가리기, 술먹기, 노름·오락과 향회를 열고, 초저녁만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 소섬의 대소사는 여기서 결정되어서" 하며 몇십 년 전의 일들을 회상한다.

「마주목」은 「먹구슬나무」의 제주어이다. 6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안길 포장 때문에 그 나무는 베어졌지만 지명은 남아 있다.

□ 유치원 거리

삼양동과 상고수동 경계선을 말한다. 이조 고종시대부터 이곳에 유치원이 있었다한다. 그래서 명명된 것이 유치원 거리이다. 필자가 "일종의 서당(書堂)같은 것 아니었느냐"는 반문에 禹奉水(78세)옹은 "아니여! 요즘같이 유치원이라 했어, 고종 때는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문을 가르쳤고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과 신식공부를 시켰주."하고 역정을 낸다.

우리 나라에 유치원이 생긴 것은 1909년 함경북도에서 정토종포교자원(淨土宗布敎資圓)에 의해 설립된 나남유치원(羅南幼稚園)이 처음이다.

이전 1897년 부산유치원, 1900년에 인천유치원, 경성공립유치원이 있었으나 이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시설이었다. 1907년 학부관제가 개정되면서 유치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무국에서 다루게 되었고, 1909년 유치원 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면 교육선각자들이 많았던 우도에도 1900년초 유치원이 있었을 법도하다.

ㄱ 중백(仲佰)이 동산

고중백이란 사람이 살았던 높은 지대이다. 상고수동 1089-1번지를 말한다.

ㄱ 탑다니 동산

예전에 연대가 있었던 곳이다. 제주도에서는 주거지보다 조금 높아 보이는 곳을 동산이라 한다. 즉 탑이 있었던 「동산」이다. 이곳이 바로 1973년 7월 13일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도 출신 김○○ 간첩이 여러 차례 출몰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지금은 예전의 탑(塔) 대신 경비초소가 들어서 대조를 보인다.

ㄱ 개 우 렁 이

「탑다니 동산」 바로 아래쪽이다. 지연적인 형태는 「개(浦口)」형태이나 수심이 깊고 파도가 세어 배 접안이 어려웠다. 밖에서의 지형만을 감안해 접안했다가 상륙치도 못하고 떠나는 배가 많았다. 파도가 심해 배가 너무 출렁거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浦口)' '출렁거린다 ⟹ 울렁거린다 ⟹ 우렁이' 곧 「개 우렁이」인 것이다.

ㄱ 개 개 비 통

삼양동 810번지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봉천수가 고이는 웅덩이가 있었다. 물이 많이 고였으니 연못이 되었고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서식했다. 비가 오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했다. 개구리의 제주어는 「개개비」. 개구리가 많이 서식했다 해서 「개개비통」이다. 지금은 물이 없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이곳에서 맹꽁이가 요란스럽게 울어 옛 명칭을 되살리게 한다고 촌로들은 회상에 잠긴다.

ㄱ 재우집 등산

고재우(高在愚)란 사람이 소유했던 전흘동 800번지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말한다.

ㄱ 진 질 각

전흘동에 있다. 일명 「장로각(長路脚)」이라 한다. 사람들은 「다리(橋梁)」라 하면 길고 곧은 것을 연상한다. 이 길은 '진=긴', '질=길', '각(脚)=다리', 그

래서 「진질각」 즉, 길이 길어서 다리와 같다는 뜻이다.

□ 오서방 동산

우리 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1784년 이승훈(李承薰)이 북경 북당(北堂)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데서 비롯된다.

1839년 앵베르(范世亨) 2대주교가 기해(己亥)박해 때 순교한 것을 시작으로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시 4, 5대 주교가 순교했다. 이때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오성덕(吳成德)이란 사람이 도피해와 숨어 살다 사망하자 이 곳에 묻혔다. 지금도 무덤의 흔적은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이런 탓에 이름은 생략하고 성씨만 따서 「오서방 동산」이라 불렀다.

삼양동 해안 786번지 일대의 동산을 말한다.

□ 오성덕의 굴

앞의 오씨가 숨어 살던 굴을 말한다.

이 유래에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병인(丙寅)박해 때 오성덕아가 피신해 입도했다는 설과 둘째, 1901년 신축란시(辛丑亂=濟州天主敎亂=李在守亂), 셋째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순사들의 눈을 피해 숨어들었다는 것이다.

유래전승자인 우봉수 옹은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오성덕의 얘기를 들었다. 그때 60여년이 됐다면서 대원이 대감(興宣大院君)이 섭정시였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 한 자리에 앉아 있던 촌로들도 그게 맞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 망 루

예전에 연대가 있었던 곳이라 한다. 지금은 48년 4·3 당시 공비의 침투에 대비 허물어진 자리에 복원했다. 전흘동에 있다.

□ 돈올레 동산

전흘동의 유래와 같다. 「올래」는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좁은 골목을 말한다. 돈이 오는 길목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즉 돈이 오는 길목에 있는 「동산」이다.

□ 액탑(厄塔)

하고수동(下古水洞)의 「까막동산」과 같다.

□ 툰 동 산

지금은 매립되었지만 예전에는 분리되어 떨어져 있었다. 「툰」은 '따로' 또는 '딴'의 제주어이다. 「딴동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산」이다.

□ 감태구미

감태는 해초(海草)이다. 몸은 원형이며 잎은 두껍고 짙은 갈색이다. 전복의 먹이의 일종이다. 폭풍이 지나고 나면 감태가 뿌리째 뽑혀 해안으로 밀려든다. 구미는 휘어지면서 깊게 뻘은 해안의 후미진 곳을 말한다. 파도에 밀린 감태는 후미진 곳에 모이게 마련. 이곳을 「감태구미」라 했다. 전흘동 해안 829번지 앞 일대이다.

□ 세 덕 바 지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일제(一齊) 해제시 많은 해녀들이 한꺼번에 바다로 몰린다. 그러면 「불턱(해녀들이 자맥질을 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다 언 몸을 녹이려고 마련해간 땔감으로 불을 피우기 위해 바닷가 반석(빌레) 위에 바람막이로 둥그스름하게 담을 에워싼 곳)」 한 군데로는 모자란다. 그래서 이웃에 이웃하여 「불턱」을 세 군데에 만들었다. 「바지」는 「밭」을 풀어 쓴 말. 즉 「불턱」이 세 군데 있는 곳.

□ 세 비 코 지

「세덕바지」에서 바다로 죽 뻗은 코지(岬)를 말한다.

우도봉 정상을 쇠머리(牛頭)로 본다면 이곳은 「소의 꼬리(牛尾==쇠미)」이다. 「쇠미」가 변음되어 「쇠비」가 되었고 「쇠비」가 변음되어 「세비」가 되었다.

요즈음도 소의 꼬리로 요리한 음식은 보신음식으로 통용된다. 소의 꼬리가 그만치 힘이 세다는 얘기이다. 이런 데서 연유한 탓인지 이 근처 동네에서 인물이 난다는 풍수지리적 속설이 전해 내려온다. 전흘동 해안 828번지 앞이다.

□ 세비 튼 여

「여」는 바닷가 수심이 얕거나 썰물일 때 나타나는 암반 또는 돌을 말한다. 「세비(쇠미)」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이다.

□ 알 · 웃어깨

「세비코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세비코지」에서 바다를 향해 서면 오른쪽은 「웃어깨」 왼쪽은 「알어깨」이다. 썰물시 바닷물은 「세비코지」 때문에 물이 좌우로 나누어진다. 그런 탓에 많은 고기들이 서식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오른쪽을 「윗쪽」, 왼쪽을 「아래쪽」으로 통칭해왔다. 이 지명도 이런 어원에서 비롯되었다.

□ 다리걸린 여(嶼)

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풍력(風力)이나 인력(人力)에 의해 움직이는 선박이 대다수였다. 이런 관계로 조난사고가 빈발했다. 어느날 전흘동 818번지 앞 해안에 있는 「여」에 시신이 떠올랐다. 썰물이 되어 살펴보니 시체의 다리가 「여」 틈 바구니에 끼어 있었다. 그래서 「다리걸린 여」가 되었다.

이 「여」는 썰물이면 나타나고 만조시에는 물속에 잠겨 그 위로 어선들이 드나들었다. 밀물이면 배가 드나드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해서 「다리걸린 여」라고 지칭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확실치 않다.

□ 큰 · 족은 개(垣)

「개」는 원(垣 : 멸치를 잡기 위해 바닷가에 인위적으로 돌담을 등그렇게 쌓아 놓은 곳)을 말한다. 「족은」은 작다의 제주어이다. 한 마을에는 여러 개소의 「개(垣)」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개(垣)」가 세 곳이 있다면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큰개」, 다음은 「중개」 또는 「셋개」, 좁은 곳이 「작은개」이다.

□ 동치코지

전흘동 798번지 해안에서 바닷쪽으로 길게 뻗은 코지(岬)이다. 「큰개(垣)」 앞에 있다. 「동치」는 황돔의 제주어이다. 지금도 이 코지에서 이끼로 문어를 사용해서 주낙을 던져 놓아두면 일미터 이상의 「동치」가 잡힌다. 특히 5~6월 장마때는 「웽이(혹돔)」도 많이 잡힌다. 「동치」가 잘 잡힌다 하여 「동치코지」라 했다.

□ 박무루 밧

우도에서 물발이 가장 거센 해역이다. 「무루」는 표준어로 「마루」를 뜻한다. 배들이 이곳을 지날 때, 사람 같으면 '박치기'를 하는 각오로 지나야 한다. 박치기를 하면서 넘는 마루라는 뜻이다. 아무리 잔잔한 날씨라도 조속(潮速)이 드세어 파도가 친다. 전흘동과 삼양동 경계에 있다.

□ 자　　락

「오성덕의 굴」 아래쪽을 말한다. 치맛자락 같이 넓고 평퍼짐하기 때문에 치맛자락과 같다하여 「자락」이다. 삼양동 해안에 있다.

□ 난　　여

자락 앞쪽에 있는 「여(嶼)」이다. 밀물일 때는 물 속에 잠기고 썰물일 때는 수면위로 나타난다 하여 「난여」이다. 삼양동 해안가에 위치한다.

□ 물썬원(垣)

제주에서는 바닷물이 나가는 것을 즉, 썰물일 때를 가리켜 '물이 쌉져'로 표현한다. 「물썬원」에서 「물썬」은 '물이 싼다'의 준말이다. 원은 담(垣)을 얘기한다. 물이 싸면(썰물일 때) 나타나는 원을 말한다. 삼양동에 있다.

□ 자락머흘깍

「머흘」은 「자갈」을 뜻한다. 「깍」은 「꼴찌」이다. 「자락머흘깍」은 합성어인데 '자갈이 많이 깔려 있으면서도 평퍼짐하게 넓은 곳의 끝'을 말한다. 삼양동에 위치한 「자락」에 가보면 이 지명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 돌그랑 동산

「돌그랑」은 연자매의 제주어이다. 동산은 그 지역의 조금 높은 곳. 연자매가 있었던 동산. 상고수동 1222번지 일대이다.

□ 펭 풍 개

삼양동 해안 761번지 앞이다. 썰물이 되면 그 일대가 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암벽이 나타나고 암벽 앞에는 「개(垣)」가 형성된다.

ㄱ 맹주할망여

예전 이곳에 「명주」라는 할머니가 살았다. 그 노파가 우뭇가사리 채취시마다 이 「여(嶼)」에서 혼자 우뭇가사리를 뜯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양동 1081번지 앞에 있다.

ㄱ 게데맹이여

전흘동 해안 818번지 앞에 있는 「여(嶼)」인데 개(犬)머리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ㅁ 곱은 여

「곱은」은 「숨다」의 뜻을 지녔다. 쉽게 생각해서 「숨은여」라 생각하면 된다. 수면에 보일듯 말듯한 여의 이름이다. 상고수동 752번지 앞 바다에 있다.

ㄱ 물 여

말(馬)의 형태와 같다 하여 붙여졌다. 「오성덕의 글」 해안에 있다.

ㅁ 개 말 똥 산

하고수동에 있다. 개(浦口)의 위쪽(머리)에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 : 포구, 말 : 첫째, 머리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포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작은 둔덕이다.

ㅁ 먹돌개(垣)

먹돌(구멍이없고 검정색이며 단단한 돌)로 담을 쌓아 만든 개(垣)이다.

ㅁ 오분재기여

오분재기(전복과 같으나 아주 작음 : 떡조개)가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ㄱ 돌렝이 덕

전흘동과 상고수동 두 곳에 있다. 「돌렝이」는 작은 밭을 일컫는다. 원래는 움푹하고 조그마한 밭이었으나 그곳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한 후, 가져간 땔감으로 불을 피워 몸을 녹였다. 「덕」은 해녀들이 몸을 녹이기 위해 돌담을 쌓은 곳. 즉 작은 밭에 조성된 「불턱」이란 뜻이다.

□ 비중드리

「독진코지」의 속칭이다. 「비쭉」은 「삐죽 : 물체의 한 부분이 쑥 내밀어 진 모양」의 제주어이다. 「쑥 내밀어 진 다리」가 와전되어 「비중드리」가 되었다.

□ 세 배 곶

「비중드리」「독진코지」를 「세배곶」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귀양온 한 노인이 우도에 살았는데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이곳에서 왕궁(王宮)을 향해 세배를 드렸다 해서 불리게 된 지명이다.

□ 두린세비여

「두린」—「세비」—「여」의 합성이다. 「두린」은 「어린」의 제주어이다. 「두린아기」하면 「어린아이」로 해석된다. 「세비」는 앞에 설명했듯이 「쇠미=소꼬리」가 와전된 단어이다. 그러면 「어린쇠미여」이다. 즉 「쇠미 근처에 있는 어린 여」 다시 말해서 아직 크지 않은 작은 여를 말한다.

제3절 朝 日 里

□ 조일리(朝日里)

북쪽으로 상고수동과의 분기점인 「셋모살」에서 동청진동과 영일동의 「보설봉우지」까지를 조일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계선이다. 구좌읍 연평출장소가 우도면으로 승격될시 비양봉(飛陽峰)과 영일동(迎日洞)을 합병, 우도에서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을 맞이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비양동(飛陽洞)

제주도에는 양쪽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를 「동비양(東飛陽)」「서비양(西飛揚)」이라 한다. 제주의 선인(先人)들은 제주 섬을 하나의 큰 학(鶴)으로 생각하여 서쪽 날개는 한림읍 비양도, 동쪽 날개는 우도의 비양도로 여겼다. 동비양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 하여 '볕양(陽)', 서비양은 해가 지는 것을 건져 올린다는 뜻으로 '나타날 양(揚)'을 사용함으로써 동서의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우도의 비양도는 섬중의 섬이다. 이로 인해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비양도의 명칭도 이 작은 섬을 앞에 두고 있다 하여 불여진 이름인데 1930년대까지만 해도 우도의 공동관리 구역이었다. 당시 포제(酺祭)를 지낼 때에는 이 섬지역에서 공동채취하는 해산물을 판매하여 제수(祭需)를 마련하였다.

일제의 탄압에 의해 포제를 못지내게 되자 비양동의 공동기금(학교건축기금) 일부를 우도에 납부하고 비양동의 관할로 만들었다 한다.

그후 방축을 쌓아 비양동과 연결되어 '섬중의 섬'이 아닌 우도의 한 부분의 몸이 되었다. 이로인해 비양도를 「안비양」이라 부른다.

ㄱ 말뚝 박은 여

우도는 제주목(濟州牧)과 정의현(旌義縣)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제주목에 가깝고 지리적으로는 정의현이다. 우도사람 대부분이 제주목에서 이주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조시대만 하더라도 정의를 제주보다 멸시한 때문이라 하겠다.

당시 우도를 상·하로 나누게 되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주목과 정의현의 경계, 즉 구좌 종달과 성산 시흥과의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직선으로 그어 동쪽은 상우도, 서쪽은 하우도라 하였다. 이때 경계선에 말뚝을 박아 표시를 하였다. 바로 말뚝을 박았던 암석(여;嶼)을 「말뚝 박은 여」라 했는데 와전되어 「말툭 박은 여」라 부르게 되었다.

그때 우도 주민들의 반대로 상·하우도로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도가 북제주군 관할이 되었다.

ㄱ 왜무덤, 왜무덜 동산

이곳은 일본, 즉 왜(倭)와 관계한 유래가 있는 곳이다. 비양동과 영일동 사이에 위치하며 조일리 사무소가 인접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왜구(倭寇)들이 우도를 침범하였다가 우도 사람들과 싸워 죽은 시체들이 묻힌 곳이라기도 하고, 일본 상선이 이 연안을 지나다 폭풍을 만난 배가 난파하는 바람에 선원들이 죽어 시체가 바닷가에 떠오르자 우도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묻은 곳이라기도 한다.

다른 일설은 태평양전쟁 당시 근해를 항해하던 일본 운송선이 격침에 의해 폭

격당해 폭파되었는데, 그때 선원들의 시체가 파도에 떠밀려와 묻힌 곳이라고도 한다. 태평양전쟁이라면 불과 50여년 전의 일인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고 보면 이는 어느 말좋은 사람이 지어낸 말에 지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유래재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곳은 일본사람들의 시체가 묻힌 곳임에는 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의무덤」이란 「왜(倭)무덤」이란 뜻이다. 옛말로는 「왜」를 「예」라 하였다 하니 「의무덤」은 「왜무덤」의 와전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관심사는 '과연 이곳이 시체가 묻힌 진짜 무덤이냐?'하는 것이었다. 해방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있는(?) 몇몇 청년들이 이곳을 파본 일이 있었다고 하나, 결과는 인골(人骨)이 나왔다고도 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설도 있어 확실치 않다. 뼈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뼈를 갈아 약으로 먹었다가 미쳐버렸다는 공(孔)씨의 이야기를 옛이야기마냥 전한다.

비양동과 영일동 사이, 바로 「의무덤」 근처에 공씨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살았다. 그는 학질(말라리아)에 걸려 고생을 했다. 이 병에는 사람의 뼈를 갈아서 물에 타 먹으면 완쾌된다는 얘기를 들은 그는 발병시 전신을 뒤틀며 괴로워하다가도 정신이 들면 사람의 뼈를 찾기 위해 무덤가를 헤매고 다녔다. 어느 날 「의무덤」에서 고양이가 파 물고 다니던 뼈를 주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공씨는 이 인골을 솥에서 볶아 절구에 빻았다. 그는 이 가루를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공씨의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 학질의 특징인 '덜덜덜' 떠는 행위는 사라졌지만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눈을 하얗게 치뜨고 거리나 바닷가를 배회하기도 하고, 헛소리를 치며, 허공을 치듯 양팔을 하늘을 향해 허우적거리기도 했다. 가족들은 애만 태웠고, 공씨의 증세는 날로 심해져갔다. 그러는 사이에 두어달이 지났다. 가을이 되어 초가지붕을 덮는 시기가 되었다. 집집마다 지붕을 잇기 위해 줄을 내었고(꼬았고), 그 줄들은 지붕 이는 날(덮는 날)까지 이슬을 맞아 삼이 들라고 밖에 쌓아 두었다. 어느 날 밤이 이슥하여 공씨가 밖에 나가더니 줄뭉치를 들고 들어와서 방에 던졌다. 가족들은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곤히 자는 그를 두고 밭에 나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 그때까지 계속 자고 있었다. 한밤중이 되어 그는 밖으로 나갔다. 가족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돌아다니다 돌아오려니 생각하고 그의 눈치만을 살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 뒤, 동천진동 사람이 고기를 낚으러 배를 타고 섬머리, 속칭 「광대코지」 뒤에 이르렀다. 이상한 물체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배로 건져 올렸다. 사람의 시체인데 목과, 허리, 다리에 칡줄을 칭칭 동여매고 있었다. 동천진동 사람은 시신을 싣고 「영장 신는 개」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비양동에 사는 공씨여!" 누군가 아는체를 했다. 이 사실이 가족들에 연락되었고 가족들이 달려왔다.

"아이구! 이 양반아! 영 죽을 걸 사람괴기 먹읍데가……."

공씨 부인이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이래서 공씨가 인골을 핥아서 먹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혼이 있구만! 죽은 사람의 뼈를 먹어 부정타서 공씨가 죽었주!"하며 혀를 찼다.

□ 썩은 구미

비양동과 영일동의 경계에 있다. 예전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대개가 무동력이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난파되어 어부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우도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바다에서 죽은 시신이 많이 밀려들었다. 우도에서도 이 곳이 특히 심했다. 썩은 것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구미」는 북한어이며 바닷가가 길게 나와 휘어진 곳을 말한다.

□ 뱀 동 산

뱀이 많이 서식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40~50년까지만 해도 뱀이 많이 살았다. 474번지 부근에 있다.

□ 논 동 산

우도에서 유일한 논(畓)이 있었던 곳이며 높은 둔덕을 말한다. 지번으로는 557번지이며 1950년대 초반까지도 논농사를 지었다.

□ 구 진 물 통

비양동 242-2번지 부근에 있었다. 지금은 매립되어 아담한 꽃동산이 조성되었지만 가축용과 생활용수(음료수는 아님)로 사용했던 물통이다. 「구진물」은 「구정물」의 제주어이다.

□ 절 터

우도봉 동쪽에서 가장 가파른, 즉 단애(斷崖)의 상단 부분이다. 우도봉 푸른 잔디가 절벽의 검은 현무암과 직접 연결돼 있어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곳이다. 「절벽」이 와전되어 「절터」가 되었다. 20~30년전까지만 해도 이 곳에 소를 가두어 방목을 했다. 그 입구에는 「정낭」을 걸어두었던 구멍 뚫린 용석이 서 있다.

절(寺)이 있었던 장소라는 설이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다.

□ 푸는체 콜(串)

우도봉 정산이 「키」와 닮았다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조일리 산 27-1번지 부근이다. 「푸는체」는 「키」의 제주방언이다. 「검멀래」 상단 부분 우도봉 정상에 있다.

□ 몰그랑 판

비양동 242-2번지에 「몰그랑」(연자매)이 있었는데 연자매가 철거되면서 밑돌만이 남았다. 이것을 「몰그랑 판」이란 한다.

□ 망 동 산

안비양(飛陽島) 동쪽 3번지에 있다. 예전의 연대와 비슷하다. 4·3당시 해안으로 침투하는 공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설되었다.

□ 한 와 지

겨울이면 섬일수록 하늬바람이 세차게 몰아친다. 「한와지」는 안비양 북쪽에 있는데 비양도에서 하늬바람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즉 「하늬바람 코지」라 한다.

□ 광대크지(岬)

안비양 초입에 있는 바위의 현상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작고 큰 기암괴석들이 많이 있다. 그 형상들이 마치 광대들이 춤을 추는 듯 하다.

□ 동 · 서등머흘

「머흘」은 「자갈」의 제주어이다. 이곳은 사람의 등과 같이 평퍼짐하면서도 넓다. 돌이 많이 자생하며 자갈보다 조금 큰 돌들이 널려 있다. 동쪽에 있다 해서 「동등머흘」 서쪽은 「서등머흘」이다.

□ 꿀 정 여

「동등머흘」 끝 자락에 있는 「여」이다. 굴조개가 많은 데서 기인한다.

□ 불레낭 동산 · 불레낭 알

「불레낭」은 「보리수나무」의 사투리이다. 「불레낭」이 군락을 이룬 높은 곳이라 해서 「불레낭 동산」, 그 밑 바닷가라 해서 「불레낭 알」이다.

안비양 동남쪽 300미터 지점에 있다.

□ 주른바위

「주른」은 「짧다」의 제주방언이다. 안비양의 맨끝에 있어 비양도의 끝을 얘기한다. 예전에는 썰물일 때 「단물」이 솟아 목욕을 하기도 했다. 지금도 가물지만 않으면 단물이 조금씩 흐른다.

□ 산 물 통

주른바위 밑에서 「단물(생수)」이 솟아 올라 고이는 조그마한 「물통」을 이른다.

□ 버난지 개(浦)

자연적으로 원(垣)과 같이 생긴 곳인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차게 치고 나면 거센 물결에 뿌리째 뽑힌 미역이 파도에 밀려 보이는 곳이라 하여 「개」라고 하였다.

「버난지」는 「파도에 의해 뿌리째 뽑힌 미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먹뚤개(垣)

비양도로 내려가는 지점, 비양동 64번지에 위치한다. 「개」의 주변에는 「먹뚤(둥글며 단단하고 미끄러운 돌멩이)」들이 많다.

□ 안비양(飛陽島)

앞의 비양동을 참고했으면 한다.

동경 126°58′, 북위 33°29′에 위치한 총 0.06㎢로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평평한 작은 섬이다. 무인등대가 있고 4·3당시 망을 보았던 망루도 있다.

지금은 거의가 외지인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섬의 해안에서 채취하는 해산물은 우도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풍 개

안비양에 있는 「개」이름이다. 주위가 마치 병풍을 두른 듯 하다는 데서 기인하였다.

□ 셋 불 턱

해녀들이 바다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지피는 곳.

해녀탈의장이 「큰불턱」자리였고, 「셋불턱」과 「족은불턱」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있다.

□ 밀 물 개

「개(垣)」는 원래 밀물일 때는 담까지 물에 잠기고, 썰물일 때는 밑바닥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개는 바닷물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밀물이나 썰물이나 별 차이가 없다.

□ 장수발자국

안비양 남쪽 20m 지점, 비양동 15-1번지 부근 암반에 큰 발자국 형태의 흔적이 있다. 사람의 발자국이라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장수발자국」이라 명명했다.

□ 스 늘 바 위

안비양 초입에 있다. 앞의 「주룬바위」가 비양도의 끝이라면 이 바위는 시작이

다. 즉 「순번바위」라던 것이 와전되어 「스눕바위」가 되었다.

□ 모 살 동 산

안비양 입구, 비양동 610-1번지 모래 둔덕을 말한다.

□ 싱피왓 동산

비양동 627-1번지 부근 경작지는 토질이 단단하여 비가 오면 물이 제때에 빠지지 않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싱피」는 습기가 많은 화산회토 또는 흙의 제주어이다. 「왓」은 「밭」의 제주사투리.

□ 새 통 거 리

우도에 인구가 불어나자 용천수가 없는 관계로 식수가 모자랐다. 비양동 주민들은 식수와 가축용과 허드렛물을 구분하여 물통을 팠다. 즉 새로 팠다 해서 「새통」, 그 물통이 있는 거리라 해서 「새통거리」이다. 현재 농협창고가 있는 곳이다.

□ 낭 동 산

예전에는 비양동 580-3번지에 나무가 있었다 한다. 나무가 있었던 둔덕이므로 「낭=나무」동산이다.

□ 유백이 동산

예전에 유복이란 사람이 비양동에 살았다. 그는 목동이었는데 비양동 657-3번지 일대에서 소를 방목한 후 풀을 뜯게 하고 자신은 높은 곳에 드러누워 노래도 부르고 낮잠도 잤다. 이런 연유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유래 전승자는 그가 지금 호남지방에 생존해 있을 것이라 말한다.

□ 뒷 동 산

비양동의 앞이라면 「안비양」쪽이며, 뒷쪽은 「우도봉」쪽을 의미한다. 마을 뒤쪽에 있는 동산이라서 「뒷동산」이다.

□ 배 수

안비양과 우도와의 사이에 「도리선창」이 시설되기 이전에는 비양동에 포구가

없었다. 고깃배나 배를 정박시키려면 애로가 많은 주민들은 해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의 한쪽을 인력으로 입구를 만들고 포구로 이용하였다. 한쪽으로 바닷물을 들어오게 했다. '물을 받았다(配水)'는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 볼 락 통

「볼락」이란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안비양 1번지 해안에 있다.

□ 석 등 머 흠

안비양 「광대코지」 바로 밑에 둥근돌이 넓게 널려있는 곳이다. 돌들이 사람의 등과 같은 반석 위에 있다는 데서 「석등머흠」이라 했다.

□ 똥내민 여

「동쪽으로 길게 뻗어나온 여(嶼)」라는 데서 연유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를 짧게 부르다보니 「똥내민 여」가 되어 버렸다. 「석등머흠」 부근에 있다.

□ 졸락코지(岬)

「졸락」은 「노래미」의 제주방언이다. 안비양에 있는데 이곳에서 「졸락」이 많이 잡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요즈음에야 모두가 널낚시지만 20~30년전만 하더라도 곧게 뻗은 대나무로 만든 「참대(낚시대)」를 갖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고기를 낚던 기억이 선하다.

□ 들 물 드 루

안비양 「볼락통」 부근이다. 물 흐름이 워낙 강해서 노를 젓고는 배가 물 흐름을 거슬러가지 못한다. 「들물」은 「밀물」의 방언, 「드루」역시 「마루」의 제주어이다. 쉽게 말해서 물흐름이 센 턱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들북돌 알

금비(金肥)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변에 밀려온 해초를 모아 말린 후 경작지에 뿌려 거름으로 이용했다. 「안비양(비양도)」에는 거름용 해초들이 파도에 의해 많이 밀려왔다. 우도에는 특히 「실겡이」란 해초를 채취 거름으로 이용했지만 파도에 의해 해변으로 밀려오는 해초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를 통틀어 「들

북」이라 하는데 「듭북」을 잔디밭이나 길가에 말려서 쌓아 두었다가 거름을 줄 시기가 되면 내다가 밭에 뿌린다. 이때 「듭북」을 쌓은 것을 「눌」이라 하는데 「눌」은 「노적가리」를 뜻한다. 「듭북」은 「모자반」의 방언이다.

「듭북」을 말릴 때는 전 주민이 나서서 바람막이 될 장소를 찾아 각자가 「듭북」을 쌓기 때문에 「눌」이 수십 개가 된다. 「듭북눌」이 있는 아래쪽 해변을 「알」이라 한다.

[변괴통

예로부터 이곳에는 비양동 주민들이 음료수로 이용하는 조그마한 물통이 있었다. 여름이면 비양동 주민들은 「상피병」에 걸려 고역을 치러야 했다. 이런 현상은 한두 해가 아니었다. 해방 직후에도 우도의 다른 동은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비양동만 장질부사가 창궐했다. 이상히 여긴 주민들이 풍수사를 찾아갔다.

「변괴로다! 이 물이 변괴통이오.」

동네를 한바퀴 돌아본 지관(地官)은 이 물통을 매립하도록 했다. 그후 비양동에만 발생했던 변고는 사라졌다. 그래서 그 물통을 「변괴통」이라 했다.

지금 버스정류소 부근이다.

] 멀뚝이 동산

안비양 「주른바위」 가기 전 「먹돌」이 많이 쌓여 동산을 이룬 곳이 있다. 이곳을 「멀뚝이 동산」이라 하는데 「먹들동산」이 와전된 것이다.

] 돈지 할망당

「드리선창」 지나 「안비양」 입구 오른쪽에 있다. 비양동 사람들이 일년의 안녕을 빌고 바다에 나갈 때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곳이다. 「돈지」라 함은, 비양동에서 해를 부리는 사람들이 음력 2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로 돼지고기(머리)만을 올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다.

] 드리선창

비양동과 안비양을 연결하는 다리를 말한다. 「드리」는 「다리」의 방언이다.

60여년 전 그러니 해방 전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안비양(비양도)은 대개가 농

경지였다. 비양동 사람들은 테우(떼배)를 이용해 이곳에 드나들며 농사를 지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그뿐이 아니다. 비양동과 안비양의 거리는 120여 미터, 육지와 육지 사이의 물흐름은 거칠고 매서웠다. 썰물일 때도 물굽이는 허리를 넘었다. 토지가 척박하고 협소했던 비양동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심사숙고 끝에 '다리를 놓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가가호호에서 현금과 곡식을 모아 제주읍내 거주하는 공사관 십장 출신인 최남선이란 사람에게 공사를 의뢰했다.

그는 이론가도 숙련된 토목기사도 아니었다. 바다물막이 공사라는 것이 일반 매립공사와는 판이했다. 몇번 실패하다 보니 공사기간은 길어지고 자재와 인부는 계획량의 배가 투입되었다. 다리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임금을 제대로 지불치 못해 그는 뭇매를 맞아 그 후유증으로 몇년 후 사망했다.

그러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59년 9월 16일 불어닥친 사라호 태풍은 비양동 사람들의 염원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두리선창」이 무너진 것이다. 이를 복구하는데 안비양(비양도) 바다 입어권을 2년 동안 포기해야 했다.

ㄱ 안 고 팡

「수눌바위」 옆에 있다. 생긴 모양이 초가집의 「고팡(곡간)」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ㄷ 물 코

비양동과 하고수동의 경계에 있다.

야트막한 골짜기이다. 비가 심하게 오면 이곳을 향해 지표수(地表水)가 바다로 흘러든다. 물이 많이 모여 흐르는 「목」이라 해서 유래되었다.

ㄱ 영일동(迎日洞)

1970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후해동(後海洞)이었다.

이곳은 1844년(憲宗 10년) 김석린(金錫麟)진사가 정착하면서 자신이 주거지를 정하고 이웃하여 타인들이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진

사의 집 동쪽에 마을을 형성해 살았다.

이것이 「뒷바당」이다. 이 마을은 위치가 「섬머리(島頭峰)」 동쪽 바다에 인접하여, 또는 김진사집 뒤쪽에 위치했다 하여 「뒤바당」이라 불리우게 되었고 후에 한문식 표기를 하면서 「後海洞」으로 변경되었다.

영일동으로 개명된 것은 1970년으로 마을에 자주 일어나는 흉사(凶事)도 흉사이려니와 이웃 마을과 무슨 경주를 해도 패하기만 하고 이기는 때가 없었다. 마을 유자들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알아본 결과 마을 이름 때문이라는 데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맞을 영(迎)', '날일(日)자'를 사용 '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그후부터 영일동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 진사(進士) 터

「섬머리(島頭峰)」 서북쪽 광장을 말한다. 우도 개척자인 김진사가 거주하였던 곳으로 우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집터로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집이 한 채도 없다.

김진사는 집주위에 버드나무를 심고 호화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것을 싫어했다 한다. 이런 탓에 우도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뒷바당」이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 그는 노비들을 자신의 집 주위에 살게 하면서 물통을 파 노비들로 마시게 하였으나, 자신은 집안에 작은 우물을 파서 사용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사터에는 전해오는 얘기만 무성할 뿐이다.

□ 툰 밭 집

김진사는 우도에 경작허가를 받고 이주해 올 당시부터 자신의 집 주위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용납치 않았다. 주민들은 김진사의 집터를 「툰밭집」이라 불렀고 집이 있는 근처를 「툰밭」이라 했다. 「툰밭」은 「다른 밭들과 떨어져 있는 밭」을 뜻하는 방언이다.

김진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위에 사람이 사는 것을 조금씩 허락해 작은 규모지만 마을이 형성되었다.

1957년 김오생 씨 가족이 살다가 이주한 후 「툰밭집」은 폐가가 되었고 다른 주민들은 후해동을 비롯 다른 동으로 분산 이주하였다.

□ 진사(進士)통

김진사가 우도에 입도, 기경과 동시에 노비들을 시켜 파놓아 사용해 오는 음료수이다. 지금도 영일동에 있어 과거의 영광을 말해주는 듯 하다. 김진사는 이 물통을 파서 자신의 집 주위에 거주 허가를 받은 노비들과 「뒷바당」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자신은 집안의 우물을 별도로 파서 사용하였다.

□ 용(龍)의 자리

영일동 남쪽에 섬머리(島頭峰)가 있다. 뒷쪽에 있는 봉우리를 「족은 섬머리」라 하는데, 「족은 섬머리」에 폭우가 몰아칠 때 산사태에 의해서 무너진 곳이 있다. 주민들은 이를 용의 꼬리가 쳐버린 곳이라 하여 「용의 자리」라 한다. 영일동 거주지역에서의 이곳은 보기가 매우 흉하다. 이 때문에 액운(厄運)이 닥친다 하여 나무를 심어 가려 버렸더니 흉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한다.

□ 까 막 동 산

영일동 「보살개」 포구 앞에 있는 방사탑을 말한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던 지관(地官)이 이곳이 너무 터져서 허(虛)하다며 받쳐줄 탑이 있어야 하겠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곳에 수·암탑을 세웠다 한다. (이외의 설명은 다른 동의 지명유래를 참고했으면 한다.)

□ 쪽제비동산

방사탑(까막동산)이 있는 부근을 말한다. 풍수지리상 지형이 쪽제비 형이라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 도체비 동산

「쪽제비 동산」 옆에 있는 동산을 말한다. 「도체비」는 「도깨비」의 제주어인데 밤이되면 이곳에 「도깨비불」이 자주 나타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깨비불」이란 밤에 무덤이나, 축축한 땅, 고목(古木) 등에서 인(燐)의 작용에 의해 번쩍이는 푸른 불빛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사람이 많이 죽은 곳이나 으슥한 곳에 잘 나타난다 하여 비가 오는 날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이런 곳에 가기를 꺼려했다. 「도깨비불」이 날아다닌다는 일화도 있다.

□ 보섭 봉우지

영일동과 동천진동의 경계이다. 「보섭」은 「쟁기날 : 보습」의 제주방언이다. 「봉우지」는 「봉우리」의 방언. 우도봉 중간 자락에 조그마한 산봉우리를 「보습」과 같다 하여 붙여졌다.

□ 가 메 혹

「가마」+「혹」의 합성어이다. 우도 등대 남쪽 100미터 지점에 「가마솥」을 부뚜막에 올려놓은 형태로 「혹」 같이 툭 튀어나온 지점을 이른다. 「가메」는 「가마솥」을 뜻한다.

□ 선 돌

우도봉 아래 30미터 지점에 바닷물에서 70미터 정도의 거대한 돌이 돌출되어 있다. 이 돌이 우뚝하게 서 있다 해서 「선돌」이라 한다.

□ 검 멀 래

「검은 코꼬망」 밑에 질펀하게 펼쳐진 검은 모래사장을 말한다. 여름이면 모래찜질을 하는 인파와 관광객으로 붐빈다. 최근에 도로에서 「검멀래」로 진입하는 계단이 시설되었다.

「검」은 「검다」준말, 「멀래」는 「모래」가 와전되었다.

□ 검은 코꼬망, 붉은 코꼬망

영일동 「검멀래」에 소의 콧구멍과 닮았다 해서 불여진 수중동굴이 있다. 밀물 때는 동굴의 윗부분만 보이지만 물이 빠지면 굴이 나타난다. 이것이 「검은코꼬망」이다. 이 곳을 지나면 또 굴이 있다. 그러니까 이중 굴인 셈이다. 이 굴은 벌경게 이끼가 덮여 있다. 사람 2,000여명 쯤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굴이다.

해식동굴인 이곳에는 예전에 고래가 살았다는 얘기가 있다. 동굴내부가 온통 붉다하여 「붉은코꼬망」이다.

우도 8경중 하나로 동안경굴(東岸鯨窟)이라 한다.

□ 서 우 통

「선돌」과 「우도봉」 중간에 위치한다. 유래 전승자에 의하면 「서우」는 「두릅상어」의 방언이라 한다. 「두릅상어」가 그곳에서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그곳이 상어의 서식지로 알고 「서우통」이라 붙였다 한다.

□ 김 빌레

「김」이 많이 자생하는 넓적한 암초를 말한다. 「빌레」는 땅 또는 지면이나 바다 속에 넓적하게 문혀진 돌을 말한다.

□ 돌렝이 바위

「돌렝이」는 제주어로 「조그마한 바구니」를 뜻한다. 바위가 「돌렝이」와 같다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서우통에서 100여 미터 북쪽에 위치한다.

□ 옷안는 여

「가마우지(물오리의 일종)」가 많이 앉기 때문이다. 「김 빌레」 북쪽 150여미터 지점에 있다.

□ 너 런 지

「너레기」는 「넓이」의 제주방언이다. 「너런」은 표준어 「넓다」에 해당된다. 「지(地)」는 땅을 뜻한다. 「너런지」는 「넓은 땅」을 의미한다.

이곳은 영일동의 제1종공동어장이다. 바다밑이 평평하고 얕으면서도 고기 먹이가 많아 소라, 전복이 많이 자생한다. 해녀들의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기도 한다.

□ 온 여 콕

큰 물통같이 생겼다. 만조시 고기들이 몰려들었다가 썰물이면 고기들이 갇힌다. 즉 「멜개(垣)」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개」는 아니다. 고기가 밀물에 「올라와(올려)」 「갇히다(목)」는 뜻이다. 「김 빌레」 북쪽 100여미터 지점에 있다. 「올려」가 와전되어 「온여」가 되었다.

ㄱ 청석빌레

「온여목」 북쪽 약 200미터 지점 수중에 있는 넓적한 암반이다. 암반이 늘 청색을 띠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ㅁ 복갈라진 여

얼핏 보기에는 한 덩어리의 암초인데 가까이 가 보면 가운데로 갈라져 있다. 제주에서는 암초를 「여(嶼)」라 하는 데 「여」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청석빌레에서 북쪽으로 70여미터 지점에 있다.

ㄱ 젤 반 여

여가 「쟁반」같이 동그랗고 예쁘게 생겼다 해서 붙여진 지명인데 「복갈라진 여」가 이 「여」의 남쪽 100여미터 지점에 있다.

ㄴ 너 른 구 미

「너른」은 「넓음」을 뜻한다. 「구미」는 해안에서 바다로 길게 뻗으면서도 휘어진 곳. 영일동 143번지 해안에서 바다로 길게 뻗은 코지(岬)가 있는데 그 내부가 넓다는 데서 연유했다.

ㄴ 나 른 여

「너른구미」에서 북쪽으로 100여미터 지점에 있는 작은 「여」이다. 「나른」은 「남다」의 뜻이다. 이곳의 선인들은 해안의 지명을 명명하다 그 암초만 남아 있었다 해서 「날은 여」로 지칭한 것 같다.

ㅅ 산 바 우

「산」+「바우」의 합성어이다. 산의 한쪽 면을 말한다. 「검멀레」 상단부분이 깍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이다. 지변에서 낭떠러지가 시작되는 지점을 말하는데 「바우」는 「언저리」의 제주말이다.

ㅈ 질 메 턱

우도봉 중간지점이다. 소에게 짐을 싣기 위해 소등에 얹는 안장처럼 생긴 도구, 길마를 올려놓은 턱이라 해서 유래되었다. 우도봉을 소가 누워있는 형국으로

여겼던 이곳 선인들의 안목이 놀라웁다.

ㄱ 망 동 산

우도에는 망동산이 두 곳이 있다. 망동산은 우도봉 산 6-3번지에 있는 연대와 같이 둘로 쌓아올린 곳을 말한다. 4·3사건 당시 공비의 출몰을 감시했던 곳이다.

ㄱ 쇠시께 터

「시께」는 「제사(祭祀)」다. 우도봉 능선(등대옆)에 위치한 「진빌레(긴반석)」를 말한다. 주민들이 소의 번식과 무병, 테우리(목동)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음력 7월 14일 밤(백중날) 「소제사」를 지냈던 장소이다.

ㄱ 구린질 목

영일동 270 - 5번지 일대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구진 것」(도깨비, 헛것) 등이 많이 나타났다 해서 유래된 지명이다. 「구진」은 「좋지 않은, 나쁨」의 제주어이다. 「구진」이 세월이 지나면서 「구린」으로 와전되었고 「질」은 「길」을 뜻한다.

ㄱ 섬 머 리

우도봉 정상이다. 「섬의 머리」, 즉 「쇠머리」이다.

이곳은 표고 132.5미터이고 등대와 삼각점이 있다. 남면과 남동면은 100여 미터에 가까운 단애를 이루어 절정을 자아낸다. 북서면은 분화구가 넓게 이어져 완만하고 길게 꼬리를 내려 바다에 잠긴다. 그것이 전흘동 「세비코지」이다.

우도봉(쇠머리)은 섬머리, 이곳에서 시작되어 전흘동 바다끝에서 끝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ㄱ 망 동 산

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섬머리(島頭)」인데 「큰섬머리」 「작은섬머리」가 있다. 「큰섬머리」를 「망동산」이라 한다. 이 곳에 올라서면 우도 전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성산읍, 구좌읍 일대가 훤히 보인다.

예전에 왜구의 침입이 있을 때는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 밤이면 봉화불을 올려

성산읍의 수산봉(水山峯)과 구좌읍의 지미봉(地尾峯)으로 연락이 되었다 한다.

로일(露日)전쟁 당시에는 일본군 망루병이 러시아 함대가 대한해협을 침범하는 것을 포착 격파했다는 설이 있다.

조일리 산19-1번지이다.

제4절 天 津 里

□ 천진리(天津里)

천진동(天津洞)이었다. 1915년경 인구의 증가로 동·서로 나뉘어졌고, 1986년 4월 1일 구좌읍 연평출장소가 우도면으로 승격되면서 동·서 천진동을 합병 천진리가 되었다.

원래는 「한나루」였다. 천진동은 한(큰)+나루(津)의 잘못된 한자 표기이다. 즉 「대진(大津)」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한나루」를 「하늘 나라」, 「하늘이」로 잘못 풀이하여 한자식으로 동명을 개칭하면서 「천진동(天津洞)」이 되었다.

현재 우도의 관문이며 우도 최대의 포구인 우도항이 있는 곳이다.

□ 드렁코지(岬)

우도와 본도 사이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곳이다. 즉 구좌읍 종달리 두문 포구 옆 돌출 부분인 「만서코지」와 「드렁코지」는 3킬로 미터 남짓이다. 종달리 포구에서 떼배(테우)를 이용 우도를 향하여 배를 띄웠는데 마침 하늬바람이 세차게 불어 노를 놓고 떼배가 흐르는 대로 닿은 곳이 「드렁코지」이다. 이후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이용해 드나들었다 한다. 즉 「들어온 코지」가 「드렁코지」로 변하였다. 음력 2월 15일(보름날) 영등굿의 환송제도 여기서 지낸다.

'한라산 뻐어나서 「월랑쉬(月朗峯 : 구좌읍 세화리 소재)」 오름 줄기로 하여 「무주봉(無住峯 : 구좌읍 월정리 연대가 있었던 자리)」에서 「만서줄기」, 소섬 「드렁코지」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嶼)로 이어지고 있다'고 「드렁코지」의 지세를 이렇게 설명 유래되고 있다. 이 말은 한라산에서 우도의 「드렁코지」까지 지맥이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 보섭 봉오지

동천진동 동해안에 바다쪽으로 보섭과 같이 길쭉하게 뻗어나간 곳을 「보섭봉오지」라 한다.

「보섭」은 땅을 갈아 일으키는데 쓰이는 쇠로써, 쟁기날을 말한다. 「봉오지」는 「산봉우리」의 제주어. 지형이 「보습」과 닮았다 하여 유래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초 미군 비행기의 오폭이었는지 몰라도 이곳을 포격 앞 코지(岬)를 파괴하였다.

□ 포제(酺祭) 동산

1870년경 서광리 포제동산에서 포제가 각 동별로 분리된 후 일제에 의해 포제가 폐지될 때까지 마을제가 올려졌던 곳이다. 천진리 1922번지에 있으며 최근 천진리가 민속마을로 지정되면서 정월 정해일에 포제가 재개되고 있다.

□ 돈 지 당

천진동 포구(우도항) 가까이에 있는 당이다. 어부와 해녀들이 음력 2월 보름에 이당에서 제사를 크게 지냈다. 일명 「하늘이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제사를 지낼때 제수(祭需)로 돼지고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돈지당」이라고 명명되었다 하나 확실치 않다.

예전 천진동 주민들이 이 당에 제를 지내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많은 재앙을 당했다. 이 때문에 다시 제를 올리게 되었다 한다. 이곳 주민들이 이 「당」을 신성시 했던 것은 「하늘이 포구」를 통해 시체를 실어내거나 실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시체 입·출도는 「돈지당」에 부정이 탄다 해서 「샛게(新浦)」를 이용하게 했다. 여기를 「영장 사끄는(싣는) 봉오지(봉우리)라 한다.

□ 계우(繫牛) 모루

맬계(繫), 소우(牛), 한문자를 그대로 풀면 「소를 맨다」이다. 「모루」는 「마루 또는 산마루」. 소를 매어 풀을 먹이는 마루이다.

이곳은 「포제봉산」, 「광동산」이라고도 한다.

지금도 이곳에 올라 보면 예전에 여러 용도로 이용되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또 「게우바루」, 「쇠맨물렝이」 라고도 한다. 「바루」는 「ᄆᆞ루」의 와전인 것 같고, 「쇠맨물렝이」는 쇠+매다+물렝이(제주어의 ᄆᆞ루와 같다)의 합성어이다.

ㄱ 양 벵 방 통

서천진동 1541번지에 있다. 선사시대 우도는 진상용 말을 기르는 목장이었다. 「벵방」이란 「梁兵防」으로서 목자들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입도한 양씨 성을 가진 무반(武班)이 이 섬에 물이 귀함을 알고, 목동들을 동원하여 물통을 팠다는 것이다. 이 물은 「테우리(목동)」들의 식수로도 사용되었지만 말들의 음료수로 사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한다. 즉 우도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양 병방」이 처음 판 물통이란 것이다.

또 「梁 벵방」이란 사람은 「넙미역」을 캐는 기구를 처음 만들어 낸 인물이라고도 한다. 우도면 서광리 앞바다는 「넙미역」 자생지이다. 칼구리가 달린 연장을 「넙미역」이 있는 곳에 넣고 들리고 있으면 바닥밑의 「넙미역」이 칼구리에 감겨 올라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용했던 기구와 흡사한 채취기를 발명한 사람이기도 하다.

ㄱ 톨 까 니

「촐까니」라고도 한다. 「촐」은 「꼴」 또 「건초(乾草)」이다. 마소에게 먹이는 풀따위를 이른다. 우도에서는 「구시(가마)」, 「구유」를 「까니」라 불렀다 한다. 우도의 선인들은 우도 명칭이 말해 주듯 우도는 소가 누워있는 형국,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식산봉(食山峯)을 「촐눌(건초를 쌓아 올린 더미, 또는 가리라고 함)」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촐눌」과 소 사이에는 「소먹이 통」이 있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이곳이다. 「톨까니」는 「촐까니」가 와전되었다.

즉 소의 「여물통」이다. 「광대코지」 밑에 있다.

ㄱ 광대코지(岬)

우도의 지형을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한다. 이는 대부분 농토가 평야로 형성되어 있는데 섬의 동쪽만이 높은 오름(기생화산)이다. 이 오름을 속칭 「섬머

리」라 하는데, 이는 섬 전체를 누운소(臥牛)로 볼 땐 소의 머리요, 이곳은 소의 얼굴로 볼 수 있는 곳이라 한다. 즉 소 얼굴의 뼈가 툭 튀어 나온 부분을 「광대뼈」라 해 「광대코지」로 명명되었다. 섬의 동남단 바다로 돌출한 곳이다.

「광대코지」 밑에 「코꼬망」이 있다.

□ 접 새 왓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이전만 하더라도 우도 대개의 가옥은 초가집이었다. 제주의 초가는 지붕을 띠(새)로 덮고 띠로 만든 줄을 갖고 동여 매였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서천진동은 고(高)씨 집성촌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저수지 자리에는 새(띠)가 잘 자랐다. 이곳은 고씨 문중의 새(띠) 집단 채취지였다. 「접」은 「겹」의 제주어이며, 「왓」은 「밭」을 뜻한다. 지금의 각종 작목반(作目班)을 연상하면 되겠다. 새를 공동으로 베는 장소를 말한다.

□ 쇠 통 밧

농한기가 되면 들에서 소들을 방목한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바람이 불면 소들은 의지할 곳을 찾아 한곳으로 모인다. 천진리에는 바로 그런 밭이 있다. 「섬머리」의 경사와 움푹 패인 지형이 바람막이가 되는 곳이다. 소들이 많이 모이는 「밭」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동천진동 「서낭당」 아래쪽에 있다.

□ 해 군 성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해군 일개 중대가 우도에 주둔했었다. 서천진동 1546-3번지에 그 막사가 있었다. 지금은 철거되어 경작지가 되었다.

□ 말 왓

서천진동 산 30번지 일대 「밭」들은 대개 직·정사각형이다. 말(斗)과 같다 하여 불여진 지명이다.

□ 벨랑 하늘이

동천진동과 서천진동 사이의 촌락이다. 예전에는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지 않았다. 거주민들은 대개 양(梁)씨이다. 「드렁코지」로 사람이 입도하면서 이곳에 정

착했으나 거주 여건이 '별로'여서 지금의 천진동에 모여 살고 있다. 천진동의 옛 지명앞에 '벨랑(별로)'이란 부사를 붙여 명명되었다는 유래이다.

□ 각 시 물 통

우도에는 예나 지금이나 물이 귀하기로 유명하다. 동천진동 사람들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도 정상에서 가름하여 물이 나올만한 곳을 골라 땅을 파고 곱게 석축까지 쌓았으나 물이 나오기는커녕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았다. 이를 고민하던 주민들은 지관(地官)을 불러 이유를 물었다. 지관 왈 "각시를 데려와야 할 것 같소"하는 것이다. 이곳의 지형은 남자와 같아 여자 없이 자식(물)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느냐고 호통이다. 그것도 서쪽의 어두운 곳의 '색시물'을 모셔와야 한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은 수소문 끝에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사이에 있는 '서느렝이 굴' 속에 솟는 생수를 발견 정성껏 제(祭)를 지내고 새각시를 모셔오듯 물을 항아리에 담고 가마를 이용 길러다 물통에 부었다. 아니나 다를까 메말랐던 흙속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더니 물이 솟았다.

이런 연유로 해서 「각시물통」이란 지명이 탄생되었다. 우도의 음료수는 대개가 용천수를 모아 사용했다. 「각시물통」도 예외는 아니지만 물맛이 다른 물과 비교해선 좋고 벌레들이 모이지 않아 깨끗했다고 한다. 동천진동 서낭당 부근에 있다.

□ 박 서 방 통

「박서방통」 옆에 박(朴)훈장이 살았다. 박훈장이 살면서 서당(書堂)을 운영했는데 학동들이 사용할 물이 없자 이곳에 물을 팠다고 전해진다. 100여년 전 일이었다. 유래 전승자에 의하면 박훈장은 우도에 처음으로 문명을 전파한 사람이라 한다.

당초는 박훈장이 운영하는 서당 앞에 있다 해서 「박서당통」이었는데 부르기 쉽게 「박서방통」이 되었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박훈장의 묘가 있어 이를 증명했다. 우도에 일찍이 교육이 발전한 것도 박훈장 때문이며 그의 제자들이 자라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한다.

□ 쪽제비통

성천동 2640번지에 있다. 족제비가 물통 근처에 많이 서식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물통에 족제비가 빠져 헤엄치는 광경을 보기도 했다.

□ 봉만이 오름

천진동에서 우도봉 정상으로 오르는 중턱 남서쪽에 야트막한 동산(오름)이 있다. 봉만이란 사람이 소유였다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불여진 지명이다.

□ 모기왓 동산

우도봉 등대로 오르는 길목에 음푹 패인 습지가 있다. 습기가 많으므로 자연히 모기가 서식하기 마련이다. 모기가 많다하여 「모기왓 동산」이다. 「왓」은 「밭」의 방언이다.

□ 생이집 동산

서천진동에 있다. 상여 기구를 보관하는 초막이 있었던 동산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일명 「상여집 동산」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참새들이 초가집 처마에 집을 짓고 살게 마련이다. 이렇게 해서 「생이집 동산」이라고 불리웠다. 「생이」는 「참새」의 제주어이다. 「상여집」이 「생이집」으로 와전되었다고도 한다.

□ 광고판 동산

서천진동 마을 중앙에 있는 동산을 이른다. 지대가 높고 많은 사람이 지나다닌다.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이곳에 광고판(廣告板)을 설치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을 붙였다 한다. 동산 앞은 네거리인데 사람이 자주 모인다.

□ 비 석 거 리

우도항에서 섬의 중심부로 들어서는 길목에 영일동, 동천진동, 서광리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곳을 「조회(朝會)동산」이라 했다. 거기에 유공 경찰관 비석이 건립되자 「비석거리」로 개칭되었다. 「비석거리」는 최근에 생긴 지명이다.

ㄱ 족은 모살냇끼

서빈백사(西濱白沙)의 남쪽 면적이 좁은 곳을 얘기한다. 서빈백사는 두 「모살냇끼」로 구분되는데, 넓은 곳은 「큰 모살냇끼」로 상우목동 지역이고 「족은 모살냇끼」는 서천진동에 속한다.

ㄱ 개　　창

옛 「하늘이 개(浦口)」 안에 있었다. 「개」는 「포구」를 뜻하고 「창(窓)」은 입구를 말한다. 즉 포구의 출입구이다. 지금은 매립되어 선착장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ㄷ 닷 맘 여

지금도 우도항 입구에 있다. 배의 닻을 고정시키는 여(嶼)로 이용됐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ㄱ 선 반 층

「톨까니」는 「섬머리」 밀바닥을 얘기하고 「선반층」은 「섬머리」에서 바다로 내려 깎은 듯한 단애를 이른다. 이 단애에 지층이 선반(懸盤)과 같이 생겼다 해서 「선반층」이다.

ㅇ 안 톨까니

「광대코지」는 소의 얼굴이다. 「톨까니」를 「박 톨까니」라 하고 「광대코지」 밑에 있는 「콧구멍」 안에 위치한 곳을 「안 톨까니」라 한다.

ㄱ 코 고 망

「광대코지」 밑부분으로 사람의 코와 같이 툭 솟아나온 바위밑에 구멍이 있다. 이것을 소의 「콧구멍」으로 생각해 「코고망」이라 했다. 「고망」은 「구멍」의 사투리이다.

ㄷ 돌 그린안

우도팔경중 하나인 주간명월(晝間明月)을 말한다. 「코고망」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이 물위에 반사되어 암벽 천정에 동그란 달이 뜬다. 이를 '달이 그려진 안쪽'이라 해서 「돌 그린안」이라 한다. 11월 20일을 전후한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주

간명월을 볼 수 있다.

일명 태음지굴(太陰之窟)이라고도 한다.

□ 쌀 마 진 개

우도의 낚시터 중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다. 「멜개(垣)」안 바위에 벼락이 내려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고정된 도깨비 불 또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해치는 악독한 기운을 제주에서는 「쌀」이라 한다. 살(煞)의 된소리라 이해하면 되겠다. 여기서는 「벼락」을 「쌀」로 표현했다. 「벼락 맞은 개(垣)」가 「쌀 맞은 개」이다.

예전에는 「멜개」였다.

□ 세 우 똥

「톨까니」 앞쪽에 있다. 그 옆으로 「볼락」이란 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여 「볼락여」, 「자리(자돔)」가 서식한다 하여 「자리여」가 있다. 새우는 「볼락」의 먹이이다. 「볼락」이 먹이를 찾아 모일 수밖에.

□ 툰 여

「동천진동 포구」, 지금의 우도항에서 따로 떨어져 있다 해서 「툰여」이다. 「툰」은 「딴」의 사투리이다.

□ 등 더 흘

우도항에서 「섬머리」 동쪽으로 방조제가 시설되어 있다. 이 위에 올라서면 등글고 작은 돌들이 쫙 깔려 있는 해안을 보게 된다. 여기가 바로 「등더흘」이다. 「등」은 사람의 등과 같이 넙적하다는 뜻이고 「더흘」 또는 「더들」이라고 하는데 제주어로 「자갈」 혹은 작은 돌들을 말한다.

□ 돌 렁 머 리

「등더흘」에서 동쪽으로 20~30미터 가면 넓은 「빌레(암반)」를 만난다. 이 앞에 또 하나의 「볼락」 여가 있다. 썰물일 때는 바지가랭이를 걷으면 옷을 젖지 않고도 「볼락여」에 갈 수 있다. 이 암반과 「볼락여」 사이는 물이 '들락날락' 하므

로 각종 고기가 많이 서식한다.

물이 들고나는 「목」이라서 「들렁머리」이다.

□ 동개(東垣)

「들렁머리」 안에 100여 평이 되는 원(垣) 모양과 같은 평지가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도 멸치를 잡았다. 동쪽에 있는 「원(垣)」이라 해서 「동개」이다.

□ 말 여

「동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嶼)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막내여」로 이해하면 되겠다.

□ 포 래 여

우도항과 서빈백사 사이에 위치한다. 지금도 이 여(嶼)에는 파래(푸른 빛을 한 해초, 국 재료로 사용한다.)가 많이 자생함에 따라 유래되었다.

□ 물 코 알

동천진동과 상우목동의 경계선이다. 이곳은 지형이 작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 비가 오면 지표수가 이곳으로 모여 흙탕물이 개천을 이룬다. 물이 한데 모여 흐르는 곳이 아래쪽이다.

□ 진 여

서천진동 2571번지 해안에 길게 뻗은 여(嶼)가 있다. 암반이 길게 바닷물 속에 있다 하여 「진여」이다.

□ 새원(新垣)

새로난 「멜개」라 해서 '새신(新)' '담원(垣)' 자를 사용 「새원」이라 했다. 서천진동 2630번지 해안에 있다.

□ 코 난 돌

서천진동 2571번지 해안에 사람의 코와 같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이 있다. 이를 코같이 나왔다 해서 「코난돌」이다.

□ 불래낭 덕

보리수 나무가 자생하는 곳에 해녀들이 물속에서 언 몸을 녹이는 「불턱」이 있다혀서 「불래낭 덕」이다. 「불래낭」은 「보리수 나무」의 사투리이다.

□ 검 여

「검」은 「경계」의 방언이다. 서천진동과 상우목동의 경계에 있는 여(嶼)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팔 굽 은 여

서천징동 포구(똥내미 구석) 선착장 북쪽에 위치한다. 사람의 팔과 같이 굽었다 해서 유래된 지명이다.

□ 족은 납대기여

서천진동 남쪽에 있다. 작으면서도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풍돌」 앞에 있다.

□ 평 풍 돌

「드렁코지」 옆에 병풍같이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다.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이 돌은 작은 단애를 연상한다.

□ 고 둠 여

자그마한 여(嶼)가 촘촘히 네 개가 늘어서 있다 해서 「좋인여」라 하는데 암초밖에 있다. 물속에 잠겨있는 수중 여(嶼)인데 소라가 많이 서식한다. 물이 센 곳으로 유명하다. 이 여는 종달리 앞바다까지 연결되어 있다.

□ 비 께 통

「납대기 여」 가운데 물통과 같이 움푹 패인 곳이 있다. 이곳에는 「비께(두툽상어)」가 많이 서식하며 산란기에는 새끼를 낳기도 한다. 30~40년 전만 해도 장정들이 이곳에서 「비께」를 맨손으로 잡기도 했다.

「비께」를 잡을 때는 큼직한 하얀 수건을 막대기에 칭칭 감아서 「비께」 앞에 내밀면 「비께」가 이를 물고 놓지를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자맥질을 하여 「비께」를

안아올렸다.

어느날 해녀가 이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비께」에게 유방을 물렸다. 「낫」과 「비창」으로 「비께」의 눈과 얼굴부위를 아무리 쑤셔도 놓지 않자 해녀는 「비께」를 안고 해안에 올라와 날카로운 막대기로 「비께」의 항문을 통해 척추에 자극을 주어 「비께」의 입을 열어 해녀가 살아났다는 일화가 있다.

□ 흑 툼 알

「물코알」 바닷가이다. 비가 쏟아지면 육지에 있던 먼지와 흙이 물에 씻겨 바다로 유입된다. 이렇게 되면 바닷물은 흙탕물로 변한다. 이런 뜻에서 유래되었다.

□ 영장 봉오지

도외(島外)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어로작업중 재해를 당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실어오고, 도내(島內)에서 죽은 사람이 본도로 나갈 때 이용하던 곳이다. 우도항 서쪽에 위치한다. 「돈지당」의 지명유래를 참고했으면 한다

「샛개(新浦口)」라고도 한다.

□ 개 올 래

여기서 「개」는 「포구」를 말한다. 「올래」는 큰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작은 골목 즉, 입구이다. 다시 말해서 포구로 들어오는 길목을 얘기한다.

□ 바 당 여

암초(여)들은 대개가 해안 가까이에 분포돼 있다. 그러나 이 여(嶼)는 멀리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천진동 앞바다에서 멀리 보이는 여이다.

□ 쎌 지 디 여

실과 같이 가늘고 길게 늘어져 있다 해서 명명되었다.

□ 진 개 강 알

「강알」은 사람의 양쪽다리 사이, 사타구니를 말한다. 「넘대기여」, 「족은 넘대기여」가 있는 해안의 사람이 두 다리를 벌려 앉은 형국이다. 또한 썰물이면 이곳

에 긴 개(垣)와 같다 하여 「진(長)개강알」이라 했다. 즉 진+개+강알의 합성어이다.

ㄱ 서 낭 당

「각시불통」에서 서쪽으로 5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동천진동 사람들이 가정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다. 이 지명유래를 쓰기 위해 현장을 답사할 때에도 고목의 허리에는 울긋불긋한 색종이들이 걸려 있었고 어느 아낙이 피웠던 양초인지 성냥불을 그어 대면 금방이라도 불꽃을 피워 올릴 것 같은 양초가 오두마니 놓여 있었다.

□ 由來傳承者

禹奉水(78세) 鄭贊景(77세) 禹奉浩(75세)
申仁弘(74세) 禹柱勳(68세) 吳永敦(67세)
韓斗京(64세) 金準澤(60세) 高豪秀(58세)

이상 여러 어르신네들과 우도면 노인회 회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 참고문헌

현용준, 제주도傳說(서문문고 220), 서문당, 1977.
康大元, 舊左面誌, 韓一文化社, 1979.
夫英性, 舊左邑誌, 泰和印刷社, 1986.
月刊 觀光濟州 8月號, 月刊觀光濟州社, 1985.
濱坪鄕土誌, 濱坪國民學校, 1987.
濟州道部落誌(Ⅲ),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0.

제 9 편 島外面民史

제1장 在京牛島面民會

섬중의 섬, 우리 우도 사람들은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옛부터 본도 또는 육지로 진출해 지리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보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연육의식(連陸意識) 내지 진취정신이 남달리 강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주민의식은 주로 해녀들의 출가(出嫁)활동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주로 동서남해안의 수산물이 풍부한 도서지방 및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멀리는 일본, 중국 대륙에 까지도 진출해왔다. 특히 부산지역에 많은 우도인들이 정착, 남해안의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수산 해운 및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들 중 일부는 한국동란이후 정부의 환도와 더불어 그들의 활동무대를 서울로까지 넓히게 된다. 당시 민주여론(잡지)사를 운영하던 高泰萬이나 동아일보 기자(종군기자, 판문점 특파원)로 재직했던 金景向, 회사원이었던 金乃煥, 任炳洙의원의 비서관에서 대한석탄공사로 자리를 옮긴 金화燁, 그리고 자동차부품판매업계에 종사하던 高哲煥 등이 그들이다.

특히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공업화, 도시화의 사회변화의 추세와 맞물려 도시에 가서 산다는 것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기대를 갖게 했으며 여기에서 특히 서울은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알다시피 수도 서울은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매력과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섬민들의 서울 생활은 일찍부터 그 역사적 연관성이 있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 면민들이, 그리고 누가 최초로 서울에 정착해 살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아는 바 없다. 흔히 공부하러 올라와 학업을 마치고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 살게 되었듯이 우리 면민들의 서울 정착도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韓完俊 어른(85세, 삼양동)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우도사람으로서 서울에서 제일 처음으로 학창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朴才弘(천진동)이다. 당시 그는 하숙을 치던 고모댁에 기식하면서 그 아들 우보현(전흘동)씨와 함께 야학을 했다. 그리고 보면 보현씨 모자를 비롯한 그들이 서울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후 高俊華(하우목동)가 보성전문학교(고려대 전신)에 다녔는데 서울 유학생으로는 그가 처음일 것 같다. 자신도 역시 1910년 무렵에 중앙중학교(5년제)에 다녔는데 그들은 내게 정신적으로 큰 의지가 되었다.

그 밖에 孔德奉, 高基行(이상 비양동) 尹大弘(삼양동) 등이 상경해 고학을 했다."

유학생들의 서울 생활은 6·25를 전후해 孔春植(비양동)이 균명중학, 韓文弼이 경복고등학교에서의 수학으로 이어진다. 60년대에 이르러서는 金金奉(서울대 법대), 李淳珩(고려대 대학원 교육학과), 김동현(서울대 공대 원자력공학과), 우상범(서울대 문리대 화학과) 등이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는 高忠錫(연세대 행정학과) 등으로 그 뒤를 잇게 되고 오늘날도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6·25 이후의 면민들의 서울 진출은 또다른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환도와 더불어 서울로 옮긴 면민들의 이주생활이 그것이다. 특히 「인물계」잡지를 간행, 「한국인물사」 편찬, 공명당총재 등을 역임한 高泰萬, 동아일보(7년), 자유신문(3년)기자 등 집경향의 10여년의 서울생활은 친인척이나 향가고인 등 향리 주민들에게 좋은 기식처를 제공해 주었고 이같이 면민들의 서울출입이 많아지면서 서울정착에의 기저가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0년대에 이르게 되면 적지않은 면민들이 서울 정착이 활발해 이루어 高德燁이 제대후 고교교사로 재직하게 되고, 59년에는 高哲燁(삼원상사 사장)이 상경 자동차부품상을, 金奉英이 대한석탄공사에, 고용호가 화학약품회사에, 金性時가 제대후 미군부대에 근무하게 된 일들이 그것이다. 69년에는

오영종(법무사)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과장으로, 金乃煥이 인쇄업에, 전상구가 건축업계(현대건설)에서, 70년대에는 한재덕 등이 상경, 각기 자기 분야를 개척하면서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드디어 면민회 모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1986년 고향의 면승격은 이들에게 새롭게 면민의식과 긍지를 자극함으로써 89년에 비로소 재경우도면민회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초대회장에 고덕환이, 그리고 고계화, 윤내환 등이 부회장을 맡아 초창기 면민회 기틀이 다져졌고 김두영(회장), 전상구, 한재덕(부회장) 등 모두가 각기 회장단을 맡아 면민회를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현재까지 金斗英회장(2~4대)을 중심으로 70여세대 100여명의 면민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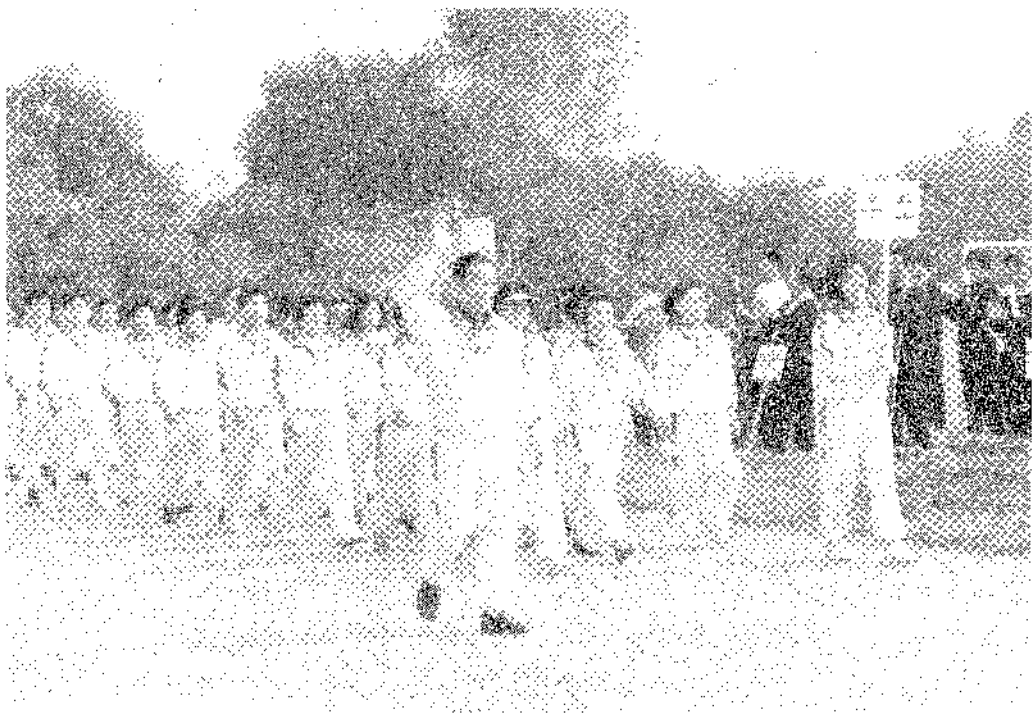
면민회는 일년에 네번 정기적으로 집회를 갖는다. 서로 애환을 나누며 상호 협력해 나가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면민회 조직을 보면, 김두영 회장 밑에 고철환(수석), 윤석만(재무), 이안태(조직), 강두화(섭외), 여대현(사업), 홍신길(체육), 김광자(부녀), 우영범(지역담당) 등이 부회장으로, 전상구를 간사장으로 총수 강광일, 조직 공기정, 섭외 김부성, 사업 김진봉, 체육 고철수, 청년 고경환, 부녀부에 고복란 등이 각기 간사를 맡아 면민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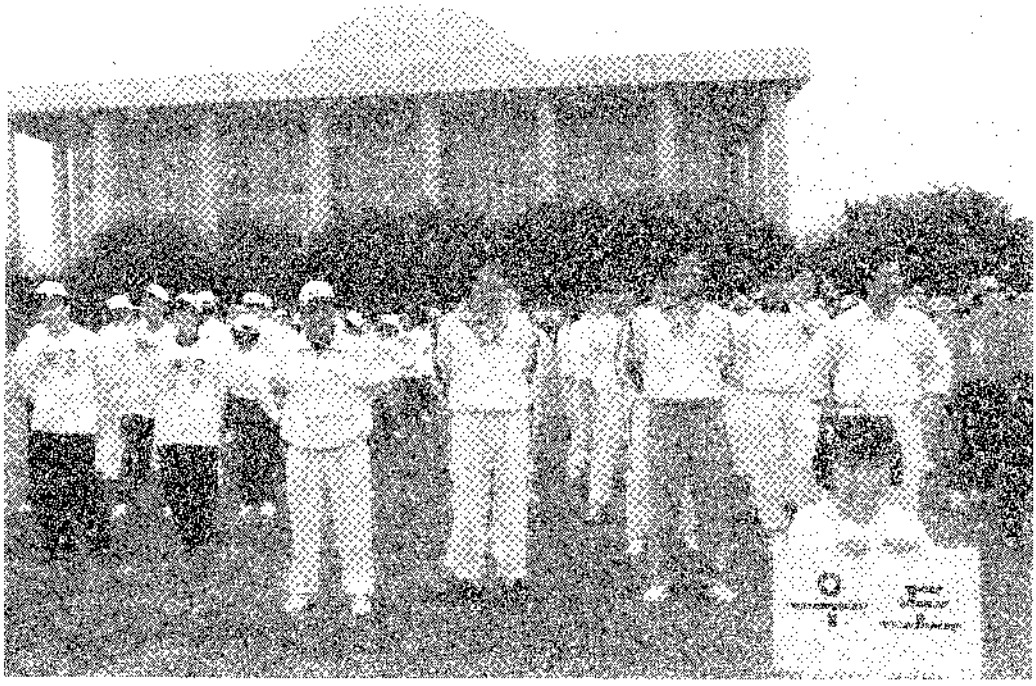
모든 회원들이 각기 자기분야에서 충실히 살아 나가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특히 교육계에서 고덕환(중화고), 강광일(서울여상), 김개국(원주전문대), 실업계에서 김두영(장원건설회장), 전상구, 강두화(현대건설 중기사무과장), 윤석만(현대건설 상무이사), 홍신길 등이 건설업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가운데 우상훈(한라실업), 공기백(동안석재), 오광회(백사운송사업조합), 한재덕(부동산업) 등이 각기 자기분야에서 성공, 면민회의 중추가 되고 있다.

앞으로 면민 모두의 밝은 미래 및 서울시민으로서의 성공적인 생활이 크게 기대된다.


재경우도면민회
우도


재경우도면민회





제2장 在釜牛島面民의 定着史

時代別 定着記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섬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陸地를 동경하였고, 또 그곳에서 나래를 펴고 싶었던 것이 事實이었으며, 農耕社會에서 産業社會로 전환된 現世代에서는 더욱 그러한지도 모르겠다.

故鄕을 등지고 他鄕에서 고군분투하며 自身의 꿈을 이루고 故鄕을 찾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향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여기서 오히려 고향에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스런 사람들은 고향을 찾기가 더 힘들어졌고, 꿈을 이룬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뭘 하나 라는 現實앞에서 제2의 고향이 되어 在釜우도면민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時代的 배경을 토대로 우도인이 어떻게 부산에 정착하였는가를 整理해야만 될 것 같다.

러·일전쟁 당시(1904~1905년) 日本이 승리하고 포츠머스 조약체결로 日本이 조선에 대한 우위권 확보와 국권침탈이 本格化되던 그 時點에서 牛島民 서광리 출신 金河錫氏가 '牛日께'에서 결혼을 하였으나 1년여 만에 夫人과 死別하고 우뭇가사리를 싣고 가는 이름모를 범선에 몸을 맡긴 것이 釜山에 도착이 되었다고 한다. 생계 수단의 고생이야 表現을 다할 수 없겠지만 지금 부산시청 자리가 해초류와 생선, 건어물 등을 팔고 사는 전형적인 한국적 재래市場이라 했으니 아

주 오랜 옛날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후 그는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 이듬해에 현재 부산시 중앙동 1가 21번지에 東亞物産(천초·미역·생선류 위탁판매업)과 제주여관을 경영하며 그 당시 부산과 제주를 잇는 永福丸, 昌福丸의 선표 취급점과 일부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였다. 그 배들은 1회는 제주시 한림쪽으로 운항하였고 차회는 서귀포, 성산포쪽으로 항해하다 우도의 산호 백사장 앞에서 우뭇가사리를 싣고 가기도 했다.

역시 사업의 기반은 世界의 名山 우도産 우뭇가사리임에 틀임이 없었다. 그렇다면 해방이 되고 난 직후 대일무역(?)의 수집상 내지는 위탁판매업으로 成長되었음이 틀림은 아닌상 싶다.

한편으로는 그 천초의 物量확보를 爲해서는 우도산, 제주산 하다가 慶北産으로까지 늘려야만 하기에 人力이 不足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 타개책으로 항일운동의 항일기를 부르던 그 牛島出身들의 海女와 인근 終達·下道 等의 해녀들도 부산, 경북의 해산물 채취 성수기에만 왕래를 하다 한두 사람의 정착이 始初가 될 수 있겠으며, 그 외도 있음은 부인을 못할 것 같다.

1913년경에는 오봉리 出身 韓君玉氏의 부친이 影島서바리(현재 東三洞 해안가)에 정착하면서 海女事業을 하므로서 차츰 人口가 증가되었고, 1925년 경에는 天津里 出身 高昇化氏도 海女事業을 서바리에서 30여년간 하였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한다.

1927년경에는 日本에서 事業을 하다 釜山으로 정착한 天津里 出身 高兼六氏는 해녀사업 및 한천공장을 53년도부터 운영, 68년까지 하였고 신한여객을 운영하며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고지의 혈연관계 인구도 늘었다고 볼 수 있다.

1928년경에는 李泰振氏·尹丁賢氏는 影島 발조내기(현재 청학동 해안가)에서 해녀船을 1960年度까지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整理된 것으로 보건데 이 時代에서는 牛島의 特産物인 우뭇가사리와 미역 등 해산물과 해녀! 이와 연루된 自然發生的 이주현상이라 볼수 있을 것 같다.

1945年 해방을 맞고 50년代는 6·25동란 등으로 국가경제나 국민 복리후생문

제는 상상치 못할 고려한 어려움에 있었고 길거리에는 빈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가 많았던 時節에도 우리네 海女의 아들, 딸들은 굶주리지 않았다 한다. 해녀의 노동력의 대가는 이제나 저제나 후한 편으로 보아지며 우리 제주도 어머니 모두는 고려하다고 自信있게 지적하고 싶다.

60년 들어 4·19혁명, 61년 5·16 쿠데타적혁명(?), 이듬해 화폐개혁 등 격동기를 겪고 월남파병, 새마을운동, 경제5개년계획 등 重工業정책으로 경제 부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동건설현장으로 상선이나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또는 공무원, 회사원, 유학생 등으로 하여 94년말 현재 2세까지만 해도 2,000여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다.

時代別 人物動向

1. 概 說

1) 金馨五(오봉리)先生은 1920년경 中國 北間島中學을 졸업하고, 本人의 實力에 걸맞는 취업을 하려 했으나 혼란기에 뜻한 바 있어 海技士면허 을종 2등항해 자격을 취득하여 해방과 동시 大韓海運公社 3천톤급 리바트호 선장에 취임하여 재주인의 자랑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동료 후배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재부우도면민회가 뿌리를 내릴 때 공로가 많았음.

2) 高天九先生은(서광리) 釜山에서 45년 당시 民衆日報(민중일보)를 창간 경영하였고 初代 國會議員으로 영도에서 비슷한 경력이 있을만큼 다재다능하고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희생과 봉사精神이 남다르다는 평임.

3) 金馬瑞氏, 文鳳進氏는 화물여객선인 70톤급 大祥호와 우진호를 운영하며 동향인들에 많은 편의제공을 하였고 면민회에도 공로가 많음.

4) 梁昌成氏는(오봉리) 68년 부산—서귀포—성산포항을 잇는 여객선 德南호를 취항 3년간 사업을 하였음.

5) 高昌保氏(오봉리) 62년도 조선해난구조사에서 선박과장을 취임시작으로 74년 해운항만청산하 부산연안 여객 터미날 소장에 취임 85년 정년 퇴임하였으며

교통부장관, 항만청장, 해운조합이사장 표창장 등 10여회 수상경력이 있음.

6) 金恒彬氏(조일리) 58년 28세의 연령으로 부산시 다대동 동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부산지역 양조장 42군데 것을 통합 사무국장으로 15년 재직하다 92년 정년 퇴직하고 지역단체장 및 社會봉사 활동중이며 道民會 부회장 역임.

7) 高仁鎬氏(오봉리) 水産業

高泰京(천진리) (주)영도공업 상무이사

李光□(오봉리) 진풍건설(주) 대표이사

玄浩吉(〃) 민자당 영도지구당 부위원장, 신우전기 대표

李芳憲(〃) 부산대상대졸, (주)금성알프스 과장, 현 조양통상 대표

金道民(조일리) 동아대 경제과졸, (주)한일관리부장, 현재 경동산업사 대표

金世均(서광리) 성신수교졸, 삼호물산(주) 과장, 현재 부농냉동식품(주) 공장장/이사

高致英(〃) 동성전기산업사 대표

金用浩(〃) 경동석유 대표

尹龍雲(오봉리) 연세대졸, 공인회계사(92년 합격)

2. 敎育者 現況

鄭贊永(서광리) 고교교장, 卞熙澤(천진리) 중학교장

高幸煥(천진리) 고교교사, 李周庸(조일리) 고교교사

金天澤(조일리) 국교교사

3. 船員 現況

金珍斗(서광리) 선장 2급항해사, 윤학철(오봉리) 선장 2급항해사

김순남(오봉리) 선장 2급항해사, 고명수(오봉리) 선장 2급항해사

김철환 1급 기관사, 김인호 2급 기관사, 공도진 2급 기관사

고영훈 2급 〃 , 고천희 1급 통신사, 김용식 1급 통신사

총 선원의 수는 100명으로 예상됨.

在釜牛島面民會 沿革

最初에는 演坪親睦會라 칭하여 단체가 구성되었으며 그 취지와 目的은 勿論 상부상조하는 성격을 띄었으나 現代의 내용과는 너무나 그 구성 性格이 달랐다.

45년 해방과 더불어 國家安寧 질서 維持가 정리되지 못하고 경제적 빈곤, 교통수단의 불편으로 인하여 집상사를 당했을 때 吉事는 問題가 되지 않았으나 喪을 당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고향의 상여를 생각할 수 조차 없었다. 이런 것을 먼저 해결키 위하여 同鄕人이 有故時에는 共同墓地에 안장을 시켜야 되겠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行喪團體가 필요하므로 친목회가 구성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우도면 승격과 더불어 우도면민회가 있게 된 것이다.

牛島面民會 創立發起人

尹順七, 李泰振, 高秉六, 金用瑞, 金聲五, 金允五, 梁昌成, 孔德一, 鄭贊治, 尹丁順, 高雲伯, 孔達奎, 梁成龍, 梁成秋, 金仁洙

歷代會長

初代會長	尹 順 七	23代會長	李 正 奎
5代會長	李 泰 振	26代會長	金 仁 峙
7代會長	梁 昌 成	32代會長	高 昌 保
9代會長	孔 德 一	33~35代會長	金 恒 彬
12代會長	梁 成 龍	36代會長	高 昌 保
15代會長	梁 性 秋	37代會長	梁 豊 烏
18代會長	高 昌 保	(95~96년 2년 임기)	





제3장 西部慶南

고향을 떠나본 사람이면 안다. 그것도 빈손으로 천리타향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얀 파도뿐인 외지에 와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지금이야 웃고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어렵게 살았다.

제주도 속담에 '고망이 지 고망씩이난 산다'는 말이 있다. 집집마다 사람마다 사연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서부경남지역(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거제군, 남해군, 진주시)에 우도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 봄에 물질하러 왔다가 추석을 전후하여 귀향하던 형태에서 이 지역 사람들과 결혼하여 정착된 생활을 한 것은 1960년대다.

우리고장 우도사람인 강관순 선생이 지은 해녀의 노래를 부르며 한을 달랬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날 무더운날 비가오는 날에도
저바다 물결위에 시달리는 몸"

현재 서부경남지역에 사는 우도면민은 줄잡아 450여명, 천진리출신 故 고태선, 故 윤산홍 제씨 등이 1950년대 정착했으며, 그 후로 강두엽, 정성준, 윤숙자, 윤석봉, 고용환, 고일수, 양상훈, 김홍식, 고권수, 윤석훈, 김일환 제씨 등이 통

영시에 살고있다.

사천시(구 삼천포시)에는 이창조, 양석송, 김영자, 고계찬, 강환전, 신영구, 양순근, 고규환, 윤석헌 등이 살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김행보씨가 세상을 떠나 타향에서 동향인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다.

김행보씨는 김항구편찬위원장, 이순형편집위원장, 고병수상임부위원장이 「牛島誌」 발간을 앞두고 사천시에 들렀을 때 일행을 본인이 운행하던 개인택시로 부산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한다.

쉬운 일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통영시와 사천시에는 우도친목회와 연평중학교 동문회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산구범 제주도지사가 서부경남을 방문했을 때는 우도출신 이창조씨가 경영하는 돌바위횟집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기도 했다.

해녀중심의 조직에서 하나 둘 직장을 가지고 공직에서 일하는가 하면, 자영업으로 튼튼하게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창조(54 · 천진리 출신)씨는 삼천포제일고등학교 총학생회장(1961), 삼천포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장(1990~1992), 한라일보 서부경남 주재기자(1992~1995),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장(1989~1991)을 지냈다.

현재 사천시에서 돌바위회센타를 아내인 김부미자(성산읍 신풍리 출신)씨와 함께 경영하면서 상가번영회장직을 맡아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신영구(48 · 천진리 출신)씨는 나잠어업을 하고 있는데 대성호 선주로 해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현재 삼천포제주도민회장을 맡아 있다.

통영시에는 먼저 1971년부터 나잠업을 시작한 정성준(58 · 서광리 출신)과 윤숙자(천진리 출신)씨 부부를 들 수 있다. 통영시 미수2동 326-1에 살면서 최초로 나잠업을 본격적으로 했으며, 미수1 · 2동을 부자마을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금 미수동에 사는 주민 50%가 제주사람들이라는 데는 정씨의 공헌이 크다 하겠다.

고일수(55 · 오봉리 출신) 양충자(54 · 천진리 출신)부부는 통영시 미수2동에서 삼다도 횟집을 경영하고 있다.

고정심(50 · 오봉리 출신)씨는 여성으로서 미수2동에 최초로 횟집을 시작했고, 지금의 횟집센타의 원조 역할을 했다. 고씨가 경영하는 제주횟집은 미수동의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하게 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계에는 고문홍(53 · 천진리 출신, 고 고태주씨 둘째아들)씨가 합천군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초등교 교장 자격을 취득해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제주MBC가 다큐멘타리 해녀를 취재갔을 때도 헌신적으로 협조했고, 「우도지」발간 취지를 설명하러 간 편찬위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어렵지만 열심히, 그리다가도 경 · 조사가 나면 모든 일 제쳐두고 뭉쳐서 살아가는 우도사람들은 비록 몸은 타향에 있지만 마음은 늘 섬머리동산에서 소꿉이던 일과 모실릭끼서 고생이 이빨 좁던 추억을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우도민의 긍지를 가지고…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 운영위원회시 통영시 사량도에서 기념촬영한 것이며 두도출신으로 아래줄에 이창조, 윤석훈, 고산백(하우목동), 뒷줄에 김일환(조일리), 이순실(천진리), 양순심(오봉리), 양상훈(오봉리), 김재동(오봉리), 채영오(천진리)가 있음.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 방문기념, 이창조 경영 돌바위횟집에서 신구범제주도지사, 김형신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장, 이창조외



서울제주도민회참석시 왼쪽부터 제주시출신 탤런트, 애월출신 양경일, 이창조, 고두심, 종달출신 한정훈 등과 함께



서울제주도민회 체육대회 참가시 기념촬영(얼굴보면 알만 할 걸)

牛島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북 제 주 군

군 정 현 황

□ 우리 군의 연혁

○ 1946. 8. 1 도제실시에 따라 북제주군 설치

○ 1949. 8.15 군산하 읍면단위의 자치제 실시

○ 1961.10. 1 군자치제 실시

○ 1991. 4.15 군의회 구성(의원 9명)

○ 1995. 7. 민선군수 취임, 제2기 군의회 출범

□ 지역의 특성

○ 맑은 공기, 청정한 해역, 광활한 초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

○ 삼무, 주낭정신이 계승된 전통문화의 보존지

○ 세계 최장의 천연용암동굴인 만장굴과 빌레못굴 등 용암동굴지대

○ 감귤, 당근, 옥돔, 소라, 양돈, 한우 등 농·축·수산물의 주산지

□ 관광 · 교통분야

○ 주요관광지 : 만장굴, 항몽유적지, 비자림, 협재굴, 산굼부리, 분재예술원, 우도8경 등

· 관광객 및 관람료 수입('95) : 4,703천명 · 5,866백만원

○ 자동차 등록('96. 8월 현재) : 19,106대

· 관용 81, 자가용 18,157, 영업용 868

※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추진('96~2001년까지)

-- 동부지역 : 5개지구 · 2조648억원 투자

— 서부지역 : 5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심의중

□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시설 — 100개소

· 양로시설 2, 장애인시설 1, 보육시설 17, 경로당 80

○ 의료시설 — 54개소

· 의원 23, 보건소 1, 보건지소 및 진료소 30

○ 식품접객업소 — 748개소

· 일반음식점 558, 휴게음식점 87, 유흥주점 31, 단란주점 72

○ 공중위생업소 — 258개소

· 숙박업 39, 목욕업 14, 유기장 21, 이 · 미용업 140, 기타 44

□ 교육 · 문화분야

○ 교육시설 — 55개교 · 16,835명

· 초등학교 33, 중학교 14, 고등학교 6, 대학교 1, 특수학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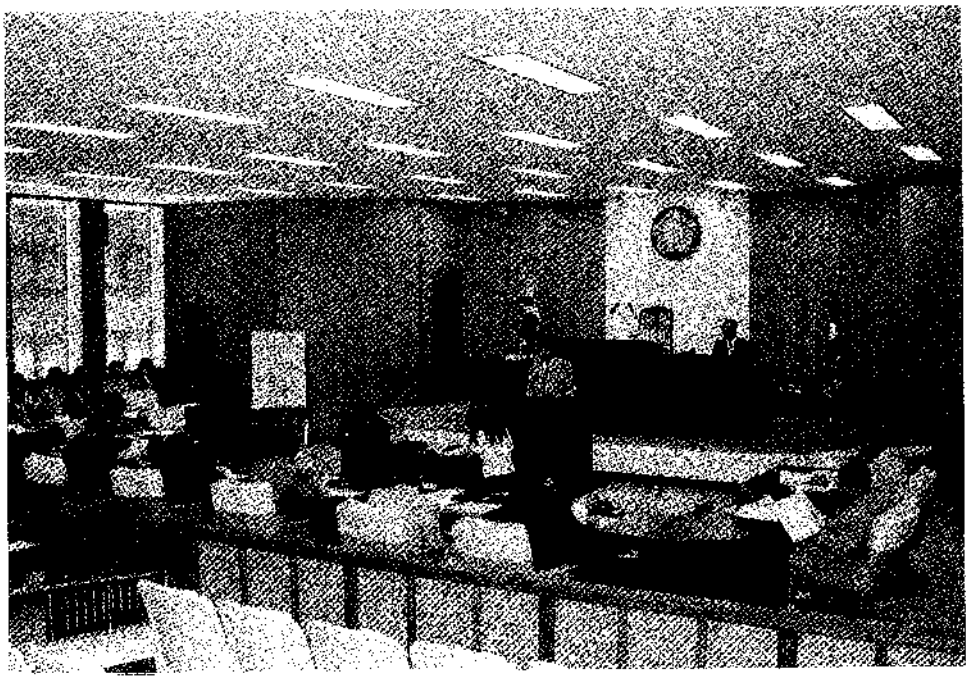
○ 문화시설 — 10개소

· 청소년수련시설 5, 도서관 2, 문화 · 체육관 3

○ 문 화 재 — 61종(국가지정 9, 도지정 52)

북제주군의회 의원일동은

10만 군민의 심부름꾼임을 항시 유념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북제주군의 번영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 장 강인선	부의장 김응삼	의 원 양보윤
의 원 김용홍	의 원 고승립	의 원 임만경
의 원 윤창호	의 원 박방규	의 원 김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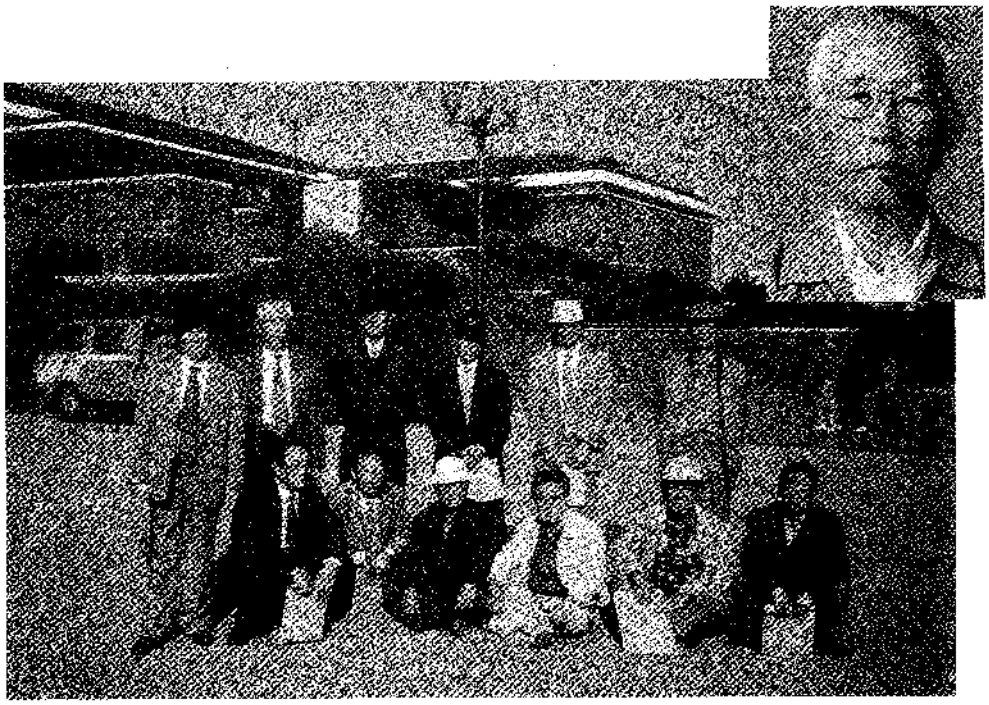


우 도 면 사 무 소

초대면장	김	항	윤
2대면장	원	복	연

면 장	고	창	도
부 면 장	김	희	봉
총무계장	김	성	관
개발계장	고	창	업
민원계장	여	일	형
산업계장	이	태	훈

우도면 서광리 1451—3
전화 면 장 실 : 83—0005
개발계 · 산업계 : 83—0419
민원실 · 당직실 : 83—0004
83—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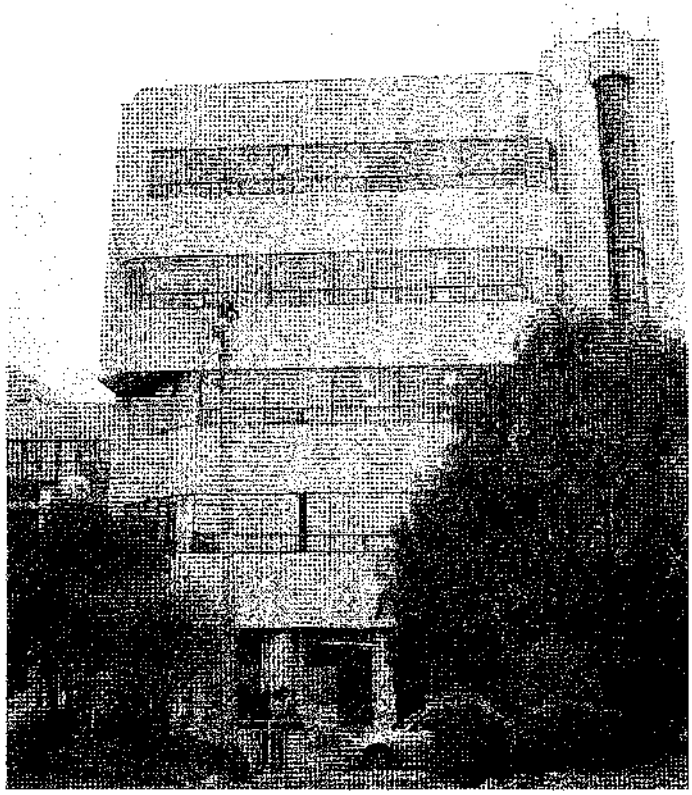
우 도 노 인 회

* 임 원

고 문 우봉수, 정찬경, 우봉호
회 장 신 인 홍
부회장 윤수남, 고태건
감 사 김군선, 정학준
총 무 오 영 돈
이사 강상칠, 이기환, 김향육, 우두석, 김창백, 김계환, 김태수, 공내수, 김용교, 고봉필

* 사 업

92. 1월. 우도면 노인정 인가
2월. 학생선행상 시상 중 1, 국 1명
8월. 어린이충효교실 4개 리사무소 실시
93. 2월. 학생선행상 시상 중 1, 국 1명
7월. 해안가 쓰레기 청소
7월. 우도면 전 가정에 국기보급 700매
8월. 어린이충효교실 우도면 복지회관
8월. 효자상추천 북제주지회장상 시상
93. 8월. 우도면 중앙도로변 청소
10월. 장수노인위문 남 6, 여 1
12월. 겨울충효교실 우도면복지회관
94. 2월. 학생선행상시상 중 1, 국 1
○ 수국묘목파종 도로변
○ 약초시험재배
○ 가훈제작 6편출품 지회 입상
8월. 충효교실 복지회관





學　　歷

- 演坪初等學校 卒業
- 濟州中學校 卒業
- 濟州農業高等學校 卒業
- 東亞大學校 法學科 卒業
- 東亞大學校 學生會長

經　　歷

- 大韓石炭公社 勤務
- 斗山그룹, 東山土建(株) 勤務
- (株)에메랄드 觀光호텔 管理理事
- 壯元綜合建設 株式會社 會長(現)
- 장호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현)
- 在京牛島面民會 會長
- 서울濟州道民會 副會長
- 在京濟州中學校 同門會長
- 在京濟州農業高等學校 同窓會 副會長

金　斗　英
(하우목동 출신)

주소 :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중흥마을 603동 301호
전화 { 사무실 : (064) 21 — 8111
　　 { 자　택 : (032)323 — 5814



代表 梁 豊 島

在釜山 牛島面民會 會長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3층 회센타 1, 4, 5, 6, 7, 8號

주소 : 부산시 남포동 신동아시장 3층

전 화 246—4645, 245—7157



파라솔노래연습장

(홍대식소아과, 명진치과 건너편)



대표 강 영 오

특 징

- 최고 음향시설 완비
- 녹음시설 완비(테이프 무료)
- 주간 특별써비스 제공
- 팡파레 울리는 고득점자 경품시상
- 방문 기념품 증정(선착순)
- 전화예약 환영

☎ (051)621 - 3009
자택 (051)414 — 1345





代表 高 致 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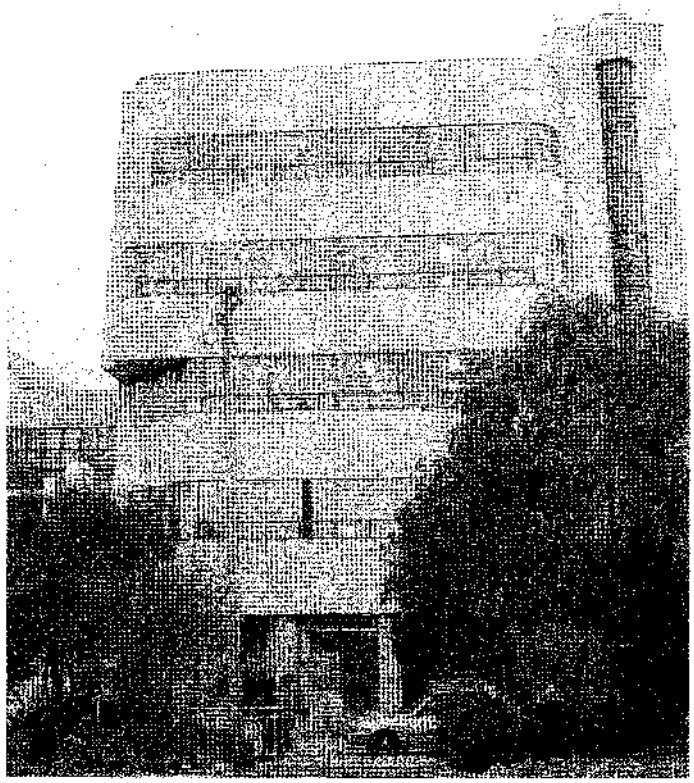
東成電機企業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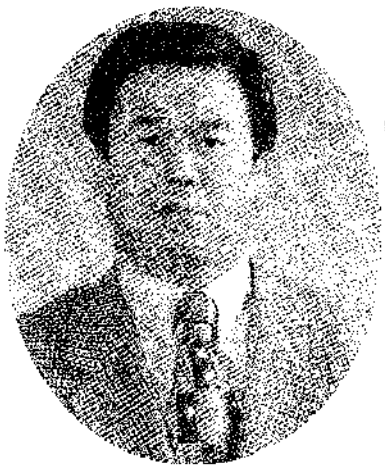
특고수전반. M.C.C.PANEL. A.C.B PANEL
V.C.B.PANEL. 나이푸스윗치펜넬. 스텐분전반
산업기계. P.C. 제어장치. 설계제작

電氣配電盤 工 場

釜山廣域市 沙上區 周禮洞 1161-10

전화(051)325 — 4246
325 — 4247
FAX(051)326 — 4244





代表理事

鄭 萬 化

壯元綜合建設株式會社

제주시 일도2동 355-10

전화
- 대 표 (064) 21 — 8111
- 직 통 (064) 21 — 8115
- 자 택 (064) 57 — 3077
- FAX (064) 21 — 8110



—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로
미래 건설산업의 주역으로
발전하는 기업 —

有晟建設株式會社

(綜合建設業, 土木建築, 鋪裝, 住宅建設)

代表理事 金榮哲, 吳憲奉

제주시 일도2동 49－4
전 화 (064) 25－5111~3
FAX (064) 25－5114

대성토건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공사업)

대표이사 강 태 욱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0－45

사무실 (064) 44－8472

자 택 (064) 25－1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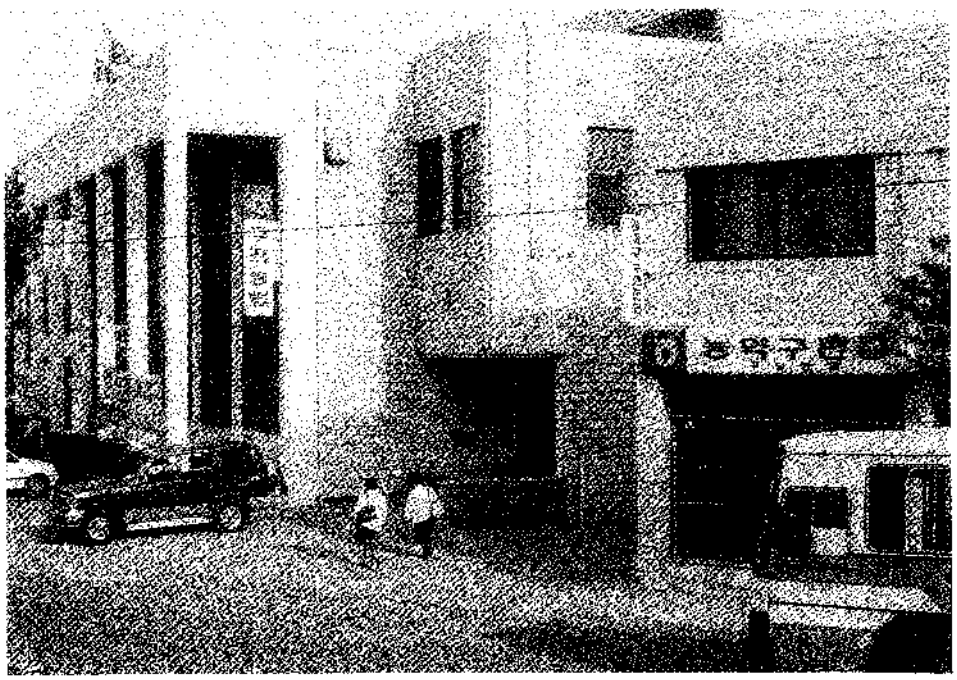
F A X (064) 44－8475

저축은 농협

구좌농업협동조합

사 업 안 내

영농지도·구매(농약·농기계·각종 비료·일반자재)
상호금융 · 공제 · 생활물자 · 가공사업





조합장 부 준 식

조 합 장 실 82-3516
전 무 실 83-2651
기 획 부 83-2653
신 용 부 83-2651~2
지도·경제 83-2654
연 쇄 점 84-1619
가 공 공 장 84-1362
F A X 82-5046
하 도 지 소 83-3077
84-0575(FAX)
우 도 지 소 83-0908(FAX)
83-9719
중 부 지 소 83-4926
83-2446(FAX)
행원예금취급소 83-2144

조 합 장 : 부 준 식
이 사 : 김 준 우
김 창 진
부 태 호
김 덕 구
강 영 남
김 성 진
양 종 오
오 윤 홍
손 석 민
안 석 찬
진 재 보
부 두 언
권 오 혁
윤 철 택
정 호 신
감 사 :
전 무 :
지도경제상무 :
하도지소장 :
우도지소장 :
중부지소장 :

濟州市水産業協同組合

水協運營指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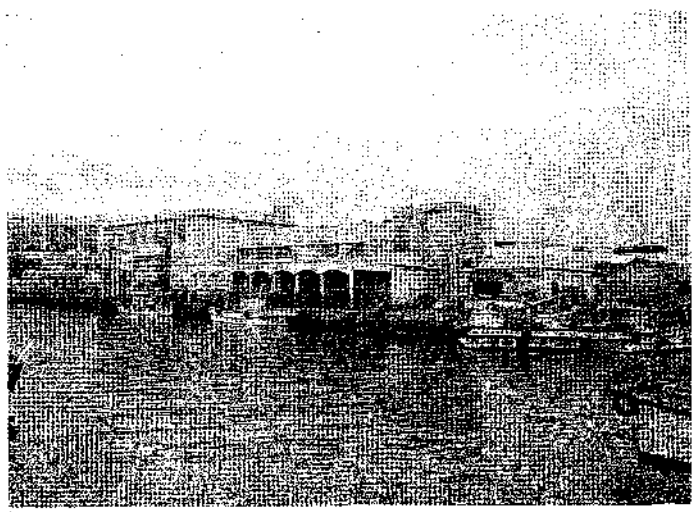
내가가꾼 푸른바다
밝아오는 우리어촌

目 標

水産業 競爭力 強化
활기찬 새 漁村 建設

重點方針

1. 現場密着 指導事業 強化
2. 漁業人 便益 經營事業 擴大
3. 信用事業 專門性 提高
4. 內實있는 正道 經營





조합장 홍 성 보

임원현황

이 사 고 운 팔
이 사 김 태 보
이 사 강 창 송
이 사 박 정 웅
전 무 강 호 방
구좌지소장 유 상 호
우도출장소장 김 광 국
이 사 한 대 용
이 사 고 홍 림
감 사 이 창 식
감 사 김 인 택

전 화 안 내

○ 조 합 본 소 (064) 53 - 1001
53 - 1004 ~ 7
○ 신용사업부 (064) 53 - 1002 - 3
○ 구 좌 지 소 (064) 83 - 2645
83 - 2646
○ 우도출장소 (064) 83 - 0009
83 - 0010

濟中央病院

도민을 위한, 도민의 제주중앙병원

열린 병원, 밝은 병원, 편안한 병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최고의 의료진과 각종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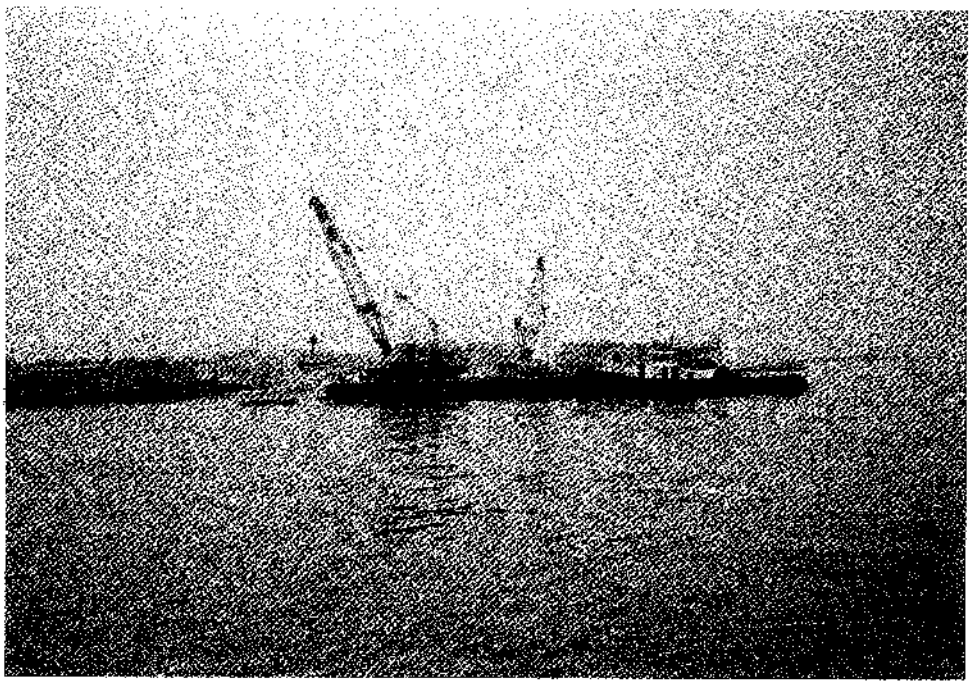




1내과	전문의	이명렵	
2내과	전문의	장태석	
3내과	전문의	김경환	
일반외과	전문의	김성수	
1소아과	전문의	김경호	
산부인과	전문의	이민정	
정형외과	전문의	조순호	
1신경외과	전문의	김영준	
2신경외과	전문의	김덕용	
방사선과	전문의	권영택	
마취과	전문의	정순태	
치과	의사	이상복	
응급실	의사	전철수	
응급실	의사	최영식	
약제과	장	김영지	
간호과	장	이순심	
관리부	장	김성택	
MRI실	장	김창택	
CT실	장	진민수	

(代) Tel. 20—2000, FAX. 20—2099
(응급실 : 20—2010, 2085)

제주중앙병원장 김 덕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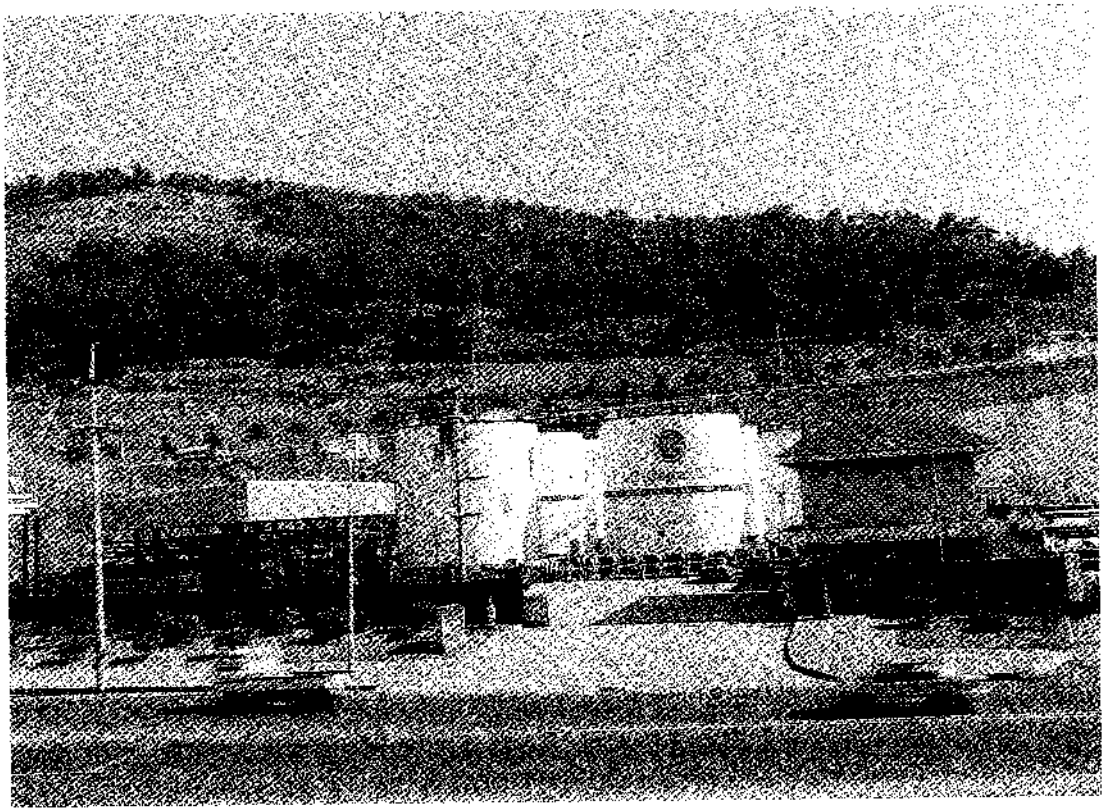
대표 신 관 홍

동성수중개발공사

성실과 신용으로
최선을 다하는 기업!
저희 동성수중개발공사는 성실 완전시공의
무결점 주의를 추구하며
인간과 도시 · 자연이 조화되어
인정이 넘치는 복지 제주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788-10

☎ (064) 58 — 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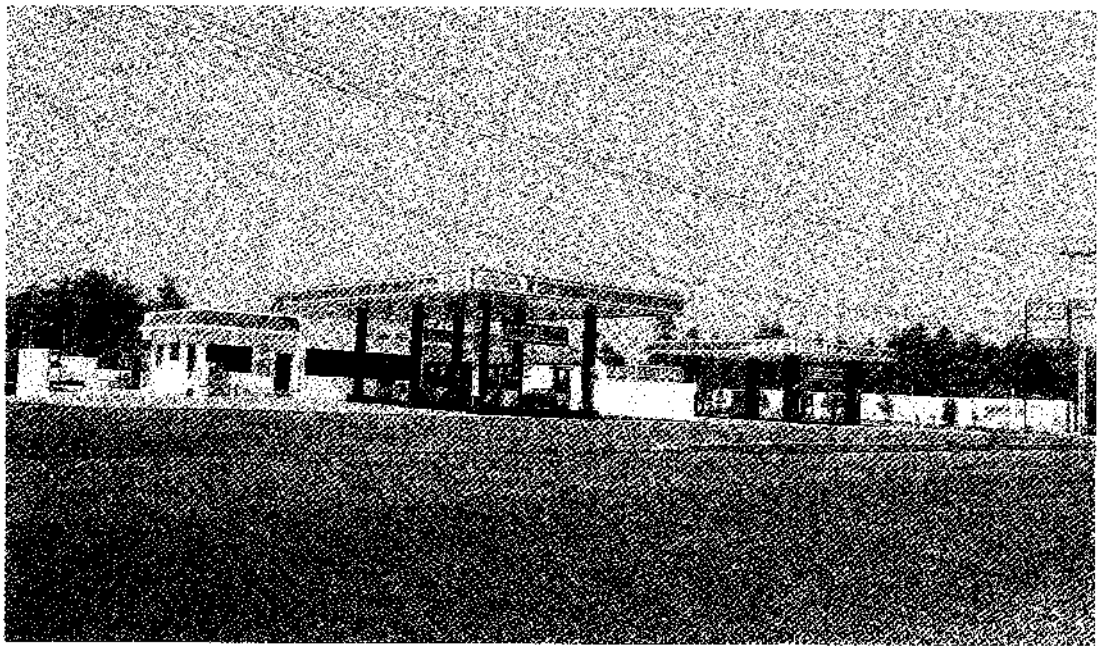
三南石油株式會社

代表理事
社　　長 張　　倫　　宅

제주시 용담1동 265-4번지

대표전화 (064) 53—5151번

F A X (064) 53—8766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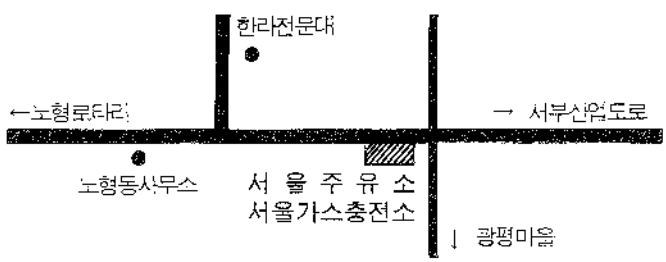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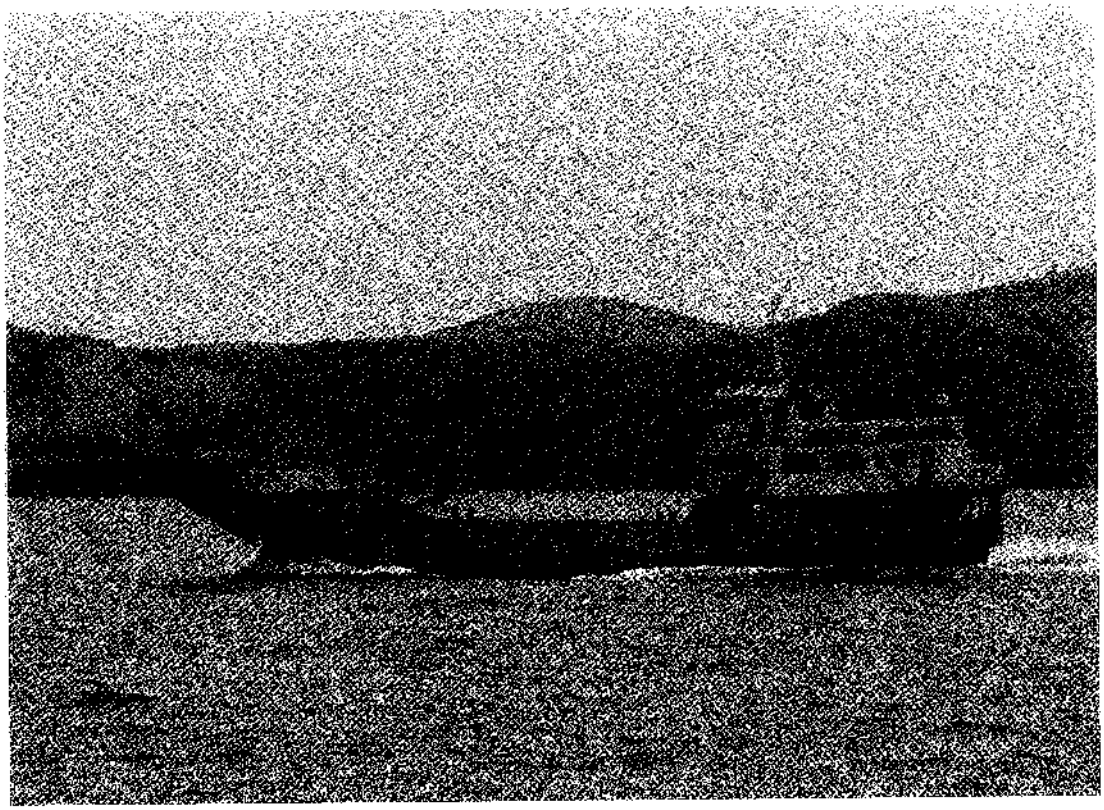
영업종목	자동차기름및자동차가스충전 · 손세차와같은초고속자동세차 · 윤활유교환전문의경정비

서비스	· 30만원 주입시, 윤활유 · 오일필터 무료교환 · 50만원 주입시, 윤활유 · 오일필터 · 에어크리너 무료교환 · 윤활유 소형 15,000원, 대형 17,000원에 교환

서울주유소 · 서울가스충전소

TEL : 48-1439, 44-4090





우 도 해 운

— 우일호, 우일카훼리호, 덕일훼리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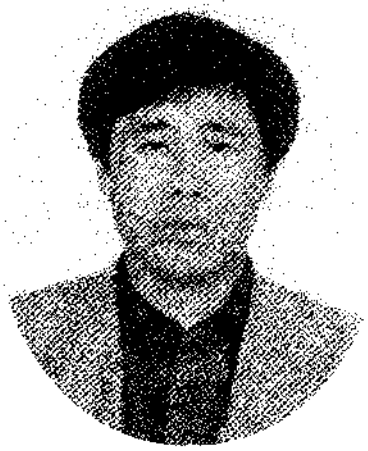
대표 **임 봉 순**

북제주군 우도면 천진리 1739-13

우도대합실 { 전 화 : 83—0448
FAX : 84—0626

성산대합실 { 전 화 : 82—5671
FAX : 84—3888

운항시간 07 :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1회)



대표이사 윤 두 필

주식회사 서광건설

전문건설업 : 상하수도 설비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중기대여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서광리 1458-14
제주시사무실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0-26
전 화 : (064)83—0121 · 82—0191
(064)48—4046~7
자택 (064)82—0122
FAX : 84—0221 · 48—4046



우 근 민

- 명 지 대 학 교 졸 업
- 경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졸업
- 총 무 처 인 사 국 장
- 총 무 처 기 획 관 리 실 장
-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차관급)
- 제27대, 제28대 제주도지사
- 남해화학주식회사 사장(현)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2-1 우성APT 22동 507호

TEL. 02) 562—0406



金　恒　彬

(영일동 출신)

경　　력

- 부산 탁·약주제조협회사무국장
- 부산 우도면민회 회장
- 부산 제주도민회 부회장
- 부산 제주도민회 서부지회 부회장
- 부산 우도면민회 고문(현)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768
전화 261—1683



吳 永 宗

(하우목동 출신)

學 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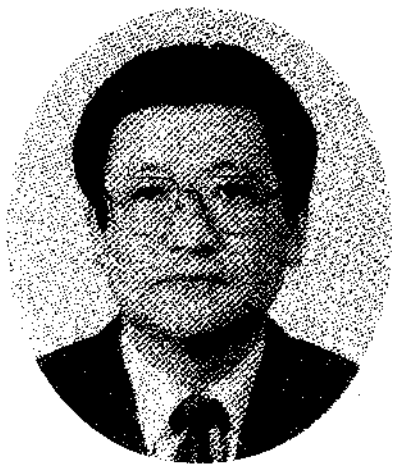
- 濱坪初等學校 卒業
- 濟州中學校 卒業
- 濟州商業高等學校 卒業
- 濟州大學校 法學科 卒業

經 歷

- 檢察書記官 勤務
- 各 檢察廳 課長 歷任
- 吳永宗法務士事務所 所長(현)
- 在京牛島面民會 顧問(현)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APT 907동 102호

전 화 { 사무실 (02)755 — 5881
자 택 (02)649 — 0617



(하우목동 출신)

釜山社稷高等學校

校長 鄭 贊 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76 가락타운APT 322동 501호

전 화 { 사무실 : (051) 293 — 2006
자 택 : (051) 501 — 7711



高 哲 煥

(서천진동 출신)

學歷 및 經歷

- 演坪初等學校 卒業
- 城山中學校 卒業
- 釜山東洲高等學校 卒業
- 三元商社代表(自動車部品販賣業) (現)
- 在京牛島面民會 監事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3—2

전 화 { 사무실 : (02)679—9567
자 택 : (02)292—2139



오 종 수

(영일동 출신)

○ 굴 양식업 ○ 어패류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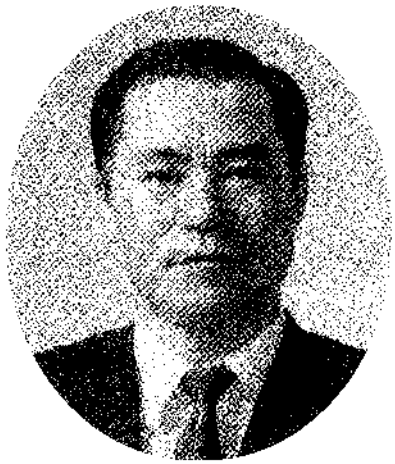
가 족 사 항

○ 처 : 김기정

○ 자 : 오수영(포항비취호텔 대리)

○ 자 : 오정혜(학원강사)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192-1
신우대영그린아파트 B동 102호
전 화 0557—41—3266



尹 石 萬

(서천진동 출신)

學歷 및 經歷

- ○ 演坪初等學校 卒業
- ○ 演坪中學校 卒業
- ○ 五賢高等學校 卒業
- ○ 陸軍士官學校
- ○ 漢陽大學校 機械工學科 卒業
- ○ 現代그룹 現代産業開發(株) 常務理事(現)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9 홍실APT 6동 1201호

전 화 { 사무실 : (02)549 — 1408
자 택 : (02)545 — 9853



全 尙 九

(동천진동 출신)

學歷 및 經歷

- ○ 演坪初等學校 卒業
- ○ 演坪中學校 卒業
- ⊙ 釜山光城高等學校 卒業
- ○ 建築業에 從事
- ○ 牛島住宅 社長(現)
- ○ 在京牛島面民會 副會長(總務擔當)(現)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260－12

전 화 : (02)684－4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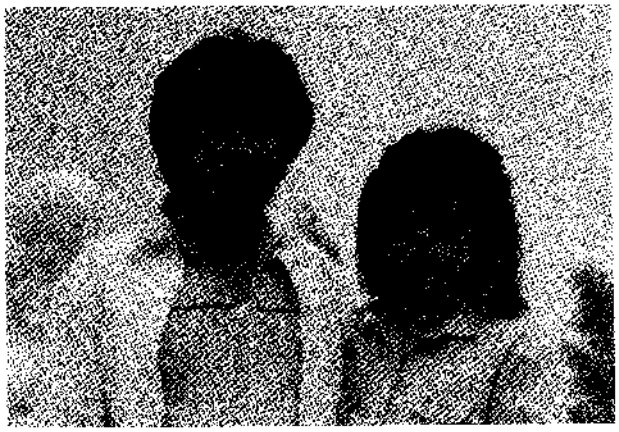
京東産業社

代表 **金 道 珉**

(영일동 출신)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4동 1215-25

전 화 { 사무실 : (051)633-6495, 634-2830
자 택 : (051)622-3571



김 봉 록

(하고수동 출신)

남 성 해 운

가 족 사 항

처 : 양성여

자 : 김유신(한진그룹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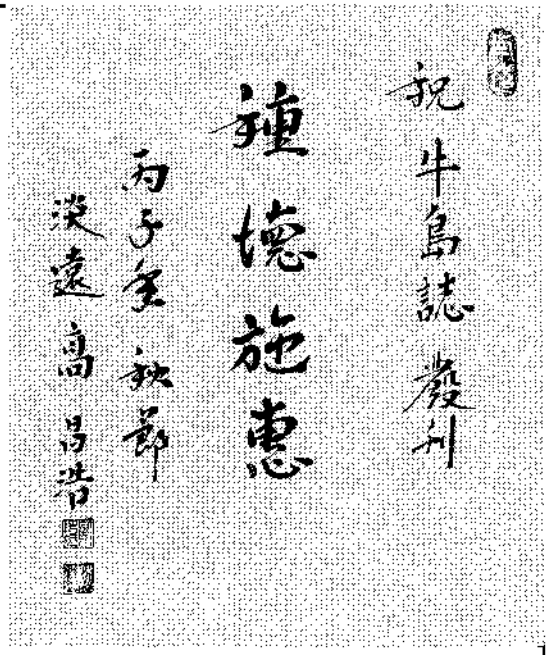
자 : 김유필(현대그룹 근무)

자 : 김신저(해군 복무중)

부산 영도구 동삼2동 824-18

☎ 414-1804





高 昌 浩

(1933년생 비양동 출신)

학 력

제주사범학교 제1회 졸업

경 력

- 시흥, 동남, 태흥, 표선초등학교 교장 역임
- 온평초등학교 교장(현)

시 상

- 아동교육발전 및 아동급식 건강증진기여 문교부장관 표창
- 국가민족 아동교육공헌 교육부장관상
- BBS운영발전기여 한국BBS중앙회 총재 감사패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869
전 화 (직 장 : (064) 84 - 4809
자 택 : (064) 82 - 2796



金 富 大

(1937년생 상우목동 출신)

학 력

- 연평초등학교 졸업
- 성산중학교 졸업
- 성산수산고등학교 졸업
- 부산수산대학교 졸업

경 력

- 수협진주공판장 장
- 수협경기도지회 부지회장
- 수협중앙회 시흥지점장
- 수협제주도지회 부지회장
- 수협제주도지회 지회장

사회봉사

- 재 제주 우도연우회장
- 재 제주 우도면민회장(현)
- 우도 라이온스크럽 1, 3대 회장(현)

제주시 일도2동 1013-1
전화(064) 58 - 0042



고 충 석

(서천진동 출신)

학력

- ○ 연평초등학교
- ○ 오현중·고등학교
-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박사)

경력

- ○ 제주대학교 교수(현)
-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겸 행정대학원장(현)



姜 英 吉

— 1950년생 —

학 력

연평초 · 중학교, 오현고등학교, 한국방송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주요경력

공무원 12년(강신익, 박상열, 이규이, 최재영 제주도지사 비서)
민자당제주시지구당 부위원장, 민주산악회 북제주군지부 부지부장
우도해운 대표

가족사항

이경자(처 · 주부)
강민석(장남 · 대학생) · 강민애(장녀 · 대학생) · 강민범(차남 · 중학생)

협성호, 연봉호로 시작하여 우일호를 신조 우도도항선업을 약 7년('88~'94) 동안 경영하면서 여러가지 모자란 점이 많았음에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우도면민의 따뜻한 후의와 협조에 본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벽돌, 블록, 보도블록
시멘트가공, KS품 **새한영산업**

제 주 석
가공 및 시공 **산방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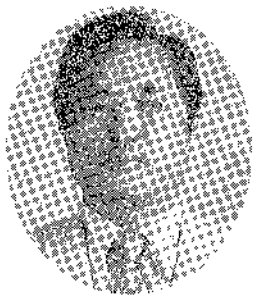
굴삭기, 덤프 **신풍중기**

대표 **김 재 웅**
(서천진동 출신)

사무실 서귀포시 색달동 2561번지
전 화 (064) 38 - 4834
F A S (064) 38 - 4833
자 택 (064) 63 - 3579

공 장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1-1번지
전 화 (064) 94 - 0900, 94 - 8003
F A X (064) 94 - 9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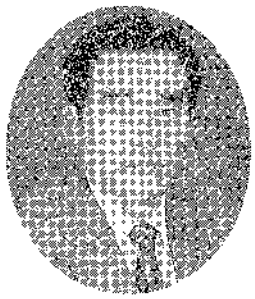
在京牛島面民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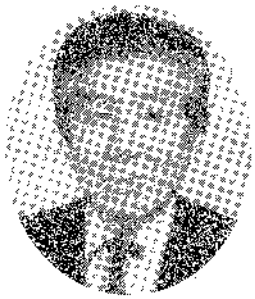
顧問 高德煥



顧問 吳永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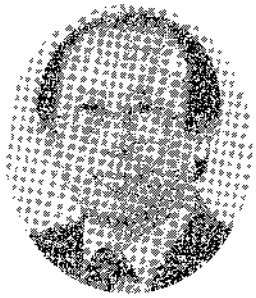
會長 金斗英



副會長 金乃植



副會長 高桂花



監事 高哲煥



副會長 韓在德



副會長(總務擔當) 全尚九

"내 고향 우도를 사랑합니다!"

경남 통영지구 협찬자 명단

윤석동 김홍식 고일수 정성준 양세교
고용환 고권수 강동진 채영오 김태일
정복남 김국진 고안철 고길수 윤석원
김봉구 양명길 양형택 윤성환 윤부국
차주학 양상훈 이택수 고대선 윤원식
고복동 고이윤 우신범 채용배 우종범
윤상석 김두선 차주동 황승보 고철용
윤두전 양용혁 (무순)



등 대 을 회

우도면 조일리·비양동 출신중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향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 10. 29일 설성.

초대회장 : 고영수 총무 : 공광수
2대 회장 : 고석준 총무 : 양세창
3대 회장 : 강영철 총무 : 여찬현
4대 회장 : 김성진 총무 : 고봉찬
5대 회장 : 강문종 총무 : 공인홍
6대 회장 : 여일형 총무 : 한응종

회 원

고영수, 고석준, 강영철, 공광수, 김성진, 강문종, 여일형, 여찬현, 고봉찬, 공인홍, 고창덕, 양세창, 한응종, 황승길, 공이성, 고창완, 윤인배, 한재천, 한계국, 고도근, 황규호, 강문수, 진용식(무순)

내고장
더 푸르고 아름답게

정화조 청소업

미도위생운수(주)

대표이사 신 관 일
전무이사 부 태 만
상무이사 김 인 철

제주시 화북1동 2146
전화 55 —0230~1

"우도면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도면개발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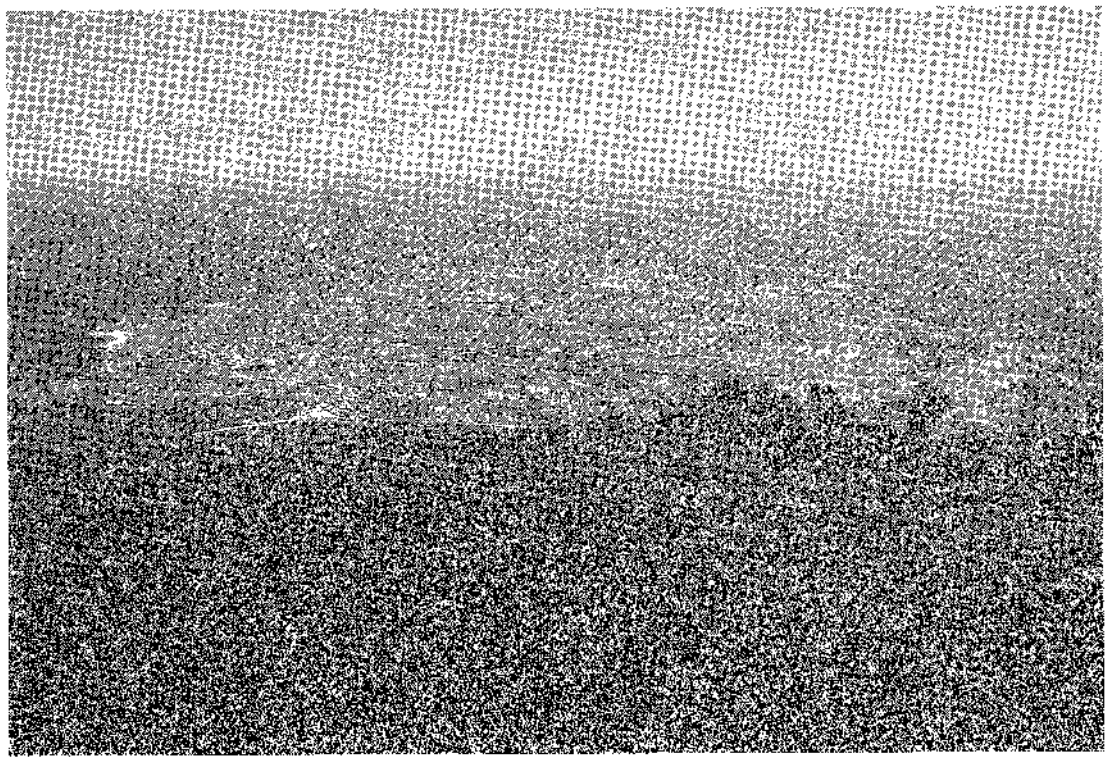
위원장 고 병 수(☎83-0018)

부위원장 정 만 식(☎83-0047)

위 원

강안근 (☎83-0567)	고용숙 (☎83-0078)	고익환 (☎83-0220)	양계영 (☎83-0155)
전상만 (☎83-0258)	강철석 (☎83-0412)	신인홍 (☎83-0029)	김재민 (☎83-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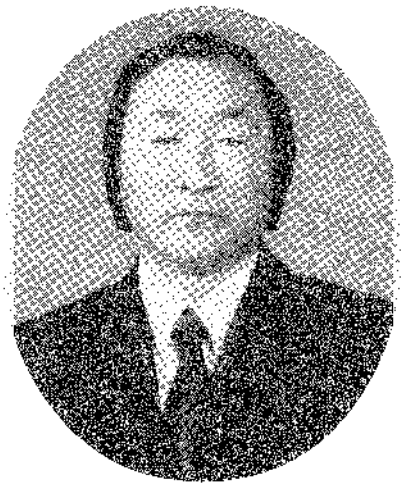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천진리 어촌계	서광리 어촌계
계장 여 달 현	계장 강 순 일
간사 양 희 진	간사 김 용 건
전화 82 - 0390	전화 83 - 0348

오등리 어촌계	조일리 어촌계
계장 윤 복 일	계장 김 준 택
간사 김 명 하	간사
전화 83 - 0543	전화 82 - 5464

바르게살기운동우도면위원회



회 장 김 철 수

부회장 : 윤석민, 박두필

사무장 : 고혜동

위 원

김정희, 공승남, 양정부, 홍필수, 김항욱, 양계영,
고용옥, 고재수, 한두영, 우덕근, 황윤호, 김경찬,
윤두필, 한춘식, 김명하, 윤봉국, 공금수, 고호수
(무순)

우도면연합청년회

회 장 윤 복 일

고 문 윤석우, 우영훈, 고재수, 강영수

상임부회장 고 창 수,

부 회 장 황윤호, 고규백, 우양범

감 사 김영진, 양희진, 김봉삼, 강세정

총무부장 이현찬, 체육부장 강길홍

홍보부장 고홍범, 선도부장 김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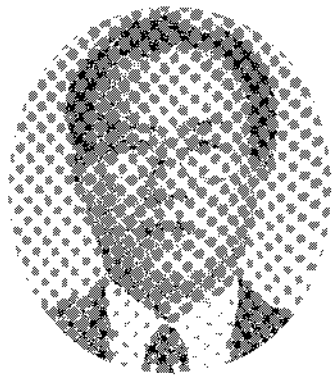
문화부장 양수호, 봉사부장 공기봉

역대회장

1대 김 성 도 2대 김 용 훈

3대 고 영 주 4대 최 평 숙

연평중학교총동문회



회장 김 영 택

부회장 김철수, 부회장 김명하, 감사 우영훈, 감사 고영주, 총무 고광환

이사 윤석민, 김상주, 김성도, 홍종수, 양순경, 윤봉국
고홍범, 고해동, 김봉삼, 김광민, 여중심, 김영진

역대회장단

구 분	1 대	2 대	3 대	4 대	5 대	6 대	7 대	8 대	9 대
회 장	고이택	고이택	고이택	고이택	전상신	한두영	김승태	김승태	김승태
부회장	최승부	최승부	최승부	한두영	한두영	고홍주	김성도	김성도	여환형
〃	김항근	고익환	고익환	최승부	김순두	고창식	김명하	김명하	김명하
감 사	고창서	고창서	고창서	고창서	고홍주	고창서	고창서	고창서	고홍주
〃	고영환	윤석훈	한두영	김정남	김정남	김정남	고홍주	고홍주	강영수
총 무	고홍주	고홍주	고홍주	고홍주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구 분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
회 장	고홍주	고홍주	고병수	고병수	김영택	김영택	김영택	김영택
부회장	고창식	고창식	우영훈	우영훈	우영훈	우영훈	우영훈	김명하
〃	양순근	양순근	고순환	고순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감 사	우영훈	우영훈	고영주	고영주	고영주	고영주	고영주	우영훈
〃	고순환	고순환	양순근					고영주
총 무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고광환

재제주우도면민회

회장 김 부 대

고문 우근민 김덕선 고창호 고태경 김성대 윤철영
김영국 김종학 윤창현 양순길 이순형 오술생

부회장 고창선 이휴성 김순두 우태진 정만화
김상민 강영길 고훈철 오태용 신영훈

감사 김 재 웅, 강 영 철

이사 고제동 채군배 고계환 김항근 홍대수 고계추
고민환 고영환 고유환 강효길 부태만 고영수
김용명 양원교 김영수 고범환 김용관 한동규
한길동 고홍식 신영만 임수길 윤두철 고창덕
여찬현 곽칭수 김성민 우윤필 이영훈 양형철
고성훈

총무 채 종 익 부총무 김 치 민
재무 강 성 보 홍보 김 세 도

— 내고향 우도를 항상 사랑합니다 —

재제주연우회

회 장 김 항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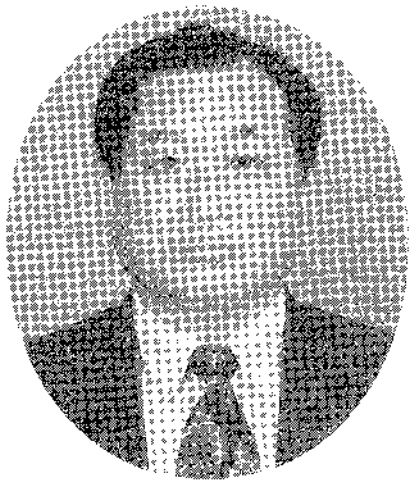
부회장 김 순 두

총무부장 김 동 건

회 원

김부대	오태선	윤석찬	고계동	채균배
고계환	고경환	김영언	고계추	홍대수
정만화	고훈일	고영환	김용철	고충석
김세도	고진환	고대환	강영길	고수환
양원교	부태단	강성보	고영수	우명훈
홍 수	강영식	여찬헌	채종익	임수길

(무순)



대표이사 김 영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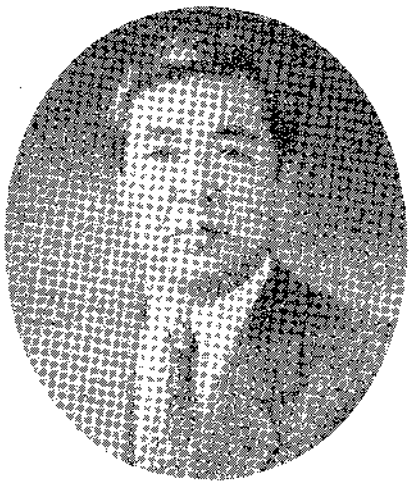
제주시 급수대행업

대진수도공무사

주식회사 하나건설

수중공사업(1995. 1. 1 설립)

사무실 : 제주시 화북1동 1944-14
TEL : 22—5987, 56—5987, 21—9666
FAX : 21—9666
자 택 : 제주시 삼도1동 512-11
TEL : 55—9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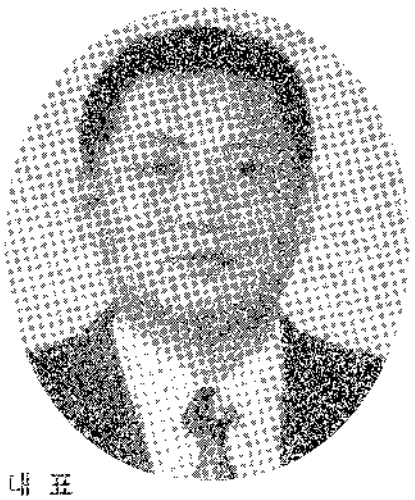
제주가스 충전소
라이온즈 사우나
고리파이프 상사

대표 조 장 생

전화
- 제주가스 57—4114~5
- 사우나 57—4111~3
- 고리파이프 21—8400
- 자택 22—6044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대표

최 병 수

우도관광의 길잡이

우 도 교 통

각종미끼, 선박일체

우 도 낚 시 쎈 타

우 도 가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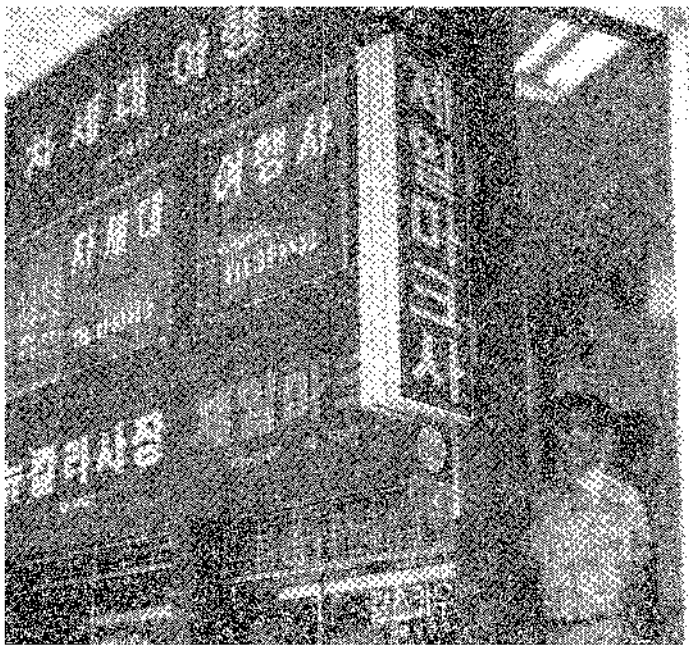
미림전자 · 우도유선방송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서광리 1344

전 화 사무실 (064) 8 3 — 0 1 5 2

자 택 (064) 8 2 — 0 1 5 2

F A X (064) 8 2 — 6 0 0 0







제일마크사

대표 고 수 환
(서천진동 출신)

사무실
- 제주시 삼도1동 572-25
- 전 화 22—0576
- FAX 25—0576

자 택
- 제주시 연동 320-72
- 전화 42—5190



고 창 보

(하고수등 출신)

학 력

고구라시해양상선단기 1년 수료

경 력

조난해난구조사 · 한국상선주식회사
부산항인안여객터미널(관리소장)

사회봉사

부 산 연 우 회 회 장
부 산 제 주 도 민 회 수 석 감 사
재 부 우 도 면 민 회 회 장
한국해운조합부산지부지부장

표 상

부 산 시 장 감 사 패
부 산 해 운 항 만 청 장 공 로 패
중 앙 해 운 항 만 청 장 공 로 패
부산도민회, 우도면민회공로패
교 통 부 장 관 표 창 장

부산시 영도구 봉삼3동 주공APT 208동 1501호



김 항 구

(1935년생 조일리 출신)

학 력

• 국제웅변대학부과수료 • 육군 정훈학교 특별교육단 공보학과 수료

경 력

• 연평리 농업협동조합 창립이사
• 화신인쇄사 대표 겸 제주인쇄 협동조합이사
• 민정당·민자당북제주군지구당 부위원장
• 북제주군의료보험조합 감사
• 초대·제2대 북제주군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수산분과) (현)
• 초대·제2대 북제주군의회의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제주군협의회 부회장(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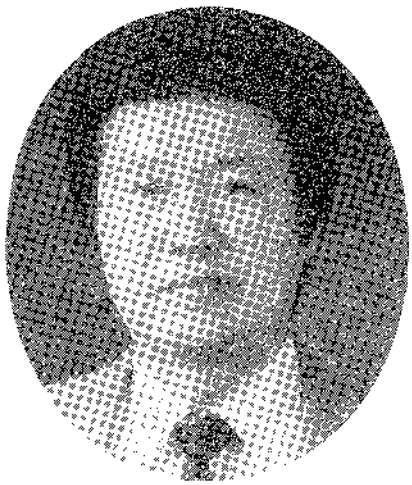
게재문

• (시) 주호의 민초 (洲湖의 民草) : 제민일보

• 통일을 대비한 국민의식의 전환 : 북제주군지

• 전통문화의 승계발전을 위한 소고 : 한라일보 3회 연재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敎育學博士 李 淳 珣

(바양동 출신)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敎授
濟州新聞社 論說委員
濟州敎育社會硏究院 院長

學校：濟州道 濟州市 我羅洞 1番地
(064)54－2163
自 宅 (064)55－0224
FAX (064)55－6103

돌바위 회 센타



청결하게
친절하게
아주싸게

주인아저씨 이 창 조
주인아줌마 김부미자

편리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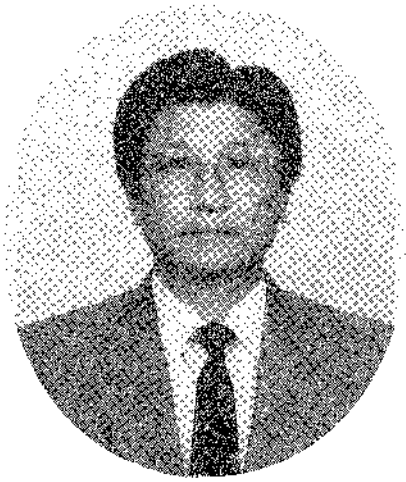
- 넓고 무한한 주차장
- 2층 연회석 완비
- 최신식 활어 수족관(각종 활어)
- 용고차 대기중
- 단체손님 대환영
- 예약 수시 접수중
- 부설 기념품 판매 및 각종 자판기
- 삼락도 슈퍼 운영

위 치

한려수도 해상공원과 노산공원이 함께 위치한 경관이 좋은 곳.
삼천포시 팔포매립지

전화 (0593)835—1500, 33—4566
광역삐삐 015—537—8765

*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채 균 배

(동천진동 출신)

경 력

- ○ '66. 9. 국립수산진흥원 기술관리과 근무
- ○ '77. 8. 국립수산기술훈련소 교수부 근무
- ○ '80. 4. 국립수산물검사소 제주지소 근무
- ○ '83. 4. 국립수산진흥원 제주어촌지도소 근무

상 훈

- ○ '78. 12. 농림수산부장관 표창
- ○ '85. 12. 국립수산진흥원장 표창
- ○ '87. 10. 농림수산부장관 표창
- ○ '90. 7. 수산청장 표창
- ○ '95. 12. 모범공무원표창(국무총리)

근무처 : 국립수산진흥원 제주어촌지도소 지도과장
제주시 외도동 500번지 (T. 42—2511)
주 소 : 제주시 이도2동 1135-5 (T. 58—8833)



김 항 근

— 1944년생, 하우목동 출신 —

학 력

- 연평초등·중학교
-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 한국방송대학교 행정학과

경 력

- 연평중학교 근무
-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근무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제주시지회 사무국장(현)

수상현황

- 문교부장관표창장 수상
- 내무부장관표창장 수상
- 제주시수협조합장표창장 수상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표창장 수상
- 새마을문고제주도지부회장표창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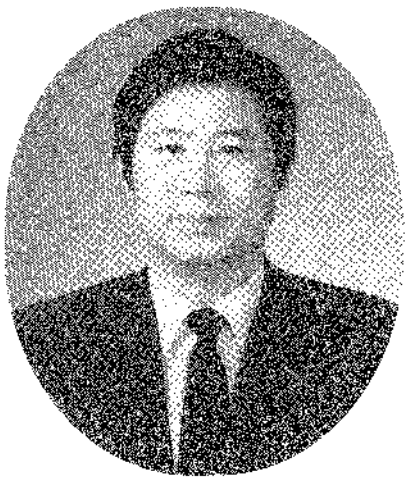
사회봉사

- 우[illegible]연하우새마을문고설립(회장)
- [illegible]정리청년연합회장(초대회장)
- 제주신문우도통신원역임(15년간)
- 제주연우회회장(현)
- 우도파이온스크럽총무이사(현)

가족사항 처 : 김춘화 자 : 김소영(제주대학교) 김소혜(제주전문대) 김충범(제주전문대) 김충현(한림공고)

제주시 화북1동 1943-17

전화 ┌ 사무실 : 22—2425, 50—7572, 50—7547
└ 자 택 : 21—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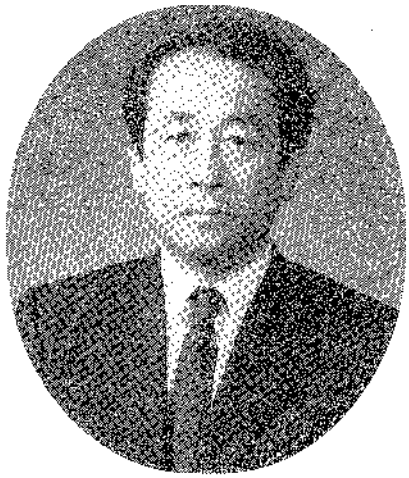
고 계 추

(하고수동 출신)

- 성산중학교
- 성산수산고등학교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반 수료
- 제주도농수산국장(현)
- 근정포장 수상

주소 : 제주시 노형동 1313-6 노형세기1차APT 609호

전화 : 064--42--7770(자), 46--1637(사)



김 순 두

(서천진동 출신)

- 연평초등·중학교
- 오현고등학교
- 제주교육대학교
- 한국방송대학교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제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 제주문화방송 아나운서실장, 편성국장, 보도국장
- 제주문화방송 창사30년 기획단장(현)

제주시 연동 313—23
전 화 (자) 064—46—5151
(사) 064—40—2751
핸드폰 011—693—6688



홍 대 수

(1945년 11월 1일생)

학 력

○ 연평초등·중학교 졸업　　○ 오현고등학교 졸업
○ 제주교육대학교 졸업

경 력

○ 제주교육대학교 학생회장
○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중앙대의원
○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원지위법제정촉구 특별위원
○ 제주시 교원연합회 대의원
○ 오현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 감사
○ 제주교육대학교 제5회 동창회 회장
○ 제주교육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D지구 우도라이온스클럽 이사

직장 : 제주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자택 : 제주시 이도2동 1167-17
(전화 57--6490)

동 해 상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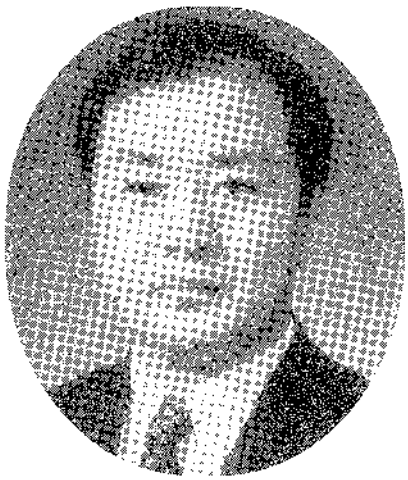
＊ 어패류 도매업, 자갈치어시장 내 ＊

대표 양 영 문

(하우목동 출신)

부산시 영도구 신선1동 188-29

☎ 246－0361



김 덕 민

(영일동 출신)

- ○ 연평초등 · 중학교졸업　○ 오현고등학교 졸업
- ○ 제주대학교 졸업
- ○ 삼성화재 제주지점장
- ○ 삼성화재 부산본부 부장(현)
- ○ 가족사항 처 : 임경숙　자 : 김현우, 김철우

주소 : 서울 도봉구 방학동 청구APT 109동 1006호
전　화 (직) 051－461－8770
(자) 02－3491－4660

김 갑 민

(영일동 출신)

○ 수원지방검찰청 근무
○ 마산지방검찰청 근무
○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계장(현)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APT 106동 1602호
(051) 261－2420

서 울 제 책 사

대표 이 희 성 (구. 박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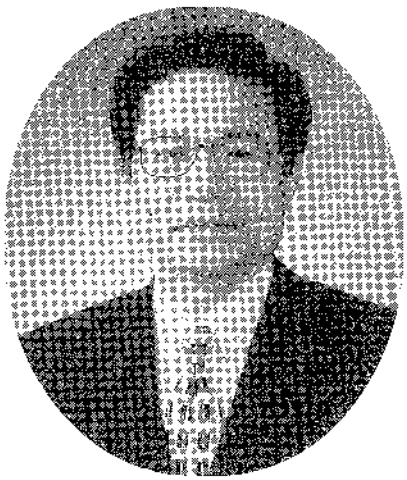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216-28

TEL (자)4 1 8 -- 2 3 6 6

(사)244—4210, 3535

휴대폰 011—592—4210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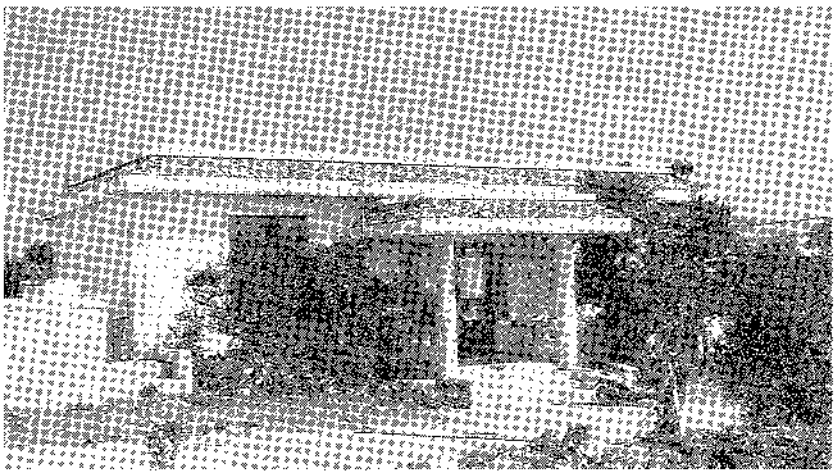
辯護士 **梁 承 富**

제주시 이도2동 1773-1

전 화 : 53－6301, 6302번

FAX : 53－0 0 0 6번

자 택 : 53－6 3 0 3번



천 진 리 사 무 소

이 장 윤 경 식　　개발위원장 양 민 언

역대이장 : 초대 여 달 현, 2대 고 순 환

우도면 천진리 1784-4　　전화(064) 83-0569 FAX 83-1671



서 광 리 사 무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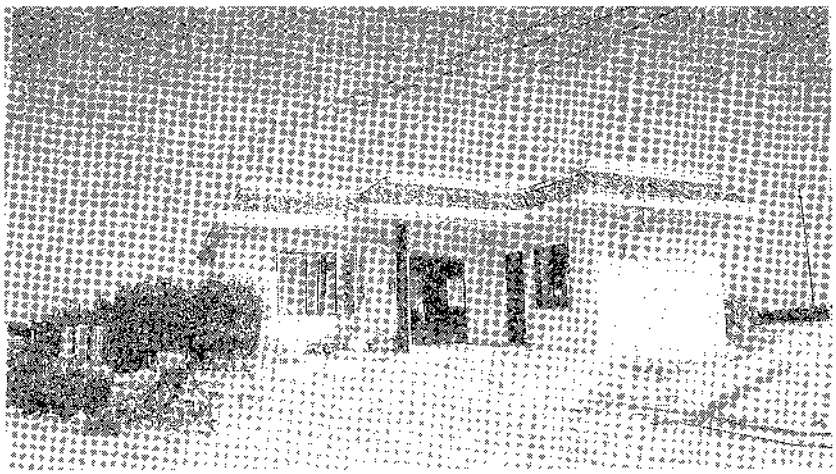
이 장 김 승 태　　개발위원장 임 봉 순

역대이장 : 초대 강순일, 2대 오종영, 3대 정만식

우도면 서광리 2173-1　　전화(064) 83-0044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풍요로운 오봉리건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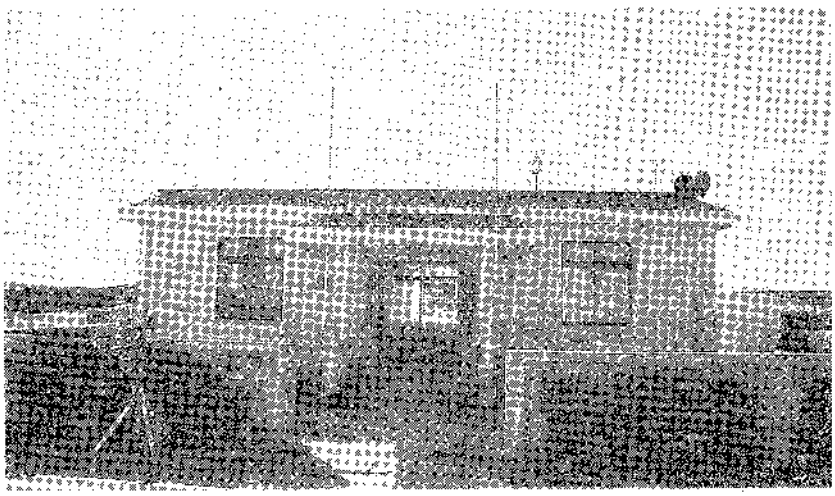


오 봉 리 사 무 소

이 장 고 재 수　　개발위원장 윤 복 일

역대이장 : 초대 강철석, 2대 고호수, 3대 한두영

우도면 오봉리 1011 – 1　　전화 (064) 83-0568



조 일 리 사 무 소

이 장 김 영 택　　개발위원장 윤 승 웅

역대이장 : 초대 한두경, 2대 김경찬, 3·4대 고창식, 5대 여완형

전화 (064) 83 – 0570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서귀우도향우회

고문 윤창헌　회장 고경오　부회장 신영훈

감사 우태진, 김재웅　총무 우철범

회　원

윤금홍, 김보생, 고경권, 고창선, 고광웅,
고유환, 고성훈, 이영만, 고근용, 김춘식,
김철규, 강은호, 고승찬, 공철만

양　석　송

(상고수동 출신)

우　도　상　회

심천포시 선구동 18—79

TEL (0593) 33—4202

高 桂 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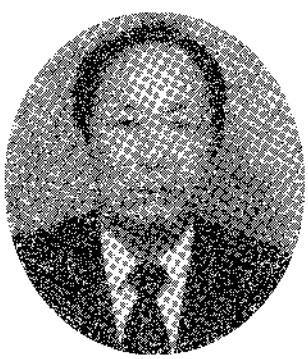


(하고수동 출신)

○ 濱坪初等學校 卒業
○ 釜山南星女子中高等學校 卒業
○ 濱坪初等學校 敎師
○ 在京牛島面民會 副會長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604-53
전화 : 832 — 7700

윤 희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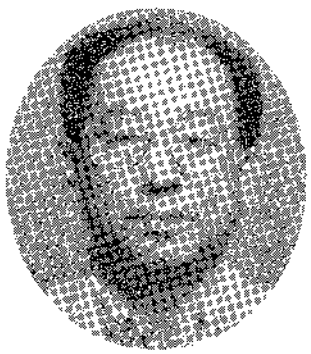
(서천진동 출신)

한국방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교직에서 정년퇴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경동APT 104동 606호

88明 貨運送

(海上·陸上 運送業)



(하우목동 출신)

代表 高 行 敎

釜山廣域市 中區 中央洞 1街 21－12
(삼성빌딩 402호)

電 話 : (051) 256－6326～7
휴대폰 : 011－560－3887
FAX : (051) 256－6328
呼 出 : 012－561－3887

身土不二 제주옥돔직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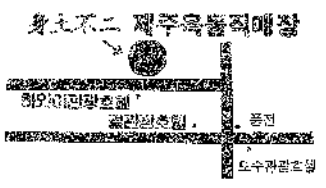
전화 한 통으로 제주천연의 청정해역에서
갓잡은 싱싱한 옥돔의 맛을 즐기십시요!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은
전화주문시 당일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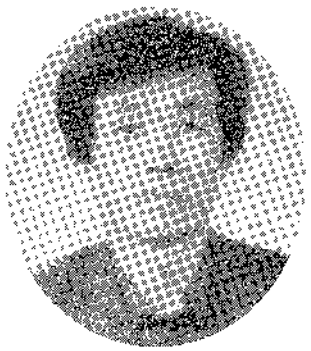
옥돔, 한치, 참조기,
고등어, 젓갈류, 미른문어,
갈치, 각종수산물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대표 양 순 길
〃 양 금 주



제주시 연동 279-7 (하와이관광호텔앞)
☎ 42－2868 · 012-696-5348



대표 고 형 우(계동)

잠수복전문제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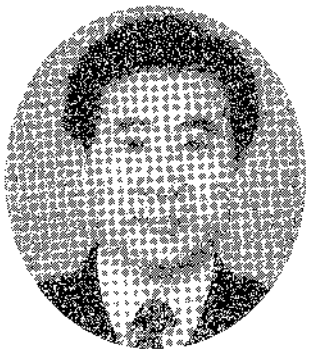
공 덕 상 사

취 급 품 목

잠수복, 수경, 오리발, 슈트,
기 타 잠 수 장 비 일 체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518 전화 94—7344

자택 : 제주시 삼도2등 1176-10 전화 57—4301



金 世 均

濟州第一中學校, 城山水高 製造科 卒業

東義大學校 中小企業大學院 修了

釜山專門大學 食品工學科 研究委員 (現)

富農冷凍食品株式會社 工場長 (理事) (現)

三進物商株式會社 保稅士 (現)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7 문화APT 416호

전화 248—6012

고 필 환

(서천진동 출신)

주식회사 **등 진**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709번지
(직) 463 — 0636
(자) 414 — 3724

統 一 産 業



(상고수동 출신)

(항만하역 · 수출입통관 · 운송관련업)

대표 고 항 수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19-27
전화 (사)051—469—0026(7)
(자)051—783—7224

신 영 구

(동천진동 출신)

수 산 업

삼천포시 서금동 2-3번지

TEL (0593) 33—9140

이 창 형

(비양동 출신)

유성산업주식회사

(총 무 부 장)

부산시 남구 용회동 76-4 남경빌라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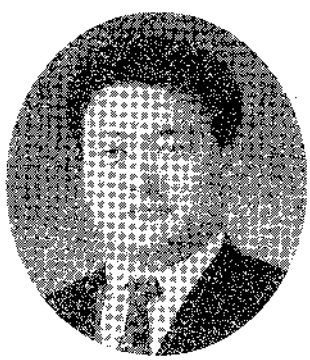
전 화 6 2 2 — 6 7 8 0

김 대 송

(서천진통 출신)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800-65

전 화 : 4 1 4 - 2 3 8 7



(1961년생 영일동출신)

한라통나무주택

(통나무주택전문)

대표 김 동 건

제주시 이도2동 1062-8번지

전 화 { 사무실 : (064) 24-2141 ~ 2
자 택 : (064) 47-5359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윤 석 찬

(서천진동 출신)

경 북 호 선 주

북제주군 우도면 오봉리(전흘동 거주)

전 화 83—0141

핸드폰 011—691—8816

강 환 전

(삼양동 출신)

주소 : 삼천포시 서금동 54

TEL : (0593)33—6073

고 정 욱

(하고수동 출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절영APT 209동 2003호

전 화 : (051)405—9517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金 乃 桓

○ 演坪初等學校, 完島中學校 卒業
○ 漢榮高等學校 卒業
○ 現 영동세브란스병원 勤務
○ 在京牛島面民會 副會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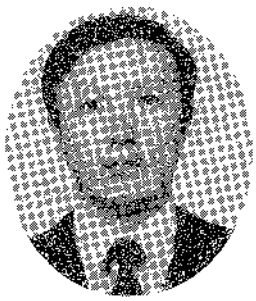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1가 274
전화 : 928 — 6609



韓 在 德

○ 演坪初等學校, 演坪中學校 卒業
○ 細花高等學校 卒業
○ 不動産 事業
○ 在京牛島面民會 副會長

주소 : 서울 도봉구 쌍문2동 631
전화 993 — 2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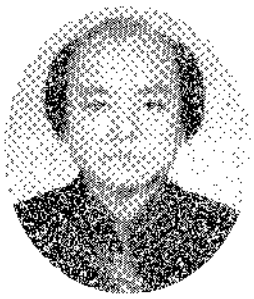


姜 斗 華

○ 演坪初等學校, 演坪中學校 卒業
○ 統營水産高等學校 卒業
○ 現 現代重機事業所 勤務

주소 : 서울 강서구 방화1동 607-101
전화 663 — 4786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金 武 成

필그린産業

(넥타이, 스카프 製造業)

○ 演坪初等學校, 釜山東洲中學校 卒業
○ 釜山東亞高等學校 卒業

경기도 성남시 신흥3동 3137
전화 (0342)734-2071

김 영 자

(영일동 출신)

삼천포시 서금동 145-5
TEL : (0593)32-3047

김 정 남

(1948년생, 하우목동 출신)

제주시 이호1동 569-1
TEL : 43-6593

김 용 호

(상우목동 출신)

경 동 석 유

부산시 남구 용호1동 82-4

(051)621－2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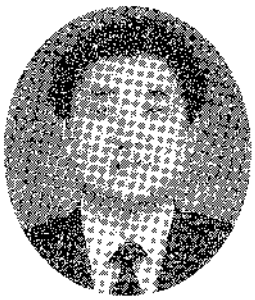
김 정 태

(상우목동 출신)

○ 제주대학교 어로학부 졸업

○ 동지상선 주식회사 근무

부산시 남구 용호동 일신크로바APT 102-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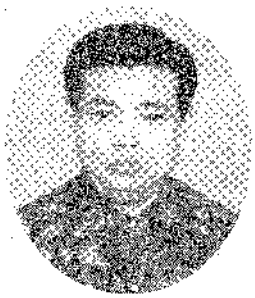


姜 光 一

○ 演坪初等學校, 五賢中學校 卒業
○ 濟州農業高等學校 卒業
○ 釜山産業大學校 行政學科 卒業
○ 釜山産業大學院 行政學科修了 碩士
○ 서울女子商業高等學校 敎師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361-37

전화 ┌ 자택 306－4946
　　└ 학교 873－3614



박 상 옥

월 일 사

＊ 작업복 · 단체주문 환영 ＊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2가 25
전화 417 — 2134



김 세 영

○ 성산수고 졸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고급관리자)수료
○ 새마을운동 제주도지부 총무과장
○ 제3대 우도향우회장('93)
○ 내무부장관 표창장 수상

주소 : 제주시 연동 312-2(도청내)
사무실 46—4001, FAX 46—0788
자 택 52—2742



康 永 喆
(1954년생)

學 歷

• 연평초등학교 졸업 • 연평중학교 졸업
• 세화고등학교 졸업 • 제주전문대학 졸업

經 歷

• 1979~1984 대우중공업(주) 근무
• 1984~현재 제주은행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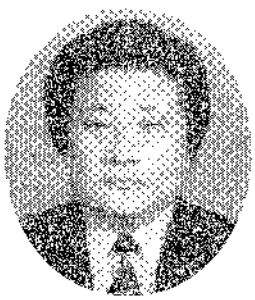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孔 光 洙

(1955. 10. 5)

○ 연평초등학교(30회) · 연평중학교(15회) 졸업
○ 제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추자면 총무계장
○ 구좌읍 총무계장
○ 조천읍 사회계장
○ 북군청 문화공보실 공보계장(현)
○ 본적 : 우도면 연평리 102(조일리)
○ 주소 : 구좌읍 세화리 1452



지도검사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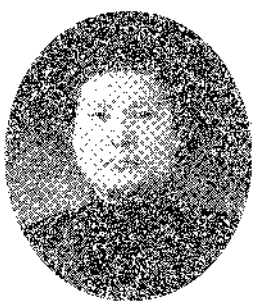
체 종 익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

제주시 건입동 940-3 현대APT 104동 703호

사무실 ☎ 47—4101~7

자 택 ☎ 55—0188



高 節 燦

삼화단란주점

○ 濱坪初等學校 30回 卒業
○ 濱坪中學校 15回 卒業
○ 濟州商業高等學校 20回 卒業
○ 제1 · 2대 우도항우회장(91, 92)
○ 제주운수 勤務

사무실 : 제주시 건입동 984-135
전화 57—2993

자 택 : 제주시 화북1동 1946-10 호북아파트 507호
전화 56-6906 삼화단란주점 56-0999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濱坪初等學校, 濱坪中學校 卒業

○ 三一工業社 社長(1級自動車整備業)

주소 : 서울 도봉구 미아3동 125의41

전화 [자택 989 — 8129
　　 [공장 293 — 3363

金 辰 鳳

흑염소 · 개소주 토끼 · 오리
각종녹용술제골 · 특수임가공
신토불이각종농수산물농축액(엑기스)호박 · 포도

동문건강원

대표 고 석 준

천명사주 · 궁합 · 택일
사업상담 · 음양체질감정 · 작명

동문철학관

사회 한국음양연구회 중앙이사
단체 제주시지부

지부장 고 석 준

제주동국민학교 서쪽 고려이비인후과옆
전화 22—8738 · FAX 22—8738
자택 58—0612

한국빵데리

대표 양 장 호

(자동차카센타)

제주시 오라2동 1189-1(운동장 야구장 서쪽)

(사) 44 — 6775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김 성 진
(조일리 비양동 91번지)

○ 연평초등학교 30회 졸업
○ 연평중학교 15회 졸업
○ 제주농업고등학교 63회 졸업
○ 주식회사 진성해운 상무이사

주소 : 제주시 도남동 70 수선화APT 가/606호
직장주소 : 제주시 건입동 984-133
전화
자 택 5 2 — 6 5 7 6
직 장 2 2 — 3 2 8 8
H · P 011-691-6576



이 영 훈

아 하 맞춤복 전문

양복, Y샤스, 호텔유니폼, 회사정복
징비복, 중고등학교 교복, 각종 특수복

제주시 칠성로 동쪽 입구 ☎55—2212
자택 : 건입동 현대아파트 106동 704호
☎ 56—1756



尹 英 裕

근무처 : 제주도청 지방재정과
제주시 연동 312-1
☎40—1114(교)
주 소 : 제주시 일도1동 113-1
일도수선화아파트 가동
103호 ☎52—7861
가족사항 : 妻 梁吉順, 1男1女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 演坪初等學校 卒業
○ 城山中高等學校 卒業
○ 陸軍少領 轉役
○ 서울 중화고등학교 敎師
○ 在京牛島面民會 顧問

高 德 煥

서울 중랑구 망우1동 염광APT
9동 103호 ☎ 493—1107

채 희 수

(전흘동 출신)

○ 연평초등·중학교 ○ 제주상업고등학교
○ 제주경찰청 보안과 근무

우도면 오봉리 855 전화 25—1323

조 일 금 속

＊ 스텐레스, 알미늄, 샷시, 잡철물, 용접 시공전문업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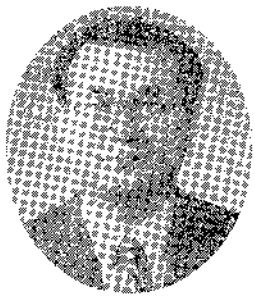
대표 김 호 민

주 소 제주시 화북1동 1966-16
(사)58—5973 호출기 012-694-2779
(자)55—5928 핸드폰 011-693-5973

한일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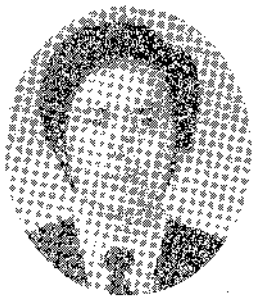
대표 전 상 우

제주시 일도1동 114(동문시장내)
전화 51—0323, 자택 58—5799



高 泰 英

본 적 : 우도면 천진리 1048
주 소 : 제주시 이도2동 405
영산홍주택 106동 107호
근무처 : 제주은행 전산부



金 治 現

○ 우도면 천진리 출신
○ 오현고등학교 졸업
○ 제주대학교 졸업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지속추진중앙위원회(참사)재직중

제주시 일도2동 신천지APT
101동 508호 ☎ 56—1675

고 계 찬

(상고수동 출신)

수 산 업

삼천포시 동금동 526—2
TEL (0593)32—9278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우 철 호

(전홀동 출신)

- 연평초등 · 중학교
- 제주제일고등학교
- 라곤다 호텔 근무

제주시 삼도1동 792-14

전화 56—0097

김 성 환

(동천진동 출신)

삼우공인중개사사무소

제주시청 정문 앞

(사) 58 — 3089

(자) 53 — 2608



김 용 민

(동천진동 출신)

○ 연평초등, 중학교
○ 성산수산고등학교
○ 제주체신청 근무

제주시 화북1동 1967-26
동아리주택 506호
(직)57—0100 (자)57—8435

최 철 호

(비양동 출신)

신우전기 근무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227-4

전화(051)756-3839

牛島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한 재 식

(비양동 출신)

○ 연평초등·중학교
○ 군산수산전문대학

부산시 남구 대연4동 1125-1
전 화(051)625-2114

고 철 훈

(비양동 출신)

자 영 업

부산시 남구 용호동
협진태양APT 4동 406호
전 화(051)625-0575

고 현 환

(서천진동 출신)

- 오현고등학교
- 제주대학교 법학과
- 남주개발주식회사

서귀포시 서홍동 397-116
전 화 (사)39-3897
(자)62-6109

김 현 민

(영일동 출신)

- 연평초등·중학교
- 세화고등학교
- 제주대학교 법학과
- 서귀포시청 기획감사실
  국제협력계장(현)

전화 (사) 39-5189
(자) 32-9818

◈ 편찬위원

고　　문 : 신인홍, 우근민, 홍희종, 우봉수, 우봉호, 김정항, 고창보, 강기현, 김용관, 김계환, 고용숙, 강상호, 정학준, 정찬영, 오영종, 김항빈, 양풍도, 김완택, 김두영, 김부대, 김항윤, 고계화, 오술생, 윤봉춘, 이순국(무순)

명예위원장 : 고창도

위 원 장 : 김항구

부위원장 : 고병수(상임), 오영돈

총　　무 : 고호수

위　　원 : 양계영, 한두경, 강철석, 김경찬, 여달현, 김준택, 고운팔, 강안근, 한두영, 전상만, 윤국웅, 윤경석, 김제민, 고명찬, 양순향, 고재수, 고의환, 양순규, 공승남, 김석송, 윤승웅, 고이택, 윤석찬, 김승태, 정만식, 고창식, 강순일, 김철수, 김항자, 고혜동(무순)

◈ 지구별 추진위원

1) 제주시지구

위원장 : 강영길

위　원 : 윤철영, 김용관, 양순김, 이휴성, 김중학, 고계택, 김영국, 김경국, 고계동, 고계환, 고경환, 정만화, 고수환, 강성보, 김세영, 강영식, 강영철, 김치만, 김영수, 한정우, 고범환, 부태만

2) 서귀포시, 남제주군지구

위원장 : 우태진

위　원 : 윤창헌, 고광웅, 임봉순, 김재웅, 김용봉, 고근웅, 김현민, 김춘식, 강은호

3) 북제주군지구

위원장 : 고민환

위　원 : 강용길, 고창혁, 윤순삼, 김금용, 윤채헌

4) 서울지구

위원장 : 김두영

위　원 : 오영종, 고덕환, 김내환, 고철환, 이안태, 윤석만, 전상구, 홍신길

5) 부산지구

위원장 : 김항빈

위　원 : 고창보, 정찬영, 강상호, 이광삼, 이방헌, 김도민, 김세균, 고치영

6) 경남지구

위원장 : 이창조

위　원 : 정성준, 윤석봉, 고일수, 김홍식, 신영구

7) 경북지구

위원장 : 한재윤

위　원 : 김중근, 김평종, 이성율, 김계환

8) 전남지구

위원장 : 이기호

위　원 : 송상옥, 고정석

9) 일본지구

위원장 : 김용덕

위　원 : 정찬흡, 김두환, 고정백, 김필환, 오광성

집필위원

(1993년 2월 집필당시, 가나다순)

성명	소속	직위	연구분야	학위	집필분야	비고
강창언(姜彰彦)	제주대박물관	연구원	미술사		역사유적	
고광민(高光敏)	제주대박물관	연구사	민속학	문학석사	어로민속	
고재환(高在煥)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국어학	문학박사	민요속담방언	
고창석(高昌錫)	제주대인문대	교수	제주도사	문학석사	역사	
고충석(高忠錫)	제주대법정대	교수	행정이론	행정학박사	행정	
김영돈(金永燉)	제주도	연구관	민속학	문학박사	해녀	전제주대교수
김찬흡(金燦洽)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향토사	학사	교육	
박서동(朴瑞東)	태화인쇄사	대표			지명유래사진	
서두육(徐斗六)	제주대해양대	교수	어구공학	이학박사	어업	
신행철(申幸喆)	제주대인문대	교수	자연사회학	사회학박사	사업구조	
양영철(梁永哲)	제주대법정대	교수	정책학	행정박사	개발행정	
양진건(梁鎭建)	제주대사범대	조교수	교육사	교육학박사	교육	
유철인(庾喆仁)	제주대인문대	교수	문화인류학	인류학박사	가족	
윤정수(尹正守)	제주대해양대	교수	해양지질학	이학박사	지형지질	
이기욱(李起旭)	제주대인문대	교수	인류학	문학박사	종교	
이덕희(李德姬)	DHM하와이환경계획연구소장	소장			주민참여	
이용필(李龍弼)	제주대자연대	교수	식물분류학	이학박사	동식물	
이청규(李淸圭)	영남대	교수	고고학	박사	역사유적	
정공흔(鄭公昕)	제주대	교수	선박유용		선박교통	
현용준(玄容駿)	제주대	교수	구비문학	사회학박사	무속세시풍속	

편 집 후 기

1992년 「牛島誌」를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시작한지 4년여가 흐른 지금, 편집후기를 쓴다.

고병수씨 주관아래 우도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시에서 편집위원장, 편집주간, 지역별 추진위원장 등을 뽑는 수순을 밟았다.

편집위원회는 복차 가편집을 한 후 집필위원을 선정, 편찬위 · 편집위 · 집필위가 모인데서 우도지 출판배경을 1차 설명하고, 다시 집필위원들을 우도에 초청 유지들과 2차 설명회를, 3차는 서울, 부산, 삼천포 등지에서 가졌다.

원고의뢰, 협찬의뢰, 원고수합 후 우도에서 공청회, 다른 지역은 원고를 복사해서 보냈다.

광고문안 · 사진접수, 협찬금 수금, 원고 1교 · 2교 · 3교정, 사진자료 수합, 현지촬영 4회, 마지막 교정(4교), 다시 협찬, 편집위원 전체회의, 편집, 출판, 배부계획 수립, 출판기념회, 「牛島誌」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시작했는지, 후회도 하고, 그렇다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는 답답함을 참으며 살아온 4년여를 이 지면에 다 표현할 길은 없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퇴근후에 모여 사명감 하나로, 자료도 없고, 출판비도 없고, 맨주먹 싸나이들의 고뇌라니…

때로는 높은 음으로 다투고, 한잔 술에 「고향무정」이나 부르며 그나마 이 작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편찬위원 · 추진위원 · 편집위원 모두의 저력으로 돌린다.

고향에 사는 사람이 2천여, 제주시 3천2백, 부산, 서부경남, 서울 등지에 2천여명, 7천여 우도민의 정성을 모아 이 책은 만들었다.

지명유래 · 사진촬영을 해주신 태화인쇄사의 박서동 사장, 제지를 써 주신 창봉 박동규님, 항공사진 · 해녀사진 등 자료를 주신 제민일보 서재철 국장, 3교 · 4교정을 맡아주신 제주대학의 양영길, 김동윤님, 협찬자 여러분,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잘못된 내용이나 미흡한 것은 다음에 올 편집진들에게 넘긴다.

1992년 6월에 쓴 「牛島誌」 발간 취지문을 편집후기에 실어 기록으로 남긴다.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 한다.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살아 온 우도의 근원을 알아보려 한다.

역사와 더불어, 선조들의 살아있는 숨결과 더불어, 그리하여 그 위대한 개척의 정신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려 한다.

빌레밭을 일구며 아버지의 한숨은 얼마나 깊었고, 흰 눈발 내리는 바당에 들어 "호이, 호이" 어머니의 숨비질 소리에는 한많은 눈물이 또한 얼마나 고였던가…

…

죽어있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우리의 향토사를, 더불어 살아온 소섬 사람들의 끈적끈적한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牛島誌〉에는 담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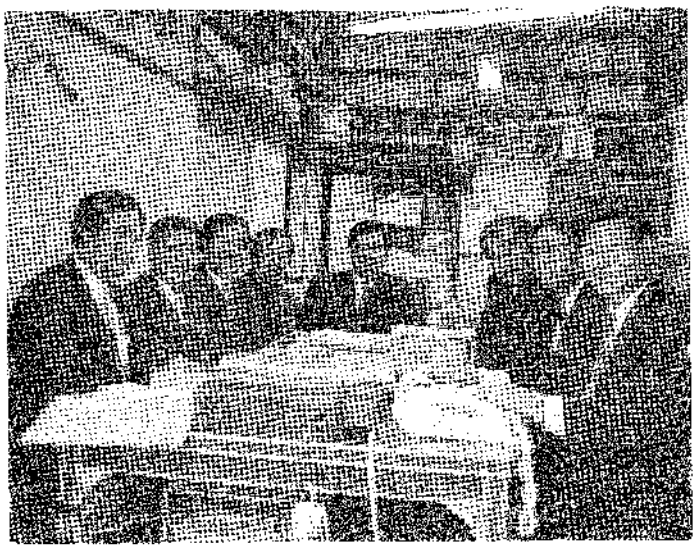
제주도의 가장 동쪽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섬, 제주 섬의 방파제가 되어 태평양의 거센 물결을 막아주는 우도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사를 한 권의 책에 담아 영원한 유산으로 후대들에게 남기려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며, 우리는 이 숙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역사앞에 떳떳한 우도 사람으로 남으려 한다.

1996년 11월

우도지 편집위원을 대신해서

편집주간 김 순 두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이 순 형,
편 집 주 간 : 김 순 두
간사(원고) : 김 항 근, 간사(광고) : 강 영 길
위 원 : 채군배, 김익환, 고계추, 홍대수, 고영환, 김세도, 김덕린, 고범환, 윤문유, 고희전

牛島誌

題字 朴 東 圭

發 行 / 牛島誌編纂委員會
編 輯 / 牛島誌編輯委員會
印 刷 / 泰 和 印 刷 社
發行日 / 1996年 11月 日

〈非賣品〉